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2.8.31 (수)	대상 문화재	제2로 직봉(第2路 直烽)	
조 사 자	성 명	전공분야	소속	직위(직책)
	○○○	한국사	○○대학교	명예교수
	○○○	성곽	○○대학교	교수
	○○○	한국사	○○대학교	교수
	○○○	고고학	○○대학교	교수
	○○○	고고학	○○○○문화재연구소	전 소장
	○○○	고고학	○○박물관	관장
	○○○	성곽, 봉수	○○ 경남직역본부	○○ 사업단장
	○○○	성곽, 봉수	○○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부장
○○○	건축사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주 요 지 정 사 항 검 토	①문화재 종별	사적		
	②문화재 명칭	제2로 직봉(第2路 直烽)		
	③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보호물 > < 보호구역 >		
보 호 관 리 사 항 검 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세부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22년 8월 31일</div> 제출자 : 문화재위원 ○○○ · ○○○ · ○○○ · ○○○ ○○○○ 문화재연구소 ○○○, ○○박물관 ○○○, ○○○ 문화재전문위원 ○○○ · ○○○				
문화재청장 귀하				

제2로 직봉(第2路 直烽)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2.08.31.(수)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 ○○○ · ○○○ · ○○○, ○○○○문화재연구소
○○○, ○○박물관 ○○○, ○○문화재연구원 ○○○, 문화재전문위원
○○○ · ○○○

1. 문화재 종류

- 사적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문화재명은 봉수 유적의 대표적인 직봉 노선을 근간으로 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전체 명칭 앞에는 전체 5개의 직봉 노선을 상징하는 제2로 직봉으로 하고 그 뒤에는 개별 봉수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으로 한다.
이는 『문화재명칭 부여기준』(문화재청, 2010) 원칙에 따라 봉수명칭 앞에 현 행정구역 소재지인 ‘지역’을 표기하고, 봉수 명칭은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이후 조선 최후기 봉수망을 알 수 있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의 명칭과 한자표기를 따라 ‘○○봉수(○○烽燧)’로 표기한다.
- 따라서, 최종 봉수명칭은 ‘제2로 직봉-지역명+봉수명+봉수 유적(釜山 鷹峰烽燧遺跡)’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현 지정하려고 하는 각 봉수 명칭을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2개소)	제2로 직봉-성남 천림산 봉수 유적 제2로 직봉-용인 석성산 봉수 유적
충북(4개소)	제2로 직봉-음성 망이성 봉수 유적 제2로 직봉-제천 오현 봉수 유적 제2로 직봉-충주 마산 봉수 유적 제2로 직봉-단양 소이산 봉수 유적
울산(1개소)	제2로 직봉-울산 부로산 봉수 유적
경남(1개소)	제2로 직봉-양산 위천 봉수 유적
경북(8개소)	제2로 직봉-영천 성산 봉수 유적 제2로 직봉-영천 어음동 봉수 유적 제2로 직봉-영천 성황당 봉수 유적 제2로 직봉-의성 계관현 봉수 유적 제2로 직봉-경주 집포현 봉수 유적 제2로 직봉-안동 봉지산 봉수 유적 제2로 직봉-봉화 창팔래산 봉수 유적 제2로 직봉-봉화 용점산 봉수 유적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2로 직봉의 개별 봉수유적의(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은 별첨함.

- 2로 직봉 유적의 제2거는 직봉과 10개소의 간봉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백산맥의 주요한 영로(嶺路)를 넘는 노선이 모두 봉수로(烽燧路)가 되었으며, 가장 동쪽의 죽령(竹嶺)을 넘는 노선이 직봉(直烽)이 되고, 중앙의 통로인 계립령(鷄立嶺)을 넘는 노선과 보다 서쪽의 추풍령(秋風嶺)을 넘는 노선이 주요 간봉(間烽)이었다. 따라서 제2거 노선의 경우 직봉과 간봉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구분의 여지가 적었으며, 동남쪽 해안지역에서 최대한 빨리 경보를 서울 한양(漢陽) 도성(都城)으로 연락하기 위한 방법이었다.¹⁾
- 제2거 노선 봉수의 설치목적은 고려 말부터 대마도 방면에서 침입하는 왜구의 침입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고려말의 문인인 이승인(李崇仁, 1347~1392)은 『도은집(陶隱集)』에 왜구의 침입과 폐해, 그리고 요충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전략)-- 해도(海島)의 조무래기 오랑캐들이 감히 변경을 엿보기 시작하였으니, 경인년의 왜구가 바로 그것이다. 그로부터 나라의 형세가 급격히 쇠퇴하면서 경신년과 신유년에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이나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병화(兵禍)를 당하였다. --(중략)-- 영일(迎日)은 계림(鷄林)의 속현으로, 동쪽 변경에 끼어 있고 그 치소(治所)가 또 통양포(通洋浦)를 굽어보고 있으니, 실로 해구(海寇)가 침입하는 요충이라고 하겠다. --(하략)--

(『陶隱集』 卷4, 文, 迎日縣新城記)

- 제2로는 직봉 외에 전체 5거의 노선 중 가장 많은 10개소의 간봉을 두었다. 이는 제2거 노선이 영덕 광산봉수(廣山烽燧)를 북방 한계선으로 하고, 남해 설흘산봉수(雪屹山烽燧)를 남방 한계선으로 하는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의 긴 해안선을 감시·조망해야 했기 때문이다.
- 남해안은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지형상 크고 작은 반도(半島)와 만(灣)·곶(串)·도서(島嶼)가 많아 해안선이 복잡한 곳이다. 이중 남해안 대부분의 연변봉수가 밀집된 채 분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가덕도와 거제·통영·남해는 육지와 인접하여 바다를 향해 돌출되어 있는 도서이다.
- 제2로 각 노선의 봉수가 초기(初起)하거나 소재하였던 곳은 영덕·포항·울산·부산·창원·진해·마산·거제·고성·통영·사천·남해 등 경상도의 동·남해 연안이다. 이들 지역에는 연변봉수(沿邊烽燧)와 권설봉수(權設烽燧)가 혼재하고 있다. 그리고, 문헌 기록이 없으며 초축시기와 운용상황이 불분명한 요망(瞭望)·망대(望臺)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 또한, 시기적으로 치폐(置廢)와 이설(移設) 및 복설(復設)을 통해 초축시기와 대응

1)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閔慶 炭項烽燧 地表調查報告書』, 2002, p.21.

봉수를 달리한다. 이외 동·남해안 별로 해발고도와 구조 및 평면형태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신호전달 체계상 중앙으로 연결되는 노선의 봉수는 경상 → 충청 → 경기 등 산지가 많은 내륙의 고지로 북상하면서 구조·형태가 점차 내지화(內地化)하고 있다. 아울러 연변과 내지의 접점지역(接點地域)에 있는 봉수는 입지·형태적으로 연변과 내지의 복합형태(複合形態)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간봉노선은 단지 본읍·본진에만 응하였던 소수 연변·권설봉수만이 속하기도 하였다.

- 조선 최후기 봉수망을 알 수 있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에 제2거 직봉은 부산 다대포진 응봉봉수에서 초기하는 노선으로 총 44기가 있다. 구봉(龜峰) → 황령산(荒嶺山)을 거쳐 계명산(鷄鳴山)에 이르면 내지화가 시작된다. 그다음 양산 위천(渭川)부터 성남 천림산(天臨山)에 이르기까지의 40기는 토·석축의 방호벽 내·외 연조 혹은 드물게 연대를 갖추거나 연대+호가 확인되는 봉수(군위 토을산봉수)도 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2로 직봉의 개별 봉수유적의(연혁 유래 및 특징)은 별첨함.

■ 봉수의 연혁

- 봉수는 횃불과 연기가 합쳐진 용어로 대략 수십리의 일정한 거리마다 후망의 요지가 되는 산정에 봉수대(연대)를 두어 변방의 위급한 소식을 주연야화의 방식으로 중앙에 전달하는 군사통신수단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봉수제는 고려시대의 봉수제를 세종대에 이르러 새롭게 정비하여 1895년까지 운영되었는데 전국을 5거 직봉으로 편제하여 북방과 연변의 방어를 강화하고 인민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1) 봉수제의 시작 - 고려시대의 봉수

기록상으로 우리나라 봉수제의 확실한 성립은 고려 12세기 중엽부터이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붉은 기를 휘날리는 배를 발견하면 횃불로서 알려라」는 기록¹⁾, 『삼국사기』에 「烽峴」이나 「烽上」 등의 명칭²⁾,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양군 고적조에 안장왕을 맞기 위하여 봉화를 올렸다는 기록³⁾ 등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봉화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다만 이것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운영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호를 주고받기 위한 것이라면 고려나 조선시대에 운영되었던 봉수제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북 장수지역 가야봉수와 관련한 유적의 발굴조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봉수제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유적의 성격과 상호 대응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⁴⁾

1) 『三國遺事』紀異 제2 「駕洛國記」遂命留天干押輕舟，持駿馬，到望山島立待 申命神鬼干就乘站望山島，京南島嶼也。乘站，輦下國也，忽自海之西南隅，掛緋帆，張茜旗，而指乎北。留天等先舉火於島上，則競渡下陸，爭奔而來。神鬼望之，走入闕奏之。

2)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 10年 冬十月 烽峴，高句麗本紀 第二 烽上王 一云 雉葛，諱 相夫 或云 敵矢婁，西川王之太子也

3) 『新增東國輿地勝覽』卷十一 京畿 高陽郡 古跡 古高峯縣。在今治西十里。峯，一作“烽”。○金富軾云：“漢氏美女於達乙省縣高山頭，然烽火迎安藏王，故後名高烽。”

4) 조명일, 2018, 「전북 동부지역 봉수에 대한 검토」 『한국의 봉수연구』 한국성곽학회, 77~96.

본격적인 고려시대의 봉수제는 의종3년(1149)에 봉수의 거화수를 규정하고, 봉수소에는 하급장교인 방정 2명과 봉수군으로 백정 20명씩을 배치하는 한편 평전 1결씩을 주어 봉수군에게 생활의 대책을 마련하여 준 것이 서북면병마사 조진약이 올린 글에 나타난다.¹⁾ 말하자면 의종 때에 와서야 비로소 봉수의 구체적인 규칙이 마련되었고, 야화와 주연으로 구분하였으며, 적과 접근하고 있는 변경지역과 해안지방의 정세에 따라서 거화수를 정하고 봉수대 운영을 위한 인원구성과 녹봉이 정해진 것이다. 당시 금과 국경을 접하던 지역의 서북면병마사가 봉수 방식을 정하자고 건의한 배경이 당시 금과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조치로 봉수의 운영 방식을 정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전까지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봉수제가 운영되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런데 인종 1년(1123)에 송나라 사신 서공이 남긴 『고려도경』에서 봉수를 운영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송나라의 사신들이 배를 타고 흑산도에 도착하면 언제나 야간에는 항로의 주변에서 산정에 있는 봉수소의 불을 발견할 수 있었고, 봉화는 순차적으로 밝혀서 임금이 있는 왕성에까지 도착하였다고 한 기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²⁾ 이와 같은 기록은 흑산도에서 왕성까지 봉화로 신호가 이어지는 봉수가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료인데 이 기사를 조진약의 상소와 함께 보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까지 봉수가 운영되기는 하였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하는 체계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충정왕 3년(1351) 8월에 송악산에 봉수대를 설치하였다고 하였는데³⁾ 그 이전에는 고려시대 봉수가 변방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로 운영되다가 이때 이르러 개경의 송악으로 집결하는 봉수망이 성립된 것인지 잘 알 수 없다.⁴⁾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이때부터 왜구의 침입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1223년~1265년까지 약 40년 동안 왜구의 침입은 일부 경상도 연안 일대에 한정되어 있기도 하여 그리 심각하다고 할 수 없었으나 경인년(충정왕2년, 1350) 이후부터 1391년까지 약 40년간의 왜구 침입은 그야말로 심각한 지경으로 40년간 591회나 침구하여⁵⁾ 고려의 지방 행정은 크게 타격을 입고 재정은 파산상태로 이르러 고려의 멸망

1) 『高麗史』 志 兵制 五軍 毅宗三年八月 西北面兵馬使曹晉若奏, “定烽式, 平時, 夜火晝烟各一, 二急二, 三急三, 四急四, 每所防丁二·白丁二十人, 各例給平田一結.” 조진약의 상소로 봉수제가 확립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고려의 봉수제는 역제가 이미 고려 성종과 현종 대에 중앙집권 과정에서 확립된 사실에 비추어, 봉수제도 역시 역제와 함께 고려의 성종~현종 연간에 편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조선 세종 때에 이루어진 시책과 같이 조진약의 상소는 이미 편성되어 있는 각 봉수에서 정세의 위급에 따라 올릴 거수와 봉수를 지킬 요원의 배치 및 그들에 대한 경제적 뒷받침 등을 정한 봉수식 규정의 정비였다고 보는 것이다.

2) 『高麗圖經』 제35권 海道 2 黑山. 在白山之東南. 相望甚邇. 初望極高峻. 逼近. 見山勢重複. 前一小峯. 中空如洞. 兩間有澳. 可以藏舟. 昔海程. 亦是使舟頓宿之地. 館舍猶存. 今取道. 更不拋泊. 上有民居聚落. 國中大罪得貸死者. 多流竄於此. 每中朝人使舟至. 遇夜於山顛. 明火於燧燧. 諸山次第相應. 以迄王城. 自此山始也. 申後舟過.

3) 『高麗史』 志 兵制 五軍 忠定王三年八月 置松嶽山烽所.

4) 김주홍은 이 기사로 고려가 수도에 경봉수를 갖추어 개경의 송악산으로 집결하는 봉수망이 성립되었다고 보았다.(김주홍, 2011, 『조선시대 봉수연구』 서경문화사. 58~59.)

5) 『高麗史』 世家 禔王 3년 以密直副使李仁立爲西京副元帥, 判密直韓邦彥爲安州元帥. 遣判典客寺事安吉祥于日本, 請禁賊. 書曰, “本國與貴邦爲隣, 雖隔大海, 或時通好. 歲自庚寅, 海盜始發, 擾我島民, 各有損傷, 甚可憐愍. 因此, 丙午年間, 差萬戶金龍等報事意, 即蒙征夷大將軍禁約, 稍得寧息..”

을 재촉한 전쟁이었다.¹⁾ 이 시기 이후 남아 있는 봉수 관련 기사는 원의 일본정벌과 관련한 것을 제외하면²⁾ 대부분 왜구 침입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것이다.

먼저 우왕3년(1377) 개성부에서 올린 상소에 산성과 가까운 곳을 택해 편의에 따라 보수하고 봉수를 설치하여 서로 바라보게 하여 적과 공방전을 벌릴 때 서로 구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은³⁾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산성을 축조하고 봉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어염 생산과 목축의 마릿수를 늘려야 한다는 조준의 상소와⁴⁾ 둔전을 개간하여야 한다는 헌사의 상소에도⁵⁾ 사람들을 수군만호부에 전속시켜 성과 보루를 수축하게 한 후 노약자를 그 곳에 모여 살게 하며 척후병을 멀리 보내고 봉화를 정확히 올리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정몽주는 박위가 김해 분산성을 수축하여 왜구를 격파한 공을 치하하면서 김해 백성은 평소에 사변이 없으면 산성에서 내려와 밭을 갈고 바다에 들어가 고기 잡다가, 봉수를 보게 되면 처자를 거느리고 성에 들어갈 것이니, 배개를 높게 베고 누워도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⁶⁾

그리고 이색은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려면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백성들을 징발하고 좋은 무기들을 갖춘 다음, 요해처에 진을 쳐서 군대의 위용을 과시하고 봉수체계를 잘 지킴으로써 왜인들의 눈을 현혹시켜야 한다고 하였다.⁷⁾ 공민왕 때 진중시어사로 승진한 후 전라도 안찰사로 나간 전녹생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는 방책으로 차라리 모든 수비대를 없애고 주군으로 하여금 봉수를 철저히 시행하고 척후를 엄격히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고⁸⁾ 설장수는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은 높이 쌓고 참호는 깊게 파서 성위에는 망루를, 성문에는 조교를 설치해 두고 나머지 방어

1) 李頌, 1999, 『第4章 庚寅年 以降の倭寇』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119~192.

2) 『高麗史』 世家 忠烈王 28년(1302) 임인년 十二月 庚申朔 又上中書省書曰, “照得, 小邦最係邊遠重地, 隣近未附日本國, 自於至元十八年, 大軍過海征進之後, 至元二十年, 欽奉世祖皇帝聖旨, 委付當職, 行征東省事. 威鎮邊面, 管領見設慶尙道合浦等處, 并全羅道兩處鎮邊萬戶府. 摘撥本國軍官軍人, 見於合浦·加德·東萊·蔚州·竹林·巨濟·角山·內禮梁等, 所把隘口去處及耽羅等處分俵, 置立烽, 暗藏船兵, 日夜看望巡綽, 專一隄備日本國, 賊軍勾當, 到今不曾有失節次. 曾獲日本賊人, 移咨省院, 聞奏了..”

3) 『高麗史』 辛禡三年 開城府狀曰, ... 其三, 外方山城修補事. 則曰唐鑑, ‘以高麗因山爲城, 爲上策也.’ 山城相近之地, 隨宜修葺, 使之烽燧相望, 攻戰相救, 可也.

4) 『高麗史』 列傳 趙浚 諸道魚鹽畜牧之蕃, 國家之不可無者也. ... 專屬水軍萬戶府, 修立城堡, 屯聚老弱. 遠斥候, 謹烽火. 居無事時, 耕耘魚鹽鑄冶而食, 以時造船. 寇至, 清野入堡, 而水軍擊之. 自合浦以至義州皆如此, 則不出數年, 流亡盡還鄉邑, 而邊境州郡既實, 諸島漸次而充...

5) 『高麗史』 兵志 屯田 禡王14년 8월 憲司上疏曰, ... 專仰水軍萬戶府, 修立城堡, 屯其老弱, 遠斥候謹烽火, 居無事時, 耕耘·漁鹽·鑄冶而食, 以時造船, 寇至, 則清野入堡, 水軍出船擊之. 自合浦, 以至義州, 皆如此, 則不出數年, 流亡盡還其鄉邑, 而邊境州郡既實, 則諸道漸次而充. 戰艦多而水軍習, 海寇遁而邊郡寧, 漕轉易而京師富...

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2 慶尙道 金海都護府 城郭 邑城. 石築. 周四千六百八十三尺, 高十五尺. 內有泉二十八, 川一, 四時不涸. ○鄭夢周記: : ... 將使金海之民平居無事, 則下山而田, 入海而漁, 及見烽燧, 收妻孥而入城, 則可以高枕而臥矣, 孰謂設險自固爲拙策也? 余將訪古伽倻之墟, 當舉酒於新城之上, 以賀朴侯政績之有成也.

7) 『高麗史』 列傳 李穡 近年, 倭寇侵疆, 至貽聖上宵旰之憂. 世臣老德, 相與謀猷, 其所以處之方, 俱得其要. 然臣以父憂, 居濱海之地, 謀於野者熟矣. 今之爲計, 不過有二, 曰陸守, 曰海戰. ... 臣以爲, 陸守則發平居之民, 利其器械, 屯其要害, 盛軍容, 謹烽火, 以眩倭人之目.

8) 『高麗史』 列傳 田祿生 ... 遷殿中侍御史, 出按全羅道, 奏曰, “自有倭寇以來, 一道置戍, 多至十八所. 軍將虐州郡以立威, 役戍卒以濟私, 遂使凋弊逃散. 及寇至, 更徵州郡兵, 謂之烟戶軍, 未見禦寇, 祇以害民. 不若罷諸戍, 令州郡謹烽火嚴斥候, 以應變. 如不得已, 當審其要害, 省其戍所, 則民力舒而軍餉節矣.”

용 기계는 상황에 따라 배치해 두고 성과 참호 사이에 품자 모양의 작은 구덩이를 많이 파고 녹각 모양의 목책을 세워 왕래를 막고 야간 경비를 엄격하게 하며 봉화를 철저히 운용할 것을 주장하였다.¹⁾

이상과 같은 기사를 살펴보면 충정왕 2년(경인년) 이후로 봉수는 모두 왜구의 침입과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으므로 고려의 봉수가 비록 서북면병마사 조진약의 상소로 시작된 것이 북방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충정왕 3년(1351, 신묘년) 송악산에 봉수대가 설치되어 개경으로 봉수가 모이게 한 것은 왜구의 침입이 격화된 것이 그 원인이 되었고 만약 송악산 봉수대를 경봉수로 보아 전국적인 봉수망 성립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왜구의 침입이 전국적인 봉수망 확립에 큰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조선시대 봉수제의 성립

조선 개국 초기에도 봉수제는 고려의 봉수제를 이어받아 운영되고 있었다. 동북면도순문사가 경원 지경에 흠어져 사는 군민을 위하여 망을 볼 수 있는 높은 봉에 봉수를 설치하여 척후를 부지런하게 하여야 한다는 사의가 있었고²⁾ 태종6년 조수일 등을 거제도 봉졸로 장배한 사실이나³⁾ 태종8년 연해 방어 강화를 위하여 만호와 천호 등을 단속할 목적으로 해도찰방을 하삼도에 보내면서 봉화로서 해상을 후방함은 군사상 긴요한 일이니 만약 이를 소홀히 하는 자가 있으면 엄히 다스리라고 한 것은⁴⁾ 봉수제가 계속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또한 조선 초기에 간행된 『경상도지리지』에 실린 봉수는 태종대까지 운영되던 봉수를 기록한 것으로 이것은 고려시대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정비된 봉수로 볼 수 있어 조선은 고려의 봉수제를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고려의 봉수를 근간으로 하는 조선의 봉수는 세종대에 이르러 크게 정비되게 된다. 처음에는 4거제를 계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 2거제로 바뀌었다가 세종 즉위 원년(1419) 봉화의 수를 해상과 육지의 적변에 따라 5거제로 구분하고 낮에는 연기로 대신하게 하는 제도가 확정되었다.⁵⁾ 그리고 세종 4년(1422)에 경상도 수군도안무처치사의 계에 따라 봉수대에 연대를 높게 쌓고 궁가를 설치하고 화포와

-
- 1) 『高麗史』列傳 僣遜倭長壽 ... 臣愚以爲, 沿海百里之間, 刷已徙及見在之民, 方三十里, 或五十里, 膏腴可耕之地, 擇形勢平易, 有薪水處, 計戶數衆寡, 築城堡. 以二三百家爲率, 設官守以居之, 俾接屋連牆, 僅容其衆. 除屋舍外, 止留穀場, 其園圃俱於城外給之. 凡城塹高深, 上置樓櫓, 門置釣橋, 其餘守具, 隨宜布置. 城塹之間, 多掘品字小坑, 樹鹿角以遏往來, 嚴更鼓, 謹烽烟. 及耕耘之時, 則遠者不過二十餘里, 晨出暮入, 往來無難. 禾熟則隨刈隨輸, 毋使稽緩. 設有賊至, 則少壯登城, 老弱供食, 分方面以堅拒守之志, 通烽燧, 以招隣救之兵. 隣城有急, 擇精騎以赴之.
 - 2) 『太宗實錄』11권, 태종 6년 3월 5일 乙未東北面都巡問使上其道事宜. 啓曰: "慶源境散接軍民, 竝於近城, 聚居業農. 其草賊出來要路、通望高峯, 置烽燧謹斥候, 遇有寇敵, 兵馬使率領丁壯應變." 從之.
 - 3) 『太宗實錄』12권, 태종 6년 12월 15일 庚子 杖慈州人曹守一百, 配巨濟縣烽卒. 守, 方輝之姊子, 知情不首者也. 又流僧妙惠于務安縣, 慈州戶長金良義于機張縣爲烽卒. 妙惠, 方輝之叔父; 良義, 金亮之姪也.
 - 4) 『太宗實錄』15권, 태종 8년 1월 2일 신해 .. 一, 烽火海望, 係是軍情緊急重事, 如有虛疎, 嚴加考察, 不輕定體.
 - 5) 『世宗實錄』4권, 세종 1년 5월 26일 경오 兵曹啓: "前日各道烽火, 令無事則一舉, 有事則再舉. 乞自今倭賊在海中則再舉, 近境則三舉, 兵船與戰則四舉, 下陸則五舉. 如陸地賊變, 在境外則再舉, 近境則三舉, 犯境則四舉, 與戰則五舉, 晝則代以烟氣. 其不用心觀望, 烽火干及所在官司, 依律科罪." 上王從之. 【烽火干, 舉烽火者. 國俗以身良役賤者, 或稱干或稱尺.】

병기를 두게 하였고¹⁾ 세종 5년(1423) 병조의 계에 따라 남산에 5소의 봉화대를 설치하여 각 노선을 따라 오는 봉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연대가 오래되어 변동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한성부로 하여금 대를 쌓고 표를 세우도록 하였다. 그런데 남산의 봉화 5곳은 가장 동쪽에 있는 제1봉화가 함길도와 강원도에서 오는 것이며 제2봉화는 경상도로부터, 제3봉화는 평안도로부터 오고, 제4봉화는 평안도황해도의 바닷길로 오고, 제5봉화는 충청도전라도 바닷길로 오는 것을 받게 한 것이다.²⁾

이후 세종 4년에 병조와 의정부에 봉수를 정하게 한 이후³⁾ 세종14년(1432)에는 당시 국가의 환난이 북방에 있음을 강조하여 대비책으로 연대에는 소화포 외에 신포를 구비하도록 하였고⁴⁾ 세종19년(1437)에는 의정부의 건의로 각도의 극변초면으로 봉화가 있는 곳은 연대를 높이 쌓고 근처에 사는 백성 10여인을 모아 봉졸로 정하여 매번 3인이 모두 병기를 가지고 항상 그 위에서 주야로 정찰하며 5일만에 교대하도록 하는 등 봉화의 신설과 봉졸의 선정 및 근무조건을 정하였다.⁵⁾

세종20년(1438) 1월에 의정부는 병조의 정계에 의하여 최초로 연대규식을 마련하였다. 즉 연대 4면 아래쪽의 너비는 매면 20척으로 하고 높이는 30척으로 하되 모두 포백척을 사용하여 고쳐쌓도록 하고 4면에는 모두 갱감을 과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성전선색(修城典船色)으로 하여금 연대의 본보기를 그려 도절제사에 내려 보내도록 하고 도절제사로 하여금 이를 참고하여 감독하고 축조하게 하여 전국적으로 연대를 통일하게 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⁶⁾ 그리고 세종28년(1446)에는 봉수의 중요성에 비추어 연변의 연대 1소에 봉화군 10명과 감고 2명을 정하여 나누어 상변과 하변으로 삼게 하고 중복의 여러 봉후에도 봉화군을 매 1소 각 6명과 감고 2명을 정하고 2변으로 나누어 밤낮으로 항시 있으면서 망보게 하였다. 또한 남산봉화의 5소 간망군은 전에는 15명이었으나 5명을 더하고 상변과 하변으로 나누어 매 1소마다 2명은 입직하고 5명은 봉화가 있는 곳에 서로 번갈아 밤낮으로 입직하게 하고 근만을 고찰하여 병조에 바치게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도 당시 조정에서는 봉수의

-
- 1) 『世宗實錄』 17권, 세종 4년 8월 19일 계묘 慶尙道水軍都按撫處置使啓: "烽燧之處, 無堡壁可據, 因此或爲賊所掠, 法令雖嚴, 人皆疑畏, 不肯用心瞭望. 請高築烟臺, 上設弓家, 置火砲兵器, 晝夜常在其上, 看望賊變." 從之, 命諸道皆築烟臺.
 - 2) 『世宗實錄』 19권, 세종 5년 2월 26일 정축 兵曹啓: "京城南山烽火五所, 曹與鎮撫所登山, 看望舉火相準後, 度地設置. 其地名及來歷, 具錄如左. 東第一烽火在明哲坊 洞源嶺, 與楊州 峩嵯山烽火相準, 自咸吉、江原道來. 第二烽火誠明坊洞源嶺, 與廣州 穿川烽火相準, 自慶尙道來. 第三烽火薰陶坊 洞源嶺, 與母岳 東峯烽火相準, 自平安道來. 第四烽火明禮坊 洞源嶺, 與母岳 (四峯) [西峯] 烽火相準, 自平安、黃海道海路來. 第五烽火好賢坊 洞源嶺, 與楊州 開和烽火相準, 自忠清、全羅道海路來. 右舉火相準處, 恐年代久遠, 則或有變易. 請令漢城府築臺立標, 書相準地名, 舉火式例." 從之.
 - 3) 『世宗實錄』 18권, 세종 4년 윤12월 20일 계유 命兵曹與議政府、諸曹定烽燧.
 - 4) 『世宗實錄』 55권, 세종 14년 2월 기해 上謂代言等曰: "我國之患, 在於北方. 野人不能侵中國之境者, 畏火砲弓弩也. 近來十餘年, 野人不得侵掠我境, 以田時貴、李澄玉、河敬復等, 能戰勝也. 雖有賊變, 若能高築烟臺, 具備禦之物而戍之, 則野人必不得久留. 其令兵曹, 預備烟臺信砲小火砲等事." 從之.
 - 5) 『世宗實錄』 76권, 세종 19년 2월 기묘 議政府啓: "今後各道極邊初面烽火之處, 高築烟臺, 聚旁近居民十餘人, 定爲烽卒, 每番三人, 兼持兵器, 常在其上, 晝夜偵候, 五日而遞. 雖非極邊, 惡獸傷害可慮, 令守令依烟臺例, 量宜布置, 嚴加考察, 若有事變, 須急馳報, 申明《六典》烽火之法, 每月季, 令移牒兵曹." 從之.
 - 6) 『世宗實錄』 80권, 세종 20년 1월 15일 경자 議政府據兵曹呈啓: "... 今問延等處各官造築烟臺, 未經一年, 或致傾圮, 專是監築官吏不用心也. 烟臺四面下廣, 每一面二十尺、高三十尺, 皆用布帛尺定制改築, 四面皆置坑坎, 使五人持兵器火砲, 十日相遞, 晝夜候望, 如有擅離者, 依律痛懲. 沿邊各口子造築石堡時, 敵臺甕城及烟臺見樣, 令修城典船色圖畫, 下送都節制使, 憑考監築." 從之.

법이 쇠퇴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법을 제정하더라도 봉행하는 관리가 등한 시하면 실효가 없으니 백성을 효유하여 곡진하게 포치하도록 건의하기도 하였다.¹⁾ 그리고 세종29년(1447)에는 연변 연대의 축조 방식과 복리에 봉화를 배설하는 제도와 감고하는 군인을 권려하고 완호하는 조목을 폐지할 점과 마련할 점이 시행되었다. 즉 연변에 축조하는 연대는 높이는 25척, 둘레 70척이며 연대 밑의 사면은 30척으로 하고 밖에 참호를 파는데 깊이와 너비는 각기 10척으로 하고 모두 포백적이 아니라 영조척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복리의 봉화는 연변의 연대와 상황이 다르니 전에 있던 배설한 곳에 연대를 쌓지 말고 산봉우리 위에 땅을 쓸고 연조를 쌓아 높이는 10척을 넘지 않도록 하며 봉화는 사변이 있으면 감고가 즉시 고을 관원에게 알리고 사변이 없으면 매 10일마다 한번씩 알려서 감사에게 보고하게 하였다.²⁾

이러한 봉수제는 성종16년 『경국대전』에도 올라 이후 조선 봉수제의 근간이 되는데 해상과 육지의 적변을 구분하던 5거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하였지만 목멱산봉수대를 구성하는 5대는 그대로 유지하였다.³⁾ 이렇게 정비된 봉수제는 조선시대 전기간 동안 유지되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속대전』 『대동지지』 『증보문헌비고』에도 봉수대 위치나 노선에 다소의 변화는 있었어도 5거의 거화규정 및 목멱산봉수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계속 유지되었다.⁴⁾

이상의 기록만으로 본다면 각 지역에 설치되는 봉수는 연변연대와 복리봉화로 나눌

- 1) 『世宗實錄』 114권, 세종 28년 10월 6일 경자 議政府啓: "烽燧之法, 關係邊警, 利害不小, 故歷代之制, 率以謹烽火爲重. ... 各道沿邊烟臺一所, 定烽火軍十名, 監考二名, 分爲上下番; 腹裏諸烽墩, 定烽火軍每一所六名, 監考二名, 亦分二番, 晝夜恒在看望, 依已成之法, 晝烟夜火, 以達于京. 而各道水陸烽火, 相準來路, 令兵曹某處烽火準某處烽火, 并山名息數水陸分揀, 置簿兵曹承政院議政府, 烽火所在各官觀察使節制使處置使營, 各藏一件, 以憑後考. 觀察使節制使所管各處, 差人擲簡, 如或闕點, 初犯笞五十, 再犯杖八十, 三犯杖一百; 不能考察官吏, 初犯笞五十, 再犯加一等罪, 至杖一百罷職. ... 京城南山烽火五所看望軍, 在前十五名, 今加五名, 分爲上下番, 每一所定二名入直; 五員依警守上直例, 烽火在處, 輪次晝夜入直. 軍人到未到及看望勤慢考察, 依《六典》, 每日事變有無, 開寫呈兵曹, 兵曹又依前檢舉考察. 且沿邊烟臺造築之式, 與腹裏烽火排設之制及監考軍人給到賞職勸勵完護之條, 令主將兵曹磨鍊施行. 前此烽燧之法, 一至陵夷, 專是慢令所致. 今雖如此立法, 奉行官吏, 束之高閣, 不卽曉諭, 遂使愚民不知法律, 遽陷罪辜, 不可不慮. 上項各條, 於監考軍人處, 備細開諭, 使不犯律, 曲盡布置." 從之.
- 2) 『世宗實錄』 115권, 세종 29년 3월 4일 병인 議政府據兵曹呈啓: "沿邊(炯) [烟] 臺造築之式, 腹(衷) [裏] 烽火排設之制及監考軍人勸勵完護之條, 參酌(廢) [磨] 鍊後錄. 一, 沿邊各處烟臺造築, 高二十五尺, 圍七十尺. 臺下四面三十尺外掘塹, 深廣各十尺, 皆用營造尺. 又於坑塹外面設木柵, 長三尺, 削皮銳上植地, 廣十尺. 臺上造假屋, 藏兵器及朝夕供用水火器皿等物. 看望人, 十日相遞守之, 新舊間絕糧時, 所在官及監司節制使隨宜補乏. 一, 監考及烽火海望人戶, 貢賦外雜役, 一皆蠲免. 一, 監考勤謹者, 每六年一次, 散官職除授; 烽火海望人能告事變捕賊者, 依《續兵典》敘用行賞; 其餘各人, 依船軍例, 計其到宿, 差海領職. 一, 腹裏烽火, 非沿邊烟臺之比, 勿築臺於在前排設峯頭, 除地築烟竈, 上尖下大, 或方或圓, 高不過十尺. 且繚以垣牆, 以避惡獸. 一, 烽火, 有事則監考卽告于其官, 無事則每十日一告, 傳報監司, 每四季月, 移牒本曹, 以憑後考. 監考及看守人勤慢, 監司守令無時考察; 軍器點考敬差官, 亦竝檢覈啓聞." 從之.
- 3) 『經國大典』 卷之四 兵典 烽燧 平時一炬 賊現形則二炬 近境則三炬 犯境則四炬 接戰則五炬 京則五員告 本曹外則伍長告 鎮將 木覓山 烽燧 東第一准永安道江原道來楊州峩嵯山烽燧 第二准慶尙道來廣州穿川嶺烽燧 第三准平安道陸路來母岳東峯烽燧 第四准平安道黃海道海路來母岳西峯烽燧 第五准忠清道全羅道來陽川開花山烽燧 《本曹定人候望翌日早晨告承政院以啓若有變則雖夜卽告》 ○ 木覓山每所軍四人伍長二人沿邊則每所軍十人伍長二人內地則每所軍六人伍長二人軍及伍長竝以烽燧近處居人差定○或雲暗或風亂煙火不通之時烽燧軍次次馳報
- 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 漢城府 烽燧 木覓山烽燧. 東第一應楊州峩嵯山, 乃咸鏡、江原道之烽也. 第二應廣州穿川峴, 乃慶尙道之烽也. 第三應母嶽東峯, 乃平安、黃海道陸路之烽也. 第四應母嶽西峯, 乃平安、黃海道海路之烽也. 第五應陽川縣開花山, 乃全羅、忠清道海路之烽也. 1908년에 간행된 『증보문헌비고』에는 봉수를 제1거에서 제5거로 노선 명칭을 정하였는데 이것은 목멱산봉수의 제1봉화부터 제5봉화에 이르는 길에 준하여 이름한 것이며 이번 우리 한국성곽학회에서 수행 중인 제2거노선에 대한 조사 사업의 명칭은 『증보문헌비고』의 명칭에서 따온 것이다.

수 있다. 세종20년(1438)에 마련된 연대규식에는 연대에 별다른 구분이 없이 연대 4면 아래쪽의 너비는 매면 20척으로 하고 높이는 30척으로 하되 모두 포백척을 사용하여 고쳐쌓도록 하고 4면에는 모두 갱감을 파도록 하였다. 그런데 세종29년 의정부에서 올린 정장에는 연변연대는 영조척으로 높이 25척, 둘레 70척, 대하 사면은 30척으로 축조하고 연대 주위를 10척 넓이와 깊이로 파고 갱감의 외면에 목익을 설치함과 동시에 연대 위에도 가옥을 만들고 병기 및 기명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복리봉화는 연변봉대와는 달리 대개 연대를 축조하지 않고 종전의 봉수가 있었던 봉두에다 땅을 고른 다음 연조를 쌓고 위에는 뽕죽하고 아래는 크게 하여 방형 또는 원형으로 쌓되 그 높이는 10척을 넘지 못하게 하고 둘레에는 담장을 쌓아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봉수를 연변과 복리(내지)로 구분하고 그 시설을 달리하였던 것은 조선초기의 기록에는 「연대」와 「봉화」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조선시대의 지리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세종7년에 간행된 『경상도지리지』인데 여기는 각 고을의 봉수를 연대봉화와 봉화로 구분하여 기록하였고 『세종실록지리지』(단종2년, 1454)와 『경상도속찬지리지』(예종1년, 1469)에서도 연대와 봉화를 따로 기록하였다. 연대와 봉화라는 명칭은 봉수가 설치된 지역을 감안하면 연대봉화는 연변봉수를 말하는 것이고 봉화는 내지봉수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구분은 조선 성종 12년(1481)에 『동국여지승람』으로 편찬되었다가 3차 수정을 거쳐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이르면 비록 「봉수」라는 문목이 추가되긴 하였으나 연대나 봉화의 구분이 없이 모두 봉수라고 하여 실리게 되고 이것은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관찬지리서인 『여지도서』에도 이어진다. 그리고 『증보문헌비고』에는 직봉과 간봉으로 구분하여 기록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봉수대 자체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었다.

이러한 봉수제에 따라 봉수의 선로와 관련하여 봉수의 주요선로는 직봉이고 직봉 사이의 중간을 연결하는 보조선로는 간봉으로 모두 목맥산에 도달한다. 또한 설치된 지역에 따라 한성부의 목맥산, 내륙에 설치된 내지봉수, 국경이나 해안을 따라 설치된 연변봉수로 나뉘며 중요지역의 진장에 설치되어 본진이나 본읍에 보고하는 단거리노선으로 권설봉수가 있다.¹⁾

조선전기의 봉수제는 결국 각 지역에서 봉수의 설치로 나타나게 되는데 각 시기별로 지역별로 증감이 있고 일부 노선의 변경도 보인다. 즉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봉화 482기, 연대87기 등 569기였다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742기가 기록되어 있고 조선후기의 동국여지에는 652기, 『대동지지』에는 519기(연대2기, 봉수 517기), 『증보문헌비고』에는 610기가 올라 있어 시대별 증감을 볼 수 있다.²⁾ 노선의 변화는

1) 권설봉수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작은 섬들이 밀집한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 중 연변봉수만으로는 해안 감시와 방위가 어려운 곳에 임시로 설치한 봉수이다. 본읍과 영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문헌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봉수 노선은 한양의 목맥산봉수로 전보되는 봉수망과는 별도로 지역 봉수망으로 전달되었다. 이를 『『대동지지』』에서 경기도 건달산, 안산, 수정산봉수 등 7처, 충청도 망해정, 원산도, 외형도 등 4처, 경상도 한배곶, 가을포, 등산 등 10처, 전라도 진례산, 성황당, 수인산 등 10처, 함경도 금적곶, 소백산 등 5처를 기록하였다.(홍성우, 2021, 『조선시대 봉수대와 봉수군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0~136)

2) 허선도, 남도영, 박세동, 노태운 등이 제시한 봉수대의 수를 모두 검토하여 수정한 결과이다.(김주홍, 2011, 『조선시대 봉수연구』 서

고려의 봉수제를 이어받은 『경상도지리지』의 봉수는 개경 송악산으로 향하게 봉수망이 구성되었겠지만 세종 때 경봉수가 한성부에 설치되면서 다시 봉수망을 구성하여야 했을 것이니 변화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리고 세종 때 봉수제가 정비된 이후 삼포왜란 이나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드러나는 봉수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어지면서 그에 따른 변화도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¹⁾

그리고 『世宗實錄』에서 가장 많은 봉수가 분포하는 지역은 경상도(134기), 평안도(104기), 함길도(102기)로 당시 봉수의 운영 목적이 왜구와 북방 야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경상도지리지』에 남아 있는 봉수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경상도지리지』에 경상도는 경주도 안동도 상주도 진주도 등 4개 도, 112개 군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봉수는 연대봉화 17기와 봉화 112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경상도지리지』의 간행 시기가 조선 개국이후 3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이렇게 촘촘하게 봉수망을 구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일부 봉수는 세 방향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 다음 봉수로 전달한다고 하여 고려시대의 유제이거나 아직 완전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어쨌거나 『경상도지리지』에 실린 연대봉화는 경주, 흥해, 기장, 영해, 김해, 남해, 진주, 거제를 따라 분포하고 있어 연대봉화가 연변봉화이며 그 경계 대상이 왜구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²⁾

또한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봉수망을 살펴보면 시기에 따른 변화도 볼 수 있다. 『경상도지리지』 112개 군현 중 봉수가 설치되지 않은 군현은 경주도 언양, 양산, 대구 등 9개, 안동도 청송, 영양, 청기 등 12개, 상주도 가은 팔거 등 4개, 진주도 하동 함양 반성 등 8개 등으로 모두 33개 군현인데 『세종실록지리지』에 봉수가 설치되지 않은 군현은 경주부 17개 군현 중 양산 언양, 안동대도호부 18개 군현 중 청송, 진주목 함양 하동 산음 안음 등 4개 군현 등 모두 9개 군현에 불과하고 상주목 관할에는 봉수가 없는 군현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상도지역에 봉수가 설치되지 않은 군현은 청송 함양 하동 안음 산음 등 5개 군현에 불과하게 되어 성종12년(1481)의 『동국여지승람』이나 성종16년(1485) 『경국대전』이 편찬되던 시기에 이르면 전국적인 봉수망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봉수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일단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외적의 침입이 쉽지 않거나 접경지역까지 들어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웃한 고을에서

경문화사, 68~70)

1) 『增補文獻備考』 兵考15 烽燧1 朝鮮條에는 이현석(인조 25, 1647)~숙종 29(1703)은 경도에 이르는 다섯 봉수 중에 제1로는 번번이 이르지 않으므로 워낙 한심스럽고 어느 노의 봉수가 어느 곳에서 끊어졌는지가 산만하여 상고할 수 없다고 하였고 숙종27년 북방 봉수로가 끊어진지 이미 20년이 넘었으니 이것이 염려스럽다는 기사, 북병사 이홍술이 북로의 봉화가 경성에 도달하는 것이 한 달에 7,8순(巡)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것 등 봉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고 있다.

2) 경주부 안산연대봉화, 흥해군 지을산연대봉화, 기장현 남산연대봉화, 장기현 북길연대봉화, 사지현연대봉화, 영일현 동을배연대봉화, 청하현 도리산연대봉화, 영해도호부 대소산연대봉화, 순흥도호부 죽령산연대봉화, 기천현 망전산연대봉화, 진주 각산향주산연대봉화, 양둔산연대봉화, 계화산연대봉화, 김해도호부 가덕도 응암연대봉화, 성화야연대봉화, 남해현 금산연대봉화, 거제현 가라산연대봉화 등 모두 17기이다.

알려 줄 수도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세종실록지리지』 경기도지역의 사정을 살펴보면 41개군현 중 봉수가 설치된 지역은 21개 군현에 불과한데 다만 서해안에 위치하는 부평도호부 관할의 8개 군현에는 모두 봉수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전기 봉수망이 완성되는 시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올라 있는 경기지역 봉수를 살펴보면 내지에 위치한 광주도호부, 안성군, 풍덕군에는 여전히 봉수가 설치되지 않았고 해안을 따라 군현이 위치한 수원도호부와 장단도호부 관할의 군현에는 모두 봉수가 설치되어 있어 봉수망의 구성이 외적이 침입할 수 있는 경로를 따라 설치 운영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¹⁾

이러한 봉수제는 때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여 중간에서 끊어지고 적변이 있어도 평일과 같이 1회만 오르는 일이 생겼으며 성종 때 남해안에 일어난 왜구의 침입에 허של화 했다하여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²⁾ 이러한 사정으로 연산군10년(1504)에 일시 폐지되었다가³⁾ 중종1년(1506)년 일시 복구되기도 했고⁴⁾ 중종 때 삼포왜란과 사랑진왜변 등 남해안에 왜구가 침입하였을 때나⁵⁾ 임진왜란 때나⁶⁾ 정유재란 때에도⁷⁾ 제때에 봉수가 오르지 않아 다시 무용론이 대두되어 선조38년(1605) 4월 파발제가 등장하였고 공문을 전달하기 위한 역참으로 기발과 보발을 두었다.

-
- 1) 이러한 사정은 조선조에 들어와 축조하기 시작한 읍성의 분포에서도 확인된다. 읍성 축조가 일단락 되는 단계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성곽조에 기록된 읍성의 축조 분포를 보면 경기도 37개 군현 중 읍성이 축조된 곳은 수원도호부가 유일하다. 조선조에 들어 읍성은 평지 읍성을 쌓아 왜구에 대비하는 전략에 따라 석성으로 쌓았는데 그와는 달리 토축성으로 고려 때 축조된 것이 조선조에 들어 읍성으로 편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경상도는 67개 군현 중 읍성이 축조된 곳은 30개 군현에 달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경상도지역에 봉수망이나 읍성이 촘촘하게 구축된 것은 적극적으로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한 결과로 볼 수 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기도지역에 봉수망이나 읍성이 구축된 것이 느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륙에 위치하여 왜구의 침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거리 때문일 것이다.(정의도, 2021, 「어말선조 상황사와 진산, 고읍과 고성 의 위치검토-『신증동국여지승람』 「산천」 「사묘」항을 중심으로-」 『문물』 제11호,
 - 2) 『成宗實錄』 52권, 성종 6년 2월 8일 정해 兵曹啓: "今賊連寇理山、昌洲、碧團等鎮、殺擄人畜、而自西鄙歷黃海道、以至畿甸、所在烽燧、一不報變、例以無事、通于京師、其慢不警備可知。今敬差官許誠、以理山官吏推鞠、往在本道、竣事上來時、諸處烽燧軍竝鞠以啓。" 從之。
『成宗實錄』 79권, 성종 8년 4월 12일 기유 刑曹啓: "唐浦萬戶金仲孫擅送兵船、出海捕魚、猝遇倭人、被奪衣服軍裝、罪該杖一百、發邊遠充軍、烽燧軍尹元奇、金元京不舉烽火罪、律該斬。" 從之。命尹元奇等滅死。
 - 3) 『燕山君日記』 55권, 연산 10년 8월 15일 임신 傳曰: "勿舉平安、黃海兩道烽燧。"
『燕山君日記』 55권, 연산 10년 8월 25일 임오 傳曰: "咸鏡道所報峩嵯山烽燧亦勿舉。"
 - 4) 『中宗實錄』 1권, 중종 1년 9월 4일 경진 大司憲潘佑亨、執義金士元、掌令金彥平·金祉啓曰: "江原道觀察使慎自健、得罪成宗朝、近以椒房之親、攀附任士洪、得陞顯秩。觀察使乃重任、宜速改正。且我國家三面受敵、邊警、非烽燧、不得速達、巡將、亦主夜警、皆軍務重事、而廢主革罷、請令復立。"
 - 5) 『中宗實錄』 102권, 중종 39년 4월 17일 을유 常時烽燧、斥(候) [候] 等事、欲急軍機飛報、而庚午年亦不謹烽燧、候望、故致有覆城之變。其後立次次推問之法。然竟不見其嚴密也。觀此倭變、彼處烽燧軍候望時、若以爲荒唐船隻、指向於某處云、而哨探相報、且以火飛報爲當、而不謹候望、不知從何處而來、致使圍城、在所察問。在京近處烽燧軍舉火與否、亦可察而推之。在彼烽燧、候望等不謹之事、及賊船隻來自何方、接戰節次、竝令敬差官、詳悉推閱、以啓何如? 此意議于大臣及該曹。"
 - 6) 『宣祖實錄』 85권, 선조 30년 2월 25일 병술 李必亨曰: "國家設烽火、意有存焉。兵法亦有謹烽燧遠斥候之言。今則大賊渡海、烽火則依舊無報急之事、萬一有急、在此難知。近來百事懈弛、烽燧尤甚。" 上曰: "我國烽燧之弊、未易更張。雖行軍令於烽燧、士卒事不可爲。予意每欲革罷而不得矣。凡烽臺在山頂、故雲霧難辨、非烽卒頑慢之所致也。"
 - 7) 『仁祖實錄』 25권, 인조 9년 7월 8일 庚辰 憲府啓曰: "列邑烽燧之設、其意有在、而頃日賊到境上、終無舉火報邊之事、邊吏之不職甚矣。兩西監、兵使請先推考、又令查出不能舉火之官、繩以重律。
『仁祖實錄』 34권, 인조 15년 윤4월 10일 戊申 憲府啓曰: "新經大亂、國勢杌隳、而天災、民怨、愈往愈甚、區區憂慮、曷有其極? 目今所當務、唯在於上回天意、下悅民心、而其本亦不外乎殿下之誠心矣。... 烽燧之設、所以通警急、而前後變亂、漠然無報、今番變亂之後、竝與其治罪而廢之、事極寒心。各其時該邑官吏、亦難免不爲檢飭之罪。請平安、黃海、京畿各面當番烽燧軍、令該道監司查出、依律處置、該邑官吏、亦令監司、明查重究、以爲懲勵之地。"

17세기 숙종 이후에는 봉수와 파발제가 조선말까지 존속하였으나 근대적 통신시설인 전신전화가 설치되면서 고종31년(1894) 갑오경장으로 봉수제가 폐지되었으며 고종32년(1895) 5월9일 봉수군마저 폐지될 때까지 오랫동안 존속하면서 국방 경보 전신의 구실을 하였다.

어쨌든 조선시대의 봉수는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간에 걸쳐 변방의 상황을 중앙으로 전달하는 가장 신속한 수단이었다.¹⁾ 제도상으로는 24시간 후방체계를 갖추어 하시라도 변경의 상황을 중앙으로 전달하여 그에 대한 대비를 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오랜 기간 동안 정비 보완하면서 운영되었다. 고산자 김정호가 『대동지지』에서 봉수를 두고 「무릇 봉수는 변경지역을 순찰하다가 올리기 시작하여 끝내 서울로 통한다. 바닷가에서 온 것이 혹은 물에서 합쳐지고 물에 잇달아 오다가 혹은 바닷길로 나뉘며 동쪽 서쪽을 차례로 전달하고 남쪽과 북쪽이 서로 따라 비추면서 호흡지간에 만리를 가니 그 빠르기가 귀신과 같다」 고 한 것은²⁾ 봉수의 장점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2로 직봉 개별 봉수유적의(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은 별첨함.

(1) 봉수의 사적 지정 가치

제2로 직봉은 모두 44개의 봉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 결과 유구의 잔존상태가 모두 같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봉수유적의 제1 가치는 연결성(connecting value)이겠지만 이 가치는 노선을 구성하는 모든 봉수가 가지는 가치이므로 변별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리적 가치(geographical value)는 직봉이라고 하여도 간봉이 모이는 봉수를 생각할 수 있고 각 노선의 초봉과 종봉을 각 노선의 상징적 가치(symbolic value)를 대표하는 봉수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노선의 봉수라고 하여도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은 그 역사적 가치(historical value)가 높다고 할 수 있고 봉수의 구조나 특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독창적 가치-희소가치 포함(original value)가 높은 것으로, 유구나 유물이 풍부하거나 봉수와 관련된 민속학적 연구 대상이 되는 봉수는 학술적 가치(academic value)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고 유구의 잔존 상태가 좋아 활용가치(public value)가 뛰어난 것도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봉수의 지정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1) 역사성과 기록 일체성의 탁월함

조선시대 봉수는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운영된 것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1) 봉수가 국경에서 한성부에 도착하는 시간은 숙종조 북병사 이홍술이 「육진부터 경성까지 길이 멀어서 초경의 봉화를 오후에 비로소 올리면 날이 저물어서야 아차산에 도달하는데」 라고 하여 만나질 정도 걸렸던 것으로 볼 수 있다.(『增補文獻備考』 제123권, 兵考15 烽燧1 朝鮮 肅宗27年 北兵使 李弘述筵啓.. 自六鎮至京道里修遠 初境烽火午後始舉日暮始達于峨嵋山..)

2) 『大東地志』 門目 烽燧 凡烽燧始起於邊徼終通于神京 沿海而來者或合于陸聯陸而來者 或分于海東西遞傳南北照應呼吸萬里其疾如神 今於各道之次總錄水陸來諮之分合以便考覽 各邑只錄所在處

『경국대전』, 각종 관찬 사찬 지리지 등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음은 봉수가 국방시설로서 법제화되어 운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봉수유적 또한 기록에 부합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어¹⁾ 그 역사성과 기록과의 일체성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봉수가 다른 유적에 비하여 차별성을 가지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 개국 이후 북방의 야인과 바다 건너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중 하나가 전국에 산성을 보수하고 읍성을 축조하는 축성사업이며 다른 하나가 전국적인 봉수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두 사업은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세종 때 시작되어 『경국대전』이 완성되는 성종 때 일단락되게 되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리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선시대 봉수는 조선을 대표하는 정치 국방유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봉수는 조선초기의 기록인 『경상도지리지』에서부터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조선전기에 편찬된 관찬지리서에 모두 올라 있는 것은 물론이며 조선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의 관찬지리서와 각종 사찬읍지, 조선 후기에 제작된 『해동지도』를 비롯한 각종 고지도에도 봉수는 빠짐없이 표기되어 있다. 특히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토산이나 역 다음에 실려 있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의 지리지에 봉수는 성곽에 이어 봉수라는 문목을 만들어 빠짐없이 실려 있다. 이것은 물론 오늘날 봉수제가 조선사회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제도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람들도 관방에 있어 봉수제를 성곽과 함께 필요불가결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반증인 것이다.

2) 조선시대 지리정보의 보고(寶庫)

그리고 봉수는 오거직봉과 간봉으로 구성하여 최단시간 내에 변경의 상황을 중앙에 이르게 하는 통신수단으로서 봉수망은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다. 최단시간 내에 변경과 한성을 연결하는 노선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앞선 시대의 지리적 지식과 함께 북방을 개척하면서 확보한 지리지식과 연변에 침구하는 왜구를 방어하면서 습득한 연결 체제를 포함시켜 조선 봉수제가 이루고자 했던 최단거리와 최선의 노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정체가 봉수노선인 것이다. 그러므로 봉수노선은 조선이 조선의 지형과 지리를 파악한 결정판으로 당시의 지리정보를 망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3) 연속유산으로서의 특이성

특히 하나의 약속된 신호규정에 따라 노선별로 작동하게 되어 있어 연결 노선 중 단 하나의 노선만 빠져도 봉수는 중앙에 이를 수 없게 되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다른 어떤 기념물도 가지지 못한 특성을 지녔다. 아울러 봉수는 신호를 전달하기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자리를 찾아 연대나 연조를 설치하고 관련 시설을 하여 운

1) 문화재청, 2015, 『전국봉수유적 기초학술조사』
_____, 2016, 『전국봉수유적 심화학술조사보고서』

영하였는데 지금까지 고고학적 조사를 거쳐 확인된 봉수의 위치나 연대, 연조, 방호벽 등의 시설은 봉수를 전달하기 위하여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봉수를 기록으로 보면 봉수는 위치에 따라 연변봉수와 내지봉수로 구별할 수 있고 봉수의 최종 전달 목적지에 따라 직봉과 간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봉수제에 관한 기록을 오늘날 봉수를 이해하는 용어로 삼은 것으로 그 역사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봉수가 장기간 운영되면서 그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봉수 노선의 변화가 있었고 같은 이름의 봉수라고 하여도 이동이 있기도 한데 이것은 조선이 봉수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봉수가 조선시대의 정치 국방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봉수유적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가치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봉수제가 고려시대에는 중국 북방과의 갈등에서 제도화되었지만 고려말 왜구의 침입으로 더욱 정비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북방 야인과 연해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더욱 갖추어졌다는 것은 봉수제가 가지는 정치적 군사적 가치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4) 조선시대 관방 자료로서의 높은 가치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고고학적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바가 적지 않아 봉수유적이 가지고 있는 고고역사적인 가치를 증명하고 있기도 하다. 즉 동남해안에는 지금까지 조사를 통하여 남한에서 가장 많은 수의 봉수가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종대의 봉수 노선은 계속하여 변경되고 보완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는 것은 봉수 노선의 운영 유지 과정에서 조선이 남해 연안의 방어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병자호란을 겪은 후 청은 조선이 성곽의 수리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계속하여 성곽을 수리하고 봉수는 연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재정비하고 특히 북방의 1거 노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청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적극적인 관방자료로 평가된다.

5) 지역을 뛰어넘어 한국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연대성이 가장 강한 유적

또한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추후 북한과의 관계 진전에 따라 공동으로 조선 동북쪽 두만강변의 우암(牛巖)을 기점으로 하는 1거와 서북쪽 압록강변의 여둔대(餘屯臺)와 고정주(古靜州)에서 초기하는 3거와 4거에 대한 조사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하나의 약속에 따라 이어지는 봉수가 남북한을 관통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남북의 역사적 뿌리는 하나였음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봉수는 물론 군사적인 목적으로 운영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적이 침경하기 전 각지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다. 고려말 대신들의 상소에는 모두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봉수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보국의 근본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5) 현 봉수 유적의 보존관리 시급성

- 현재 전국에 산재한 봉수유적 중 일부(67건)만이 시·도지정문화재로 따로 관리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유적들은 법적·제도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몇몇 봉수가 복원을 전제로 한 고고학적 학술조사가 실시되었지만 봉수대의 물리적 구조와 형태 등에 대한 실증적 조사 자료와 이해 부족으로 잘못된 설계안이 제시되거나 아예 충분한 고증 없이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리어 유구 원형을 훼손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퇴색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 2로 직봉의 개별 봉수유적의(개별 지정 대상 및 범위)는 별첨함.
- 2로 직봉의 문화재구역은 전반적인 일괄성을 갖추기 위하여 원칙을 정함. 그 원칙으로 문화재구역은 봉수의 방호벽의 경사면까지를 문화재구역으로 하고 지정구역으로부터 20m의 외곽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함.
- 예외적으로 이미 지방문화재가 지정되어 있고, 그 범위가 문화재지정의 원칙보다 큰 범위일 경우는 지방문화재의 지정구역을 따름.

제2로 직봉(총 44기)

지역	수량	봉수 명칭	비고
경기권	4	건지산, 석성산, 천림산, 목덕산	중앙·내지봉수
충청권	7	죽령산, 소이산, 오현, 심향, 마산, 가섭산, 망이성	내지봉수
영남권	33	응봉, 구봉, 황령산, 계명산, 위천, 부로산, 소산, 고위, 접포현, 사봉, 방산, 신(新)성황당, 성산, 구토현, 여음동, 토을산, 보지현, 승목산, 승원, 대야곡, 성산, 계란현, 마산, 감곡산, 봉지산, 개목산, 녹전산, 창팔래산, 용점산, 당북산, 사랑당, 성내산, 망전산	연변봉수·내지봉수 혼재
합계	44		

○ 제2거 직봉 44기 중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조사 대상 22기 선정

- 선정 기준
- ① 지리적 가치(geographical value) ② 상징적 가치(symbolic value) ③ 역사적 가치(historical value) ④ 독창적 가치-희소가치 포함(original value) ⑤ 학술적 가치-민속학적 가치 포함(academic value) ⑥ 공공적 가치-활용적 가치 포함(public value)

※ 연결가치(connecting value)는 모든 봉수가 균일한 것으로보아 제외함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선정대상기준 마련

선정 봉수 현황

권역	기수	봉수 명칭	비고
경기권	3	석성산, 천립산, 목맥산	중앙(1)·내지봉수(2)
충청권	4	망이성, 마산, 오현, 소이산	내지봉수(4)
영남권	15	응봉, 위천, 부로산, 접포현, 신(新)성황당, 성산, 어음동, 토을산, 승목산, 계란현, 봉지산, 녹전산, 창팔래산, 용점산, 망전산	연변봉수(1)·내지봉수(15)
합계	22		

○ 이 중 지역에서 지정 거부의사를 밝힌 지역과 아직 봉수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곳을 제외하고 16개소를 지정대상으로 함.

최종 선정 봉수 16개소 현황

번호	봉수 명칭
1	제2로 직봉-성남 천립산 봉수 유적
2	제2로 직봉-용인 석성산 봉수 유적
3	제2로 직봉-음성 망이성 봉수 유적
4	제2로 직봉-제천 오현 봉수 유적
5	제2로 직봉-충주 마산 봉수 유적
6	제2로 직봉-단양 소이산 봉수 유적
7	제2로 직봉-울산 부로산 봉수 유적
8	제2로 직봉-양산 위천 봉수 유적
9	제2로 직봉-영천 성산 봉수 유적
10	제2로 직봉-영천 어음동 봉수 유적
11	제2로 직봉-영천 성황당 봉수 유적
12	제2로 직봉-의성 계란현 봉수 유적
13	제2로 직봉-경주 접포현 봉수 유적
14	제2로 직봉-안동 봉지산 봉수 유적
15	제2로 직봉-봉화 창팔래산 봉수 유적
16	제2로 직봉-봉화 용점산 봉수 유적
합계	22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 지정구역+보호구역)

지정면적: 50필지 / 문화재 10,927㎡, 보호구역 60,194.8㎡
2로 직봉 개별 봉수 면적

번호	봉수명	면적
1	제2로 직봉-성남 천림산 봉수 유적	6필지 / 9,287㎡(문화재 1,064㎡, 보호구역 8,223㎡)
2	제2로 직봉-용인 석성산 봉수 유적	2필지 / 7,334㎡(문화재 1,393㎡, 보호구역 5,941㎡)
3	제2로 직봉-음성 망이성 봉수 유적	1필지 / 400㎡(문화재 400㎡ / 보호구역 2,748㎡)
4	제2로 직봉-제천 오현 봉수 유적	2필지 / 3,672㎡(문화재 393㎡, 보호구역 3,279㎡)
5	제2로 직봉-충주 마산 봉수 유적	3필지 / 4,531㎡(문화재 1,006㎡, 보호구역 3,525㎡)
6	제2로 직봉-단양 소이산 봉수 유적	7필지 / 2,967㎡(문화재 330㎡, 보호구역 2,637㎡)
7	제2로 직봉-울산 부로산 봉수 유적	2필지 / 5,364㎡(문화재 461㎡, 보호구역 4,903㎡)
8	제2로 직봉-양산 위천 봉수 유적	1필지 / 4,342.8㎡(문화재 603㎡, 보호구역 3739.8㎡)
9	제2로 직봉-영천 성산 봉수 유적	3필지 / 3,711㎡(문화재 634㎡, 보호구역 3,077㎡)
10	제2로 직봉-영천 어음동 봉수 유적	7필지 / 3,830㎡(문화재 663㎡, 보호구역 3,167㎡)
11	제2로 직봉-영천 성황당 봉수 유적	4필지 / 4,723㎡(문화재 1,095㎡, 보호구역 3,628㎡)
12	제2로 직봉-의성 계란현 봉수 유적	2필지 / 3,552㎡(문화재 525㎡, 보호구역 3,027㎡)
13	제2로 직봉-경주 접포현 봉수 유적	2필지 / 3,663㎡(문화재 597㎡, 보호구역 3,066㎡)
14	제2로 직봉-안동 봉지산 봉수 유적	2필지 / 2,913㎡(문화재 318㎡, 보호구역 2,595㎡)
15	제2로 직봉-봉화 창팔래산 봉수 유적	3필지 / 4,860㎡(문화재 1,013㎡, 보호구역 3,847㎡)
16	제2로 직봉-봉화 용점산 봉수 유적	3필지 / 3,224㎡(문화재 432㎡, 보호구역 2,792㎡)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2거 직봉의 개별 봉수유적의(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은 별첨함.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2거 직봉의 개별 봉수유적의(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은 별첨함.

9. 종합의견

■ 2로 직봉 현지조사 검토 종합의견

구분	조사자	내용
봉화 용점산 봉수 유적	○○○ ○○○ ○○○ ○○○ ○○○	○ 지정가치 - 2거 직봉 노선의 29번째 봉수로서 방호벽, 출입구 등이 잘 남아 있는 내지 봉수이다. 비교적 유구가 잘 남아 있어 사적지정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은 잔존하는 방호벽 유구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잔존상태 - 잔존상태는 뚜렷한 출입구가 확인되며, 장타원형의 방호벽 석축유구가 양호하게 남아 있음. 다만 방호벽 중심부에 민묘가 위치하고 있어 사적 지정시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봉화 창팔래산 봉수 유적	○○○ ○○○ ○○○ ○○○ ○○○	○ 지정가치 - 봉화 창팔래산 봉수대는 제2거 직봉노선의 28번째 내지봉수로서 방호벽, 출입구 등이 온전히 남아 있어 사적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짐.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 지정 및 보호구역은 방호벽을 중심으로 남동쪽 부분의 추정 건물지는 지정구역으로 설정하고, 지정구역 외곽 20m 부분은 보호구역으로 설정함이 타당함.

구분	조사자	내용
		<p>단, 남동쪽의 건물지 부분에 대한 정확한 측량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데, 석축의 방호벽이 잘 남아 있으며, 내부에는 묘지 등의 다른 후대 시설물이 없어 잔존유구가 잘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보임.
안동 봉지산 봉수 유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 봉지산 봉수대는 제2거 직봉봉수 노선의 25번째 내지 봉수이며, 제2거 직봉과 간봉(1) 노선의 결절점에 위치하여 사적지정은 충분하다고 여겨짐.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벽을 중심으로 한 지정구역 설정과 지정구역 외부 20m 거리를 포함하는 보호구역 설정은 타당함. ○ 잔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벽은 석축상태가 부분적으로 양호하게 잔존하여 있으나, 방호벽 남단 밖에 있는 석축유구(추정 연조, 혹은 우물터)에 대한 향후 조사가 필요함.
의성 계란현 봉수 유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거 직봉노선의 22번째 내지봉수에 해당하는데, 제2거의 연속 노선상에 위치하여 사적지정을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짐.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벽을 중심으로 하며, 그 북쪽 외연에 있는 연조까지를 포함하여 지정구역으로 설정하고, 지정구역 외곽 20m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함. ○ 잔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벽의 석축은 비교적 양호하게 잔존하나, 일부 수축의 모습이 나타남. 연조로 추정되는 석축 부분이 내·외부에서 일부 확인되며, 다수의 기와편과 백자편, 용기편이 수습되고 있음.
영천 여음동 봉수 유적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거 직봉의 15번째 봉수로 내지봉수이다. 방호벽 내에는 연대와 추정건물지가 확인되고 있어 전체 연결선상에 있기에 지정할 가치는 충분하다.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벽 부분까지를 지정구역으로 설정하고, 방호벽 라인에서 20m까지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봄. ○ 잔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이 매우좋은 상태에서 위치하며, 방호벽과 연대 석축 등이 비교적 양호하게 존재하고 있음. 내부에 무덤이 존재하며, 많은 외편의 존재로 추정건물지가 상정되고, 초입에 표지석(신녕봉수대)이 있음.
영천 성산 봉수 유적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거 직봉의 13번째 봉수로 내지봉수이다. 내지봉수로서 드물게 연대를 갖추고 있고, 방호벽의 석축이 잔존하고 있으며, 전체 연결선상에 위치하므로 일괄지정의 가치가 있다.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우선 현황도에 대한 정확한 검증(재실측)이 필요하고 하단 방호벽을 기점으로 지정과 보호구역 설정이 필요하다. ○ 잔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와 추정건물지, 방호벽의 석축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다. 다만 방호벽은 상, 하단으로 설정된것 같으며 기존의 산성을 재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외편, 자기편, 토기편 등이 채집된다.
영천 성황당 봉수 유적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천 성황당 봉수는 제2거 직봉의 12번째 내지 봉수로 옛터와 신 봉수대가 잔존하는데, 임진왜란 이후 이설된 것으로 보이는 신 성황당봉수는 아주 양호한 모습의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정할 가치가 있다.

구분	조사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은 내지봉수로서 드물게 갖춘 연대를 감싸고 있는 호(황)을 포함하여 지정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외부 20m 범위까지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잔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황당 봉수는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어, 차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연대와 호, 토교, 방호벽, 건물지 등이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차후 발굴조사와 정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봉수대로 보임. 또한 간봉과도 연결되는 지정학적 특징도 있음.
성남 천립산 봉수 유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 천립산봉수는 제2거 직봉노선의 43번째 내지봉수로서 발굴조사를 통해 방호벽과 연조, 추정 건물지가 확인된 유적임. 내지봉수 중 그 유지가 잘 남아있는 봉수로 2거 노선 전체봉수를 통틀어 즉시 사적 지정이 가능한 A등급에 해당되는 봉수대임. 발굴조사를 통하여 연조 1기는 원형대로 보존하였으며 연조 4기는 복원 정비되어 관리되고 있음. 또한 경기도 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어 관리 및 활용이 용이하여 사적지정 가치가 높은 봉수임.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은 경기도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시·도기념물로서 지정된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잔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봉수대로 진입하는 길은 야자매트로 정비되어 있으며 방호벽과 연조 4기가 발굴조사를 통대로 복원된 상태임. 남쪽 추정 건물지의 경우도 보호 바둑줄로 범위를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음.
용인 석성산 봉수 유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 석성산봉수는 2거 직봉노선의 42번째 봉수로서 학술조사를 통하여 방호벽과 연조, 추정건물지, 제의시설 등이 확인되었음. 제2거 직봉노선의 내지봉수 중 학술조사가 진행되었고 이를 근거로 경기도 기념물 제227호로 지정되었으며 즉시 사적으로 지정 가능한 A등급의 유적임. 현재 발굴조사된 지역은 보존 정비 계획을 세워 관리할 예정에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 및 활용이 용이하여 사적지정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판단됨.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기념물 제227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시·도 기념물로서 지정된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잔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조사된 봉수여서 유지는 천막 및 흙포대 등으로 잘 보존된 상태로 인근 석성산 정상 전망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탐방로 및 안내판 등이 양호하게 설치되어 있음.
음성 망이성 봉수 유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 망이성봉수는 제2거 직봉노선의 40번째 내지봉수로서 제2거 간봉(9)노선의 23번째 종착봉수로서 직봉과 간봉이 만나는 봉수임. 발굴조사를 통하여 방호벽과 연조, 추정건물지가 확인된 유적으로 2거노선 내지봉수 중 학술조사를 거쳐 유구가 양호하게 남아 있어 즉시 사적 지정이 가능한 A등급 유적임. 또한 망이산성의 토성 안쪽에 위치한 봉수로서 발굴조사에서 삼국~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출토되어 산성 내 봉수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정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판단됨.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이산성은 경기도기념물로서 지정보호되고 있으나 망이성봉수는 비지정된 유적으로 지정신청한 신청서의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신청한 대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p>망이성봉수는 행정구역상 음성군·이천시·안성시에 걸쳐있는 봉수로서 공인된 지적측량을 거쳐 지점 경계를 명확히 하여 관리 주체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관</p>

구분	조사자	내용
		<p>리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조사 후 정비를 거쳐 현재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로 망이산성과 함께 안내판·이정표 등이 봉수의 인근에 설치된 상태임. 방호벽은 산성내 성벽돌을 이용한 상태로 망이산성 석축 석재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임.
양산 위천 봉수 유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산 위천봉수는 제2거 직봉노선의 5번째 내지봉수로서 건물지와 연대의 방호벽, 건물지, 고사지, 연조가 확인되었음. 내지봉수 중 건물지와 고사지를 두른 원형의 방호벽 외곽에 직사각형의 연조 방호벽을 덧붙인 이중구조를 지닌 특이한 형태의 내지봉수임. 연조가 잘못 복원되었으나, 건물지, 고사지, 방호벽 등은 아주 양호한 형태로 남아 있으며 경상남도 기념물 제118호로 지정되어 있어 탐방로 정비 등 관리도 양호하게 이루어져 있어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은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잔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정밀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를 토대로 원형과 직사각형의 방호벽과 고사지, 연대 등이 정비, 복원되었음. 건물지는 토사로 덮고 잔디를 식재하여 보존하고 있으나, 연조는 사각형의 연대 위에 5개의 굴뚝을 복원하여 대응봉수 방향을 고려 할 때 잘못 복원된 것으로 보임. 주변에는 데크설치 및 안내판 등을 주변에 설치하여 탐방객들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정비된 상태임.
울산 부로산 봉수 유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부로산 봉수는 제2거 노선 직봉의 6번째 내지봉수로서 방호벽과 연조, 환도, 추정우물 등이 확인되었음. 조선전기부터 후기까지 운영된 봉수로서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방호벽이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음. 또한 방호벽 내에는 연조로 추정되는 원형의 석축이 확인되며 기와, 백자편 등의 유물도 수습되고 있음. 특히, 경주, 밀양, 양산, 부산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에 인접하여 현치소가 조망되는 등 봉수대로서 적지에 위치하고 있음. 유구가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으며 접근성도 좋은 편임.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적지정 후 방호벽 외곽에서 확인되는 추정 토루 등을 조사하여 측량하고 추가지정을 추진 할 필요가 있음. ○ 잔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의 방호벽이 높이 1m정도로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으며, 방호벽 내에는 연조로 추정되는 원형상의 석열과 돌무더기 등이 동·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음. 동쪽과 남쪽에는 토루로 추정되는 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동남쪽에 우물로 추정되는 유구 및 구덩이 등이 확인됨. 방호벽 서쪽으로는 송신탑이 존재하고 있으며 동쪽 아래 쪽에는 추정 건물지 및 추정 채석장이 위치하고 있음.
경주 접포현 봉수 유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 접포현 봉수는 제2거 직봉노선 중 15번째 내지 봉수로서 방호벽, 출입시설, 추정 건물지 등이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으며, 기와 등을 비롯한 백자편 등의 유물이 수집되었음. 특히 봉수에 내부가 상·하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존속한 봉수로서 경주지역 교통과 봉수운영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 봉수 방호벽 외곽으로는 토성으로 추정되는 선도 확인되고 있어 성곽으로 확인 될 경우 봉수와 성곽 운영관계도 규명 될 것으로 판단됨.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적 지정후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방호벽 외부 추정 토루구역을 지정구역에 추가 할 필요가 있음.

구분	조사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존상태 - 방호벽 남벽의 출입시설을 비롯하여 동쪽과 서쪽 방호벽이 외벽기준 약 1m정도 남아 있으며, 내벽도 길이 60m 정도 잔존하고 있음. 방호벽 내부는 동쪽 상단이 높고 서쪽 하단이 낮은 지형을 보이고 있으며 연조 또는 추정 건물지로 보이는 돌무더기도 잔존하고 있음. 수키와 편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음. 주변은 대나무가 우거져 있어 차후 수목제거 등 가시권 확보와 탐방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제천 오현 봉수 유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가치 - 조선시대 봉수 직봉노선 기점에서 36번째 내지 봉수로서 소이산 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마산봉수로 전하는 봉수이다. 조선전기부터 후기까지 운영하였던 봉수로서 조선전기 오성봉수에서 심항봉수로 바뀌는 대응봉수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봉수다. - 2000년대 지표조사에 이은 추가조사에서 방호벽과 연조, 추정 건물지, 출입구, 환도 등이 확인되었다. 비지정문화재이긴 하지만 방호벽과 추정연조 및 건물터가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으며 봉수대 내 충청북도 문화재 제8호인 오티별신체가 시작되는 서낭당이 있어 봉수대와 성향당의 기능이 공존하는 유적으로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잔존상태 - 봉수대의 방호벽과 추정연조 등이 양호하게 남아 있으며 출입구 외측으로 주거 공간으로 추정되는 평지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봉수대내에는 서낭당이 있어 오티별신체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봉수대의 북쪽에는 SK송신탑이 위치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유적의 잔존상태가 양호하며 서낭당은 마을주민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어, 보존, 관리 되고 있다. 단 주변에 거목이 곳곳에 있어 봉수전방향의 조망이 어려운 실정임.
단양 소이산 봉수 유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가치 - 조선시대 봉수 2거 직봉노선의 기점에서 35번째 해당하는 내지봉수로서 동쪽 죽령산 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서쪽 오이산(오현)봉수로 전달되는 봉수이다. 조선전기부터 조선후기까지 운영한 봉수로서 부산지역 천성보 봉수와 간비오산봉수에서 초기하는 간봉노선이 직봉과 연결되는 결절점에 해당하는 중요한 봉수이다. 장타원형의 방호벽과 추정 건물지, 추정 제단 등이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으며 용인 석성봉수대와 같이 봉수대 내 제단시설이 있는 특이한 봉수이다. 입지상 서쪽과 북쪽의 남한강 수운 등을 조망하기 좋은 수로와 육로의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수려한 경관과 함께 방호벽과 추정건물지 등이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어 사적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 보호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잔존상태 - 좁고 긴 타원형의 방호석축이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으며, 내부 공간은 상·하부분이 2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남쪽으로도 대지상의 공간이 있어 봉수대와의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 특히 북쪽은 낭떠러지와 같이 가파른 상태로 봉수대 내에는 산불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음.
충주 마산 봉수 유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가치 - 조선시대 봉수 2거 직봉노선의 기점에서 38번째 내지봉수로서 오현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가섭산봉수로 전하는 봉수이다. 제2거 직봉노선 상 죽령을 넘는 직봉과 가라산 봉수로부터 초기하는 간봉노선의 30번째 해당하는 간봉이 합쳐져 경기도 관할 봉수로 연결되는 봉수 결절점에 해당한다. 마산봉수대 주변에는 경제원과 용안역등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중요한 봉수이다. 2007년도 문화재 발굴조사 및 추후 지표조사에서 타원형의 방호벽, 추정 연조,

구분	조사자	내용
		<p>추정 건물지 등이 확인되어 출토유물과 같이 조선전기부터 조선후기까지 운영된 봉수로서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잔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도 발굴조사를 거쳐 토사마대 등으로 복구한 흔적이 곳곳에 보이나 원유구는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예비군 참호 등으로 파헤쳐진 부분도 일부 보이고 있다. 봉수대의 북쪽에도 일부 공지가 확인되었는데, 현재 주민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1. 문화재 종류

1) 사적

- 지정문화재(경기도 기념물 제179호, 지정일 : 2002.09.16)로서 부산 다대포 응봉봉수(鷹峰烽燧)에서 초기(初起)하는 제2거 직봉노선의 마흔세번째 내지봉수인 ‘성남 천림산봉수유적(城南 天臨山烽燧遺跡)’을 같은 노선의 봉수와 연계하여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1) 문화재명 : 제2로 직봉 - 성남 천림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城南 天臨山烽燧遺跡)

- 봉수유적은 연속유산으로서 노선 단위 지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정명칭은 “본 명칭-부 명칭”의 형식으로 부여토록 한다. 여기서 본 명칭은 대표성이 높으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2로 직봉(第2路 直烽)”으로 한다.
- 부 명칭은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라 봉수명칭 앞에 현 행정구역 소재지인 ‘성남(城南)’을 표기한다.
- 봉수명칭은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이후 조선 최후기 봉수망을 알 수 있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의 명칭과 한자표기를 따라 ‘천림산봉수유적(天臨山烽燧遺跡)’로 표기한다.
- 따라서, 최종 봉수명칭은 ‘제2로 직봉 - 성남 천림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城南 天臨山烽燧遺跡)’(이하 ‘천림산봉수’라 한다)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002.09.16. 경기도 기념물 지정(등록)일 시의 지정명칭은 ‘천림산봉수지(天臨山烽燧址)’임.

2) 명칭유래

봉수는 시기별로 발간된 지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자표기가 다양하다.

어두(語頭)의 명칭이 ‘穿川山 → 穿川峴 → 天臨山’ 등으로 세 차례의 변화가 확인된다.

어미(語尾)의 명칭은 ‘烽火 → 烽燧’로 두 차례의 변화가 확인된다.

- 穿川山烽火 : 『세종실록』 지리지
- 穿川峴烽燧 :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 天臨山烽燧 : 『광주부읍지』(1842·1871·1899), 『중정 남한지』, 『대동지지』, 『증보문헌비고』

목역산 제2 봉수와 대응하는 제2거 마지막 봉수인 천림산봉수는 달래내 고개에 위치하며 서울 남산타워가 쪽 뻗은 경부고속도로위로 보인다. 달래내 고개는 예전부터 삼남과 서울을 잇는 목이 되는 곳이었다. 옆으로 경

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도 흔히 정체를 겪는 곳이다.

“천천현이 태종의 능인 헌릉에 가까워 통행하는 인마의 발길이 지맥을 막을까 걱정해 폐쇄했던 길을 다시 통행하게 했다.”(『문종실록』 1년(1451) 10월 16일.)

천천현봉수는 ‘穿川山·穿川峴·天臨山·月川峴’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천천산(穿川山, 시내에 둘러싸인 산)으로 기록된 후 천천현(穿川峴, 시내에 둘러싸인 고개) → 천림산(天臨山) → 월천현(月川峴, 달내 고개) 등으로 변해 왔다. 달래내 고개를 가운데 두고 남서쪽에 금토천·시흥천이 흐르고, 상적천이 북동쪽을 안듯이 흐른다. ‘달래내’는 ‘시내가 고개를 사이에 두고 둘러싼 듯한 형상’이다. ‘달래내’는 여기서 비롯된 이름이다.

이를 종합하면 穿川峴은 ‘둘레 내(고개를 둘러싼 시내) → 달래내’로 변한 것이고 月川峴(달내 고개)은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고, 天臨山은 川臨山(시냇가에 있는 산)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3. 성남지역의 봉수현황과 성격

- 성남 지역은 과거 광주부(廣州府)에 속했던 지역으로 천림산봉수 1기가 소재하고 있다. 봉수의 성격에 의한 구분상 육지내륙 소재의 내지봉수(內地烽燧)다. 조선 전기부터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가 최종 폐지될 때까지 국가의 기간 통신망으로 운영되었다.



사진 1. 천림산봉수대 원경



사진 2. 천림산봉수대에서 바라본 석성산봉수대

4. 천림산봉수의 입지와 연혁

1) 입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상적동 경계의 청계산(淸溪山) 동쪽 기슭 해발 약 170m 가량인 나지막한 구릉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판교~서울간 고속도로변에 인접하여 옛 부터 주요 교통로 상에 있다. 봉수대가 위치하는 곳은 해발 170m의 그다지 높지 않은 곳이지만 이곳에서 보면 남쪽과 북쪽으로 용인 석성산(보개산)봉수와 서울의 남산봉수가 지척에 있듯이 잘 조망되는 이상적인 입지조건이다.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국도로공사로 진입하는 금토동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금토교를 건너면 오른쪽에 금토동 마을이 나온다. 마을내에는 수정구 금토동~상적동 옛골간 왕복 2차선 도로가 잘 나 있다. 봉수대는 도로변의 입산통제초소에서 청계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따라 5분정도 산행하면 도착할 수 있다. 봉수대를 가로질

러 청계산으로 오르는 주된 코스여서 등산객들의 왕래가 잦은 편이다.

2) 연혁

봉수의 최초 지지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부터이며, 최종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조선 전(全) 시기 발간의 지지에 문헌기록이 있다. 각 지지별 발간연도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世宗實錄』 地理志(1454) 卷148, 京畿 廣州
烽火一處 穿川山 在州西 南准龍仁石城 北准京城木覓
봉화가 한 곳이다. 천천산은 주의 서쪽에 있는데, 남으로 용인 석성을 거누고, 북으로 경성 목역을 거누다.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卷6, 京畿 廣州牧 烽燧
穿川峴烽燧 南應龍仁縣寶蓋山 北應京都木覓山第二烽
천천현봉수는 남으로 용인현 보개산에 응하고, 북으로 경도 목덕산 제2봉에 응한다.
- 『東國輿地志』(1656) 卷2, 京畿道 廣州牧 烽燧
穿川峴烽燧 在州西三十里 南應龍仁縣寶蓋山 北應京都木覓山第二烽
천천현봉수는 주의 서쪽 30리에 있는데, 남으로 용인현 보개산에 응하고, 북으로 경도 목덕산 제2봉에 응한다.
- 『輿地圖書』(1760), 京畿道 廣州府
烽燧 在州西南二十里 南應龍仁石城山 北應京都木覓山
봉수는 주의 서남쪽 20리에 있는데, 남으로 용인 석성산에 응하고, 북으로 경도 목덕산에 응한다.
- 『廣州府邑誌』(1842)
天臨山 在州西三十里 大旺面即古穿川峴 南應龍仁寶蓋山之嶺南傳烽 北應京都木覓山之第二烽
천림산은 주의 서쪽 30리에 있다. 대왕면은 곧 예전 천천현인데 남으로 용인 보개산의 영남에서 전해오는 봉화에 응하고, 북으로 경도 목덕산 제2봉에 응한다.
- 『重訂 南漢誌』(1846) 卷1, 上篇 山川
天臨山 在大旺面 西連淸溪上 有烽燧臺
천림산은 대왕면의 서쪽으로 청계산에 이어지는 위에 있다. 봉대가 있다.
- 『重訂 南漢誌』(1846) 卷3, 上篇 烽燧
天臨山烽燧 在大旺面即古穿川峴也 南應龍仁寶蓋山之嶺南傳烽 北應京都木覓山之第二烽 烽軍二十五名 保七十五名
천림산봉수는 대왕면에 있는데, 예전 천천현봉수다. 남으로 용인 보개산의 영남에서 전해지는 봉화에 응하며 북으로 경도 목덕산 제2봉에 응한다. 봉군 25명, 보 75명이다.
- 『大東地志』(1864) 卷2, 京畿道 4都 廣州府 烽燧
天臨山 一云 月川峴 西三十里
천림산은 월천현이라고도 한다. 서쪽 30리다.
- 『廣州府邑誌』(1871)
天臨山 在州西三十里 大旺面即古穿川峴 南應龍仁寶蓋山之嶺南傳烽 北應京都木覓山之第二烽
천림산은 주의 서쪽 30리에 있다. 대왕면은 즉 예전 천천현이다. 남으로 용인 보개산의 영남에서 전해오는 봉화에 응하고, 북으로 경도 목덕산 제2봉에 응한다.
- 『廣州府邑誌』(1899)
天臨山 在州西三十里 大旺面即古穿川峴 南應龍仁寶蓋山之嶺南傳烽 北應京都木覓山之第二烽
천림산은 주의 서쪽 30리에 있다. 대왕면은 즉 예전 천천현이다. 남으로 용인 보개산의 영남에서 전해오는 봉화에 응하고, 북으로 경도 목덕산 제2봉에 응한다.
- 『增補文獻備考』(1908) 卷124, 兵考16, 烽燧
初起 鷹峰(다대포진) -- (中略) -- 石城山 天臨山(勝覺作穿川縣 備局臚錄作穿山 廣州以下 京畿監司所管
초기 응봉(다대포진) -- (중략) -- 석성산 천림산(『여지승람』에 천천현이라고 하였는데, 『비국등록』에서는 천산(穿山)이라고 하였다. 광주 이하는 경기감사 관할이다.

위 지지의 내용을 검토하면 대응봉수는 남쪽의 용인 석성산봉수(石城山烽燧)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북쪽

으로 목덕산 제2봉에 응했다.

과거 봉수제가 운영되던 당시 부산 동래 다대포진 응봉에서 매일 저녁에 초기한 제2거의 봉수가 육로로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의 여러 직봉 및 간봉의 봉수와 현 경기 용인 소재 건지산봉수 → 석성산봉수를 차례로 거쳐 천림산봉수에 오면 최종 수도 한양의 목덕산 제2봉에 응하였던 경기도 관내의 마지막 봉수였다.

3) 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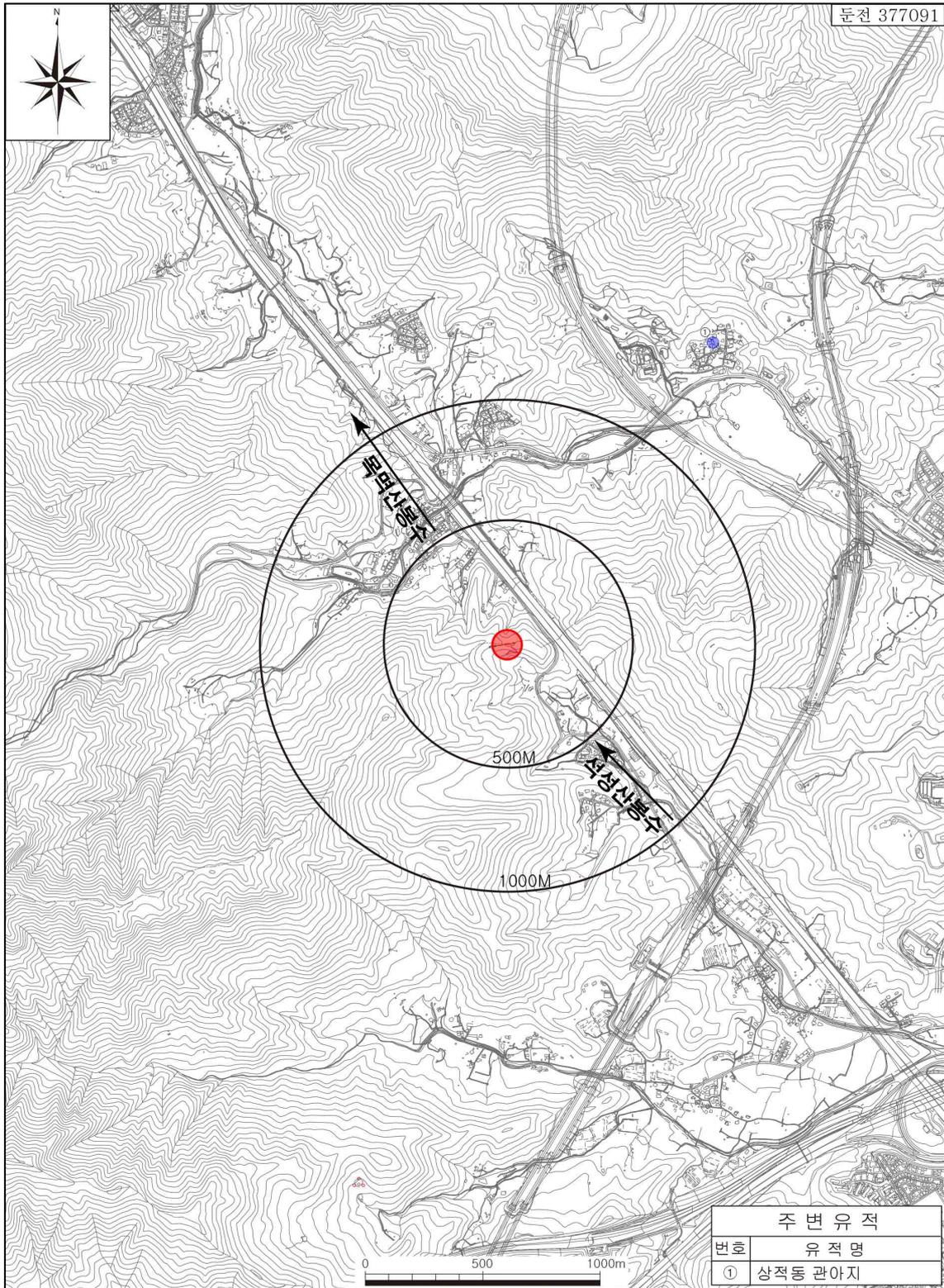
『해동지도』에는 천림산봉수를 청계산과 천림산 사이에 표시하고 있으며 이는 『광여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청계산과 천림산 사이에 표시하고 있다. 『대동여지도』에도 천림산봉수를 청계산과 월천현 주변에 표기하고 있다. 『광주부읍지』나 『경기읍지』에는 천천현봉수대(穿川峴烽燧臺)라고 하여 언주면 양제역과 돌마면 낙생역을 연결하는 도로축에 천천현이 있고 그 정상에 봉수대를 표기하고 있다. 종합하면 고지도 상에 나타난 천림산봉수는 천천현 또는 천평천, 천림산봉수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청계산과 떨어져 그린 경우와 붙여서 그린 경우가 있다.

5. 봉수운영

- 조선 후기 경기감사 소관이었다. 봉수군 인원은 『중정 남한지(重訂 南漢誌)』(1846) 봉수에 “봉군 25명, 보 75명이다.”라고 한 기록을 통해 여타 다른 봉수와 마찬가지로 봉군 5명이 조를 이루어 5교대로 월 평균 6일씩 번(番)을 썼다. 봉군보 75명은 실제 번을 서지 않는 대신 번을 서는 봉군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봉군 1인당 봉군보 3인씩이 배치되어 있었다. 과거 봉수제가 운영되던 당시 봉수군과 봉군보는 인근 금토동 주민 중에서 충원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지도 1. 2거 직봉 노선 내 천림산봉수 위치



지도 2. 천림산봉수대 위치도(S=1/25,000)



고지도 1. 『해동지도』 광주부



고지도 2. 『광여도』



고지도 3. 『대동여지도』(1861, 규장각)



고지도 4. 『광주부읍지』(1871, 규장각)



고지도 5. 『광주전도』(1872)



사진 3. 천림산봉수대 일원 항공사진(1972)

6. 유구현황과 특징

1) 항공사진

봉수대를 알아볼 수 있는 항공사진은 1972년 사진이다. 방호벽의 형태가 당시까지도 잘 남아 있었다. 방호벽 내부에는 연조로 추정되는 시설과 함께 내부에는 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봉수대 인근으로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창고 등의 건물지로 추정할 수 있다.

2) 유구현황¹⁾

발굴조사를 통해 방호벽은 동쪽이 중간지점에 이르러 평면 ‘V’자 모양으로 회절하면서 동남방향 45°각도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데 서쪽 청계산(해발 618m)으로 오르는 등산로 부분에 이르러 북쪽방호벽과 남쪽방호벽이 점차 오르라들면서 폭 5m 정도로 좁아지고 있다. 동·남·북 3면이 석축으로 되어 있는 반면, 서쪽은 석축의 흔적이 없이 거의 지면과 맞붙어 있다. 또한, 봉수대의 구조상 해발 170m 가량의 나지막한 평지를 이루고 있는 능선상에 봉수 시설을 하였기에 현재 석축이 남아 있는 북·동·남쪽 방호벽 3면은 외측을 돌로 쌓고 내부는 원지형을 이용한 편축식(片築式)이다. 지형상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봉수대 내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엇비슷하게 경사가 져 있다.

봉수대 내에는 동쪽과 북쪽방호벽의 가장자리 제일 높은 곳에 규모가 큰 외방내원형의 연조(煙竈)가 위치한다. 또 서쪽으로는 직각을 이루며 역시 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규모가 작은 4기의 연조가 일정한 등간격으로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 서울의 남산봉수를 정면에 향하도록 시설을 하여 놓아서인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총 5기의 연조 및 북쪽 방호벽은 동-서로 거의 일직선을 띠고 있다. 출입시설은 동쪽방호벽에 1개소가 확인되었다.

봉수대의 규모는 둘레가 상부 82m, 하단부 85m이다. 동서 장축 33.8m, 남북 단축 12m로서 그중 북쪽 방호벽은 30m이고 동쪽 방호벽의 동쪽은 7.8m, 동남쪽 8.2m로서 총길이 16m이며, 남쪽 방호벽은 29.3m이다. 아울러 봉수대 내부의 전체면적은 333㎡(100평) 정도이다.

봉수대 내부의 규모와 구조 및 현존 시설물로 보아 그 담당했던 역할과 더불어 보존상태가 양호한 내지봉수의 전형으로서 경기도 내 고양 독산봉수(禿山烽燧) 및 공주 월성산봉수(月城山烽燧) 등과 비교·검토 할 수 있는 봉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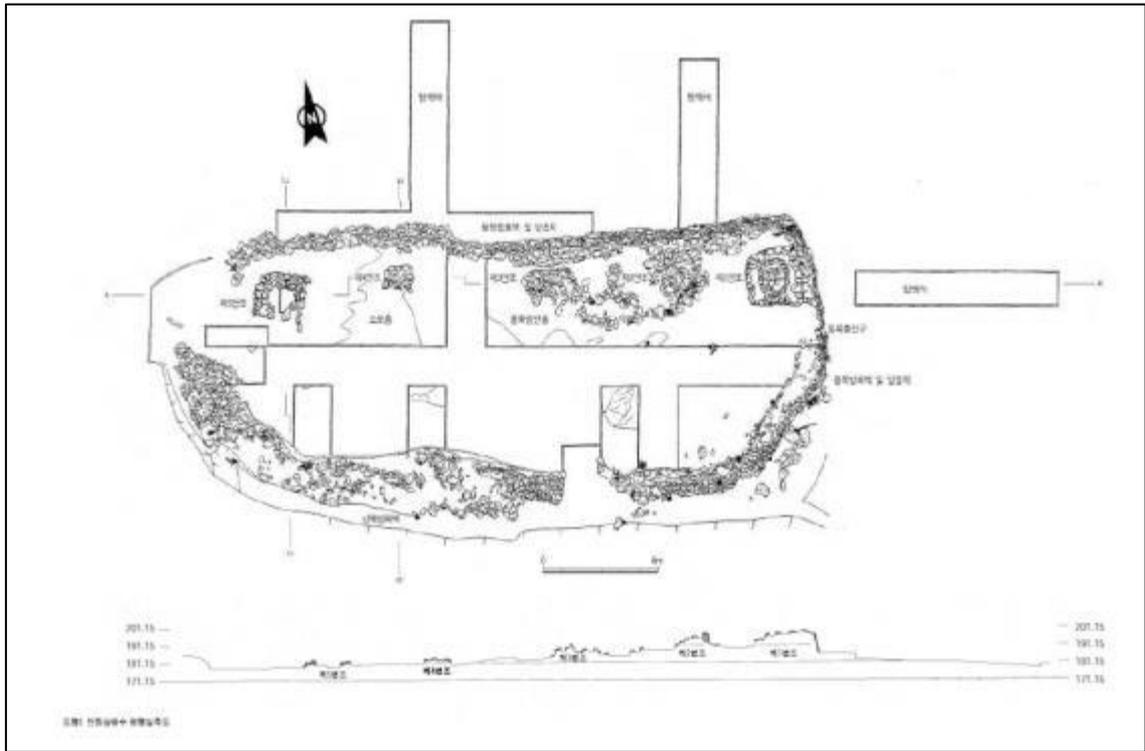
현재는 과거 발굴조사 완료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방호벽 및 연조 등이 복원되어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주요 유물로는 도기병 1점을 포함한 도·토기류, 자기류와 상평통보 14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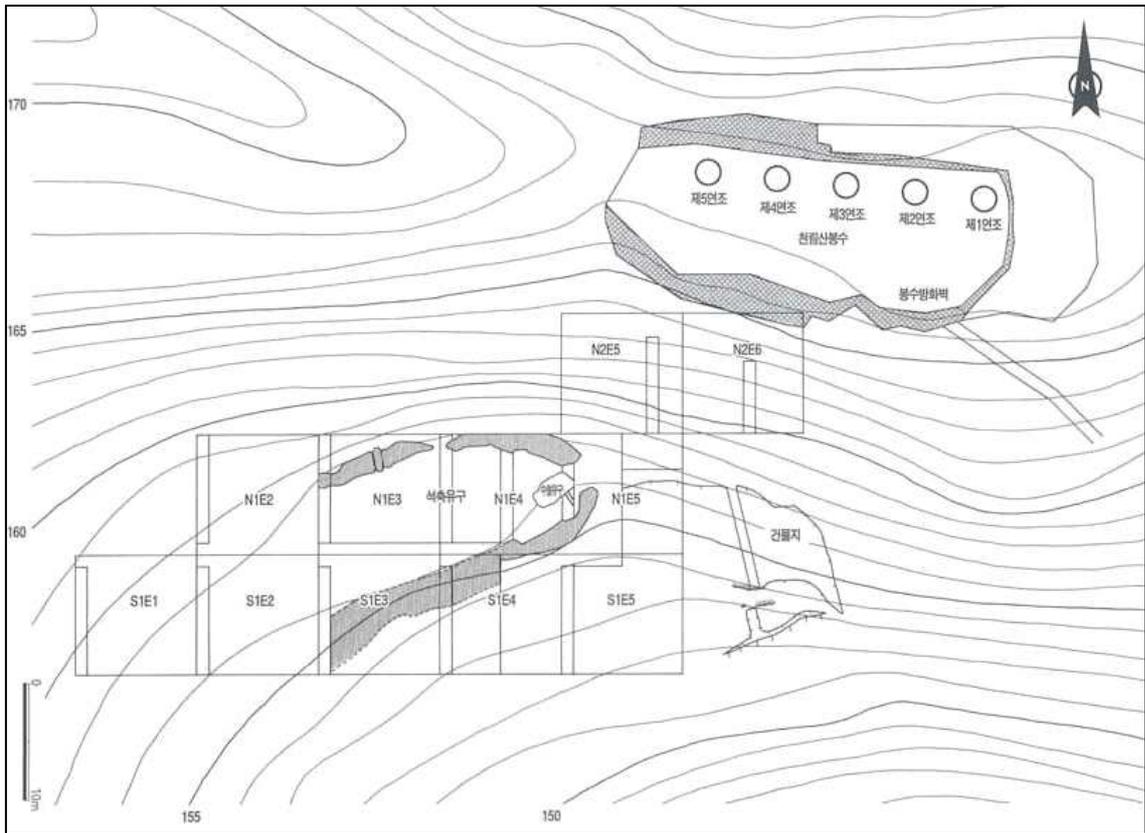
3) 특징

- 내지봉수로서 드물게 연조(煙竈) 5기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1) 토지주택박물관, 2001, 『성남 천림산봉수』



도면 1. 천림산봉수대 발굴조사 현황도(토지주택박물관, 2001, 『성남 천림산봉수』 발췌)



도면 2. 천림산봉수대 건물지 발굴조사 현황도
(토지주택박물관, 2003, 『성남 천림산봉수 건물지』 발췌)

1999년도 조사내용 [봉수대 발굴조사(토지주택박물관, 2001, 『성남 천림산봉수』 발췌)]

2001년도 조사내용 [건물지 발굴조사(토지주택박물관, 2003, 『성남 천림산봉수 건물지』 발췌)]



사진 4. 천림산봉수대 조사완료 후 전경



사진 5. 방호벽 조사완료 후



사진 6. 제1연조 조사 후



사진 7. 제2연조 조사 후



사진 8. 제5연조 조사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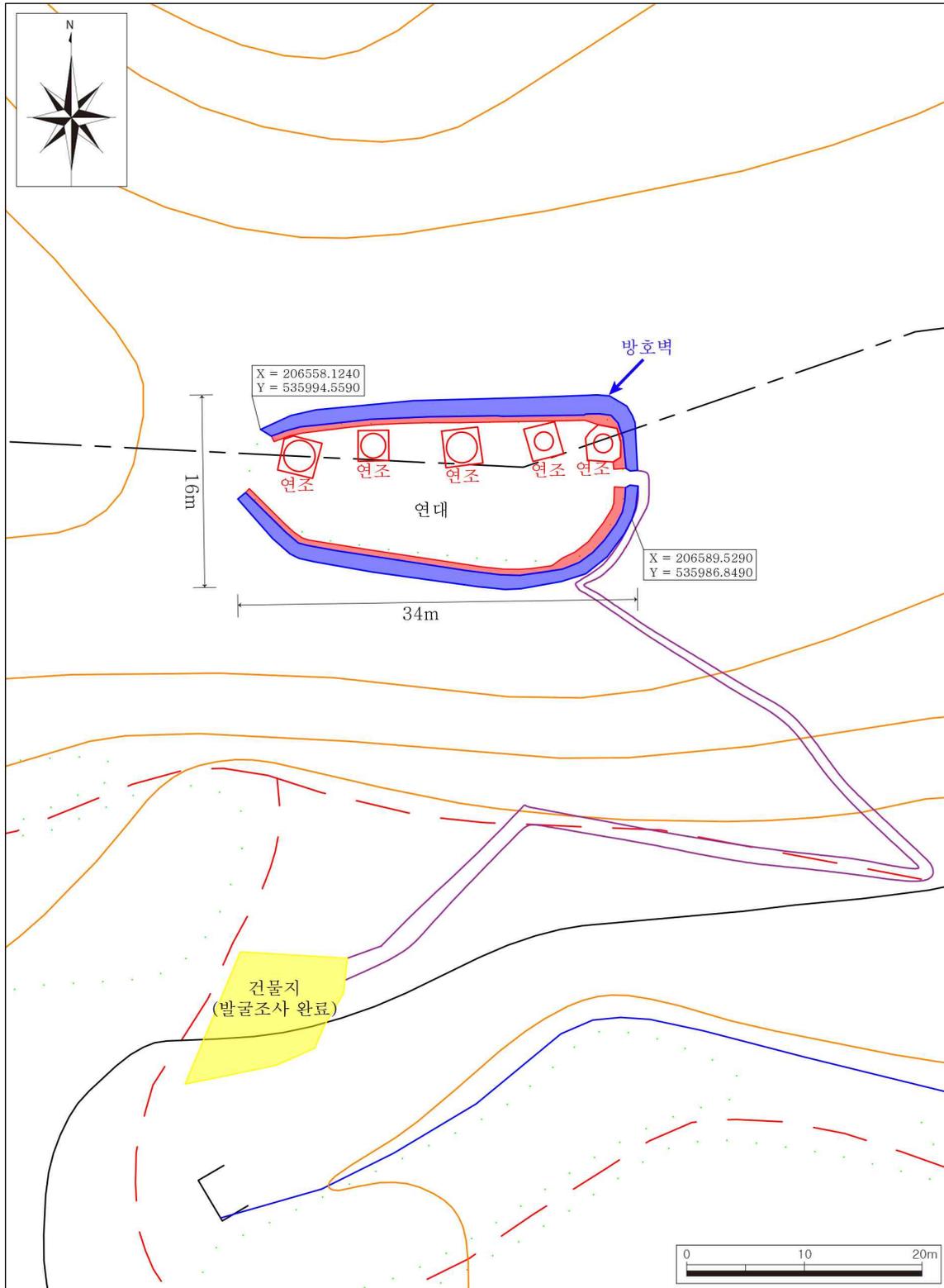
사진 9. 출입시설



사진 10. 건물지 조사 후 전경



사진 11. 건물지 조사 후 세부



지도 4. 천림산봉수대(복원·정비 후) 현황도(S=1/500)



사진 12. 복원 후 봉수대 전경



사진 13. 연조



사진 14. 복원 연조



사진 15. 방호벽



사진 16. 방호벽

7. 지정가치와 근거기준

1) 역사적 가치

- 조선시대 제2거 직봉 중 마흔세번째 내지봉수로 조선 전(全) 시기 발간의 지지(地誌) 기록을 통해 봉수 한자 표기의 다양함과 전·후 대응봉수의 확인이 가능하다.
- 조선 후기 발간의 『해동지도』와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등의 고지도(古地圖)에 빠짐없이 표기되어 있다.
- 제2거 직봉의 봉수를 최종 서울 목멱산봉수에 전하는 곳이다.

2) 내지봉수로서 주변 교통로를 이어주는 분기점에 입지

- 죽령로(竹嶺路)와 계립령로(鷄立嶺路)의 두 길이 마산봉수에서 만나 가섭산봉수 → 망이성봉수 → 건지산봉수 → 석성산봉수를 거쳐 서울로 향하는 영남대로변에 위치한다.
- 발굴조사 결과 내지봉수는 드물게도 연조 5기가 확인되었고 방호벽 외부에 추정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도 실시되었다.

3)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복원 정비되어 사적지정 추진 가능

- 천림산봉수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등재된 이후 구한말까지 변함없이 운영된 2거 직봉이 목멱산 봉수로 이어지기 바로 전 봉수다. 그 중요성이 상당하고, 정밀발굴조사를 거쳐 복원된 모범적 사례이며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사적지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4) 학술조사의 실시

- 단일 봉수유적으로는 드물게 세 차례의 학술조사 실시를 통해 봉수와 건물지의 전모가 확인되었다.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城南 天臨山烽燧 精密地表調査報告書』, 2000.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城南 天臨山烽燧 發掘調査報告書』, 2001.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성남 천림산봉수 건물지발굴조사보고서』, 2003.

5) 정비·복원 완료

- 2009년 방호벽, 연조 4기(1기는 경화처리 보존) 등을 정비·복원하여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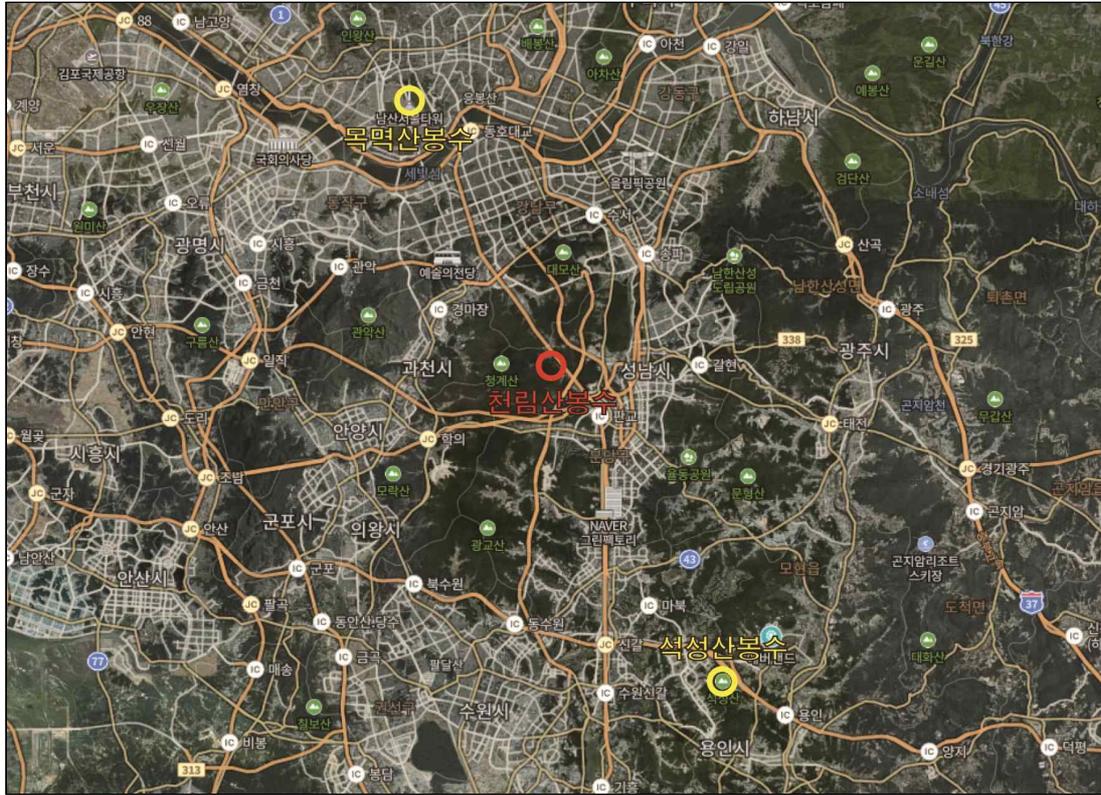


사진 17. 천림산봉수와 대응봉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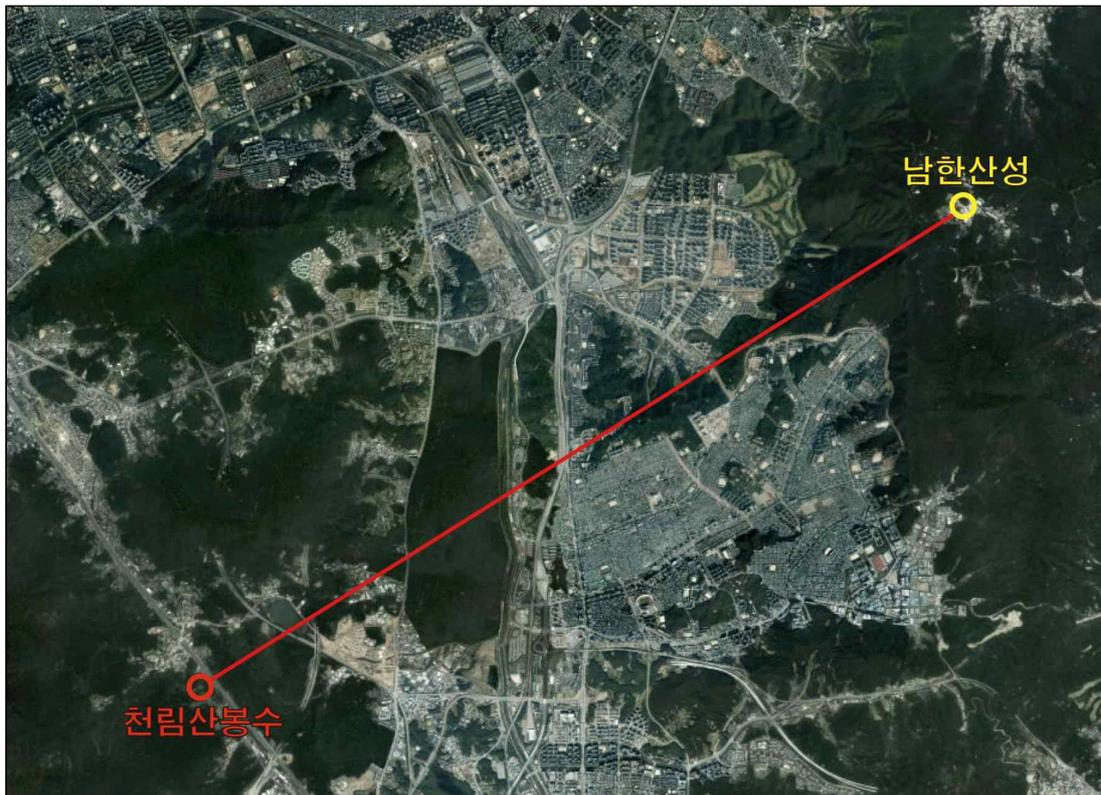


사진 18. 남한산성과 천림산봉수대

8. 지정대상과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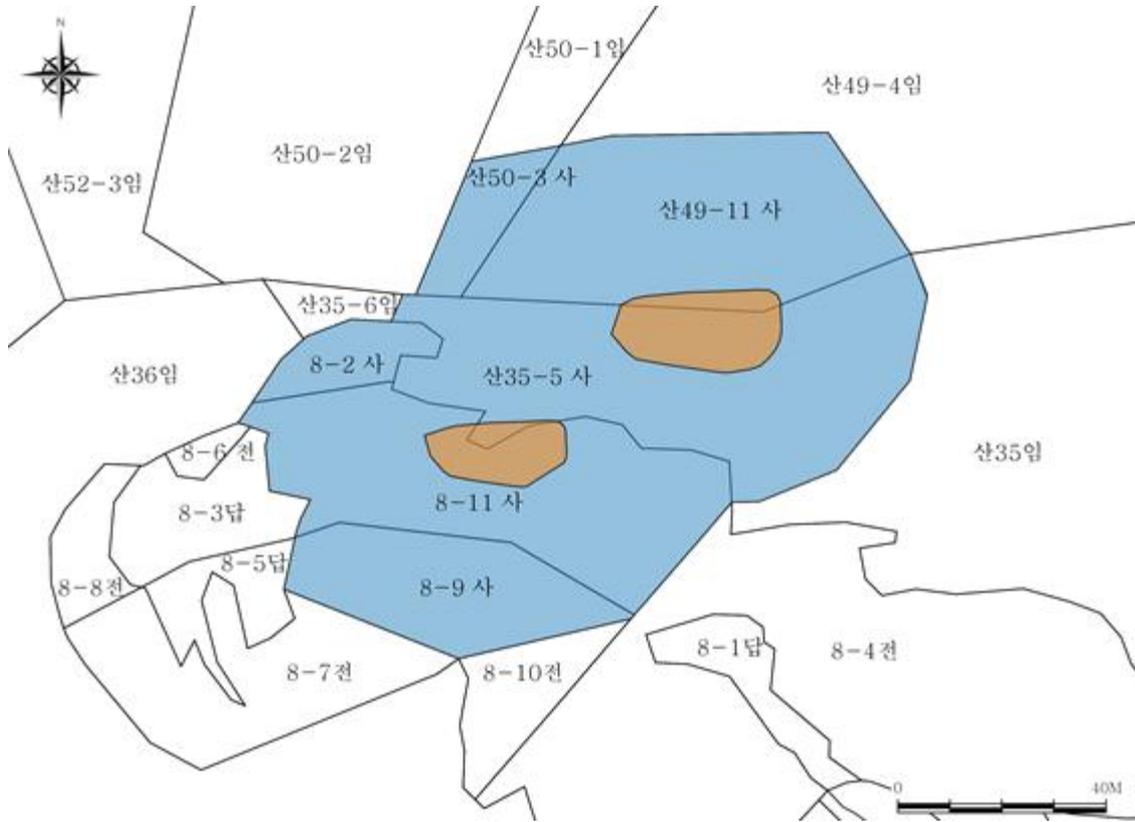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 지정구역)

● 지정면적 : 6필지 / 9,287㎡(문화재 1,064㎡, 보호구역 8,223㎡)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건조물인 경우 (면적: ㎡)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물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량								
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1,06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산49-4	임야	15,334	192						
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35-5	임야	2,832	474						
3		8-6	전	2,327	398						
계				20,493	1,064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8,22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35-5	임야	2,832	2,358							
2		8-2	전	331	331							
3		8-6	전	2,327	1,929							
4		8-9	전	1,095	1,059							
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산49-4	임야	15,334	2,199							
6		산50-3	임야	347	347							
계				22,266	8,223							



지도 5.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S=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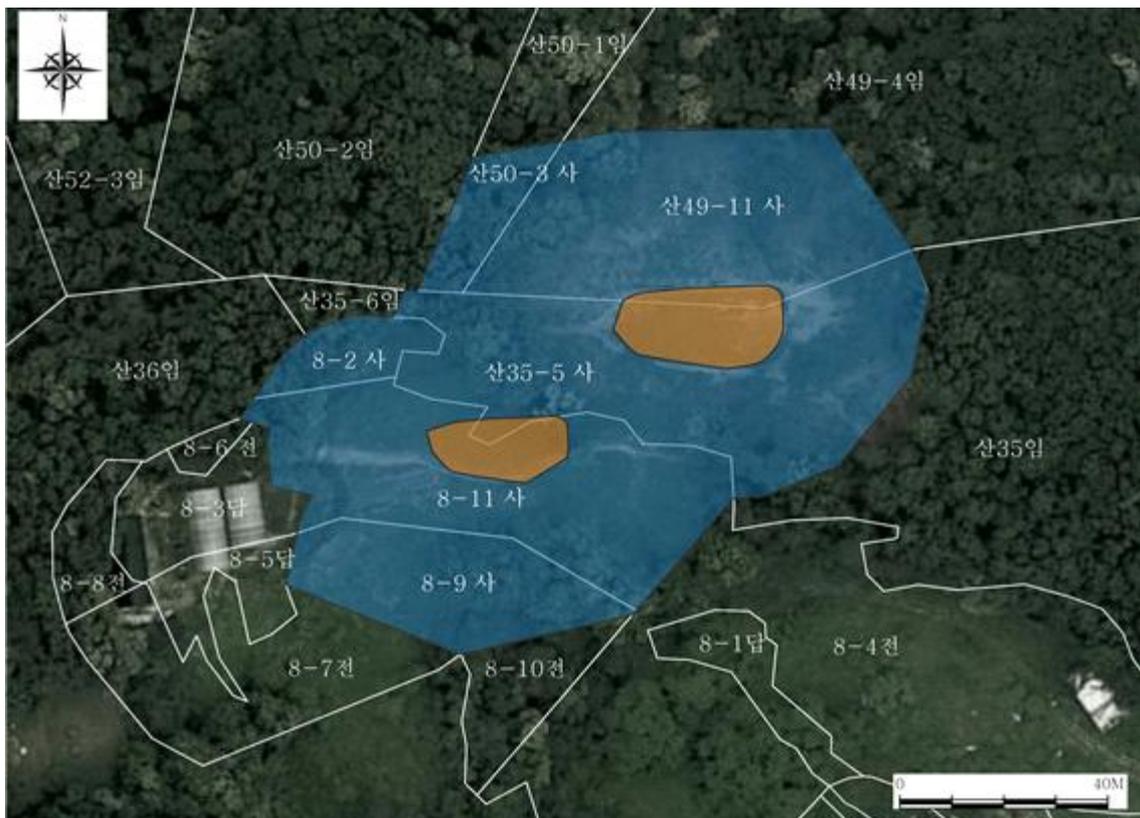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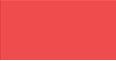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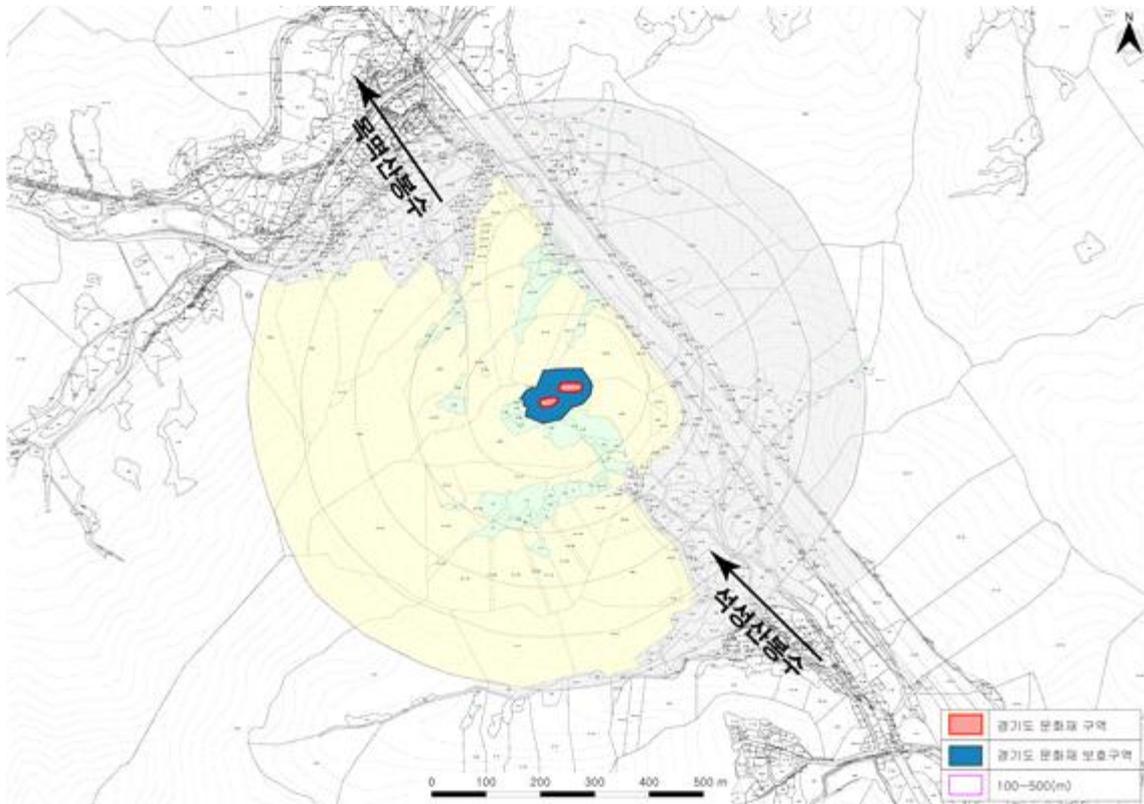
사진 19.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

9.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천립산봉수 전·후 대응노선 봉수의 방향을 고려한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

성남시	성남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p>■ 대상문화재 제2로 직봉 - 성남 천립산봉수유적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7구 금토동 산35-5번지 일원</p> <p>■ 문화재 및 보호구역  경기도 문화재 구역  경기도 문화재 보호구역</p> <p>■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간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p> <p>■구역별 허용기준</p>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3구역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자연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2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지준 정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의 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0. 보존·정비와 활용 착안사항

1) 기본구상

(1) 기본방향

① 기본원칙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1.6.10.] [법률 제17409호, 2020.6.9. 일부개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문화재청, 2002)

- 문화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문화재 활용은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사업의 소재로서 개발·활용하며,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육성한다.

『유적(遺蹟 등) 정비계획 수립·추진관련 고려사항』(문화재청, 2003)

- 가치(원형) 보존 최우선: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복원·정비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비를 지양하고, 유적의 가치와 역사적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명확한 정비목표 수립: 유적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적

정비를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한다. 보존과 복원·정비되어야 할 것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 :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고, 유적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방향 설정

천림산 봉수는 성남시에 의해 봉수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와 함께 봉수대 아래의 건물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도 진행되어 봉수의 거화시설 및 생활시설에 대해 고고학적 고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봉수의 방호벽과 연조를 중심으로 하여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밝혀진 봉수대 내부 및 계단식 출입시설, 연조 등에 대해 비교적 발굴조사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였다. 그리고 5개 연조 가운데 비교적 원형을 유지한 연조는 원형보존을 한 상태로 봉수의 거화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복원하였다. 다만 봉수군의 생활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정비·복원계획이 진행되지 않아 봉수유적의 전면적인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비·복원 방향의 수립이 필요하다.

봉수대의 보존·정비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도모하고,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과 성남시의 역사문화 관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동선체계 등 기반시설의 확충안을 수립한다.

봉수는 조선시대 500여 년간 변경의 안위(安危) 여부를 전·후 대응봉수간 차차거화(次次擧火)를 통해 최종 중앙에 알리던 호국군사통신 유적으로서, 성격에 의한 구분상 내지봉수(內地烽燧)에 해당한다.

봉수는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평안을 상징하는 1거의 햇불[平安火·太平火]을 올림으로서 과거 성남시(광주부)와 인근 고을 백성들이 이를 바라보고 일상을 마무리하는 순기능도 있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천림산봉수의 보존·정비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봉수대의 잔존 방호벽과 연대 등의 역사적 실체를 보존·정비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시킨다.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활용되었던 봉수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정보통신 발달의 상징적 유적으로 보존·관리한다.

경상도와 충청도·경기도를 거쳐 최종 서울 목멱산봉수로 이어지는 내지봉수 체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원한다.

(2) 기본전제

① 잔존 봉수 유구의 보존과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

○ 봉수의 핵심요소인 거화시설(연조)과 방호시설(방호벽) 및 생활시설(주거지)을 대상으로 보존·정비하여 천림산봉수대의 문화재적 가치가 표출되도록 한다. 이미 방호벽과 연조에 대한 복원은 충실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생활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보존·정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 역사문화자산 가치 증진 및 화제성 창출

○ 과거 봉수제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던 당시에 봉수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봉수군과 봉수운영 관련된 기록과 내용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유적과 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화제성이 창출되도록 정비한다.

③ 대응봉수와의 조망을 위한 가시성 확보

입지조건상 동북쪽의 남한산성이 잘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지 봉수로서 주변 교통로를 이어주는 분기점에 입지하고 있어 인근 대응봉수와의 후망을 통해 성남지역과 고을 백성들에게 변경의 안위 여부를 알리던 군사통신 유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적 강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계획한다.

조선 후기에 최종 설정된 대응봉수인 석성산봉수와 목멱산봉수와의 가시성 확보 외 봉수 주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식생이 양호한 기존의 자연경관 유지 방안을 제시한다.

④ 주연야화(晝煙夜火) 통신의 특징을 살린 ‘체험과 교육의 장’ 조성

햇불과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 소식을 전하였던 봉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적의 복원보다는 체험과 실연(實演)을 통한 거화의 과학적 원리를 교육한다.

기존의 진입로를 활용하여 최적의 보행환경과 교육적 기능을 갖춘 탐방로 조성을 통해 천림산봉수의 500여 년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⑤ 주변 문화자원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

봉수대와 인근 유적을 통합적으로 연계·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⑥ 실현가능한 세부추진사업 도출과 단계별 사업시행

성남시의 재정여건이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토지 매입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필요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3) 종합구상

① 추진사업 계획

가. 식생정비(소목 간벌), 봉수 내부 잔디 식재, 봉수군 주거지 복원·정비 등을 실시하여 천림산봉수대의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문화자원 연계 개발사업

- 탐방로(봉수군 길) 정비, 스토리텔링 개발, 체험 프로그램 및 축제 개발, 봉수 C.I개발, 동선표지판·전망시설 및 망원경 설치 등을 설치하여 천림산봉수대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대응봉수 등 관방체계 알림 사업

- 대응봉수와 소속 군현 등의 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라. 기반시설 구축사업

② 토지이용계획

봉수대 일원은 성남시 소유의 임야로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35-5번지 일원에 소재하며 면적은 1,064㎡이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토지대장, 2021.9.)

현재 천림산봉수를 찾는 탐방객은 소수에 불과하여 마땅한 주차장이 없었고 수골길 주변에 주차하는 실정이다.

향후 제2거 직봉 노선 봉수의 사적지정이 확정되고 보존·정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의 추진 시 탐방객에게 보다 쾌적한 역사경관과 편리한 탐방 환경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

③ 동선계획

본 계획에서는 봉수구역과 진입광장 및 주차구역으로 나누고 각 공간별로 기능을 배분하였다. 특히, 진입광장 및 주차구역에는 방문객이나 차량의 접근 동선과 관련된 공간 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험교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봉수대의 탐방동선은 기존에 조성된 산책로를 그대로 이용하되, 전통적인 분위기 연출과 유지관리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야자매트나 경화흙포장으로 한다.

또한, 탐방객의 주동선이 되는 기존 산책로를 활용하여 봉수에 대한 관심유발과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2) 보존과 정비활용계획

(1)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확대지정

① 향후, 제2거 직봉 노선의 봉수를 사적(史蹟)으로 승격 시 문화재지정구역의 확대 및 대응봉수간의 조망과 가시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천림산봉수를 중심으로 남동쪽의 석성산봉수, 서북쪽의 목멱산봉수를 잇는 조망과 이를 잇는 가시권 확보가 필요하다.

② 봉수대 주위의 수목을 선별적으로 간벌하여 대응봉수간 조망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③ 봉수대 주변 식생이 양호한 임야는 가급적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④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지정은 인접봉수간의 조망 확보를 위해 구 방향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각 범위별로 구역을 설정하여 역사문화 환경과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석성산봉수는 기존에 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해당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재산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소유주와 지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⑤ 진입로에서 봉수대의 원경을 볼 수 있도록 간벌 등을 통해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봉수군들이 이용했던 소로(진입로)는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이 길을 통한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2) 보존계획

① 봉수유적 보존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의 거화시설인 연대는 현재 정비·복원되어 있으나, 생활시설과 경작지 등은 일부 조사되었거나 조사 전이므로 추후 발굴 조사된 유구는 복원정비하고 경작지는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하여 봉수의 전반적인 규모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 따라서, 과거 봉수의 운영당시 원형구조를 밝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수를 구성하였던 제반 요소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비와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에 대한 최근의 현황조사를 통해 전체 구조의 확인이 가능함으로 이를 바탕으로 운영당시의 모습대로 단계적으로 정비·복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조선시대 내지봉수의 형태와 기능을 학습·체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공간으로 조성한다.

다. 추진방법 및 절차

- 생활시설에 대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복원·정비를 추진하여 봉수군 주거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탐방객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 봉수대 주변에 대한 유구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경작지, 창고 등 봉수운영과 관련된 유구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② 수목 간벌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 외부는 현재 무성한 수풀잡목으로 대응봉수와의 조망이 곤란하거나 유구 훼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적절한 간벌을 통하여 유적 보존 및 가시권(可視圈)을 확보한다.

나. 사업내용

- 현재 봉수대 주위에는 수목이 들어차 있어 대응봉수의 조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목을 선별적으로 벌목하여 대응봉수인 석성산봉수와 목멱산봉수에 대한 조망을 개선한다.

다. 추진방법

- 벌목작업은 봉수유구의 보존, 주변경관 조망, 봉수의 제반요소 관찰 등에 장애를 주는 수목부터 선별하여 실시한다.
- 봉수대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경관이 확보되도록 수목을 제거한다.
- 수성구 금토동-상적동 옛골간 도로변의 입산통제초소에서 청계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따라 동쪽 고수골길에서 봉수대로 향하는 수목을 정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동선을 유도한다.

(3) 정비·활용계획

① 전망시설과 휴식공간 설치

○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의 정체성과 주요 기능은 대응봉수와의 시각적 연결에 있다. 현재, 봉수대는 외부의 수목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제한적이고, 대응봉수를 살펴 볼 수 없다. 조선시대 봉수는 대응봉수와의 조망과 주변 관찰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였으므로 이러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 사업내용

- 봉수대 주변 적당한 곳에 봉수의 전체 구조와 대응봉수, 주변 자연환경, 시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 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조선시대 봉수의 입지선정 원리를 체감하게 한다.

○ 추진방법과 절차

- 전망시설은 봉수 주변 시야가 가장 좋은 지점에 설치하되,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봉수의 역사 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안내판에 대응봉수를 촬영한 사진을 표시하여 눈앞에 펼쳐진 전경과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망시설에는 망원경 등을 설치한다.
- 전망시설 하부나 주위에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방문객에게 휴식과 사색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② 봉수군 탐방로 정비

○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의 동쪽 고수골길에서 봉수대로 이어지는 ‘봉수군 탐방로’를 조성하여 문화콘텐츠로 활용한다.

○ 사업내용

- 탐방로를 개설하고, 봉수 관련 이야기와 비품 등을 소개함으로써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과거 봉수대의 기능과 운영 및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노변(路邊) 전시관 기능을 하게 한다.

○ 추진방법

- 기존의 길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요 지점에는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고 벤치 등의 휴식시설을 도입한다.
- 안내판의 내용은 경북권 내 경산(現 대구 수성구) 성산봉수(城山烽燧)의 비치물목을 토대로 봉수운용에 필요한 비치물목상의 거화재료나 생활비품 등을 선별하여 사진 자료와 함께 해설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烟臺1 烟窟1 望德1 火德1 積草5訥 烏外石5訥 無稜石5訥 吐木5訥 烟炬3柄 松炬50柄 草炬50柄 柎炬50柄 艾5同
 牛糞5同 馬糞5石 炭5石 細沙5石 糟糠5石 防牌5坐 排火木5介 法手木5介 水桶5箇 菱鐵20箇 古乙羅木25箇 木斧
 子20柄 滅火器5坐 麻注乙里20沙里 前梯1 水樽5坐 縣瓢子5介 火箭9柄 唐火箭9柄 長箭1浮 片箭1浮 黑角弓1張
 桶兒1介 大白旗1面 鉛丸30箇 火藥5兩 烏銃1柄 環刀1柄 長槍1柄 火繩6沙里 細繩3沙里 條乙所3沙里 火鐵石2介
 水瓮5坐 釜1坐 食鼎1坐 爐口1坐 匙5持 沙鉢5立 空石10立 接匙5竹 瓦家5間 種火盆1坐 草席2立 抹木18箇 火桶5
 介 燒木5同 戰角1雙 待賓米1石 鎌子4柄 盤5立 三穴銃1坐 火綿1 掩頭1部 掩心1部 五色布旗5面 鼓1坐 錚1坐
 火鐵10介 生松1訥 橫1坐

(『嶺南邑誌』第7冊, 『慶山縣邑誌』(1871) 烽臺)

(4) 봉수 거화(舉火) 실연(實演) 행사

①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는 연기[주간]와 불[야간]로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시설인 만큼 실제 거화(舉火)나 거연(舉煙) 같은 실연행사의 실시를 통해 선조들의 봉수운영 원리를 체득하게 한다.

② 사업내용

- 천림산봉수대 복원·정비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거화식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거화식이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라 연기와 불이라는 시각신호로 변경의 안위여부를 전달하였던 봉수의 연조 형태와 구조, 거화재료의 종류와 배합 등을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이 실증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연행사를 앞으로도 연중 개최한다.

③ 추진방법과 절차

- 먼저 실연행사를 할 수 있는 연조(煙竈)를 제작하되 설치장소는 행사 시 화재 발생이나 유구 훼손에 대비하여 유적과 일정거리 떨어진 곳으로 한다. 연조의 크기와 구조 등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다.
- 거화재료[화]는 경산 성산봉수 비치물목을 참고하여 준비하고 전통방식에 따라 제작한 후 사용한다. 행사의 진행은 지역 문화단체가 담당하고 연중 개최 시기는 ‘신년, 정월대보름, 8·15광복절, 성남시민의 날’ 중 의미있는 날을 정하여 개최하도록 한다.
- 이미 목덕산봉수 외에 서울시 소재 봉수를 비롯하여 천림산봉수에서도 각각의 거화식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연계하여 대응 및 연결 노선 간 시연행사를 진행하여 당시의 신호체계를 일반시민들이 실증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관리운영계획

① 관리운영 주체

성남시(문화재 관리 기관에 위탁관리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 목표

- 가. 천림산봉수대의 보존과 유지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
- 나. 탐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도모
- 다. 천림산봉수대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의 극대화
- 라. 유적의 학술적 가치 극대화와 신규 문헌 발굴 등

③ 관리운영사항

- 봉수대 유적
 - 천림산봉수대 일원
 - 천림산봉수대 주변 탐방로 등
- 자연환경
 - 천림산봉수대 주변 수목 및 지형
 - 주변 생태환경, 녹지 등
- 시설물
 - 탐방로, 전망시설 등
 - 안내판, 방향지시판, 휴게시설 등
 -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 탐방객을 위한 서비스
 - 홍보, 해설, 전시, 축제행사 등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④ 사업 추진절차

가. 문화재지정구역 및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는 먼저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발굴(시굴)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한 후 도출된 발굴결과에 따라 정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입 → 발굴 → 정비의 순이다. 천림산봉수는 방호벽과 연조에 대한 정비복원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생활시설에 대한 정비·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나. 매입 단계는 정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국·공유지화 하는 단계로서 대상지의 지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 파악과 매입에 예상되는 비용 및 매입의 원활성을 판단하여 정비의 선후를 결정한다. 천림산봉수대 일원은 성남시 소유로 별도의 매입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주차장 부지를 포함하여 봉수대 주변으로 생활 흔적이 추가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추진하도록 한다.

⑤ 순차별 사업계획

- 봉수대의 보존·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체 사업비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초기 2년의 정비를 단기정비로 설정하고 이후의 계획 중 우선시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기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단기 사업은 정비사업의 기간 및 지자체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보존·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추진 절차, 시급성, 사업비,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 봉수대 보존과 주변정비사업은 식생정비[간벌 등], 전망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정비사업의 원칙은 유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선정한다.
-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편리하고 쾌적한 출입 및 동선체계 구축을 위한 주차장 마련 및 진입광장 조성 사업을 단기에 시행하고 관광 역량 제고를 위한 간이 안내소 설치나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은 중기에 진행한다.
- 이들 추진사업은 성남시의 정책 순위 변경과 주민들의 요구도, 제반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1. 종합의견

- 1) 성남 천림산봉수는 조선시대 전체 5거노선의 봉수 체계에서, 부산에서 초기하는 제2거 직봉의 마흔세번째 내지봉수로서, 그간의 발굴조사를 통해 연조와 방호벽, 추정건물지 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방호벽 및 연조 등에 대한 복원이 진행되었다. 현재 경기도 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어 있다.
- 2) 봉수성격에 의한 구분상 내지봉수로 발굴조사를 통해 5개의 연조가 모두 확인된 봉수이다. 더불어 봉수대 외부의 건물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어 거화시설인 연조와 방호벽, 생활시설인 건물지 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방호벽과 연조에 대하여 복원이 진행되었으며 연조1기의 경우 원형보존 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발굴조사와 복원정비 결과를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적지정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봉수는 판교~서울간 고속도로변에 인접하여 옛부터 주요 교통로상에 있으며 해발 170m의 높지 않은 곳이지만 이곳에서 보면 남쪽과 북쪽으로 용인 석성산(보개산)봉수와 서울의 남산봉수가 지척에 있듯이 육안으로 잘 확인되어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 4) 조선 전기『세종실록』지리지(1454)부터 최종『증보문헌비고』(1908)까지 조선전시기 발간의 지지에 기록이 있다. 성남시 소재 유일한 봉수로 부산 동래 다대포진 응봉에서 초기한 제2로의 봉수가 육로로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의 여러 직봉 및 간봉의 봉수와 현 경기 용인 소재 건지산봉수 → 석성산봉수를 차례로 거쳐 천림산봉수에 오면 최종 수도 한양의 목멱산 제2봉에 응하였던 경기도 관내의 마지막 봉수였다. 당시 주연야화(晝煙夜火)의 봉수제에서 천림산봉수는 야화(夜火)이다.
- 5) 봉수는 단일 유적보다는 통신체계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 노선별 주요봉수, 잔존상태, 역사성, 지정번호 부여방식 결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적지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1. 문화재 종류

1) 사적

- 지정문화재(경기도 기념물 제227호, 지정일 : 2020.11.13)로서 부산 다대포 응봉봉수(鷹峰烽燧)에서 초기(初起)하는 제2거 직봉노선의 마흔두번째 내지봉수인 ‘용인 석성산봉수유적(龍仁 石城山烽燧遺跡)’을 같은 노선의 봉수와 연계하여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1) 문화재명 : 제2로 직봉 - 용인 석성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龍仁 石城山烽燧遺跡)

- 봉수유적은 연속유산으로서 노선 단위 지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정명칭은 “본 명칭-부 명칭”의 형식으로 부여토록 한다. 여기서 본 명칭은 대표성이 높으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2로 직봉(第2路 直烽)”으로 한다.
- 부 명칭은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라 봉수명칭 앞에 현 행정구역 소재지인 ‘용인(龍仁)’을 표기한다.
- 봉수명칭은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이후 조선 최후기 봉수망을 알 수 있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의 명칭과 한자표기를 따라 ‘석성산봉수유적(石城山烽燧遺跡)’으로 표기한다.
- 따라서, 최종 봉수명칭은 ‘제2로 직봉 - 용인 석성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龍仁 石城山烽燧遺跡)’(이하 ‘석성산봉수’라 한다)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020.11.13. 경기도 기념물 지정(등록)일 시의 지정명칭은 ‘용인 석성산 봉수터(龍仁 石城山 烽燧址)’임.

2) 명칭유래

봉수는 시기별로 발간된 지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자가 표기됨.

어두(語頭)의 명칭이 ‘石城→寶蓋山→石城山’ 등으로 세 차례의 변화가 확인됨.

어미(語尾)의 명칭은 ‘烽火→烽燧’ 등으로 두 차례의 변화가 확인됨.

- 石城烽火 :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
- 寶蓋山烽燧 :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경기지』, 『경기읍지』, 『용인현읍지성책』, 『용인군지』
- 石城山烽燧 : 『여도비지』, 『대동지지』, 『증보문헌비고』

석성산은 용인현 읍치가 있던 바로 뒤쪽의 진산이다. 아름다운 산세로 여러 사찰이 들어서, 지역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어온 산이다.

보개산·통화사 주위에는 ‘석성산성·보개산성’으로 불리던 성의 흔적이 있다. 고구려 장수왕 때 백제를 공략하기 위해 쌓은 2km 길이의 산성이라고 한다. 석성산성 주변은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이고 요충지여서, 고구려가 석성산성을 쌓은 것 외에도, 여러 번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1232년 12월, 승려 김윤후가 몽골군의 지휘관 살리타이를 쏘아 죽인 ‘처인성’이 가까이 있으며, 임진년 6월, 전라 감사 이광이 지휘한 근왕병 7~8만이 왜군에게 패배한 것도 용인 지역이며, 한국전쟁 때 참전해 3,064명의 전사자를 낸 ‘터키군 참전기념비’도 산 아래에 있다. 수많은 역사의 환난을 겪은 용인 지역이다.

산정 전망대에서는 용인 지역이 잘 조망되며, 건지산과 할미산성, 주위 연봉들을 요망할 수 있다. 산정 서쪽 100m 헬기장 바로 옆에 봉수가 있다.

‘보개산봉수·석성산봉수’ 두 개의 명칭으로 기록되었다. 두 명칭은 산정에 있는 성으로 인해 붙여졌다. 석성산봉수는 『대동지지(1864)』에, “석성산봉수는 고성(高城)의 안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성안에 있는 봉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보개(寶蓋)는 사찰의 탑에 보륜(寶輪) 위에 있는 덮개 모양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산정 부분을 돌아가며 석성을 축성하였으니, 멀리서 산을 바라보면, 마치 보개를 덮어 놓은 탑의 모양과 흡사해서 보개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3. 용인지역의 봉수현황과 성격

- 용인 지역에는 최초 설봉(設烽)과 폐봉(廢烽)시기가 같은 총 2기의 봉수(건지산·석성산)가 소재하고 있다. 봉수의 성격에 의한 구분상 모두 육지내륙 소재의 내지봉수(內地烽燧)다.

4. 석성산봉수의 입지와 연혁

1) 입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77-33번지 일원의 해발 471m인 석성산 정상아래 해발 460m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봉수가 위치하는 석성산은 용인시의 진산(鎭山)으로서 중앙부에 위치한다. 봉수대는 석성산의 제일 고지에 위치함에 따라 여기에서 보면 주변 일대가 잘 조망된다. 북쪽으로는 할미산성이 위치하는 할미산 너머로 성남 천림산봉수가, 서쪽으로는 수원 일대와 화성, 남쪽으로는 용인시가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포곡읍 일대가 펼쳐져 있다.

봉수대는 남·북이 장축을 이루는 북쪽의 가장자리에 있으며 헬기장과 동쪽 하단부로는 건물터가 있었던 평탄지가 있다. 동쪽과 서쪽으로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동쪽은 약수터가 있는 평탄지로 해서 통화사로 내려가는 길이 나 있다.

봉수대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용인시청과 초당마을 방향에서 석성산에 올라 석성산성내로 진입 후 통화사를 거쳐 오르는 길이 주로 이용된다. 남서쪽 초당마을에서 시작되는 등산로는 콘크리트 도로가 성내 군부대의 통화사까지 이어지고 있는 등 차량을 이용하여 성내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노선이다.



지도 1. 2거직봉 노선 내 석성산봉수 위치



사진 1. 석성산봉수대에서 바라본 용인시



사진 2. 석성산봉수대 항공사진

2) 연혁

봉수의 최초 지지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부터이며, 최종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조선 전(全) 시기 발간의 지지에 문헌기록이 있다. 각 지지별 발간연도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世宗實錄』地理志(1454) 卷148, 京畿 龍仁縣
烽火一處 石城 在縣東 東准竹山巾之山 北准廣州穿川山
봉화 한 곳인데 석성이 현의 동쪽에 있다. 동으로 죽산 건지산에 겨누고, 북으로 광주 천천산에 겨누다.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卷10, 京畿 龍仁縣
寶盖山烽燧 東應竹山縣巾之山 北應廣州穿川縣
보개산봉수는 동으로 죽산 건지산에 응하고, 북으로 광주 천천현에 응한다.
- 『東國輿地志』(1656) 卷2, 京畿道 龍仁縣 烽燧
寶盖山烽燧 東應竹山縣乾之山 北應廣州穿川峴
보개산봉수는 동으로 죽산현 건지산에 응하고, 북으로 광주 천천현에 응한다.
- 『輿地圖書』(1760) 京畿道 龍仁縣 烽燧
寶盖山烽燧 東應竹山府巾之山 北應廣州府穿川縣
보개산봉수는 동으로 죽산부 건지산에 응하고, 북으로 광주부 천천현에 응한다.
- 『京畿誌』第4冊, 「龍仁縣邑誌」(1842~1843) 烽燧
寶盖山烽燧 東應竹山府巾之山 北應廣州府穿嶺峴
보개산봉수는 동으로 죽산부 건지산에 응하고, 북으로 광주 천천현에 응한다.
- 『輿圖備志』(1849~1864) 京畿道 左道 龍仁縣 烽燧
石城山 卽 寶盖山古城
석성산은 곧 보개산 고성이다.
- 『輿圖備志』(1849~1864) 京畿道 左道 龍仁縣 山川
寶盖山 一云 石城山 治東三十里
보개산은 석성산이라고도 하는데 현의 동쪽 30리다.
- 『大東地志』(1864) 卷4, 京畿道 20邑 龍仁 烽燧
石城山 古城內
석성산은 고성 안이다.
- 『京畿邑誌』第5冊, 「龍仁縣邑誌」(1871) 烽燧
寶盖山烽燧 在東邊面距官門十五里 東應竹山府巾之山 北應廣州府穿嶺山
보개산봉수는 동변면에 있는데, 관문과 15리 거리이다. 동으로 죽산부 건지산에 응하고, 북으로 광주부 천령산에 응한다.
- 『龍仁縣邑誌成冊』(1891)
寶盖山烽燧 在東邊面距官門十五里 東應竹山府巾之山 北應廣州府穿嶺山

보개산봉수는 동변면에 있는데, 관문과 15리 거리이다. 동으로 죽산부 건지산에 응하고, 북으로 광주부 천령산에 응한다.

• 『龍仁郡誌』(1899)

寶蓋山烽燧 在東邊面距官門十五里 自乙未年廢棄

보개산봉수는 동변면에 있는데 관문과 15리 거리다. 을미년부터 폐했다.

• 『增補文獻備考』(1908) 卷124, 兵考16, 烽燧

石城山 勝覺作寶蓋山 龍仁

석성산은 동국여지승람에 보개산이라고 한다. 용인에 있다.

위 지지의 내용을 시기별로 검토하면 전기 발간의 『세종실록』 지리지에 경기 용인현 소재 봉화¹처인 석성(石城) 명칭으로 동쪽으로 죽산 건지산(巾之山), 북쪽으로 광주 천천산(穿川山)에 응한다고 하였다.

중기 발간의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는 보개산봉수(寶蓋山烽燧)로 명칭은 다르지만 이전 시기와 대응 봉수 노선이 같다. 이후 발간된 지지에는 비록 봉수명칭의 한자표기는 다르지만 대응봉수 노선은 최종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시 까지 시종 유지되었다.

3) 고지도

『해동지도』에는 읍치의 동남쪽 석성산(石城山) 정상부에 봉수가 위치하고 있다. 『팔도군현지도』에는 역시 용인의 읍치 동남쪽 위치한 산 정상부의 대(臺)위에 불꽃이 표시되어 있으며, 보개산봉(寶蓋山烽)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에도 역시 보개산 정상부에 불꽃이 표시되어 있는 양상으로 동일하다. 『동여도』 『조선지도』에서도 모두 보개산으로 기록되어 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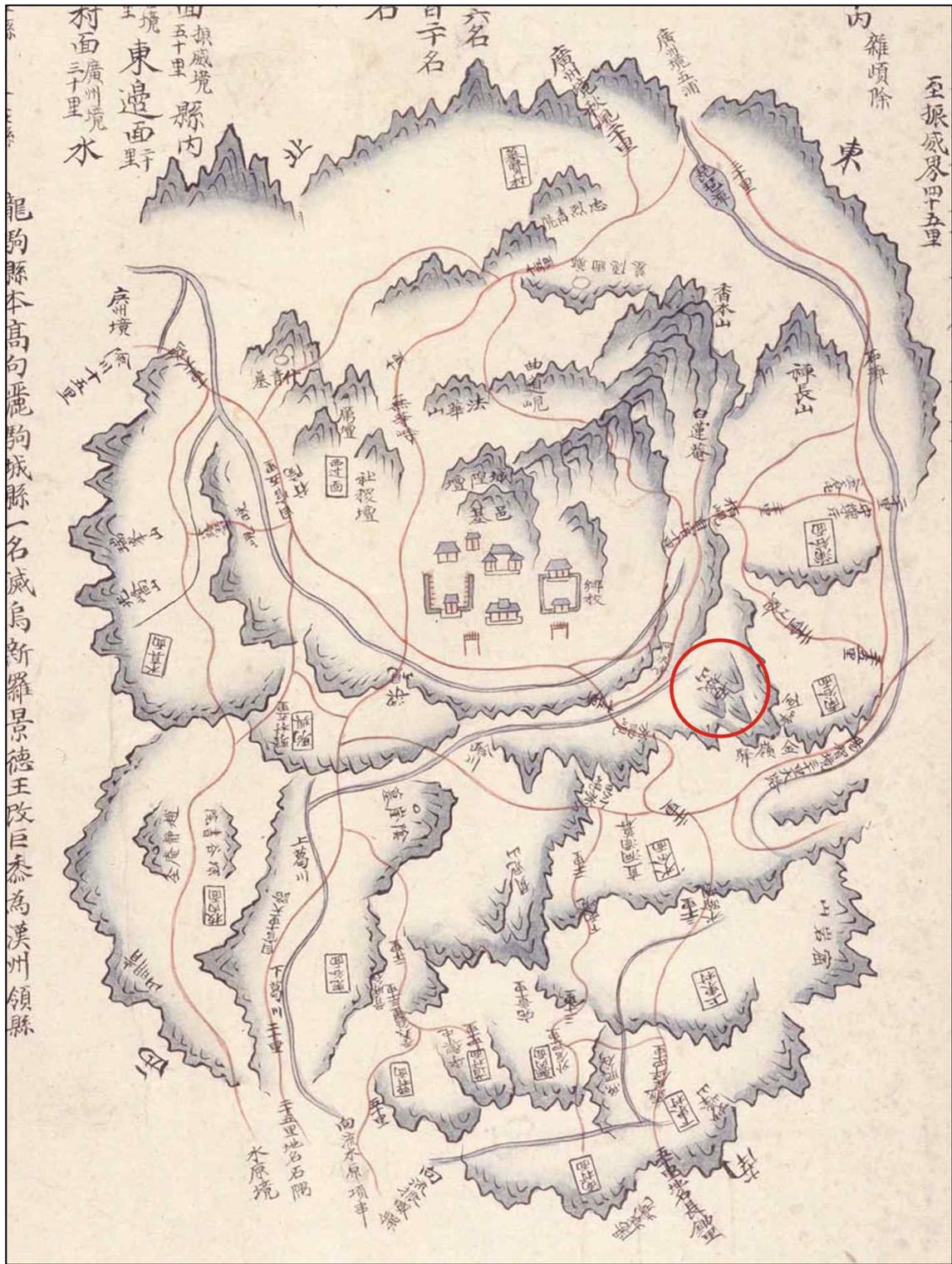
5. 봉수운영

○ 조선 후기 경기감사 소관이였다. 『여지도서』(1760)에 “봉군 25명, 봉군보 75명이다.”¹⁾라고 하였다.

1) 『輿地圖書』京畿道 龍仁縣 軍兵.



지도 2. 석성산봉수대 위치도(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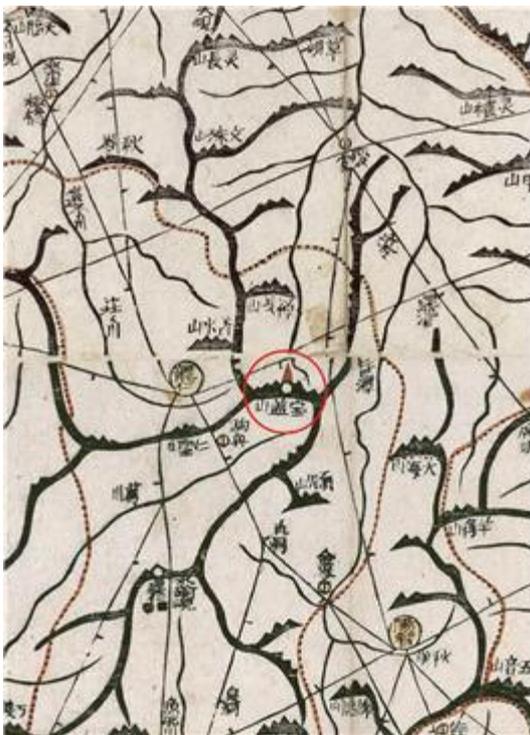
고지도 1. 『해동지도』 용인현



고지도 2. 『팔도군현지도』(18세기)



고지도 3. 『동여도』



고지도 4. 『대동여지도』(1861)



고지도 5. 『지도』(18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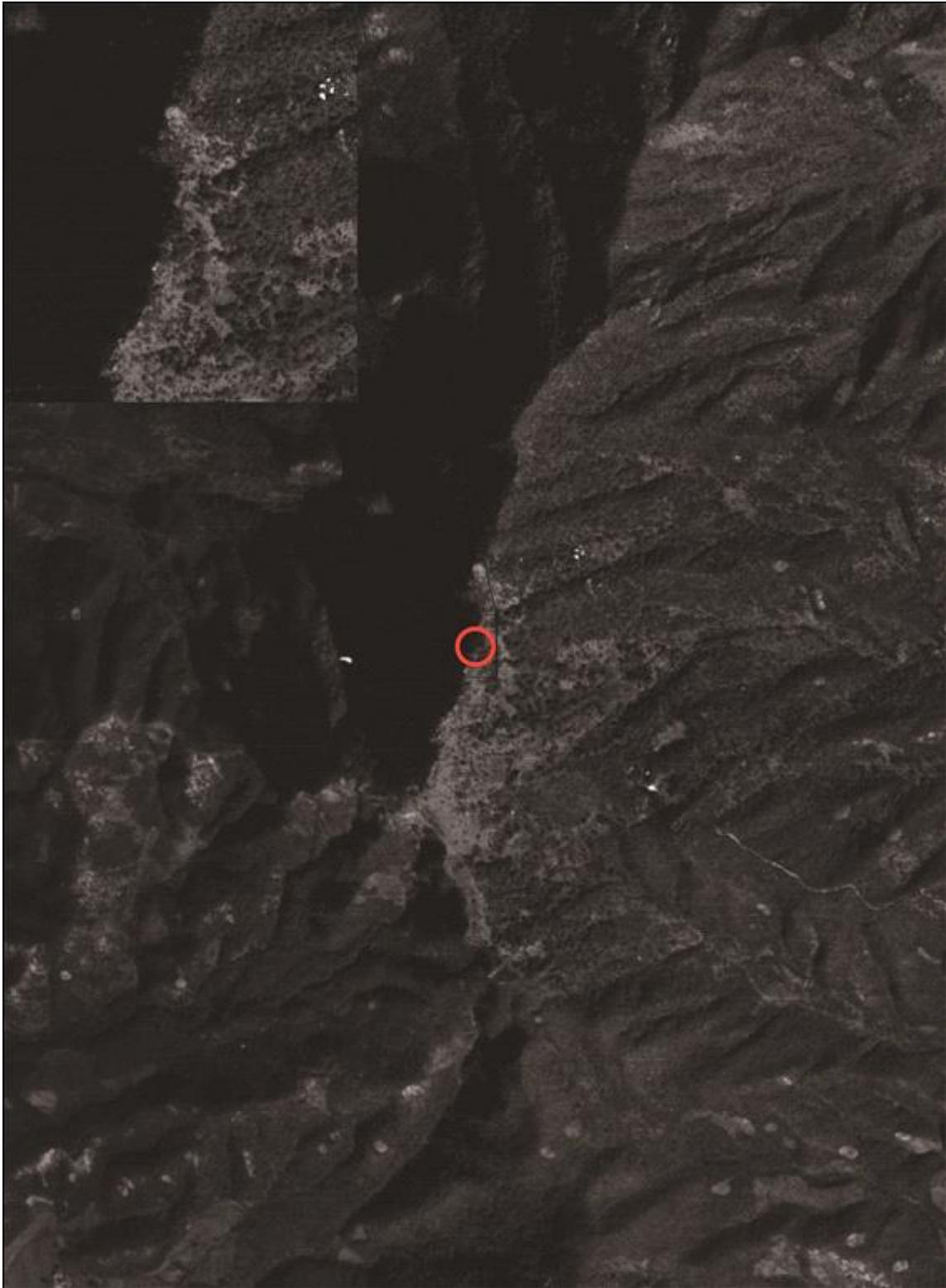


사진 3. 석성산봉수대 일원 항공사진(1967년)

6. 유구현황과 특징

1) 항공사진

붕수제가 폐지되고 난 이후 붕수대를 알아 볼 수 있는 항공사진은 1967년 사진이다. 이 사진을 보면, 석성산 정상부 암반의 남쪽 아래부분에 붕수대가 위치하고 있는데 사진상에서는 잡목이 많아 내부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는 없다. 주변 일대 역시 관리되지 않아 잡목이 많으며, 훼손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후의 항공사진들은 수목이 우거져 붕수대를 찾을 수 없거나 검게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어 붕수대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2) 유구현황¹⁾

2014년에 석성산 붕수터 및 석성산성에 대한 기초 지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유적 정비 및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2017~2018년에 걸쳐 석성산 붕수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석성산 붕수터에서는 출입시설 2곳을 포함하는 붕수대 방호벽을 비롯하여 연조 5기와 방형석축 유구 1기, 건물지 1기가 조사되었다. 유구는 모두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붕수대가 위치하는 석성산(471m) 정상부에는 현재 봉화뚝으로 지칭되는 평탄한 바위암반부가 있고, 동쪽으로는 방호벽의 석축이 온전하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군 초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붕수터이다.

평면형태는 부정타원형이며 장축은 남-북 방향이다. 남쪽 가장자리는 과거 헬기장을 조성하기 위한 인위적인 훼손으로 경사가 급한 단애를 이루고 있다. 방호벽은 동쪽이 비교적 온전한데 높이 2.5m 가량의 암반 위와 이 암반의 사이에 크기 22×15, 26×12, 30×20cm 크기의 할석으로 높이 4m 가량의 방호석축 유지가 확인된다. 반면 서쪽은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다. 방호벽의 규모는 남-북 26.5m, 동-서 12.8m, 높이 약 5m, 잔존 둘레 약 70m 가량이다. 연조(煙籠)는 방호벽 내부에서 3기가 확인되었으나 기저부만 돌무더기 형태로 확인되어 상부의 구조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배치상 남-북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축조는 석축이며 평면형태는 외부를 방형으로 하고 내부는 원형으로 일정규모 이상 동그랗게 올린 외방내원형태이다. 각 연조의 직경은 1.6m 가량이며 각 연조간 중심부의 거리는 5.6~6.4m 가량이다. 건물지는 붕수 남동쪽 하단부의 평탄지이다. 이곳은 석성산성 내에 위치한 통화사에서 산정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하며 등산객들의 휴식을 위한 벤치와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우물은 붕수의 동쪽 하단부 건물지로 추정되는 곳에 한 개소 남아 있다. 서쪽에 바위암반을 배후 삼아 화강석으로 시설하였고 동쪽으로는 길게 배수시설을 마련하여 물이 배출되도록 하였다.

- 방호벽

석성산붕수대 방호벽의 규모는 외측 둘레 약 88m, 내측 둘레 약 71m, 잔존 높이 1.7~4m이다. 방호벽은 지형을 활용하여 조성하였는데, 노출된 자연암반을 이용하고 그 위에 석축을 쌓는 방식으로 축조하였다. 따라서 평면형태가 능선 사면을 따라 조성된 장반타원형이며 ‘>’ 모양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다.

석축은 경사가 급한 곳은 열과 단을 맞추지 않고 돌을 쌓거나 채워넣는 방식으로 조성했지만 경사가 완만한 곳은 크기가 비슷한 할석으로 단을 맞추어 쌓았다. 확인되는 축조 단수는 10~13단이며 일부는 암반에 덧대거나 이어서 쌓은 겹축형태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방호벽의 축조형태는 인근의 천림산 붕수와 유사한데 축조기법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할석을 이용하여 난층쌓기를 하였으며 방호벽 축조에 사용된 석재 또한 유사한 것이 확인되었다. 축조기법이 유사한 이유는 방호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축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 한양문화재연구원, 2020, 『용인 석성산 붕수터 발굴조사 보고서』.

로 판단된다.

석성산봉수대의 방호벽 외곽 서쪽 트렌치(Tr.2~4) 내부에서 할석군이 확인되었다. 할석군은 30cm 가량의 할석이 균을 이루고 있는데 방호벽 하단에서 1~2m 가량 이격하여 확인되었다.

- 연조

석성산봉수대에서는 5기의 연조가 모두 확인되었다. 석성산봉수대 연조의 평면형태는 원형 또는 방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1호 연조의 경우 자연암반을 이용한 구조로 남동벽이 일직선을 이루어 방형으로 보이나, 이는 굴착의 용이성 때문으로 판단되며, 2~5호 연조와 마찬가지로 원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외측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 변의 길이는 약 170~230cm 정도로 확인되며 잔존높이는 약 30~50cm 정도이다. 각 연조간 거리는 약 3.5~5m이다.

전체적인 평면 배치형태는 구릉 정상부 능선에서 북동-남서 방향으로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데 4호 연조가 선상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석성산 봉수는 남동쪽의 건지산 봉수로부터 신호를 받아 북서쪽의 천림산 봉수로 전달하였는데 배치형태로 보아 받는 쪽 (건지산 봉수)보다는 보내는 방향(천림산 봉수)에 있는 대응봉수의 위치를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4호 연조는 동쪽으로 인접하여 바위가 있어 건지산 봉수 방향에서는 불빛을 식별하기 어려운 위치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성남 천림산 봉수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데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5개소의 연조와 동쪽출입시설 등이 모두 북쪽 방호벽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천림산 봉수가 신호를 받는 남쪽의 석성산 봉수 보다는 신호를 보내는 북쪽의 서울 목멱산 봉수를 중요시하여 전달목적에서 주요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해석된다.1)

상시 거화하였던 연조는 다른 연조에 비해서 재층이 두껍게 확인되는 5호 연조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석성산 봉수 연조에서는 거화구가 일부 확인되었다. 2호·3호·5호 연조에서 확인되었는데 이 중 3호 연조에서 그 형태가 가장 온전히 남아있다. 이것은 국내에서 조사된 봉수에서 거화구가 최초로 확인된 사례이다. 거화구의 방향은 모두 북서쪽으로 향해 있다. 그리고 연조 내부에서는 다수의 기와편이 출토되었는데 연조 축조 시 상부의 연통을 구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출입시설

석성산봉수대의 출입시설로 여겨지는 곳은 동쪽 방호벽의 3호 연조와 인접하여 1개소, 서쪽 방호벽의 4호 연조와 인접하여 1개소 등 2개소가 확인되었다. 동쪽의 출입시설은 방호벽이 끊어진 사이로 드러난 자연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개구식(개방형) 출입시설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서쪽의 출입시설은 자연지형을 이용하되 일부 경사면을 조성하고 할석을 3~4단으로 쌓아 계단식으로 축조하여 서로 상이한 형태를 보인다.

- 건물지

석성산봉수대에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모두 1개소의 건물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동쪽 방호벽 북쪽사면 외곽 하단부에 인접하여 10평 남짓한 방형 평탄지에 위치하며 창고로 추정된다. 조사를 통해 건물 기단부 1개소가 확인되었다. 건물지의 흔적은 현재 뚜렷하지 않다. 기단부는 1열만이 잔존하고 있으며 건물지 북쪽에서 초석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석재 1매가 확인될 뿐이다. 건물지 내부에는 흑갈색 부식토와 목탄 및 약간의 소토덩어리, 그리고 19세기경의 도기·자기편 및 기와편이 출토되어 이 부분이 생활공간으로 사용한 흔적임을 간신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이다. 잔존상태로 보아 건물지는 지면을 평탄화하고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 유물로 추정해보면 봉수군의 간단한 휴식공간이거나 봉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물자를 보관하기 위한 임시 창

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성남시, 2001, 『城南 天臨山 烽燧』.

고 용도의 고사(庫舍)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방형석축유구

방형석축유구는 다른 봉수유적에서는 조사된 사례가 없으며 석성산 봉수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성격의 유구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각 변이 약 150cm인 정방형으로 20~40cm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넓직한 할석들을 세워서 벽을 조성하고 외곽으로 소할석을 주변에 깔아 기초부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1단만 잔존한다.

연조와 마찬가지로 상부구조는 멸실되어 확인 할 수 없지만 유구 내부에서 노출된 할석들이 상부구조 축조시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 중앙부에서는 소결흔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그 두께가 얇고 재나 목탄흔이 뚜렷이 관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오랜 시간 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출토유물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도기(옹기)류, 청자, 분청사기, 백자, 흑유자기, 기와류, 석기(옥), 금속류 등이다. 기와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기류가 다음을 차지한다. 대부분 방호벽에서 출토되었으며 조선시대 자기류는 거의 모든 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그 중 제의유구인 방형석축유구에서 출토된 7점의 제기류가 주목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석성산봉수가 존재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삼국 또는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기와편도 출토되어 조선시대에 봉수대가 자리하기 이전부터 해당 위치가 군사적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방형석축유구에서 출토된 백자향로가 19세기 말 광주관요산으로 판명되어 폐봉시기가 대규모의 폐봉이 이루어졌던 갑오경장시기로 판단된다. 또한 연조와 방형석축유구 및 건물지에서 수습한 목탄시료의 AMS연대측정 결과 중심연대가 17세기 중반~19세기 후반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사진 4. 석성산 봉수대 현황 (①원경-남에서, ②진경-직상방)



사진 5. 방호벽 발굴조사 현황(① 서벽, ② 북벽, ③ 동벽)



사진 6. 연조 발굴조사 현황(㉔ 2호 연조, ㉕ 3호연조, ㉖ 5호연조)



사진 7. 계단식 출입시설



사진 8. 개구식 출입시설



사진 9. 건물지 조사 후 전경



사진 10. 건물지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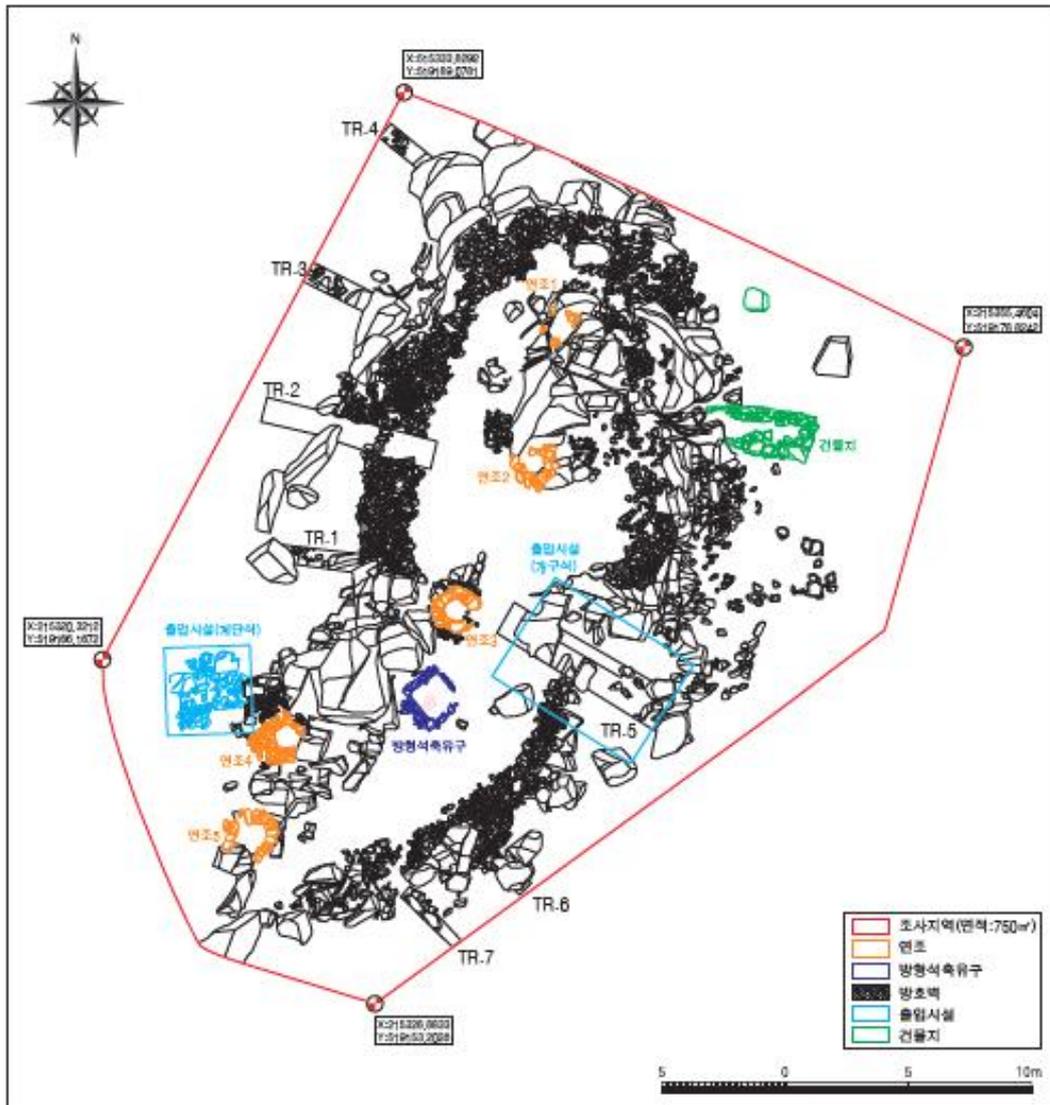
사진 11. 와선문 분청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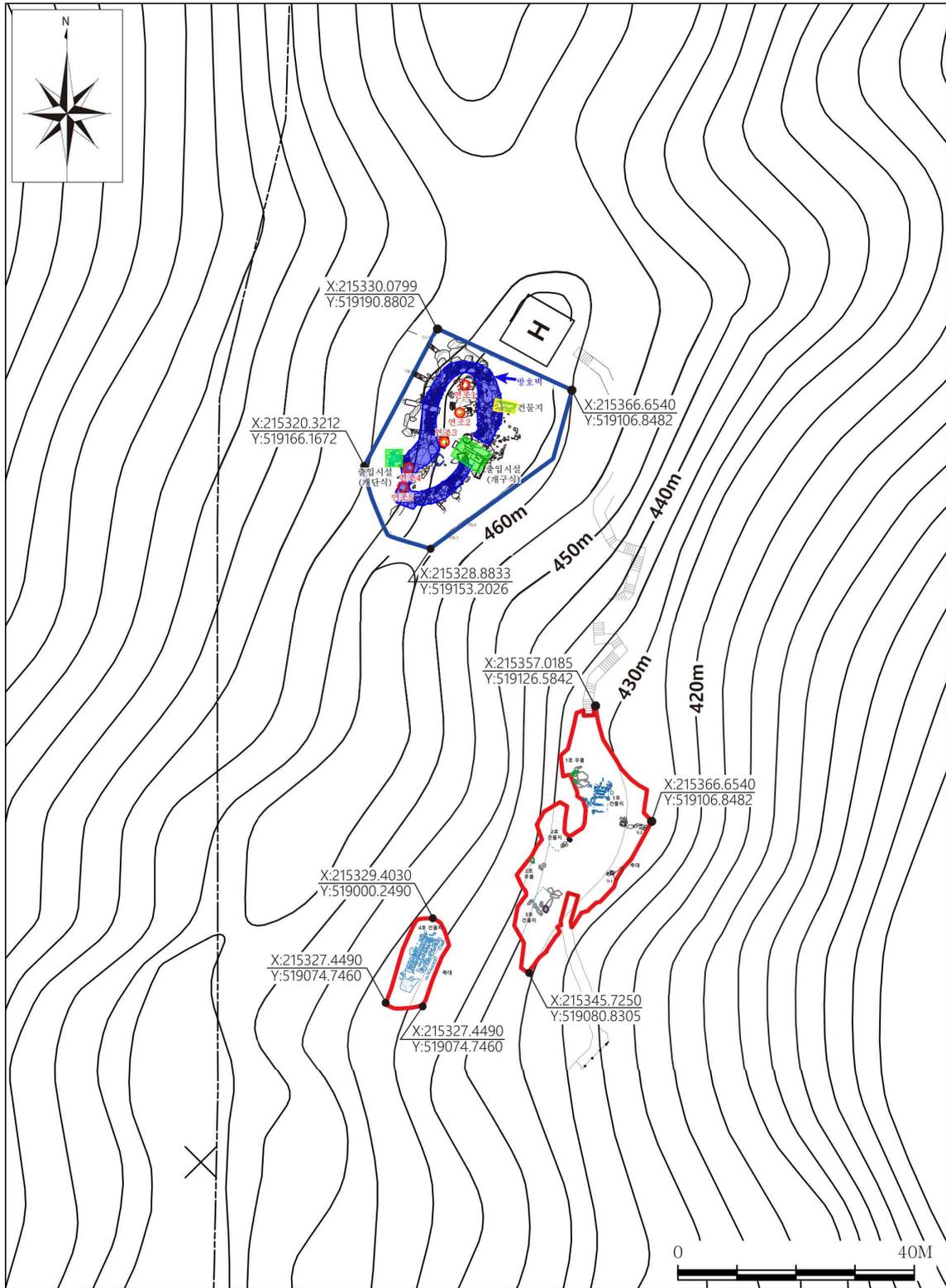
사진 12. 방형석축유구 출토 제기



사진 13. 방형석축 유구 출토 백자향로



도면 1. 조사지역 유구배치도(1:250)
 (한양문화재연구원, 2020, 『용인 석성산 봉수터 발굴조사 보고서』에서 발췌)



지도 3. 석성산봉수대 현황도(1/1,000)

(한양문화재연구원, 2020, 『용인 석성산 봉수터 발굴조사 보고서』, 해안문화재연구원, 『용인 석성산 봉수터 건물지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0. 현황도를 수정)



사진 14. 연조부 전경



사진 15. 연조부 세부



사진 16. 봉수대 방호벽 현황1



사진 17. 봉수대 방호벽 현황2



사진 18. 봉수대 방호벽 현황3



사진 19. 봉수대 방호벽 현황4



사진 20. 봉수대 내부 현황1



사진 21. 봉수대 내부 현황2



사진 22. 봉수대 내부 현황3



사진 23. 봉수대 내부 현황4



사진 24. 수습유물



사진 25. 건물지 현황



사진 26. 봉수대 등산로



사진 27. 봉수대에서 바라본 정상



사진 28. 측량 광경



사진 29. 봉수대 안내판

7. 지정가치와 근거기준

1) 역사적 가치

- 조선시대 제2거 직봉 중 마흔두번째 내지봉수로 조선 전(全) 시기 발간의 지지(地誌) 기록을 통해 봉수 한자 표기의 다양함과 전·후 대응봉수의 확인이 가능하다.
- 조선 후기 발간의 『해동지도』(1724)와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등의 고지도(古地圖)에 빠짐없이 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산성 내에 위치하며 산성의 폐지 후 봉수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봉수유적이다.

2) 내지봉수로서 주변 교통로를 이어주는 분기점에 입지

- 죽령로(竹嶺路)와 계립령로(鷄立嶺路)의 두 길이 마산봉수에서 만나 가섭산봉수 → 망이성봉수 → 건지산봉수를 거쳐 서울로 향하는 영남대로변에 위치한다.

3) 용인현 치소에서 봉수가 바로 후망되는 고지에 입지

- 치소(현 구성초등학교)에서 서북쪽의 봉수까지 5.7km의 근거리이며 치소와 봉수 사이에는 해발고도가 낮은 산지의 형성으로 치소의 가시권 내 봉수가 위치한다.

4) 봉수대 내부에 제사유구 확인

- 석성산은 용인지역을 조망하기 유리한 곳으로 이 지역의 산천제사를 석성산봉수에서 지낸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봉수대가 제의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 것을 보여준다.

5) 정비계획 수립과 학술조사의 실시

- 2009년 봉수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 충주대학교, 『용인 석성산봉수 종합정비 기본계획』, 2009.
- 2017년 봉수의 발굴조사를 통해 유구의 전모가 확인되었다.
 - 한양문화재연구원, 『용인 석성산 봉수터 발굴조사 보고서』, 2020.
 - 해안문화재연구원, 「용인 석성산 봉수터 건물지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0.
- 2022년 용인시에서 종합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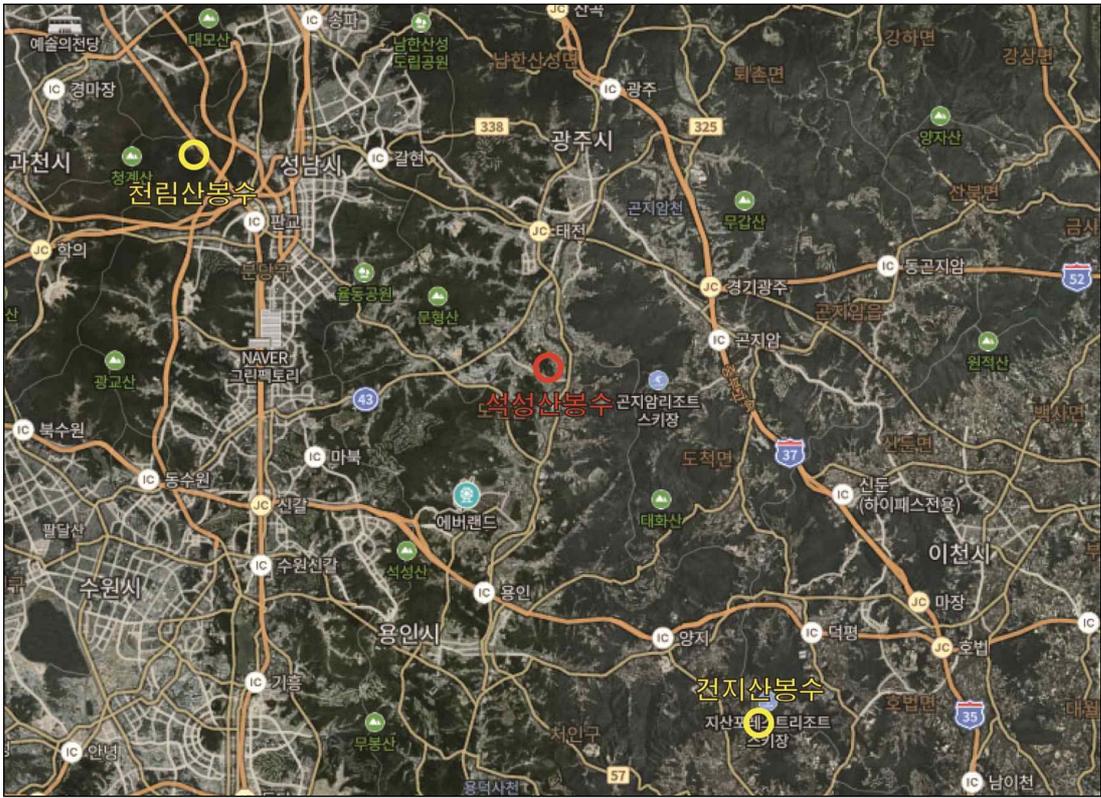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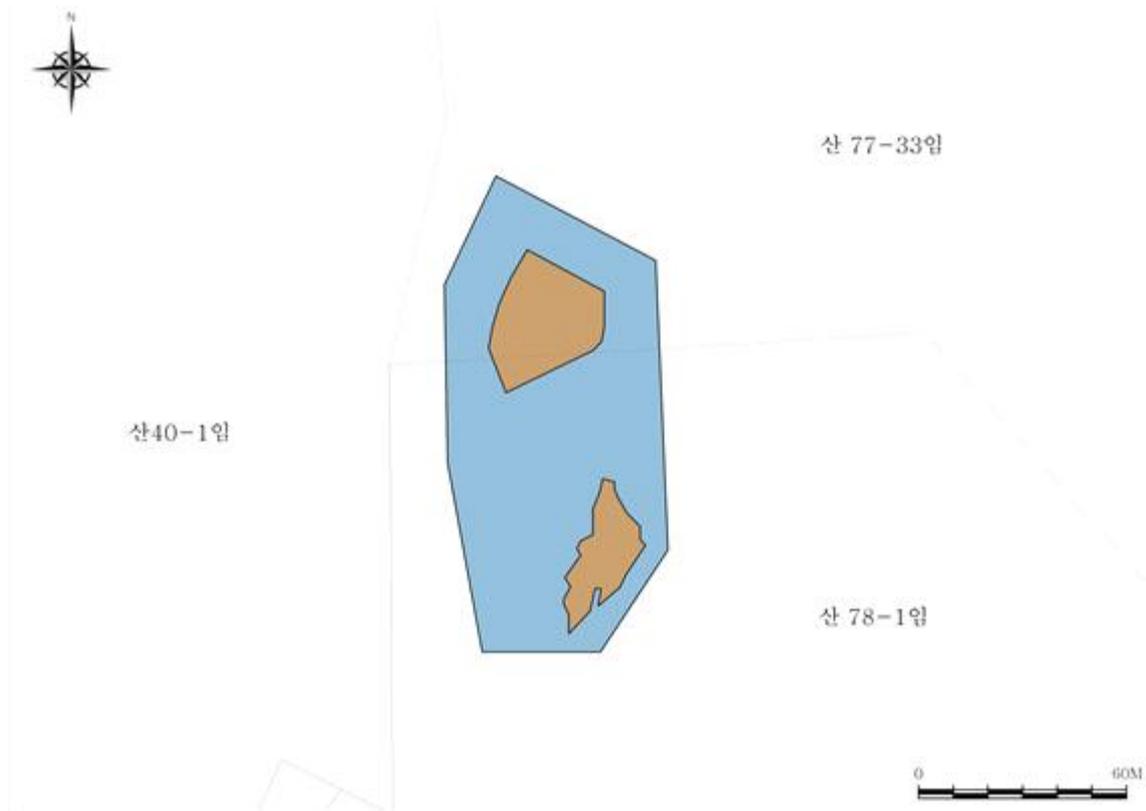


사진 30. 석성산봉수와 대응봉수



사진 31. 용인현 치소(現 구성초등학교)와 석성산봉수대



지도 4.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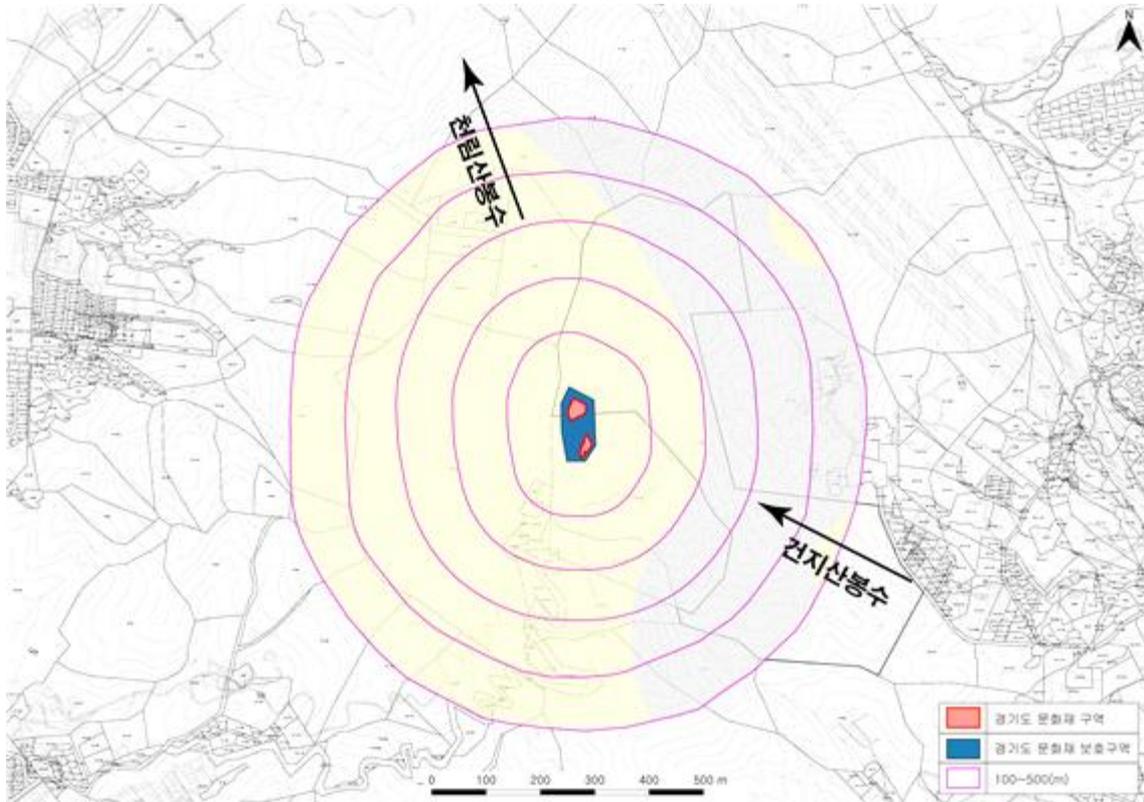
사진 32.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

9.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1) 검토의견

- 석성산봉수의 전·후 대응노선 봉수의 방향을 고려한 경관 보호가 필요함.

용인시	용인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p>▣ 대상문화재 제2로 직봉 - 용인 석성산봉수유적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77-33번지 일원</p> <p>▣ 문화재 및 보호구역</p>		
<p> 경기도 문화재 구역  경기도 문화재 보호구역</p> <p>▣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간격)</p> <p>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p> <p>▣구역별 허용기준</p>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3구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자연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2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 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0. 보존·정비와 활용 착안사항

1) 기본구상

(1) 기본방향

① 기본원칙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1.6.10.] [법률 제17409호, 2020.6.9. 일부개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문화재청, 2002)

- 문화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문화재 활용은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사업의 소재로서 개발·활용하며,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육성한다.

『유적(遺蹟 등) 정비계획 수립·추진관련 고려사항』(문화재청, 2003)

- 가치(원형) 보존 최우선: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복원·정비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비를 지양하고, 유적의 가치와 역사적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명확한 정비목표 수립: 유적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적 정비를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한다. 보존과 복원·정비되어야 할 것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 :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고, 유적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방향 설정

석성산봉수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이를 바탕으로 보존·정비와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이에 합리적인 보존·정비와 관리안을 상기 기술한 기본원칙에 따라 타 시·군 소재 봉수의 보존·정비와 관리사례를 검토하고 주변 현황과 여건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봉수대의 보존·정비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도모하고,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과 용인시의 역사문화관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동선체계 등 기반시설의 확충안을 수립한다.

봉수는 조선시대 500여 년간 변경의 안위(安危) 여부를 진·후 대응봉수간 차차거화(次次擧火)를 통해 최종 중앙에 알리던 호국군사통신 유적으로서, 성격에 의한 구분상 내지봉수(內地烽燧)에 해당한다.

봉수는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평안을 상징하는 1거의 햇불[平安火·太平火]을 올림으로서 과거 용인시 인근 고을 백성들이 이를 바라보고 일상을 마무리하는 순기능도 있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용인시 소재 전체 봉수의 보존·정비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봉수대의 잔존 방호벽과 연대 등의 역사적 실체를 보존·정비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시킨다.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활용되었던 봉수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정보통신 발달의 상징적 유적으로 보존·관리한다.

경상도와 충청도·경기도를 거쳐 최종 서울 목멱산봉수로 이어지는 내지봉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원한다.

(2) 기본전제

① 잔존 봉수 유구의 보존과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

봉수대의 핵심요소인 거화시설(연대)과 방호시설(방호벽) 및 생활시설(주거지)을 대상으로 보존·정비하여 석성산봉수의 문화재적 가치가 표출되도록 한다.

② 역사문화자산 가치 증진 및 화제성 창출

과거 봉수제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던 당시에 봉수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봉수군과 봉수운영 관련된 기록과 내용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유적과 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화제성이 창출되도록 정비한다.

③ 대응봉수와의 조망을 위한 가시성 확보

입지조건상 동남쪽으로 용인시의 옛 치소가 잘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한 봉수는 인근 대응봉수와의 후망을 통해 용인지역과 고을 백성들에게 변경의 안위 여부를 알리던 군사통신 유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적 강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계획한다.

조선 후기에 최종 설정된 대응봉수인 건지산봉수와 천림산봉수와의 가시성 확보 외 봉수 주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식생이 양호한 기존의 자연경관 유지 방안을 제시한다.

④ 주연야화(晝煙夜火) 통신의 특징을 살린 ‘체험과 교육의 장’ 조성

햇불과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 소식을 전하였던 봉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적의 복원보다는 체험과 실연(實演)을 통한 거화의 과학적 원리를 교육한다.

기존의 진입로를 활용하여 최적의 보행환경과 교육적 기능을 갖춘 탐방로 조성을 통해 석성산봉수의 500여 년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⑤ 주변 문화자원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

봉수대와 인근 유적을 통합적으로 연계·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특히 봉수대가 석성산성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잘 활용하여 산성과 봉수대와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실현가능한 세부추진사업 도출과 단계별 사업시행

용인시의 재정여건이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토지 매입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필요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3) 종합구상

① 추진사업 계획

가. 식생정비(소목 간벌), 봉수 내부 잔디 식재, 봉수군 주거지 정비 등을 실시하여 석성산봉수대의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문화자원 연계 개발사업

- 탐방로(봉수군 길) 정비, 스토리텔링 개발, 체험 프로그램 및 축제 개발, 봉수 C.I개발, 동선표지판·전망시설 및 망원경 설치 등을 설치하여 석성산봉수대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대응봉수 등 관방체계 알림 사업

- 대응봉수와 소속 군현 등의 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라. 기반시설 구축사업

- 봉수대 주변 진입로를 개설하고 주차장 및 간이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② 토지이용계획

봉수대 일원은 산림청 소유의 임야로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 77-33일원에 소재하며 면적은 1,393㎡이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토지대장, 2021.9.)

현재 석성산봉수대를 찾는 탐방객은 비교적 많으나 대부분이 봉수대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석성산을 등산하는 등산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향후 제2거 직봉 노선 봉수의 사적지정이 확정되고 보존·정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 시 탐방객에게 보다 쾌적한 역사경관과 편리한 탐방 환경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

③ 동선계획

○ 본 계획에서는 봉수구역과 진입광장 및 주차구역으로 나누고 각 공간별로 기능을 배분하였다. 특히, 진입광장 및 주차구역에는 방문객이나 차량의 접근 동선과 관련된 공간 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험교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 봉수대의 탐방동선은 기존에 조성된 산책로를 그대로 이용하되, 전통적인 분위기 연출과 유지관리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야자매트나 경화흡포장으로 한다.

○ 또한, 탐방객의 주동선이 되는 기존 산책로를 활용하여 봉수에 대한 관심유발과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2) 보존과 정비활용계획

(1)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확대지정

① 향후, 제2거 직봉 노선의 봉수를 사적(史蹟)으로 승격 시 문화재지정구역의 확대 및 대응봉수간의 조망과 가시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석성산봉수를 중심으로 남동쪽의 건지산봉수, 서북쪽의 천림산봉수를 잇는 조망과 이를 잇는 가시권 확보가 필요하다.

② 봉수대 주위의 수목을 선별적으로 간벌하여 대응봉수간 조망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③ 봉수대 주변 식생이 양호한 임야는 가급적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④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지정은 인접봉수간의 조망 확보를 위해 구 방향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각 범위별로 구역을 설정하여 역사문화 환경과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석성산봉수는 기존에 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해당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재산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소유주와 지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⑤ 진입로에서 봉수대의 원경을 볼 수 있도록 간벌 등을 통해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봉수군들이 이용했던 소로(진입로)는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이 길을 통한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2) 보존계획

① 봉수유적 보존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는 거화시설인 연조와 방호시설인 방호벽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발굴조를 통해 확인되었다. 현재는 복원·정비를 시행하기 전 천막 등으로 유구를 보호하고 있지만 많은 등산객들이 지나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과거 봉수의 운영당시 원형구조를 밝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수를 구성하였던 제반 요소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비와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에 대한 최근의 현황조사를 통해 전체 구조의 확인이 가능함으로 이를 바탕으로 운영당시의 모습대로 단계적으로 정비·복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조선시대 내지봉수의 형태와 기능을 학습·체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공간으로 조성한다.

다. 추진방법 및 절차

- 먼저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정비를 시행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도록 한다.

- 봉수대의 복원은 내부시설이나 창고 위치,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고증을 거치도록 하며 거화에 따른 배연은 실연을 거쳐 상황을 점검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수목 간벌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 주변으로 수풀잡목이 무성하여 대응봉수와의 조망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적절한 간벌을 통하여 유적 보존 및 가시권(可視圈)을 확보한다.

나. 사업내용

- 현재 봉수대 주위에는 수목이 들어차 있어 대응봉수의 조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목을 선별적으로 벌목하여 대응봉수인 건지산봉수와 천림산봉수에 대한 조망을 개선한다.

라. 추진방법

- 벌목작업은 봉수유구의 보존, 주변경관 조망, 봉수의 제반요소 감상 등에 장애를 주는 수목부터 선별하여 실시한다.

- 봉수대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경관이 확보되도록 수목을 제거한다.
- 919번 지방도변 봉화재에서 봉수대로 향하는 수목을 정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동선을 유도한다.

(3) 정비·활용계획

① 전망시설과 휴식공간 설치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의 정체성과 주요 기능은 대응봉수와의 시각적 연결에 있다. 현재, 봉수대는 내부는 발굴조사 후 보존·정비 전까지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나, 봉수대 외부는 수목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제한적이고, 전체 봉수유구를 살펴볼 수 없다. 조선시대 봉수는 대응봉수와의 조망과 주변 관찰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였으므로 이러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 주변 적당한 곳에 봉수의 전체 구조와 대응봉수, 주변 자연환경, 시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조선시대 봉수의 입지선정 원리를 체감하게 한다.
- 현재 석성산 주변을 조망하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석성산봉수를 설명할 수 있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다. 추진방법과 절차

- 전망시설은 봉수대 주변 시야가 가장 좋은 지점에 설치하되,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봉수의 역사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안내판에 대응봉수를 촬영한 사진을 표시하여 눈앞에 펼쳐진 전경과 비교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망시설에는 망원경 등을 설치한다.
- 전망시설 하부나 주위에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방문객에게 휴식과 사색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② 봉수군 탐방로 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919번 지방도변 봉화재에서 봉수대로 이어지는 ‘봉수군 탐방로’를 조성하여 문화콘텐츠로 활용한다.

나. 사업내용

- 탐방로를 개설하고, 봉수 관련 이야기와 비품 등을 소개함으로써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과거 봉수의 기능과 운영 및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노변(路邊) 전시관 기능을 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

- 기존의 길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요 지점에는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고 벤치 등의 휴식시설을 도입한다.
- 안내판의 내용은 경북권 내 경산(現 대구 수성구) 성산봉수(城山烽燧)의 비치물목을 토대로 봉수운용에 필요한 비치물목상의 거화재료나 생활비품 등을 선별하여 사진 자료와 함께 해설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烟臺1 烟窟1 望德1 火德1 積草5訥 烏外石5訥 無稜石5訥 吐木5訥 烟炬3柄 松炬50柄 草炬50柄 柎炬50柄 艾5同
 牛糞5同 馬糞5石 炭5石 細沙5石 糟糠5石 防牌5坐 排火木5介 法手木5介 水桶5箇 菱鐵20箇 古乙羅木25箇 木斧
 子20柄 滅火器5坐 麻注乙里20沙里 前梯1 水樽5坐 縣瓢子5介 火箭9柄 唐火箭9柄 長箭1浮 片箭1浮 黑角弓1張
 桶兒1介 大白旗1面 鉛丸30箇 火藥5兩 烏銃1柄 環刀1柄 長槍1柄 火繩6沙里 細繩3沙里 條乙所3沙里 火鐵石2介
 水瓮5坐 釜1坐 食鼎1坐 爐口1坐 匙5持 沙鉢5立 空石10立 接匙5竹 瓦家5間 種火盆1坐 草席2立 抹木18箇 火桶
 5介 燒木5同 戰角1雙 待賓米1石 鎌子4柄 盤5立 三穴銃1坐 火綿1 掩頭1部 掩心1部 五色布旗5面 鼓1坐 錚1坐
 火鐵10介 生松1訥 橫1坐

(『嶺南邑誌』第7冊, 「慶山縣邑誌」(1871) 烽臺)

(4) 봉수 거화(擧火) 실연(實演) 행사

① 추진배경과 목표

봉수는 연기[주간]와 불[야간]로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시설인 만큼 실제 거화(擧火)나 거연(擧煙) 같은 실연(實演)행사의 실시를 통해 선조들의 봉수운영 원리를 체득하게 한다.

② 사업내용

연기와 불이라는 시각신호로 변경의 안위여부를 전달하였던 봉수의 연조 형태와 구조, 거화재료의 종류와 배합 등을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이 실증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크기의 연조를 제작한 후 실연행사를 연 중 개최한다.

③ 추진방법과 절차

먼저 실연행사를 할 수 있는 연조(煙竈)를 제작하되 설치장소는 행사 시 화재 발생이나 유구 훼손에 대비하여 유적과 일정거리 떨어진 곳으로 한다. 연조의 크기와 구조 등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다.

거화재료[燄]는 경산 성산봉수 비치물목을 참고하여 준비하고 전통방식에 따라 제작한 후 사용한다. 행사의 진행은 지역 문화단체가 담당하고 연 중 개최 시기는 ‘신년, 정월대보름, 8·15광복절, 용인시민의 날’ 중 의미 있는 날을 정하여 개최하도록 한다.

아울러 대응봉수인 성남 천림산봉수대가 이미 복원·정비되어 거화식을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개별적인 실연행사가 아닌 대응노선 간 실연행사를 함께 추진하여 실제 봉수운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5) 관리운영계획

① 관리운영 주체

용인시(문화재 관리 기관에 위탁관리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 목표

가. 석성산봉수대의 보존과 유지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

나. 탐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도모

다. 석성산봉수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의 극대화

라. 유적의 학술적 가치 극대화와 신규 문헌 발굴 등

③ 관리운영사항

가. 봉수대 유적

- 석성산봉수대 일원

- 석성산봉수대 주변 탐방로 등

나. 자연환경

- 석성산봉수대 주변 수목 및 지형
- 주변 생태환경, 녹지 등

다. 시설물

- 탐방로, 전망시설 등
- 안내판, 방향지시판, 휴게시설 등
-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라. 탐방객을 위한 서비스

- 홍보, 해설, 전시, 축제행사 등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④ 사업 추진절차

가. 문화재지정구역 및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는 먼저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발굴(시굴)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한 후 도출된 발굴결과에 따라 정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입 → 발굴 → 정비의 순이다. 석성산봉수는 정식 학술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비·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따라서 이 계획에 따르되 대상지가 안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복원·정비의 단계를 결정한다.

나. 매입 단계는 정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공유지화 하는 단계로서 대상지의 지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 파악과 매입에 예상되는 비용 및 매입의 원활성을 판단하여 정비의 선후를 결정한다. 석성산봉수는 산림청의 소유로 별도의 매입은 필요하지 않으나, 봉수대 주변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변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⑤ 순차별 사업계획

가. 봉수대의 보존·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체 사업비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초기 2년의 정비를 단기정비로 설정하고 이후의 계획 중 우선시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기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단기사업은 정비사업의 기간 및 지자체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나. 보존·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추진 절차, 시급성,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라. 봉수대 보존과 주변정비사업은 방호벽과 내부시설 정비, 식생정비[간벌 등], 전망 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정비사업의 원칙은 유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선정한다.

리.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편리하고 쾌적한 출입 및 동선체계 구축을 위한 주차장 마련 및 진입광장 조성 사업을 단기에 시행하고 관광 역량 제고를 위한 간이 안내소 설치나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은 중기에 진행한다.

마. 이들 추진사업은 용인시의 정책 순위 변경과 주민들의 요구도, 제반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1. 종합의견

- 1) 용인 석성산봉수는 조선시대 전체 5거노선의 봉수 체계에서, 부산에서 초기하는 제2거 직봉의 사십두번째 내지봉수로서, 2018년도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방호벽과 연조, 추정건물지, 제의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 2) 봉수성격에 의한 구분상 내지봉수로 거화시설인 연조를 비롯하여 방호벽을 비롯하여 건물지, 출입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제의시설로 추정되는 시설이 확인되어 봉수와 더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또한 5개 연조의 형태가 확인되고 있어 봉수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이다.
- 3) 조선 전기 『세종실록』 지리지(1454)부터 최종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조선 전 시기 발간의 지지에 기록이 있다. 용인시 소재 2기 봉수 중 1기로서 산성내 소재한다. 대응봉수는 동 지역의 건지산봉수(巾之山烽燧)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성남 천림산봉수(天臨山烽燧)에 응했다.
- 4) 석성산봉수대의 평면 형태는 타원형이고 면적은 663㎡ 정도이다. 연조, 방호벽 외 추정 건물지, 제의시설 등이 조사가 되었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1425)에서부터 구한말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1908)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지에 빠지지 않고 등재되어 있고 제2거 직봉 노선의 주요 봉수다.
- 5) 석성산봉수대의 발굴조사 결과 방형의 석축유구에서 제의유물이 출토되어 조선시대 후기 봉수대에서 산천제사를 지냈던 것을 보여 준 특별한 유적이다.
- 6) 봉수는 단일 유적보다는 통신체계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 노선별 주요봉수, 잔존상태, 역사성, 지정번호 부여방식 결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적지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1. 문화재 종류

1) 사적

- 비지정문화재로서 부산 다대포 응봉봉수(鷹峰烽燧)에서 초기(初起)하는 제2거 직봉노선의 서른다섯번째 내지봉수인 ‘단양 소이산봉수유적(丹陽 所伊山烽燧遺跡)’을 같은 노선의 봉수와 연계하여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1) 문화재명 : 제2로 직봉 - 단양 소이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丹陽 所伊山烽燧遺跡)

- 봉수유적은 연속유산으로서 노선 단위 지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정명칭은 “본 명칭-부 명칭”의 형식으로 부여토록 한다. 여기서 본 명칭은 대표성이 높으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2로 직봉(第2路 直烽)”으로 한다.
- 부 명칭은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라 봉수명칭 앞에 현 행정구역 소재지인 ‘단양(丹陽)’을 표기한다.
- 봉수명칭은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이후 조선 최후기 봉수망을 알 수 있는 『증보 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의 명칭과 한자표기를 따라 ‘소이산봉수유적(所伊山烽燧遺跡)’으로 표기한다.
- 따라서, 최종 봉수명칭은 ‘제2로 직봉 - 단양 소이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丹陽 所伊山烽燧遺跡)’(이하 ‘소이산봉수’라 한다)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명칭유래

봉수는 시기별로 발간된 지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자표기 및 시종 같은 명칭으로 지칭된다.

어두(語頭)의 명칭이 ‘所伊山 → 所伊峰 → 所伊山’ 등으로 두 차례의 변화가 확인된다.

어미(語尾)의 명칭은 ‘烽火 → 烽燧 → 烽臺 → 烽燧’ 등으로 세 차례의 변화가 확인된다.

- 所伊山烽火 : 『세종실록』 지리지
- 所伊山烽燧 :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 『여지도서』, 『대동지지』
- 所伊峰烽臺 : 『호서읍지』, 『단양군읍지』
- 所伊山烽燧 : 『증보문헌비고』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국도에서 봉수로 오르는 중턱 봉산마을에는 봉군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봉

산마을에서 만난 어르신은 주변 경치에 대해 소상히 말해 주면서 예전의 봉수군 얘기도 하시고, ‘단성향토문화 연구회’ 회원인 서씨는 자랑스레 봉수 관련 자료를 보여 주었다.

“봉수에는 기와집이 한 채 있었고, 봉군들의 일상은 건물 창문을 통해 대응봉수에서 신호 오르는 것을 살피고, 물이 부족해 마을까지 내려와 물을 길었으며, 불이 잘 붙는 솔잎, 버드나무를 준비하고, 우마의 똥을 말리는 것이었다. 솔잎과 버드나무 가지, 잘 건조된 우마의 똥을 창호지와 함께 말아 햇불처럼 들어서 신호를 보냈으며, 비 오는 날을 대비한 햇불 재료와 봉수대에 비치한 군기를 늘 수선해 두고 검열까지 받았다.”라고 한다.

봉수 명칭은 ‘소이산(所伊山), 돈산(敦山)’이다. 『청풍부읍지』(1899)에만 돈산 명칭으로 기록되었는데, 돈산 명칭에 대한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돈대(墩臺)가 있는 산’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 소이산은 단양군 읍치의 5리에 있는데, 주변에 명승으로 이름난 봉우리들에 의해 특별히 주목받지 못하는 나지막한 산이다. 대개 연변 수군진에서 독자적으로 설치하고 운영된 권설봉수를 돈대(墩臺)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육지에서 봉수를 돈대라고 부르는 것은 단양 소이산이 유일하다. 단양 소이산봉수의 이칭 돈산(敦山)의 다른 의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국에 ‘소이산’이라는 이름의 봉수가 많다. ‘소이산봉수’는 해당 현이나 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다. 직봉 노선의 ‘울주 소산, 영주 소이산(성내산), 단양 소이산’이 있고, 가덕도 천성산에 초기하는 간봉 6노선의 ‘영산 소산, 현풍 소산, 상주 소산’ 이외에 많은 ‘소산’은 높다기보다는 나지막한 산일 경우가 더 많다. ‘소산’은 ‘어떤 임무를 맡은 산’의 의미로 불리는 것 같다. 고유어에서 ‘소·쇠’, 이두 표기 ‘소이·조이(召史)·소임·소임이’는 ‘전문가·우두머리·장인’의 의미를 가진다. 고대에는 고귀한 신분의 이름에도 사용되었지만 후기에 올수록 신분이 낮은 이의 이름이나 하층 직업을 가진 이에게 많이 쓰인다. 이런 예는 ‘마당쇠·구두쇠·장쇠·돌쇠와 현대어의 짝쇠·모르쇠’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봉수 제도가 고려 때 도입되고 여기에 어떤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산에서 일상적 근무를 하게 되자 ‘어떤 임무를 맡은 이(-쇠)들이 근무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소이산·소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이후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당시에 불리는 대로 기록된 것으로 생각된다. 단양 소이산도 읍치 5리의 가깝고 나지막한 산이어서 산정의 봉수군까지 볼 수 있고, 죽령을 넘어 충청도와 경상도를 오가는 이들이 늘 바라볼 수 있는 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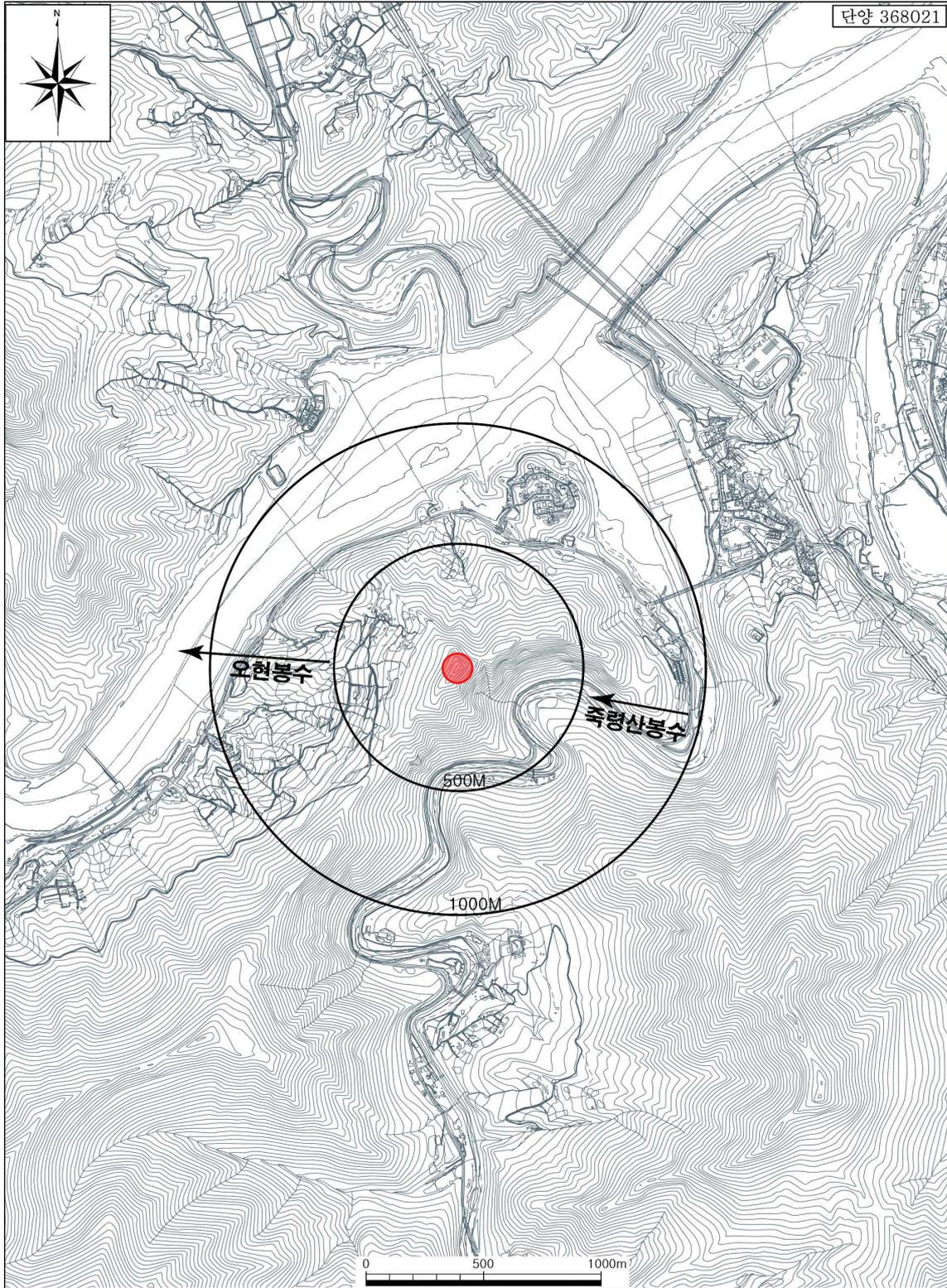
3. 단양지역의 봉수현황과 성격

- 단양 지역에는 최초 설봉(設烽)과 폐봉(廢烽)시기가 다른 총 11기의 봉수(의풍·용진·사지원·만중·임현·사평·용부원·공문·하리·죽령산·소이산)가 소재하고 있다. 봉수의 성격에 의한 구분상 모두 육지내륙 소재의 내지봉수(內地烽燧)다.
- 이 중 ‘죽령산·소이산’ 2기의 봉수를 제외한 나머지 9기는 삼국시대에 고구려의 남진 방어 혹은 신라의 북진관련 삼국시대 초축으로 여겨지는 고대 봉수다. 지역의 향토문화연구회에 의한 현황조사¹⁾ 이후 아직 1기도 정식 발(시)굴 등의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가 최종 폐지될 때까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었던 봉수는 ‘죽령산·소이산’ 등 2기다.

1) 丹陽鄉土文化研究會, 『兩白之間(丹陽)의 山城·烽燧』, 2000.



지도 1. 2거 직봉 노선 내 소이산봉수 위치



지도 2. 소이산봉수대 위치도(S=1/25,000)

4. 소이산봉수의 입지와 연혁

1) 입지

봉수대는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산32 일원의 중방리와 외중방리 경계의 배후의 해발 435m인 봉화산(烽火山) 정상에 있다. 산정에서는 사방으로 조망이 가능하다. 남-북으로 긴 능선에 위치하는데 동-서와 북은 급사면을 이루고 있다.

단양군 단양읍 외중방리 59번 국도와 인접한 봉산마을에서 올라갈 수 있다. 산사면은 경사가 급하며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데 밭둑을 타고 접근이 가능하다.



사진 1. 소이산봉수대에서 바라본 단양적성



사진 2. 소이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죽령산봉수대

2) 연혁

봉수의 최초 지지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1454) 부터이며, 최종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조선 전 시기 발간의 지지에 문헌기록이 있다. 각 지지별 발간연도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世宗實錄』地理志(1454) 卷149, 忠淸道 忠州牧 丹陽郡
烽火一處 所伊山 東淮竹嶺山 西淮淸風吾峴
봉화 한 곳은 소이산인데 동으로 죽령산을 겨누고, 서쪽으로 청풍 오현에 겨누다.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卷14, 忠淸道 丹陽郡 烽燧
所伊山烽燧 東應慶尙道豐基郡竹嶺 西應淸風郡吾峴
소이산봉수는 동으로 경상도 풍기군 죽령에 응하고, 서쪽으로 청풍군 오현에 응한다.
- 『東國輿地志』(1656) 卷3, 忠淸道 丹陽郡 烽燧
所伊山烽燧 東應慶尙道豐基郡竹嶺 西應淸風郡吾峴
소이산봉수는 동으로 경상도 풍기군 죽령에 응하고, 서쪽으로 청풍군 오현에 응한다.
- 『輿地圖書』(1760) 忠淸道 丹陽郡 烽燧
所伊山烽燧 在郡西五里 東應順興府竹嶺烽 西應淸風府烏峙烽 別將一人 監官二十人 軍人百名
소이산봉수 군의 서쪽 5리에 있다. 동으로 순흥부 죽령봉에 응하고, 서쪽으로 청풍부 오치봉에 응한다. 별장 1인, 감관 20인, 군인 100명이다.
- 『大東地志』(1864) 卷6, 忠淸道 21邑 丹陽 烽燧
所伊山 西二十二里
소이산은 서쪽 22리이다.
- 『湖西邑誌』 第16冊 「丹陽邑誌」(1871) 烽臺
烽臺 在郡西所伊峰 自官門距五里 東應順興府竹嶺烽 西應淸風府烏峙烽

봉대는 군의 서쪽 소이봉에 있는데 관문으로부터 5리이다. 동으로 순흥부 죽령봉에 응하고, 서쪽으로 청풍부 오치봉에 응한다.

• 『丹陽郡邑誌』(1899) 烽臺

烽臺 在郡西所伊峰 自官門距五里 東應順興郡竹嶺烽 西應淸風郡吾峙烽 今廢

봉대는 군의 서쪽 소이봉에 있는데 관문으로부터 5리이다. 동으로 순흥부 죽령봉에 응하고, 서쪽으로 청풍부 오치봉에 응한다. 지금은 폐했다.

• 『增補文獻備考』(1908) 卷124, 兵考16 烽燧2

初起 鷹峰 -- (中略) -- 竹嶺山 所伊山 吾峴 -- (中略) -- 第2炬準 天臨山

초기 응봉 -- (중략) -- 죽령산 소이산 오현 -- (중략) -- 제2거준 천림산

위 지지의 내용을 검토하면 전기 발간의 『세종실록』 지리지에 충청도 충주목 단양군 소속의 봉화1처인 소이산봉화(所伊山烽火) 명칭으로 동쪽으로 죽령산봉화(竹嶺山烽火), 서쪽으로 청풍 오현(吾峴)에 응한다고 하였다. 이때 동쪽과 서쪽으로 응하도록 설정된 대응봉수 노선은 최종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시 까지 노선의 변동 없이 시종 유지되었다.

3) 고지도

여러 고지도 에서 소이산봉수를 찾을 수 있다. 『해동지도』의 단양현의 남동쪽에 소이산봉수가 표시되어 있다. 봉수는 소이산봉수만 확인되며 다른 봉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소이산봉수가 죽령봉수와 오현봉수와 더불어 조선전기에서 말기까지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봉수의 형태는 소이산(所伊山) 정상에 대(臺)위에 불꽃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형태로 다른 건물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양군읍지』에는 산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으며, 건물지 그림과 봉대(烽臺)라고 그려져 있고 『지승』에는 소리산봉대(所里山烽臺)로 표시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단양읍치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앞선 『해동지도』와 『지승』, 『단양군읍지』의 경우 단양읍치의 동남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으나 『대동여지도』에는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차이가 확인된다.



고지도 1. 『해동지도』 단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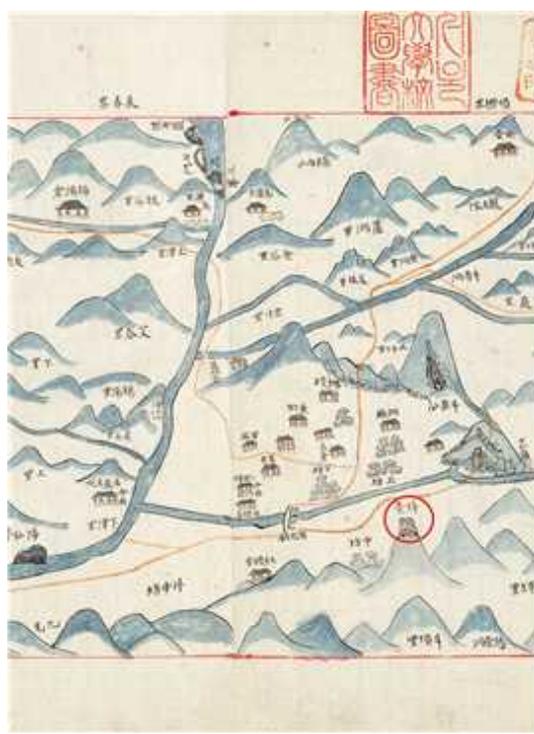
고지도 2. 『지승』



고지도 3. 『대동여지도』(1861)



고지도 4. 『지도』(1884, 고려대학교 도서관)



고지도 5. 『단양군읍지』(1899)

5. 봉수운영

조선 후기 충청병사 소관이였다. 봉수군 인원은 『여지도서』(1760)에 충청도 단양군 소재 봉수로서 ‘별장 1인, 감관 20인, 군인 100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이후 발간 『호서읍지』(1871)에는 “봉군 100명이다.”¹⁾라고 하였으며, 같은 책 사례(事例)의 공해(公廩) 봉대(烽臺)에 “家舍二間, 庫舍一間이다.”라고 하였다.

과거 봉수가 운용되던 당시 봉수군은 봉수 아래 외중방리 봉산마을 주민들이 교대로 번(番)을 짜서 운용하였다. 봉산마을에는 소이산봉수군의 손자 고(故) 박대식(朴大植)씨가 거주하였던 가옥이 남아 있다. 생전 고인(故人)의 전언에 의하면 산 정상에는 3칸 정도의 건물이 있었는데, 봉군들이 교대로 번을 쫓으며 건물 들창을 통해 봉화가 올라가는 것을 살폈다고 한다. 특히 봉수에 우물이 없어 마을까지 내려와 물을 길어 올렸다는 이야기를 선친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이외에 봉수군의 하루 일과는 소나무 잎, 버들, 소, 말의 똥을 수거해 말리는 것이었다. 갈비와 창호지를 함께 말아 햇불처럼 들어서 신호를 보냈으며, 비가 오는 날을 대비해 햇불 재료를 하루 3회 피울 수 있도록 상비해 두었고 이를 검열 받았다고 한다.

6. 유구현황과 특징

1) 항공사진

소이산봉수대를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사진은 1970년 사진이다. 이전 사진은 봉수대 일대가 명확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다. 봉수대는 방호벽을 통해 봉수의 전체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방호벽 주변으로 환도가 둘러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방호벽 내에는 둔덕 형태의 대지가 확인되나 연대인지는 단정 할 수 없다. 또한 평탄 대지가 넓게 확인되고 있으며, 사진 상에서 봉수군 막사나 창고 등의 건물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2) 유구현황

(1) 방호벽

봉수대는 북동-서남으로 긴 능선을 이루는 곳에 토·석으로 축조하였는데, 평면은 장란형(長卵形)으로 북동쪽이 넓고 서남쪽은 좁다. 방호벽의 석축은 4면에서 확인되는데, 서남쪽이 일부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현재 잔존한 방호벽은 높이 1~1.5m 내외의 높이이며, 폭은 약 1m 내외로 확인되며 북벽이 상대적으로 두껍게 확인된다.

아울러 영천 여음동봉수, 충주 주정산봉수처럼 내부공간을 2단으로 구분하였다.

추정연대는 제단석의 남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남의 석축은 일부 확인되나 나머지는 수풀이 우거지고 지표상에 노출이 되지 않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1) 『湖西邑誌』第16冊, 「丹陽邑誌」軍額.



사진 3. 소이산봉수대 일원 항공사진(1970년)

잔존양상으로 볼 때 대략 6×5m 정도의 규모로 추정되나 자세한 양상은 추후 시·발굴조사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할 것이다.

추정 연대 아래쪽으로 봉수대 내부에 평탄대지가 확인되는데 다수의 기와편 등이 확인되고 있어 봉수군의 막사나 창고 등으로 사용된 건물지가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금번 조사로 확인된 봉수대의 규모는 남북 35.2m, 동서 12m 가량이며 출입시설은 봉수의 남쪽 부분에 계단의 형태로 확인된다.

(2) 제단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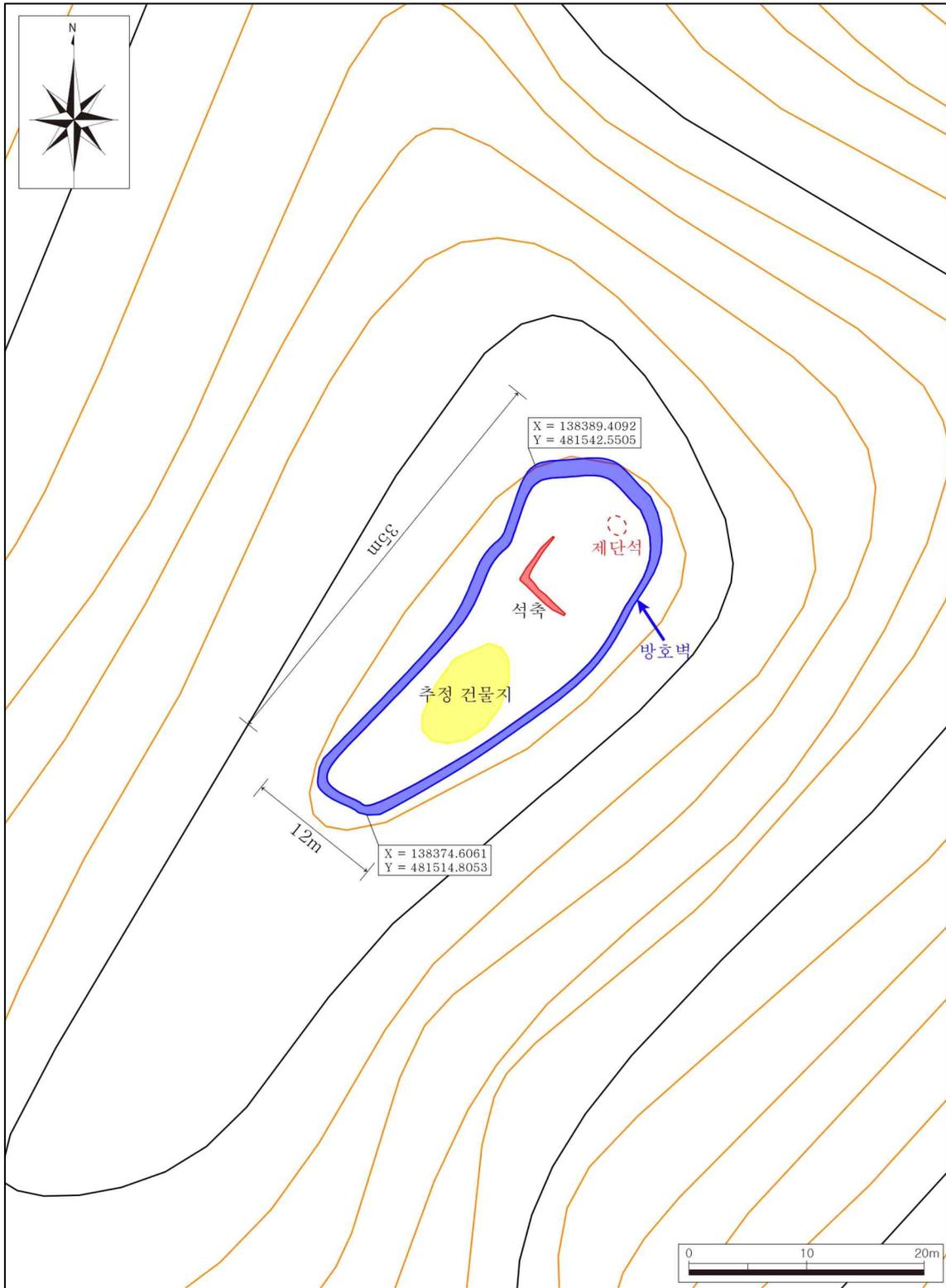
봉수대 북쪽에는 기단부와 앞에 마을사람들이 제단터로 부르는 제단석(祭壇石)이 있으며, 남쪽에는 산불감 시초소가 있다. 제단석은 북동쪽의 단양적성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기단부는 높이 0.8m, 길이 9.6×5m 규모로 납작하고 긴 형태이다. 제단석은 높이 0.45m, 1.8×1.1m이다.

(3) 수습유물

유물은 대부분 추정건물지에서 기와편이 주로 수습되고 있으며, 일부 백자 및 옹기편이 소량 수습되었다.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편이 섞여 있으며, 암키와편이 많다. 무문(無文)과 유문(有文)이 있고 유문은 소편으로 문양의 형태를 알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유물의 채집량은 적은 편이다.

○ 특징

- 내부공간은 2단으로 구분된다.
- 방호벽 내 제단석(祭壇石)이 잔존한다.



지도 3. 소이산봉수대 현황도(S=1/400)



사진 4. 추정 연대(제단석)



사진 5. 추정 연대 세부



사진 6. 방호벽(북벽)



사진 7. 방호벽(남벽)



사진 8. 봉수대 내 평탄지



사진 8. 봉수대 내 제단석(적성방향)



사진 9. 출토유물



사진 10. 진입로

7. 지정가치와 근거기준

1) 역사적 가치

조선시대 제2거 직봉 중 서른다섯번째 내지봉수이다.

조선 전(全) 시기 발간의 지지(地誌) 기록을 통해 봉수 명칭의 같음을 알 수 있으며, 전·후 대응봉수의 확인이 가능하다.

조선 후기 발간의 『해동지도』(1724)와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등의 고지도에 빠짐없이 표기되고 있어 조선후기 이후 봉수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소이산봉수군의 손자 증언을 통한 과거 봉수의 운영 확인 가능하다.

2) 잔존상태 양호하고 구조가 특이

현재까지 지표조사 외에 문화재조사(시·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유적이다. 하지만 잔존양상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방호벽 및 추정연대 등 내부 시설이 온전히 유존할 가능성이 높는데 방호벽 내부 공간은 석축을 기준으로 상·하단으로 구분되고 건물지는 하단에 위치하는 특징을 보인다.

3) 육로와 수로의 요충지

소백산맥 죽령을 넘은 봉수가 한양 목멱산봉수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북쪽 아래의 남한강 수운을 조망하기 좋은 지리적인 요충지에 해당한다.

4) 봉수대의 가장 높은 곳에 제단석이 위치한다.

봉수대가 위치한 곳은 전망이 뛰어난 곳으로 산천에 제사를 지냈던 제사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소이산봉수대 방호벽 내부에 설치된 제단석은 「산천제사」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동일한 예가 용인 석성산봉수대에 서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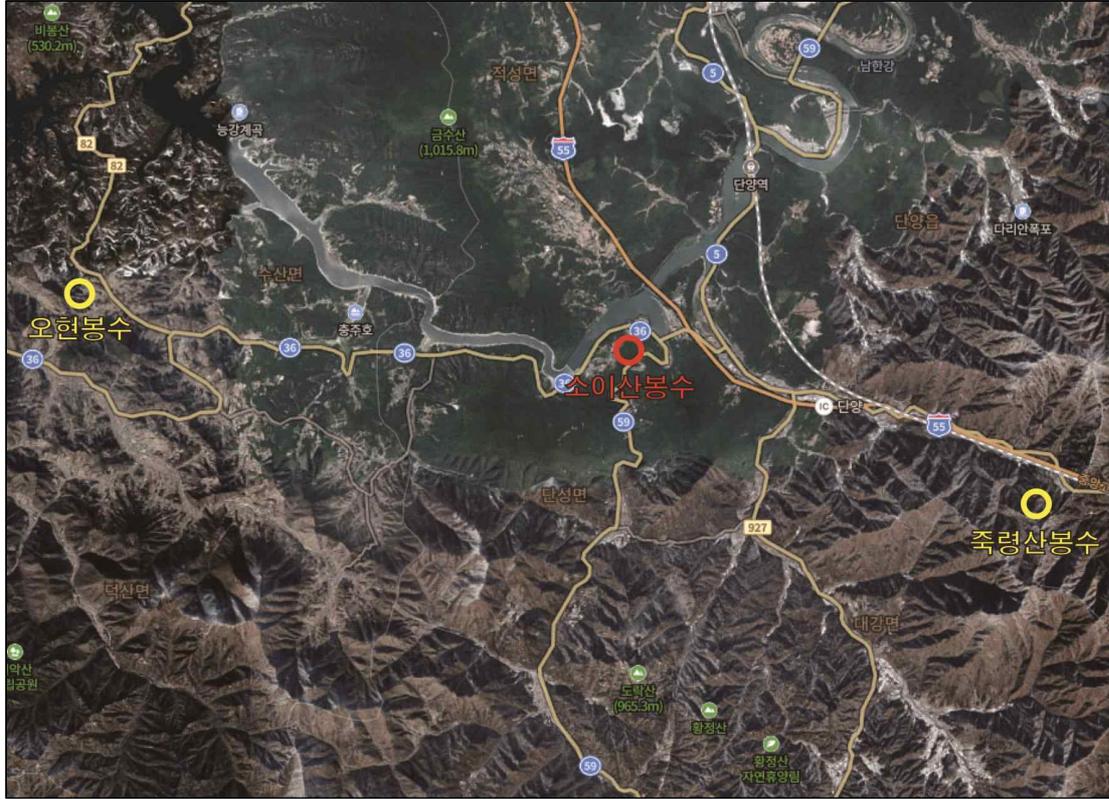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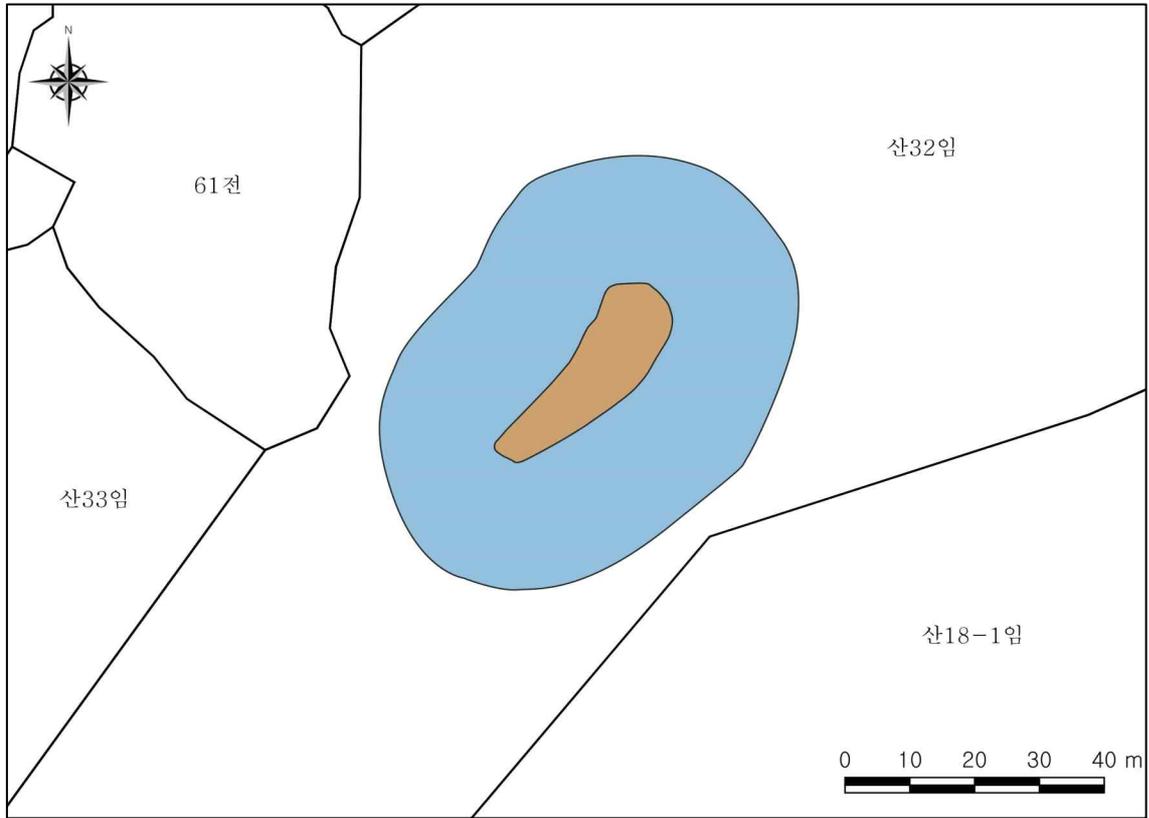


사진 11. 소이산봉수와 대응봉수



사진 12. 단양군 읍치와 소이산봉수대



지도 4.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S=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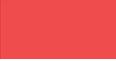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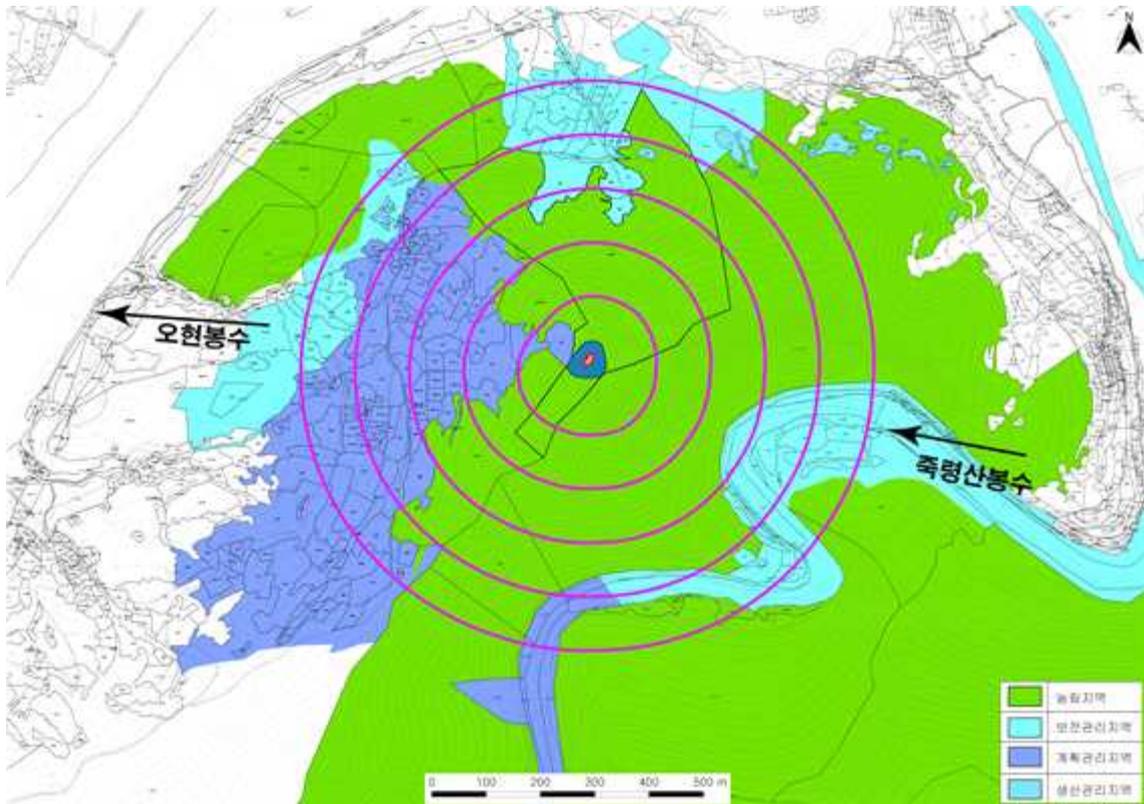
사진 13.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

9.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소이산봉수 전·후 대응노선 봉수의 방향을 고려한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

단양군	단양군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p>▣ 대상문화재 제2로 직봉 - 단양 소이산봉수유적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산32번지</p> <p>▣ 문화재 및 보호구역</p> <p> 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보호구역</p> <p>▣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간격)</p> <p>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p> <p>▣ 구역별 허용기준</p>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 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0. 보존·정비와 활용 착안사항

1) 기본구상

(1) 기본방향

① 기본원칙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1.6.10.] [법률 제17409호, 2020.6.9. 일부개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문화재청, 2002)

- 문화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문화재 활용은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사업의 소재로서 개발·활용하며,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육성한다.

『유적(遺蹟 등) 정비계획 수립·추진관련 고려사항』(문화재청, 2003)

- 가치(원형) 보존 최우선: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복원·정비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비를 지양하고, 유적의 가치와 역사적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명확한 정비목표 수립: 유적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적 정비를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한다. 보존과 복원·정비되어야 할 것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 :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고, 유적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방향 설정

단양군의 소이산봉수에 대한 정식 학술조사는 실시된 바 없어 지금까지 별다른 보존·정비와 관리계획은 없었다. 이에 합리적인 보존·정비와 관리안을 상기 기술한 기본원칙에 따라 타 시·군 소재 봉수의 보존·정비와 관리사례를 검토하고 주변 현황과 여건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봉수대의 보존·정비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도모하고,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과 단양군의 역사문화 관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동선체계 등 기반시설의 확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봉수는 조선시대 500여년간 변경의 안위(安危) 여부를 전·후 대응봉수 간 차차거화(次次擧火)를 통해 최종 중앙에 알리던 호국군사통신 유적으로서, 성격에 의한 구분상 내지봉수(內地烽燧)에 해당한다.

봉수는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평안을 상징하는 1거의 횃불[平安火·太平火]을 올림으로서 과거 단양군과 인근 고을 백성들이 이를 바라보고 일상을 마무리하는 순기능도 있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단양군 소재 전체 봉수의 보존·정비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봉수대의 잔존 방호벽과 연대 등의 역사적 실체를 보존·정비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시킨다.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활용되었던 봉수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정보통신 발달의 상징적 유적으로 보존·관리한다.

경상도와 충청도·경기도를 거쳐 최종 서울 목멱산봉수로 이어지는 연변 및 내지봉수 체계를 증장기적 관점에서 복원한다.

(2) 기본전제

① 잔존 봉수 유구의 보존과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

봉수대의 핵심요소인 거화시설(연대)과 방호시설(방호벽) 및 생활시설(주거지)을 대상으로 보존·정비하여 소이산봉수의 문화재적 가치가 표출되도록 한다. 이는 소이산봉수에 대한 문화재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비·복원 계획 수립에 기초한다.

② 역사문화자산 가치 증진 및 화제성 창출

과거 봉수체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던 당시에 봉수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봉수군과 봉수운영 관련된 기록과 내용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유적과 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화제성이 창출되도록 정비한다.

③ 대응봉수와의 조망을 위한 가시성 확보

입지조건상 북동쪽으로 단양군의 읍치가 잘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한 봉수대는 인근 대응봉수와의 후망을 통해 단양군지역과 고을 백성들에게 변경의 안위여부를 알리던 군사통신 유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적 강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계획한다.

조선 후기에 최종 설정된 대응봉수인 죽령산봉수와 오현봉수와의 가시성 확보 외 봉수 주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식생이 양호한 기존의 자연경관 유지 방안을 제시한다.

④ 주연야화(晝煙夜火) 통신의 특징을 살린 ‘체험과 교육의 장’ 조성

횃불과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 소식을 전하였던 봉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적의 복원보다는 체험과 실연(實演)을 통한 거화의 과학적 원리를 교육한다.

기존의 진입로를 활용하여 최적의 보행환경과 교육적 기능을 갖춘 탐방로 조성을 통해 소이산봉수의 500여

년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⑤ 주변 문화자원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

봉수대의 북동쪽에는 단양적성과 단양적성비를 비롯하여 남한강 일대가 조망되는 등 문화관광 자원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봉수대와 인근 유적을 통합적으로 연계·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⑥ 실현가능한 세부추진사업 도출과 단계별 사업시행

단양군의 재정여건이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토지 매입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필요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3) 종합구상

① 추진사업 계획

가. 역사적 실체 보존 사업

- 식생정비(소목 간벌), 봉수 내부 잔디 식재, 봉수군 주거지 정비 등을 실시하여 소이산봉수의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문화자원 연계 개발사업

- 탐방로(봉수군 길) 정비, 스토리텔링 개발, 체험 프로그램 및 축제 개발, 봉수 C.I개발, 동선표지판·전망시설 및 망원경 설치 등을 설치하여 소이산봉수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대응봉수 등 관방체계 알림 사업

- 대응봉수와 소속 군현 등의 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라. 기반시설 구축사업

- 봉수대 주변 진입로를 개설하고 주차장 및 간의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② 토지이용계획

봉수대 일원은 충청북도(교육감)소유의 임야로서,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산32번지 일원에 번지 일원에 소재하며 면적은 330㎡(문화재 지정면적 기준)이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토지대장, 2021.9.)

현재 소이산봉수대를 찾는 탐방객은 여타 봉수대에 비해 많은 편이므로, 봉수대 보존·정비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2거 직봉 노선 봉수의 사적지정이 확정되고 보존·정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 시 탐방객에게 보다 쾌적한 역사경관과 편리한 탐방환경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

③ 동선계획

봉수대의 탐방동선은 기존에 조성된 산책로를 그대로 이용하되, 전통적인 분위기 연출과 유지관리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야자매트나 경화흡포장으로 한다.

또한, 탐방객의 주동선이 되는 기존 산책로를 활용하여 봉수에 대한 관심유발과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2) 보존과 정비활용계획

(1)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확대지정

① 향후, 제2거 직봉 노선의 봉수를 사적으로 승격 시 문화재지정구역의 확대 및 대응봉수간의 조망과 가시

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소이산봉수를 중심으로 북서쪽 오현봉수(10시 방향)와 남동쪽 죽령봉수(4시방향)를 잇는 조망과 가시권확보가 필요하다.

② 봉수대 주위의 수목을 선별적으로 간벌하여 대응봉수 간 조망이 가능하도록 정비 할 필요가 있다.

③ 봉수대 주변 식생이 양호한 임야는 가급적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④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지정은 인접봉수간의 조망 확보를 위해 구 방향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각 범위별로 구역을 설정하여 역사문화 환경과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새로이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해당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재산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소유주와 지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⑤ 진입로에서 봉수대의 원경을 볼 수 있도록 간벌 등을 통해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봉수군들이 이용했던 소로(진입로)를 개발하여,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이 길을 통한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2) 보존계획

① 봉수유적 보존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현지조사 결과 봉수대는 거화시설인 연대와 방호시설인 방호벽이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고종 32년 (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후 13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봉수 내외로 수풀잡목이 무성하여 그 형태를 뚜렷하게 확인하기 곤란하다.
- 따라서, 과거 봉수의 운영당시 원형구조를 밝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수를 구성하였던 제반 요소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비와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에 대한 최근의 현황조사를 통해 전체 구조의 확인이 가능함으로 이를 바탕으로 운영당시의 모습대로 단계적으로 정비·복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조선시대 내지봉수의 형태와 기능을 학습·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교육공간으로 조성한다.

다. 추진방법 및 절차

- 먼저 방호시설인 방호벽과 추정 봉수군 주거지에 대한 원형구조를 확인한다.
- 연대는 주위 수풀잡목을 간벌하고 방호벽 내부에는 잔디를 식재하여 보존한다.

② 수목 간벌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 내·외는 현재 무성한 수풀잡목으로 대응봉수와의 조망이 곤란하거나 유구 훼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적절한 간벌을 통하여 유적 보존 및 가시권을 확보한다.

나. 사업내용

- 현재 봉수대 주위와 내부에는 수목이 들어차 있어 대응봉수의 조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목을 선별적으로 벌목하여 대응봉수에 대한 조망을 개선한다.

다. 추진방법

- 벌목작업은 봉수유구의 보존, 주변경관 조망, 봉수의 제반요소 감상 등에 장애를 주는 수목부터 선별하여 실시한다.
- 봉수대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경관이 확보되도록 수목을 제거한다.
- 봉수대로 오르는 동선상에 있는 수목을 간벌하고, 보기 좋은 곳에 안내판을 설치한다.

(3) 정비·활용계획

① 전망시설과 휴식공간 설치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의 정체성과 주요 기능은 대응봉수와 시각적 연결에 있다. 현재, 봉수는 내·외부의 수목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제한적이고, 전체 봉수유구를 살펴볼 수 없다. 조선시대 봉수는 대응봉수와 조망과 주변 관찰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였으므로 이러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 주변 적당한 곳에 봉수의 전체 구조와 대응봉수, 주변 자연환경, 시내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조선시대 봉수의 입지선정 원리를 체감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과 절차

- 전망시설은 봉수대 주변 시야가 가장 좋은 지점에 설치하되, 목재 등의 친환경소재를 사용하여 봉수의 역사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안내판에 대응봉수를 촬영한 사진을 표시하여 눈앞에 펼쳐진 전경과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망시설에는 망원경 등을 설치한다.
- 전망시설 하부나 주위에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방문객에게 휴식과 사색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② 봉수군 탐방로 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로 오를 수 있는 ‘봉수군 탐방로’를 조성하여 문화콘텐츠로 활용한다.

나. 사업내용

- 탐방로를 개설하고, 봉수 관련 이야기와 비품 등을 소개함으로써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과거 봉수의 기능과 운영 및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노변(路邊) 전시관 기능을 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

- 기존의 등산로 및 임로를 최대한 활용하며 주요 지점에는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고 벤치 등의 휴식시설을 도입한다.
- 안내판의 내용은 경북권 내 경산(現 대구 수성구) 성산봉수(城山烽燧)의 비치물목을 토대로 봉수운용에 필요한 비치물목상의 거화재료나 생활비품 등을 선별하여 사진 자료와 함께 해설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烟臺1 烟窟1 望德1 火德1 積草5訥 烏外石5訥 無稜石5訥 吐木5訥 烟炬3柄 松炬50柄 草炬50柄 柵炬50柄 艾5同 牛糞5同 馬糞5石 炭5石 細沙5石 糟糠5石 防牌5坐 排火木5介 法手木5介 水桶5箇 菱鐵20箇 古乙羅木25箇 木斧子20柄 滅火器5坐 麻注乙里20沙里 前梯1 水樽5坐 縣瓢子5介 火箭9柄 唐火箭9柄 長箭1浮 片箭1浮 黑角弓1張 桶兒1介 大白旗1面 鉛丸30箇 火藥5兩 烏銃1柄 環刀1柄 長槍1柄 火繩6沙里 細繩3沙里 條乙所3沙里 火鐵石2介 水瓮5坐 釜1坐 食鼎1坐 爐口1坐 匙5持 沙鉢5立 空石10立 接匙5竹 瓦家5間 種火盆1坐 草席2立 抹木18箇 火桶5介 燒木5同 戰角1雙 待賓米1石 鎌子4柄 盤5立 三穴銃1坐 火綿1 掩頭1部 掩心1部 五色布旗5面 鼓1坐 錚1坐 火鐵10介 生松1訥 櫨1坐

(『嶺南邑誌』 第7冊, 「慶山縣邑誌」(1871) 烽臺)

(4) 봉수 거화(學火) 실연(實演) 행사

① 추진배경과 목표

봉수는 연기[주간]와 불[야간]로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시설인 만큼 실제 거화(擧火)나 거연(擧煙) 같은 실연행사의 실시를 통해 선조들의 봉수운영 원리를 체득하게 한다.

② 사업내용

연기와 불이라는 시각신호로 변경의 안위여부를 전달하였던 봉수의 연조 형태와 구조, 거화재료의 종류와 배합 등을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이 실증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크기의 연조를 제작한 후 실연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③ 추진방법과 절차

먼저 실연행사를 할 수 있는 연조(煙籠)를 제작하되 설치장소는 행사시 화재발생이나 유구 훼손에 대비하여 유적과 일정거리 떨어진 곳으로 한다. 연조의 크기와 구조 등은 문화재조사 실시 후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다.

거화재료[燄]는 경산 성산봉수 비치물목을 참고하여 준비하고 전통방식에 따라 제작한 후 사용한다. 행사의 진행은 지역 문화단체가 담당하고 연 중 개최시기는 ‘신년, 정월대보름, 8·15광복절, 단양군민의 날’ 중 의미 있는 날을 정하여 개최하도록 한다.

(5) 관리운영계획

① 관리운영 주체

단양군에서 관리(문화재 관리 기관에 위탁관리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② 관리운영 목표

- 가. 소이산봉수대의 보존과 유지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
- 나. 탐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도모
- 다. 소이산봉수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의 극대화
- 라. 유적의 학술적 가치 극대화와 신규 문헌 발굴 등

③ 관리운영사항

- 가. 봉수대 유적
 - 소이산봉수대 일원
 - 소이산봉수대 주변 탐방로 등
- 나. 자연환경
 - 소이산봉수대 주변 수목 및 지형
 - 주변 생태환경, 녹지 등
- 다. 시설물
 - 탐방로, 전망시설 등
 - 안내판, 방향지시판, 휴게시설 등
 -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 라. 탐방객을 위한 서비스
 - 홍보, 해설, 전시, 축제행사 등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④ 사업 추진절차

가. 문화재지정구역 및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는 먼저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발굴(시굴)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한 후 도출된 발굴결과에 따라 정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입 → 발굴 → 정비의 순이다. 소이산봉수는 정식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비단계에 따라 대상지가 안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복원보다는 정비의 단계를 결정한다.

나. 매입 단계는 정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국·공유지화 하는 단계로서 대상지의 지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 파악과 매입에 예상되는 비용 및 매입의 원활성을 판단하여 정비의 선후를 결정한다. 소이산봉수대의 정비사업은 대상지내 봉수대를 중심으로 우선 매입하고 이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⑤ 순차별 사업계획

가. 봉수대의 보존·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체 사업비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초기 2년의 정비를 단기정비로 설정하고 이후의 계획 중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기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단기사업은 정비사업의 기간 및 지자체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나. 보존·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추진 절차, 시급성,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다. 봉수대 보존과 주변정비사업은 방호벽과 연대 정비, 식생정비[간벌 등], 전망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정비사업의 원칙은 유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선정한다.

라.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편리하고 쾌적한 출입 및 동선체계 구축을 위한 주차장마련 및 진입광장 조성 사업을 단기에 시행하고 관광 역량 제고를 위한 간이안내소 설치나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은 중기에 진행한다.

마. 이들 추진사업은 단양군의 정책 순위 변경과 주민들의 요구도, 제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추진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1. 종합의견

- 1) 단양 소이산봉수는 조선시대 전체 제5거 노선의 봉수 체계에서, 부산에서 초기해서 서울·경기로 이어지는 내지봉수로서, 문화재청의 2014년도 현황조사 이외에는 문화재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방호벽과 제단석, 추정건물지 등을 확인하였다.
- 2) 봉수성격에 의한 구분상 내지봉수로 내부 공간은 북동쪽이 넓고 남서쪽이 좁은 형태이다. 석축을 쌓아 내부 공간을 상하 2단으로 구분하였다. 방호벽내 제단석(祭壇石)이 잔존하고 있다. 북서쪽 하단부에서 건물터가 확인되는 양상이다. 출토유물 중 어골문 기와편이 발견되어 조선시대 이전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3) 단양군은 왜구 침입의 길목이자 국방상 중요한 요충지이다. 봉수노선에 있어 부산 다대포 응봉봉수에서 초기한 직봉과 동래 간비오봉수에서 초기하는 간봉(1), 부산 천성보봉수에서 초기하는 간봉(8)노선의 여러 봉수들이 차차거화를 통해서 북상하여 직봉 1노선에 모이게 되는 중요한 결절점이다. 서쪽의 오현봉수와 동쪽의 죽령봉수로 이어지는 대응봉수노선은 고종32년 봉수제의 철폐시까지 노선의 변동 없이 시종 유지되었다.

- 4) 소이산봉수대의 평면 형태는 장타원형이고 면적은 330m² 정도이다. 제단석, 방호벽 외 추정 건물지가 금번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조선 중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부터 구한말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지에 빠지지 않고 등재되어 있는 제2거 직봉 노선의 주요 봉수다. 방호벽은 북동-남서향으로 긴 세장한 형태로 내부 공간은 북동쪽이 넓고 남서쪽이 좁다. 내부에 석축을 쌓아 상하 2단으로 구분하였으며 북벽에 붙어 제단석이 잔존한다. 북서쪽 하단부에 평탄대지가 있어 내부 건물지로 추정된다. 또한 봉수대 상부에서 제단석이 확인되어 산천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판단되어 봉수대가 제사처로 이용되기도 하였음을 보여준다.

- 5) 봉수는 단일 유적보다는 통신체계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 노선별 주요봉수, 잔존상태, 역사성, 지정번호 부여방식 결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적지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문화재 종류

1) 사적

- 비지정문화재로서 부산 다대포 응봉봉수(鷹峰烽燧)에서 초기(初起)하는 제2거 직봉노선의 마흔번째 내지 봉수.
- 남해 금산봉수(錦山烽燧)에서 초기하는 제2거 간봉(9) 노선의 스물세번째 종착봉수.
- 제2거 직봉과 간봉(9) 노선의 결절점에 있는 ‘음성 망이성봉수유적(陰城 望夷城烽燧遺跡)’을 같은 노선의 봉수와 연계하여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1) 문화재명 : 제2로 직봉-음성 망이성봉수유적(第2路 直烽 - 陰城 望夷城烽燧遺跡)

- 봉수유적은 연속유산으로서 노선 단위 지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정명칭은 “본 명칭-부 명칭”의 형식으로 부여토록 한다. 여기서 본 명칭은 대표성이 높으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2로 직봉(第2路 直烽)”으로 한다.
- 부 명칭은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라 봉수명칭 앞에 현 행정구역 소재지인 ‘음성(陰城)’을 표기한다.
- 봉수명칭은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이후 조선 최후기 봉수망을 알 수 있는 『증보 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의 명칭과 한자표기를 따라 ‘망이성봉수유적(望夷城烽燧遺跡)’으로 표기한다.
- 따라서, 최종 봉수명칭은 ‘제2로 직봉 - 음성 망이성봉수유적(第2路 直烽 - 陰城 望夷城烽燧遺跡)’(이하 ‘망이성봉수’라 한다)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명칭유래

봉수는 시기별로 발간된 지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자표기가 다양함.

어두(語頭)의 명칭이 ‘望伊山 → 望夷城 → 望爾山 → 馬耳山 → 望伊山’ 등으로 네 차례의 변화가 확인됨.

- 어두(語尾)의 명칭은 ‘烽火 → 烽燧 → 烽臺 → 烽燧’ 등으로 세 차례의 변화가 확인됨.

• 望伊山烽火 : 『세종실록』 지리지

• 望夷城烽燧 :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서읍지』 「충주읍지」(1871) 봉수, 『충주군읍지』, 『증보문헌비고』

- 望爾山烽燧 : 『동국여지』4
- 望夷山烽燧 : 『대동지지』
- 望夷城烽臺 : 『호서읍지』 「충주읍지」(1871) 읍사례 4산봉대
- 望夷山烽臺 : 『죽산부읍지』
- 馬耳山烽臺 : 『기전읍지』 「죽산부읍지」 봉대

마이산(망이산)에는 백제에서 쌓은 토성, 고구려에서 쌓은 산성, 조선에서 만든 봉수대가 있다. 마이산 주변에는 여주·이천과 진천의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이 지역 어느 곳에서 보아도 평야를 감싸고 우뚝 솟은 아름다운 산이다. 망이산의 망이산성은 3차에 걸쳐 발굴 조사하였다. 1·2차 조사 시 봉수대를 중심으로 백제 토성이 확인되었다.

“망이산성 남쪽은 험준한 절벽이지만, 북쪽은 낮은 평원이고 그 주위를 성곽이 에워싼 것으로 보아, 남쪽의 적을 대비해 쌓은 성이다.”(『단국대학교 조사단』)

고구려성의 특징을 갖춘 망이산성의 남문지는 통일신라에서 쌓았고, 치성은 고려에서 축조했으며, 8각형의 종교적 건물이 있었던 터가 있다고 한다.¹⁾ 통일신라와 고려의 토기편까지 출토되었으니 망이산과 망이산성의 역사적 중요성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3국의 군사적 요충지였으니, 망이산(마이산) 그 산 이름에도 각축을 벌였던 3국 사람들의 염원이 함축되었을 것이다.

‘望伊山·望夷城·望爾山·望耳城·望夷山·馬耳山’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기되었다. 산명의 공통적인 음소는 ‘망·마+이+산·성’으로 이루어졌다. 望은 바라보고 살핀다는 뜻이니 토성이나 산성을 쌓고 난 뒤에 새로이 부가된 의미일 것 같다. 산정의 사찰명 ‘매산사’의 ‘매’를 상고하면 ‘마이’가 줄어든 말로 보이지만, ‘망’의 본래음이 무엇이었는지 추측하게 한다. 望夷城·山은 상대방이나 적을 살피는 성·산이라는 뜻이니, 성을 축조한 뒤에 부연된 말이며, 본래의 명칭은 ‘마이·매’로 추정된다. 백제가 먼저 토성을 쌓은 후에, 고구려가 석성을 쌓았고, 통일신라와 고려가 뒤이어 활용한 성이니, 성과 관련된 명칭은 백제와 고구려의 말이 반영된 것이다. 백제어 계열에서 ‘koma(熊)’는 ‘神·임금·크다’ 등의 뜻이다. 백제어에서 망이산에 쌓은 성을 ‘熊己(komaki : 큰 성)’로 부르다가, 고구려에서 빼앗아 석성을 쌓으면서 같은 음과 뜻을 사용하면서 고구려계 표기인 ‘貂耳(komaki : 큰 성)’를 사용했을 것이다. ‘貂’은 ‘熊’과 비슷한 짐승의 이름이며 고대어 koma를 표기한 것이라고 한다.²⁾ ‘己·支·只’에 해당하는 지명은 경덕왕 때 성으로 바꾸었다.³⁾ 耳의 현재 훈은 ‘귀’이지만, 성을 뜻하는 ‘ki’의 표기라고 한다. 백제에서 토성을 쌓고 붙인 명칭, 위에 고구려에서 석성을 쌓고 붙인 ‘貂耳(komaki : 큰 성)’가 성의 본래 기능이 고려되어 ‘望夷城·山(상대방이나 적을 살피는 성·산)’으로 부르게 되었다. ‘貂耳(komaki)’는 한자어가 유입하여 오랜 세월이 흐르자 고대어 ‘komaki’는 잊히고, 한자어 표기 ‘貂耳’로만 불리게 된다. 말하자면 ‘貂耳(맥귀·맥이)’가 남아 있다가 후대 ‘마이·매’로 부르게 된 것이다.

1)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안성망이산성 3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2) 위의 책, 91쪽.

3) “潔城郡은 본래 백제 結己郡이었다.” 『삼국사기』 지리3, 결성.

3. 음성지역의 봉수현황과 성격

- 음성 지역에는 최초 설봉(設烽)과 폐봉(廢烽)시기가 모두 같은 총 2기의 봉수(가섭산·망이산)가 소재하고 있고 봉수의 성격에 의한 구분상 모두 육지내륙 소재의 내지봉수(內地烽燧)다.

4. 망이성봉수의 입지와 연혁

1) 입지

봉수대는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산30-1 일원의 최북단에 있는 해발 471.9m의 망이산성(望夷山城) 내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경기도와 경계가 된다. 충청도내를 남에서 북으로 연결해 집결되는 곳이며, 경기도를 거쳐 남·동남으로 갈라지는 기점이 되는 곳으로 사방으로 조망이 용이하다.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소재 화봉리 태봉마을에서 산정 아래 매산사까지 경사가 급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나 있다. 매산사에 차량을 주차 후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봉수대가 있는 산정에 도달할 수 있다.

봉수대는 백제시대 초축된 이후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망이산성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망이산성으로 집입하는 등산로는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과 이천시 율면, 음성군 삼성면 등 여러방면에서 올라올 수 있다.

망이산성은 복곽구조의 내·외성 형태의 성으로 정상부 산마루(해발473.9m)를 중심으로 둘레 250m 가량의 토성과 토성내부에 망이성봉수대가 위치한다. 그리고 토성에서 이어져서 망이산의 7-8부 능선을 따라 둘레 2,080m의 석축산성이 있다.

망이산성 가운데 충청북도 구간은 음성군 삼성면 일원의 망이산 정상부와 서남쪽 능선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망이성봉수대와 내성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외성의 서남벽도 포함된다. 이 구간은 2003년 4월 충청북도 기념물128호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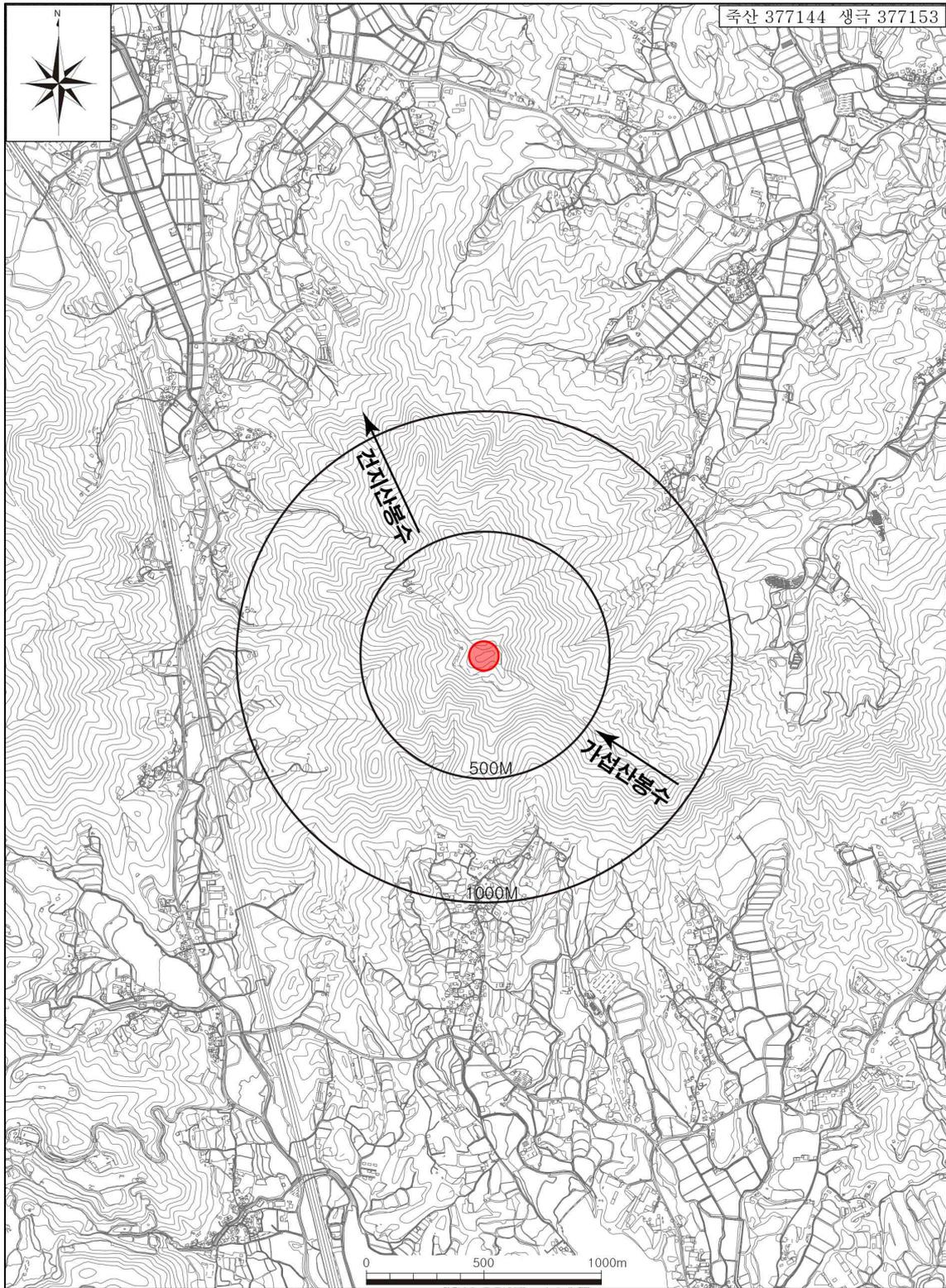
사진 1. 망이성봉수대 전경



사진 2. 망이성봉수대에서 바라본 가섭산봉수



지도 1. 2거 직봉 노선 내 망이성봉수 위치



지도 2. 망이성봉수대 위치도(S=1/25,000)

2) 연혁

- 봉수의 최초 지지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부터이며, 최종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조선 전(全) 시기 발간의 지지에 문헌기록이 있다. 각 지지별 발간연도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世宗實錄』地理志(1454) 卷149, 忠淸道 忠州牧
烽火四處 望伊山 東淮陰城伽葉山 西淮竹山儉丹山
봉화 네 곳이다. 망이산은 동으로 음성 가섭산을 겨누고, 서쪽으로 죽산 검단산을 겨눈다.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卷14, 忠淸道 忠州牧 烽燧
望夷城烽燧 東應陰城縣迦葉山 南應鎮川縣所乙山 西應京畿竹山縣巾之山
망이성봉수는 동으로 음성현 가섭산에 응하고, 남으로 진천현 소을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경기 죽산현 건지산에 응한다.
- 『東國輿地志』(1656) 卷3, 忠淸道 忠州牧 烽燧
望爾山烽燧 東應陰城縣迦葉山 南應鎮川縣松山 西應京畿竹山縣乾之山
망이성봉수는 동으로 음성현 가섭산에 응하고, 남으로 진천현 송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경기 죽산현 건지산에 응한다.
- 『輿地圖書』(1760) 忠淸道 忠原縣 烽燧
望耳城烽燧 在縣西一百十里 東應陰城迦葉山 南應鎮川縣所乙山 西應京畿竹山府巾之山 別將一人 監官五人 軍人一百名
망이성봉수는 현의 서쪽 110리에 있다. 동으로 음성 가섭산에 응하고, 남으로 진천현 소을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경기 죽산부 건지산에 응한다. 별장 1인, 감관 5인, 군인 100명이다.
- 『大東地志』(1864) 卷6, 忠淸道 21邑 忠州 烽燧
望夷山 西一百十里
망이산은 서쪽 110리이다.
- 『湖西邑誌』第3冊 「忠州邑誌」(1871) 烽燧
望耳城烽燧 在州西一百十里 東應陰城迦葉山 南應鎮川縣所乙山 西應京畿竹山府巾之山 別將一人 監官五人 軍人一百名
망이성봉수는 주의 서쪽 110리에 있다. 동으로 음성 가섭산에 응하고, 남으로 진천현 소을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경기 죽산부 건지산에 응한다. 별장 1인, 감관 5인, 군인 100명이다.
- 『湖西邑誌』第3冊 「忠州邑誌」(1871) 邑事例 四山烽臺
望夷城烽臺 迦葉山來應三十里 竹山巾之山去應四十里 烽臺文牒舉行禮吏掌
망이성봉대는 가섭산이 30리에서 와서 응하고, 죽산 건지산에 40리를 가서 응한다. 봉대문첩은 예리가 맡아서 거행한다.
- 『竹山府邑誌』(1891) 烽臺
望夷山烽臺 在邑東二里忠州地 而與乾芝山烽燧相準
망이산봉대는 읍의 동쪽 2리 충주지에 있는데 건지산봉수와 서로 겨눈다.
- 『畿甸邑誌』第2冊, 「竹山府邑誌」(1894~1895) 烽臺
馬耳山烽臺 在邑東二里 忠州地 而與乾芝山烽燧相準
망이산봉대는 읍의 동쪽 2리 충주지에 있는데 건지산봉수와 서로 겨눈다.
- 『忠州郡邑誌』(1899) 烽燧
望耳城烽燧 在州西一百十里 今廢
망이성봉수는 주의 서쪽 110리에 있는데 지금은 폐했다.
- 『增補文獻備考』(1908) 卷124, 兵考16, 烽燧
初起 鷹峰(多大浦鎮) -- (中略) -- 加葉山 望夷城(邑誌作望耳山 忠州以下忠淸兵馬所管)巾之山 -- (中略) -- 第2炬準 天臨山
초기 응봉(대대포진) -- (중략) -- 가섭산 망이성(읍지에 망이산이라고도 하는데, 충주 이하는 충청병마절도사 관할이다.
間烽(9) 初起 錦山(南海) -- (中略) -- 所屹山 忠州望夷城 巾之山 -- (中略) -- 第2炬準 天臨山

간봉(9) 초기 금산(남해) -- (중략) -- 소흘산 충주망이성 견지산 -- (중략) -- 제2거준 천립산

위 지지의 내용을 시기별로 검토하면 전기 발간의 『세종실록』 지리지에 충청도 충주목 소재 봉화4처 중 1처인 망이산봉화(望伊山烽火) 명칭으로 동쪽으로 음성 가섭산봉화(伽葉山烽火), 서쪽으로 죽산 검단산봉화(儉丹山烽火)에 응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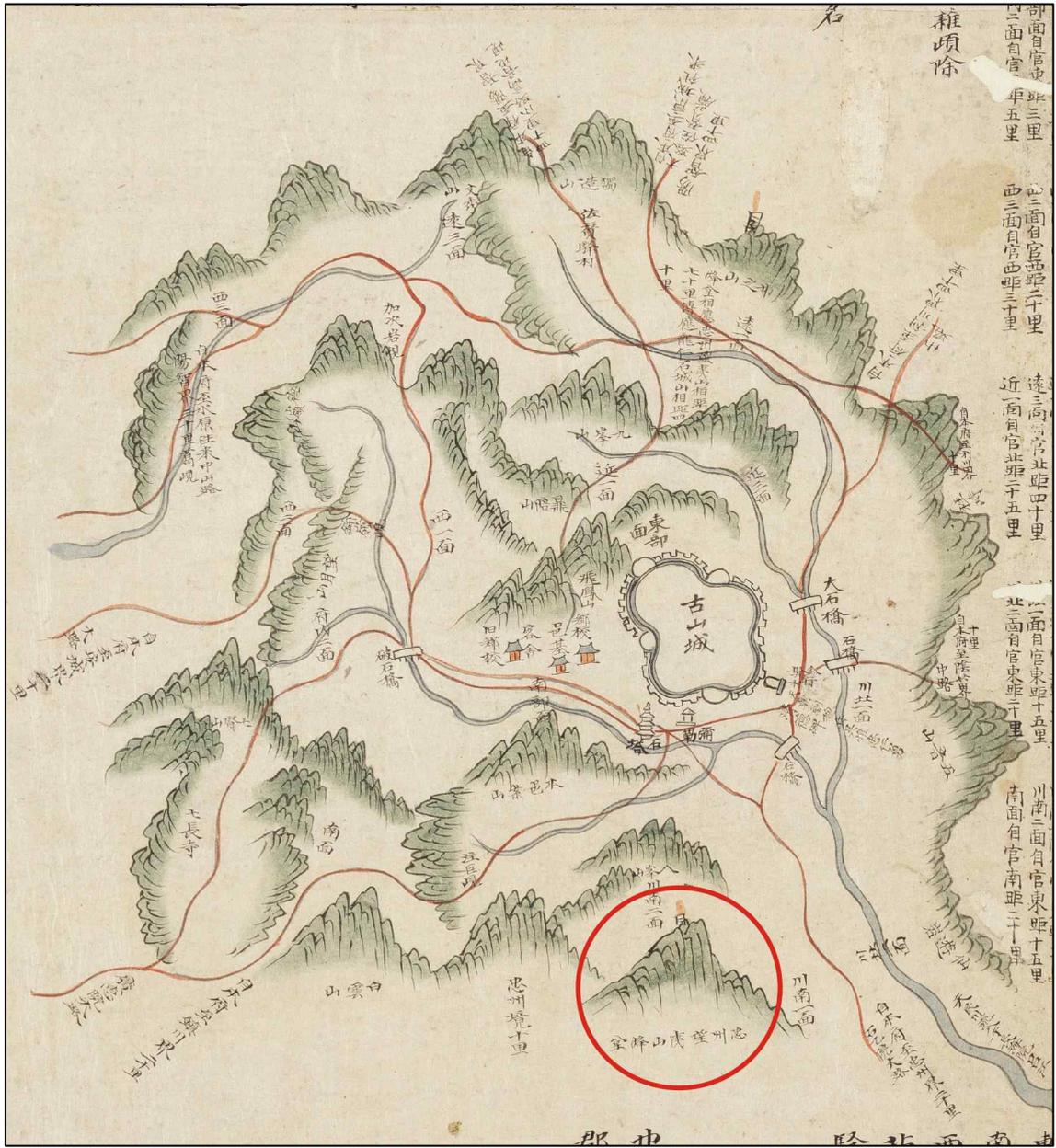
중기 발간의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는 노선이 한층 다양화되어 동쪽으로 음성현 가섭산봉수(제2거 직봉), 남쪽으로 진천현 소을산봉수[제2거 간봉(9)], 서쪽으로 경기 죽산현 견지산봉수(제2거 직봉)에 응한다고 하였다. 이때 설정된 대응봉수 노선은 최종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시 까지 시종 유지되었다.

3) 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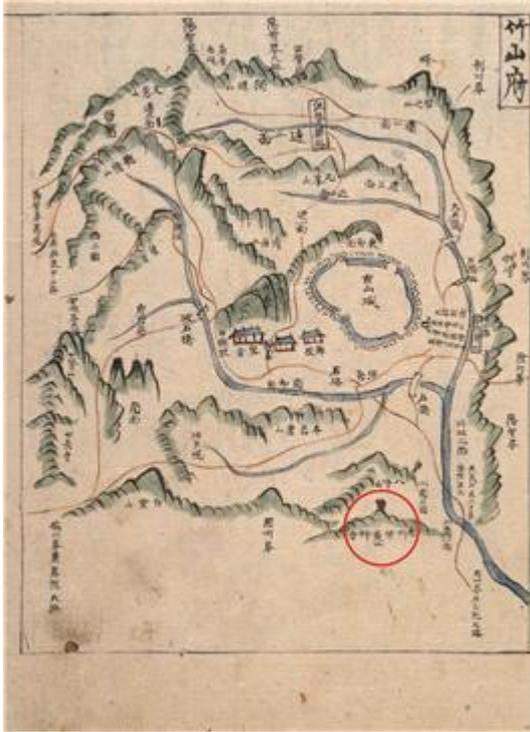
『해동지도』의 죽산부에 마산봉수가 있다. 고산성(古山城) 남쪽 산정상부에 대의 형태와 불꽃의 형상이 확인된다. 아래쪽에 충주망이산봉대라고 표시되어 있고 북동쪽 견지산 꼭대기에 역시 봉대와 불꽃으로 봉수를 표시하였다.

『대동여지도』 역시 죽산의 남동쪽 아래 대림산 정상에 불꽃 표시가 있으며, 북쪽의 견지산 꼭대기에 봉수의 표시가 있다.

조선 후기 영조~현종 연간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충청도읍지』에서는 지도에 망이성과 봉대가 표시되어 있고 봉수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는 망이성 봉수의 규모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봉수의 유지를 위한 봉군의 배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봉군의 수는 봉수별장 1명, 감관 5명, 봉군 100명이다. 여기의 봉군은 봉군 25명과 봉군보 75명을 합친 숫자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조사 자료와 근래의 유적 목록에서는 이 봉수가 모두 누락되어 있다.



고지도 1. 『해동지도』 죽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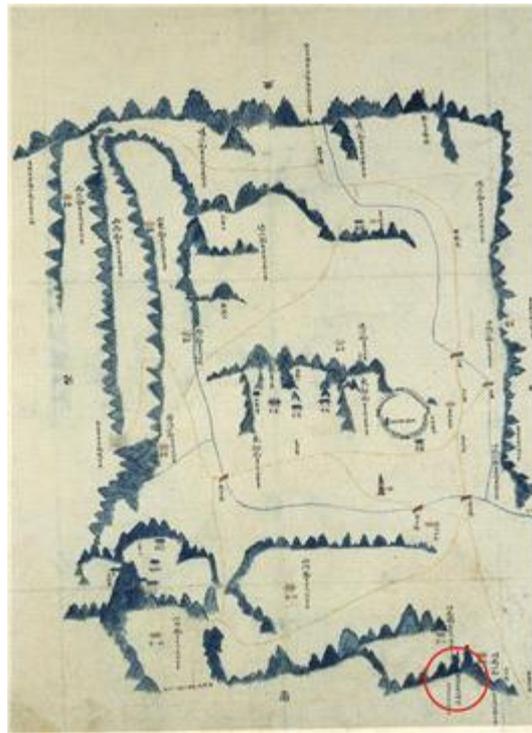
고지도 2. 『지승』



고지도 3. 『경기지』(1842, 규장각)



고지도 4. 『대동여지도』(1861)



고지도 5. 『죽산지도』(1871)

5. 봉수운영

- 조선 후기 충청병사 소관이였다. 봉수군 인원은 『여지도서』(1760) 군병에 “봉수별장 4인, 봉수감관 20인, 봉군 100명, 봉군보 300명이다.”¹⁾라고 하였다. 당시 충청현에는 ‘망이성·대림산·심항산·마산’ 등 4기의 봉수가 있었기에 실은 각 봉수마다 ‘별장 1인, 감관 5인, 봉군 25명, 봉군보 7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총 책임자인 봉수별장 1인의 감독하에 감관 5인이 봉군 25명을 1인당 5명씩 조를 짜서 교대로 번(番)을 섰다. 이외에 봉군에게는 1인당 3명씩의 보가 배정되어 실제 근무를 서지 않는 대신 봉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 『호서읍지』(1871)의 봉수군 구성²⁾도 위와 같으며, 같은 책 「읍사례(邑事例)」 예방장(禮房掌) 교원춘추(校院春秋)에 “봉대 음청일기 앞뒤로 살핀 것은 두 차례에 걸쳐 순병영에 보고한다. 읍에서 보이는 대림산봉대에서 횃불을 올리는지 올리지 않는지는 매일 보고한다. 음청일기는 매달 초하루에 외사관(外史官)³⁾에게 보고한다.”라고 하였다. 또, 같은 책 「읍사례」의 사산봉대(四山烽臺)에는 말미에 “봉대문첩(烽臺文牒)은 예리(禮吏)가 맡아서 거행한다.”라고 하였다.



사진 3. 일제강점기 촬영 망이성봉수대(192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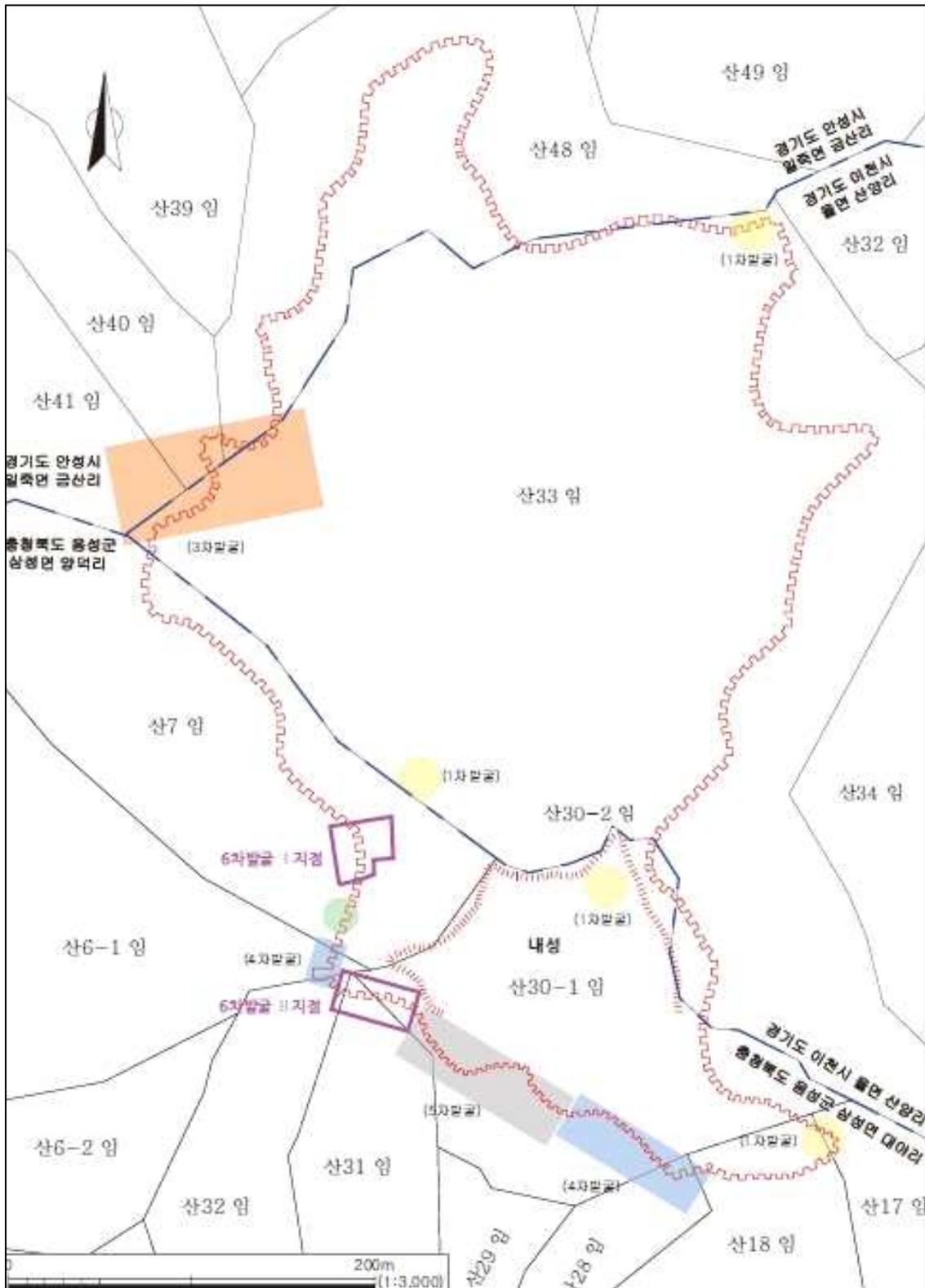
1) 『輿地圖書』 忠淸道 忠原縣 軍兵.

2) 『湖西邑誌』 第3冊, 忠州牧 軍額.

3) 외사관(外史官) : 외방의 사관. 지방에서 기록업무를 담당하는 관리.



사진 4. 망이성봉수대 일원 항공사진(1969년)



지도 3. 망이산성(망이성봉수) 조사현황도(S=1/3,000)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음성망이산성』에서 발췌)

6. 유구현황과 특징

1) 항공사진

봉수대를 알아볼 수 있는 항공사진은 1974년 사진이다. 이를 관찰해 보면, 방호벽의 형태가 당시까지도 잘 남아 있었다. 방호벽 내부는 대부분 평평한 대지형태로 확인되고 있으며, 거화시설과 생활시설을 구분할 수 있는 다른 형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남서쪽으로 망이산성의 내성의 성벽으로 보이는 라인이 확인된다. 나머지 지역은 비교적 수목이 울창한 관계로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사진3.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을 보면 방호벽이 비교적 잘 남아있으며, 출입구 시설도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에서 연조 등의 거화시설과 생활시설은 파악할 수 없다.

2) 유구현황¹⁾

망이성봉수대에 대한 조사는 1994~95년도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는 망이산성(서문지 일대, 남문지 일대, 제2치성 등)을 비롯하여 망이산성 내성의 봉수대와 주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봉수대는 망이산의 가장 높은 지점(해발472m)에 위치하며, 조사결과 확인된 규모는 길이 약 25m, 너비 15m 가량의 장방형의 방호벽을 비롯하여 내부에서 연조, 수혈(주거지), 추정 건물지 등이 조사되었다. 당시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유구의 현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 방호벽

봉수대는 동-서로 긴 평면 장방형으로 4면에 방호벽의 석축이 온전하다. 지형상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북쪽에 평탄지가 있고 남쪽에 급사면을 이룬다. 내·외벽을 석재로 협축(夾築)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은 흙으로 내탁하고 있다.

잔존하는 방호벽의 높이는 북벽이 1.7m, 남벽이 1.95m이다. 방호벽의 상부는 대부분 훼손되었으며 방호벽은 망이산성 외벽 석축산성의 성돌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동벽은 현재 5단 정도 남아있으며 기반층을 정지하여 축조하고 있으며 동벽 가운데에서 출입시설이 확인되었다. 개방형으로 폭은 약 0.8m 내외이다. 입구쪽에 높이 28cm 가량의 문턱이 확인되며 계단과 같은 시설은 조사되지 않았다. 북벽은 9-11단 정도 남아있으며 대부분 훼손된 상태이다. 북벽 가운데 축조구분점이 확인되며 기반층을 수직되도록 각은 다음 수직면을 따라 들여쌓기 하면서 방호벽을 축조하고 있다. 서벽은 5단 정도 남아있으며 외벽을 축조한 후 내벽을 흙으로 뒤채움하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볼 때, 방호벽은 원래 지형을 이용하여 축조하여 동벽과 서벽이 북벽보다 낮게 확인된다. 벽석의 축조에서도 정연하지 못하고 허튼층쌓기로 불규칙하게 축조하고 있다. 대부분 망이산성의 성돌을 이용한 것으로 모양과 암질이 일정하지 못하다.

- 연조

연조는 봉수대 서쪽 부분 석렬이 있는 가운데 부분에서 6개소에 연조의 흔적이 확인된다. 대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조성한 연조 주변에는 소토와 목탄, 재 등이 확인된다. 연조의 형태는 원형으로 타원형 또는 사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규모는 길이 0.6~1m, 너비 0.4~1m, 깊이 15cm~18cm 내외로 확인된다.

봉수대 서쪽 이외에도 남쪽에서 일부 소토와 목탄, 원형의 석렬 등이 확인되고 있어 2군데의 연조지가 있었

1) 안성군·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6, 『망이산성 발굴보고서(1)』

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 밖에 동쪽과 북쪽 구간내에서도 일부 소토와 목탄 등이 확인되고 있어 봉수대 전 구역에서 봉화를 피운 것으로 추정한다.

- 수혈(주거지)

수혈(주거지)는 봉수대 내부 서쪽에 치우쳐 확인된다. 서벽과의 거리는 약 2.5m로 평면 형태는 정삼각형으로 깊이는 10cm가량 잔존하고 있다. 각 모서리에 큰 할석이 놓여있으며 내부 주혈은 확인되지 않는다. 각 변의 길이는 2.85m이며, 면적은 약 3.52㎡(1.06평)로 1명이 머물 수 있는 크기로 판단된다. 내부 유물은 거의 없으며 주변에서 백자와 도기편이 일부 수습된다.

- 추정건물지

봉수대 서쪽 지점에 수혈(주거지)에서 약 0.9m 가량 떨어진 곳이 위치한다. 규모는 6.1×2.7m 가량으로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축조되어 있다. 동쪽과 남쪽 부분만 잔존하고 있으며 각각 축조한 석재가 다르게 확인된다. 석렬 안쪽 북쪽부분에 2개의 단이 남아 있으나 대부분 1단만 남아있는 양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높이가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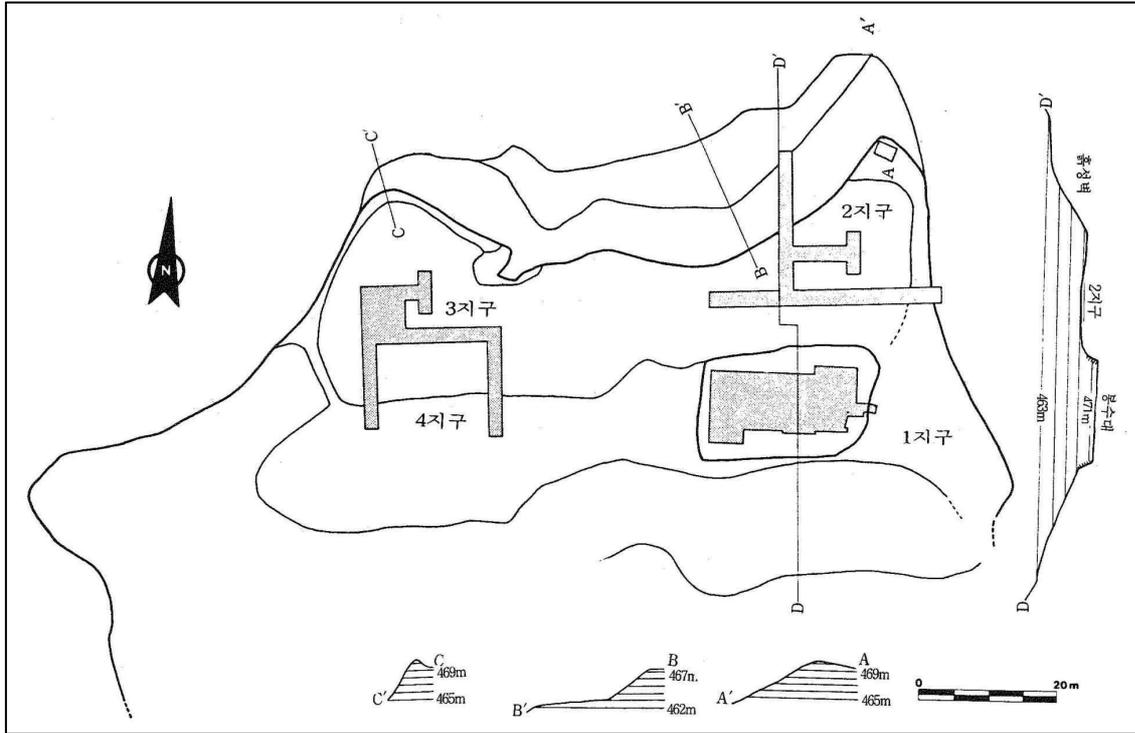
-출토유물

출토유물은 조선시대 도기편이 가장 많으며, 그 밖에 자기편, 기와편, 숫돌, 벼루 등이 출토되는데 대부분 조선시대 유물이며 이전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봉수가 망이산성이 폐성된 이후에 축조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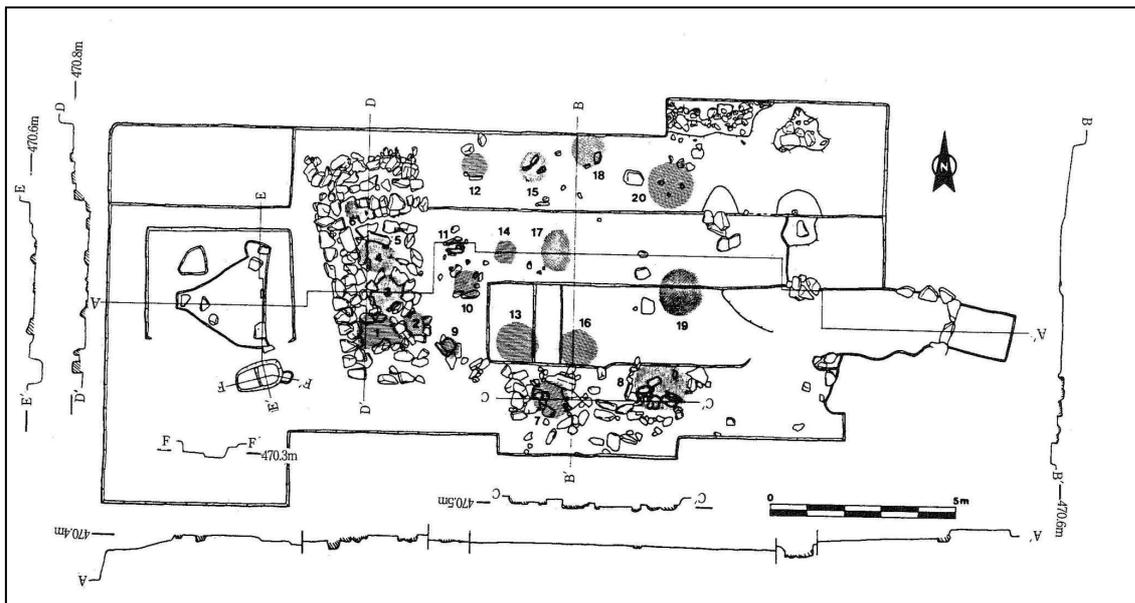
2) 특징

- 삼국시대 축조된 망이산성 내에 위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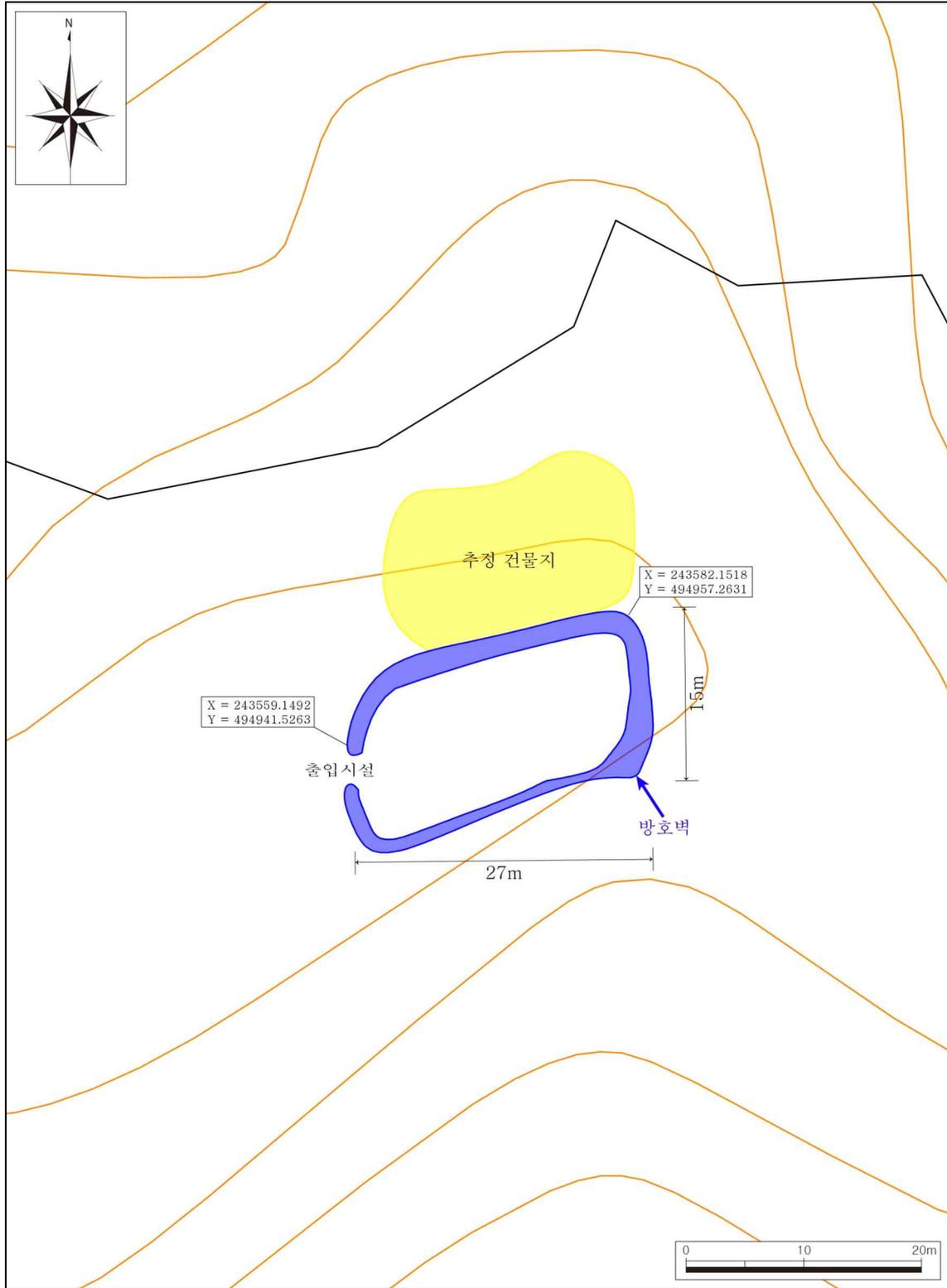
1996년도 조사내용(안성군·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6, 『망이산성 발굴보고서(1)에서 발췌』)



도면 1. 망이산성(망이성방수대) 1차 발굴조사 현황도
(안성군·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6, 『망이산성 발굴보고서(1)에서 발췌』)



도면 2. 망이성방수대 유구배치도
(안성군·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6, 『망이산성 발굴보고서(1)에서 발췌』)



지도 4. 망이성봉수대 현황도(S=1/500)

1994년도 조사내용(안성군·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6, 『망이산성 발굴보고서(1)에서 발췌』



사진 5. 망이성봉수대 조사 후 전경(동-서)



사진 6. 망이성봉수대 조사 후 전경(서-동)



사진 7. 방호벽(북벽)



사진 8. 방호벽(북벽)세부



사진 9. 방호벽(남벽)



사진 10. 연조지



사진 11. 건물지 조사 후



사진 12. 출입시설

2021년도 조사내용



사진 13. 봉수대 내 전경



사진 14. 방호벽(북벽)전경



사진 15. 방호벽(북벽)의 세부



사진 16. 방호벽(남벽)



사진 18. 봉수대 내부 평탄지



사진 19. 봉수대 외부 평탄지



사진 20. 망이산성 토성부



사진 21. 봉수대 내 수습유물

7. 지정가치와 근거기준

1) 역사적 가치

- 조선시대 제2거 직봉 중 마흔 번째이자 제2거 간봉(9)노선의 스물세 번째 내지봉수의 종착지로 조선 전(全) 시기 발간의 지지(地誌) 기록을 통해 봉수 한자표기의 다양함과 전·후 대응봉수의 확인이 가능하다.
- 조선 후기 발간의 『해동지도』(1724)와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등의 고지도(古地圖)에 빠짐없이 표기되어 있다.
- 삼국시대 산성(망이산성) 내에 위치하며 산성의 폐기 후 설봉되었으며 이후 봉수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2) 내지봉수로서 주변 교통로를 이어주는 분기점에 입지

- 죽령로(竹嶺路)와 계립령로(鷄立嶺路)의 두 길이 마산봉수에서 만나 가섭산봉수에서 서울로 향하는 영남대로변에 위치한다.

3) 충주읍 치소에서 봉수가 바로 후망되는 고지에 입지

- 치소(현 관아공원)에서 서쪽의 봉수까지 20.5km의 거리인데 치소와 봉수 사이에는 중간에 남한강이 흐르고, 동-서 좌우에 평야 및 저산지의 형성으로 치소의 가시권 내 봉수가 위치한다.

4) 삼국시대 석축산성 내부에 위치한다.

-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망이산의 정상에 육로와 수로의 요지를 조망하는 삼국시대 석축성이 축조되어 있고,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교통의 이점을 활용하여 운영된 봉수로 산성과 봉수, 두 관방유적을 복원한다면 일반시민들과 문화유적을 공유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학술조사의 실시

- 1996년 망이산성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봉수에 대한 발굴조사 실시되어 복원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는 확보되어 있다.

-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망이산성 발굴 보고서(1)』,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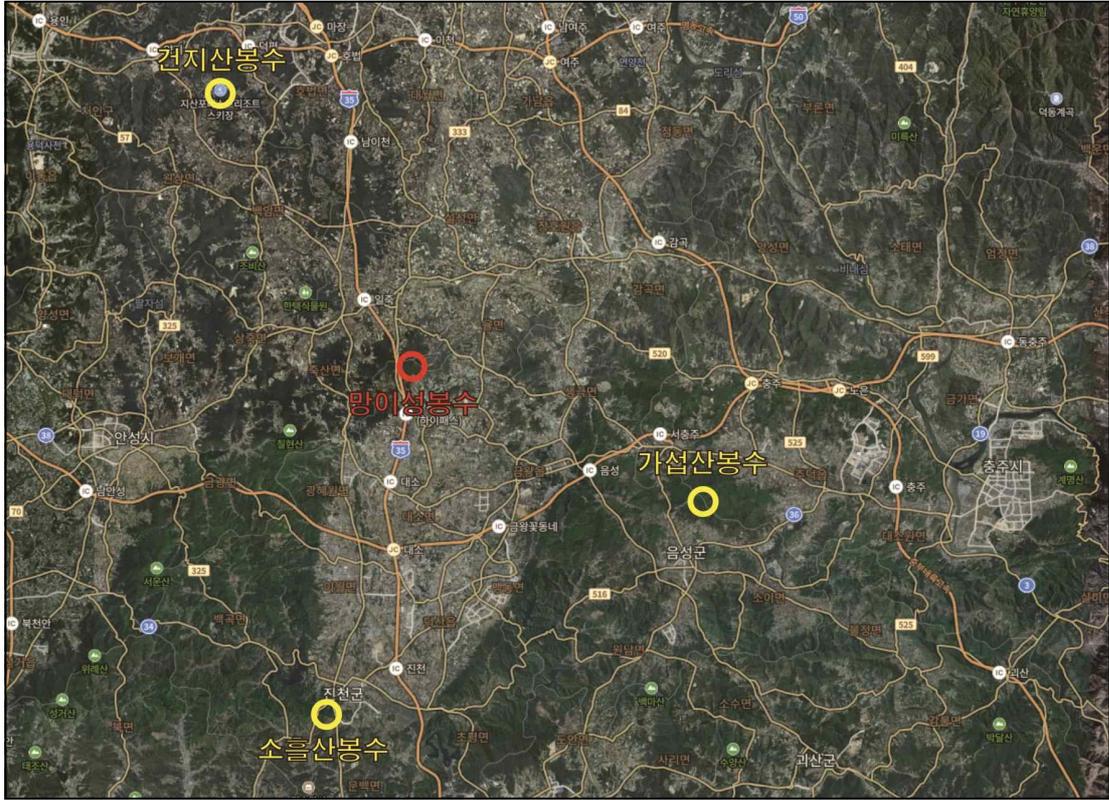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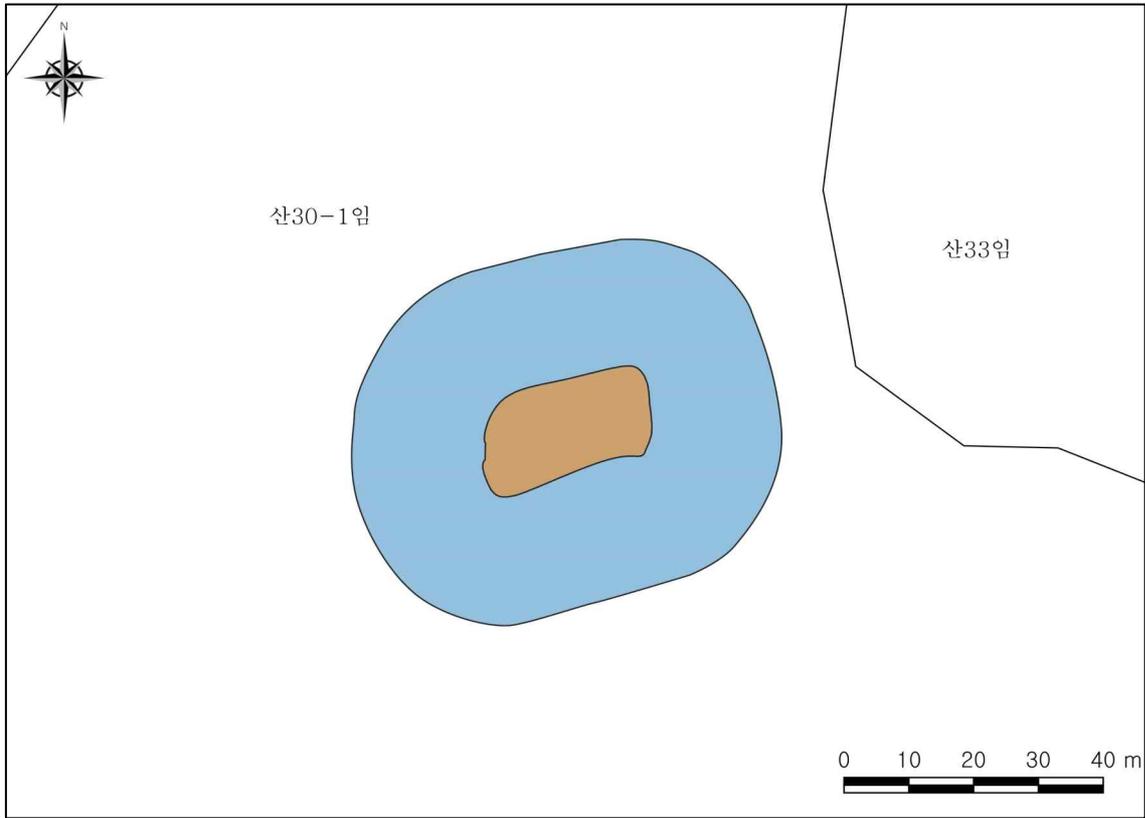


사진 22. 망이성봉수와 대응봉수



사진 23. 충주읍치 및 죽산관아와 망이성봉수



지도 5.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S=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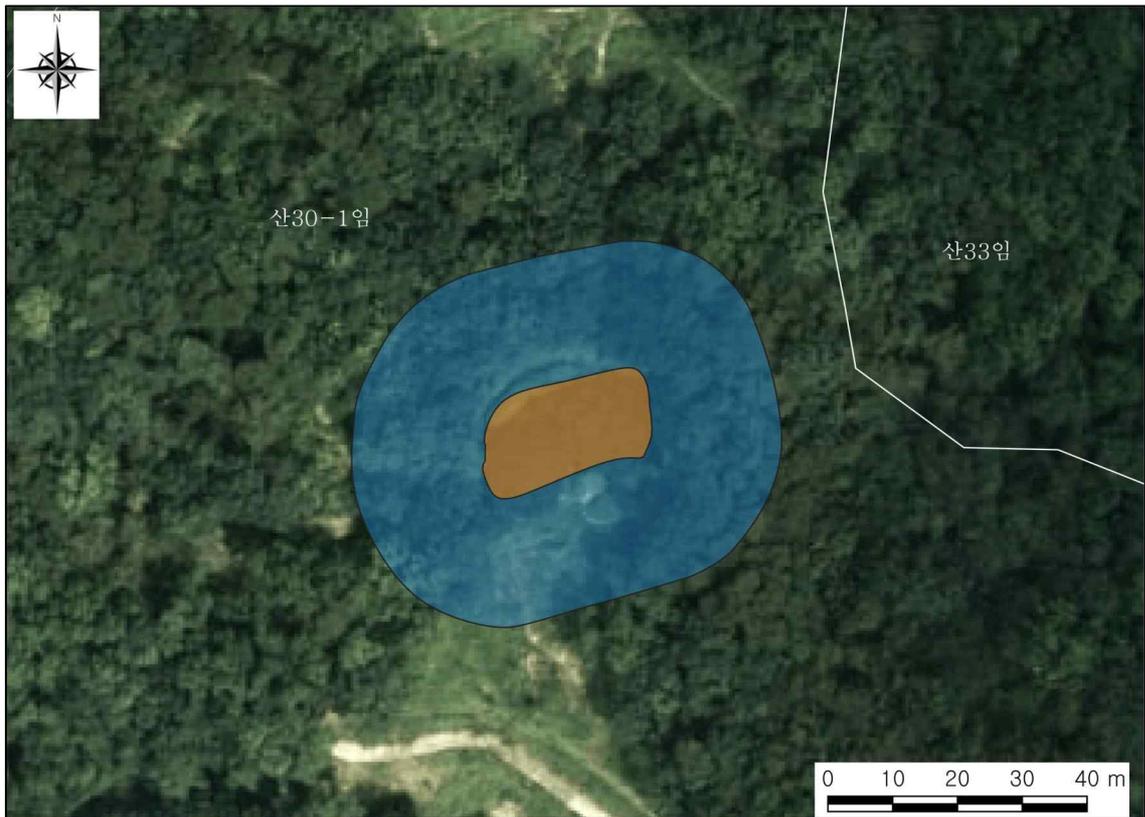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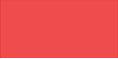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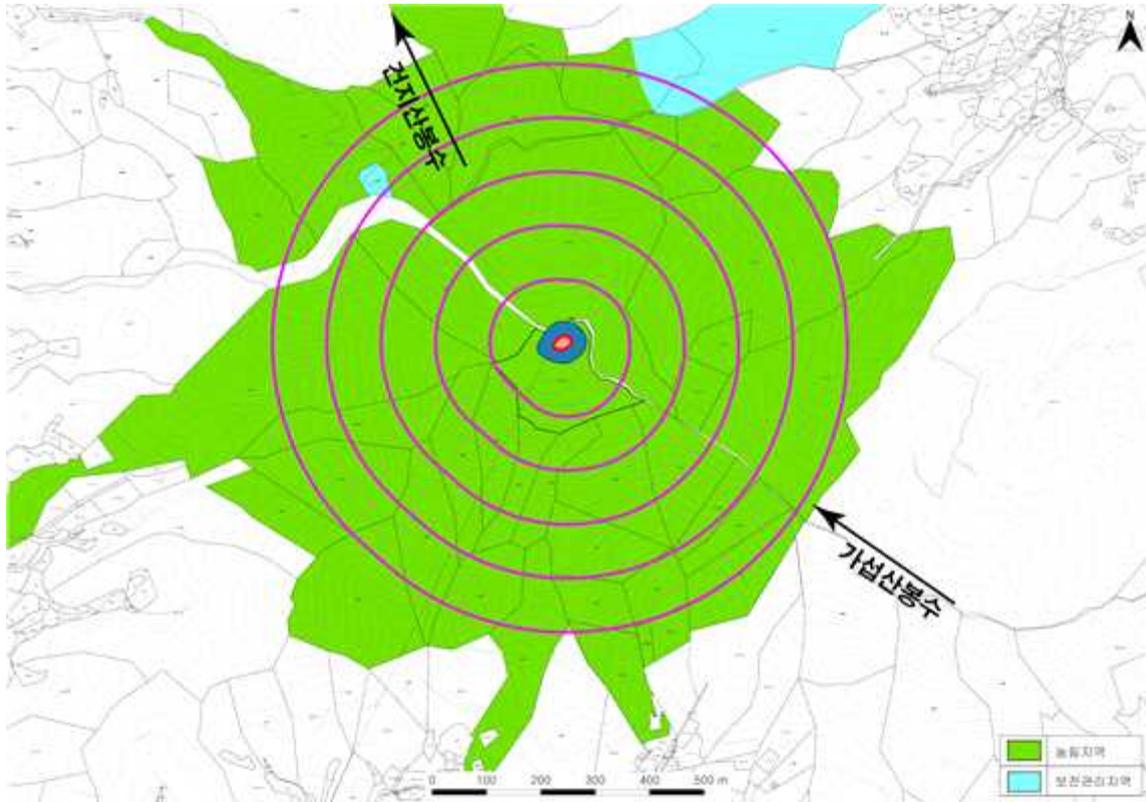
사진 24.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

9.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망이성봉수 전·후 대응노선 봉수의 방향을 고려한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

음성군	음성군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p>■ 대상문화재 제2로 직봉 - 음성 망이성봉수유적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산30-1번지 일원</p> <p>■ 문화재 및 보호구역  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보호구역</p> <p>■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간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p> <p>■ 구역별 허용기준</p>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 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0. 보존·정비와 활용 착안사항

1) 기본구상

(1) 기본방향

① 기본원칙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1.6.10.] [법률 제17409호, 2020.6.9. 일부개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문화재청, 2002)

- 문화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문화재 활용은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사업의 소재로서 개발·활용하며,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육성한다.

『유적(遺蹟 등) 정비계획 수립·추진관련 고려사항』(문화재청, 2003)

- 가치(원형) 보존 최우선: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복원·정비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비를 지양하고, 유적의 가치와 역사적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명확한 정비목표 수립: 유적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적 정비를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한다. 보존과 복원·정비되어야 할 것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고, 유적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방향 설정

음성군의 땅이성봉수대에 대한 정식 학술조사는 1996년도에 실시된 이후 땅이산성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땅이산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2016년도 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땅이산성과 함께 정비·복원 계획이 수립되어 관리되고는 있으나 땅이산성을 중심으로 정비·복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봉수대는 내부평탄지 및 주변에 수목정비만 이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비·복원계획에 따라 보존·정비와 관리안을 상기 기술한 기본 원칙에 따라 주변 현황과 여건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하고자 한다.

봉수대의 보존·정비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도모하고,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과 음성군의 역사문화 관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동선체계 등 기반시설의 확충안을 수립한다.

봉수는 조선시대 500여 년간 변경의 안위(安危) 여부를 전·후 대응봉수간 차차거화(次次擧火)를 통해 최종 중앙에 알리던 호국군사통신 유적으로서, 성격에 의한 구분상 내지봉수(內地烽燧)에 해당한다.

봉수는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평안을 상징하는 1거의 햇불[平安火·太平火]을 올림으로서 과거 음성군과 인근 고을 백성들이 이를 바라보고 일상을 마무리하는 순기능도 있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음성군 소재 전체 봉수의 보존·정비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봉수대의 잔존 방호벽과 연대 등의 역사적 실체를 보존·정비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시킨다.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활용되었던 봉수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정보통신 발달의 상징적 유적으로 보존·관리한다.

경상도와 충청도·경기도를 거쳐 최종 서울 목멱산봉수로 이어지는 내지봉수체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원한다.

(2) 기본전제

① 잔존 봉수 유구의 보존과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

봉수대의 핵심요소인 거화시설(연대)과 방호시설(방호벽) 및 생활시설(주거지)을 대상으로 보존·정비하여 땅이성봉수의 문화재적 가치가 표출되도록 한다.

② 역사문화자산 가치 증진 및 화제성 창출

과거 봉수체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던 당시에 봉수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봉수군과 봉수운영 관련 된 기록과 내용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유적과 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화제성이 창출되도록 정비한다. 특히 봉수대가 위치하고 있는 땅이산성과 함께 연계하여 설화 등을 발굴하여 함께 역사문화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대응봉수와의 조망을 위한 가시성 확보

입지조건상 동남쪽으로 음성군의 옛 치소가 잘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한 봉수는 인근 대응봉수와의 후망을 통해 음성지역과 고을 백성들에게 변경의 안위 여부를 알리던 군사통신 유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적 강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계획한다.

조선 후기에 최종 설정된 대응봉수인 가섭산봉수(제2거직봉)와 소흘산봉수(제2거간봉9)에서 건지산봉수로의 가시성 확보 외 봉수 주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식생이 양호한 기존의 자연경관 유지 방안을 제시한다.

④ 주연야화(晝煙夜火) 통신의 특징을 살린 ‘체험과 교육의 장’ 조성

햇불과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 소식을 전하였던 봉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적의 복원보다는 체험과 실연(實演)을 통한 거화의 과학적 원리를 교육한다.

기존의 진입로를 활용하여 최적의 보행환경과 교육적 기능을 갖춘 탐방로 조성을 통해 성산봉수의 500여년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⑤ 주변 문화자원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

봉수대가 망이산성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봉수대와 망이산성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연계·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⑥ 실현가능한 세부추진사업 도출과 단계별 사업시행

음성군의 재정여건이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토지 매입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필요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망이산봉수를 포함한 망이산성이 충청북도 음성군과 함께 경기도 안성시·이천시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관계 지자체들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3) 종합구상

① 추진사업 계획

가. 역사적 실체 보존 사업

- 식생정비(소목 간벌), 봉수대 내부 잔디 식재, 봉수군 주거지 정비 등.

나. 문화자원 연계 개발사업

- 탐방로(봉수군 길) 정비, 스토리텔링 개발, 체험 프로그램 및 축제 개발, 봉수 C.I개발, 동선표지판·전망시설 및 망원경 설치 등을 설치하여 망이성봉수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대응봉수 등 관방체계 알림 사업

- 대응봉수와 소속 군현 등의 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라. 기반시설 구축사업

- 봉수대 주변 진입로는 망이산성봉수 주변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 등.

② 토지이용계획

봉수대 일원은 산림청 소유의 임야로서,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산 30-1번지 일원에 소재하며 면적은 400㎡이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토지대장, 2021.9.)

현재 망이성봉수대를 찾는 탐방객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망이산성을 탐방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일부 탐방객들만 망이성봉수대를 탐방하는 수준이다. 산정 아래의 매산사에 주차를 하고 등산로를 따라 탐방한다. 향후 제2거 직봉 노선 봉수의 사적지정이 확정되고 보존·정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 시 탐방객에게 보다 쾌적한 역사경관과 편리한 탐방 환경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

③ 동선계획

본 계획에서는 봉수구역과 진입광장 및 주차구역으로 나누고 각 공간별로 기능을 배분하였다. 봉수대가 망이산성 내 위치하고 있는 봉수대의 입지 상 산성 외부에 주차를 하고, 바로 봉수대로 진입할 수 있는 동선과 함께 산성 전체를 둘러 볼 수 있는 동선을 함께 개발한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망이산봉수대를 포함한 망이산성이 경기도(안성시·이천시)와 충청북도(음성군)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자체 별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세심하게 조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진입광장 및 주차구역에는 방문객이나 차량의 접근 동선과 관련된 공간 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험교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봉수대의 탐방동선은 기존에 조성된 산책로를 그대로 이용하되, 전통적인 분위기 연출과 유지관리의 실용성

을 고려하여 아자매트나 경화흡포장으로 한다.

또한, 탐방객의 주동선이 되는 기존 산책로를 활용하여 봉수에 대한 관심유발과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2) 보존과 정비활용계획

(1)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확대지정

① 향후, 제2거 직봉 노선의 봉수를 사적(史蹟)으로 승격 시 문화재지정구역의 확대 및 대응봉수간의 조망과 가시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망이성봉수를 중심으로 남쪽의 소흘산봉수와 동쪽의 가섭산봉수에서 서쪽의 건지산봉수를 잇는 조망과 이를 잇는 가시권 확보가 필요하다.

② 봉수대 주위의 수목을 선별적으로 간벌하여 대응봉수간 조망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③ 봉수대 주변 식생이 양호한 임야는 가급적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④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지정은 인접봉수간의 조망 확보를 위해 구 방향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각 범의별로 구역을 설정하여 역사문화 환경과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새로이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해당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재산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소유주와 지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망이성봉수의 경우 문화재범위는 충북 음성군에 속해 있지만 보호구역의 경우는 경기도(안성시·이천시)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지자체 및 문화재청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⑤ 진입로에서 봉수대의 원경을 볼 수 있도록 간벌 등을 통해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봉수군들이 이용했던 소로(진입로)는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이 길을 통한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2) 보존계획

① 봉수유적 보존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는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방호벽 및 연조(6개소), 추정 건물지, 수혈(주거지) 등이 확인되었다. 현재는 복토된 상태로 방호벽만 확인이 가능하며 외부는 수풀잡목이 무성하여 원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 따라서, 과거 봉수의 운영당시 원형구조를 밝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수를 구성하였던 제반 요소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비와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에 대한 최근의 조사결과와 기타 봉수유적의 조사 성과를 비교검토하면 전체 구조의 확인이 가능함으로 이를 바탕으로 운영당시의 모습대로 단계적으로 정비·복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조선시대 내지봉수의 형태와 기능을 학습·체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공간으로 조성한다.

다. 추진방법 및 절차

- 조사를 통해 확인된 봉수대의 시설(방호벽, 연조, 건물지)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며 최종적으로는 해당유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을 추진한다.

② 수목 간벌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 외부에는 현재 무성한 수풀잡목으로 대응봉수와의 조망이 곤란하거나 유구 훼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적절한 간벌을 통하여 유적 보존 및 가시권(可視圈)을 확보한다.

나. 사업내용

- 현재 봉수대 내에는 정비가 잘 되어 있으나 외부의 경우 일부 수목으로 인해 대응봉수의 조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목을 선별적으로 벌목하여 대응봉수인 소흘산봉수와 가섭산봉수, 건지산봉수에 대

한 조망을 개선한다.

다. 추진방법

- 벌목작업은 봉수유구의 보존, 주변경관 조망, 봉수의 제반요소 감상 등에 장애를 주는 수목부터 선별하여 실시한다.
- 봉수대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경관이 확보되도록 수목을 제거한다.
- 태봉마을에서 매산사, 봉수대로 향하는 수목을 정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동선을 유도한다.

(3) 정비·활용계획

① 전망시설과 휴식공간 설치

○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의 정체성과 주요 기능은 대응봉수와의 시각적 연결에 있다. 현재, 봉수는 내·외부의 수목제거와 함께 정비가 진행되어 봉수대의 전체 현황의 파악은 가능하나 각각의 유구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거나 안내자료가 없어 전체 봉수유구를 살펴 볼 수 없다. 아울러 대응봉수의 방향이나 관계 등에 대한 안내자료 역시 미비하여 이를 파악하기에는 어렵다. 조선시대 봉수는 대응봉수와의 조망과 주변 관찰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였으므로 이러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 사업내용

- 봉수대 주변 적당한 곳에 봉수의 전체 구조와 대응봉수, 주변 자연환경, 시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조선시대 봉수의 입지선정 원리를 체감하게 한다.

○ 추진방법과 절차

- 전망시설은 봉수 주변 시야가 가장 좋은 지점에 설치하되,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봉수대의 역사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안내판에 대응봉수를 촬영한 사진을 표시하여 눈앞에 펼쳐진 전경과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망시설에는 망원경 등을 설치한다.
- 전망시설 하부나 주위에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방문객에게 휴식과 사색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② 봉수군 탐방로 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태봉마을에서 봉수대로 이어지는 ‘봉수군 탐방로’를 조성하여 문화콘텐츠로 활용한다. 아울러 망이산성 전체를 아우르는 둘레길 등을 함께 개발하여, 망이산성과 함께 연계하여 하나의 콘텐츠로 개발한다.

나. 사업내용

- 탐방로를 개설하고, 봉수 관련 이야기와 비품 등을 소개함으로써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과거 봉수의 기능과 운영 및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노변(路邊) 전시관 기능을 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

- 망이산성 내 이용되고 있는 탐방로 등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요 지점에는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고 벤치 등의 휴식시설을 도입한다.
- 안내판의 내용은 경북권 내 경산(現 대구 수성구) 성산봉수(城山烽燧)의 비치 물목을 토대로 봉수운용에 필요한 비치물목상의 거화재료나 생활비품 등을 선별하여 사진 자료와 함께 해설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烟臺1 烟窟1 望德1 火德1 積草5訥 烏外石5訥 無稜石5訥 吐木5訥 烟炬3柄 松炬50柄 草炬50柄 柎炬50柄 艾5同
 牛糞5同 馬糞5石 炭5石 細沙5石 糲糠5石 防牌5坐 排火木5介 法手木5介 水桶5箇 菱鐵20箇 古乙羅木25箇 木斧
 子20柄 滅火器5坐 麻注乙里20沙里 前梯1 水樽5坐 縣瓢子5介 火箭9柄 唐火箭9柄 長箭1浮 片箭1浮 黑角弓1張
 桶兒1介 大白旗1面 鉛丸30箇 火藥5兩 烏銃1柄 環刀1柄 長槍1柄 火繩6沙里 細繩3沙里 條乙所3沙里 火鐵石2介
 水瓮5坐 釜1坐 食鼎1坐 爐口1坐 匙5持 沙鉢5立 空石10立 接匙5竹 瓦家5間 種火盆1坐 草席2立 抹木18箇 火桶5
 介 燒木5同 戰角1雙 待賓米1石 鎌子4柄 盤5立 三穴銃1坐 火綿1 掩頭1部 掩心1部 五色布旗5面 鼓1坐 錚1坐
 火鐵10介 生松1訥 櫛1坐

(『嶺南邑誌』第7冊, 『慶山縣邑誌』(1871) 烽臺)

(4) 봉수 거화(舉火) 실연(實演) 행사

① 추진배경과 목표

봉수는 연기[주간]와 불[야간]로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시설인 만큼 실제 거화나 거연(舉煙) 같은 실연행사의 실시를 통해 선조들의 봉수운영 원리를 체득하게 한다.

② 사업내용

연기와 불이라는 시각신호로 변경의 안위여부를 전달하였던 봉수의 연조 형태와 구조, 거화재료의 종류와 배합 등을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이 실증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크기의 연조를 제작한 후 실연행사를 연 중 개최한다.

③ 추진방법과 절차

먼저 실연행사를 할 수 있는 연조(煙竈)를 제작하되 설치장소는 행사 시 화재 발생이나 유구 훼손에 대비하여 유적과 일정거리 떨어진 곳으로 한다. 연조의 크기와 구조 등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다.

거화재료[燄]는 경산 성산봉수 비치물목을 참고하여 준비하고 전통방식에 따라 제작한 후 사용한다. 행사의 진행은 지역 문화단체가 담당하고 연 중 개최 시기는 ‘신년, 정월대보름, 8·15광복절, 음성군민의 날’ 중 의미 있는 날을 정하여 개최하도록 한다.

(5) 관리운영계획

① 관리운영 주체

음성군(문화재 관리 기관에 위탁관리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 목표

가. 망이산성과 망이성봉수대의 보존과 유지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

나. 탐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도모

다. 망이성봉수대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의 극대화

라. 유적의 학술적 가치 극대화와 신규 문헌 발굴 등

③ 관리운영사항

가. 봉수대 유적

- 망이성봉수대 일원

- 망이성봉수대 주변 탐방로 등

나. 자연환경

- 망이성봉수대 주변 수목 및 지형

- 주변 생태환경, 녹지 등

다. 시설물

- 탐방로, 전망시설 등
- 안내판, 방향지시판, 류게시설 등
-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라. 탐방객을 위한 서비스

- 홍보, 해설, 전시, 축제행사 등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④ 사업 추진절차

가. 문화재지정구역 및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는 먼저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발굴(시굴)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한 후 도출된 발굴결과에 따라 정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입 → 발굴 → 정비의 순이다. 망이성봉수는 망이산성과 함께 몇 차례에 걸쳐 정식 학술조사가 이루어졌다. 망이산성의 경우 일부 구간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 상태로 우선적으로 봉수를 포함하여 망이산성 전체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복원·정비단계에 따르되 대상지가 안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복원·정비의 단계를 결정한다.

나. 매입 단계는 정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국·공유지화 하는 단계로서 대상지의 지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 파악과 매입에 예상되는 비용 및 매입의 원할성을 판단하여 정비의 선후를 결정한다. 망이성봉수의 정비사업은 망이산성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야하며, 행정구역상 충청북도(음성군)와 경기도(안성시·이천시)에 걸쳐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에서 함께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⑤ 순차별 사업계획

가. 봉수대의 보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체 사업비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초기 2년의 정비를 단기정비로 설정하고 이후의 계획 중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기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단기사업은 정비사업의 기간 및 지자체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나. 보존·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추진 절차, 시급성, 사업비,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다. 봉수대 보존과 주변정비사업은 방호벽과 연대 정비, 식생정비[간벌 등], 전망 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정비사업의 원칙은 유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선정한다.

라.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편리하고 쾌적한 출입 및 동선체계 구축을 위한 주차장 마련 및 진입광장 조성 사업을 단기에 시행하고 관광 역량 제고를 위한 간이 안내소 설치나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은 중기에 진행한다.

마. 이들 추진사업은 음성군의 정책 순위 변경과 주민들의 요구도, 제반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1. 종합의견

- 1) 음성 망이성봉수는 조선시대 전체 5거노선의 봉수 체계에서, 부산에서 초기하는 제2거 직봉의 마흔번째 내지봉수로서, 1996년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망이산성 일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봉수에 관해서는 1994년 조사와 문화재청의 2014년과 이번 조사를 통해, 방호벽과 연조, 추정 건물지 등을 확인하였다.
- 2) 조선 전기 『세종실록』 지리지(1454)부터 최종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조선 전 시기 발간된 지지에 동

일한 명칭으로 기록이 있다. 노선과 성격은 제2로 직봉의 마흔번째 내지봉수로서 남해 금산(錦山)에서 초기하는 제2로 간봉(9)의 봉수가 이곳에서 모여 제2로 직봉으로 연결되었다. 남쪽으로 제2로 간봉 9노선의 진천 소흘산봉수(所屹山烽燧), 동쪽으로 제2로 직봉인 동 지역의 가섭산봉수(加葉山烽燧)에서 보내는 신호가 여기에서 합해졌다가 서북쪽으로 제2로 직봉의 용인 건지산봉수(巾之山烽燧)에 응했다.

- 3)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서 살펴보면 망이산성과 가장 가까운 행정중심지는 바로 북쪽에 위치한 죽산(竹山)이다. 죽산을 중심으로 7개의 방향의 교통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북쪽의 양지(陽智), 직산(植山)·목천(木川), 서북쪽으로 안성(安城)·양성(陽城)으로 이어지고 있다.

망이산 봉수는 망이산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데, 직봉인 음성 가섭산(迦葉山, 710m)과 진천 소을산(봉화산, 412m)의 봉수를 받아 죽산 건지산(乾芝山, 411.3m)을 거쳐 한양에 이르도록 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망이산 봉수는 동래-경주-영천-안동-충주에서 올라오는 직봉(直烽)과 남해-진주를 거쳐 올라오는 간봉(間烽)을 받아 한성 남산(南山)으로 넘기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여지도서』에 별장(別將) 1명, 감관(監官) 5명, 군인(軍人) 100명이 망이성의 봉수업무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4) 망이산성에 대한 문헌기록은 현재로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조선시대의 자료인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동국여지』 등의 「봉수(烽燧)」조, 「산천(山川)」조에서 망이산(望伊山) 혹은 망이성(望伊城)에 봉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조선전기 『세종실록』 지리지 충주목 음성현 봉수조에는 망이성(望伊城)으로 기록되어 있고, 조선후기 『여지도서』 충청도 충원현 봉수조에는 망이성(望耳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망이산성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대부분 봉수와 관련하여 기록되어 있으므로 망이산성이 축조되어 경영되어 오다가 어느 시기에 폐성된 후 봉수가 중심이 되어 기능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 5) 망이성봉수대의 평면 형태는 말각방형이고 면적은 400㎡ 정도이다. 연대, 방호벽 외 추정 건물지 금번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부터 구한말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1908)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지에 빠지지 않고 등재되어 있고 제2거 직봉 노선의 주요 봉수다.

- 6) 봉수는 단일 유적보다는 통신체계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 노선별 주요봉수, 잔존상태, 역사성, 지정번호 부여방식 결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적지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망이산봉수가 위치하고 있는 망이산성과 함께 연계하여 역사문화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1. 문화재 종류

1) 사적

비지정문화재로서 부산 다대포 응봉봉수(鷹峰烽燧)에서 초기(初起)하는 제2거 직봉노선의 서른여섯번째 내지봉수인 ‘제천 오현봉수유적(堤川 吾峴烽燧遺跡)’을 같은 노선의 봉수와 연계하여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2. 문화재 명칭

1) 문화재명 : 제2로 직봉 - 제천 오현봉수유적(第2路 直烽 - 堤川 吾峴烽燧遺跡)

- 봉수유적은 연속유산으로서 노선 단위 지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정명칭은 “본 명칭-부 명칭”의 형식으로 부여토록 한다. 여기서 본 명칭은 대표성이 높으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2로 직봉(第2路 直烽)”으로 한다.
- 부 명칭은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라 봉수명칭 앞에 현 행정구역 소재지인 ‘제천(堤川)’을 표기한다.
- 봉수명칭은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이후 조선 최후기 봉수망을 알 수 있는 『증보 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의 명칭과 한자표기를 따라 ‘오현봉수유적(吾峴烽燧遺跡)’으로 표기한다.
- 따라서, 최종 봉수명칭은 ‘제2로 직봉 - 제천 오현봉수유적(第2路 直烽 - 堤川 吾峴烽燧遺跡)’(이하 ‘오현 봉수’라 한다)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명칭유래

봉수는 시기별로 발간된 지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자가 다양하게 표기된다.

어두(語頭)의 명칭이 ‘吾峴→吾峙→衣峙→衣峴→吾峴’ 등으로 네 차례의 변화가 확인된다.

어미(語尾)의 명칭은 ‘烽火→烽燧’ 등으로 두 차례의 변화가 확인된다.

- 吾峴烽火 :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
- 吾峴烽燧 :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 『증보문헌비고』
- 吾峙烽燧 : 『여지도서』, 『청풍부읍지』(1899)
- 衣峙烽燧 : 『청풍부읍지』(1797), 『호서읍지』, 『청풍군읍지』(1895·1899)
- 衣峴烽燧 : 『대동지지』

오티(치)재는 ‘吾峴(오고개)·衣峴(웃고개)·衣峙(웃고개, 언덕)·吾峙(오고개, 언덕)’로 기록되었다. 오티(치)재의 어두 현실음은 ‘오’라기보다는 ‘은·웃’으로 발음되었기 때문에, 후대에 ‘웃고개(衣峴)·웃고개·언덕(衣峙)’이

라는 표기를 부가한 것이다.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에서 원래 마을 동제로 행해지던 오티별신제는 봉수 제도가 폐지된 이후, 오현봉수가 있었던 봉화재 봉우리까지 포함하여 다섯 개의 봉우리 ‘봉화재·말구리재·매차골·흰티재(흰뜨재)·해너물재(한나물재)’에 서낭당을 짓고 별신제를 행하고 있다. 오티별신제에서는 오티(五峙: 다섯 고개)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다섯 개의 봉우리를 의식하여 새로이 부여한 명칭인지, 원래 다섯 개의 고개나 봉우리로 인해 ‘오현(吾峴: 오고개)·오치(吾峙: 오고개)’가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흔히 지명을 부여할 때, 지형의 특이성, 특이한 사건, 주변에 많이 성장하는 나무 등이 지명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의현(衣峴: 옷고개)이라고 부른다’는 말에서 ‘옷나무’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으나 오티재에는 예나 지금이나 옷나무가 많이 성장하는 곳은 아니라고 한다.

“단군이 阿斯達에 도읍하고 나라를 열어 국호를 朝鮮이라 하였다.”(『삼국유사』 권1, 고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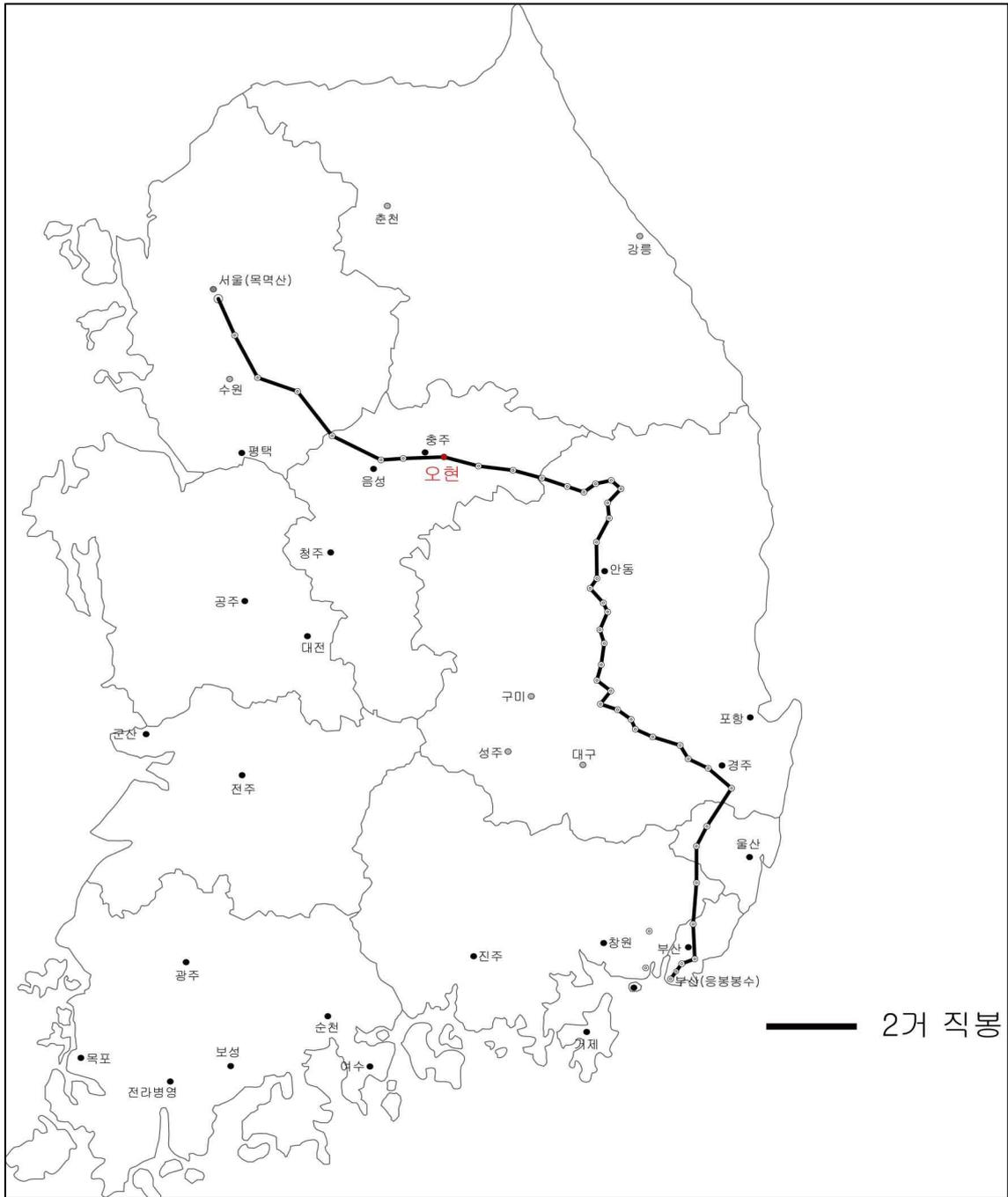
아사(阿斯[asa])는 고대어에서 아침(朝)을 의미하지만, 이병선¹⁾은 母 大를 뜻하는 「앗」 「어시」 「어시」라고 한다. 오현의 다른 표기 ‘衣峴·衣峙’에서 衣는 ‘높다·크다·어른’의 뜻을 가진 「엇」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 북일면의 ‘어시(엇) 고개’와 함안군 군북면의 ‘어시기(엇) 재’는 ‘큰 고개·큰 재’라는 의미다. 이로써 보면 ‘衣峴·衣峙’에서 衣는 ‘어시·어시기’의 어간인 「엇」을 한자어의 뜻으로 표기한 것이 분명해진다. 오티(치)재는 ‘큰 재·큰 고개’라는 의미가 된다.

‘오티(치)’재가 영남대로 - 좌로(한양-용인-충주-조령-문경-대구-동래) 노선에 속하는 고갯길이며, 오티별신제의 서낭당이 ‘봉화재·말구리재·매차골·흰티재(흰뜨재)·해너물재(한나물재)’ 다섯 봉우리 중에서 오티 봉화재에만 큰봉화재서낭과 작은봉화재서낭 두 개의 서낭당이 들어선 것을 봐도 오티재는 큰 고개임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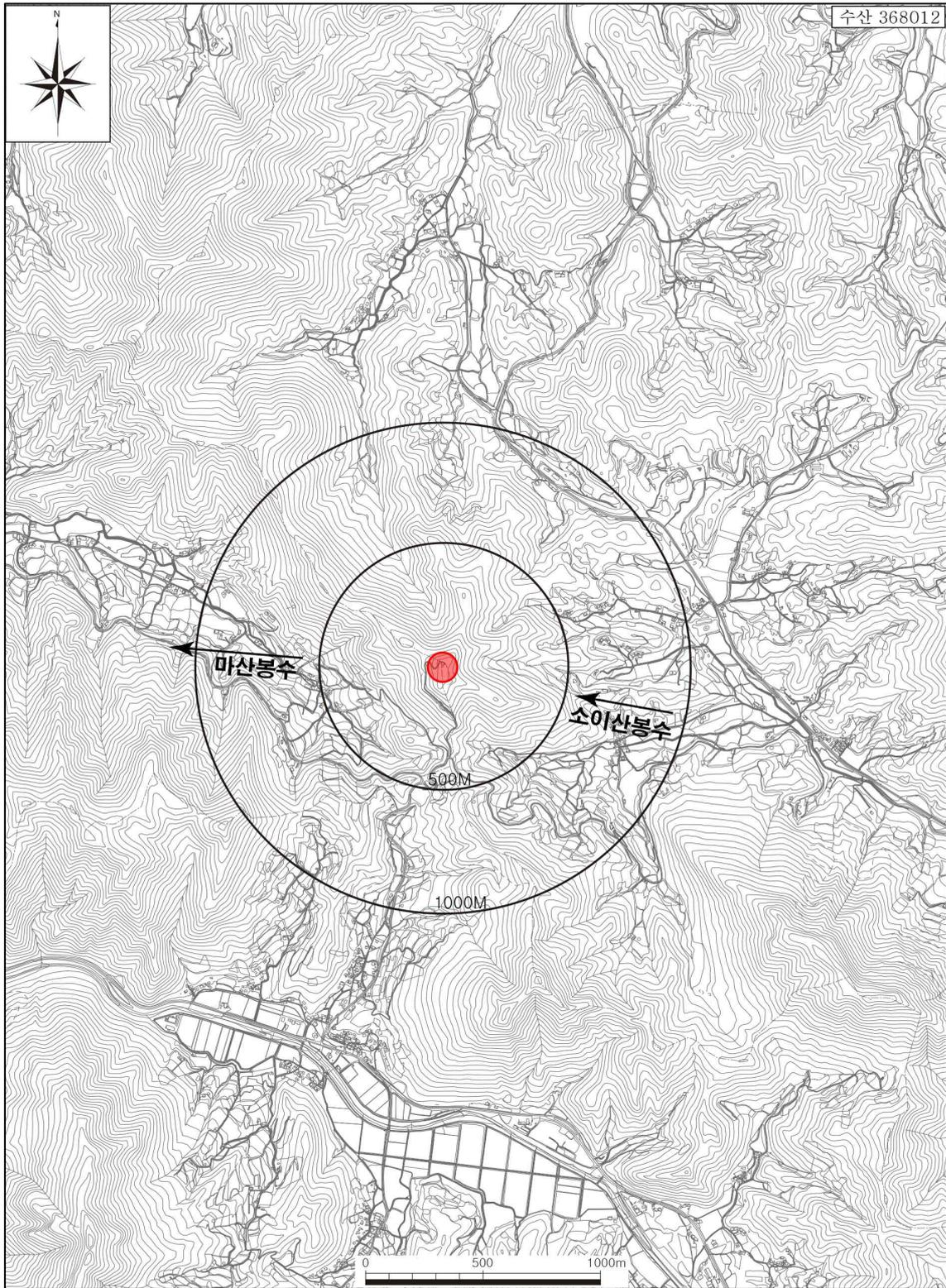
3. 제천지역의 봉수현황과 성격

- 제천 지역에는 최초 설망(設望)과 폐망(廢望)시기가 미상인 2기의 망대(망덕봉·망대봉)와 1기의 봉수(오현)가 소재하고 있다. 봉수의 성격에 의한 구분상 모두 육지내륙 소재의 망대(望臺)와 내지봉수(內地烽燧)다.
-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가 최종 폐지될 때까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었던 봉수는 ‘오현’ 1기이고 이 중 망대 2기는 아직 정식 발(시)굴 등의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 『한국고대국명지명의 어원 연구』 도서출판이회, 이병선, 2012. p26.



지도 1. 2거 직봉 노선 내 오현봉수 위치



지도 2. 오현봉수대 위치도(S=1/25,000)

4. 오현봉수의 입지와 연혁

1) 입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산62번지 일원으로, 오티리 안말 뒷산의 배후 산인 해발 426m의 봉화산(烽火山)에 위치한다. 동남쪽은 주변 산지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며, 서북쪽 두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다. 조선 후기까지 안동·영주·풍기 등 주로 경북 지역의 사람들이 서울로 떠나들던 봉화재로 부르는 고갯길이다. 또한 수산·덕산·한수면의 옛 길이 합쳐지는 곳이다.

82번 도로상의 수산면 오티리 봉화재삼거리에서 좌측에 봉수대로 가는 포장도로가 나있다. 산정에 있는 SK 텔레콤 통신기지국이 멀리서도 봉수대를 쉽게 찾게 하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



사진 1. 오티리 마을에서 바라본 오현봉수대



사진 2. 오현봉수대에서 바라본 충주호

2) 연혁

봉수의 최초 지지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1454) 부터이며, 최종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조선 전(全) 시기 발간의 지지에 문헌기록이 있다. 각 지지별 발간연도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世宗實錄』 地理志(1454) 卷149, 忠淸道 忠州牧 淸風郡
烽火一處 郡南吾峴 東淮丹陽所伊山 西淮忠州梧城
봉화 한 곳은 군의 남쪽 오현이다. 동으로 단양 소이산을 겨누고, 서쪽으로 충주 오성에 겨눈다.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卷14, 忠淸道 淸風郡 烽燧
吾峴烽燧 在郡南 東應丹陽郡所伊山 西應忠州心項山
오현봉수는 군의 남쪽에 있다. 동으로 단양군 소이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충주 심항산에 응한다.
- 『東國輿地志』(1656) 卷3, 忠淸道 淸風郡 烽燧
吾峴烽燧 在郡南 東應丹陽郡所伊山 西應忠州心項山
오현봉수는 군의 남쪽에 있다. 동으로 단양군 소이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충주 심항산에 응한다.
- 『輿地圖書』(1760) 忠淸道 淸風府 烽燧
吾峙烽燧 在府治南二十五里 東應丹陽郡所伊山 西應忠州心項峴
오치봉수는 부의 치소 남쪽 25리에 있다. 동으로 단양군 소이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충주 심항현에 응한다.
- 『淸風府邑誌』(1797) 烽燧
自官門南距遠南面 衣峙二十五里 來應丹陽金伊山 去應忠州心項山
관문의 남쪽으로부터 원남면 의치까지는 25리다. 단양 금이산에서 와서, 충주 심항산에 가서 응한다.
- 『大東地志』(1864) 卷6, 忠淸道 21邑 淸風 烽燧

衣峴 一云衣峙 南八里

의현은 의치라고도 하는데 남쪽으로 8리다.

- 『湖西邑誌』 第12冊 「淸風府邑誌」(1871) 烽燧
衣峙 南距二十五里 來應丹陽敦山 去應忠州馬水幕嶺烽
의치는 남쪽 25리 거리인데, 단양 둔산에서 와서, 충주 마수막령봉에 가서 응한다.
- 『淸風郡邑誌』(1895) 烽燧
衣峙 南距二十五里 來丹陽敦山 去應忠州馬水幕嶺烽
의치는 남쪽 25리 거리인데, 단양 둔산에서 와서, 충주 마수막령봉에 가서 응한다.
- 『淸風郡邑誌』(1899) 烽燧
衣峙 南距二十五里 來應丹陽敦山 去應忠州馬水幕嶺烽
의치는 남쪽 25리 거리인데, 단양 둔산에서 와서, 충주 마수막령봉에 가서 응한다.
- 『淸風府邑誌』(1899) 烽燧
吾峙 南距二十五里 來丹陽敦山烽 去應忠州馬水幕嶺烽
오치는 남으로 25리 거리인데 단양 둔산에서 와서 응하고, 충주 마수막봉수에 가서 응한다.
- 『增補文獻備考』(1908) 卷124, 兵考16 烽燧2
初起 鷹峰 -- (中略) -- 所伊山 吾峴 心項 -- (中略) -- 第2炬準 天臨山
초기 응봉 -- (중략) -- 소이산 오현 심항 -- (중략) -- 제2거준 천림산

위 지지의 내용을 시기별로 검토하면 조선 전 시기를 통해 단양 소이산(所伊山)에서 오는 동쪽 노선은 변동이 없는 대신 신호를 보내던 대응봉수는 전기에 오성봉화(梧城烽火)에서 이후 서쪽으로 충주 심항봉수(心項烽燧)에 줄곧 응했다. 명칭상 지지별로 ‘吾峴·吾峙·衣峴·衣峙’ 등으로 표기되었으나 최종 명칭은 오현(吾峴)이며, 현대에는 달리 ‘오티봉수’로도 지칭된다.

후기 발간의 『청풍군읍지』(1895) 봉수에는 ‘의치(衣峙)’ 명칭으로 “남쪽에서 25리의 거리다. 단양 둔산(敦山)이 와서 충주 마수막령봉(馬水幕嶺烽)에 응한다.”라고 하였다.

3) 고지도

『해동지도』에는 남쪽 원서면과 원남면의 가운데 고갯마루에 오치봉대(吾峙峰臺)라고 표기되어 있고 봉화대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봉화대 관련 지명이 처음 나타난다. 『1872년 지방지도』에는 오치 정상에 봉대라고 표기되어 있고, 봉수대가 그려져 있다. 현재는 소실되고 그 터만 남아 있다.

조선 후기 사료 중 『여지도서』(청풍)에는 남쪽의 오치와 백치 중간에 봉수대가 그려져 있고, "오치봉수가 부의 남쪽 25리에 있다. 동쪽으로 단양군의 소이산봉수에 응하고, 서쪽으로는 충주의 심항현봉수에 응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조선지도』에는 봉치로 표기되어 있고 봉화대가 그려져 있다.



고지도 1. 해동지도 청풍부



고지도 2. 팔도군현지도(18세기)



고지도 3. 대동여지도(1861)



고지도 4. 지방지도 청풍부팔면(1872)



고지도 5. 지도(1884 고려대학교 도서관)

5. 봉수운영

조선 후기 충청병사 소관이였다. 봉수군 인원은 『청풍부읍지』(1797) 군병에 “봉수별장 1인, 감관 5인, 군보(軍保) 100명이다.”라고 하였다.

이후 발간 『호서읍지』(1871) 군포(軍布)에는 “봉수별장 1인, 감군(監軍) 5인, 군보100명이다.”라고 하여 앞의 감관이 감군으로의 명칭변화가 확인된다. 같은 책 「청풍부읍사례(淸風府邑事例)」에 “각 군보의 도안(都案)은 매 사람 당 7푼씩 거두어 들인다. 봉군의 도안은 매 사람당 7푼씩이다.”라고 하였다.

6. 오티별신제(吾峙別神祭)

다음은 오티별신제를 연구한 이창식의 조사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五峙里]에서 정월 대보름에 열리는 마을공동체의 ‘오티별신제’가 충청북도 시도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다. 오티별신제는 오티마을의 수호신인 서낭신과 산신에 대한 농경생활의 안녕과 소망을 기원하는 기복행위로서 중부 산간내륙권의 대표적인 동제(洞祭)이다. 다섯 고개 서낭신을 마을 본당에 모시는 의례와 모셔놓고 벌이는 축제형 행사를 뜻한다.

오티마을에는 각각의 고개마다 서낭당이 있으며, 마을 뒷산 중턱에는 산신당이 있다. 그곳에는 여러 신령이 좌정되어 마을을 지킨다고 믿고 있다. 오티마을의 주산(主山)에는 마을 최고신인 산신을 모시고 고개에는 거리신인 서낭신을 모신다. 다섯 개의 봉우리 가운데 서낭당이 위치한 곳은 ‘봉화재·말구리재·매차골·흰티재(흰뜨재)·해너물재(한나물재)’이다. 이들 중 봉화재에는 ‘큰봉화재서낭’과 ‘작은봉화재서낭’ 두 개의 서낭당이 있다.

수산면 오티마을에서는 제당들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의 협동·단결과 마을 전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제의를 2년마다 지내고 있다. 그 뒤풀이격인 축제마당에는 고대 부족사회의 마을신앙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제의형 농악놀이와 허재비놀이가 행해진다. 이렇듯 충북 북부 지역 서낭계 마을곳의 전형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민속적 제의를 일컬어 ‘오티별신제’라고 한다.

오티마을에서 다섯 고개에 신령을 위하는 제의를 별신제라고 일컫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 ‘별신’의 어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신을 특별히 모신다는 뜻을 지닌다. 둘째, ‘별’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지명에서 흔히 쓰이는 서라벌(徐羅伐)의 ‘벌[野]’에 해당하는 말로 평야나 들을 상징하는 ‘들신’인 ‘별신[野神]’을 모시는 것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다. 셋째, ‘뱃신’ 곧 ‘선신[船神]’을 말하는 것이라는 설이다. 넷째는 벨·벌·별의 어원은 ‘밝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광명을 바라는 민족신앙인 ‘밝’ 신앙에서 기인한다는 설이다.

오티의 경우에는 산신이 아닌 고개신 또는 거리신의 개념이 강하므로 들신·별신 등의 서낭적 의미가 강하다. 실제로 제의의 성격이 대보름 마을 거리곳의 성향을 보인다. 별신제는 마을 생활의 협동정신이 잘 표현되는 관행의 한 가지다. 마을 사람들 전원이 참여하는 별신제는 격년·격2년·격10년 또는 필요할 때 시행되듯이 부정기적으로 거행되나 마을축제로서 동제의 속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별신제의 연행은 신을 위한 희락(戲樂)이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락(神樂)을 갖게 한다. 비록 경비가 많이 들어 부담이 되지만 오인적(娛人的)·오신적(娛神的) 동제의 이중성을 갖는다. 오티별신제를 한정하여 볼 때 고개신 또는 거리신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마을의 길신을 독특하게 ‘별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동해안별

1) 도안(都案) : 보포(保布)를 거두기 위해 그 대상 인력을 정리한 일종의 인명부.

신긋이나 은산별신제와 달리 마을 고개 또는 길목을 지키는 거리신을 특별히 모신다는 의미가 강하다.

오티별신제의 과정 고양주는 정월 12일부터 제를 올릴 준비를 한다. 이 시기부터 철저히 금기를 지키고 가족들도 이에 따라야 한다. 고양주 집은 이때부터 신성한 공간이 된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의 출입도 금한다. 이날 아침 고양주는 산신당에 칠 금줄을 마련하고 술을 빚을 쌀과 술단지, 누룩 등을 준비하여 산에 오른다. 산에 오른 고양주는 당우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화수를 떠서 밥을 짓는다. 그 옆에 햇별이 잘 드는 장소를 골라 구덩이를 판다. 구덩이를 판 후 불을 피워 나온 재를 묻고 술단지를 집어넣는다. 땅속에 재를 묻는 것은 언 땅을 녹여 따뜻하게 하면 술이 빨리 익기 때문이다. 술 단지를 묻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나뭇가지와 짚단을 올려놓는다. 이러한 준비를 다 끝내면 마지막으로 각각의 신성한 장소에 금줄을 친다.

오티별신제는 음력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이틀에 걸쳐 행해진다. 별신이 들지 않은 해는 산신제만 행한다. 첫째 날은 마을 뒷산에 있는 산신당에서 산신제가 이루어진다. 산신제는 엄숙형의 제의이기 때문에 낮에 조역들이 돼지를 끌고 가 산당 밑에서 잡는 것으로 시작하여 해질 무렵인 오후 5시경부터 고양주에 의해 산신당에 제물을 차리는 것으로 진행된다. 산신제가 유교적 진행방식에 의해 한밤중에 행해지는 엄숙한 제의인 반면, 서낭제는 강신적 진행방식에 의해 낮에 행해지는 개방형(잔치형) 제의라고 할 수 있다. 산신제는 산신당에서만 지내고 서낭제는 상당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서낭당을 돌며 행한다. 제물은 술과 떡, 밥, 고기, 삼색실과 등이다. 산신제는 대동제의 성격이 부각된 양상을 띠고 있다. 제주와 제관·축사·고양주·조역 등이 오티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출되고, 기복도 마을 전체의 안녕과 평화를 위함이다. 제의는 재배, 헌작, 독축, 소지, 청배의 유교적 제의 방식에 따라 진행된다.

제관은 마을신에게 바치는 공식적 기도로서 독축을 행한다. 독축이란 축문(祝文)을 읽는 것인데 제관이 독축을 하는 동안 모든 참례자는 경건한 마음으로 듣는다. 제관이 독축을 끝내면 다 함께 두 번 절한다. 축문이란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신께 기원하는 글로서 마을의 제액초복(除厄招福, 액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인다)과 풍년농사, 무탈한 마을행사 등을 위한 기도문이다. 유교식 축문의 송독으로 마을 전체의 염원을 빌었어도 한 번 더 소지(燒紙,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희고 얇은 종이를 불살라 공중으로 올리는 행위)를 올려서 마을과 각 가정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소지를 올리면서 비는 말은 다양하지만 어느 정도 교술성을 띠는 것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소지는 위에서부터 불을 붙여 불길이 점점 아래로 내려올 때 위로 날려 보낸다. 산신제가 끝나면 바로 하산하여 마을 어귀에 있는 매차골 서낭당에서 서낭제를 준비한다. 제물은 떡과 술인데 매년 새로운 것을 사용한다. 재배, 헌작, 독축, 소지가 주된 절차이며 축문은 따로 사용한다. 이러한 두 과정(산신제, 매차골 서낭제와 본당제)이 첫째 날에 행해지는 제의다.

오티별신제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제의(상당 대고사)는 둘째 날(정월 대보름)에 이루어진다. 마을 사람들은 오전 7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한다. 조식을 마친 8시경부터 마을 회관 앞에 농악대가 모여 마을 사람들에게 제를 지낼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준다. 앞서 상당에 올라간 고양주·제관·축관이 제사를 준비한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마을 농악대를 앞세우고 마을 사람들(남자만)과 함께 상당으로 출발하여 제를 지낸다. 상당제를 마치면 농기(農旗)를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며 차례로 다섯 군데 서낭을 돌며 제를 지낸다. 이때 반드시 신대(소나무)에 서낭신이 내려야 다음 당으로 모시게 된다.

제의는 먼저 다섯 개 서낭이 있는 장소 중 제일 높은 봉우리인 큰봉화재에서 시작된다. 이 서낭은 상당·큰재 서낭·상봉우재 서낭·봉화재 서낭이라고 불린다. 상당에서 제의가 끝나면 근처에 서 있는 느티나무 앞에서 수구막이제를 지낸다. 상당에서 서낭당에 제를 올리는 것과 달리 작은재 서낭당은 서낭당이 아닌 신목을 섬기고 있는 성소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제의과정이 끝나면 농기와 서낭대를 앞세우고 세 번째 제의 장소인 구실재로 향한다. 구실재 서낭당은 작은재 서낭당과 마찬가지로 오래된 ‘매차나무’이며 금줄을 둘러놓았다. 구실재의 모든 과정을 마치면 네 번째 장소인 흰티재·해너물재 서낭당으로 향한다. 과거에는 흰티재 서낭당과 해너물재 서낭

당을 따로 모셨으나 도로가 뚫리면서 서낭당이 없어진 이후로 함께 올린다. 흰티재·해너물재 서낭제가 끝나면 농기를 앞세우고 다섯 번째 장소인 본당으로 향한다. 이 의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의 장소는 본당이라고 불리는 마을 북편에 자리한 서낭당이다. 서낭당은 정확한 수령을 알 수 없으나 500년 되었다고 알려진 느티나무다. 이곳에 지금까지 모셔온 다섯 서낭신과 붉은당 서낭신, 느티나무 서낭신을 좌정시킨다. 이로써 제차 2일의 제의가 절정에 이르고 오티농악이 울린다. 뒷풀이에는 허재비놀이로 통해 희화성과 주술성을 드러냄으로써 마을 축제로의 순환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오티별신제는 신에게 축원하는 동제다. 세시풍속의 향토성을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제전이다. 그래서 제의성이 두드러지고 마을 사람들은 이 제의를 통해 한 해를 염원하는 시간과 공간에 빠진다. 신과 마을 사람들과의 축제적 제의를 통해 공동체적 대동성을 꾀하는 것이다. 마을축제의 제의성은 이런 점에서 마을의 구심력을 창출하고 마을 사람들의 정서를 표출하는 공동체의례다. 오티별신제의 축제적 성격은 마을 문화의 정통성을 지킨 미덕이고 마을신앙의 표출적 기능을 갖게 한 계기이며 세시의례의 주기성을 활성화한 장치이다. 오티별신제의 정체성은 오티리 사람들의 억센 지킴이 정신과 이를 올곧게 정성을 다해 표현하는 대동성, 예술성 그리고 신에 대한 약속을 몸소 교감하는 진정성·신앙성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충북지방 장승·솟대 신앙』 국립중앙박물관, 1994.
- 『오티별신제의 현지연구』 李昌植, 語文研究31, 어문연구학회, 1999.
- 『마을축제 오티별신제』 이창식, 집문당, 2001.
- 『충북의 민속문화』 이창식, 忠北學研究所,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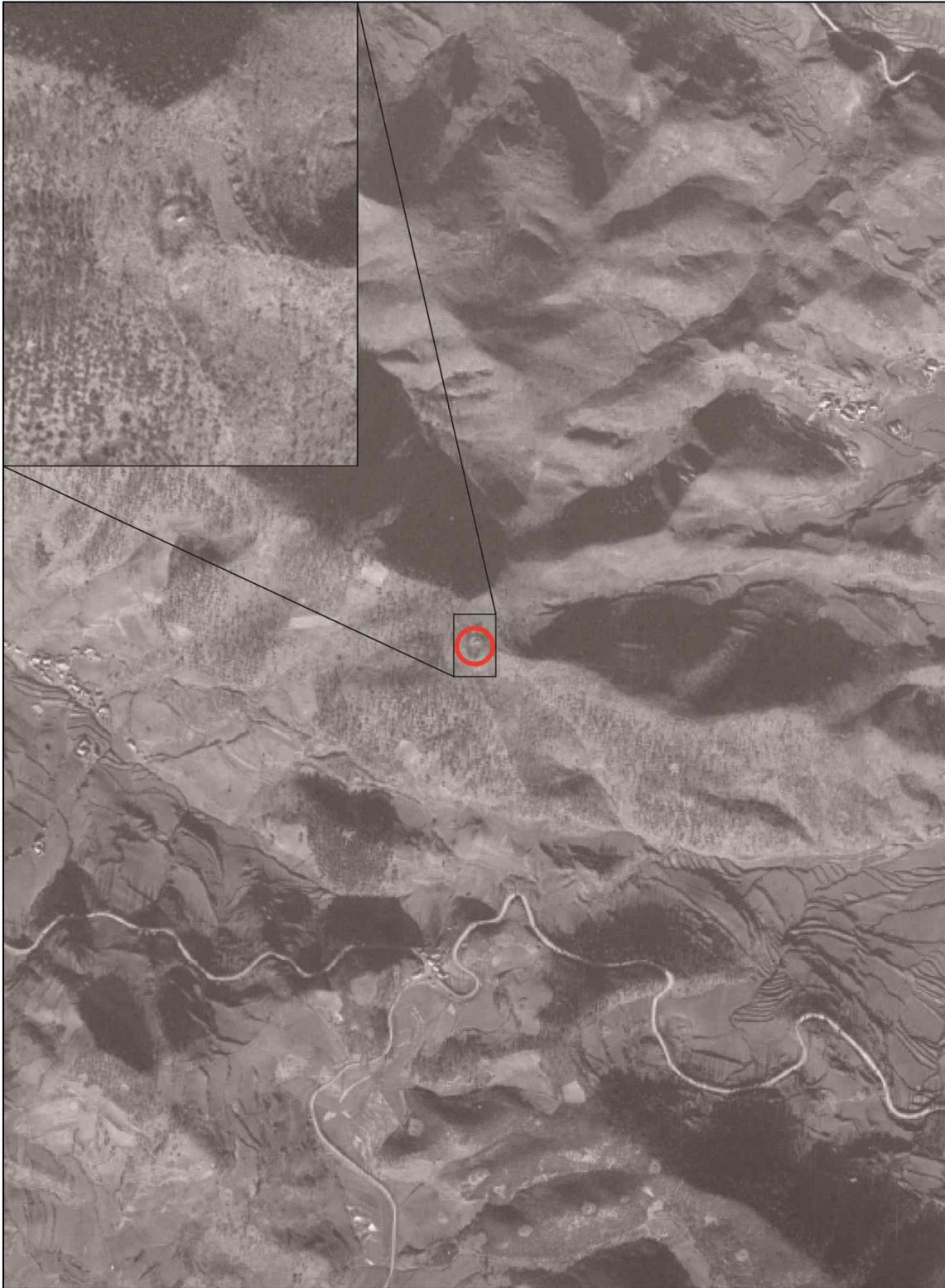


사진 3. 오현봉수대 일원 항공사진(1969년)

7. 유구현황과 특징

1) 항공사진

봉수대를 알아볼 수 있는 항공사진은 1969년 사진이다. 이를 관찰해 보면, 남쪽과 동쪽에서 봉수대로 향하는 길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목이 많지 않아, 방호벽의 형태가 당시까지도 잘 남아 있었다. 방호벽 내부에는 오티별신제 굿당과 서쪽 방호벽 주변에 연조지로 추정되는 시설이 확인된다. 봉수대는 남쪽으로 약간 음영의 차이가 나면서 비교적 평평한 대지가 펼쳐져 있어 단차가 나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봉수대 방호벽의 동쪽으로 넓은 대지 형태로 평평한 부분이 확인되는데, 봉전(烽田)으로도 추정되나 현지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2) 유구현황

2021년도의 지표조사를 통해 봉수대는 남북 장축의 능선상에 평면 타원형의 형태로 잔존한다. 북쪽에는 SK 텔레콤 월악ADP기지국이 인접하여 있다. 봉수대의 규모는 동서 22m, 남북 31m, 둘레 78m로 전체 면적은 약 393㎡이다. 방호벽을 비롯하여 추정연조지, 출입시설이 확인되며, 방호벽 바깥에서 환도와 추정건물지 등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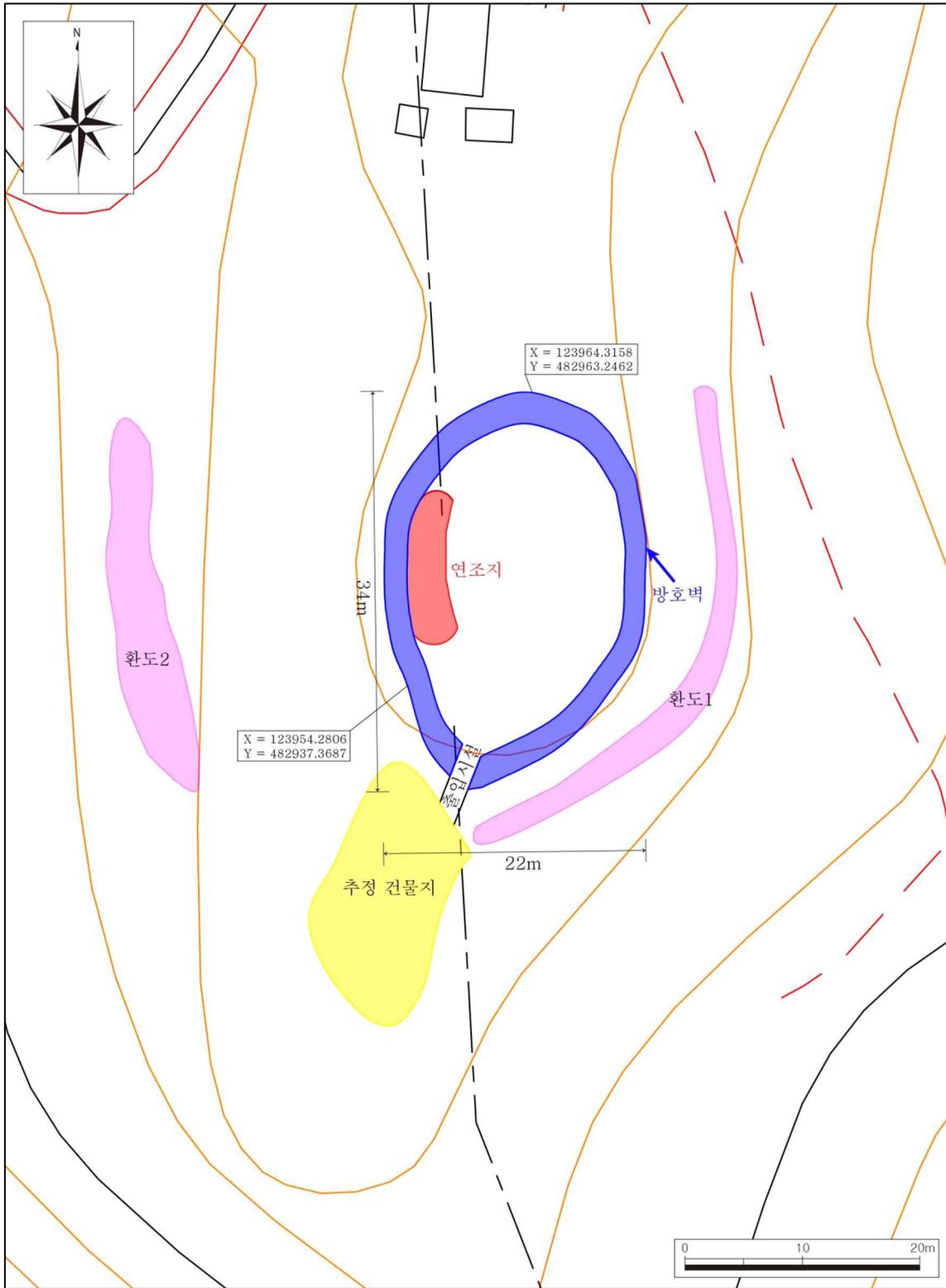
봉수대의 내부는 중앙이 가장 넓게 조성되어 있으며 서북쪽으로 오티별신제가 진행되는 제당이 있다. 연조는 서쪽 방호벽 내측에 붙어서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표상에서 연조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방호벽은 잔존 높이 1m 내외의 높이로 폭은 약 1.5m 내외로 확인된다. 대부분 낙엽과 부토로 덮여 있으며 방호벽의 석축은 허튼층쌓기로 축조하였다. 방호벽 상부는 대부분 훼손되었으며 상부에는 느티나무가 약 10주가량 성장하고 있다. 출입시설은 남쪽에 위치하며 개방형의 형태로 약 0.8m 폭으로 확인된다.

방호벽 바깥으로 동쪽과 서쪽에 환도가 확인되는데 서쪽 환도의 경우 약 10m 가량 이격되어 확인된다. 남쪽 출입시설에 연접하여 방호벽 바깥으로 평탄대지가 확인되는데 봉수군의 막사로 사용된 건물지가 잔존했을 가능성이 있다. 봉수대의 남동쪽 방호벽과 인접하여 제단(祭壇)과 북쪽 방호벽에서 남쪽으로 6m의 거리를 두고는 성황당이 있다.

수습유물은 대부분 기와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백자편이 수습된다. 대부분 봉수대 내부에서 수습되며 방호벽 상부에서도 일부가 수습된다.

○ 특징

- 격년으로 정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행하는 오티별신제 행사를 봉수대에서 거행.
- 봉수대 내에 충북 무형문화재 제8호 제천오티별신제 당집이 있음.



지도 4. 오현봉수대 현황도(S=1/500)



사진 4. 봉수대 내 전경



사진 5. 연조



사진 6. 방호벽1



사진 7. 방호벽2



사진 8. 출입시설



사진 9. 추정 건물지



사진 10. 내부 평탄지



사진 11. 내부 평탄지



사진 12. 봉수대 내 출토유물



사진 13. 내부 평탄지 출토유물

8. 지정가치와 근거기준

1) 역사적 가치가 뛰어남.

조선시대 제2거 직봉 중 서른여섯번째 내지봉수로 『세종실록』 지리지 이후 조선 전(全) 시기 발간의 지지(地誌) 기록을 통해 봉수 한자표기의 차이를 통한 다양한 명칭 확인과 전·후 대응봉수의 확인이 가능하다.

조선 후기 발간의 『해동지도』와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등의 고지도에 빠짐없이 표기된다.

2) 육로의 요충지

과거 죽령을 넘어온 사람들이 한양으로 가던 고개변 위치하고 봉수대와 인접하여 성황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봉수대와 성황당의 기능이 서로 겹치는 공간이다.

3) 후봉봉수는 2차에 걸친 노선 변동이 있었다.

전봉(前烽)은 조선 전(全) 기간 소이산봉수와 14.5km의 거리에서 대응된다.

후봉(後烽)은 조선 전 기간 두 차례의 노선변동(전기 오성봉수 16km, 중기 심향봉수 13.8km)을 통해 최종 오현봉수와의 대응거리를 단축하였다.

4) 학술조사의 실시

2000년 문화재 관련기관에 의한 지표조사 실시하였다.

-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堤川 城山城·臥龍山城·吾峙烽燧 地表調査報告書』, 2000.

5) 봉수대의 민속제의 공간 변용

오티 별신제가 다섯 개 서낭이 있는 장소 중 가장 높은 봉우리인 큰 봉화재에서 시작되어 특별한 민속적 제의 공간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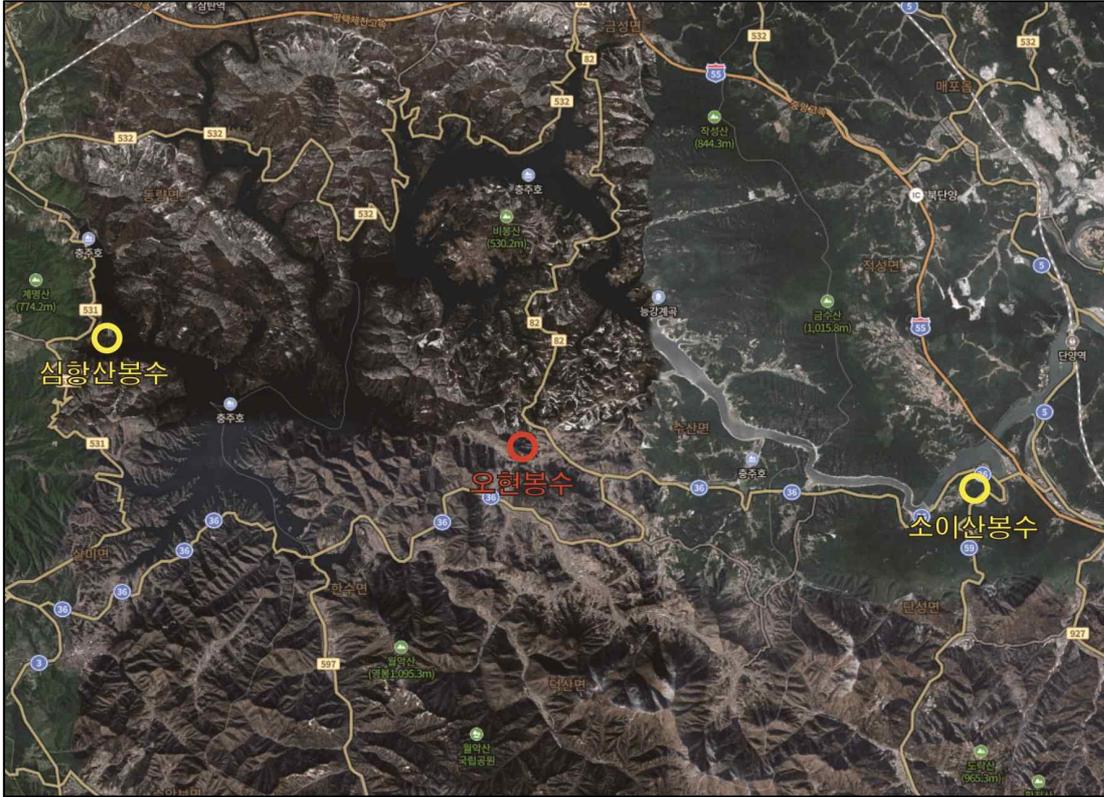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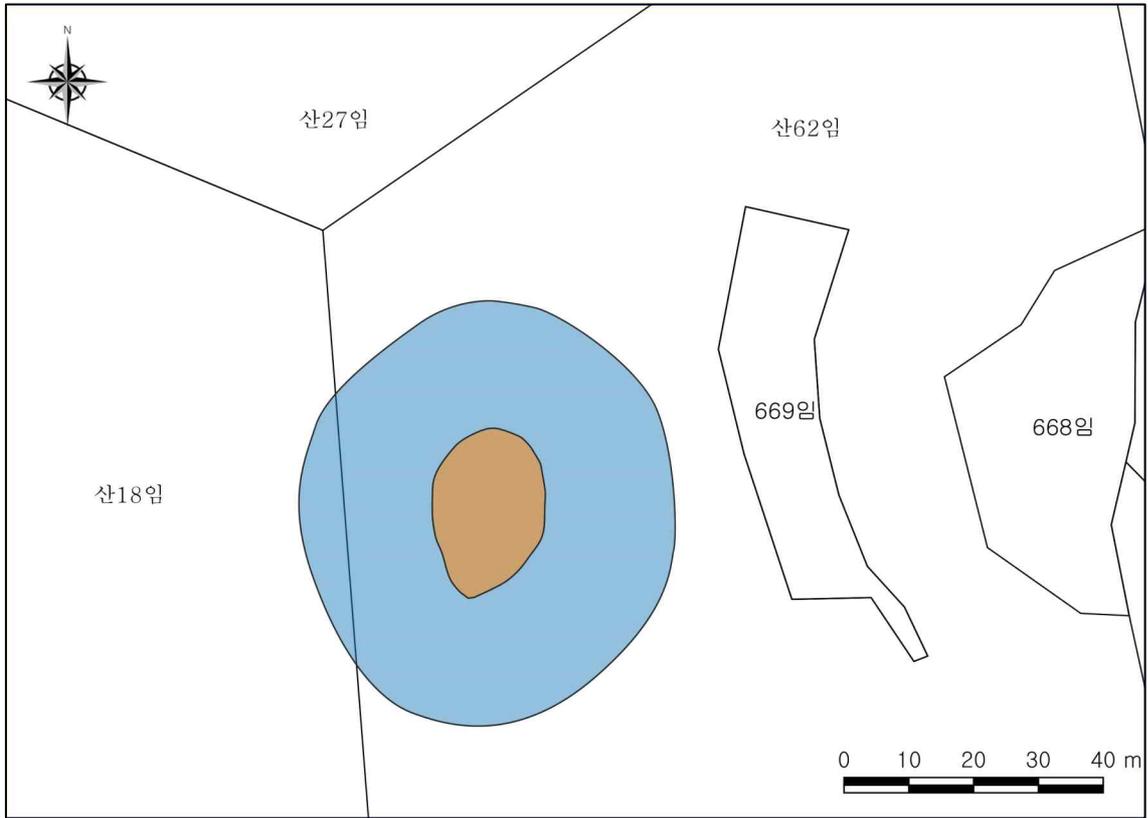


사진 14. 오현봉수와 대응봉수



사진 15. 청풍도호부와 오현봉수대



지도 5.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S=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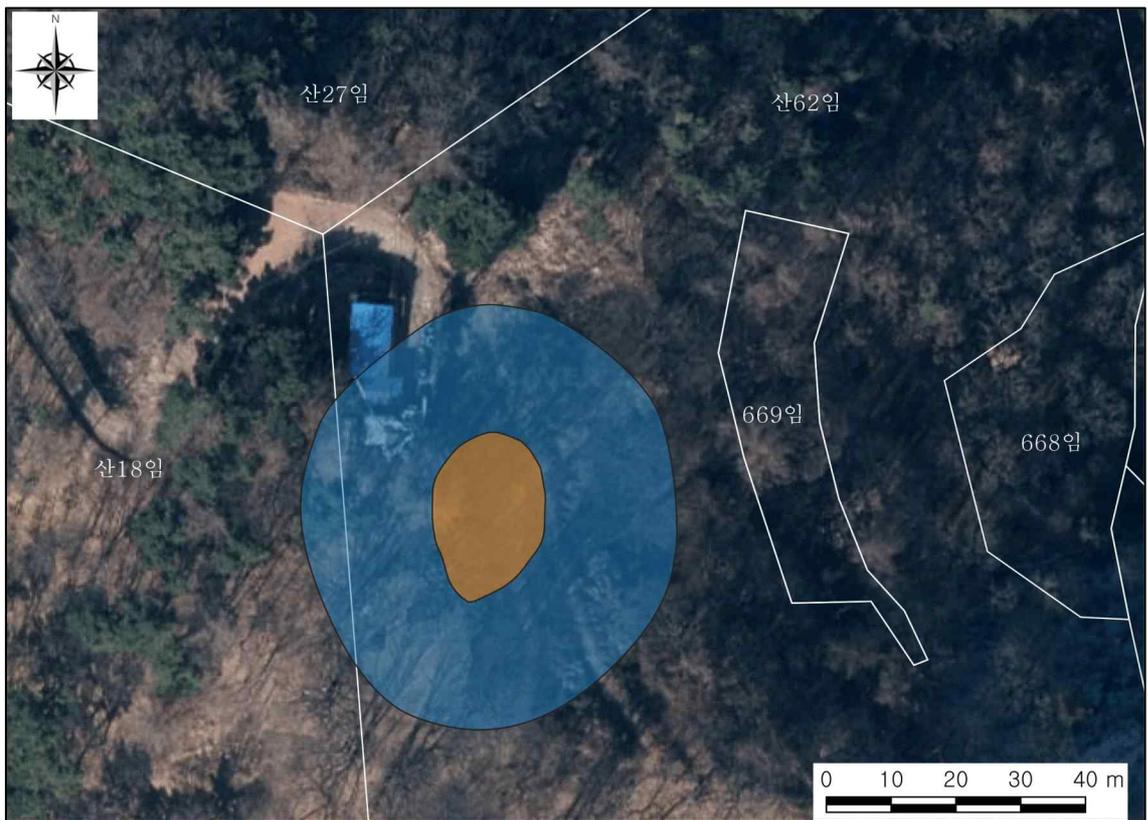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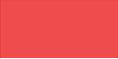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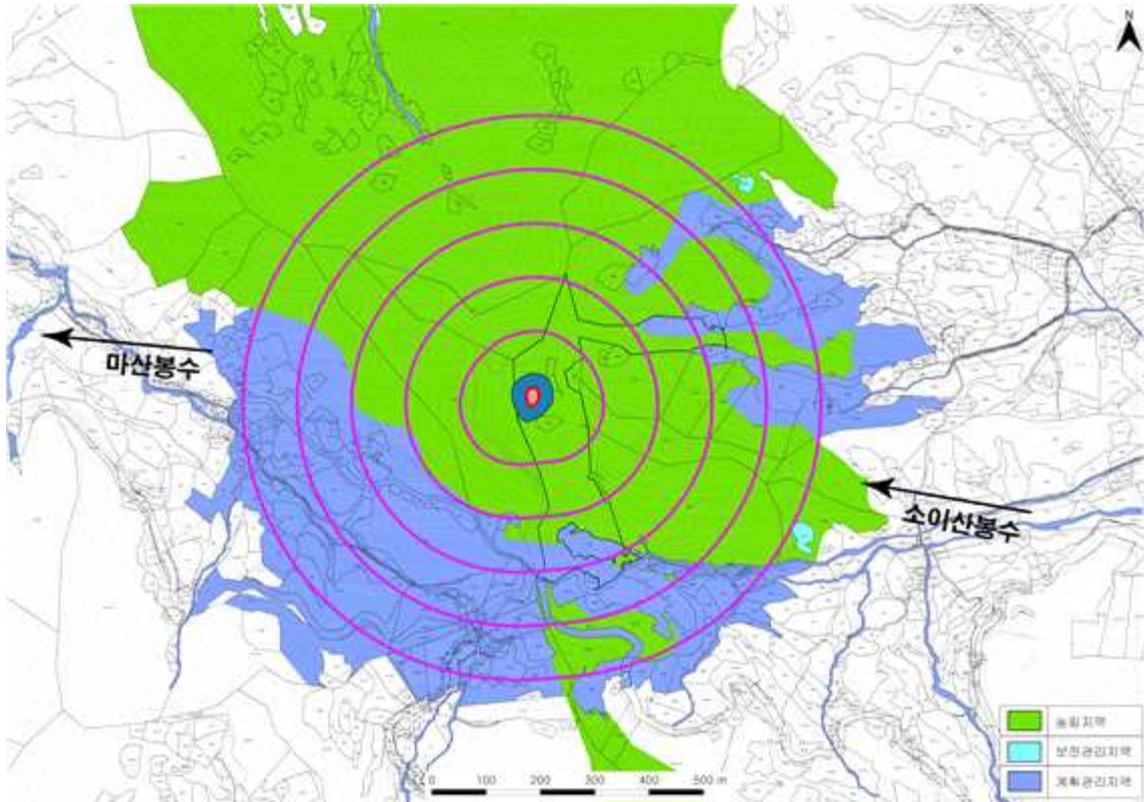
사진 16.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

10.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검토의견

- 오현봉수 전·후 대응노선 봉수의 방향을 고려한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

제천시	제천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p>■ 대상문화재 제2로 직봉 - 제천 오현봉수유적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산62번지 일원</p> <p>■ 문화재 및 보호구역  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보호구역</p> <p>■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간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p> <p>■구역별 허용기준</p>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사전협의 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1. 보존·정비와 활용 착안사항

1) 기본구상

(1) 기본방향

① 기본원칙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1.6.10.] [법률 제17409호, 2020.6.9. 일부개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문화재청, 2002)

- 문화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문화재 활용은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사업의 소재로서 개발·활용하며,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육성한다.

『유적(遺蹟 등) 정비계획 수립·추진관련 고려사항』(문화재청, 2003)

- 가치(원형) 보존 최우선: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복원·정비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비를 지양하고, 유적의 가치와 역사적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명확한 정비목표 수립: 유적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적 정비를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한다. 보존과 복원·정비되어야 할 것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 :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고, 유적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방향 설정

제천시의 오현봉수에 대한 정식 학술조사는 지표조사를 제외하고는 실시된 바 없어 지금까지 별다른 보존·정비와 관리계획은 없었다. 이에 합리적인 보존·정비와 관리안을 상기 기술한 기본원칙에 따라 타 시·군 소재 봉수대의 보존·정비와 관리사례를 검토하고 주변 현황과 여건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봉수대의 보존·정비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도모하고,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과 영천시의 역사문화 관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동선체계 등 기반시설의 확충안을 수립한다.

봉수는 조선시대 500여 년간 변경의 안위(安危) 여부를 전·후 대응봉수간 차차거화(次次擧火)를 통해 최종 중앙에 알리던 호국군사통신 유적으로서, 성격에 의한 구분상 내지봉수에 해당한다.

봉수는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평안을 상징하는 1거의 횃불[平安火·太平火]을 올림으로서 과거 청풍군과 인근 고을 백성들이 이를 바라보고 일상을 마무리하는 순기능도 있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제천시 소재 봉수대의 보존·정비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봉수대의 잔존 방호벽과 연대 등의 역사적 실체를 보존·정비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시킨다.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활용되었던 봉수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정보통신 발달의 상징적 유적으로 보존·관리한다.

경상도와 충청도·경기도를 거쳐 최종 서울 목멱산봉수로 이어지는 내지봉수 체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원한다.

(2) 기본전제

① 잔존 봉수 유구의 보존과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

봉수대의 핵심요소인 거화시설(연대)과 방호시설(방호벽) 및 생활시설(주거지)을 대상으로 보존·정비하여 오현봉수의 문화재적 가치가 표출되도록 한다.

② 역사문화자산 가치 증진 및 화제성 창출

과거 봉수체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던 당시에 봉수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봉수군과 봉수운영 관련 된 기록과 내용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유적과 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화제성이 창출되도록 정비한다.

③ 대응봉수와의 조망을 위한 가시성 확보

입지조건상 동남쪽으로 청풍현의 옛 치소가 잘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한 봉수는 인근 대응봉수와의 후망을 통해 청풍지역과 고을 백성들에게 변경의 안위여부를 알리던 군사통신 유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적 장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계획한다.

조선 후기에 최종 설정된 대응봉수인 소이산봉수와 심향산봉수와의 가시성 확보 외 봉수 주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식생이 양호한 기존의 자연경관 유지 방안을 제시한다.

④ 주연야화(晝煙夜火) 통신의 특징을 살린 ‘체험과 교육의 장’ 조성

횃불과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 소식을 전하였던 봉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적의 복원보다는 체험과 실연(實演)을 통한 거화의 과학적 원리를 교육한다.

기존의 진입로를 활용하여 최적의 보행환경과 교육적 기능을 갖춘 탐방로 조성을 통해 오현봉수의 500여년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⑤ 주변 문화자원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

오현봉수와 인근 유적을 통합적으로 연계·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특히 봉수대 내에 위치한 오티별신제 제당과 함께 봉수유적에 대한 설화 등을 발굴하여 오현봉수와 함께 스토리텔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실현가능한 세부추진사업 도출과 단계별 사업시행

제천시의 재정여건이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토지 매입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필요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3) 종합구상

① 추진사업 계획

가. 식생정비(소목 간벌), 봉수 내부 잔디 식재, 봉수군 주거지 정비 등을 실시하여 오현봉수대의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문화자원 연계 개발사업

- 탐방로(봉수군 길) 정비, 스토리텔링 개발, 체험 프로그램 및 축제 개발, 봉수 C.I 개발, 동선표지판·전망시설 및 망원경 설치 등을 설치하여 오현봉수대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대응봉수 등 관방체계 알림 사업

- 대응봉수와 소속 군현 등의 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라. 기반시설 구축사업

② 토지이용계획

봉수대 일원은 제천시 소유의 임야로서,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산62번지 일원에 소재하며 면적은 393㎡이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토지대장, 2021.9.)

현재 오현봉수대를 찾는 탐방객은 소수에 불과하여 고수골길 주변에 주차하는 실정이다.

향후 제2거 직봉 노선 봉수의 사적지정이 확정되고 보존·정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 시 탐방객에게 보다 쾌적한 역사경관과 편리한 탐방환경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

③ 동선계획

본 계획에서는 봉수구역과 진입광장 및 주차구역으로 나누고 각 공간별로 기능을 배분하였다. 특히, 진입광장 및 주차구역에는 방문객이나 차량의 접근 동선과 관련된 공간 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험교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봉수대의 탐방동선은 기존에 조성된 산책로가 있을시 그대로 이용하되, 전통적인 분위기 연출과 유지관리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야자매트나 경화흙포장으로 한다. 오현봉수의 경우 북쪽의 SK기지국 방향으로 포장도로가 나 있는 상태로 이를 활용하며, 장기적으로 기지국을 이전하고 기지국 부지를 주차장이나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2) 보존과 정비활용계획

(1)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확대지정

① 향후, 제2거 직봉 노선의 봉수를 사적(史蹟)으로 승격 시 문화재지정구역의 확대 및 대응봉수간의 조망과

가시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오현봉수를 중심으로 남동쪽의 소이산봉수, 서북쪽의 심항산봉수를 잇는 조망과 이를 잇는 가시권 확보가 필요하다.

② 봉수대 주위의 수목을 선별적으로 간벌하여 대응봉수간 조망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③ 봉수대 주변 식생이 양호한 임야는 가급적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④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지정은 인접봉수간의 조망 확보를 위해 구 방향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각 범위별로 구역을 설정하여 역사문화 환경과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새로이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해당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재산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소유주와 지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⑤ 진입로에서 봉수대의 원경을 볼 수 있도록 간벌 등을 통해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봉수군들이 이용했던 소로(진입로)는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이 길을 통한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⑥ 오현봉수대 북쪽에 SK텔레콤 월악ADP기지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가 오현봉수를 문화재로 지정할 경우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장기적으로 볼 때, 향후 기지국의 이전에 대해 관련 부처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보존계획

① 봉수유적 보존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현장 조사결과 봉수대는 거화시설인 연조와 방호시설인 방호벽이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후 13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봉수대 내부는 오티별신제 제당을 관리하면서 일부 수풀이 있으나 내부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하지만 방호벽을 비롯하여 봉수대 외부는 무성한 수풀잡목으로 그 형태를 뚜렷하게 확인하기 곤란하다.
- 따라서, 과거 봉수의 운영당시 원형구조를 밝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수를 구성하였던 제반 요소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비와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에 대한 최근의 현황조사를 통해 전체 구조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운영당시의 모습대로 단계적으로 정비·복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조선시대 내지봉수대의 형태와 기능을 학습·체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공간으로 조성한다.

다. 추진방법 및 절차

- 먼저 방호시설인 방호벽과 연조에 대한 원형구조를 확인하고, 추정 건물지 등을 시·발굴조사 등을 통해 잔존양상과 현황을 파악한다.
- 봉수대 내부와 주위 수풀잡목을 간벌하고 방호벽 내부에는 잔디를 식재하여 보존한다.

② 수목 간벌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 내·외는 현재 무성한 수풀잡목으로 대응봉수와의 조망이 곤란하거나 유구 훼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적절한 간벌을 통하여 유적 보존 및 가시권(可視圈)을 확보한다.

나. 사업내용

- 현재 봉수대 주위와 내부는 큰 잡목이 없고 일부 잡풀만 있으나, 방호벽 및 외부에 무성한 수풀잡목으로 인해 대응봉수의 조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목을 선별적으로 벌목하여 대응봉수인 심항산봉수와 소이산봉수에 대한 조망을 개선한다.

다. 추진방법

- 벌목작업은 봉수유구의 보존, 주변경관 조망, 봉수의 제반요소 감상 등에 장애를 주는 수목부터 선별하여 실시한다.
- 봉수대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경관이 확보되도록 수목을 제거한다.
- 봉수대 아래 수산면 오티리 봉화재삼거리에서 봉수대로 향하는 수목을 정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동선을 유도한다.

(3) 정비·활용계획

① 전망시설과 휴식공간 설치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의 정체성과 주요 기능은 대응봉수와의 시각적 연결에 있다. 현재, 봉수대는 내·외부의 수목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제한적이고, 전체 봉수유구를 살펴볼 수 없다. 조선시대 봉수는 대응봉수와의 조망과 주변 관찰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였으므로 이러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 주변 적당한 곳에 봉수의 전체 구조와 대응봉수, 주변 자연환경, 시내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조선시대 봉수의 입지선정 원리를 체감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과 절차

- 전망시설은 봉수대 주변 시야가 가장 좋은 지점에 설치하되, 목재 등의 친환경소재를 사용하여 봉수의 역사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안내판에 대응봉수를 촬영한 사진을 표시하여 눈앞에 펼쳐진 전경과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망시설에는 망원경 등을 설치한다.
- 전망시설 하부나 주위에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방문객에게 휴식과 사색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② 봉수군 탐방로 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 아래 수산면 오티리 봉화재삼거리에서 봉수로 이어지는 ‘봉수군 탐방로’를 조성하여 문화콘텐츠로 활용한다.

나. 사업내용

- 탐방로를 개설하고, 봉수 관련 이야기와 비품 등을 소개함으로써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과거 봉수의 기능과 운영 및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는 살아 있는 노변(路邊) 전시관 기능을 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

- 기존의 길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요 지점에는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고 벤치 등의 휴식시설을 도입한다.
- 안내판의 내용은 경북권 내 경산(現 대구 수성구) 성산봉수(城山烽燧)의 비치물목을 토대로 봉수운용에 필요한 비치물목상의 거화재료나 생활비품 등을 선별하여 사진 자료와 함께 해설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烟臺1 烟窟1 望德1 火德1 積草5訥 烏外石5訥 無稜石5訥 吐木5訥 烟炬3柄 松炬50柄 草炬50柄 柎炬50柄 艾5同
 牛糞5同 馬糞5石 炭5石 細沙5石 糲糠5石 防牌5坐 排火木5介 法手木5介 水桶5箇 菱鐵20箇 古乙羅木25箇 木斧
 子20柄 滅火器5坐 麻注乙里20沙里 前梯1 水樽5坐 縣瓢子5介 火箭9柄 唐火箭9柄 長箭1浮 片箭1浮 黑角弓1張
 桶兒1介 大白旗1面 鉛丸30箇 火藥5兩 烏銃1柄 環刀1柄 長槍1柄 火繩6沙里 細繩3沙里 條乙所3沙里 火鐵石2介
 水瓮5坐 釜1坐 食鼎1坐 爐口1坐 匙5持 沙鉢5立 空石10立 接匙5竹 瓦家5間 種火盆1坐 草席2立 抹木18箇 火桶5
 介 燒木5同 戰角1雙 待賓米1石 鎌子4柄 盤5立 三穴銃1坐 火綿1 掩頭1部 掩心1部 五色布旗5面 鼓1坐 錚1坐
 火鐵10介 生松1訥 櫛1坐

(『嶺南邑誌』第7冊, 『慶山縣邑誌』(1871) 烽臺)

(4) 봉수 거화(擧火) 실연(實演) 행사

① 추진배경과 목표

봉수는 연기[주간]와 불[야간]로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시설인 만큼 실제 거화(擧火)나 거연(擧煙) 같은 실연 행사의 실시를 통해 선조들의 봉수운영 원리를 체득하게 한다.

② 사업내용

연기와 불이라는 시각신호로 변경의 안위여부를 전달하였던 봉수의 연조 형태와 구조, 거화재료의 종류와 배합 등을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이 실증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크기의 연조를 제작한 후 실연행사를 연 중 개최한다.

③ 추진방법과 절차

먼저 실연행사를 할 수 있는 연조(煙籠)를 제작하되 설치장소는 행사 시 화재발생이나 유구 훼손에 대비하여 유적과 일정거리 떨어진 곳으로 한다. 연조의 크기와 구조 등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다.

거화재료[燄]는 경산 성산봉수 비치물목을 참고하여 준비하고 전통방식에 따라 제작한 후 사용한다. 행사의 진행은 지역 문화단체가 담당하고 연중 개최시기는 ‘신년, 정월대보름, 8·15광복절, 제천군민의 날’ 중 의미있는 날을 정하여 개최하도록 한다. 또한 오티별신제와 연계하여 별신제 개최 당일 함께 시연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5) 관리운영계획

① 관리운영 주체

제천시(문화재 관리 기관에 위탁관리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 목표

- 가. 오현봉수대의 보존과 유지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
- 나. 탐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도모
- 다. 오현봉수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의 극대화
- 라. 유적의 학술적 가치 극대화와 신규 문헌 발굴 등

③ 관리운영사항

가. 봉수대 유적

- 오현봉수대 일원
- 오현봉수대 주변 탐방로 등

나. 자연환경

- 오현봉수대 주변 수목 및 지형
- 주변 생태환경, 녹지 등

다. 시설물

- 탐방로, 전망시설 등
- 안내판, 방향지시판, 휴게시설 등
-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라. 탐방객을 위한 서비스

- 홍보, 해설, 전시, 축제행사 등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④ 사업 추진절차

가. 문화재지정구역 및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는 먼저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발굴(시굴)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한 후 도출된 발굴결과에 따라 정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입 → 발굴 → 정비의 순이다. 오현봉수는 정식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비단계에 따르되 대상지가 안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복원보다는 정비의 단계를 결정한다.

나. 매입 단계는 정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국·공유지화 하는 단계로서 대상지의 지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 파악과 매입에 예상되는 비용 및 매입의 원활성을 판단하여 정비의 선후를 결정한다. 오현봉수대의 정비사업은 봉수대는 제천시 소유로 별도의 매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주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오현봉수대의 경우 SK텔레콤 월악ADP기지국이 바로 인접하여 추후 정비·복원 단계에서 기지국 이전 등의 협의 후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⑤ 순차별 사업계획

가. 봉수대의 보존·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체 사업비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초기 2년의 정비를 단기정비로 설정하고 이후의 계획 중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기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단기사업은 정비사업의 기간 및 지자체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나. 보존·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추진 절차, 시급성, 사업비,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다. 봉수대 보존과 주변정비사업은 방호벽과 연대 정비, 식생정비[간벌 등], 전시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정비사업의 원칙은 유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선정한다.

라.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편리하고 쾌적한 출입 및 동선체계 구축을 위한 주차창 마련 및 진입광장 조성 사업을 단기에 시행하고 관광 역량 제고를 위한 간이안내소 설치나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은 중기에 진행한다.

마. 이들 추진사업은 제천시청의 정책 순위 변경과 주민들의 요구도, 제반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2. 종합의견

- 1) 제천 오현봉수는 조선시대 전체 5거노선의 봉수 체계에서, 부산에서 초기하는 제2거 직봉의 서른여섯째 내지봉수로서, 문화재청의 2014년과 2021년도 최근의 간략한 현장조사를 통해, 방호벽과 연조지, 출입시설, 환도, 추정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 2) 봉수성격에 의한 구분상 내지봉수로 조선 전기 『세종실록』 지리지(1454)부터 최종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조선 전 시기 발간의 지지에 기록이 있다.
조선 전 시기를 통해 단양 소이산(所伊山)에서 오는 동쪽 노선은 변동이 없는 대신 신호를 보내던 대응봉수는 전기에 오성봉화(梧城烽火)에서 이후 서쪽으로 충주 심항봉수(心項烽燧)에 줄곧 응했다. 명칭상 지지별로 오현(吾峴), 오치(吾峙), 의현(衣峴), 의치(衣峙) 등으로 표기되었으나 최종 명칭은 오현(吾峴)이며, 현대에는 달리 오티봉수로도 지칭된다.
- 3) 『여지도서』(1760)에 충청도 청풍현 소재 2기 봉수 중 1기로서 현의 북쪽 40리에 소재한다. 동으로 본현(本縣) 마골봉(麻骨烽)에 응하며 북으로 충원현(忠原縣) 대림성봉(大林城烽)에 응한다고 하였다. 봉수군 인원은 군병조에 봉수별장(烽燧別將) 2인, 감관(監官) 10인, 봉군(烽軍) 50명, 보(保) 150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 현에는 2기의 봉수가 있었기에 총 책임자인 봉수별장 1인의 감독하에 감관 5인이 봉군 25명을 1인당 5명씩 조를 짜서 교대로 번(番)을 썼다. 이외에 봉군에게는 1인당 3명씩의 보가 있어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과거 봉수가 운용되던 당시 봉수군은 인근 오티마을 주민들이 교대로 번(番)을 짜서 운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 4) 봉수대에서는 2년마다 정월 14일과 15일에 마을의 안녕과 번영, 풍년농사를 기원하기 위해 마을 제례인 오티별신제(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가 열린다. 이것은 봉수대가 지나는 관방의 기능과 성황당이 지닌 마을 수호정신 등이 어우러진 민속제의이다.
- 5) 오현봉수대의 평면 형태는 원형으로 면적은 393㎡ 정도이다. 방호벽, 연조, 출입시설 외 추정 건물지가 금번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1454)에서부터 구한말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1908)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지에 빠지지 않고 등재되어 있고 제2거 직봉 노선의 주요 봉수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탁월하다.
- 6) 봉수는 단일 유적보다는 통신체계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 노선별 주요봉수, 잔존상태, 역사성, 지정번호 부여방식 결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적지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문화재 종류

1) 사적

비지정문화재로서 부산 다대포 응봉봉수(鷹峰烽燧)에서 초기(初起)하는 제2거 직봉노선의 서른여덟번째 내지봉수이다.

거제 가라산봉수(加羅山烽燧)에서 초기하는 제2거 간봉(2)노선의 서른번째 종착 봉수이다.

제2거 직봉과 간봉(2) 노선의 결절점에 위치하는 ‘충주 마산봉수유적(忠州 馬山烽燧遺跡)’을 같은 노선의 봉수와 연계하여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2. 문화재 명칭

1) 문화재명 : 제2로 직봉 - 충주 마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忠州 馬山烽燧遺跡)

- 봉수유적은 연속유산으로서 노선 단위 지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정명칭은 “본 명칭 - 부 명칭”의 형식으로 부여토록 한다. 여기서 본 명칭은 대표성이 높으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2로 직봉(第2路 直烽)”으로 한다.
- 부 명칭은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라 봉수명칭 앞에 현 행정구역 소재지인 ‘충주(忠州)’를 표기한다.
- 봉수명칭은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이후 조선 최후기봉수망을 알 수 있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의 명칭과 한자표기를 따라 ‘마산봉수유적(馬山烽燧遺跡)’으로 표기한다.
- 따라서, 최종 봉수명칭은 ‘제2로 직봉 - 충주 마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忠州 馬山烽燧遺跡)’(이하 ‘마산봉수’라 한다)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명칭유래

봉수는 시기별로 발간된 지지에 따라 어두(語頭)의 명칭이 마산(馬山)으로 시종 같은 명칭으로 지칭됨.

어미(語尾)의 명칭은 ‘봉화(烽火) → 봉수(烽燧) → 봉대(烽臺) → 봉수(烽燧)’ 등으로 세 차례의 변화가 확인됨.

- 馬山烽火 : 『세종실록』 지리지
- 馬山烽燧 :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대동지』, 『호서읍지』, 『증보문헌비고』
- 馬山烽臺 : 『호서읍지』, 『충주읍지』 읍사례 사산봉대

봉수의 명칭은 조선 전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다. 죽령을 넘어온 봉수 신호가 직봉심향산과 계림

령을 넘는 간봉 6노선의 대림산 신호를 합쳐 음성 가섭산으로 전달하던 곳이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 동래로 통하는 영남대로에 속해, 관리들에게 숙식과 역마를 제공하는 대소원과 대소원역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지명으로 사용되는 곳이다. 대소원역이 있었던 부근에는 자연스레 사람들이 밀집 거주했고 상거래도 활발했다. 광복 직후 경부선 대소원역이 주덕역으로 개칭될 때까지 그 영향은 지속되었다.

지금도 영평리는 대소원역에서 부리던 말을 묻었기에 ‘말무덤 마을’이라 한다. ‘봉화독’이라고 부르는 마산 봉수는 150m 정도의 낮은 산에 있다. 대체로 봉수 신호는 땅과 하늘이 맞닿는 공제선을 이용해 신호전달의 가시성을 높이는데, 마산봉수는 대응봉수에서 보았을 때 공제선이 형성되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봉군들이 오르내리기 좋고, 심항산과 가섭산이 높아 신호대응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봉화독 아래는 말을 방목하기에 적합한 넓은 밭이 있다. 역에 제공할 말을 기르고, 말에게 휴식을 주기에 아주 좋은 곳이어서, 봉화독이 자연스레 마산(馬山)이 되었을 것이다.

3. 충주지역의 봉수현황과 성격

충주 지역에는 최초 설봉(設烽)과 폐봉(廢烽)시기가 다른 총 6기의 봉수(오성·심항·마산·마골치·주정산·대림성)가 소재하고 있다. 봉수의 성격에 의한 구분상 모두 육지내륙 소재의 내지봉수(內地烽燧)다.

이 중 ‘오성(계명산)봉수’는 조선 중기에 노선의 조정으로 인해 폐봉됨에 따라 『증보문헌비고』(1908)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가 최종 폐지될 때까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었던 봉수는 오성(계명산)봉수를 제외한 나머지 5기다.

4. 마산봉수의 입지와 연혁

1) 입지

봉수대는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64-1번지 일원의 해발높이 150.2m인 봉화산(烽火山) 정상에 위치한다. 이곳은 3번 국도의 바로 남쪽부이다. 서남쪽의 국사봉(166m), 서북쪽의 낮은 봉우리와 함께 요도천 남쪽에 있는 산봉우리로서는 가장 북쪽으로 내밀어 뺀 곳이다. 서쪽 정면에 음성 가섭산이 보인다.

봉수대가 있는 곳은 통신로로서의 요충지로 동쪽 정면에 단양 죽령을 넘어온 봉수가 대응하였던 충주 동쪽의 마지막재를 바라본다. 동남쪽으로는 대림성봉수가 보이는데, 이 길은 계립령을 넘는 봉수노선으로써, 죽령로와 계립령로의 두 길이 마산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었다.

거제 가라산(加羅山)에서 초기하는 제2거 간봉(2)의 봉수가 이곳에서 모여 직봉으로 연결되었다.

충주 IC에서 주덕 방향으로 가다 대소원사거리에서 U턴하여 조금 가면 정면에 보이는 산이 봉화산이다. 대소원초등학교 맞은편 3번 국도와 인접한 곳에 산에 오르는 등산로를 따라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는 도로확장 및 신설공사로 인해 마산봉수대로 진입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접근로가 차단된 상태이나 추후 도로공사가 완료된 이후 보다 쉽게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1. 마산봉수대 전경



사진 2. 마산봉수대에서 바라본 가섭산봉수

2) 연혁

봉수의 최초 지지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부터이며, 최종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조선 전(全) 시기 발간의 지지에 문헌기록이 있다. 각 지지별 발간연도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世宗實錄』地理志(1454) 卷149, 忠淸道 忠州牧
烽火四處 馬山 西淮陰城伽葉山
봉화 네 곳이다. 마산은 서쪽으로 음성 가섭산을 겨눈다.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卷14, 忠淸道 忠州牧 烽燧
馬山烽燧 東應大林山及心項山 西應陰城縣迦葉山
마산봉수는 동으로 대림산과 심항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음성현 가섭산에 응한다.
- 『東國輿地志』(1656) 卷3, 忠淸道 忠州牧 烽燧
馬山烽燧 東應大林山及心項山 西應陰城縣迦葉山
마산봉수는 동으로 대림산과 심항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음성현 가섭산에 응한다.
- 『輿地圖書』(1760) 忠淸道 忠原縣 烽燧
馬山烽燧 在縣西二十五里 東應大林山及心項山 西應陰城迦葉山 別將一人 監官五人 軍人一百名
마산봉수는 현의 서쪽 25리에 있다. 동으로 대림산과 심항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음성 가섭산에 응한다. 별장 1인, 감관 5인, 군인 100명이다.
- 『大東地志』(1864) 卷6, 忠淸道 21邑 忠州 烽燧
馬山 西三十里
마산은 서쪽 30리다.
- 『湖西邑誌』 第3冊 「忠州邑誌」(1871) 烽燧
馬山烽燧 在州西二十五里 東應大林山及心項山 西應陰城迦葉山 別將一人 監官五人 軍人一百名
마산봉수는 주의 서쪽 25리에 있다. 동으로 대림산과 심항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음성 가섭산에 응한다. 별장 1인, 감관 5인, 군인 100명이다.
- 『湖西邑誌』 第3冊 「忠州邑誌」(1871) 邑事例 四山烽臺
馬山烽臺 本邑心項大林城合來應 陰城迦葉山去應三十里 烽臺文牒舉行禮吏掌
마산봉대는 본읍의 심항과 대림산이 내응하여 합해지고, 30리의 음성 가섭산으로 거응한다. 봉대문첩은 예리가 맡아서 거행한다.
- 『忠州郡邑誌』(1899) 烽燧
馬山烽燧 在州西二十五里 今廢
마산봉수는 주의 서쪽 25리에 있는데 지금은 폐했다.
- 『增補文獻備考』(1908) 卷124, 兵考16 烽燧2
初起 鷹峰(多大浦鎮) -- (中略) -- 心項 馬山 加葉山 -- (中略) -- 第2炬準 天臨山

초기 응봉(다대포진) -- (중략) -- 심항 마산 가섭산 -- (중략) -- 제2거준 천림산
間烽(2) 初起 加羅山(巨濟) -- (中略) -- 大林城 忠州馬山 加葉山 -- (中略) -- 第2炬準 天臨山
간봉(2) 초기 가라산(거제) -- (중략) -- 대림성 충주마산 가섭산 -- (중략) -- 제2거준 천림산

위 지지의 내용을 시기별로 검토하면 전기 발간의 『세종실록』 지리지에 충청도 충주목 소재 봉화4처 중 1처인 마산봉화(馬山烽火) 명칭으로 서쪽으로 음성 가섭산봉화(伽葉山烽火)에 응한다고 하였다.

중기 발간의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는 노선이 한층 다양화되어 동쪽으로 대림산봉수[제2거 간봉(2)]와 심항산봉수(제2거 직봉), 서쪽으로 음성현 가섭산봉수(제2거 직봉)에 응한다고 하였다. 이때 동쪽과 서쪽으로 응하도록 설정된 대응봉수 노선은 최종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시 까지 시종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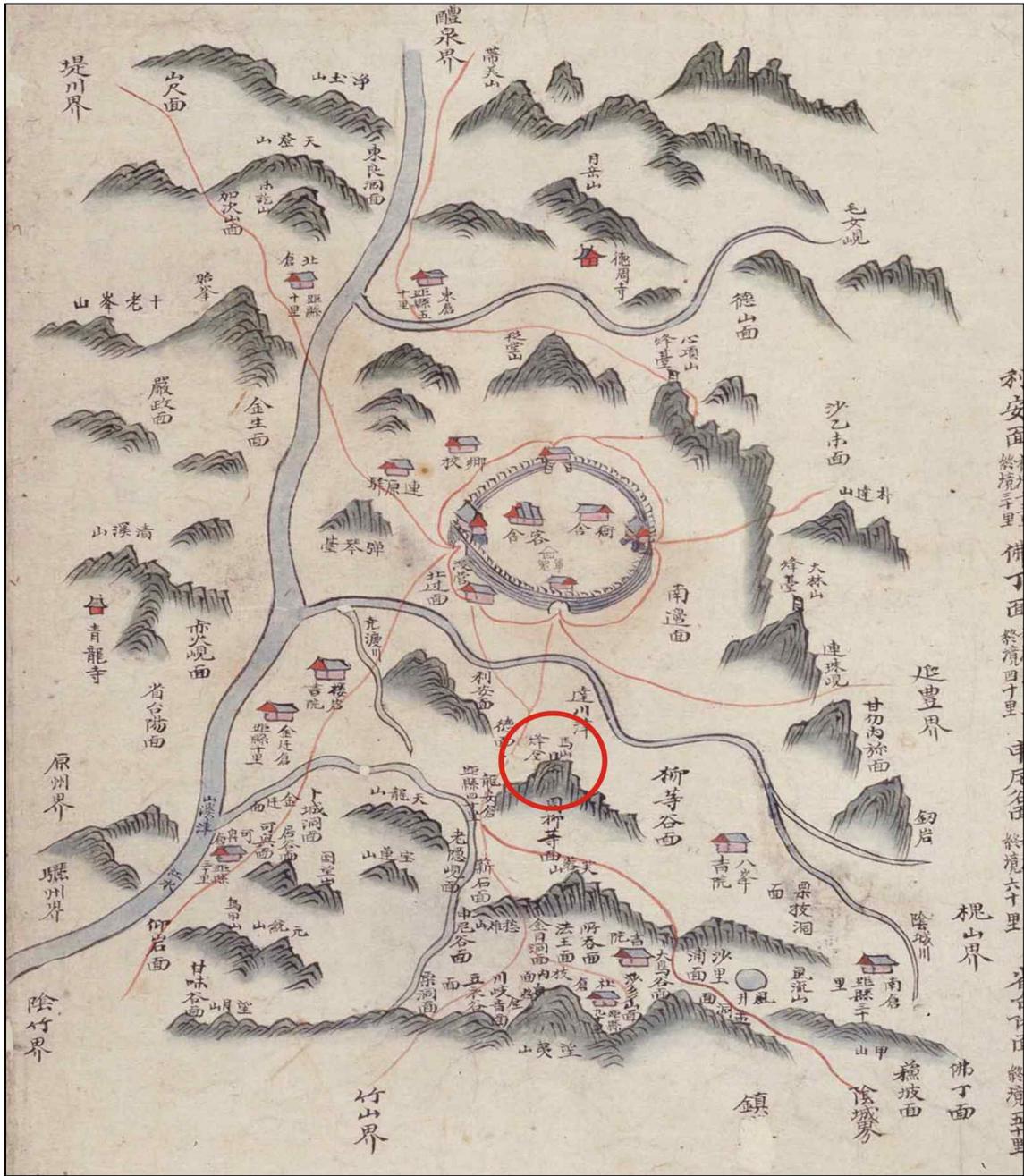
3) 고지도

『해동지도』의 충주목에 마산봉수가 있다. 충주읍치 남쪽 아래에 위치한 마산(馬山)의 정상부에 마산봉대(馬山烽臺)로 기록되어 있으며 정상부에 대의 형태가 그려져 있으나 타지역에서 보이는 불꽃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 『팔도군현지도』에는 충주읍치의 남서쪽에 마산봉(馬山烽)이라고 불꽃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마산봉수의 동쪽에 대응하는 심항산봉수가 표시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충주를 중심으로 남서쪽에 마산봉수가 있으며, 동쪽과 동남쪽에 각각 심항산봉수와 대림산봉수가 위치하고 있다. 『지승』 역시 3개소의 봉수가 표시되어 있으나 심항산 봉수의 경우 동북쪽 방향에 걸쳐 위치하는 것으로 모두 봉대라고 표시되어 있다. 『광여도』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봉수가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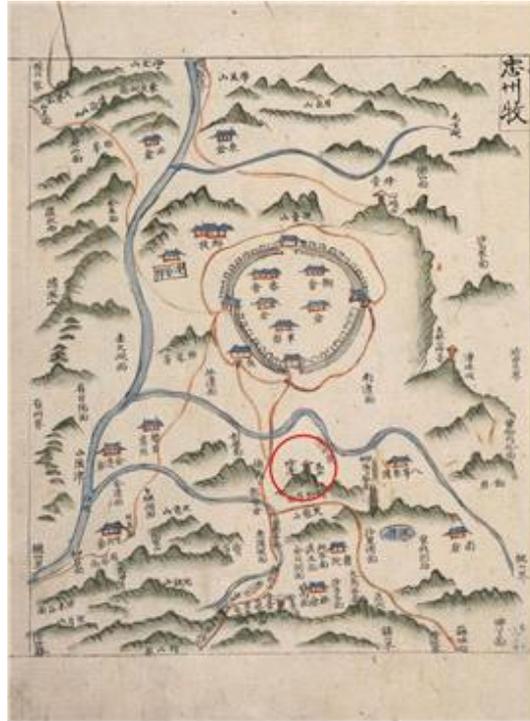
지도 1. 2거 직봉 노선 내 마산봉수 위치



고지도 1. 헤동지도 흥주목



고지도 2. 『광여도』



고지도 3. 『지승』



고지도 4. 팔도군현지도(18세기)



고지도 5. 『대동여지도』(1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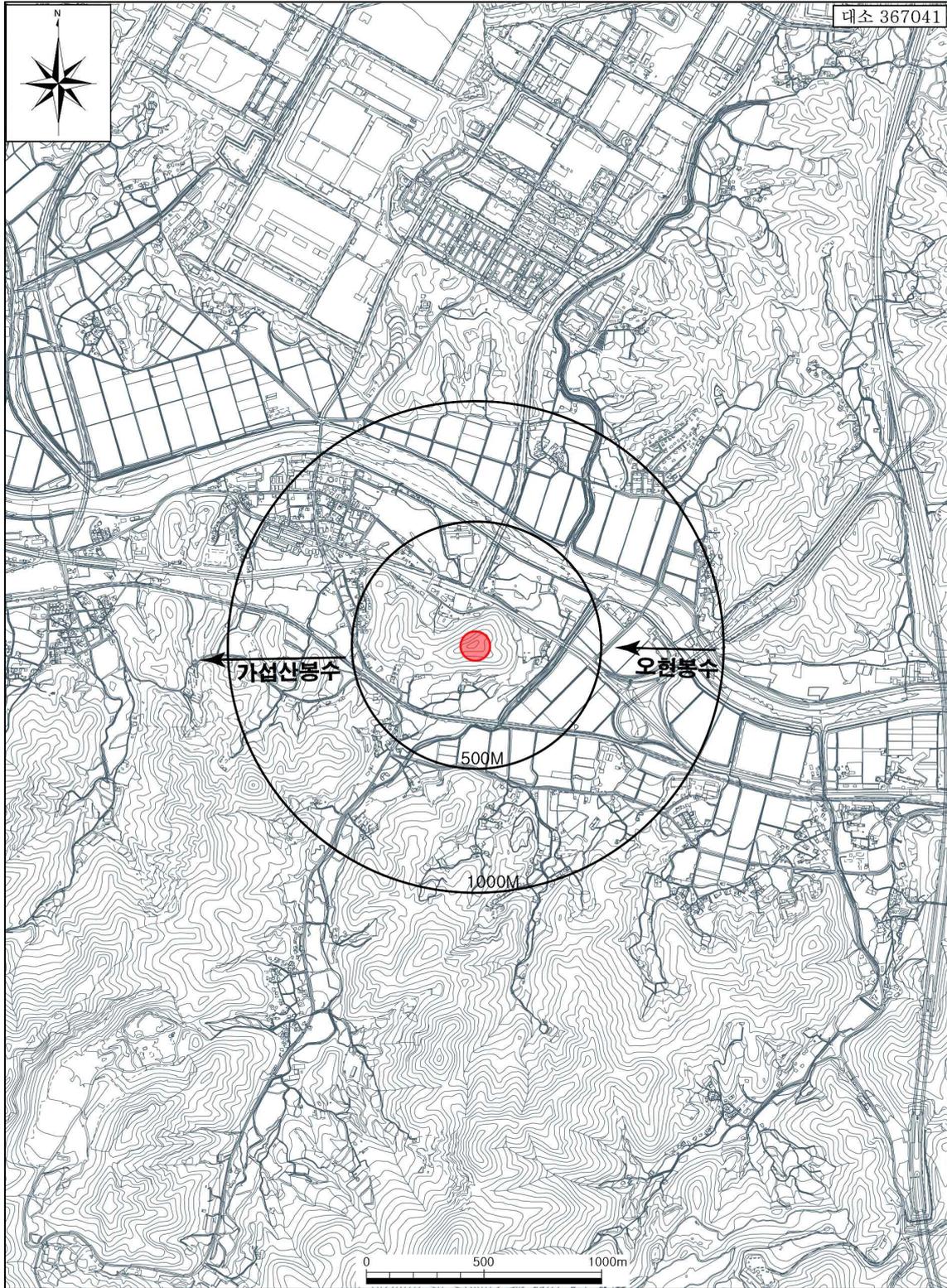
5. 봉수운영

조선 후기 충청병사 소관이였다. 봉수군 인원과 구성은 『여지도서』(1760) 봉수에 충청도 충원현(忠原縣) 소재 4기 봉수 중 1기로서 “현의 서쪽 25리에 소재한다. 동으로 대림산(大林山)과 심항산(心項山)에 응하며 서로 가섭산(迦葉山)에 응한다. 별장 1인, 감관 5인, 군인 100명이다.”라고 하였다. 같은 책의 군병(軍兵)에는 “봉수 별장 4인, 봉수감관 20인, 봉군 100명, 봉군보 300명이다.”라고 하였는데, 당시 충원현에는 ‘마산·대림산·심항산·망이성’ 등 4기의 봉수가 있었기에 각 봉수는 ‘별장 1인, 감관 5인, 봉군 25명, 봉군보 75명’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를 통해 총 책임자인 봉수별장 1인의 감독하에 감관 5인이 봉군 25명을 1인당 5명씩 조를 짜서 교대로 번(番)을 섰다. 이외에 봉군에게는 1인당 5명씩의 보가 배정되어 실제 근무를 서지 않는 대신 봉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이후 발간 『호서읍지』(1871) 「진영사례(鎭營事例)」에 “四山烽台別將四人, 監官二十人, 伍長四名, 軍士四百名이다.”라고 하였다.¹⁾ 따라서 앞 시기의 각 봉수마다 ‘봉수별장 1인, 봉수감관 5인, 봉군 25명, 봉군보 75명’으로 이루어지던 구성이 이때에는 ‘봉대별장 1인, 감관 5인, 오장 1명, 군사 100명’으로 구성되어졌다. 같은 책 「읍사례(邑事例)」 예방장(禮房掌) 교원춘추(校院春秋)에 “봉대 음청일기 앞뒤로 살핀 것은 두 차례에 걸쳐 순병영에 보고한다. 읍에서 보이는 대림산봉대에서 횃불을 올리는지 올리지 않는지는 매일 보고한다. 음청일기는 매달 초하루에 외사관(外史官)²⁾에게 보고한다.”라고 하였다.

1) 『湖西邑誌』 第3冊, 忠州牧 鎭營事例.

2) 외사관(外史官) : 외방의 사관. 지방에서 기록업무를 담당하는 관리.



지도 2. 마산봉수대 위치도(S=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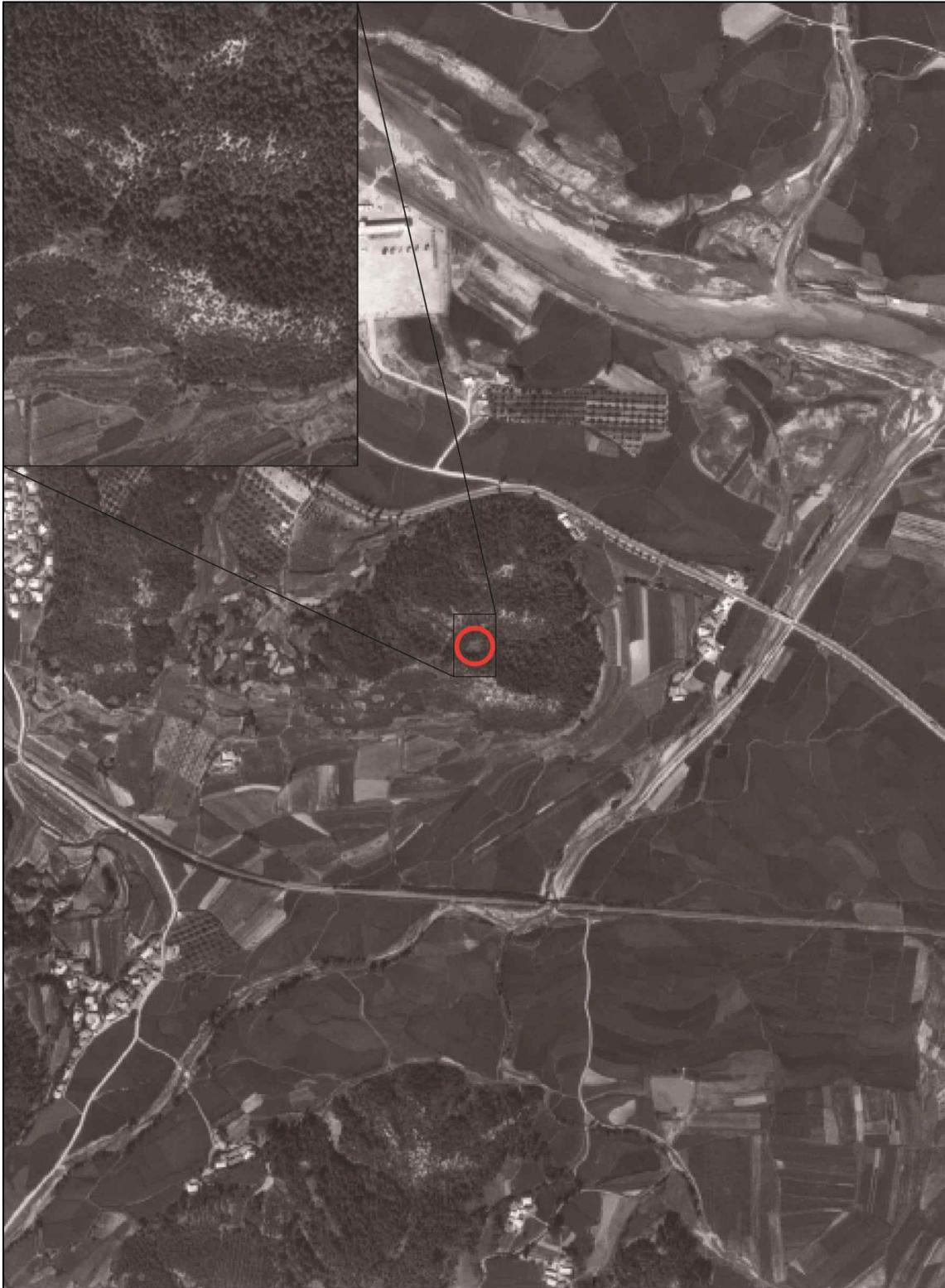


사진 3. 마산봉수대 일원 항공사진(1974년)

6. 유구현황과 특징

1) 항공사진

봉수대를 알아볼 수 있는 항공사진은 1974년 사진이다. 이를 관찰해 보면, 방호벽의 형태가 당시까지도 잘 남아 있었다. 주변은 잡목으로 울창한데 반해 봉수대 내부는 비교적 평탄지로 확인되고 있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방호벽 내부에는 중앙부에 음영차가 확인되어 연대나 연조지로 추정할 수 있으며, 거화시설과 생활시설이 구분하는 단시설이나 석축은 확인되지 않는다. 봉수대 주변으로는 비교적 수목이 울창하여 다른 시설을 확인할 수는 없다.

2) 유구현황

마산봉수대에 대한 조사는 2007년도에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봉수대는 동서로 긴 타원형의 평면형태로 동-서 길이 24m 남-북 길이 62m 규모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유구는 예비군 참호 및 교통호, 일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훼손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시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유구의 현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1) 2007년 발굴(시굴)조사 내용¹⁾

① 방호벽

방호벽은 북쪽의 급경사 지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윤곽이 잘 남아있다. 전체 둘레는 약 62m 내외로 약 200尺의 규모다. 방호벽의 높이는 1~2.3m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형조건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방호벽은 암반을 정지하고 축조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되며, 외벽을 석축한 후 내벽은 흙으로 내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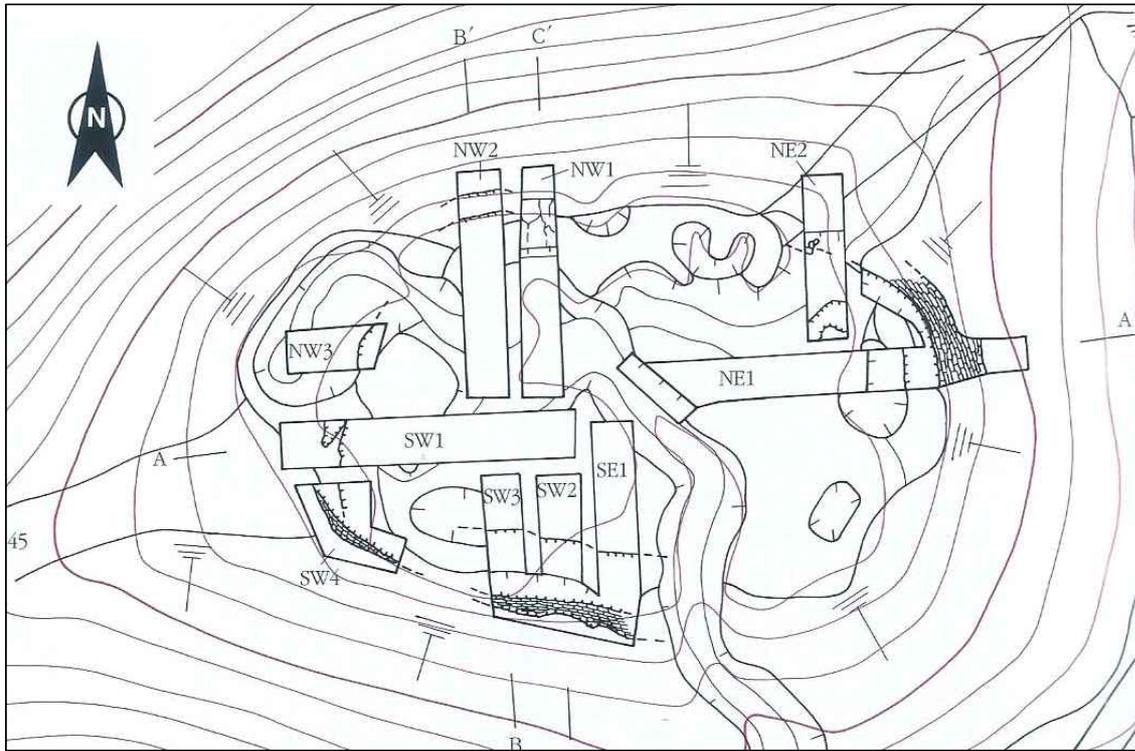
방호벽 북쪽의 경우 허튼층쌓기로 석축의 축조양상은 매우 조악하며, 일부 기반암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서벽의 경우 후대 등산로의 개설과 교통호 등으로 인해 상단부가 훼손되어 시굴조사에서 하단부 1~3단 정도만 확인되었다. 비교적 양호하게 잔존한 구간의 경우 높이 1.1m 내외의 석축이 70°의 경사를 이루며 남아있다. 다른 구간에 비해 외벽 면석의 축조가 비교적 정연한 형태로 조사되었다. 서쪽 등산로로 이어지는 외곽석축은 이중으로 축조된 양상이 확인되어 후대 개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벽의 경우 높이 2~2.2m로 확인된다. 석축의 중간부분이 배부름현상으로 탈락이 심하고 기저부가 밀려나 있어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다. 동벽의 경우 1.7m 내외 높이로 잔존한다. 특히 방호벽의 하단부와 상단부의 석축양상이 차이가 있어 후대 개축한 양상으로 판단된다.

② 연조

시굴조사에서 연조와 관련된 석축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봉수가 철폐된 이후 방치되다가 예비군 참호와 교통호 등이 설치되면서 대부분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지점 바닥면에서 소결부가 확인되고 있고 다량의 숯과 소토가 확인되는데 봉수의 서쪽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며 남-북 방향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 지점에 연조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 中原文化財研究院, 2009, 『忠州 馬山烽燧』



지도 3. 마산봉수대 조사현황도(축척미상, 中原文化財研究院, 2009, 『忠州 馬山烽燧』에서 발췌)

③ 건물지

봉수대 내부 동쪽지점에 일부 석축시설과 숲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변 방호벽의 내외 석축의 매몰토 내에서 다량의 기와편이 수습되어 있어 건물지가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봉수 남동쪽 아래 평탄지에서 석축이 확인된다. 석축의 규모는 길이 2m로 1~2단으로 축조하였으며 전체 규모는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주변 체육 시설과 참호, 교통호 등이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④ 출입시설

서쪽 방호벽 서쪽에 석축이 2중으로 축조되어 있어 출입시설의 계단으로 추정이 가능하나 외곽석축의 단절면이 확실치 않다. 동남쪽 회절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하지 않으나 봉수대 건물지가 동남쪽 평탄지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 봉군의 일상거주지가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봉화뚝 마을이 동남쪽 아래에 있다는 점으로 볼 때 마산봉수대의 출입시설은 동북쪽 능선 또는 교통호를 만들면서 훼손된 남쪽 구간에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⑤ 출토유물

시굴조사를 통해 주로 봉수대 내부와 방호벽 외곽에서 수습되었다. 모두 조선시대의 것들로 도·토기류, 자기류, 기와류 등으로 구분된다. 자기류는 분청사기를 비롯하여 백자편, 청화백자편, 석간주편 등으로 기종은 사발, 접시, 잔 등으로 대부분 봉수군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기이다. 기와류는 등면에 청해파문, 집선문, 복합문 등이 타날되었으며 대부분 봉수대 동쪽의 건물지와 관련된 것들이다.

2007년도 조사내용((中原文化財研究院, 2009, 『忠州 馬山烽燧』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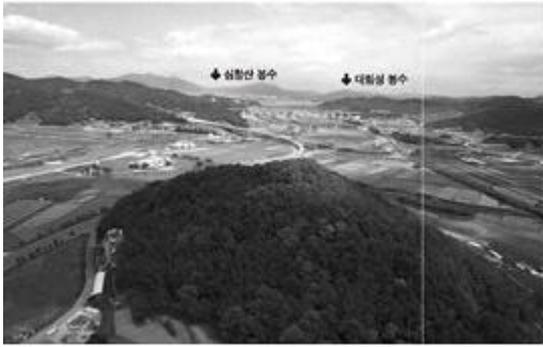


사진 4. 마산봉수대에서 바라본 충주방향



사진 5. 마산봉수대에서 바라본 음성방향



사진 6. 마산봉수대 조사 후



사진 7. 방호벽 조사 후



사진 8. 방호벽 조사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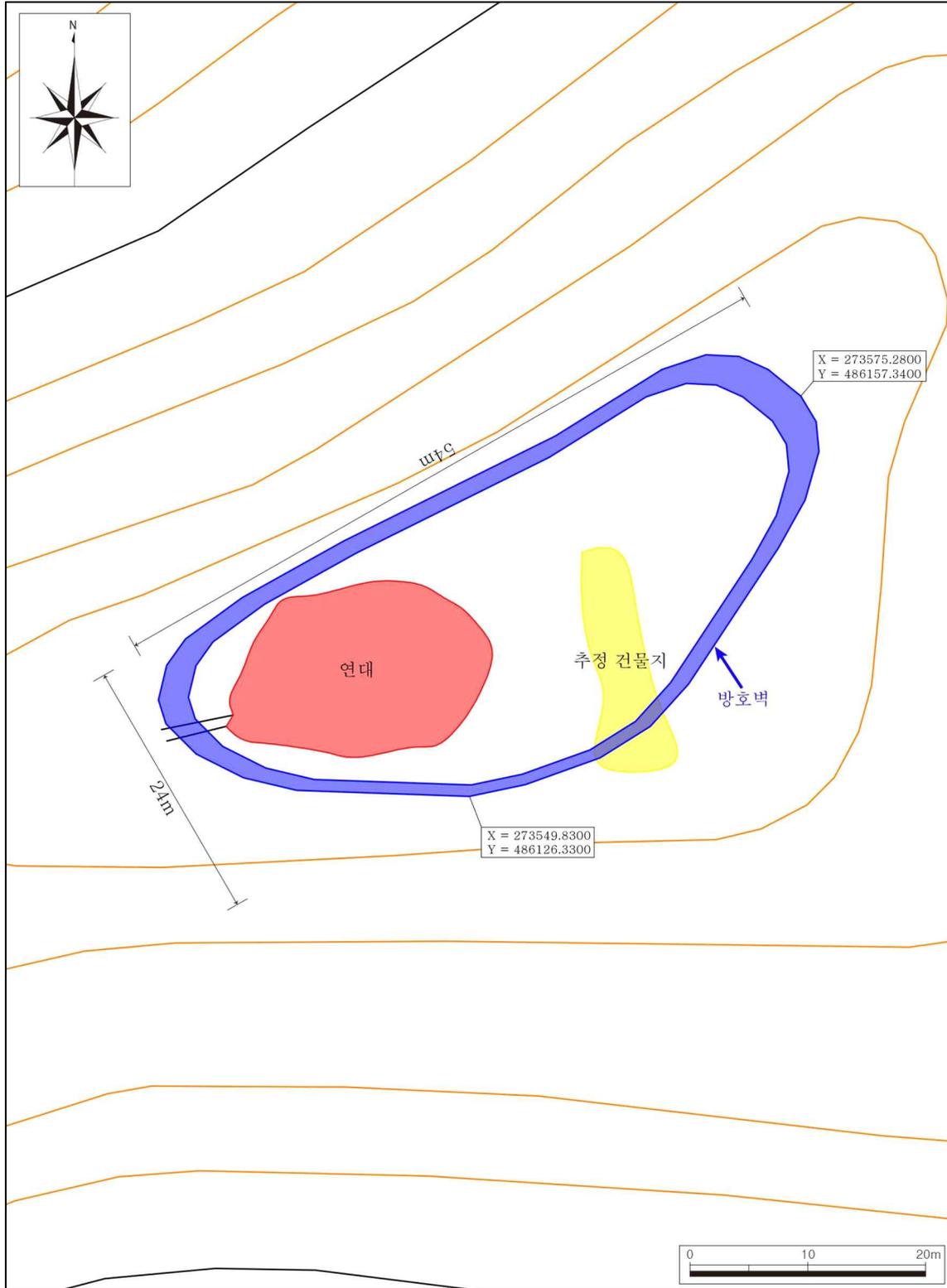
사진 9. 추정 창고지 조사 후



사진 10. 추정 고사지 조사 후



사진 11. 추정 연조 조사 후



지도 4. 마산봉수대 현황도(S=1/500)

2021년도 조사내용



사진 12. 봉수대 원경



사진 13. 봉수대 내 전경



사진 14. 방호벽1



사진 15. 방호벽2



사진 16. 방호벽3



사진 17. 봉수대 내 평탄지



사진 18. 봉수대 출입구



사진 19. 봉수대 내 출토유물

7. 지정가치와 근거기준

1) 역사적 가치가 뛰어남.

조선 전(全) 시기 발간의 지지(地誌) 기록을 통해 봉수 명칭이 동일하며 전·후 대응봉수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조선시대 전기간 동안 운영된 봉수이다.

그리고 조선 후기 발간의 『해동지도』(1724)와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등의 고지도(古地圖)에 빠짐없이 표기된다.

2) 내지봉수로서 주변 교통로를 이어주는 분기점에 입지

죽령로(竹嶺路)와 계립령로(鷄立嶺路)의 두 길이 마산봉수에서 만나는 결절점에 위치하며 서울에서 동래로 향하는 영남대로변에 위치한다.

3) 충주읍 치소에서 봉수가 바로 후망되는 근거리 입지

치소(현 관아공원)에서 서쪽의 봉수까지 9.8km의 거리에 위치하는데 치소와 봉수 사이에는 중간에 남한강이 흐르고, 동-서 좌우에 평야의 형성으로 치소의 가시권 내 봉수 위치한다.

4) 뛰어난 접근성

봉수대 인근에 대소원과 대소원역이 있었으며, 3번 국도변 ‘봉화뜰’으로 지칭되는 약 150.2m 높이의 봉화산에 위치하여 답사객들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문화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존정비사업의 추진성과에 따라 답사객의 증가가 기대된다.

5) 직봉과 간봉의 결절점에 위치

조선시대 제2거 직봉 중 서른여덟번째 봉수이며 거제 가라산봉수에서 초기한 제2거 간봉(2)노선의 서른번째 내지봉수의 종착지이다.

6) 두 차례의 학술조사 실시

-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忠州 馬山烽燧 地表調査報告書』, 2003.

- 中原文化財研究院, 『忠州 馬山烽燧 試掘調査報告書』, 2009.

이상의 조사를 통하여 마산봉수대의 전반적인 구조는 확인된 바 있어 차후 정비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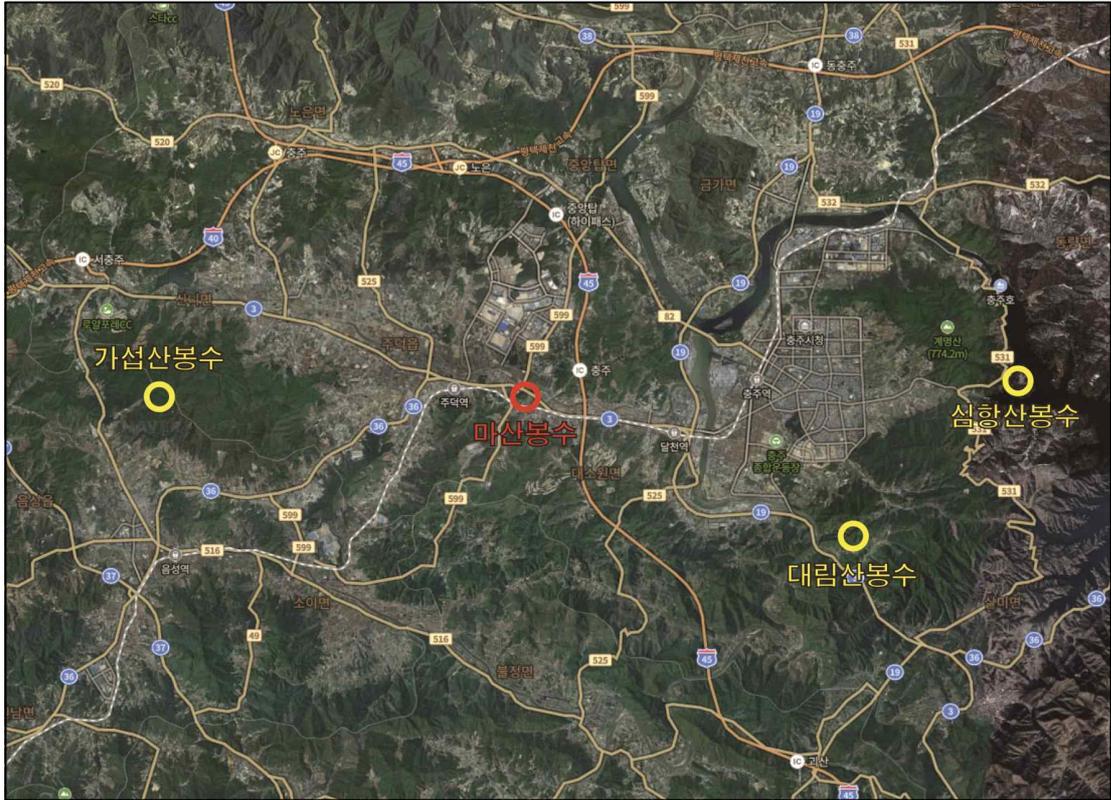


사진 20. 마산봉수와 대응봉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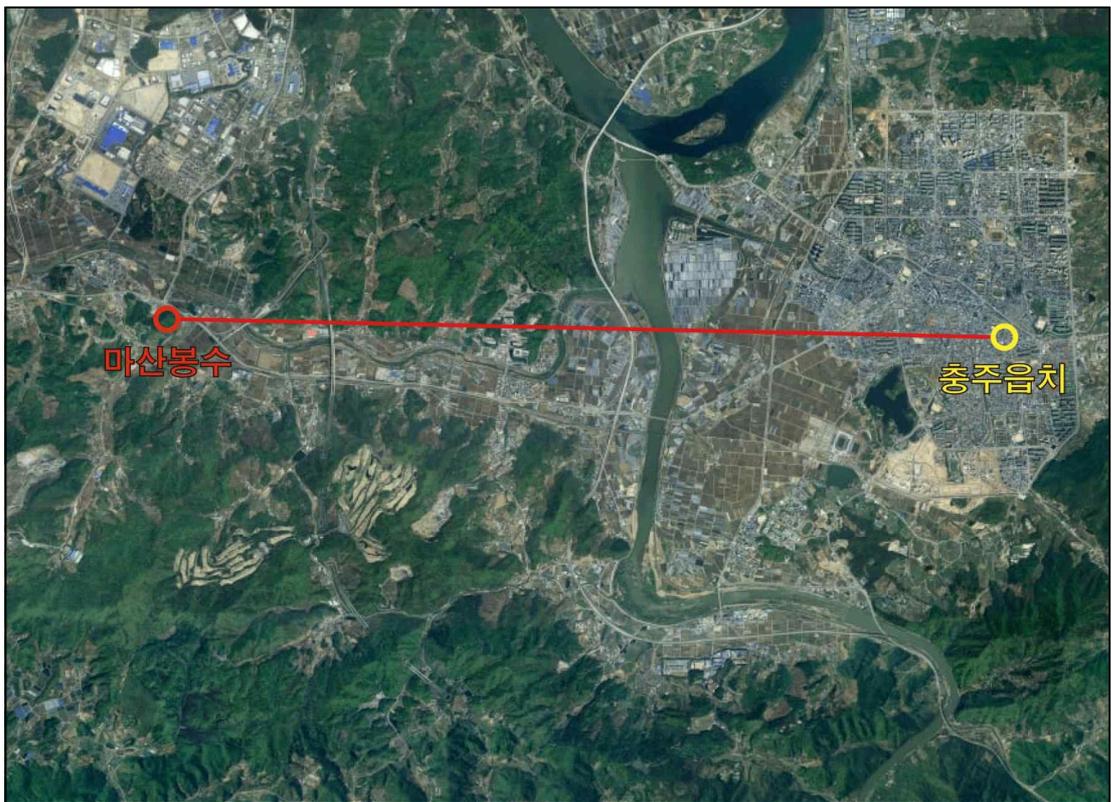


사진 21. 충주읍치와 마산봉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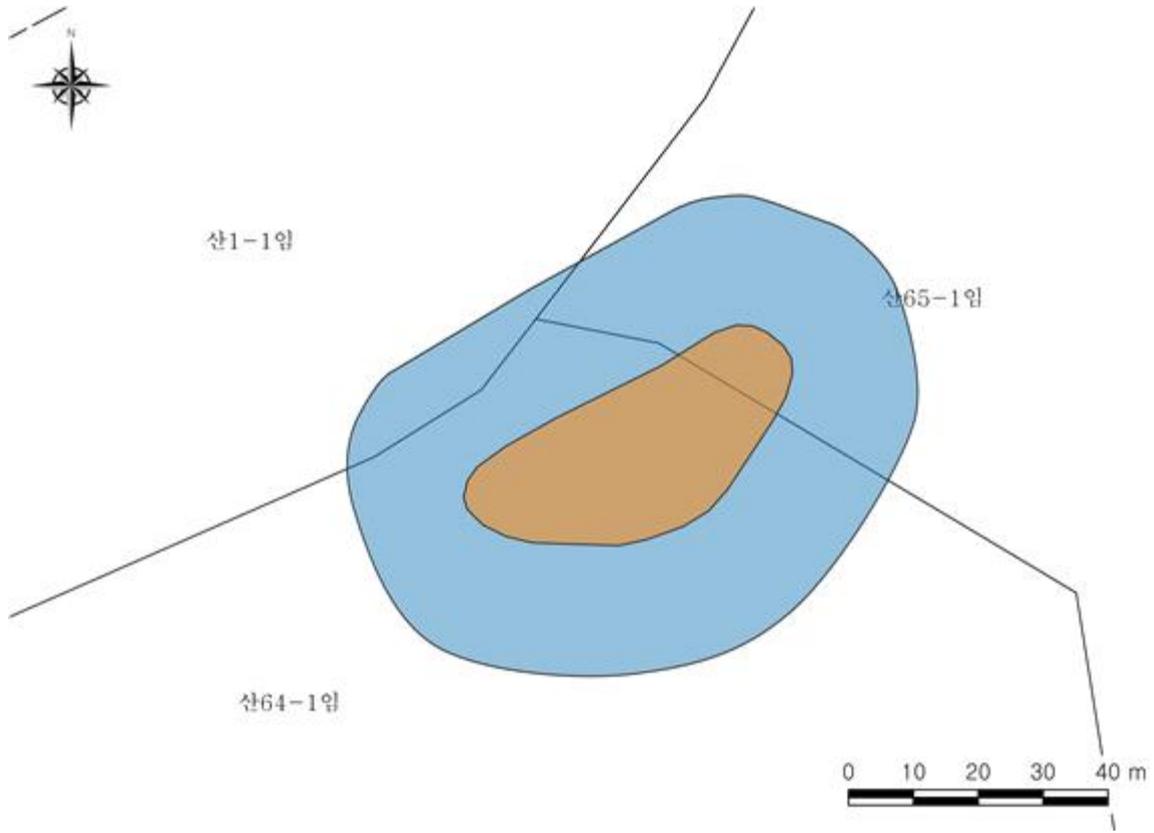
8. 지정대상과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 지정구역)

● 지정면적 : 3필지 / 4,531㎡(문화재 1,006㎡, 보호구역 3,525㎡)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건조물인 경우											(면적: 1,006㎡)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물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1,00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64-1	임야	23,992	869							
2		산65-1	임야	23,505	137							
계				47,497	1,006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3,52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64-1 임	임야	23,992	2,060							
3		산65-1 임	임야	23,505	1,185							
2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리	산1-1 임	임야	17,075	280							
계				64,572	3,525							



지도 5.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S=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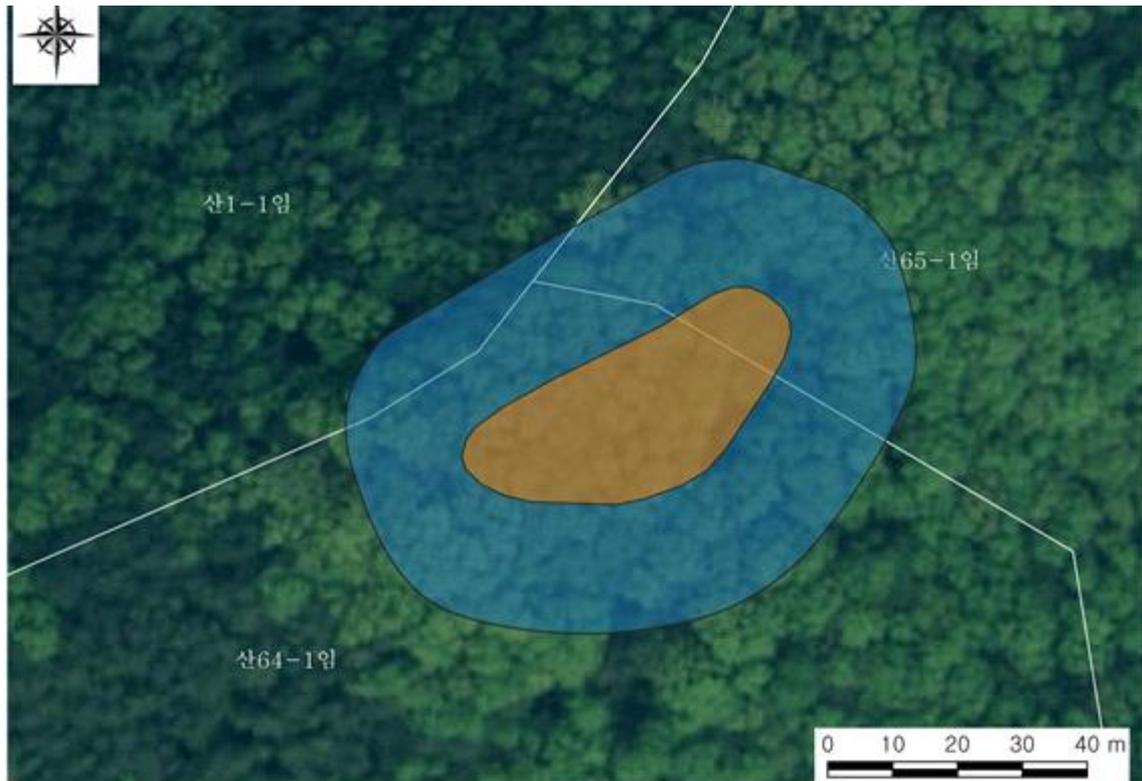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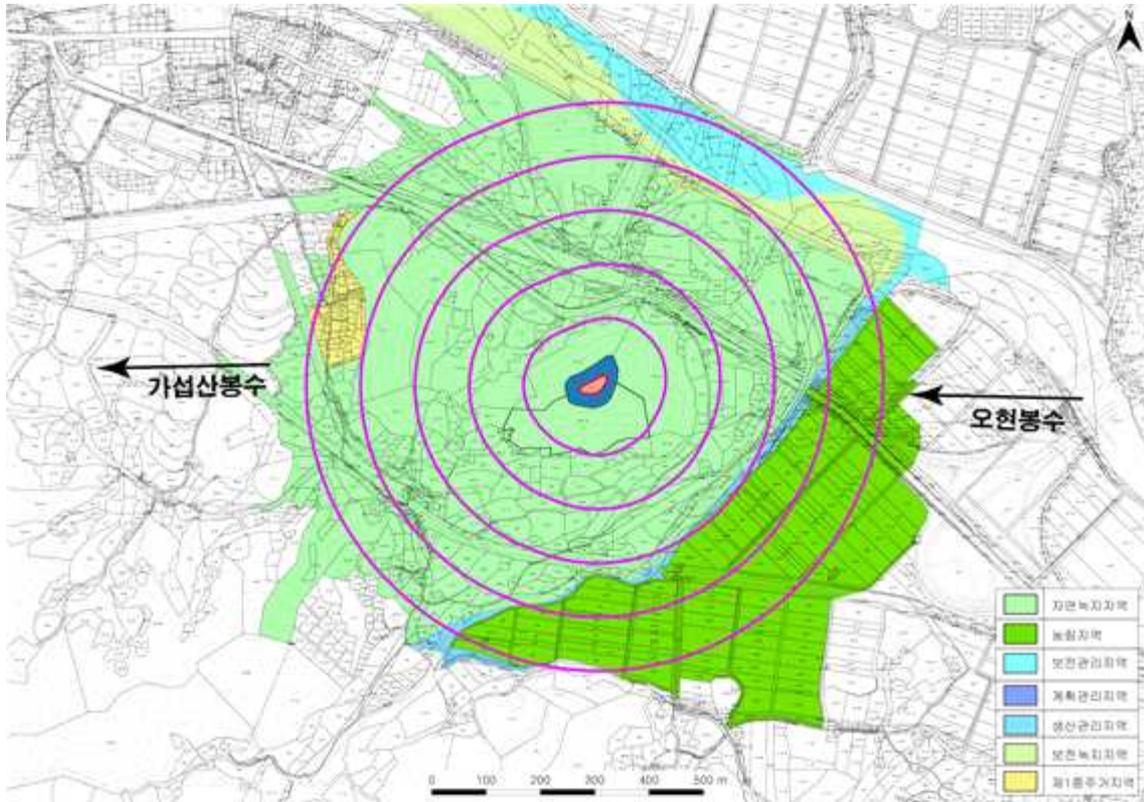
사진 22.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

9.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검토의견

- 마산봉수 전·후 대응노선 봉수의 방향을 고려한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

충주시	충주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p>■ 대상문화재 제2로 직봉 - 충주 마산봉수유적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64-1번지 일원</p> <p>■ 문화재 및 보호구역</p> <p> 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보호구역</p> <p>■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간격)</p> <p>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p> <p>■ 구역별 허용기준</p>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 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0. 보존·정비와 활용 착안사항

1) 기본구상

(1) 기본방향

① 기본원칙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1.6.10.] [법률 제17409호, 2020.6.9. 일부개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문화재청, 2002)

- 문화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문화재 활용은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사업의 소재로서 개발·활용하며,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육성한다.

『유적(遺蹟 등) 정비계획 수립·추진관련 고려사항』(문화재청, 2003)

- 가치(원형) 보존 최우선: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복원·정비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비를 지양하고, 유적의 가치와 역사적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명확한 정비목표 수립: 유적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적 정비를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한다. 보존과 복원·정비되어야 할 것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 :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고, 유적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방향 설정

충주시의 마산봉수대에 대한 정식 학술조사는 현재까지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굴조사 외에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정비·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보존·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미 충주시에서는 대림산성 및 대림산봉수에 대한 정비복원이 완료된 상태로 이에 더해 마산봉수대에 대한 합리적인 보존·정비와 관리안을 상기 기술한 기본원칙에 따라 타 시·군 소재 봉수의 보존·정비와 관리사례를 검토하고 주변현황과 여건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봉수대의 보존·정비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도모하고,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과 충주시의 역사문화 관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동선체계 등 기반시설의 확충안을 수립한다.

봉수는 조선시대 500여 년간 변경의 안위(安危) 여부를 전·후 대응봉수간 차차거화(次次擧火)를 통해 최종 중앙에 알리던 호국군사통신 유적으로서, 성격에 의한 구분상 내지봉수(內地烽燧)에 해당한다.

봉수대는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평안을 상징하는 1거의 햇불[平安火·太平火]을 올림으로서 과거 충주목과 인근 고을 백성들이 이를 바라보고 일상을 마무리하는 순기능도 있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충주시 소재 봉수의 보존·정비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봉수대의 잔존 방호벽과 연대 등의 역사적 실체를 보존·정비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시킨다.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활용되었던 봉수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정보통신 발달의 상징적 유적으로 보존·관리한다.

경상도와 충청도·경기도를 거쳐 최종 서울 목멱산봉수로 이어지는 내지봉수 체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원한다.

(2) 기본전제

① 잔존 봉수 유구의 보존과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

봉수대의 핵심요소인 거화시설(연대)과 방호시설(방호벽) 및 생활시설(주거지)을 대상으로 보존·정비하여 마산봉수대의 문화재적 가치가 표출되도록 한다.

② 역사문화자산 가치 증진 및 화제성 창출

과거 봉수제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던 당시에 봉수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봉수군과 봉수운영 관련 된 기록과 내용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유적과 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화제성이 창출되도록 정비한다.

③ 대응봉수와의 조망을 위한 가시성 확보

입지조건상 동남쪽으로 충주목의 옛 치소가 잘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한 봉수대는 인근 대응봉수와의 후망을 통해 충주지역과 고을 백성들에게 변경의 안위 여부를 알리던 군사통신 유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적 강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계획한다.

조선 후기에 최종 설정된 대응봉수인 심향산봉수(제2거직봉)와 대림산봉수(제2거 간봉2)에서 가섭산봉수로의 가시권 확보 외 봉수대 주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식생이 양호한 기존의 자연경관 유지 방안을 제시한다.

④ 주연야화(晝煙夜火) 통신의 특징을 살린 ‘체험과 교육의 장’ 조성

햇불과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 소식을 전하였던 봉수대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적의 복원보다는 체험과 실연(實演)을 통한 거화의 과학적 원리를 교육한다.

기존의 진입로를 활용하여 최적의 보행환경과 교육적 기능을 갖춘 탐방로 조성을 통해 마산봉수의 500여년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⑤ 주변 문화자원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

제2거 간봉2의 대응봉수인 대림산봉수와 대림산성이 정비·복원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주변 봉수와 통합적으로 연계·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⑥ 실현가능한 세부추진사업 도출과 단계별 사업시행

충주시의 재정여건이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토지 매입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필요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3) 종합구상

① 추진사업 계획

가. 역사적 실체 보존 사업

- 식생정비(소목 간벌), 봉수 내부 잔디 식재, 봉수군 주거지 정비 등.

나. 문화자원 연계 개발사업

- 탐방로(봉수군 길) 정비, 스토리텔링 개발, 체험 프로그램 및 축제 개발, 봉수 C.I개발, 동선표지 판·전망시설 및 망원경 설치 등.

다. 기반시설 구축사업

- 봉수대 주변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 등.

② 토지이용계획

가. 봉수대 일원은 현재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 64-1번지, 65-1번지 일원에 소재하며 면적은 1,006㎡이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토지대장, 2021.9.)

나. 현재 마산봉수대는 봉화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중심으로 찾고 있으나 대부분 봉화산을 등산하는 것으로 봉수대를 찾아오는 탐방객은 소수에 불과하다.

다. 향후 제2거 직봉 노선 봉수의 사적지정이 확정되고 보존·정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 시 탐방객에게 보다 쾌적한 역사경관과 편리한 탐방환경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

③ 동선계획

본 계획에서는 봉수구역과 진입광장 및 주차구역으로 나누고 각 공간별로 기능을 배분하였다. 특히, 진입광장 및 주차구역에는 방문객이나 차량의 접근 동선과 관련된 공간 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험교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봉수대의 탐방동선은 기존에 조성된 산책로가 있을시 그대로 이용하되, 전통적인 분위기 연출과 유지관리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야자매트나 경화흡포장으로 한다.

또한, 탐방객의 주동선이 되는 기존 산책로를 활용하여 봉수에 대한 관심유발과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2) 보존과 정비활용계획

(1)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확대지정

① 향후, 제2거 직봉 노선의 봉수를 사적(史蹟)으로 승격 시 문화재지정구역의 확대 및 대응봉수간의 조망과 가시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마산봉수를 중심으로 동남쪽의 대림산봉수, 동쪽의 심항산봉수, 서쪽으로 가섭산봉수를 잇는 조망과 이를 잇는 가시권 확보가 필요하다.

② 봉수대 주위의 수목을 선별적으로 간벌하여 대응봉수간 조망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③ 봉수대 주변 식생이 양호한 임야는 가급적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④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지정은 인접봉수간의 조망 확보를 위해 구 방향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각 범위별로 구역을 설정하여 역사문화 환경과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새로이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해당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재산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소유주와 지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⑤ 진입로에서 봉수대의 원경을 볼 수 있도록 간벌 등을 통해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봉수군들이 이용했던 소로(진입로)는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이 길을 통한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2) 보존계획

① 봉수유적 보존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는 방호벽이 잔존하고 있으나, 거화시설인 연조의 잔존양상은 명확하지 않다.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후 13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봉수대 내외의 무성한 수풀잡목으로 그 형태를 뚜렷하게 확인하기 곤란하다. 더구나 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던 것처럼 예비군참호 등으로 인해 훼손이 심한 상태이다.

- 따라서, 과거 봉수의 운영당시 원형구조를 밝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수대를 구성하였던 제반 요소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비와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에 대한 최근의 현황조사를 통해 전체 구조의 확인이 가능함으로 이를 바탕으로 운영당시의 모습대로 단계적으로 정비·복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조선시대 내지봉수대의 형태와 기능을 학습·체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공간으로 조성한다.

다. 추진방법 및 절차

- 먼저 방호시설인 방호벽과 추정 봉수군 주거지에 대한 원형구조를 확인한다.

- 연조는 주위 수풀잡목을 간벌하고 방호벽 내부에는 잔디를 식재하여 보존한다.

② 수목 간벌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 내·외는 현재 무성한 수풀잡목으로 대응봉수와의 조망이 곤란하거나 유구 훼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적절한 간벌을 통하여 유적 보존 및 가시권을 확보한다.

나. 사업내용

- 현재 봉수대 주위와 내부에는 수목이 들어차 있어 대응봉수의 조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목을 선별적으로 벌목하여 대응봉수인 심항산봉수와 가섭산봉수에 대한 조망을 개선한다.

다. 추진방법

- 벌목작업은 봉수유구의 보존, 주변경관 조망, 봉수의 제반요소 감상 등에 장애를 주는 수목부터 선별하여 실시한다.

- 봉수대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경관이 확보되도록 수목을 제거한다.

- 봉수대 남쪽의 충청내륙고속도로에서 봉수대로 향하는 수목을 정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동선을 유도한다.

(3) 정비·활용계획

① 전망시설과 휴식공간 설치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의 정체성과 주요 기능은 대응봉수와의 시각적 연결에 있다. 현재, 봉수는 내·외부의 수목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제한적이고, 전체 봉수유구를 살펴볼 수 없다. 조선시대 봉수는 대응봉수와의 조망과 주변 관찰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였으므로 이러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 주변 적당한 곳에 봉수의 전체 구조와 대응봉수, 주변 자연환경, 시내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조선시대 봉수의 입지선정 원리를 체감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과 절차

- 전망시설은 봉수대 주변 시야가 가장 좋은 지점에 설치하되, 목재 등의 친환경소재를 사용하여 봉수대의 역사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안내판에 대응봉수를 촬영한 사진을 표시하여 눈앞에 펼쳐진 전경과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망시설에는 망원경 등을 설치한다.
- 전망시설 하부나 주위에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방문객에게 휴식과 사색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 현재 마산봉수가 위치한 봉화산 남쪽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3공구)가 건설되고 있으며, 봉화산을 관통하여 북쪽의 SK-LPG충전소 쪽으로 중원대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휴게시설이나 전망시설, 탐방로 등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② 봉수군 탐방로 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 남쪽에 조성되고 있는 충청내륙고속도로(3공구)와 연계하여 봉수대로 이어지는 ‘봉수대 탐방로’를 조성하고 도로와 인접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제고한다.

나. 사업내용

- 탐방로를 개설하고, 봉수 관련 이야기와 비품 등을 소개함으로써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과거 봉수의 기능과 운영 및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는 살아 있는 노변(路邊) 전시관 기능을 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

- 기존의 길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요 지점에는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고 벤치 등의 휴식시설을 도입한다.
- 안내판의 내용은 경북권 내 경산(현 대구 수성구) 성산봉수(城山烽燧)의 비치물목을 토대로 봉수운용에 필요한 비치물목상의 거화재료나 생활비품 등을 선별하여 사진 자료와 함께 해설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烟臺1 烟窟1 望德1 火德1 積草5訥 烏外石5訥 無稜石5訥 吐木5訥 烟炬3柄 松炬50柄 草炬50柄 柎炬50柄 艾5同
 牛糞5同 馬糞5石 炭5石 細沙5石 糟糠5石 防牌5坐 排火木5介 法手木5介 水桶5箇 菱鐵20箇 古乙羅木25箇 木斧
 子20柄 滅火器5坐 麻注乙里20沙里 前梯1 水樽5坐 縣瓢子5介 火箭9柄 唐火箭9柄 長箭1浮 片箭1浮 黑角弓1張
 桶兒1介 大白旗1面 鉛丸30箇 火藥5兩 烏銃1柄 環刀1柄 長槍1柄 火繩6沙里 細繩3沙里 條乙所3沙里 火鐵石2介
 水瓮5坐 釜1坐 食鼎1坐 爐口1坐 匙5持 沙鉢5立 空石10立 接匙5竹 瓦家5間 種火盆1坐 草席2立 抹木18箇 火桶5
 介 燒木5同 戰角1雙 待賓米1石 鎌子4柄 盤5立 三穴銃1坐 火綿1 掩頭1部 掩心1部 五色布旗5面 鼓1坐 錚1坐
 火鐵10介 生松1訥 橫1坐

(『嶺南邑誌』第7冊, 『慶山縣邑誌』(1871) 烽臺)

(4) 봉수 거화(擧火) 실연(實演) 행사

① 추진배경과 목표

봉수는 연기[주간]와 불[야간]로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시설인 만큼 실제 거화(擧火)나 거연(擧煙) 같은 실연 행사의 실시를 통해 선조들의 봉수운영 원리를 체득하게 한다.

② 사업내용

연기와 불이라는 시각신호로 변경의 안위여부를 전달하였던 봉수의 연조 형태와 구조, 거화재료의 종류와 배합 등을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이 실증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크기의 연조를 제작한 후 실연행사를 연 중 개최한다.

③ 추진방법과 절차

먼저 실연행사를 할 수 있는 연조(煙籠)를 제작하되 설치장소는 행사 시 화재발생이나 유구 훼손에 대비하여 유적과 일정거리 떨어진 곳으로 한다. 연조의 크기와 구조 등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다.

거화재료[燄]는 경산 성산봉수 비치물목을 참고하여 준비하고 전통방식에 따라 제작한 후 사용한다. 행사의 진행은 지역 문화단체가 담당하고 연 중 개최시기는 ‘신년, 정월대보름, 8·15광복절, 충주시민의 날’ 중 의미있는 날을 정하여 개최하도록 한다.

특히 이미 대림산봉수대에서 거화식이 거행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연계하여 봉수노선의 신호체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5) 관리운영계획

① 관리운영 주체

충주시(문화재 관리 기관에 위탁관리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 목표

- 가. 마산봉수대의 보존과 유지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
- 나. 탐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도모
- 다. 마산봉수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의 극대화
- 라. 유적의 학술적 가치 극대화와 신규 문헌 발굴 등

③ 관리운영사항

가. 봉수대 유적

- 마산봉수대 일원
- 마산봉수대 주변 탐방로 등

나. 자연환경

- 마산봉수대 주변 수목 및 지형
- 주변 생태환경, 녹지 등

다. 시설물

- 탐방로, 전망시설 등
- 안내판, 방향지시판, 휴게시설 등
-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라. 탐방객을 위한 서비스

- 홍보, 해설, 전시, 축제행사 등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④ 사업 추진절차

가. 문화재지정구역 및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는 먼저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발굴(시굴)조사를 통해 유존여부가 확인된 유구의 양상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도출된 발굴결과에 따라 정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입 → 발굴 → 정비의 순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직 마산봉수는 시굴조사 이외에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비단계에 따르되 대상지가 안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복원·정비의 단계를 결정한다.

나. 매입 단계는 정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국·공유지화 하는 단계로서 대상지의 지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 파악과 매입에 예상되는 비용 및 매입의 원활성을 판단하여 정비의 선후를 결정한다. 마산봉수대의 정비사업은 대상지내 봉수대가 국토교통부 소유로 협의를 통하여 정비·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후 주차장 부지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⑤ 순차별 사업계획

가. 봉수대의 보존·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체 사업비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초기 2년의 정비를 단기정비로 설정하고 이후의 계획 중 우선시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기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단기사업은 정비사업의 기간 및 지자체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나. 보존·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추진 절차, 시급성, 사업비,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다. 봉수대 보존과 주변정비사업은 방호벽과 연대 정비, 식생정비[간벌 등], 전시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선정한다.

라.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편리하고 쾌적한 출입 및 동선체계 구축을 위한 주차창 마련 및 진입광장 조성 사업을 단기에 시행하고 관광 역량 제고를 위한 간이안내소 설치나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은 중기에 진행한다.

마. 이들 추진사업은 충주시청의 정책 순위 변경과 주민들의 요구도, 제반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1. 종합의견

- 1) 충주 마산봉수는 조선시대 전체 5거노선의 봉수 체계에서, 부산에서 초기하는 제2거 직봉의 서른여덟번째 내지봉수로서, 2007년도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와 문화재청에서 2014년과 2021년도에 실시한 현장

조사를 통해, 방호벽 및 연조와 출입시설, 추정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 2) 마산봉수는 제2거직봉의 봉수 노선상 죽령을 넘는 직봉과 계림령을 넘는 간봉이 처음으로 합쳐지는 봉수이다. 이는 모두 조선시대 충주목 관할 구역에서 합쳐져서 경기도에 들어서 죽산 건지산→용인 석성산→광주 천림산을 거쳐 목멱산 제2거에 연결된다.
- 3) 마산봉수대가 위치하고 있는 봉화산주변은 예부터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한다. 마산봉수대의 서북쪽 대소원리에 위치하고 있던 경제원을 비롯하여 주변에는 용안역, 단월역, 가흥역, 건태원, 금곶원, 용두원, 미륵원, 부구이원, 우원, 도관원, 석원 등이 연이어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많았던 중요한 교통로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 4) 마산봉수대의 평면 형태는 타원형이고 규모는 길이 22m 너비14m 둘레 62m, 면적은 1,006㎡ 정도이다. 시굴조사를 통해 방호벽과 추정건물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연조의 석축시설은 훼손되어 확인되지 않았지만 봉수대 서쪽부 바닥면에서 소결면과 소토, 목탄 등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연조가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봉수의 철폐 이후 방치와 예비군 참호 및 교통호, 체육시설 등으로 인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 5) 출토유물은 자기류(분청사기, 백자편, 청화백자편, 석간주편), 기와류(청해파문, 집선문, 복합문) 등으로 조선전기에서 후기까지 전 시기를 아우른다. 이는 문헌기록에서도 확인되는 바조선 전기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1425)에서부터 구한말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1908)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지에 빠지지 않고 등재되어 있고 제2거 직봉 노선의 주요 봉수다.
- 6) 봉수는 단일 유적보다는 통신체계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 노선별 주요봉수, 잔존상태, 역사성, 지정번호 부여방식 결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적지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문화재 종류

1) 사적

- 비지정문화재로서 부산 다대포 응봉봉수(鷹峰烽燧)에서 초기(初起)하는 제2거 직봉노선의 아홉번째 내지 봉수인 ‘경주 접포현봉수유적(慶州 蝶布峴烽燧遺跡)’을 같은 노선의 봉수와 연계하여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2. 문화재 명칭

1) 문화재명 : 제2로 직봉 - 경주 접포현봉수유적(第2路 直烽 - 慶州 蝶布峴烽燧遺跡)

- 봉수유적은 연속유산으로서 노선 단위 지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정명칭은 “본 명칭 - 부 명칭”의 형식으로 부여토록 한다. 여기서 본 명칭은 대표성이 높으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2로 직봉(第2路 直烽)”으로 한다.
- 부 명칭은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라 봉수명칭 앞에 현 행정구역 소재지인 ‘경주(慶州)’을 표기한다.
- 봉수명칭은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이후 조선 최후기 봉수망을 알 수 있는 『증보 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의 명칭과 한자표기를 따라 ‘접포현봉수유적(蝶布峴烽燧遺跡)’으로 표기한다.
- 따라서, 최종 봉수명칭은 ‘제2로 직봉 - 경주 접포현봉수유적(第2路 直烽 - 慶州 蝶布峴烽燧遺跡)’(이하 ‘접포현봉수’라 한다)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2) 명칭유래

- “내포점봉화(乃布岾烽火)는 서쪽으로 주사산봉화, 동쪽으로 황북봉화에 응한다.” 『세종실록』 지리지
- “접포현(蝶布峴)은 부의 서쪽 26리에 있다.” 『대동지지』

경주시 효현동 외산 마을에서 접포현 봉화산을 바라보면 마치 나비가 두 날개를 펼친 모습이다. 봉수대 명칭은 이 산을 가로지르는 고개 ‘접포현(나부재, 나비 고개)’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포점(나부재, 나비 고개)의 ‘내포’와 접포현의 ‘접포(蝶布: 나비)’는 나비 형태의 산 모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좁은 국토에 한 뼘의 땅이라도 농사짓기에 바쁜 과거에는 평지에 큰길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행인들은 조금 더 힘이 들지라도 고개를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택해 왕래한다. 봉수대가 고갯길과 인접하면, 변경으로부터

전해오는 정보를 오가는 행인들에게 빨리 전달할 수 있으며, 산정에 위치한 봉수대로의 접근성도 높일 수도 있다. 봉수대 명칭에 고개를 의미하는 한자어 ‘현(峴)·점(岾)·치(峙)’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3. 경주지역의 봉수현황과 성격

- 경주 지역에는 최초 설봉(設烽)과 폐봉(廢烽)시기가 다른 총 5기의 봉수(고위·접포현·사봉·하서지·독산)가 소재하고 있다. 고위·접포현·사봉봉수는 봉수의 성격에 의한 구분상 모두 육지내륙 소재의 내지봉수(內地烽燧)이고, 하서지와 독산봉수는 해안에 위치하는 연변봉수이다.
- 이 중 ‘하서지·독산·접포현·사봉’ 4기의 봉수는 조선 초기에 발간된 『경상도지리지』부터 조선 후기 봉수를 기록한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기록이 남아 있고 ‘고위’ 1기의 봉수는 『경상도속찬지리지』부터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 5기 봉수는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가 최종 폐지 될 때까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었다.

4. 접포현봉수의 입지와 연혁

1) 입지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산18번지 일원의 해발 235m인 산 정상부에 위치한다. 산정에서는 북쪽을 제외한 세 방향으로의 조망이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 건천휴게소에서 빠지면 보이는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배후 뒷산이 봉수대가 있는 곳이다. 산으로 오르는 길은 경사가 가파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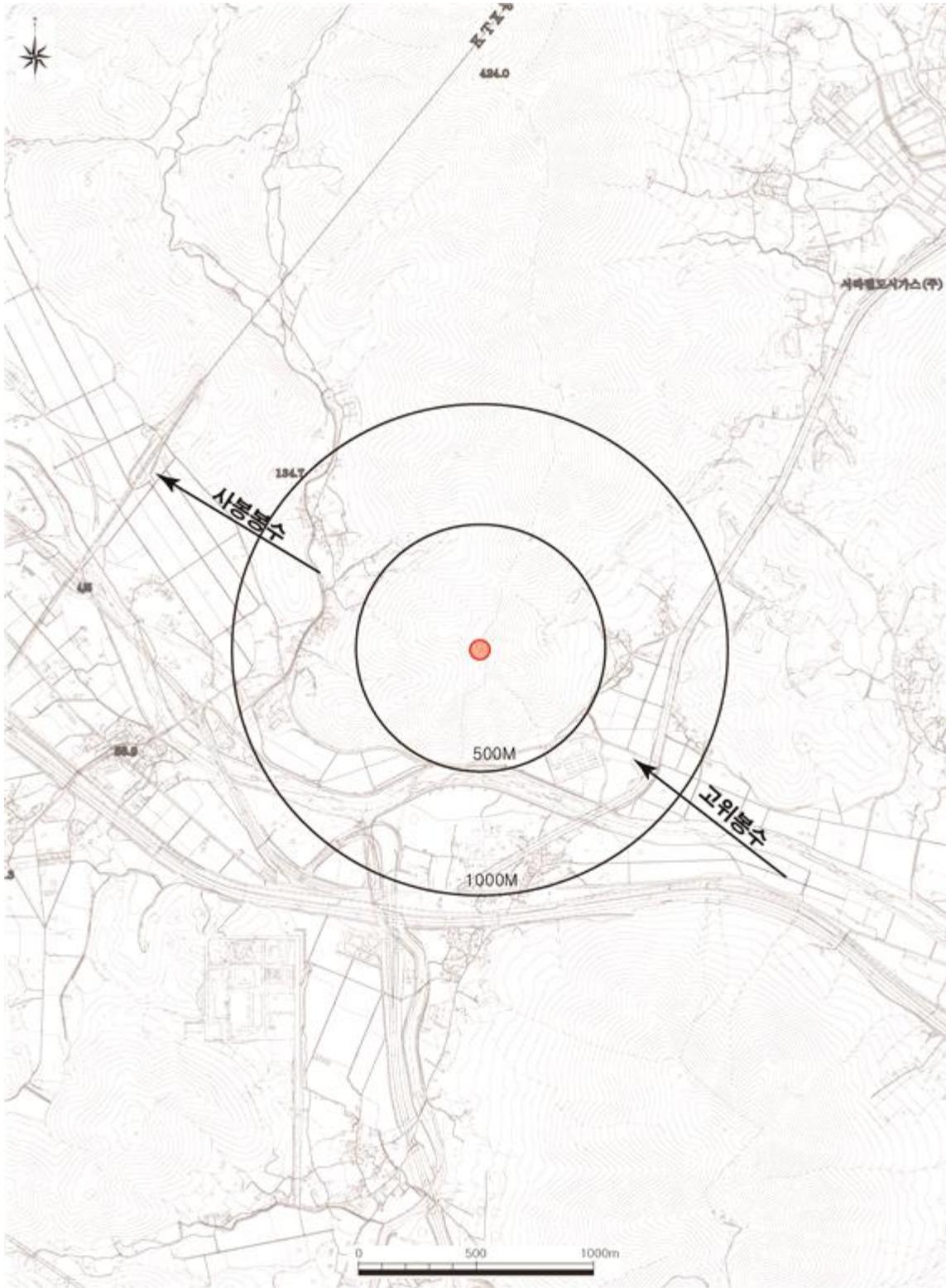
사진 1. 접포현봉수대에서 본 경주읍성



사진 2. 경주읍성에서 본 접포현봉수대



지도 1. 2거 직봉 노선 내 집포현봉수 위치



지도 2. 접포현봉수대 위치도(S=1/25,000)

2) 연혁

접포현봉수의 최초 지지기록은 『경상도지리지』부터다. 지지별 발간연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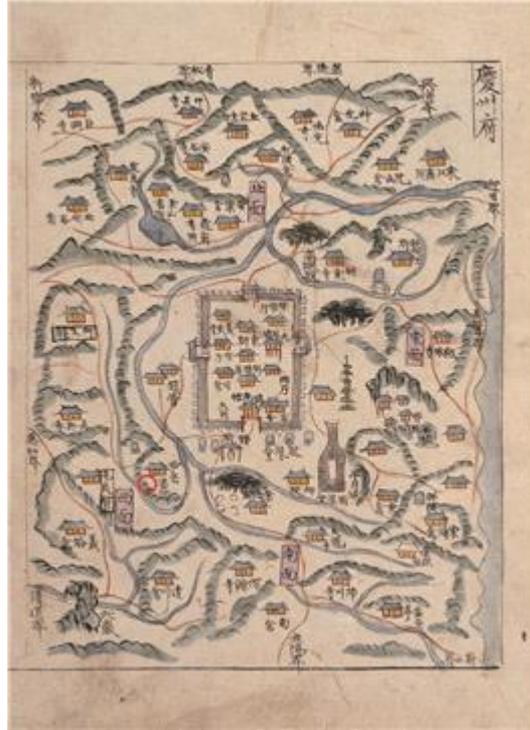
- 『慶尙道地理志』(1432) 慶州道 慶州府
烟臺烽火所在處及相准處并以施行事
연대봉화 소재처와 서로 겨누는 곳을 모두 기록한다.
乃布帖烽火 西望朱砂烽火 相去三十里
내포점봉화는 서쪽으로 주사봉화를 바라보는데, 거리는 30리다.
- 『世宗實錄』地理志(1454) 卷150, 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烽火九處 內布帖 西准本府朱砂
봉화가 9곳이다. 내포점은 서쪽으로 본부 주사에 겨눈다.
- 『慶尙道續撰地理誌』(1469) 慶州道 慶州府
烟臺烽火 乃布帖烽火 西與朱砂烽火相准
연대봉화는 내포점봉화인데, 서쪽으로 주사봉화와 서로 겨눈다.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卷21, 慶尙道 慶州府 烽燧
乃布帖烽燧 在府西二十六里 東應高位山 西應朱砂山
내포점봉수는 부의 서쪽 26리에 있다. 동으로 고위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주사산에 응한다.
- 『東京雜記』卷1, 烽燧
乃布帖烽火 在府西二十六里 東應高位山 西應朱砂山
내포점봉화는 부의 서쪽 26리에 있다. 동으로 고위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주사산에 응한다.
- 『輿地圖書』下(1760), 慶尙道 慶州鎮 慶州府 烽燧
內布帖烽燧 在府西二十六里 東應高位山 西報硃砂 相距二十里
내포점봉수는 부의 서쪽 26리에 있다. 동으로 고위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주사에 알리는데 거리는 25리다.
- 『慶尙道邑誌』第2冊, 「慶州府邑誌」(1832) 烽燧
蝶布峴烽燧 在府西二十六里 東應高位山烽燧 西報硃砂烽燧 相距二十里
접포현봉수는 부의 서쪽 26리에 있다. 동으로 고위산봉수에 응하고, 서쪽으로 주사봉수에 알리는데 거리는 20리다.
- 『大東地志』(1864) 卷7, 慶尙道 15邑 慶州 烽燧
蝶布峴 西二十六里
접포현은 서쪽 26리다.
- 『嶺南邑誌』卷1, 「慶州府邑誌」(1871) 烽燧
蝶布峴烽燧 在府西二十六里 東應高位山烽燧 西報硃砂烽燧 相距二十里
접포현봉수는 부의 서쪽 26리에 있다. 동으로 고위산봉수에 응하고, 서쪽으로 주사봉수에 알리는데 거리는 20리다.
- 『增補文獻備考』(1908) 卷124, 兵考16 烽燧2
初起 鷹峰(多大浦鎮) -- (中略) -- 蝶布峴(輿覽作 內布帖 備局臚錄作 蝶布山)) -- (中略) -- 第2炬準 天臨山
초기 응봉(다대포진) -- (중략) -- 접포현(여지승람에는 내포점이라 하였고 비국등록에는 접포산이라 하였다.) -- (중략) -- 제2 거는 천림산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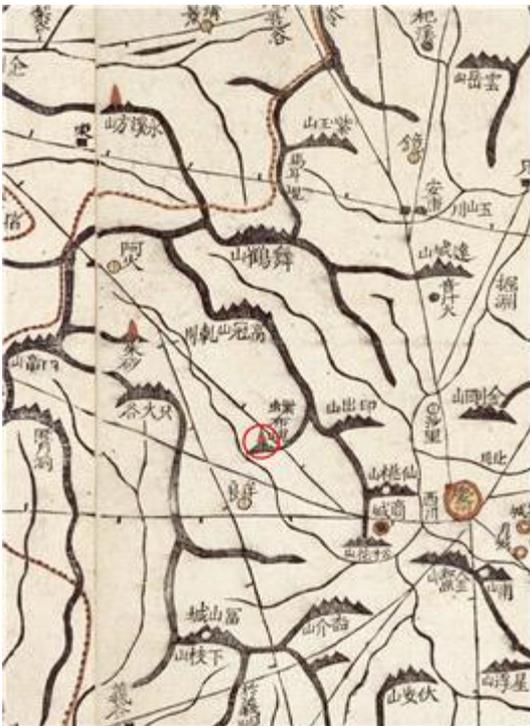
고지도 1. 『해동지도』 경주부



고지도 2. 『광여도』 경주부



고지도 3. 『지승』 경주부



고지도 4. 『대동여지도』(1861)



고지도 5. 『여지도』 경주부

3) 고지도

봉수는 많은 고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동지도』 경주부에는 하서지(下西知)·독산(禿山)·대현(大峴)·동악(東岳)·고위산(高位山)·접현(蝶峴)·주사산(朱砂山)·소산(蘇山)봉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봉수들의 위치는 표기해 두지 않았다. 접현(蝶峴)이 접포현(蝶布峴)봉수이며, 세부기록을 보면 ‘부의 동쪽에 있고 남쪽으로 고위산봉수에 응하고, 서쪽으로 주사산봉수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다. 접포현봉수는 경주읍성의 서쪽, 서악서원의 북쪽에 봉수가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여지도』, 『지승』에도 봉수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광여도』는 읍치의 서쪽에 접포현봉수가 있다. 『대동여지도』의 접포현봉수는 경주읍성의 서쪽에 위치한다. 경주와 접포현 사이에는 상성, 선도산, 송화산이 있고 접포현을 지나 주사봉수로 연결되는 도로변에 위치한다. 경주읍성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5. 봉수운영

조선 후기 경상좌병사 소관이었다. 봉수군 인원은 『영남읍지』(1871)에 “봉수별장(烽燧別將) 9인, 봉군(烽軍) 900명이다.”¹⁾라고 하였다. 이는 당시 경주부에 하서지봉수(下西知烽燧) 등 9기의 봉수가 있었기에 실은 각 봉수마다 ‘봉수별장 1인, 봉군 100명’이 속해 있었다.

같은 책 군총(軍摠) 가역(假役, 임시 역)에는 ‘봉수군 900명이다.’라고 하여 읍지 기록 당시의 실제 상황은 실역에 종사하는 인원이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6. 유구현황과 특징

1) 항공사진

봉수대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항공사진은 1954년 사진이다. 여기에 보면, 방호벽이 방형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봉수대 내부는 이 시기에도 분묘 2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봉수대를 모지로 전용한 상태였다. 방호벽 주변으로 환도가 일부 관찰된다.

2021년도의 지표조사를 통해 봉수대는 구릉 정상 가장자리를 따라 석축 평면 방형계의 방호벽이 설치되어 봉수대 내부는 분지 형태를 띤다. 특히, 봉수터의 북쪽은 경주천에 면하여 절벽으로 형성된 봉우리 지형이다. 방호벽 내에는 평탄지(추정건물지)가 확인된다.

2) 유구현황

봉수대의 규모는 동서 24.6m, 남북 25.2m, 둘레 90.2m이다. 방호벽 내외로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무성하여 통행이 곤란할 정도다. 지형상 동-서는 경사가 가파르며 북고남저, 서고동저형이다.

1) 『嶺南邑誌』 第1冊, 『慶州府邑誌』 軍額 本府.



사진 3. 접포현봉수대 일원 항공사진(1954년)

출입시설: 봉수대의 남동쪽에 있다. 방호벽이 개방된 곳을 출입시설로 사용하였다. 너비는 하단이 1.5m, 상단이 2.5m 정도된다. 출입시설은 남동쪽 모퉁이에 개방형으로 1개소가 있는데 폭은 2m 정도이다.

환도: 봉수대의 동쪽과 서쪽 2곳에서 확인되었다. 환도1은 방호벽에서 8m 떨어져 위치한다. 규모는 길이 47.5m, 너비 4.1m 정도이다. 환도2는 방호벽에서 19m 떨어져 있고 규모는 길이 30m, 너비 10m 정도이다.

방호벽: 봉수대는 남-북 장축의 산정에 토·석 혼축의 방호벽이 온전하게 남아 있으며, 방호벽 내에는 동-서로 석렬이 있는데 상부에 분묘가 1기 조성되어 있다. 방호벽의 석축은 동쪽이 온전한데 높이는 1.5m이며 상부 담장지의 폭은 1~1.2m이다. 내외면을 석축한 방호벽으로 잔존상태는 대부분 허물어져 외벽 일부만 관찰된다. 외벽의 높이는 1m 정도이며, 밑에는 큰 돌을 놓고 그 위에는 작은 돌을 놓았다. 내벽은 외벽보다 높이가 낮으며, 내외면 속채움은 석재를 이용했다. 면석은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였기에 겉으로 아주 조잡해 보인다. 소위 막돌 허튼층쌓기에 해당한다.

연조: 연조는 방호벽 내 서쪽에 위치했을 것으로 보이거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1) 유물

백자 1점과 다량의 기와편이 수집되었다. 기와는 모두 평기와이며, 암기와와 숫기와가 골고루 분포한다. 기와의 문양은 무문과 유문이 있으며, 유문은 호상문, 직선문+호상문, 직선문+국화문이 있다. 기와들의 외면 문양의 차이, 두께나 형태, 소성 정도에서 서로 다른 차이가 나타나므로 제작 시기가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기와의 수집량으로 볼 때, 상당히 큰 규모 또는 여러 동의 기와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특징

방호벽 내부는 북고남저의 상하 2단으로 되어 있다. 상단에 거화시설, 하단에 생활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입시설은 방호벽 남쪽에 개방된 형태로 확인되었다. 방호벽 동쪽과 서쪽 외부에 환도가 둘러져 있다. 방호벽 내에서 다량의 기와 수습되었는데 이는 기와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집된 기와 중 국화문 기와도 발견되어 상당히 큰 규모의 건물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7. 지정가치와 근거기준

1) 조선시대 내지봉수의 설봉과 최종 폐봉까지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는 통신시설이다.

- 조선 전(全) 시기 발간의 지지(地誌) 기록을 통해 봉수 한자표기의 차이를 통한 다양한 명칭 확인과 전·후대 응봉수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다.

- 조선 후기 발간의 『광여도』(19세기 초)와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등의 고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2)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다양한 유물 수집되어 봉수 운영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봉수대는 방호벽과 환도 그리고 많은 유물을 수집하였다.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봉수대의 훼손이 적은 편으로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이러한 잔존 현황을 통해 봉수가 운영되었을 당시를 유추할 수 있으며, 봉수군이 봉수대에 주둔하면서 생활하였던 생활상도 파악할 수 있다.

3) 내지봉수로서 주변 교통로의 조망에 탁월한 입지이다.

- 고려시대 22개 역도 중에 경주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경주도는 경주 관내의 역을 아우르면서 동해안의 예주

방면으로 뻗은 역로망이었다. 경주도의 교통로는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곳이었다.

- 영남좌로를 통해 경주과 영천, 군위, 의흥으로 넘나들던 이들을 살피기에 좋은 곳에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다.

4) 경주부 치소에서 봉수가 바로 후망되는 근거리에 입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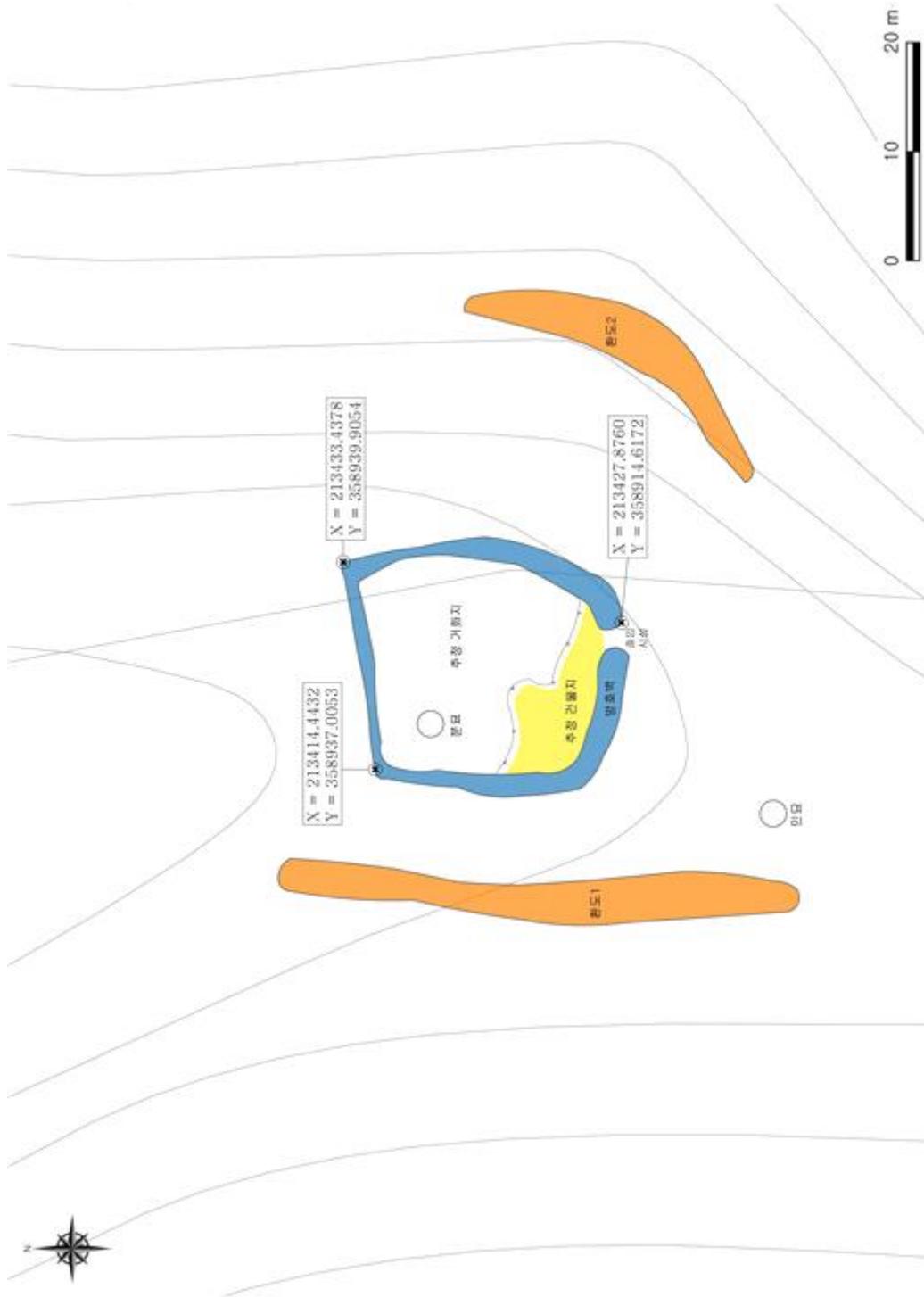
- 경주읍성에서 서북쪽의 봉수까지 6km 떨어져 있다. 치소에서 약간 거리가 있다.
- 치소와 봉수 사이에는 중간에 경주천이 흐르고, 동-서 좌우에 경주평야의 형성으로 치소와 좀 떨어져 있어 가시권이 확보된다.

5) 봉수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 일부 봉수유적의 경우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입지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반면, 접포현봉수는 경주시 소재지에서 남서쪽으로 6km 내 거리이고 고란길에서 북쪽으로 약 500m 거리의 해발 235m 되는 나지막한 봉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다.

6)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친 봉수유적의 변화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유적.

- 조선 초기의 기록(경상도지리지)에서 구한말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에 이르기 까지 빠짐없이 올라 있는 2거 직봉의 핵심 봉수 중의 하나로 발굴조사를 실시하면 봉수유적의 시대적 변화(고려 말 이후 조선시대 전 기간)를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유적이기도 하다.



도면 1. 접포현봉수대 현황도(S=1/400)



사진 4. 접포현봉수대 원경



사진 5. 접포현봉수대 내부



사진 6. 방호벽 평면



사진 7. 방호벽 외벽



사진 8. 출입시설



사진 9. 환도1



사진 10. 환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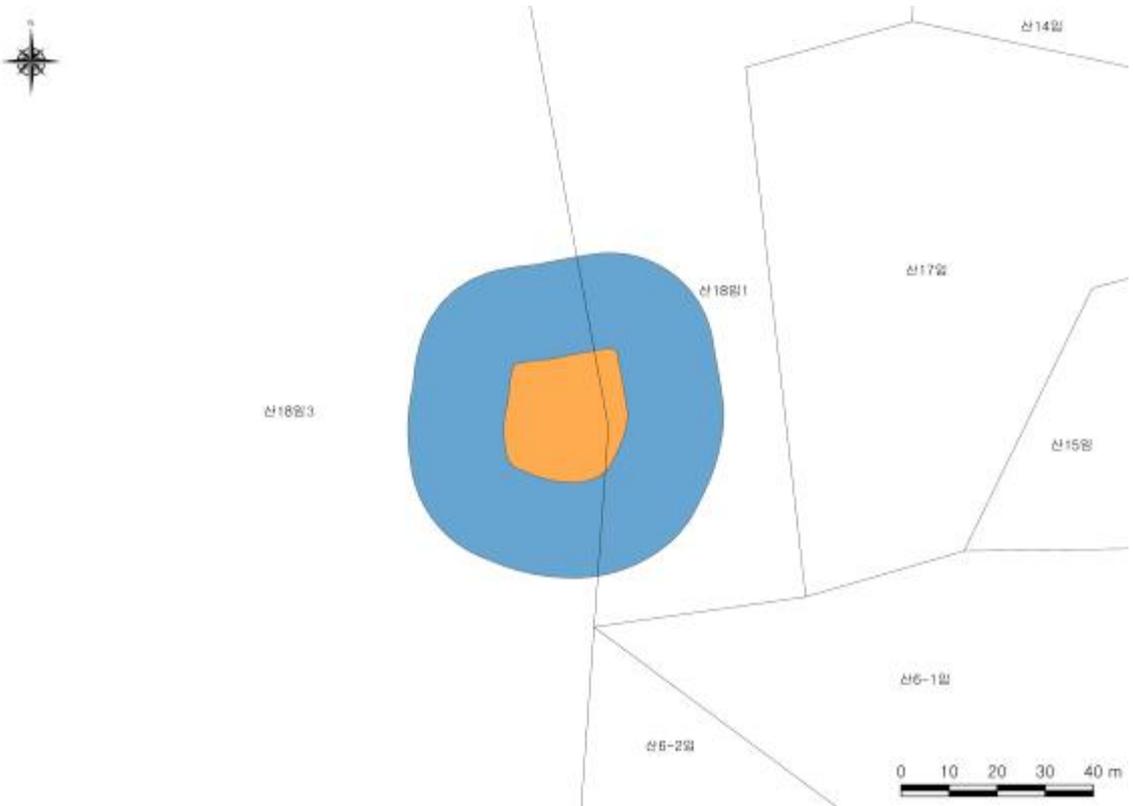
사진 11. 접포현봉수대 주변 채집유물



사진 12. 점포현봉수와 대응봉수



사진 13. 점포현봉수대와 경주읍성 위치



도면 2.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S=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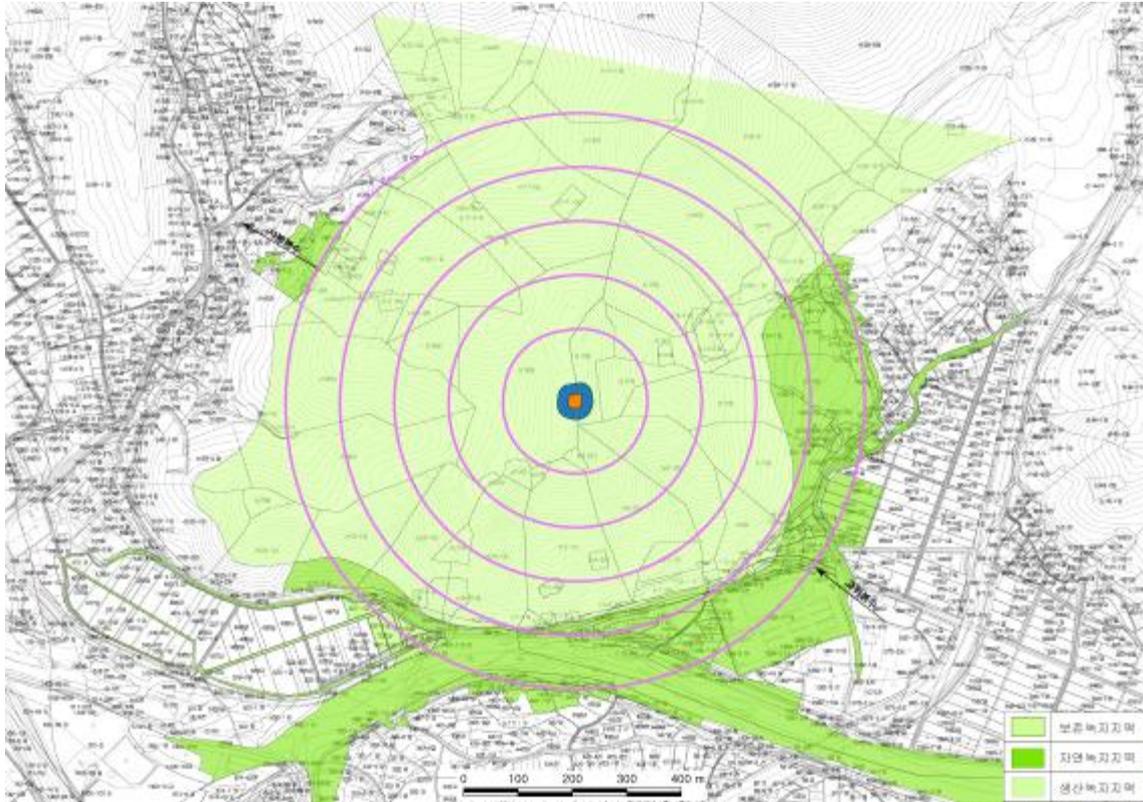
도면 3.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

9.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1) 검토의견

접포현봉수 전·후 대응노선 봉수의 방향을 고려한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

경주시	경주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p>▣ 대상문화재 제2로 직봉 - 경주 접포현봉수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산18번지 일원</p> <p>▣ 문화재 및 보호구역  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보호구역</p> <p>▣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간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p> <p>▣구역별 허용기준</p>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 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람,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0. 보존·정비와 활용 착안사항

1) 기본구상

(1) 기본방향

① 기본원칙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1.6.10.] [법률 제17409호, 2020. 6. 9. 일부개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문화재청, 2002)

- 문화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문화재 활용은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사업의 소재로서 개발·활용하며,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육성한다.

『유적(遺蹟) 등 정비계획 수립·추진관련 고려사항』(문화재청, 2003)

- 가치(원형) 보존 최우선: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복원·정비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비를 지양하고, 유적의 가치와 역사적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명확한 정비목표 수립: 유적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적 정비를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한다. 보존과 복원·정비되어야 할 것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 :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고, 유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방향 설정

경주시의 접포현봉수에 대한 정식 학술조사는 실시된 바 없어 지금까지 별다른 보존·정비와 관리계획은 없었다. 이에 합리적인 보존·정비와 관리안을 상기 기술한 기본원칙에 따라 타 시·군 소재 봉수의 보존·정비와 관리사례를 검토하고 주변 현황과 여건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 봉수대의 보존·정비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도모하고,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과 부산시의 역사문화관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동선체계 등 기반시설의 확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봉수는 조선시대 500여년간 변경의 안위(安危) 여부를 전·후 대응봉수간 차차거화(次次擧火)를 통해 최종 중앙에 알리던 호국군사통신 유적으로서, 성격에 의한 구분상 연변봉수(沿邊烽燧)에 해당한다.
- 봉수는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평안을 상징하는 1거의 햇불[平安火·太平火]을 올림으로서 과거 동래현과 인근 고을 백성들이 이를 바라보고 일상을 무리하는 순기능도 있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부산시 소재 전체 11개소 봉수의 보존·정비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봉수대의 잔존 방호벽과 연대 등의 역사적 실체를 보존·정비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시킨다.
-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활용되었던 봉수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정보통신 발달의 상징적 유적으로 보존·관리한다.
- 경상도와 충청도·경기도를 거쳐 최종 서울 목멱산봉수로 이어지는 연변 및 내지봉수 체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원한다.

(2) 기본전제

① 잔존 봉수 유구의 보존과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

봉수대의 핵심요소인 거화시설(연조)과 방호시설(방호벽) 및 생활시설(주거지)을 대상으로 보존·정비하여 접포현봉수의 문화재적 가치가 표출되도록 한다.

② 역사문화자산 가치 증진 및 화제성 창출

과거 봉수체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던 당시에 봉수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봉수군과 봉수운영 관련 된 기록과 내용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유적과 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화제성이 창출되도록 정비한다.

③ 대응봉수와의 조망을 위한 가시권 확보

입지조건상 동남쪽으로 경주부의 옛 치소가 잘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한 봉수는 인근 대응봉수와의 후망을 통해 경주지역과 고을 백성들에게 변경의 안위여부를 알리던 군사통신유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적 강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계획한다.

조선 후기에 최종 설정된 대응봉수인 구토현봉수와 토을산봉수와의 가시권 확보의 봉수 주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식생이 양호한 기존의 자연경관 유지 방안을 제시한다.

④ 주연야화(晝煙夜火) 통신의 특징을 살린 ‘체험과 교육의 장’ 조성

햇불과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 소식을 전하였던 봉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적의 복원보다는 체험과 실연(實演)을 통한 거화의 과학적 원리를 교육한다.

기존의 진입로를 활용하여 최적의 보행환경과 교육적 기능을 갖춘 탐방로 조성을 통해 접포현봉수의 500여년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⑤ 주변 문화자원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

봉수는 읍치인 경주읍성과 6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읍치와 조금 떨어져 있으나 당시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읍치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주읍성 외에도 ‘석빙고, 경주향교’ 등이 봉수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봉수와 인근 유적을 통합적으로 연계·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⑥ 실현가능한 세부추진사업 도출과 단계별 사업시행

경주시의 재정여건이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토지 매입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필요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3) 종합구상

① 추진사업 계획

역사적 실체 보존 사업을 실시한다.

- 식생정비(소목 간벌), 봉수 내부 잔디 식재, 봉수군 주거지 정비 등 문화자원 연계 개발사업을 실시한다.
- 탐방로(봉수군 길) 정비, 스토리텔링 개발, 체험 프로그램 및 축제 개발, 봉수 C.I개발, 동선표지판·전망시설 및 망원경 설치 등을 진행한다.
- 읍성과 봉수 등 관방체계 알림 사업을 병행한다.
- 주변봉수와 읍성 등 주변지역의 관방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 주차시설이 필요하다.

② 토지이용계획

봉수대 일원은 개인 소유의 임야로서,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산18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봉수 보호면적은 597㎡이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토지대장, 2021.9.)

현재 접포현봉수를 찾는 탐방객은 소수에 불과하여 고란길 옆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주차하고 봉수대로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제2거 직봉 노선 봉수의 사적지정이 확정되고 보존·정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시 탐방객에게 보다 쾌적한 역사경관과 편리한 탐방 환경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

③ 동선계획

본 계획에서는 봉수구역과 진입광장 및 주차구역으로 나누고 각 공간별로 기능을 배분하였다. 특히, 진입광장 및 주차구역에는 방문객이나 차량의 접근 동선과 관련된 공간 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험교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봉수대의 탐방동선은 기존에 조성된 산책로를 그대로 이용하되, 전통적인 분위기 연출과 유지관리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야자매트나 경화흡포장으로 한다.

또한, 탐방객의 주동선이 되는 기존 산책로를 활용하여 봉수에 대한 관심유발과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2) 보존과 정비활용계획

(1)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확대지정

① 향후, 제2거 직봉 노선의 봉수를 사적(史蹟)으로 승격 시 문화재지정구역의 확대 및 대응봉수간의 조망과 가시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접포현봉수를 중심으로 동쪽의 고위봉수, 서쪽의 사봉봉수를 잇는 조망과 이를

있는 가시권 확보가 필요하다.

② 봉수대 주위의 수목을 선별적으로 간벌하여 대응봉수간 조망이 가능하도록 정비 할 필요가 있다.

③ 봉수대 주변 식생이 양호한 임야는 가급적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④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확대는 기존 현상변경허용기준 적용구역의 확대를 수반한다. 인접 봉수간의 조망 확보를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아울러 보호구역 외곽 200m 정도는 1구역 (개별 심의) 또는, 2구역 <최고높이 8m이하(평지붕), 최고높이 12m이하(경사지붕)>으로 설정하여 역사문화 환경과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⑤ 진입로에서 봉수대의 원경을 볼 수 있도록 간벌 등을 통해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봉수군들이 이용했던 소로(진입로)는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이 길을 통한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2) 보존계획

① 봉수유적 보존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는 방호시설인 방호벽과 출입시설 그리고 환도 등이 잔존하고 있으나,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후 13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봉수 내외로 수풀잡목이 무성하여 그 형태를 뚜렷하게 확인하기 곤란하다.

- 따라서, 과거 봉수의 운영당시 원형구조를 밝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수를 구성하였던 제반 요소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비와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에 대한 최근의 현황조사를 통해 전체 구조의 확인이 가능함으로 이를 바탕으로 운영당시의 모습대로 단계적으로 정비·복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조선시대 내지봉수의 형태와 기능을 학습·체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공간으로 조성한다.

다. 추진방법 및 절차

- 먼저 방호시설인 방호벽과 추정 봉수군 주거지에 대한 원형구조를 확인한다.

- 연조가 발견된 지점 주위 수풀잡목을 간벌하고 방호벽 내부에는 잔디를 식재하여 보존한다.

② 수목 간벌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 내·외는 현재 무성한 수풀잡목으로 대응봉수와의 조망이 곤란하거나 유구 훼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적절한 간벌을 통하여 유적 보존 및 가시권(可視圈)을 확보한다.

나. 사업내용

- 현재 봉수대 내부와 주변에는 수목이 들어차 있어 대응봉수의 조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목을 선별적으로 벌목하여 대응봉수인 고위봉수와 소산봉수에 대한 조망을 개선한다.

다. 추진방법

- 벌목작업은 봉수유구의 보존, 주변경관 조망, 봉수의 제반요소 관찰 등에 장애를 주는 수목부터 선별하여 실시한다.

- 봉수대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경관이 확보되도록 수목을 제거한다.

- 고관길(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봉수대로 향하는 수목을 정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동선을 유도한다.

(3) 정비·활용계획

① 전망시설과 휴식공간 설치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의 정체성과 주요 기능은 대응봉수와 의 시각적 연결에 있다. 현재, 봉수대는 내·외부의 수목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제한적이고, 전체 봉수유구 살펴볼 수 없다. 조선시대 봉수는 대응봉수와 의 조망과 주변 관찰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였으므로 이러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 주변 적당한 곳에 봉수의 전체 구조와 대응봉수, 주변 자연환경, 시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조선시대 봉수의 입지선정 원리를 체감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과 절차

- 전망시설은 봉수대 주변 시야가 가장 좋은 지점에 설치하되,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봉수의 역사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안내판에 대응봉수를 촬영한 사진을 표시하여 눈앞에 펼쳐진 전경과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망시설에는 망원경 등을 설치한다.
- 전망시설 하부나 주위에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방문객에게 휴식과 사색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② 봉수군 탐방로 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고란길(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봉수로 이어지는 ‘봉수군 탐방로’를 조성하여 문화콘텐츠로 활용한다.

나. 사업내용

- 탐방로를 개설하고, 봉수 관련 이야기와 비품 등을 소개함으로써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과거 봉수의 기능과 운영 및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노변(路邊) 전시관 기능을 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

- 기존의 길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요 지점에는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고 벤치 등의 휴식시설을 도입한다.
- 안내판의 내용은 경북권 내 경산(現 대구 수성구) 성산봉수(城山烽燧)의 비치 물목을 토대로 봉수운영에 필요한 비치물목상의 거화재료나 생활비품 등을 선별하여 사진자료와 함께 해설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烟臺一 烟窟一 望德一 火德一 積草五訥 鳥外石五訥 無稜石五訥 吐木五訥 烟炬三柄 松炬五十柄 草炬五十柄 柎炬五十柄 艾五同 牛糞五同 馬糞五石 炭五石 細沙五石 糲糠五石 防牌五坐 排火木五介 法手木五介 水桶五箇 菱鐵二十箇 古乙羅木二十五箇 木斧子二十柄 滅火器五坐 麻注乙里二十沙里 前梯一 水樽五坐 縣瓢子五介 火箭九柄 唐火箭九柄 長箭一浮 片箭一浮 黑角弓一張 桶兒一介 大白旗一面 鉛丸三十箇 火藥五兩 鳥銃一柄 環刀一柄 長槍一柄 火繩六沙里 細繩三沙里 條乙所三沙里 火鐵石二介 水瓮五坐 釜一坐 食鼎一坐 爐口一坐 匙五持 沙鉢五立 空石十立 接匙五竹 瓦家五間 種火盆一坐 草席二立 抹木十八箇 火桶五介 燒木五同 戰角一雙 待賣米一石 鎌子四柄 盤五立 三穴銃一坐 火綿一 掩頭一部 掩心一部 五色布旗五面 鼓一坐 錚一坐 火鐵十介 生松一訥 橫一坐

(『嶺南邑誌』第7冊, 『慶山縣邑誌』(1871) 烽臺)

(4) 봉수 거화(擧火) 실연(實演) 행사

① 추진배경과 목표

봉수는 연기[주간]와 불[야간]로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시설인 만큼 실제 거화(擧火)나 거연(擧煙) 같은 실연(實演)행사의 실시를 통해 선조들의 봉수운영 원리를 체득하게 한다.

② 사업내용

연기와 불이라는 시각신호로 변경의 안위여부를 전달하였던 봉수의 연조 형태와 구조, 거화재료의 종류와 배합 등을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이 실증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크기의 연조를 제작한 후 실연(實演)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③ 추진방법과 절차

가. 실연행사를 할 수 있는 연조(煙竈)를 제작하되 설치장소는 행사 시 화재발생이나 유구 훼손에 대비하여 유적과 일정거리 떨어진 곳으로 한다. 연조의 크기와 구조 등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다.

나. 거화재료[화]는 경산 성산봉수 비치물목을 참고하여 준비하고 전통방식에 따라 제작한 후 사용한다. 행사의 진행은 지역 문화단체가 담당하고 연중 개최 시기는 ‘신년, 정월대보름, 8·15광복절, 경주시민의 날’ 중 의미 있는 날을 정하여 열도록 한다. 그리고 경주는 현재 문화재야행, 신라문화제, 도자기축제 등 연중 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 때 봉수 실연행사를 선보이는 것도 봉수를 알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5) 관리운영계획

① 관리운영 주체

경주시에서 관리

(경주문화재단 등 문화재 관리 기관에 위탁관리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 목표

가. 접포현봉수대의 보존과 유지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

나. 탐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도모

다. 접포현봉수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의 극대화

라. 유적의 학술적 가치 극대화와 신규 문헌 발굴 등

③ 관리운영사항

가. 봉수대 유적

- 접포현봉수대 일원

- 접포현봉수대 주변 탐방로 등

나. 자연환경

- 접포현봉수대 주변 수목 및 지형

- 주변 생태환경, 녹지 등

다. 시설물

- 탐방로, 전망시설 등

- 안내판, 방향지시판, 휴게시설 등

-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라. 탐방객을 위한 서비스

- 홍보, 해설, 전시, 축제행사 등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④ 사업 추진절차

가. 문화재지정구역 및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는 먼저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정밀 문화재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한 후 도출된 조사결과에 따라 정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입 → 조사(발굴) → 정비의 순이다. 점포현봉수는 정식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비단계에 따르되 대상지가 안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복원·정비의 단계를 결정한다.

나. 매입 단계는 정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국·공유지화 하는 단계로서 대상지의 지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 파악과 매입에 예상되는 비용 및 매입의 원활성을 판단하여 정비의 선후를 결정한다. 점포현봉수의 정비사업은 대상지 내 유선 봉수대를 중심으로 매입하고 이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⑤ 순차별 사업계획

가. 봉수대의 보존·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체 사업비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초기 2년의 정비를 단기정비로 설정하고 이후의 계획 중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기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단기사업은 정비사업의 기간 및 지자체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나. 보존·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추진 절차, 시급성,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다. 봉수대 보존과 주변정비사업은 방호벽과 출입시설 정비, 식생정비[간벌 등], 전망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정비사업의 원칙은 유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선정한다.

라.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편리하고 쾌적한 출입 및 동선체계 구축을 위한 주차장마련 및 진입광장 조성 사업을 단기에 시행하고 관광 역량 제고를 위한 간이안내소 설치나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은 중기에 진행한다.

마. 이들 추진사업은 경주시청의 정책 순위 변경과 주민들의 요구도, 제반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1. 종합의견

- 1) 경주 점포현봉수는 조선시대 전체 5거노선의 봉수 체계에서, 부산에서 초기하는 제2거 직봉의 열 다섯번째 내지봉수이다. 문화재청의 2014년 현황조사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방호벽과 출입시설, 추정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 2) 점포현봉수대의 평면 형태는 방형이고 봉수 보호면적은 597㎡ 정도이다. 방호벽과 출입시설외 추정 건물지가 금번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봉수의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봉수 내에서 많은 유물이 수집되었다. 봉수의 구조와 운영 방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봉수유적이다.
- 3) 방호벽 내부로 상단(上段)과 하단(下段)으로 구분하였고 상단은 거화시설, 하단은 생활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방호벽 주변으로 환도가 둘러져 있어 봉수의 정비와 주변 조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 4) 경주지역은 교통과 봉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충지였다. 부산 다대포 응봉봉수에서 초기한 직봉과 동래

간비오봉수에서 초기하는 간봉(1)의 봉수들이 차차거화(次次擧火)를 통해서 북상하면서, 경주지역에 모이는 결절점(結節點)에 위치하고 있다. 봉수의 규모가 큰 이유 중에는 이러한 조건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5) 조선 전기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1425)에서부터 구한말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1908)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지에 빠지지 않고 등재되어 있고 제2거 직봉 노선의 주요 봉수다.
- 6) 봉수는 단일 유적보다는 통신체계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 노선별 주요봉수, 잔존상태, 역사성, 지정번호 부여방식 결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적지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문화재 종류

1) 사적

- 창팔래산봉수(昌八來山烽燧)는 비지정문화재로서 부산 다대포 응봉봉수(鷹峰烽燧)에서 초기(初起)하는 제 2거 직봉노선의 스물여덟번째 내지봉수인 ‘봉화 창팔래산봉수유적(奉化 昌八來山烽燧遺跡)’을 같은 노선의 봉수와 연계하여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2. 문화재 명칭

1) 문화재명 : 제2로 직봉 - 봉화 창팔래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奉化 昌八來山烽燧遺跡)

- 봉수유적은 연속유산으로서 노선 단위 지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정명칭은 “본 명칭 - 부 명칭”의 형식으로 부여토록 한다. 여기서 본 명칭은 대표성이 높으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 2로 직봉(第2路 直烽)”으로 한다.
- 부 명칭은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라 봉수명칭 앞에 현 행정구역 소재지인 ‘봉화(奉化)’를 표기한다.
- 봉수명칭은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이후 조선 최후기 봉수망을 알 수 있는 『증보 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의 명칭과 한자표기를 따라 ‘창팔래산봉수유적(昌八來山烽燧遺跡)’으로 표기한다.
- 따라서, 최종 봉수명칭은 ‘제2로 직봉 - 봉화 창팔래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奉化 昌八來山烽燧遺跡)’(이하 ‘창팔래산봉수’라 한다)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명칭유래

봉수는 시기별로 발간된 지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자표기 및 조선 전(全) 기간같은 명칭으로 지칭되었다. 다만, 어두(語頭)가 ‘昌 → 蒼’으로 한자표기의 차이가 있다.

- 창팔래산봉수(昌八來山烽燧) : 『여지도서』, 『영천군읍지』, 『경상도읍지』, 『여도비지』, 『대동지지』, 『영남읍지』 「영천군읍지」(1871), 『영남읍지』 「영천군지」(1895), 『영천군읍지』, 『영천군읍지지도』
- 창팔래산봉수(昌八來山烽燧) : 『증보문헌비고』

녹전산봉수에서 영주 소이산(성내산)봉수로 직접 전달할 때는, 녹전산 혹은 성내산 신호를 받은, 서산(용점산)봉수는 봉화현치(봉성면사무소 부근)에만 전하고, 봉화점(당북산)은 내성현치(봉화군청 부근)에만 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노선은 시기에 따라 여러 번 노선 변동이 있었던 곳이다.

창팔래(昌八來)의 ‘八(밝·불·불)’은 고대어에서 ‘서쪽’을 가리키는 말이다. 빛을 가리는 ‘밭(가리개)’은 강한 서쪽 빛을 가리기에 ‘밭(서쪽)’로 불리게 되었고, 군위의 옛 지명 ‘적라(赤羅: 불내)’ 역시, ‘서쪽 시내’에서 온 이름이다. 來는 조사 ‘-에, -레’에 해당되며, 창(昌)은 지명에서 ‘빛·밝다’를 뜻하는 말이니, 팔래(팔래→불에→밝다, 서쪽)의 의미를 한자화하여 덧붙인 것이다. 서산봉수는 용점산봉수가 바뀌어 기록되기 이전 이름인데, 임란 이후 창팔래산봉수를 신설하면서, 서산봉수의 본래 이름이었을 ‘팔래(팔래→불에→서쪽에)’를 이곳에 붙인 것이다. ‘창팔래산’은 봉화현(봉성면)의 서쪽 용점산과 연장선 위에 있고, 부근에는 지금도 ‘서산골’ 지명이 있다.

상운면 구천리 창팔마을 서쪽의 두월리 덕골마을로 넘어가는 고갯마루 산정이 과거 봉수터다. 임란 후 『여지도서(1757)』 편찬 이전, 임란 이후 직봉 노선의 재조정 시기에 창팔래산과 영주의 사랑당봉수가 신설된 후 ‘녹전산→창팔래산→용점산→당북산→사랑당→성내산’ 노선으로 재조정된 곳이다.

3. 봉화지역의 봉수현황과 성격

- 봉화지역에는 최초 설봉(設烽)과 폐봉(廢烽)시기가 다른 총 5기의 봉수(창팔래산·용점산·당북산·건이산·사랑당)가 소재하고 있다, 봉수의 성격에 의한 구분상 모두 육지내륙 소재의 내지봉수(內地烽燧)다.
- 이 중 ‘건이산봉수(牽伊山烽燧)’는 『신증안동부여지지(新增安東府輿地誌)』(1745)봉수에 “당북산봉수(堂北山烽燧)는 내성현 남쪽 3리에 있다. 중간에 산사태로 무너져 건이산에 옮겨 설치했는데, 내성현 동남쪽 10리에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조선 후기인 18세기 중엽 이전 당북산봉수는 산사태로 무너져 인근 건이산으로 이설하였고, 본래의 터는 폐하였으나 봉수명칭은 ‘당북산봉수’ 명칭을 유지하였다.
- 따라서, 고종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가 최종 폐지될 때까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었던 봉화지역의 봉수는 ‘창팔래산·용점산·당북산·사랑당’ 등 4기이다.

4. 창팔래산봉수의 입지와 연혁

1) 입지

봉수대는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구천리 산102-2번지 일원의 해발 273.4m인 산정상부 남-북 장축의 능선상에 위치한다. 안동~봉화간 5번 국도에서 ‘야옹정’을 끼고 창팔마을로 진입하면 봉골 정면의 산이 봉수대가 있는 곳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이외 다른 길은 영주시 이산면 두월삼거리 못미처 우측 구천리 창팔마을로 진입하여 한우농장을 지나면 고개변에 바라보이는 봉우리가 봉수대가 설치된 곳이다.



사진 1. 구천리 창팔마을 입구



사진 2. 창팔래산봉수 원경

2) 연혁

봉수의 최초 지지기록은 『여지도서』 부터이며, 최종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지지에 문헌기록이 있다. 각 지지별 발간연도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輿地圖書』下(1760), 慶尙道 安東鎭管 榮川郡 烽燧
 新增 昌八來山烽燧 在郡東三十里 東應禮安綠轉山 北報奉化龍站山 相距二十里
 신증 창팔래산봉수는 군의 동쪽 30리에 있는데, 동으로 예안 녹전산에 응하고, 북으로 봉화 용점산에 알린다. 거리는 20리다.
- 『榮川郡邑誌』(1786) 烽燧
 新增 昌八來山烽燧 在郡東三十里 東應禮安綠轉山 北報奉化龍站山 相距二十里
 신증 창팔래산봉수는 군의 동쪽 30리에 있는데, 동으로 예안 녹전산에 응하고, 북으로 봉화 용점산에 알린다. 거리는 20리다.
- 『慶尙道邑誌』第14冊, 「榮川郡邑誌」(1832) 烽燧
 昌八來山烽燧 在郡東三十里 東應禮安綠轉山 北報奉化龍站山 相距二十里
 창팔래산봉수는 군의 동쪽 30리에 있는데, 동으로 예안 녹전산에 응하고, 북으로 봉화 용점산에 알린다. 거리는 20리다.
- 『輿圖備志』(1856) 卷8, 慶尙道 左道 榮川郡 武備 烽燧
 昌八來山 治東三十里
 창팔래산은 치소의 동쪽 30리다.
- 『大東地志』(1864) 卷8, 慶尙道 25邑 榮川 烽燧
 昌八來山 東三十里
 창팔래산은 동쪽 30리다.
- 『嶺南邑誌』第15冊, 「榮川郡邑誌」(1871) 烽燧
 城內山烽燧 在郡北距十里
 성내산봉수는 군의 북쪽 10리에 있다.
 昌八來山烽燧 在郡東距三十里
 창팔래산봉수는 군의 동쪽 30리에 있다.
- 『嶺南邑誌』第24冊, 「榮川郡誌」(1895) 烽燧
 城內山烽燧 在郡北距十里
 성내산봉수는 군의 북쪽 10리에 있다.
 昌八來山烽燧 在郡東距三十里
 창팔래산봉수는 군의 동쪽 30리에 있다.
- 『榮川郡邑誌』(1899) 烽燧

昌八來山 在郡東三十里 今廢 東應禮安縣綠田山 北應奉化縣龍站山 壬辰亂所爲設元

창팔래산은 군의 동쪽 30리에 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동으로 예안현 녹전산에 응하고, 북으로 봉화현 용점산에 응한다. 임진란때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 『榮川郡邑誌地圖』(1899)烽燧

新增 昌八來山烽燧 在郡東三十里 今廢

신증 창팔래산봉수는 군의 동쪽 30리에 있다. 지금은 폐지되었다.

- 『增補文獻備考』(1908)卷124, 兵考16 烽燧2

初起 鷹峰(다대포진) -- (中略) -- 祿轉山 昌八來山 龍站山 -- (中略) -- 第2炬準 天臨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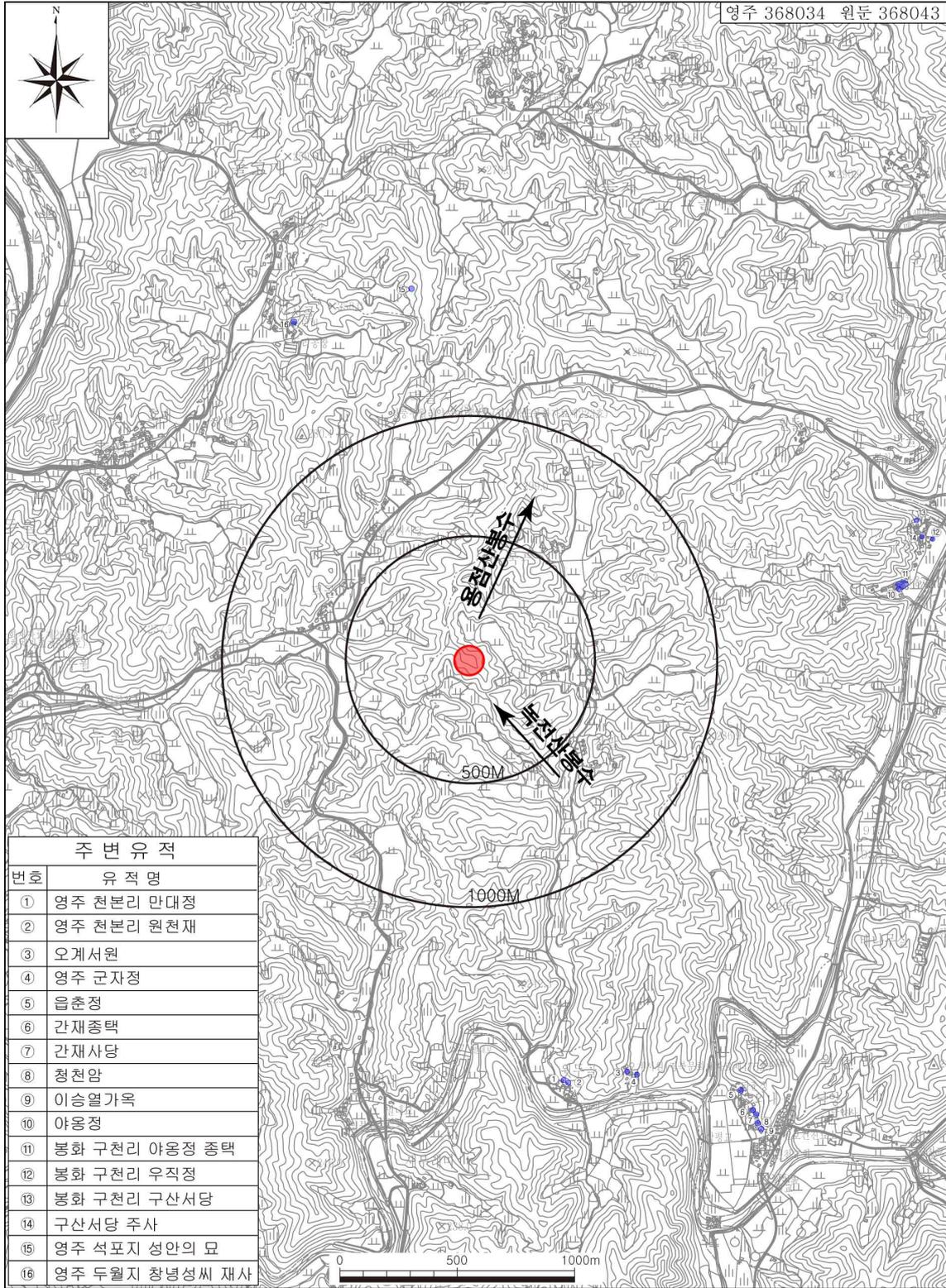
초기 응봉(다대포진) -- (중략) -- 녹전산 창팔래산 용점산 -- (중략) -- 제2거준 천림산

위 지지의 내용을 시기별로 검토하면 후기 발간의 『여지도서』에 경상도 안동진관 영천군(榮川郡) 소속의 창팔래산봉수 명칭으로 “군의 동쪽 30리에 소재한다. 동쪽으로 예안 녹전산봉수에 응하고 북쪽으로 봉화 용점산봉수에 알리고 20리 거리이다.”라고 하였다.

『여지도서』의 발간 이전 시기에 동쪽과 북쪽으로 응하도록 설정된 대응봉수 노선은 최종 고종 32년(1895) 윤 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시까지 노선의 변동없이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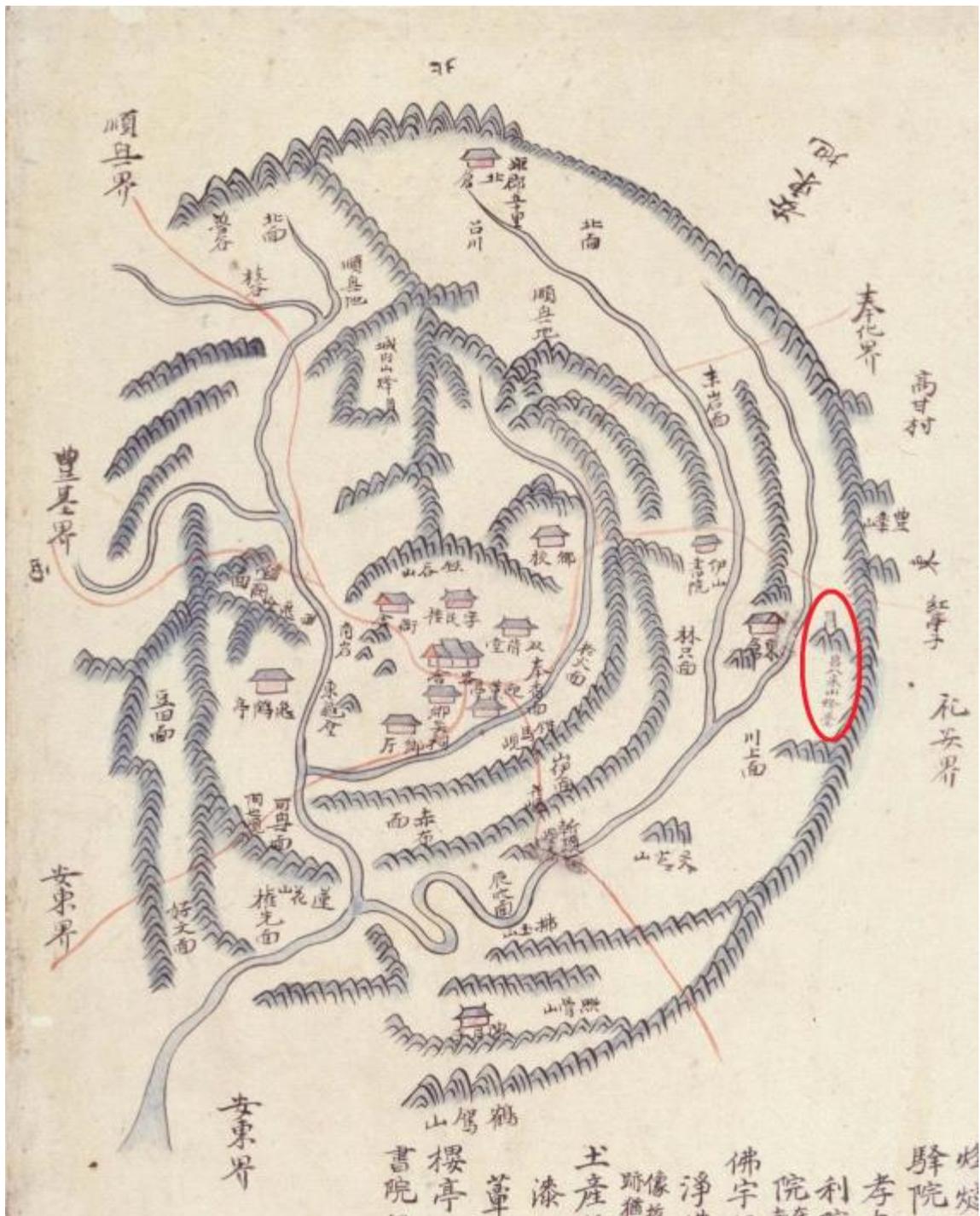


지도 1. 2거 직봉 노선 내 창팔래산봉수 위치



지도 2. 창팔래산봉수대 위치도(S=1/25,000)

3) 고지도



고지도 1. 『해동지도』 영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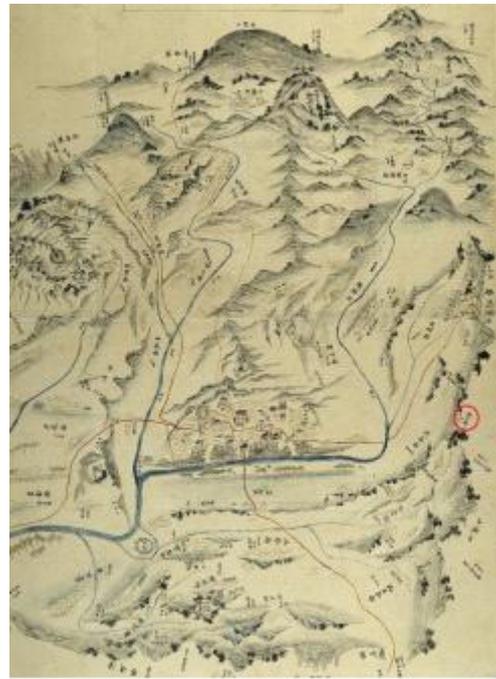
고지도 2. 『광여도』 영천군



고지도 3. 『지승』 영천군



고지도 4. 『대동여지도』(1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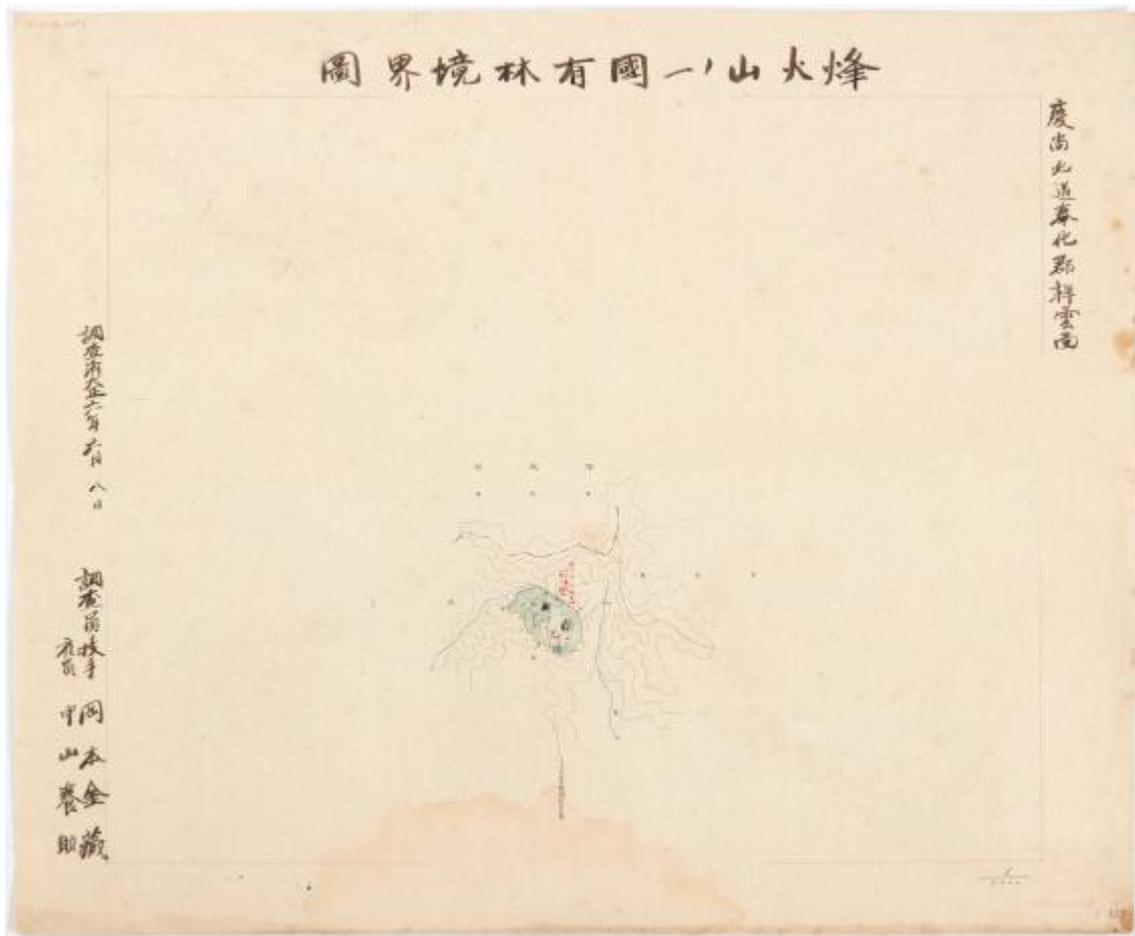
고지도 5.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5. 봉수운영

- 조선 후기 경상좌병사 소관이였다. 봉수군 인원은 『영남읍지』(1871·1895)에 “봉수군 100명, 별장 1인, 감고 1명이다.”¹⁾라고 하여 ‘별장·감고·봉수군’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일제강점기의 조사

- 봉화산국유림경계도
 - 일제 강점기인 1917년 6월 8일, 일인(日人) 조사원 기수(調査員技手) 강본금장(岡本金藏)과 고원(雇員) 중산양조(中山養助)에 의해 ‘봉화산국유림경계도’가 작성되었다.²⁾



지도 3. 창팔래산봉수대 일제 강점기 국유림 경계도(국립중앙박물관)

1) 『嶺南邑誌』 第15冊, 「榮川郡誌」 烽燧.

2)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慶尙北道 奉化郡, 1942, p.279.

○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 조선총독부에서 1942년 발간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간략한 조사내용¹⁾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番號 : 26
번호 : 26
- 種別 : 烽燧址
종별 : 봉수지
- 場所 : 祥雲面 佳谷里
장소 : 상운면 가곡리
- 所有 : 烽火山 / 一 國有林
소유 : 봉화산 - 국유림
- 摘要 : 周圍約五十間 / 土石混合 / 圓形築壘 一部分崩壞 略完全
적요 : 둘레 약 50칸의 토석축의 원형대가 있다. 일부 붕괴되었으나 대체로 완전하다.
- 備考 : 乙種要存豫定林野
비고 : 을중요존예정림야

7. 유구현황과 특징

1) 항공사진

창팔래산봉수대 일원이 확인되는 항공사진은 1968년에 촬영된 것이다. 이 사진자료를 관찰하면 창팔래산봉수대가 위치한 곳이 산 정상부에 평면으로 남아 있고 이 평면 둘레를 따라 방호벽의 흔적이 보인다.

1)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慶尙北道 奉化郡, 1942, p.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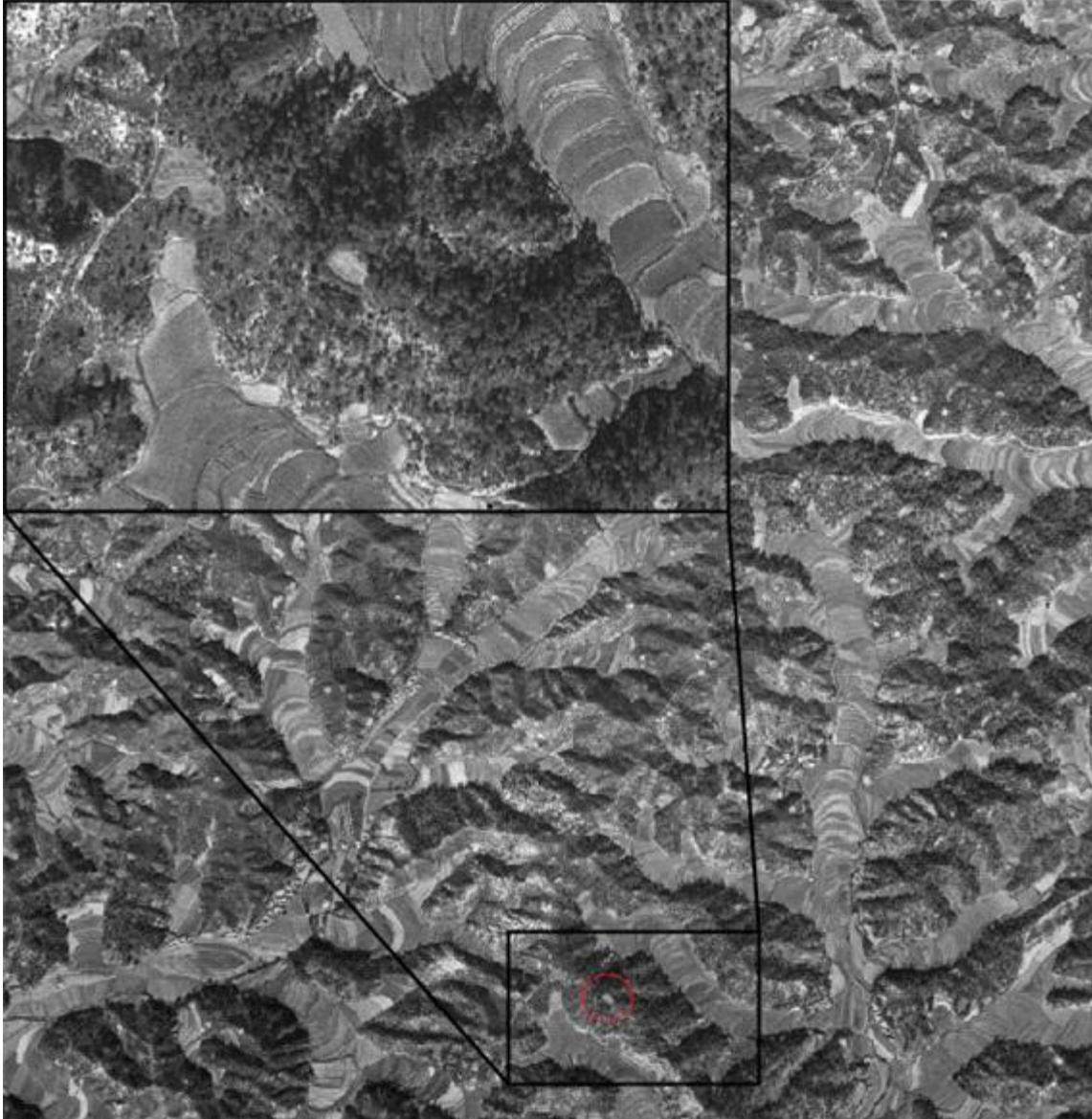


사진 3. 창팔래산붕수대 일원 항공사진(1968년)

2) 유구현황

(1) 방호벽

붕수대는 산 정상부에 평면 남북 타원형 토·석 혼축의 방호벽 형태로 잔존한다.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동쪽과 서쪽은 사면을 이룬다.

붕수대의 축조는 산정부 삼면을 평평하게 정지하고 방호벽을 석축으로 쌓아 올렸다. 석재는 다른 곳에서 가져 온 것으로 여겨진다. 방호벽은 서쪽은 일부만 잔존하는 반면, 동쪽과 북쪽이 온전하다. 내벽이 온전하게 확인되며 높이는 동쪽 0.7~1.2m, 서쪽 0.3~0.7m, 북쪽 1~1.2m 가량이다. 외벽의 높이는 동쪽이 3.25m로 가장 높으며 석축은 흙으로 덮혀 있다. 지표면 환도의 폭은 3.5m 가량이다. 남쪽은 1.2m 가량의 석축으로 흙으로 덮혀 있다. 서쪽과 북쪽은 자연지형으로 높이의 측정이 곤란하다. 방호벽 상부 담장지의 폭은 측정이 어려운 남쪽을 제외하고 1.2m 내외이다.

붕수대의 규모는 직경이 동서 19m, 남북 25.7m, 둘레 78.9m 가량으로, 조선시대 내지붕수의 평균 규모이다.

(2)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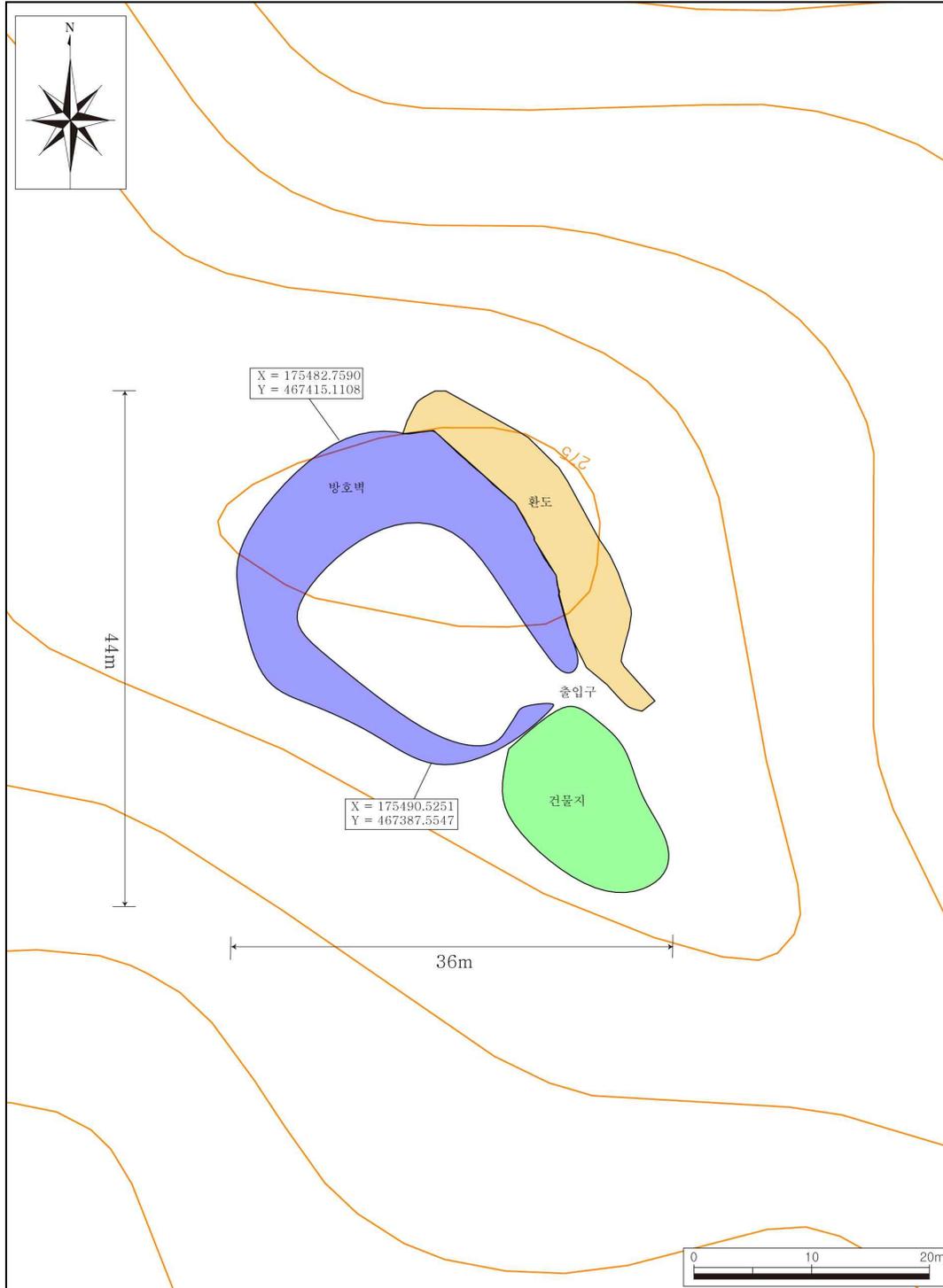
출입구는 남동쪽에 1개소가 있으며 폭 1.6m 가량이다. 남쪽 외부로 소규모 평지가 이어진다.

(3) 출토유물

방호벽 동쪽과 서쪽 외부 사면에서 암·수키와, 백자편이 채집되었다.

(4) 특징

방호벽 내벽이 온전하며, 방호벽 외부 환도가 확인된다.



도면 1. 창팔래산봉수대 현황도(S=1/400)



사진 4. 창팔래산봉수대 근경



사진 5. 창팔래산봉수대 방호벽(부분)



사진 6. 창팔래산봉수대 방호벽 상부(부분)



사진 7. 창팔래산봉수대 환도



사진 8. 창팔래산봉수대 채집유물1



사진 9. 창팔래산봉수대 채집유물2

8. 지정가치와 근거기준

1) 역사적 가치가 높은 봉수이다.

- 조선시대 제2거 직봉 중 스물여덟번째 내지봉수.
- 조선 후기 발간의 지지(地誌)인 『영천군읍지』(1899) 기록을 통해 최초 설봉은 임진왜란 때로 여겨지며, 전·후 대응봉수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다.
- 조선 후기 발간의 『해동지도』(1724)와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등의 고지도(古地圖)에 빠짐없이 표기되어 있다.

2) 내지봉수로서 주변 교통로의 조망에 탁월한 입지이다.

- 봉화~영주간 옛 길의 고개변에 위치한다.

3)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었다.

- 상운면 구천리 창팔마을 서쪽의 덕골마을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의 나지막한 봉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다.

4) 임진왜란 이후 봉수논선의 변화를 보여준다.

- 임진왜란 이후 새로운 대왜관계가 설정되면서 2거노선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봉수유적이다.

5) 봉수가 관방의 중요한 시설이며 명칭은 고어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 창팔래산봉수는 임진왜란 당시에 설치되어 조선시대 관방시설은 성곽과 봉수였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이며 특이한 명칭은 조선시대 고어(古語) 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사진 10. 창팔래산봉수와 대응봉수



사진 11. 창팔래산봉수대와 영천군치소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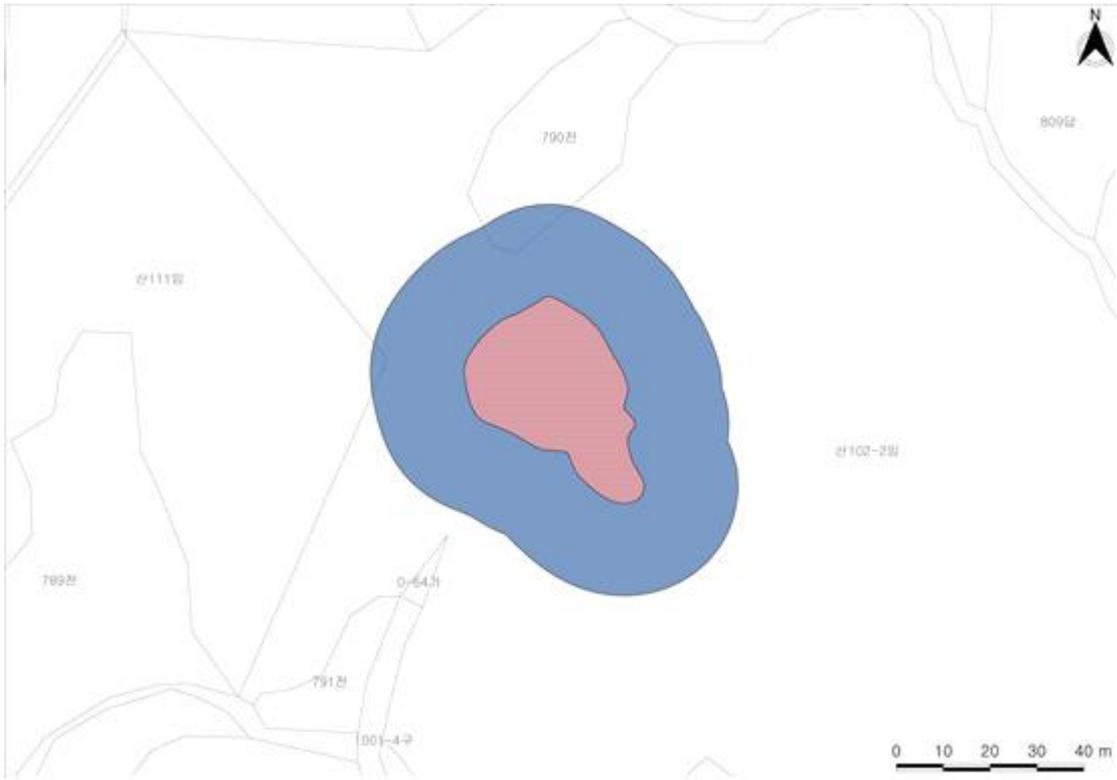
9. 지정대상과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 지정구역)

● 지정면적 : 3필지 / 4,860㎡(문화재 1,013㎡, 보호구역 3,847㎡)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건조물인 경우													(면적: m ²)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물면적 (연면적,건축면적) 수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1,013m 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봉화군 상운면 구천리	산102-2	임야	29,752	1,013								
계				29,752	1,013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3,847m 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봉화군 상운면 구천리	산102-2	임	29,752	3,722							
2	경북 봉화군 상운면 구천리	산111	임	13,884	20							
3	경북 봉화군 상운면 구천리	790	전	1,074	105							
계				44,710	3,847							



도면 2.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S=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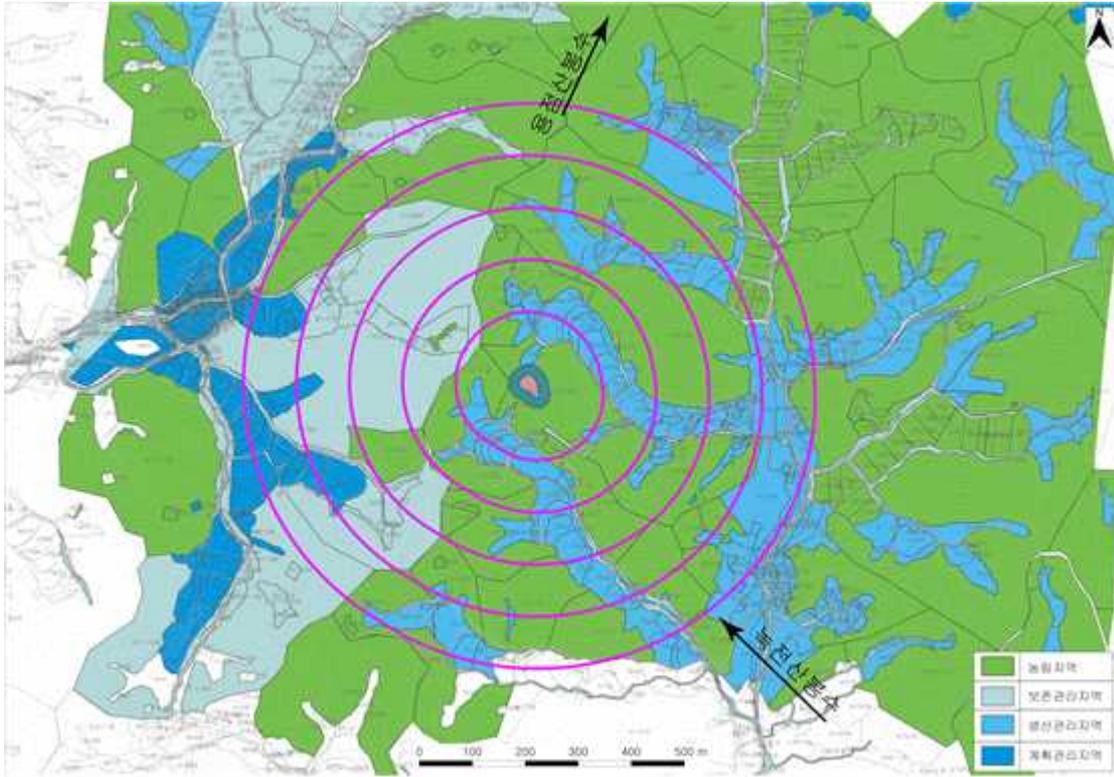
도면 3.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

10.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1) 검토의견

창팔래산봉수 전·후 대응노선 봉수의 방향을 고려한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

봉화군	봉화군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p>▣ 대상문화재 제2로 직봉 - 봉화 창팔래산봉수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구천리 산102-2번지</p> <p>▣ 문화재 및 보호구역  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보호구역</p> <p>▣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간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p> <p>▣구역별 허용기준</p>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봉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 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1. 보존·정비와 활용 착안사항

1) 기본구상

(1) 기본방향

① 기본원칙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1.6.10.] [법률 제17409호, 2020.6.9. 일부개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문화재청, 2002)

- 문화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문화재 활용은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사업의 소재로서 개발·활용하며,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육성한다.

『유적(遺蹟) 등 정비계획 수립·추진관련 고려사항』(문화재청, 2003)

- 가치(원형) 보존 최우선: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복원·정비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비를 지양하고, 유적의 가치와 역사적 숨결을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명확한 정비목표 수립: 유적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적 정비를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한다. 보존과 복원·정비되어야 할 것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 :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고, 유적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방향 설정

- 봉수대의 보존·정비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도모하고, 봉화군의 역사문화관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동선체계 등 기반시설의 확충안을 수립한다.
- 봉수는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평안을 상징하는 1거의 횃불[平安火·太平火]을 올림으로서 과거 인근 고을 백성들이 이를 바라보고 일상을 마무리하는 순기능도 있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봉화군 소재 전체 다섯 개소 봉수의 보존·정비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봉수대 잔존 방호벽의 역사적 실체를 보존·정비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시킨다.
-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활용되었던 봉수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정보통신 발달의 상징적 유적으로 보존·관리한다.
- 경상도와 충청도·경기도를 거쳐 최종 서울 목멱산봉수로 이어지는 내지봉수 체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원한다.

(2) 기본전제

① 잔존 봉수 유구의 보존과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

봉수대의 방호시설(방호벽)을 대상으로 보존·정비하여 창팔래산봉수의 문화재적 가치가 표출되도록 한다.

② 역사문화자산 가치 증진 및 화제성 창출

과거 봉수제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던 당시에 봉수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봉수군과 봉수운영 관련된 기록과 내용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유적과 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화제성이 창출되도록 정비한다.

③ 대응봉수와의 조망을 위한 가시권 확보

봉수는 대응봉수와의 후방을 통해 인근 고을 백성들에게 변경의 안위 여부를 알리던 군사통신유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적 강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계획한다.

조선 후기에 최종 설정된 대응봉수인 녹전산봉수와 용점산봉수와의 가시권 확보와 봉수 주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식생이 양호한 기존의 자연경관 유지 방안을 제시한다.

④ 주연야화(晝煙夜火) 통신의 특징을 살린 ‘체험과 교육의 장’ 조성

횃불과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 소식을 전하였던 봉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적의 복원보다는 체험과 실연(實演)을 통한 거화의 과학적 원리를 교육한다.

⑤ 실현가능한 세부추진사업 도출과 단계별 사업시행

봉화군의 재정여건이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토지 매입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필요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3) 종합구상

① 추진사업 계획

역사적 실체 보존 사업을 실시한다.

- 식생정비(소목 간벌), 봉수 내부 잔디 식재, 봉수군 주거지 정비 등 문화자원 연계 개발사업을 실시한다.
- 탐방로(봉수군 길) 정비, 스토리텔링 개발, 체험 프로그램 및 축제 개발, 봉수 C.I개발, 동선표지판·전망시

설 및 망원경 설치 등을 진행한다.

읍성과 봉수 등 관방체계 알림 사업을 병행한다.

- 주변 봉수와 읍성 등 주변지역의 관방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② 토지이용계획

봉수대 일원은 민간 소유의 임야로서,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구천리 산102-2에 소재하며 면적은 1,013㎡이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토지대장, 2021.9.)

현재 봉수를 찾는 탐방객은 소수에 불과하여 상운면 구천리 창팔마을 서쪽의 두월리 덕골마을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서 봉수에 진입하는 실정이다.

향후 제2거 직봉 노선 봉수의 사적지정이 확정되고 보존 정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 시 탐방객에게 보다 쾌적한 역사경관과 편리한 탐방환경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

③ 동선계획

본 계획에서는 봉수구역과 주차구역으로 나누고 각 공간별로 기능을 배분하였다.

봉수대의 탐방동선은 전통적인 분위기 연출과 유지관리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아자메트로 한다.

또한, 탐방객의 주동선이 되는 기존 산책로를 활용하여 봉수에 대한 관심유발과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2) 보존과 정비활용계획

(1)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확대지정

① 향후, 제2거 직봉 노선의 봉수를 사적(史蹟)으로 승격 시 문화재지정구역의 확대 및 대응봉수간의 조망과 가시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창팔래산봉수를 중심으로 동쪽의 녹전산봉수, 북쪽의 용점산봉수를 잇는 조망과 가시권 확보가 필요하다.

② 봉수대 주위의 수목을 선별적으로 간벌하여 대응봉수간 조망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③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확대는 기존 현상변경허용기준 적용구역의 확대를 수반한다. 인접 봉수간의 조망 확보를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아울러 보호구역 외곽 200m 정도는 1구역(개별 심의) 또는, 2구역<최고높이 8m이하(평지붕), 최고높이 12m이하(경사지붕)>으로 설정하여 역사문화 환경과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④ 진입로에서 봉수대의 원경을 볼 수 있도록 간벌 등을 통해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봉수군들이 이용했던 소로(진입로)는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이 길을 통한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2) 보존계획

① 봉수유적 보존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는 방호시설인 방호벽이 잔존하고 있으나,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후 13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봉수대 내·외 잡목이 무성한 상태임.

- 따라서, 과거 봉수의 운영당시 원형구조를 밝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수를 구성하였던 제반 요소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비와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에 대한 최근의 현황조사를 통해 전체 구조의 확인이 가능함으로 이를 바탕으로 운영당시의 모습대

로 단계적으로 정비·복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조선시대 내지봉수의 형태와 기능을 학습·체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공간으로 조성한다.

다. 추진방법 및 절차

- 먼저 방호시설인 방호벽에 대한 원형구조를 확인한다.
- 방호벽은 주위 잡목을 간벌하고 내부에는 잔디를 식재하여 보존한다.

② 수목 간벌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 내·외는 현재 무성한 잡목으로 대응봉수와의 조망이 곤란하거나 유구 훼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적절한 간벌을 통하여 유적 보존 및 가시권(可視圈)을 확보한다.

나. 사업내용

- 현재 봉수대 주위와 내에는 수목이 들어차 있어 대응봉수의 조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목을 선별적으로 벌목하여 대응봉수인 녹전산봉수와 용점산봉수에 대한 조망을 개선한다.

다. 추진방법

- 벌목작업은 봉수유구의 보존, 주변경관 조망, 봉수의 제반요소 감상 등에 장애를 주는 수목부터 선별하여 실시한다.
- 봉수대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경관이 확보되도록 수목을 제거한다.
- 상운면 구천리 창팔마을~두월리 덕골마을간 고갯마루에서 봉수대로 향하는 진입로 정비와 수목을 정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동선을 유도한다.

(3) 정비·활용계획

① 전망시설과 휴식공간 설치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의 정체성과 주요 기능은 대응봉수와의 시각적 연결에 있다. 현재, 봉수대는 내·외부의 수목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제한적이고, 전체 봉수유구를 살펴 볼 수 없다. 조선시대 봉수는 대응봉수와의 조망과 주변 관찰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였으므로 이러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 주변 적당한 곳에 봉수의 전체 구조와 대응봉수, 주변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조선시대 봉수의 입지선정 원리를 체감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과 절차

- 전망시설은 봉수대 주변 시야가 가장 좋은 지점에 설치하되,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봉수의 역사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안내판에 대응봉수를 촬영한 사진을 표시하여 눈앞에 펼쳐진 전경과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망시설에는 망원경 등을 설치한다.
- 전망시설 하부나 주위에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방문객에게 휴식과 사색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② 봉수군 탐방로 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상운면 구천리 창팔마을~두월리 덕골마을간 고갯마루에서 봉수대로 이어지는 ‘봉수군 탐방로’를 조성하여 문화콘텐츠로 활용한다.

나. 사업내용

- 탐방로를 개설하고, 봉수 관련 이야기와 비품 등을 소개함으로써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과거 봉수의 기능과 운영 및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노변(路邊) 전시관 기능을 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

- 기존의 길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요 지점에는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고 벤치 등의 휴식시설을 도입한다.
- 안내판의 내용은 『영남진사례』(1894) 「안동진사례 순치십년계사설」(효종 4년, 1653) 중기 풍기에 용례가 있는 안동진 소관 풍기 봉대집물 64종의 물목을 토대로 봉수운용에 필요한 비치물목상의 거화재료나 생활비품 등을 선별하여 사진자료와 함께 해설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豐基 烽臺什物

烟臺 一, 烟埃 五, 望德 一, 火德 一, 火箭 九箇, 唐火箭 九箇, 瓦家 五間, 白米 一石, 食鼎 一坐, 爐口 一坐, 白旗 一面, 火藥 六兩, 懸瓢子 五箇, 同火注 三巨里, 種火盆 一坐, 排木 六箇, 滅火器 一坐, 條所 三巨里, 環刀 一柄, 桶兒 一柄, 片箭 一部, 木斧子 二十箇, 戰角 一隻, 草席 二立, 馬糞 五石, 牛糞 五石, 艾 5同, 長箭 一部, 草炬 五十柄, 桐炬 三柄, 柎炬 五十柄, 槽桶 六坐, 鎌子 三柄, 松炬 五十柄, 箭梯 一, 法手木 五, 槍 一柄, 瓢子 五箇, 水瓮 五坐, 稜杖 二十箇, 無稜石 五訥, 細沙 五石, 糟 五石, 弓子 一張, 轎子注 一巨里, 南飛盖 一坐, 耳藥桶 一箇, 烏銃 一柄, 積柴 五訥, 沙鉢 五箇, 鑰匙 五箇, 盤 五立, 古月來 五十箇, 吐木 五訥, 烟草 五訥, 炭 五石, 防牌 一坐, 火桶 三十坐, 火鐵 二箇, 柳器 一部, 木桶 六坐, 斧子 一坐, 水瓮 一坐, 烏卵 一石五訥, 抹木核子 無數完植, 三穴銃 一柄, 掩心 一部, 掩頭 一部, 五色旗 一部, 錚 一坐, 鼓 一坐, 櫓 一坐, 火石 十箇, 生松 一訥.

(『嶺南鎮事例』(1894) 「安東鎮事例」 重記)

(4) 봉수 거화(擧火) 실연(實演) 행사

① 추진배경과 목표

봉수는 연기[주간]와 불[야간]로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시설인 만큼 실제 거화(擧火)나 거연(擧煙) 같은 실연(實演)행사의 실시를 통해 선조들의 봉수운영 원리를 체득하게 한다.

② 사업내용

연기와 불이라는 시각신호로 변경의 안위여부를 전달하였던 봉수의 연조 형태와 구조, 거화재료의 종류와 배합 등을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이 실증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크기의 연조를 제작한 후 실연(實演)행사를 연 중 개최한다.

③ 추진방법과 절차

가. 먼저 실연행사를 할 수 있는 연조(煙籠)를 제작하되 설치장소는 행사 시 화재 발생이나 유구 훼손에 대비하여 유적과 일정거리 떨어진 곳으로 한다.

나. 거화재료[화]는 과거 안동진 소관의 풍기 봉대집물 64종의 목록을 참고하여 준비하고 전통방식에 따라 제작한 후 사용한다. 행사의 진행은 지역 문화단체가 담당하고 연 중 개최시키는 ‘신년, 정월대보름, 8·15광복절, 봉화군민의 날’ 중 의미있는 날을 정하여 개최하도록 한다.

(5) 관리운영계획

① 관리운영 주체

봉화군에서 관리

(봉화축제관광재단 등 지역 유관기관에 위탁관리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② 관리운영 목표

- 가. 창팔래산봉수대의 보존과 유지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
- 나. 탐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도모
- 다. 창팔래산봉수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의 극대화
- 라. 유적의 학술적 가치 극대화와 신규 문헌 발굴 등

③ 관리운영사항

가. 봉수대 유적

- 창팔래산봉수대 일원
- 창팔래산봉수대 주변 탐방로 등

나. 자연환경

- 창팔래산봉수대 주변 수목 및 지형
- 주변 생태환경, 녹지 등

다. 시설물

- 탐방로, 전망시설 등
- 안내판, 방향지시판, 휴게시설 등

라. 탐방객을 위한 서비스

- 홍보, 해설, 전시, 축제행사 등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④ 사업 추진절차

가. 문화재지정구역 및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는 먼저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발굴(시굴)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한 후 도출된 발굴결과에 따라 정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입 → 발굴 → 정비’의 순이다. 창팔래산봉수는 정식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비단계에 따르면 대상지가 안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복원·정비의 단계를 결정한다.

나. 매입 단계는 정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국·공유지화 하는 단계로서 대상지의 지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 파악과 매입에 예상되는 비용 및 매입의 원활성을 판단하여 정비의 선후를 결정한다.

⑤ 순차별 사업계획

가. 봉수대의 보존·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체 사업비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초기 2년의 정비를 단기정비로 설정하고 이후의 계획 중 우선시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기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단기사업은 정비사업의 기간 및 지자체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나. 보존·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추진 절차, 시급성, 사업비,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다. 봉수대 보존과 주변정비사업은 방호벽 정비, 식생정비[간벌 등], 전망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정비사업의 원칙은 유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선정한다.

라.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등산로 정비 사업을 단기에 시행하고 관광 역량 제고를 위한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

은 중기에 진행한다.

마. 이들 추진사업은 봉화군청의 정책 순위 변경과 주민들의 요구도, 제반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2. 종합의견

- 1) 영천 창팔래산붕수는 조선시대 전체 5거노선의 붕수 체계에서, 부산 응봉붕수에서 초기하는 제2거 직붕의 스물여덟번째 내지붕수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1760)부터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각종 지지에 등재되어 있고 제2거 직붕노선의 주요 붕수다.
- 2) 봉화지역은 교통과 붕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충지였다. 붕수는 상운면 구천리 창팔마을 서쪽의 덕골마을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의 나지막한 봉우리 정상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하고 옛 방호벽의 유지가 온전하게 남아 있다.
- 3) 창팔래산붕수는 임진왜란 당시에 설봉되어 조선후기 붕수제가 폐지될 때 까지 운영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새로운 국제정세에 따라 붕수노선을 재정비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 4) 붕수는 단일 유적보다는 통신체계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 노선별 주요붕수, 잔존상태, 역사성, 지정번호 부여방식 결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적지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문화재 종류

1) 사적

- 용점산봉수(龍岾山烽燧)는 비지정문화재로서 부산 다대포 응봉봉수(鷹峰烽燧)에서 초기(初起)하는 제2거 직봉노선의 스물아홉번째 내지봉수인 ‘봉화 용점산봉수유적(奉化 龍岾山烽燧遺跡)’을 같은 노선의 봉수와 연계하여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2. 문화재 명칭

1) 문화재명 : 제2로 직봉 - 봉화 용점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奉化 龍岾山烽燧遺跡)

- 봉수유적은 연속유산으로서 노선 단위 지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정명칭은 “본 명칭 - 부 명칭”의 형식으로 부여토록 한다. 여기서 본 명칭은 대표성이 높으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2로 직봉(第2路 直烽)”으로 한다.
- 부 명칭은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라 봉수명칭 앞에 현 행정구역 소재지인 ‘봉화(奉化)’를 표기한다.
- 봉수명칭은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이후 조선 최후기 봉수망을 알 수 있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의 명칭과 한자표기를 따라 ‘용점산봉수유적(龍岾山烽燧遺跡)’으로 표기한다.
- 따라서, 최종 봉수명칭은 ‘제2로 직봉 - 봉화 용점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奉化 龍岾山烽燧遺跡)’(이하 ‘용점산봉수’라 한다)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명칭유래

봉수는 시기별로 발간된 지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자가 다양하게 표기된다.

어두(語頭)의 명칭이 ‘서산(西山) → 용점(龍岾) → 용침산(龍岾山) → 용점산(龍岾山)’ 등으로 네 차례의 변화가 확인된다.

어미(語尾)의 명칭은 ‘봉화(烽火) → 연대봉화(煙臺烽火) → 봉수(烽燧)’ 등으로 세 차례의 변화가 확인된다.

- 서산봉화(西山烽火) : 『세종실록』 지리지
- 용점연대봉화(龍岾煙臺烽火) : 『경상도속찬지리지』
- 용침산봉수(龍岾山烽燧) : 『여지도서』
- 용점산봉수(龍岾山烽燧) :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읍지』, 『여도비지』, 『대동지지』, 『영남읍지』 『봉화현』

(1871), 『영남읍지』 「봉화현지」(1895), 『봉화군읍지』, 『증보문헌비고』

『세종실록』 지리지 봉화현에 봉화1곳으로 소개된 서산봉수가 용점산봉수이며, 봉화점봉수가 당북산봉수다. 용점산봉수는 동북쪽 4.5km 거리의 봉화현지(봉성면사무소 부근)에 변방의 정보를 알린 곳이다. 『경상도속찬지리지(1469)』에는 ‘서산→용점산’으로 바뀌어 기록되고 ‘녹전산→용점산→당북산(봉화점)’ 노선이 확정되어 후대까지 지속되지만, 봉화읍 내성리 당북산(4.5km)이 영조 21년(1745) 이전에 무너져 상운면 가곡리에 옮겨 축조한 ‘건이산(3km)’과 대응한다.

용고개(龍帖)는 산능선이 남북으로 2km 정도 길게 누운 모습에서 연유한 것이다. 국토 깊은 속살을 달리며 평안화를 전하는 북리봉수(내지봉수)는 지역민들에게는 먼 변방의 소식을 전하는 일상적 표지였다. 선조들은 국토를 정신과 육체를 가진 하나의 생명체로 인지했다. 풍수에서는 땅의 기운이 흐르는 산맥을 ‘용’으로 생각했다. ‘용’을 살필 때 나라의 근원이 되는 백두산을 ‘조산’으로 삼고 여기서 땅 기운이 막힘없이 잘 흘러오는가를 살핀다. 봉화의 운계리와 하눌리에 걸쳐 남북으로 2km 정도 길게 누운 용고개는 백두산에서 비롯된 땅의 기운으로 ‘용’이 굽이치는 모습이다. 용점(龍帖: 용고개)이라는 명칭은 용고개의 형상에서 비롯되었다.

용점산 능선에는 봉화에서 안동으로 넘나드는 옛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임진왜란 때, 용고개에서 전투가 있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제2거 직봉 노선은 왜군의 북상로와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병기를 갖춘 봉수군과 왜군 사이의 전투가 있었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전한다. 왜군과의 전투 증언은 영천 신녕의 여음동봉수(여동산봉수)에서도 전해지는데, 주야로 봉수에서 수직하는 봉수군이 왜군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소수의 병력으로 왜군 선봉과 전투를 벌인 것이다. 기록으로 남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기억하고 후세에 전해야 할 일이다.

3. 봉화지역의 봉수현황과 성격

- 봉화 지역에는 최초 설봉(設烽)과 폐봉(廢烽)시기가 다른 총 5기의 봉수(창팔래산·용점산·당북산·건이산·사랑당)가 소재하고 있다. 봉수의 성격에 의한 구분상 모두 육지내륙 소재의 내지봉수(內地烽燧)다.
- 이 중 ‘건이산봉수(峯伊山烽燧)’는 『신증안동부여지지(新增安東府輿地誌)』(1745) 봉수에 “당북산봉수(堂北山烽燧)는 내성현 남쪽 3리에 있다. 중간에 산사태로 무너져 건이산에 옮겨 설치했는데, 내성현 동남쪽 10리에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조선 후기인 18세기 중엽 이전 당북산봉수는 산사태로 무너져 인근 건이산으로 이설하였고, 본래의 터는 폐하였으나 봉수명칭은 ‘당북산봉수’ 명칭을 유지하였다.
- 따라서 고종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가 최종 폐지될 때까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었던 봉화지역의 봉수는 ‘창팔래산·용점산·당북산·사랑당’ 등 4기이다.

4. 용점산봉수의 입지와 연혁

1) 입지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문촌리 산174 일원으로, 문촌2리 무진장골 서쪽 해발 405m의 봉화재에 위치한다. 해발고도가 높은 편이나 비고가 낮아 접근이 용이하다. 봉수에서는 주위 사방을 넓게 조망하기 가능한 곳이나, 현재는 수목으로 시야 확보가 제한적이다.

봉화군 상운면 운계1리 소야마을에서 우측 맞은편으로 난 소로를 ‘봉골’이라 한다. 봉골로 진입하면 11시 방향의 봉우리가 봉수대가 있는 곳이다.



사진 1. 용점산봉수대 원경



사진 2. 용점산봉수대 근경

2) 연혁

봉수의 최초 지지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1454) 부터이며, 최종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조선 전(全) 시기 발간의 지지에 문헌기록이 있다. 각 지지별 발간연도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世宗實錄』 地理志(1454) 卷150, 慶尙道 安東大都護府 奉化縣
烽火一處 西山 在縣西 西準安東任內奈城 烽火帖 以地僻他無相準處 本縣自知邊警而已
봉화가 1곳이니, 서산으로 현의 서쪽에 있다. 서쪽으로 안동 임내인 내성현 봉화점에 응한다. 지방이 궁벽하여 서로 응할 곳이 없고, 본현에서 변경을 스스로 알 뿐이다.
- 『慶尙道續撰地理誌』(1469) 安東道 奉化縣
烟臺烽火 縣西 龍岾煙臺烽火 南與禮安祿轉山煙臺烽火相準 北與安東任內奈城堂北山煙臺烽火相準
연대봉화는 현의 서쪽 용점산연대봉화이다. 남으로 예안 녹전산연대봉화와 서로 겨누고, 북으로 안동 임내 내성 당북산연대봉화와 서로 겨누다.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卷25, 慶尙道 奉化縣 烽燧
龍岾山烽燧 南應禮安縣祿轉山 西應安東府奈城縣堂北山
용점산봉수는 남으로 예안현 녹전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안동부 내성현 당북산에 응한다.
- 『輿地圖書』下(1760) 慶尙道 安東鎮管 奉化縣 烽燧
龍岾山烽燧 在縣西十三里 南應榮川昌八來山 北報安東奈城縣堂北山 相距十五里
용점산봉수는 현의 서쪽 13리에 있다. 남으로 영천 창팔래산에 응하고, 북으로 안동 내성현 당북산에 알리는데, 거리는 15리다.
- 『慶尙道邑誌』 第20冊, 「奉化縣邑誌」(1832) 烽燧

龍岾山烽燧 南應禮安縣祿轉山 西應安東奈城縣 東堂北山

용점산봉수는 남으로 예안 녹전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안동 내성현 동쪽 당북산에 응한다.

- 『輿圖備志』(1856) 卷8, 慶尙道 左道 奉化縣 武備 烽燧
龍岾山 治西十三里
용점산은 치소의 서쪽 13리다.
- 『大東地志』(1864) 卷8, 慶尙道 25邑 奉化 烽燧
龍岾山 西十三里
용점산은 서쪽 13리다.
- 『嶺南邑誌』 第7冊, 「奉化縣」(1871), 烽燧
龍岾山烽燧 南應禮安縣祿轉山 西應安東奈城縣堂北山
용점산봉수는 남으로 예안현 녹전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안동 내성현 당북산에 응한다.
- 『嶺南邑誌』 第33冊, 「奉化縣誌」(1895), 烽燧
龍岾山烽燧 南應禮安縣祿轉山 西應安東奈城縣堂北山
용점산봉수는 남으로 예안현 녹전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안동 내성현 당북산에 응한다.
- 『奉化郡邑誌』(1899), 烽燧
龍岾山烽燧 南應禮安縣祿轉山 西應安東奈城縣 東堂北山
용점산봉수는 남으로 예안현 녹전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안동 내성현, 동으로 당북산에 응한다.
- 『增補文獻備考』(1908) 卷124, 兵考16 烽燧2
初起 鷹峰(多大浦鎮) -- (中略) -- 菴八來山 龍岾山 堂北山 -- (中略) -- 第2炬準 天臨山
초기 응봉(다대포진) -- (중략) -- 창팔래산 용점산 당북산 -- (중략) -- 제2거준 천립산

위 지지의 내용을 시기별로 검토하면 전기 발간의 『세종실록』 지리지에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봉화현 소속으로 현의 서쪽에 소재하는 ‘서산봉화(西山烽火)’ 명칭으로 “서쪽으로 안동 임내인 내성현 봉화점에 응한다. 지방이 궁벽하여 응할 곳이 없고, 본현에서 변경을 스스로 알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후 발간된 『경상도속찬지리지』에는 안동도 봉화현 소속의 ‘용점연대봉화(龍岾煙臺烽火)’ 명칭으로 “남으로 예안 녹전산연대봉화와 서로 겨누고, 북으로 안동 임내 내성 당북산연대 봉화와 서로 겨눈다.”라고 남으로 예안 녹전산연대봉화와 대응하는 노선이 신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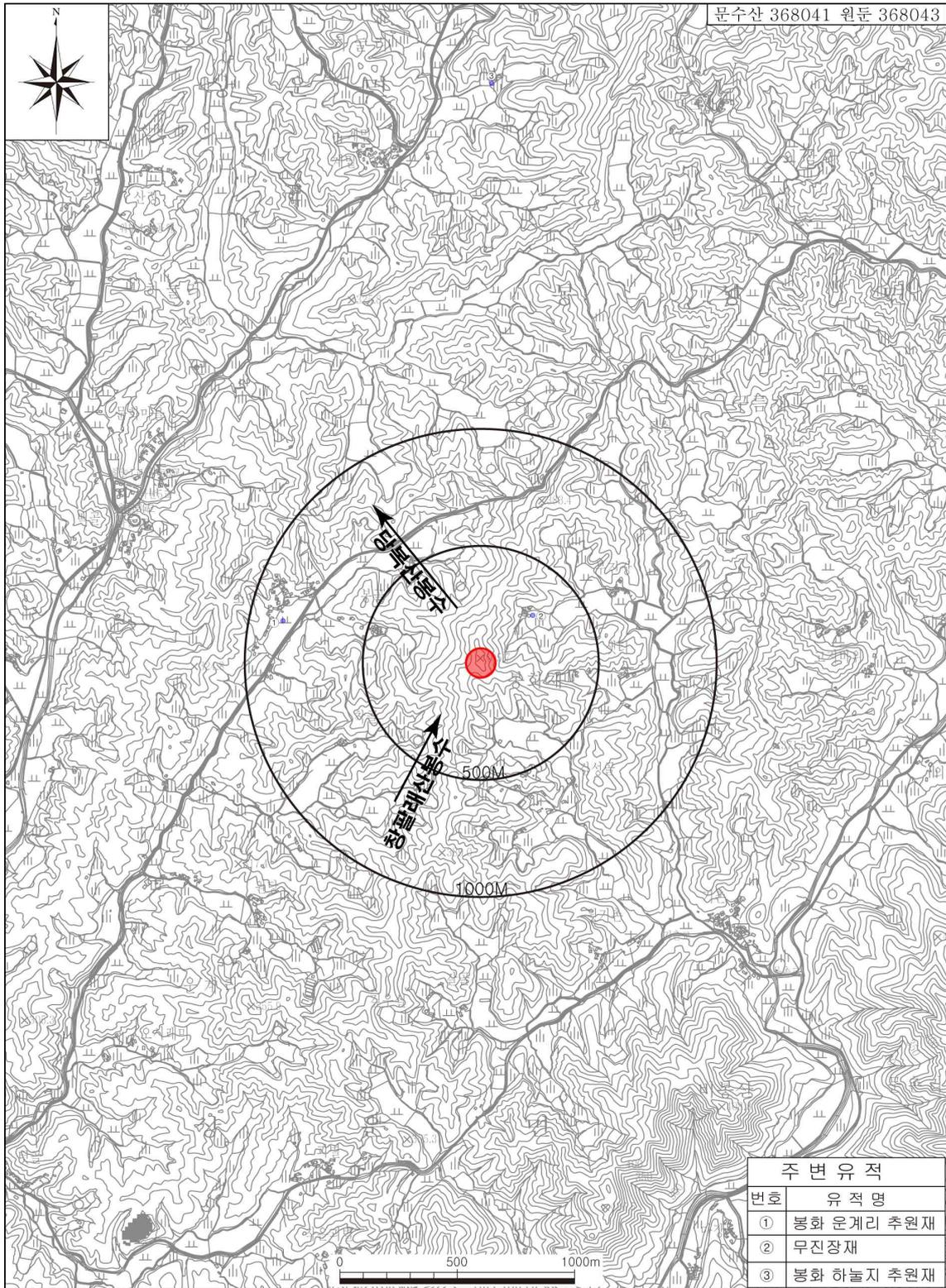
중기 발간의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는 경상도 봉화현 소속의 용점산봉수(龍岾山烽燧) 명칭으로 “남으로 예안현 녹전산(祿轉山)에 응하고, 서쪽으로 안동부 내성현 당북산(堂北山)에 응한다.”라고 하여 앞의 내용과 같다.

후기 발간의 『여지도서』(1760)에는 종전 서쪽 당북산으로 응하는 노선은 변동이 없는 대신 남쪽으로 영천 창팔래산봉수(昌八來山烽燧)에 응한다고 하였다. 이후 발간된 『경상도읍지』 「봉화현읍지」에는 “남쪽으로 예안 녹전산, 서쪽으로 안동 내성현 동쪽 당북산에 응한다.”라고 하였다.

이상을 통해 용점산봉수는 전기에 서쪽으로 내성현 봉화점(당북산)에만 대응하는 단일노선에서 곧, 남으로 예안 녹전산연대봉화와 대응하는 노선이 신설되어 한동안 유지되다가, 최종 ‘창팔래산 → 용점산 → 당북산’으로 설정된 노선이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시 까지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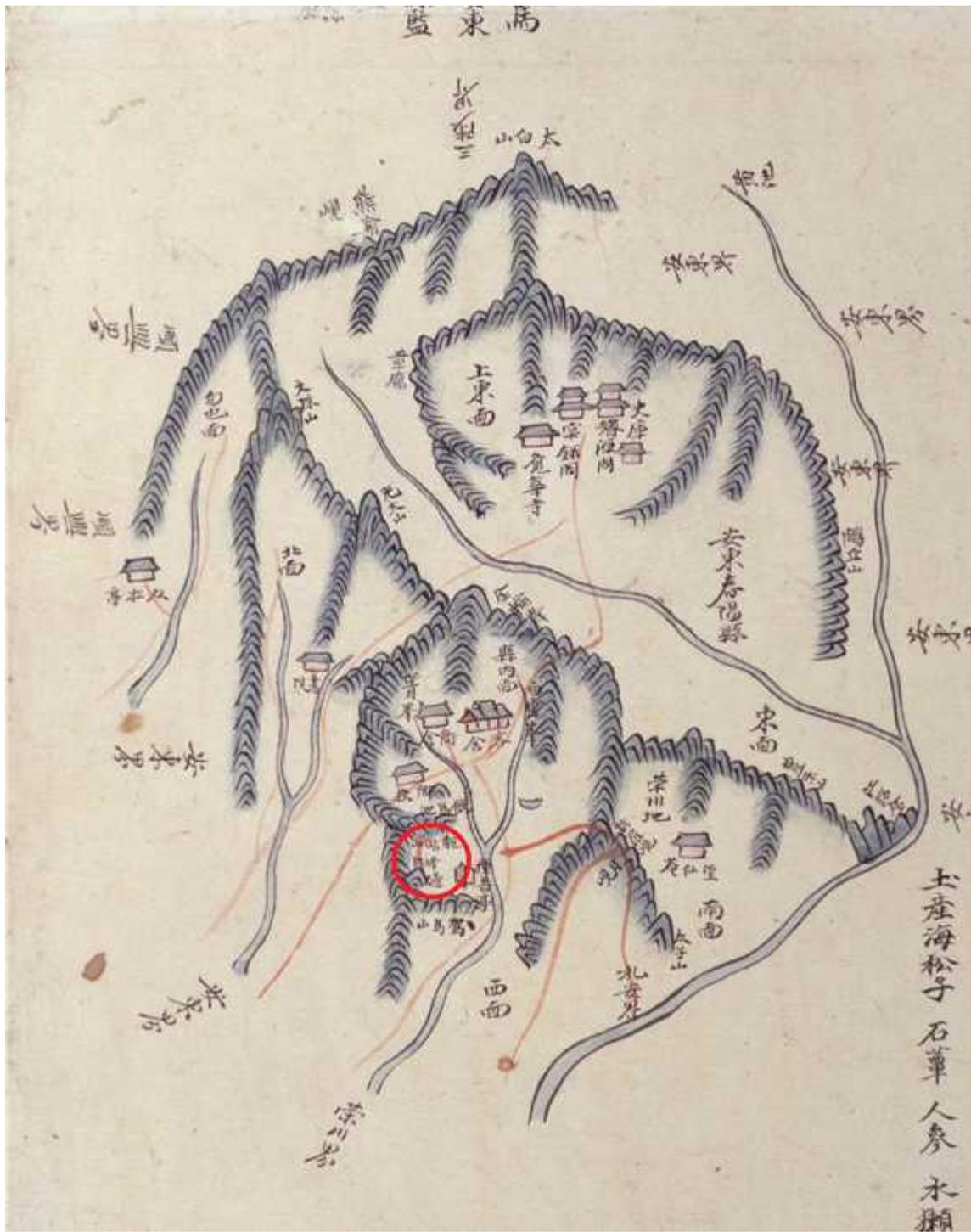


지도 1. 2거 직봉 노선 내 용점산봉수 위치



지도 2. 용점산봉수대 위치도(S=1/25,000)

3) 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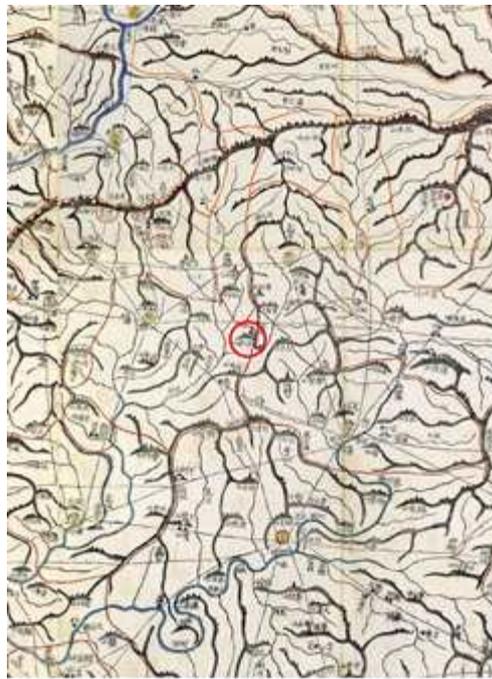
고지도 1. 『해동지도』 봉화현



고지도 2. 『광여도』 봉화현



고지도 3. 『지승』 봉화현



고지도 4. 『대동여지도』(1861)

5. 봉수운영

조선 후기 경상좌병사 소관이었다. 봉수군 인원은 『영남읍지』(1871)에 “봉수군 100명이다.”¹⁾라고 하였는데 봉군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하지 않다. 다만, 경상도 타 지역의 사례를 통해 별장 1인의 책임 하에 ‘봉군 25명, 봉군보 7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6. 유구현황과 특징

지형상 남쪽으로 능선이 이어지고 있다. 동쪽과 서쪽은 급사면이며,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곳에 봉수가 위치하고 있다. 봉수대는 내지봉수로서는 드물게 방호벽 내에 덧붙여 과거 망(望)을 보던 망덕(望德)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봉수 내·외로의 출입을 위한 개구형(開口形) 출입시설 1개소가 온전하게 잔존하고 있다.

1) 항공사진

1963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용점산봉수대의 연대나 방호벽이 확인되고 남으로 이어진 경사면에도 일부 유구의 흔적이 관찰된다.



사진 3. 용점산봉수대 일원 항공사진 (1968년)

1) 『嶺南邑誌』 第7冊, 奉化縣 軍摠.

2) 유구현황

(1) 방호벽

방호벽은 산정부에 남북쪽이 장축인 평면 타원형의 토·석 형태로 잔존하며 내벽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 높이는 서쪽 0.5m, 남쪽 1~1.2m, 북쪽 0.7m 가량이며, 동쪽은 일부 허물어져 0.4~0.6m만 잔존한다. 외벽의 동쪽은 측정이 어렵고, 서쪽 3.2~3.5m, 남쪽 2.3m, 북쪽 0.9~1.2m 가량이다. 방호벽 상부 담장지의 폭은 0.7~1m 정도인데 방호벽 남쪽의 경우 출입구 부분은 높게 쌓았다.

방호벽 내에는 북쪽에 치우쳐 방호벽과 2.5m의 거리를 대형 분묘 1기가 남향한 채 안장되어 있다. 2021년 5월, 조사당시 마을의 촌로(村老)에 탐문한 바로는 예전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지금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봉수의 규모는 직경이 외부 동서 14.2m, 남북 23.3m, 둘레 66m 가량으로 조선시대 내지봉수 평균 규모 이하의 소형이다.

(2) 출입시설

출입시설은 방호벽 남쪽 중앙부에 개방형의 ‘V’ 형태로 1개소가 있다. 높이는 좌측(서) 1m, 우측(동) 1.2m이다. 폭은 하부 0.7m, 상부 2m이며 중간부 1.6m이다.

(3) 망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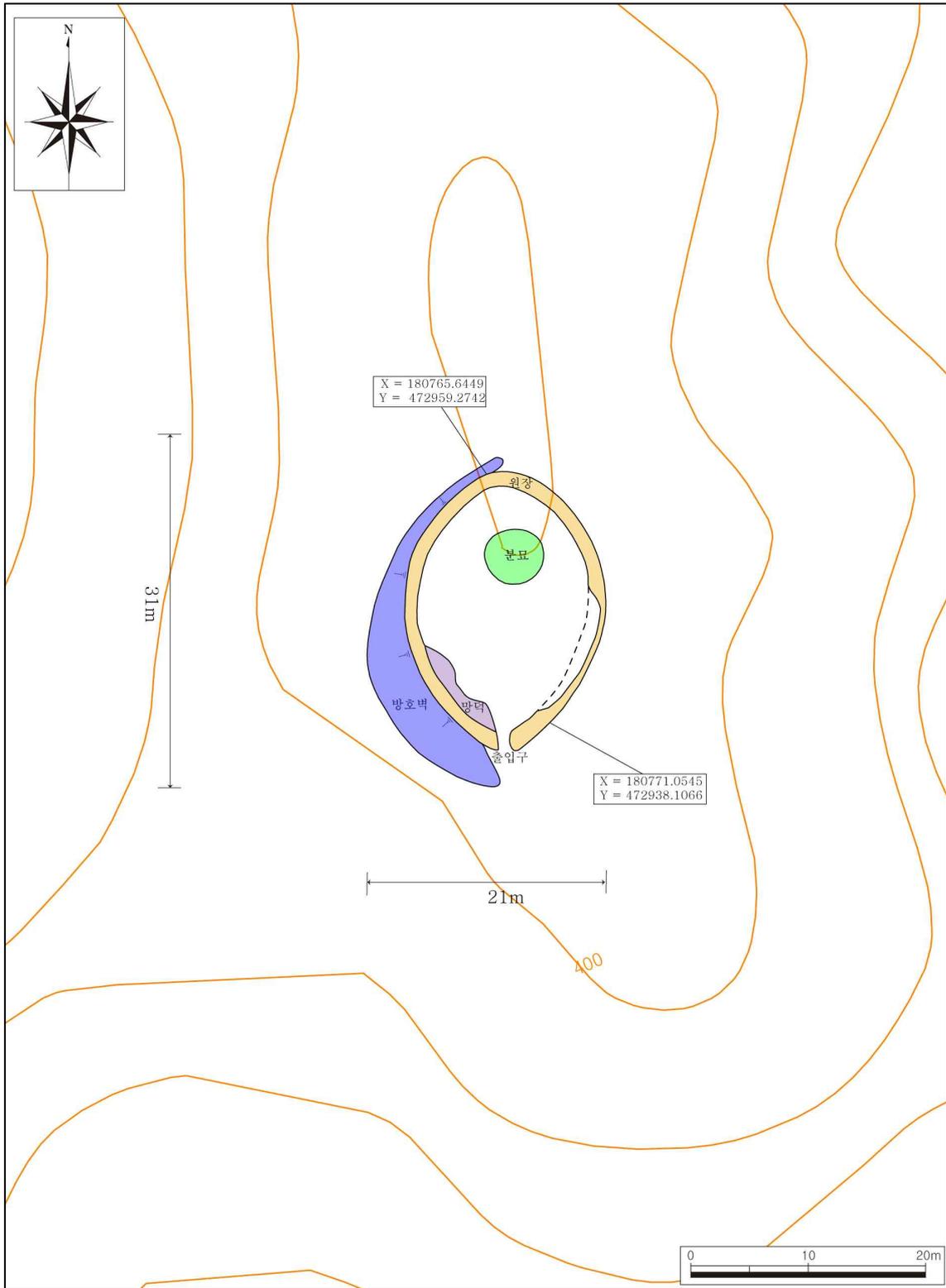
봉수대 남쪽에는 방호벽과 출입시설의 서쪽 부분에 덧붙여 지면에서 높이 0.9m가량 단을 둔 시설이 있다. 과거 봉수군이 이곳에서 망을 보기 위해 시설한 것으로 여겨진다. 폭은 중간부 2.4m, 길이는 7.8m 가량이다.

(4) 건물지(고사)

건물지(建物址) 혹은 고사(庫舍)는 방호벽 외부 동남쪽 방향의 평탄지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묘주 불명의 원형 분묘 1기가 안장되어 있다. 규모는 동서 폭 8.8m, 남북 길이 22.5m 가량이다.

(5) 유물

봉수대 내·외에서 유물은 채집되지 않았다.



도면 1. 용점산봉수대 현황도(S=1/400)



사진 4. 용점산봉수대 출입시설 외부에서 본 모습



사진 5. 용점산봉수대 출입시설 내부에서 본 모습



사진 6. 용점산봉수대 방호벽1(부분)



사진 7. 용점산봉수대 방호벽2(부분)

7. 지정가치와 근거기준

1) 역사적 가치가 높은 봉수이다.

- 조선시대 제2거 직봉 중 스물아홉번째 내지봉수이다.
- 조선 전(全) 시기 발간의 지지(地誌) 기록을 통해 봉수 한자표기의 차이를 통한 다양한 명칭 확인과 전·후 대 응봉수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다.
- 조선 후기 발간의 『해동지도』(1724)와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등의 고지도(古地圖)에 빠짐없이 표기 되어 있다.

2) 내지봉수로서 주변 교통로의 조망에 탁월한 입지이다.

- 봉화에서 안동으로 넘나드는 옛길 ‘봉화재’에 위치한다.

3) 봉화현 치소에서 봉수가 바로 후망되는 근거리 입지이다.

- 치소(현 봉성면사무소 부근)에서 서남쪽의 봉수까지 약 4.5km의 근거리로서 치소의 가시권 내 위치한다.

4)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 용점산봉수대는 해발 높이 405m에 위치하여 해발고도가 높은 편이나 비고가 낮아 접근이 용이한 봉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므로 현지답사에 유리하여 문화재 활용에 긍정적인면이 될 수 있다.

5) 대응봉수와 거리를 단축하여 계속하여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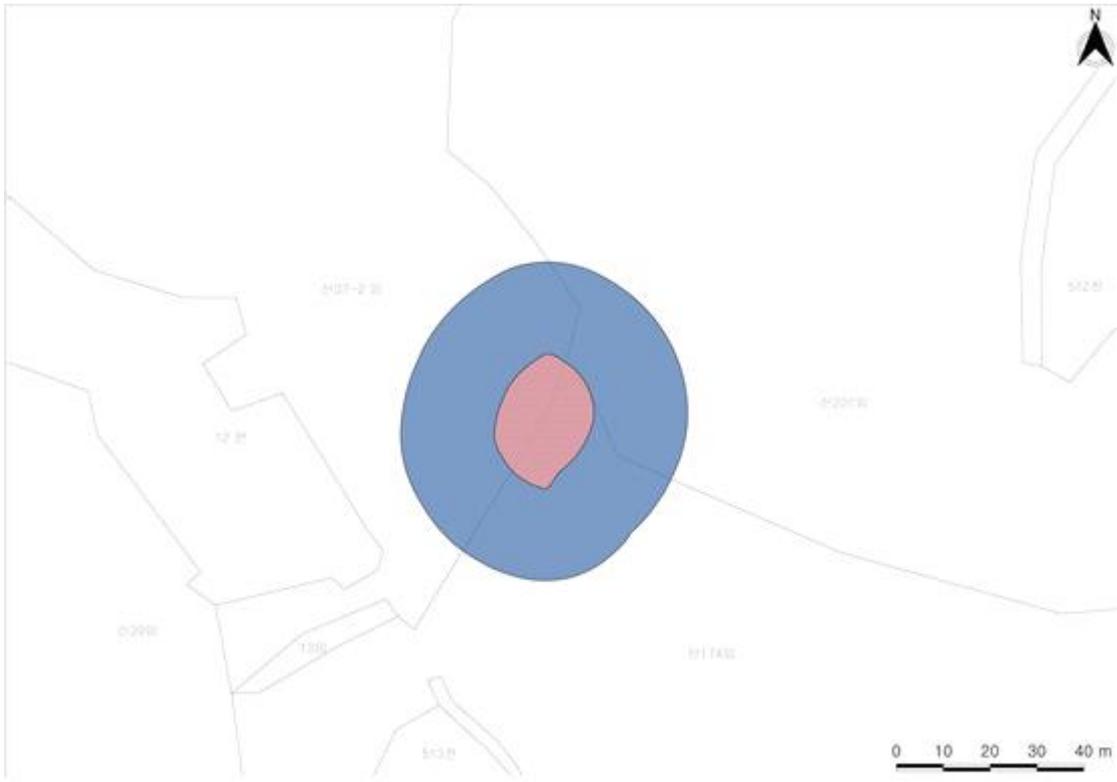
- 전봉(前烽)은 조선 전(全) 기간 두 차례의 노선조정(녹전산봉수 13.9km, 창팔래산봉수 8.1km)을 통해 최종 용점산봉수와의 대응거리를 단축한다.
- 후봉(後烽)은 조선 전 기간 두 차례의 노선조정[(당북산봉수 4.5km, (신)당북산봉수 3km)]을 통해 최종 용점산봉수와의 대응거리를 단축하여 지근거리에서 대응한다.



사진 8. 용점산봉수와 대응봉수



사진 9. 용점산봉수대와 봉화현치소 위치



도면 2.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S=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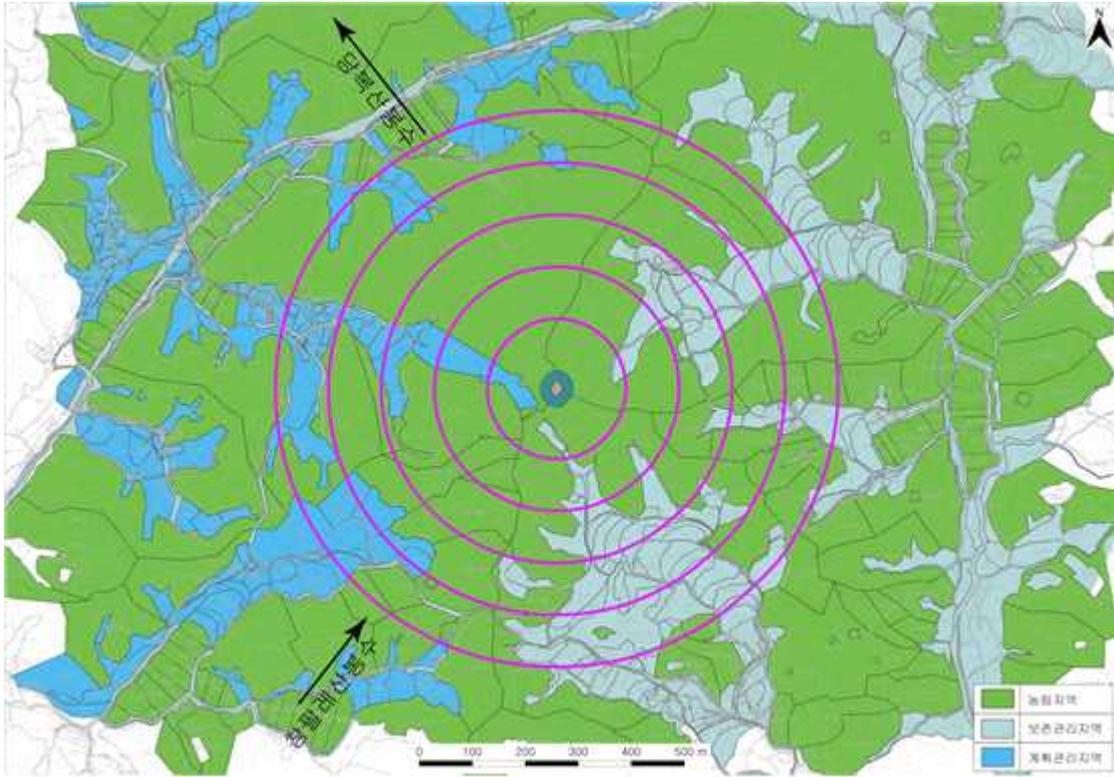
도면 3.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

9.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1) 검토의견

용점산봉수 전·후 대응노선 봉수의 방향을 고려한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

봉화군	봉화군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p>■ 대상문화재 제2로 직봉 - 봉화 용점산봉수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문촌리 산174번지</p> <p>■ 문화재 및 보호구역</p> <p> 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보호구역</p> <p>■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간격)</p> <p>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p> <p>■구역별 허용기준</p>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봉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 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0. 보존·정비와 활용 착안사항

1) 기본구상

(1) 기본방향

① 기본원칙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1.6.10.] [법률 제17409호, 2020.6.9. 일부개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문화재청, 2002)

- 문화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문화재 활용은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사업의 소재로서 개발·활용하며,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육성한다.

『유적(遺蹟) 등 정비계획 수립·추진관련 고려사항』(문화재청, 2003)

- 가치(원형) 보존 최우선 :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복원·정비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비를 지양하고, 유적의 가치와 역사적 숨결을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명확한 정비목표 수립 : 유적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적 정비를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한다. 보존과 복원·정비되어야 할 것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 :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고, 유적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방향 설정

- 봉수대의 보존·정비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도모하고, 봉화군의 역사문화관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동선체계 등 기반시설의 확충안을 수립한다.
- 봉수는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평안을 상징하는 1거의 횃불[平安火·太平火]을 올림으로서 과거 봉화현과 인근 고을 백성들이 이를 바라보고 일상을 마무리하는 순기능도 있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봉화군 소재 전체 다섯 개소 봉수의 보존·정비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봉수대의 잔존 방호벽과 망덕 등의 역사적 실체를 보존·정비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시킨다.
-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활용되었던 봉수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정보통신 발달의 상징적 유적으로 보존·관리한다.
- 경상도와 충청도·경기도를 거쳐 최종 서울 목멱산봉수로 이어지는 내지봉수 체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원한다.

(2) 기본전제

① 잔존 봉수 유구의 보존과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

방호시설인 방호벽과 망덕을 대상으로 보존·정비하여 용점산봉수의 문화재적 가치가 표출되도록 한다.

② 역사문화자산 가치 증진 및 화제성 창출

과거 봉수제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던 당시에 봉수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봉수군과 봉수운영 관련 된 기록과 내용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유적과 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화제성이 창출되도록 정비한다.

③ 대응봉수와의 조망을 위한 가시권 확보

봉수는 인근 대응봉수와의 후망을 통해 봉화현과 고을 백성들에게 변경의 안위 여부를 알리던 군사통신유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적 강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계획한다.

조선 후기에 최종 설정된 대응봉수인 창팔래산봉수와 당북산봉수와의 가시권 확보와 봉수 주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식생이 양호한 기존의 자연경관 유지 방안을 제시한다.

④ 주연야화(晝煙夜火) 통신의 특징을 살린 ‘체험과 교육의 장’ 조성

횃불과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 소식을 전하였던 봉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적의 복원보다는 체험과 실연(實演)을 통한 거화의 과학적 원리를 교육한다.

진입로의 정비와 교육적 기능을 갖춘 탐방로 조성을 통해 용점산봉수의 500여 년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⑤ 주변 문화자원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

봉수의 동북쪽에는 ‘봉화향교, 봉서루, 봉성금륜봉과 돌거북’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봉수와 인근 유적을 통합적으로 연계·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⑥ 실현가능한 세부추진사업 도출과 단계별 사업시행

봉화군의 재정여건이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토지 매입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필요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3) 종합구상

① 추진사업 계획

역사적 실체 보존 사업을 실시한다.

- 식생정비(소목 간벌), 봉수 내부 잔디 식재, 봉수군 주거지 정비 등 문화자원 연계 개발사업을 실시한다.
- 탐방로(봉수군 길) 정비, 스토리텔링 개발, 체험 프로그램 및 축제 개발, 봉수 C.I개발, 동선표지판·전망시설 및 망원경 설치 등을 진행한다.
- 읍성과 봉수 등 관방체계 알림 사업을 병행한다.
- 주변봉수와 읍성 등 주변지역의 관방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② 토지이용계획

봉수대 일원은 민간 소유의 임야로서,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구천리 산37-2와 문촌리 산174·201에 소재하며 면적은 432㎡이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토지대장, 2021.9.)

현재 용점산봉수를 찾는 탐방객은 소수에 불과하여 무진장골 소로변에서 등산로를 개척하여 올라가는 실정이다.

향후 제2거 직봉 노선 봉수의 사적지정이 확정되고 보존·정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 시 탐방객에게 보다 쾌적한 역사경관과 편리한 탐방환경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

③ 동선계획

본 계획에서는 봉수대와 진입구역으로 나누고 각 공간별로 기능을 배분하였다.

봉수대의 탐방동선은 진입로의 정비와, 전통적인 분위기 연출과 유지관리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야자매트로 한다.

또한, 탐방객의 주 동선이 되는 진입로를 활용하여 봉수에 대한 관심유발과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2) 보존과 정비활용계획

(1)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확대지정

① 향후, 제2거 직봉 노선의 봉수를 사적(史蹟)으로 승격 시 문화재지정구역의 확대 및 대응봉수간의 조망과 가시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용점산봉수를 중심으로 남쪽의 창팔래산봉수, 북쪽의 당북산봉수를 잇는 조망과 가시권 확보가 필요하다.

② 봉수대 주위의 수목을 선별적으로 간벌하여 대응봉수간 조망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③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확대는 기존 현상변경허용기준 적용구역의 확대를 수반한다. 인접 봉수간의 조망 확보를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아울러 보호구역 외곽 200m 정도는 1구역(개별 심의) 또는, 2구역<최고높이 8m이하(평지붕), 최고높이 12m이하(경사지붕)>으로 설정하여 역사문화 환경과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④ 진입로에서 봉수대의 원경을 볼 수 있도록 간벌 등을 통해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봉수군들이 이용했던 소로(진입로)는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이 길을 통한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2) 보존계획

① 봉수유적 보존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는 방호시설인 방호벽과 망덕이 잔존하고 있으나,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후 13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봉수대 내·외의 잡목으로 그 형태를 뚜렷하게 확인하기 곤란하다.

- 따라서, 과거 봉수의 운영당시 원형구조를 밝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수를 구성하였던 제반 요소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비와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내용

- 봉수는 과거 운영당시의 모습대로 단계적으로 정비·복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조선시대 내지봉수의 형태와 기능을 학습·체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공간으로 조성한다.

다. 추진방법 및 절차

- 먼저 방호시설인 방호벽과 망덕에 대한 원형구조를 확인한다.
- 방호벽은 주위 잡목을 간벌하고 방호벽 내부에는 잔디를 식재하여 보존한다.

② 수목 간벌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 내·외는 현재 무성한 잡목으로 대응봉수와의 조망이 곤란하거나 유구 훼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적절한 간벌을 통하여 유적 보존 및 가시권(可視圈)을 확보한다.

나. 사업내용

- 현재 봉수대 주위와 내에는 수목이 들어차 있어 대응봉수의 조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목을 선별적으로 벌목하여 대응봉수인 창팔래산봉수와 당북산봉수에 대한 조망을 개선한다.

다. 추진방법

- 벌목작업은 봉수유구의 보존, 주변경관 조망, 봉수의 제반요소 감상 등에 장애를 주는 수목부터 선별하여 실시한다.
- 봉수대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경관이 확보되도록 수목을 제거한다.
- 무진장골에서 봉수대로 향하는 수목을 정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동선을 유도한다.

(3) 정비·활용계획

① 전망시설과 휴식공간 설치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의 정체성과 주요 기능은 대응봉수와의 시각적 연결에 있다. 현재, 봉수는 내·외부의 수목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제한적이고, 전체 봉수유구를 살펴 볼 수 없다. 조선시대 봉수는 대응봉수와의 조망과 주변 관찰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였으므로 이러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 주변 적당한 곳에 봉수의 전체 구조와 대응봉수, 주변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조선시대 봉수의 입지선정 원리를 체감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과 절차

- 전망시설은 봉수대 주변 시야가 가장 좋은 지점에 설치하되,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봉수의 역사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안내판에 대응봉수를 촬영한 사진을 표시하여 눈앞에 펼쳐진 전경과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망시설에는 망원경 등을 설치한다.
- 전망시설 하부나 주위에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방문객에게 휴식과 사색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② 봉수군 탐방로 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무진장골에서 봉수대로 이어지는 ‘봉수군 탐방로’를 조성하여 문화콘텐츠로 활용한다.

나. 사업내용

- 탐방로를 개설하고, 봉수 관련 이야기와 비품 등을 소개함으로써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과거 봉수의 기능과 운영 및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노변(路邊) 전시관 기능을 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

- 진입로를 정비하며 주요 지점에는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고 벤치 등의 휴식시설을 도입한다.
- 안내판의 내용은 『영남진사례』(1894)「안동진사례 순치십년계사설」(효종 4년, 1653) 중기 풍기에 용례가 있는 안동진 소관 풍기 봉대집물 64종의 물목을 토대로 봉수운영에 필요한 비치물목상의 거화재료나 생활비품 등을 선별하여 사진 자료와 함께 해설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豐基 烽臺什物

烟臺 一, 烟突 五, 望德 一, 火德 一, 火箭 九箇, 唐火箭 九箇, 瓦家 五間, 白米 一石, 食鼎 一坐, 爐口 一坐, 白旗 一面, 火藥 六兩, 懸瓢子 五箇, 同火注 三巨里, 種火盆 一坐, 排木 六箇, 滅火器 一坐, 條所 三巨里, 環刀 一柄, 桶兒 一柄, 片箭 一部, 木斧子 二十箇, 戰角 一隻, 草席 二立, 馬糞 五石, 牛糞 五石, 艾 5同, 長箭 一部, 草炬 五十柄, 桐炬 三柄, 柎炬 五十柄, 槽桶 六坐, 鎌子 三柄, 松炬 五十柄, 箭梯 一, 法手木 五, 槍 一柄, 瓢子 五箇, 水瓮 五坐, 梭杖 二十箇, 無梭石 五訥, 細沙 五石, 糟 五石, 弓子 一張, 轎子注 一巨里, 南飛蓋 一坐, 耳藥桶 一箇, 烏銃 一柄, 積柴 五訥, 沙鉢 五箇, 鑰匙 五箇, 盤 五立, 古月來 五十箇, 吐木 五訥, 烟草 五訥, 炭 五石, 防牌 一坐, 火桶 三十坐, 火鐵 二箇, 柳器 一部, 木桶 六坐, 斧子 一坐, 水瓮 一坐, 烏卵 一石五訥, 抹木核子 無數完植, 三穴銃 一柄, 掩心 一部, 掩頭 一部, 五色旗 一部, 錚 一坐, 鼓 一坐, 檣 一坐, 火石 十箇, 生松 一訥.

(『嶺南鎮事例』(1894)「安東鎮事例」重記)

(4) 봉수 거화(擧火) 실연(實演) 행사

① 추진배경과 목표

봉수는 연기[주간]와 불[야간]로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시설인 만큼 실제 거화(擧火)나 거연(擧煙) 같은 실연(實演)행사의 실시를 통해 선조들의 봉수운영 원리를 체득하게 한다.

② 사업내용

연기와 불이라는 시각신호로 변경의 안위여부를 전달하였던 봉수의 연조 형태와 구조, 거화재료의 종류와 배합 등을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이 실증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크기의 연조를 제작한 후 실연(實演)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③ 추진방법과 절차

가. 먼저 실연행사를 할 수 있는 연조(煙竈)를 제작하되 설치장소는 행사 시 화재발생이나 유구 훼손에 대비하여 유적과 일정거리 떨어진 곳으로 한다.

나. 거화재료[燄]는 안동진 풍기 봉대집물 64종의 비치물목 목록을 참고하여 준비하고 전통방식에 따라 제작한 후 사용한다. 행사의 진행은 지역 문화단체가 담당하고 연 중 개최시키는 ‘신년, 정월대보름, 8·15광복절, 봉화군민의 날’ 중 의미있는 날을 정하여 개최하도록 한다.

(5) 관리운영계획

① 관리운영 주체

봉화군에서 관리

(봉화축제관광재단 등 지역 유관기관에 위탁관리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② 관리운영 목표

가. 용점산봉수대의 보존과 유지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

나. 탐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도모

다. 용점산봉수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의 극대화

라. 유적의 학술적 가치 극대화와 신규 문헌 발굴 등

③ 관리운영사항

가. 봉수대 유적

- 용점산봉수대 일원

- 용점산봉수대 주변 탐방로 등

나. 자연환경

- 용점산봉수대 주변 수목 및 지형

- 주변 생태환경, 녹지 등

다. 시설물

- 탐방로, 전망시설 등

- 안내판, 방향지시판, 휴게시설 등

라. 탐방객을 위한 서비스

- 홍보, 해설, 전시, 축제행사 등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④ 사업 추진절차

가. 문화재지정구역 및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는 먼저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발굴(시굴)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한 후 도출된 발굴결과에 따라 정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입 → 발굴 → 정비’의 순이다. 용점산봉수는 정식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비단계에 따르면 대상지가 안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복원·정비의 단계를 결정한다.

나. 매입 단계는 정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국·공유지화 하는 단계로서 대상지의 지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 파악과 매입에 예상되는 비용 및 매입의 원활성을 판단하여 정비의 선후를 결정한다.

⑤ 순차별 사업계획

가. 봉수대의 보존·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체 사업비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초기 2년의 정비를 단기정비로 설정하고 이후의 계획 중 우선시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기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단기사업은 정비사업의 기간 및 지자체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나. 보존·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추진 절차, 시급성, 사업비,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다. 봉수대 보존과 주변정비사업은 방호벽과 망덕 정비, 식생정비[간벌 등], 전망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은 유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선정한다.

라.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편리하고 쾌적한 출입 및 동선체계 구축을 위한 등산로 조성사업을 단기에 시행하

고 관광 역량 제고를 위한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은 중기에 진행한다.

마. 이들 추진사업은 봉화군의 정책 순위 변경과 주민들의 요구도, 제반 상황변화에 따라 추진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1. 종합의견

- 1) 봉화 용점산봉수는 조선시대 전체 5거노선의 봉수 체계에서, 부산 응봉봉수에서 초기하는 제2거 직봉의 스물아홉번째 내지봉수다. 망덕(望德)을 방호벽 내에 마련한 특이한 구조다. 또한, 봉수군이 방호벽 내·외 출입을 위한 개방형의 출입시설을 1개소 마련하였다.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 2) 용점산봉수는 조선 전기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1425)부터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각종 지지에 빠지지 않고 등재되어 있고 제2거 직봉 노선의 주요봉수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탁월하여 차후 발굴조사와 보존정비 사업을 거쳐 사적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3) 봉화지역은 교통과 봉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충지였다. 봉수는 과거 봉화에서 안동으로 넘나드는 옛길 ‘봉화재’에 위치하며, 치소(현 봉성면사무소 부근)에서 서남쪽의 봉수까지 5km 내의 근거리임에 따라 치소의 가시권 내에 봉수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내지봉수임에도 대응봉수간 후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인 망덕을 방호벽 내에 설치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전봉과 후봉과의 상응거리를 단축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 4) 봉수는 단일 유적보다는 통신체계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 노선별 주요봉수, 잔존상태, 역사성, 지정번호 부여방식 결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적지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문화재 종류

1) 사적

- 봉지산봉수(烽枝山烽燧)는 비지정문화재로서, 부산 다대포 응봉봉수(鷹峰烽燧)에서 초기(初起)하는 제2거 직봉노선의 스물다섯번째 내지봉수이다.
- 부산 간비오봉수(干飛鳥烽燧)에서 초기하는 제2거 간봉(1) 노선의 스물네번째 종착 봉수이다.
- 제2거 직봉과 간봉(1) 노선의 결절점에 위치하는 ‘안동 봉지산봉수유적(安東 烽枝山烽燧遺跡)’을 같은 노선의 봉수와 연계하여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2. 문화재 명칭

1) 문화재명 : 제2로 직봉 - 안동 봉지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安東 烽枝山烽燧遺跡)

- 봉수유적은 연속유산으로서 노선 단위 지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정명칭은 “본 명칭 - 부 명칭”의 형식으로 부여토록 한다. 여기서 본 명칭은 대표성이 높으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2로 직봉(第2路 直烽)”으로 한다.
- 부 명칭은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라 봉수명칭 앞에 현 행정구역 소재지인 ‘안동(安東)’을 표기한다.
- 봉수명칭은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이후 조선 최후기 봉수망을 알 수 있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의 명칭과 한자표기를 따라 ‘봉지산봉수유적(烽枝山烽燧遺跡)’으로 표기한다.
- 따라서, 최종 봉수명칭은 ‘제2로 직봉 - 안동 봉지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安東 烽枝山烽燧遺跡)’(이하 ‘봉지산봉수’라 한다)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명칭유래

봉수는 시기별로 발간된 지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자가 다양하게 표기된다.

어두(語頭)의 명칭이 ‘남산(南山) → 봉지산(峯枝山) → 봉지산(烽枝山)’ 등으로 세 차례의 변화가 확인된다.
어미(語尾)의 명칭은 ‘봉화(烽火) → 연대봉화(煙臺烽火) → 봉수(烽燧)’ 등으로 세 차례의 변화가 확인된다.

- 남산봉화(南山烽火) :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 남산봉지연대봉화(南山烽枝煙臺烽火) : 『경상도속찬지리지』
- 남산봉수(南山烽燧) : 『신증동국여지승람』, 『영가지』, 『신증안동부여지지』, 『여지도서』, 『경상도읍지』, 『영남읍지』

- 「안동부읍지」(1871·1895), 『안동부읍지』
- 봉지산봉수(峯枝山烽燧) : 『여도비지』
 - 봉지산봉수(峰枝山烽燧) : 『증보문헌비고』

지지에 따라 명칭을 “南山烽燧 一名 烽枝山”(『신증동국여지승람』·『영가지』·『신증안동부여지지』), “南山烽燧 一名 峯枝山”(『여지도서』·『경상도읍지』·『영남읍지』·『안동부읍지』(1871·1895)·『안동부읍지』) 이라고 하여, ‘烽枝山→峯枝山’의 표기 변화가 있지만 남산명과 봉지산명을 동일시 하였다.

봉수 명칭은 조선 전 시기 발간 지지·문집·고지도 등의 문헌에 ‘봉·봉화·봉수·봉화대·봉수대·봉대’ 등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봉수의 대응 관계를 최초로 기록한 『경상도지리지(1425)』와 『세종실록지리지(1424~1454)』에서 ‘봉화’로 기록하면서, ‘봉화·봉화대·봉화산’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봉화·봉화대·봉화산’은 고려에서부터 봉수제도가 운용되면서 민판에서 범용되던 말이 기록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봉수가 야화(夜火)로 평안화를 올렸기에, 연기인 수(燧)보다는 불(火)의 이미지가 강조된 결과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는 이전 시기의 봉화가 봉수로 바뀌어 기록된다. ‘봉화·봉수’는 봉수의 의미나 대상을 지칭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봉화’는 봉수·봉수대·봉수제도를 광범위하게 가리키는 용어지만, 봉수제도나 법률, 봉수가 지닌 속성과 기능 등을 표현할 때는 ‘봉수’가 훨씬 많이 사용된다.

봉수가 있는 산은 보편적으로 봉화산으로 불린다. 현실에서 봉화·봉화산을 가리키는 말을 크게 분류해 보면, ‘봉화’와 ‘산’이 결합한 ‘봉화산·봉대산’과 ‘봉수’와 ‘산’이 결합한 ‘봉수산·봉우산’이 있다.

또한, 봉수는 각 지역의 읍치에 경보나 평안화(平安火)를 전달하고, 행인들에게 널리 홍보하면서 중앙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이는 봉수가 행인들이 늘 넘나드는 고개(재)나 큰길을 살필 수 있는 곳에 설치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봉수가 행인들이 늘 넘나드는 고개(峴: 재)와 결합된 형태로 인식하게 되어, ‘봉화재·봉우재’로 범칭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개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토현·구토현·여음현·오현·천천현’으로 호칭하게 된다.

봉화와 봉수는 뒷말인 ‘-대, -산, -재, -등’이 결합되어 ‘봉화산·봉화대·봉화재·봉화등·봉수산·봉수대’ 등으로 표현된다. 이 말이 익숙해지면 좀 더 간략한 형태인, 단어의 중심의미 ‘봉’과 뒷말과 결합하여 ‘봉산·봉대’로 호칭된다. 현실적 호칭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른 방언적 특성이 반영되어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봉화·봉수·봉’이 ‘-대, -산, -재, -등’과 결합할 때, 음운적 변화가 발생해 ‘봉우산·보우산·봉우재·보우재·봉재·봉지·봉우지·보우지·보우지·보지’ 등으로 표현된다.

이외에도 ‘봉화·봉수·봉’이 경상도 방언의 ‘산정·산능선’을 의미하는 명사형 어미 ‘-만대기, -만대이, -말랑, -말랭이, -때배기, -태배기’ 등과 결합하여 좀 더 다양하게 표현된다.

봉지산은 안동에서 남쪽으로 강 건너 바라보이는 산이다. 안동부의 남쪽이어서 남산봉수로 불렸다. 부산 다대포에서 출발한 직봉이 경상도 내륙을 거쳐 다다르며, 동래 간비오에서 출발한 간봉1 노선이 남동해 연안을 거쳐 영해에서 태백 준령을 넘어온다. 부산과 동래 연변의 경보를 직봉인 개목산 봉수와 지봉(직봉 혹은 간봉 사이를 잇는 노선)인 풍산 소산 봉수로 전하던 봉수다.

봉지산은 안동부에 매일 평안의 불을 전하는 ‘봉화·봉수·봉’에 안동에서 의성 대구로 통하는 남쪽 길목 ‘한티재’의 ‘-재’와 결합해 ‘봉재’가 된다. 고개를 뜻하는 ‘-재’는 경상도 방언에서 다른 말과 결합할 때, 흔히 ‘-지’의 형태로 나타나기에 ‘봉재→봉지’로 변한 것이다. 봉지산(283m)을 안동에서 바라보면, 산정이 뾰족한 모습이어서 주변의 낮은 산과 구별된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안동의 남쪽에 있는 남산이기에 봉화재인 ‘봉지’에 ‘-산’이 결합해 ‘봉지산’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봉지(烽枝)’가 후에 ‘봉지(峯枝)’로 기록된 것을 보면, 봉우재를 표기한 것이 더욱 확실해진다.

3. 안동지역의 봉수현황과 성격

- 안동 지역에는 최초 설봉(設烽)과 폐봉(廢烽)시기 및 노선이 다른 총 6기의 봉수(감곡산·봉지산·개목산·약산·신석산·소산)가 소재하고 있다, 봉수의 성격에 의한 구분상 모두 육지내륙 소재의 내지봉수(內地烽燧)다.
- 이 중 ‘소산봉수’는 조선 후기인 18세기 중엽 노선의 조정으로 인해 폐봉됨에 따라 『증보문헌비고』(1908)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가 최종 폐지될 때까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었던 봉수는 제2거 직봉의 ‘감곡산·봉지산·개목산’ 등 3기와 2거 간봉(1)의 ‘약산·신석산’ 등 2기이다.

4. 봉지산봉수의 입지와 연혁

1) 입지

봉수대는 경상북도 안동시 수상동 산78 일원의 해발 284m인 산정상부에 위치한다. 안동시의 바로 남쪽에 위치한 산으로, 산정부에서는 북쪽 아래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정면에 안동 시내가 3km 내외의 근거리에 바라보인다. 사방을 조망하기 좋은 곳이나, 주위 울창한 수목으로 인해 조망이 제한적이다.

5번 국도와 35번 국도가 교차하는 한티교차로의 우측에 위치한 산으로 국도변에서 산길을 따라 오르면 봉수대에 이를 수 있다.

2) 연혁

봉수의 최초 지지기록은 『경상도지리지』(1425)부터이며, 최종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조선 전(全) 시기 발간의 지지에 문헌기록이 있다. 각 지지별 발간연도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慶尙道地理志』(1432) 安東道 安東大都護府
烟臺烽火所在處及相准處并以施行事
연대봉화 소재처와 서로 겨누는 곳을 모두 기록한다.
南山烽火 南望任內一直縣地 甘谷烽火 相去十五里 西望豐山縣地 南山烽火 相去三十里 北望府地 開目烽火 相去三十里
남산봉화는 남쪽으로 임내 일직현지 감곡봉화를 바라보는데 거리는 15리다. 서쪽으로 풍산현지 남산봉화를 바라보는데 거리는 30리다. 북으로 부의 개목봉화를 바라보는데 거리는 30리다.
- 『世宗實錄』卷 150, 地理志 慶尙道 安東大都護府
烽火七處 南山 在府南 東准申石山 南准一直甘谷 西准豐山 南山 北准開目
봉화 7곳이다. 남산은 부의 남쪽에 있다. 동으로 신석산을 겨누고, 남으로 일직 감곡을 겨누고, 서쪽으로 풍산 남산을 겨누고, 북으로 개목을 겨누다.
- 『慶尙道續撰地理誌』(1469) 安東道 安東大都護府
烟臺烽火 南山烽枝煙臺烽火 東與申石煙臺烽火 南與任內一直縣甘谷山煙臺烽火相准 西與任內豐山縣南山

연대봉화는 남산봉지연대봉화인데, 동으로 신석산연대봉화, 남으로 임내 일직현 감곡산연대봉화, 서쪽으로 임내 풍산현 남산에 겨룬다.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卷24, 慶尙道 安東大都護府 烽燧
南山烽燧 一名 烽枝山 在郡南十四里 東應申石山 南應一直縣甘谷山 西應豐山縣所山 北應開目山
남산봉수는 일명 봉지산이라고 한다. 군의 남쪽 14리에 있는데, 동으로 신석산에 응하고, 남으로 일직현 감곡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풍산현 소산에 응하고, 북으로 개목산에 응한다.
- 『永嘉誌』(1608) 卷5, 烽燧
南山烽燧 一名 烽枝山 在府南十四里 東應申石山 南應一直縣甘谷山 西應靈山縣所山 北應開目山
남산봉수는 일명 봉지산이라고 한다. 부의 남쪽 14리에 있는데, 동으로 신석산에 응하고, 남으로 일직현 감곡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풍산현 소산에 응하고, 북으로 개목산에 응한다.
- 『新增安東府輿地誌』(1745) 烽燧
南山烽燧 一名 烽枝山 在府南十四里 來應申石山相距十五里 去應一直縣甘谷山相距二十里
남산봉수는 일명 봉지산이라고 한다. 부의 남쪽 14리에 있는데, 신석산이 15리의 거리에서 와서 응하고, 일직현 감곡산과 20리의 거리에 가서 응한다.
- 『輿地圖書』下(1760) 慶尙道 安東鎮管 安東大都護府 烽燧
南山烽燧 一名 峯枝山 在府南十四里 東應申石山 南應甘谷山 北報開目山 相距四十里
남산봉수는 일명 봉지산이라고 한다. 부의 남쪽 14리에 있는데, 동으로 신석산에 응하고, 남으로 감곡산에 응하고 북으로 개목산에 알리는데 거리는 40리다.
- 『慶尙道邑誌』第3冊, 「安東府邑誌」(1832) 烽燧
南山烽燧 一名 峯枝山 在府南十四里 東來應申石山 相距十五里 南來應一直縣甘谷山 相距十五里 北去應開目山 相距四十里
남산봉수는 일명 봉지산이라고 한다. 부의 남쪽 14리에 있는데, 동으로 신석산이 와서 응하는데 거리는 15리다. 남으로 일직현 감곡산이 와서 응하는데 거리는 15리다. 북으로 개목산에 가서 응하는데 거리는 40리다.
- 『輿圖備誌』(1856) 卷8, 慶尙道 左道 安東大都護府 武備 烽燧
峯枝山 治南十里
봉지산은 부의 남쪽 10리다.
- 『大東地志』(1864) 卷7, 慶尙道 15邑 安東 烽燧
峰枝山 南十四里
봉지산은 남쪽 14리다.
- 『嶺南邑誌』第1冊, 「安東府邑誌」(1871) 烽燧
南山烽燧 一名 峯枝山 在府南十四里 東來應申石山 相距十五里 南來應一直縣甘谷山 相距十五里 北去應開目山 相距四十里
남산봉수는 일명 봉지산이라고 한다. 부의 남쪽 14리에 있는데, 동으로 신석산이 와서 응하는데 거리는 15리다. 남으로 일직현 감곡산이 와서 응하는데 거리는 15리다. 개목산에 가서 응하는데 거리는 40리다.
- 『嶺南邑誌』第18冊, 「安東府邑誌」(1895) 烽燧
南山烽燧 一名 峯枝山 在府南十四里 東來應申石山 相距十五里 南來應一直縣甘谷山 相距三十里 北去應開目山 相距四十里
남산봉수는 일명 봉지산이라고 한다. 부의 남쪽 14리에 있는데, 동으로 신석산이 와서 응하는데 거리는 15리다. 남으로 일직현 감곡산이 와서 응하는데 거리는 15리다. 개목산에 가서 응하는데 거리는 40리다.
- 『嶺南邑誌』第18冊, 「安東府邑誌」(1895) 附事例 烽燧六山
每山 別將一人 軍一百名 作二十番 每番伍長一人 軍四名 輪回立番
매 산 별장 1인, 군 100명이 20번을 이룬다. 매 번 오장 1인, 군 4명이 돌아가며 번을 선다.)
峯枝山 在南後水沆里十里 本府申石甘谷山來準 開目山去應
봉지산은 남후면 수향리에 있는데 10리이다. 본부의 신석산과 감곡산이 내준하고 개목산으로 가서 응한다.
- 『安東府邑誌』(1899) 烽燧
南山烽燧 一名 峯枝山 在府南十四里 東來應申石山相距十五里 南來應一直縣甘谷山相距十五里 北去應開目山 相距四十里
남산봉수는 일명 봉지산이라고 한다. 부의 남쪽 14리에 있는데, 동으로 신석산이 와서 응하는데 거리는 15리다.

남으로 일직현 감곡산이 와서 응하는데 거리는 15리다. 개목산에 가서 응하는데 거리는 40리다.

• 『增補文獻備考』(1908) 卷124, 兵考16 烽燧2

初起 鷹峰(多大浦鎭) -- (中略) -- 甘谷山 峰枝山 開目山 -- (中略) -- 第2炬準 天臨山

초기 응봉(다대포진) -- (중략) -- 감곡산 봉지산 개목산 -- (중략) -- 제2거준 천림산

間烽(1) 初起 干飛鳥 -- (中略) -- 新石山 安東峰枝山

간봉(1) 초기 간비오 -- (중략) -- 신석산 안동봉지산

위 지지의 내용을 시기별로 검토하면 전기 발간의 『경상도지리지』에 안동도 안동대도호부 소속의 남산봉화(南山烽火) 명칭으로 “부의 남쪽 10리에 소재한다. 동쪽으로 신석산봉화(申石山烽火)를 15리의 거리에서 바라 본다.”라고 하였다. 이어 『세종실록』지리지(1454)에는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소속 봉화7처 중 1처인 남산봉화 명칭으로 부의 남쪽에 소재하며 동쪽으로 신석산봉화, 남쪽으로 일직 감곡봉화(甘谷烽火), 서쪽으로 풍산 남산봉화(南山烽火), 북쪽으로 개목봉화 등 네 방향으로 응한다고 하였다. 『경상도속찬지리지』에는 남산봉지연대봉화(南山峰枝煙臺烽火) 명칭으로 이전 시기와 동일하게 네 방향으로 대응하는 봉수를 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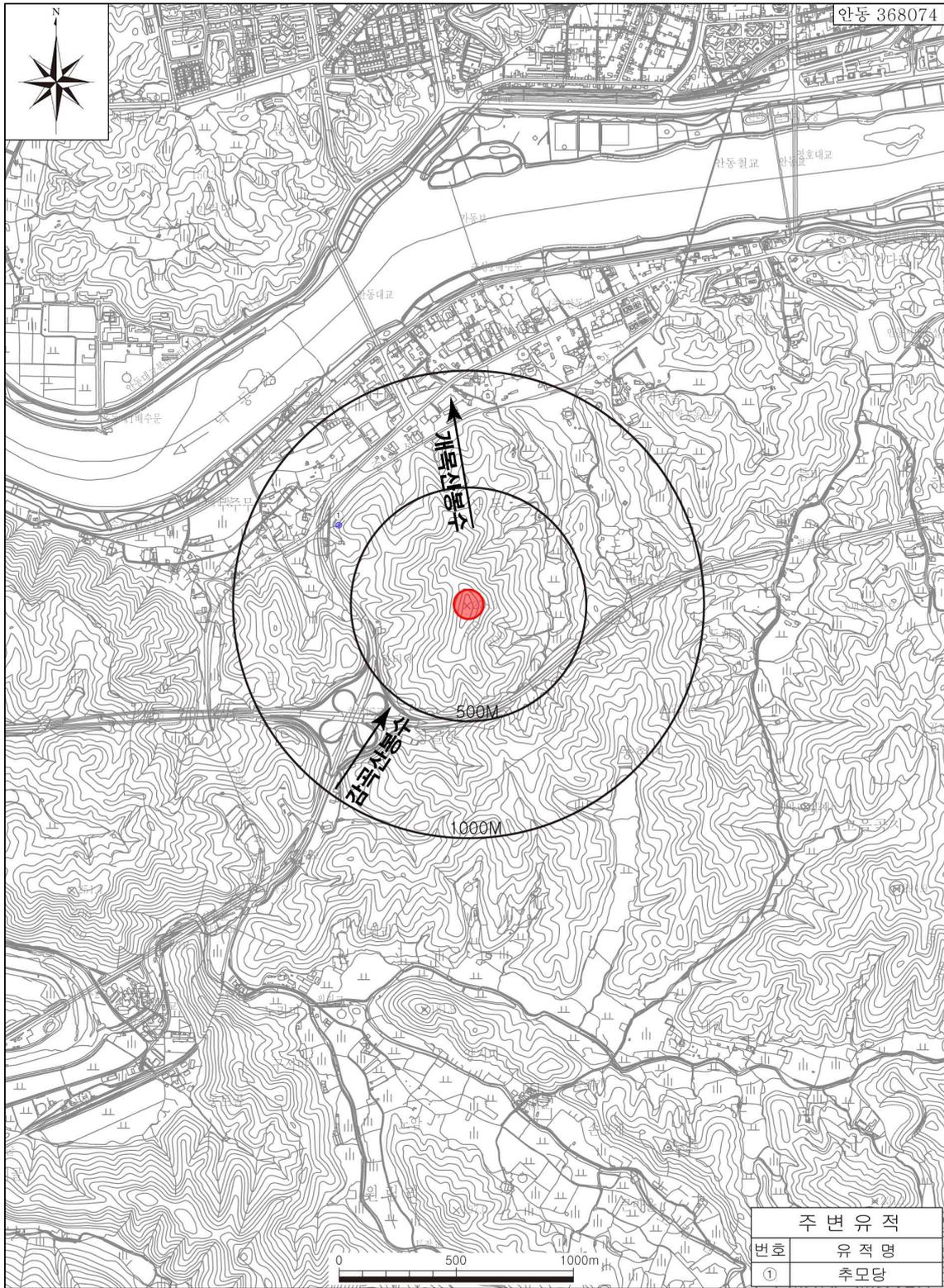
중기 발간의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는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소속의 남산봉수(南山烽燧) 명칭으로 “일명 봉지산이라고 한다. 군의 남쪽 14리에 있는데 동으로 신석산(申石山)에 응하고, 남으로 일직현 감곡산(甘谷山)에 응하고, 서쪽으로 풍산현 소산(所山)에 응하고, 북으로 개목산(開目山)에 응한다.”라고 하여 전기와 동일하게 네 방향으로 대응하는 봉수를 표기하고 있다.

후기 발간의 『여지도서』(1760)에는 경상도 안동진관 안동대도호부 소속의 “남산봉수 달리 봉지산봉수(峯枝山烽燧)로 지칭된다. 부의 남쪽 14리에 소재하며 동쪽으로 신석산봉수, 남쪽으로 감곡산봉수에 응하고, 북쪽으로 개목산봉수와 40리의 거리에서 알린다.”라고 하여 종전 서쪽으로 응하던 풍산 소산봉수(所山烽燧)가 이때 폐지되고 나머지 세 방향으로 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봉지산봉수는 조선 전·후기에 두 차례 대응봉수의 노선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18세기 중엽 직봉 감곡산→봉지산→개목산과 간봉(1) 신석산→봉지산으로 정해진 노선은 이후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시까지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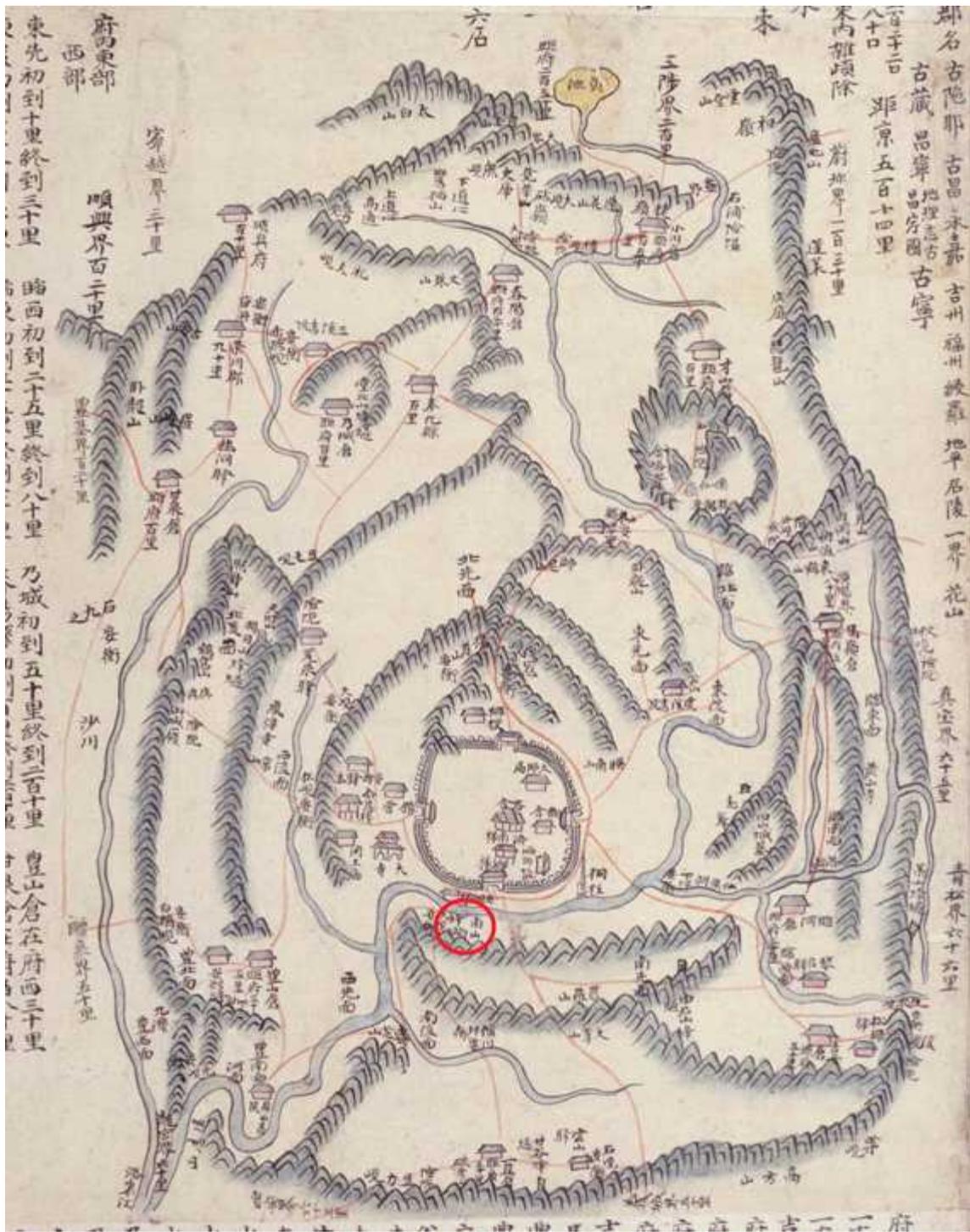


지도 1. 2거 직봉 노선 내 봉지산봉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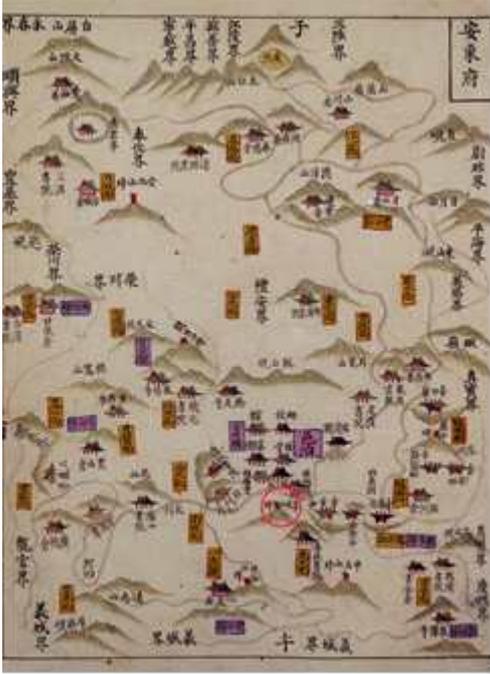


지도 2. 봉지산봉수대 위치도(S=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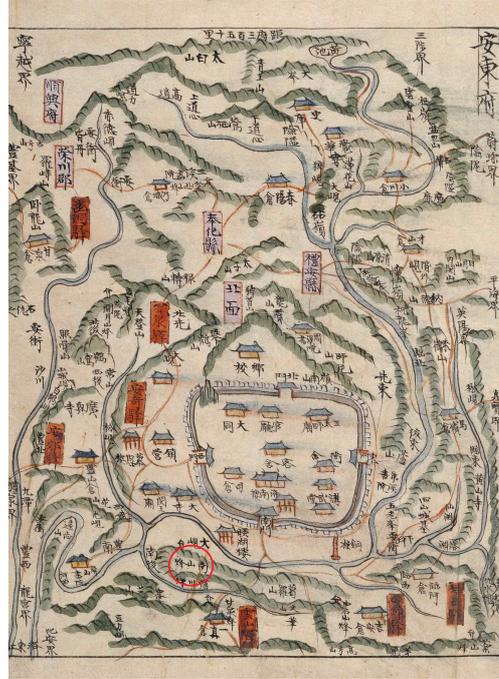
3) 고지도



고지도 1. 『해동지도』 안동부



고지도 2. 『광여도』 안동부



고지도 3. 『지승』 안동부



고지도 4. 『대동여지도』(1861)

5. 봉수운영

조선 후기 경상좌병사 소관이였다. 봉수군 인원과 운영 관련 비치물품은 『영가지』(1608)를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당시 ‘남산(南山)·신석산(申石山)·약산(藥山)·소산(所山)·당북산(堂北山)·개목산(開目山)·감곡산(甘谷山)’ 등 7기의 봉수마다 “별장(別將) 2인, 감고(監考) 2인, 군(軍) 6명”이 속해 있었다. 그리고 봉수운영을 위해 “항아리 5, 모래 5석, 마분 5석, 목추 15자루, 화 100자루, 연굴 5기, 멸화자 5자루, 구유 5, 표주박 5, 동아줄 1, 연초 5, 술 2甞” 등 12종의 비품을 구비하고 있었다.¹⁾

『영남읍지』(1895)에는 봉수육산(烽燧六山)에 “매산 별장 1인, 군 100명이 20번을 이루어 매번 오장 1인, 군 4명이 윤회입변한다.”²⁾라고 하였다.

『영남진사례』(1895)에는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후 안동진 소속 봉대집물의 명칭과 수량 및 읍으로의 이관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봉수군기 집물은 병영의 관문에 따라 단단히 타일러 읍에 이관한다.”³⁾라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책 『안동진사례』(순치10년계사설) 육산봉대집물에는 총 69종의 명칭과 수량이 표기되어 있다.

6. 봉지산봉수군과 봉(烽)할매

고(故) 권수역 지사의 재종손인 권영근 님의 증언에 의하면, 봉지산봉수군 권수역은 혼자 봉수를 지키며 봉수에서 생활했다. 아내가 밥을 지어 머리에 이고서, 매일 봉수에 올라갔다고 한다. 봉수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는 봉수에서 함께 기거하기도 했다.

봉수군 권수역은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3월 20일, 경북 안동군 안동면 안동경찰서 구내(構內)에서 단신으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년여의 옥살이를 했다고 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권수역 지사의 독립운동사실을 발굴, 확인하여 2003.8.15.에 포상하였으나, 유족을 찾지 못하다가 2007.10.04.에 유족(현손자)을 찾게 되어 훈장을 전수하게 되었다.

봉할매 무덤은 봉수 내 북쪽에 치우쳐 북향한 채 원형봉토분 형태로 안장되어 있다. 남쪽으로 토축의 곡장을 둘러싸고 있다. 현재 묘는 방계 후손인 권영근씨가 관리하고 있다.



사진 1. 봉수군 권수역 지사 포상 전수식



사진 2. 봉할매 묘

1) 『永嘉誌』 卷5, 烽燧.

2) 『嶺南邑誌』 第18冊, 「安東府邑誌」 附事例.

3) 『嶺南鎮事例』 第18冊, 「尙州鎮事例成冊」.

7. 유구현황과 특징

1) 항공사진

봉지산봉수대 일원이 관찰되는 항공사진은 1971년에 촬영된 것이지만 이 사진에는 봉수대가 위치한 곳으로 일부 평탄지만 확인될 뿐 연대나 방호벽의 흔적을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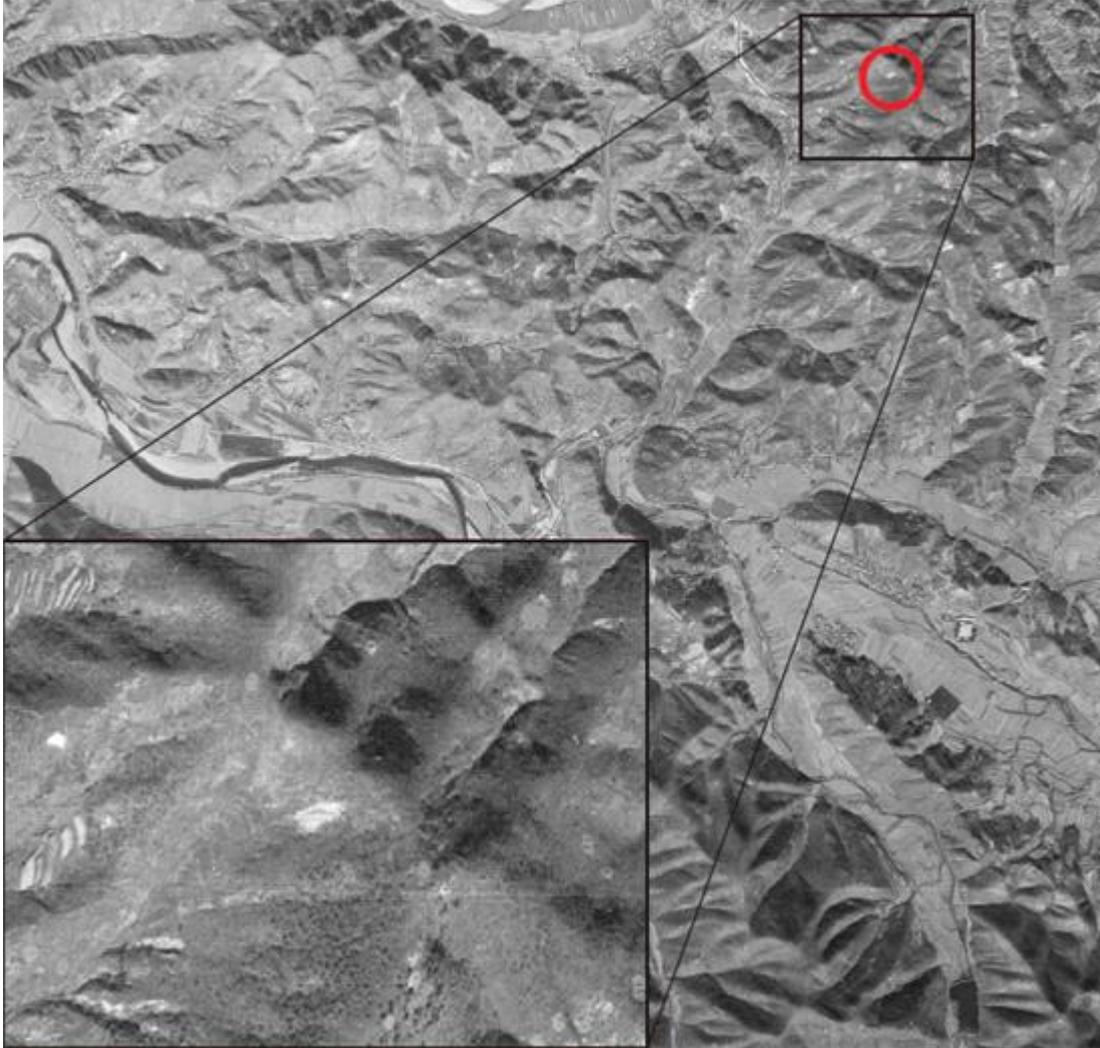


사진 3. 봉지산봉수대 일원 항공사진(197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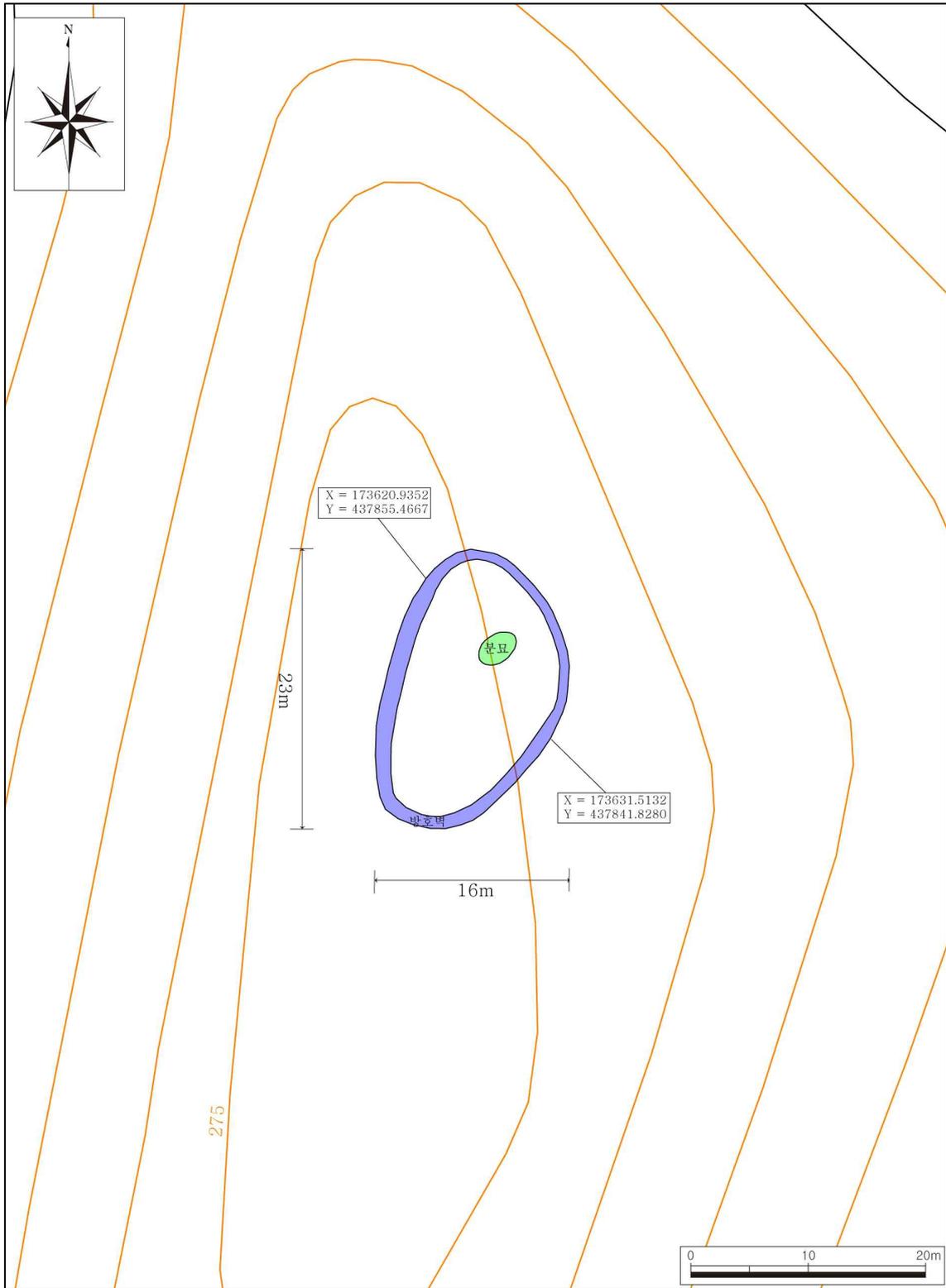
2) 유구현황

(1) 방호벽

2021년도의 지표조사를 통해 봉수대는 폭이 좁으며 남-북으로 긴 능선상에 평면 타원형으로 토·석축의 방호벽이 일부 남아 있다. 지형상 동-서는 사면을 이루며 북쪽이 남쪽보다 약간 높다.

봉수대의 축조는 산정부의 남쪽을 제외한 삼면을 삭토하고 방호벽을 편축하였다. 북쪽은 흙으로 덮여 원형을 알기 어렵지만, 서쪽의 석축이 가장 온전하다. 내벽은 평지화되어 원형 추정이 곤란하다. 외벽의 높이는 서쪽 2.7m, 북쪽 1.1m 가량이며 동쪽과 남쪽은 측정이 곤란하다.

봉수대의 규모는 직경이 동서 16.4m, 남북 25.2m, 둘레 78m 가량이다.



도면 1. 봉지산봉수대 현황도(S=1/400)



사진 4. 봉지산봉수대 근경



사진 5. 봉지산봉수대 내부모습



사진 6. 봉지산봉수대 방호벽 석축



사진 7. 봉지산봉수대 채집유물

(2) 출토유물

동남쪽 방호벽 석축 사이에서 조선시대의 청해파문 와편이 채집되어 건물지가 있었던 곳으로 여겨진다.

8. 지정가치와 근거기준

1) 역사적 가치가 높은 봉수이다.

- 조선시대 제2거 직봉 중 스물다섯번째 내지봉수이다.
- 조선 전(全) 시기 발간의 지지(地誌) 기록을 통해 봉수 한자표기의 차이를 통한 다양한 명칭 확인과 전·후 대 응봉수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다.
- 조선 후기 발간의 『해동지도』(1724)와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등의 고지도(古地圖)에 빠짐없이 표기되어 있다.

2) 내지붕수로서 주변 교통로를 이어주는 분기점에 입지한다.

- 안동은 영남내륙의 요충으로 일찍부터 대도호부로 승격되어 그 읍격이 높았던 곳이며 교통과 봉수 운영의 요충이었다. 안동부는 봉화, 예천, 군위, 의성으로 길이 이어지는 곳으로 안동 봉지산봉수는 제2거 직봉과 간봉1노선의 여러 봉수들이 안동지역에 모이는 결절점에 위치한다.

3) 안동도호부 치소에서 봉수가 바로 후망되는 근거리에 입지한다.

- 치소(현 웅부공원)에서 서남쪽의 봉수까지 4.2km의 근거리에 입지한다.
- 치소와 봉수 사이에는 중간에 낙동강이 흐르고, 높은 산지가 없어 치소의 가시권내 봉수가 위치한다.

4)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운영된 봉수

- 봉지산 봉수는 조선전기 『경상도지리지』부터 구한말 『증보문헌비고』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모든 관찬·사찰지리지에 올라 있는 봉수로 영남내륙의 요충인 안동지역을 수호하는 대표적인 봉수이다.



사진 8. 붕지산봉수와 대응봉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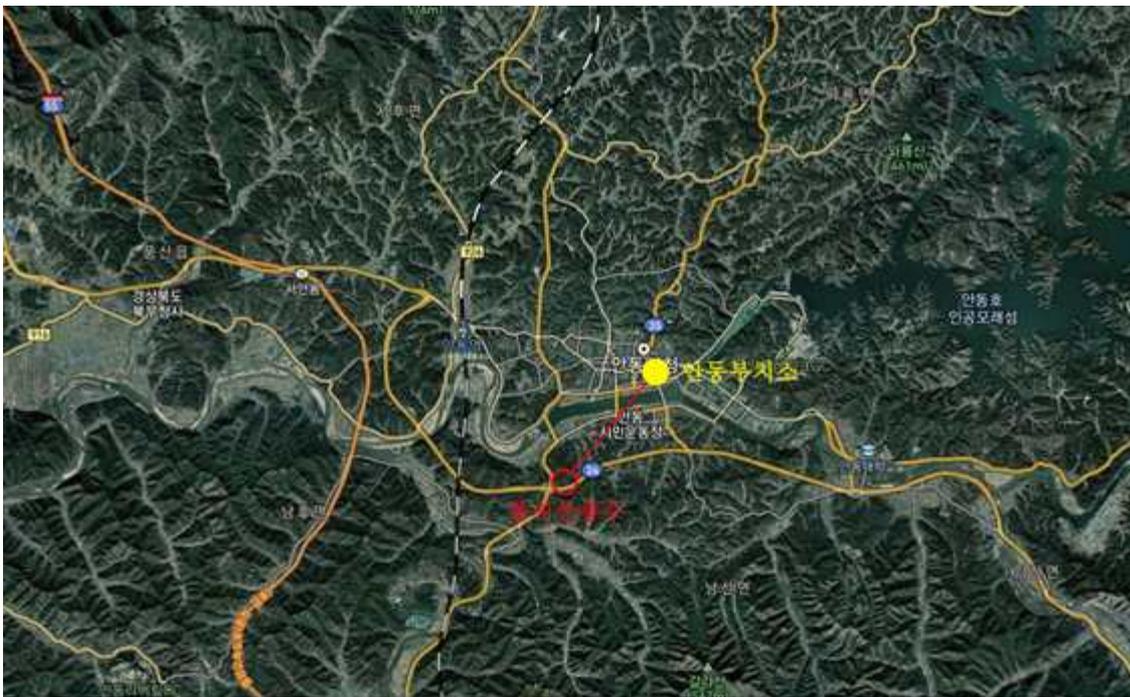


사진 9. 붕지산봉수대와 안동부지소 위치

9. 지정대상과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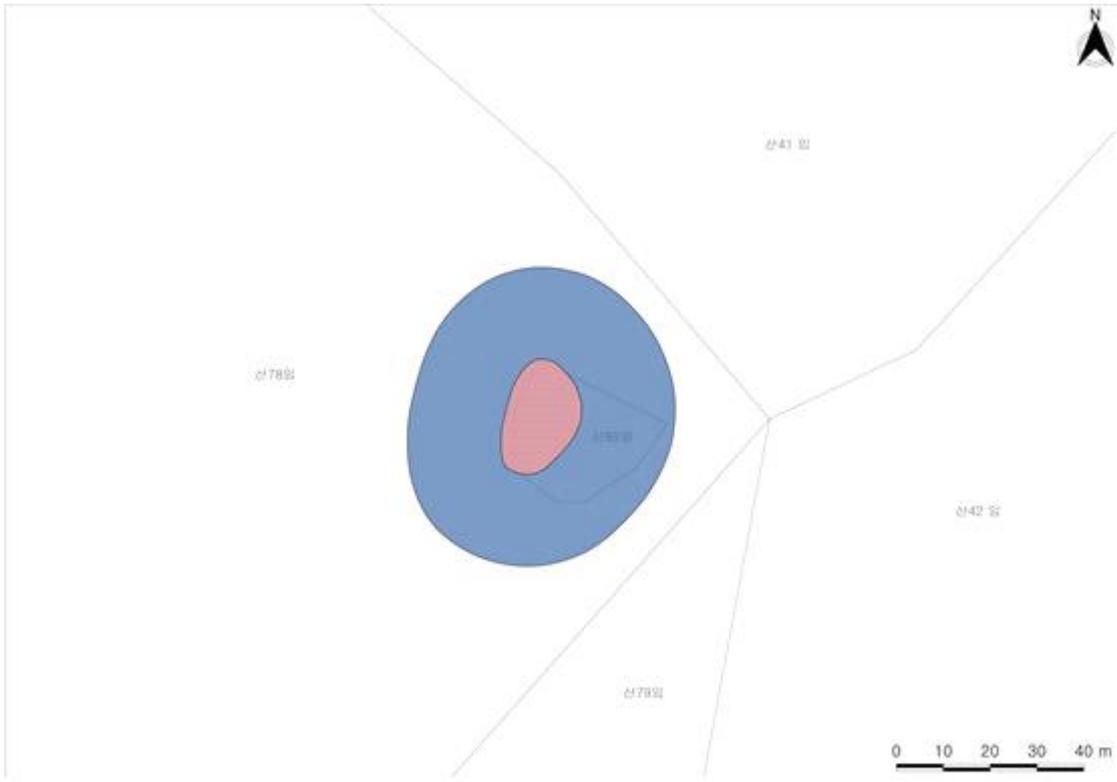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 지정구역)

• 지정면적: 2필지 / 2,913㎡(문화재 318㎡, 보호구역 2,595㎡)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건조물인 경우 (면적: ㎡)													
연번	명칭	시대/ 연대	구조/형 식 /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물면적 (연면적,건축 면적) 수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31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안동시 수상동	산78	임야	55,537	62								
	경북 안동시 수상동	산80	임야	595	256								
계				56,132	318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2,59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안동시 수상동	산78	임	55,537	2,256								
2	경북 안동시 수상동	산80	임	595	339								
계				56,132	2,595								



도면 2.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S=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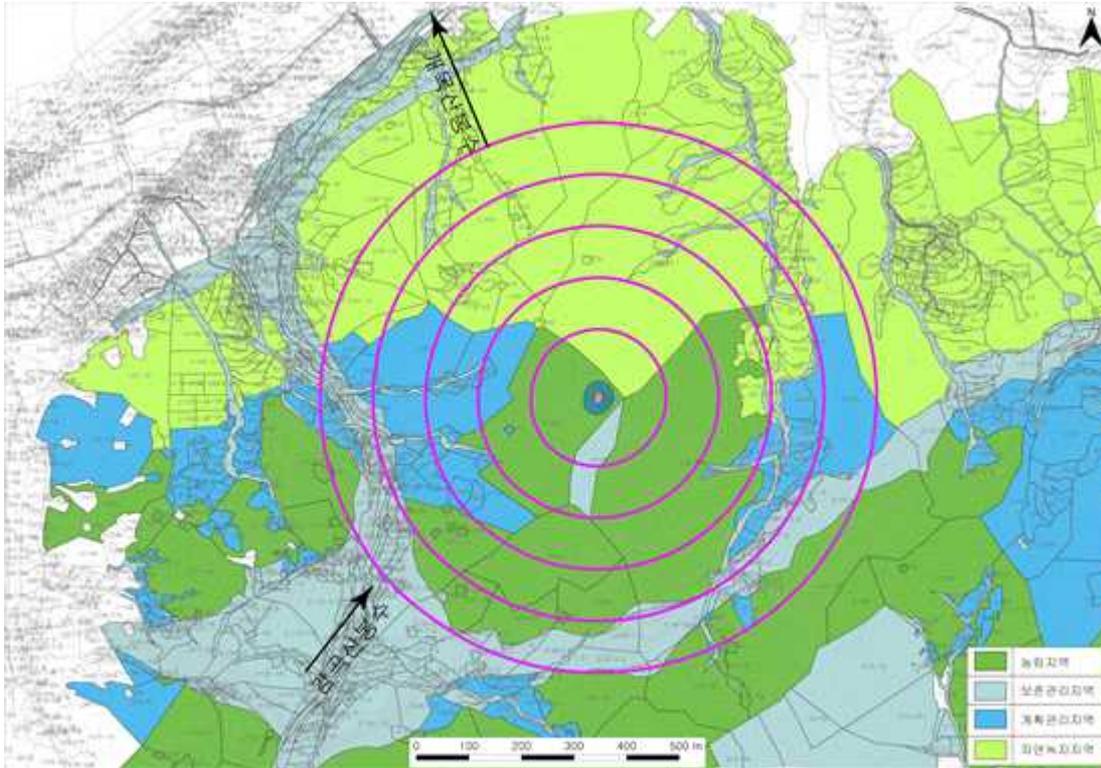
도면 3.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

10.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1) 검토의견

- 봉지산봉수 전·후 대응노선 봉수의 방향을 고려한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

안동시	안동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p>▣ 대상문화재 제2로 직봉 - 안동 봉지산봉수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수상동 산78번지</p> <p>▣ 문화재 및 보호구역  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보호구역</p> <p>▣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간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p> <p>▣구역별 허용기준</p>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 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1. 보존·정비와 활용 착안사항

1) 기본구상

(1) 기본방향

① 기본원칙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1.6.10.] [법률 제17409호, 2020.6.9. 일부개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문화재청, 2002)

- 문화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문화재 활용은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사업의 소재로서 개발·활용하며,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육성한다.

『유적(遺蹟) 등 정비계획 수립·추진관련 고려사항』(문화재청, 2003)

- 가치(원형) 보존 최우선: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복원·정비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비를 지양하고, 유적의 가치와 역사적 숨결을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명확한 정비목표 수립: 유적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적 정비를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한다. 보존과 복원·정비되어야 할 것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 :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고, 유적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방향 설정

- 봉수대의 보존·정비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도모하고, 안동시의 역사문화관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동선체계 등 기반시설의 확충안을 수립한다.
- 봉수는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평안을 상징하는 1거의 횃불[平安火·太平火]을 올림으로서 과거 안동부와 인근 고을 백성들이 이를 바라보고 일상을 마무리하는 순기능도 있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안동시 소재 전체 여섯 개소 봉수의 보존·정비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봉수대의 잔존 방호벽에 대한 역사적 실체를 보존·정비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시킨다.
-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활용되었던 봉수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정보통신 발달의 상징적 유적으로 보존·관리한다.
- 경상도와 충청도·경기도를 거쳐 최종 서울 목멱산봉수로 이어지는 내지봉수 체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원한다.

(2) 기본전제

① 잔존 봉수 유구의 보존과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

봉수대의 핵심요소인 방호시설(방호벽)을 대상으로 보존·정비하여 봉지산봉수의 문화재적 가치가 표출되도록 한다.

② 역사문화자산 가치 증진 및 화제성 창출

과거 봉수제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던 당시에 봉수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봉수군과 봉수운영 관련 된 기록과 내용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유적과 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화제성이 창출되도록 정비한다.

③ 대응봉수와의 조망을 위한 가시권 확보

입지조건상 북동쪽으로 안동부의 옛 치소가 잘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한 봉수대는 인근 대응봉수와의 후망을 통해 안동지역과 고을 백성들에게 변경의 안위여부를 알리던 군사통신유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적 강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계획한다.

조선 후기에 최종 설정된 직봉의 대응봉수인 감곡산봉수와 개목산봉수, 간봉1 신석산봉수와의 가시권 확보의 봉수 주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식생이 양호한 기존의 자연경관 유지 방안을 제시한다.

④ 주연야화(晝煙夜火) 통신의 특징을 살린 ‘체험과 교육의 장’ 조성

횃불과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 소식을 전하였던 봉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적의 복원보다는 체험과 실연(實演)을 통한 거화의 과학적 원리를 교육한다.

기존의 진입로와 등산로를 활용하여 최적의 보행환경과 교육적 기능을 갖춘탐방로 조성을 통해 봉지산봉수의 500여년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한다.

⑤ 실현가능한 세부추진사업 도출과 단계별 사업시행

안동시의 재정여건이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토지 매입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필요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3) 종합구상

① 추진사업 계획

역사적 실체 보존 사업을 실시한다.

- 식생정비(소목 간벌), 봉수 내부 잔디 식재 등 문화자원 연계 개발사업을 실시한다.
- 탐방로(봉수군 길) 정비, 스토리텔링 개발, 체험 프로그램 및 축제 개발, 봉수 C.I개발, 동선표지판·전망시설 및 망원경 설치 등을 진행한다.
- 주변 봉수와 읍성 등 주변 지역의 관방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② 토지이용계획

봉수대 일원은 민간 소유의 임야로서, 경상북도 안동시 수상동 산78·80에 소재하며 면적은 318㎡이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토지대장, 2021.9.)

현재 봉지산봉수대를 찾는 탐방객은 소수에 불과하여 5번 국도 경북대로변의 가구매장에 주차하는 실정이다.

향후 제2거 직봉 노선 봉수의 사적지정이 확정되고 보존·정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 시 탐방객에게 보다 쾌적한 역사경관과 편리한 탐방환경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

③ 동선계획

동선계획은 봉수구역과 주차구역으로 나누고 각 공간별로 기능을 배분한다.

봉수대의 탐방동선은 기존에 조성된 산책로를 그대로 이용하되, 전통적인 분위기 연출과 유지관리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야자매트로 한다.

또한, 탐방객의 주동선이 되는 기존 산책로를 활용하여 봉수에 대한 관심유발과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2) 보존과 정비활용계획

(1)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확대지정

① 향후, 제2거 직봉 노선의 봉수를 사적(史蹟)으로 승격 시 문화재지정구역의 확대 및 대응봉수간의 조망과 가시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봉지산봉수를 중심으로 직봉인 남쪽의 감곡산봉수, 북쪽의 개목산봉수, 간봉(1)인 동쪽의 신석산봉수를 잇는 조망과 이의 가시권 확보가 필요하다.

② 봉수대 주위의 수목을 선별적으로 간벌하여 대응봉수간 조망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③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확대는 기존 현상변경허용기준 적용구역의 확대를 수반한다. 인접 봉수간의 조망 확보를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아울러 보호구역 외곽 200m 정도는 1구역(개별 심의) 또는, 2구역<최고높이 8m이하(평지봉), 최고높이 12m이하(경사지봉)>으로 설정하여 역사문화 환경과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④ 진입로에서 봉수대의 원경을 볼 수 있도록 간벌 등을 통해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봉수군들이 이용했던 소로(진입로)는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이 길을 통한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2) 보존계획

① 봉수유적 보존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는 방호벽이 잔존하고 있으나,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후 13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봉수 외부에 잡목이 무성한 실정이다.

- 따라서, 과거 봉수의 운영당시 원형구조를 밝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수를 구성하였던 제반 요소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비와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에 대한 최근의 현황조사를 통해 전체 구조의 확인이 가능함으로 이를 바탕으로 운영당시의 모습대로 단계적으로 정비·복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조선시대 내지봉수대의 형태와 기능을 학습·체험할 수 있는 역사교육공간으로 조성한다.

다. 추진방법 및 절차

- 먼저 방호시설인 방호벽에 대한 원형구조를 확인한다.
- 방호벽은 주위 잡목을 간벌하고 방호벽 내부에는 잔디를 식재하여 보존한다.

② 수목 간벌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 내·외는 현재 무성한 잡목으로 대응봉수와의 조망이 곤란하거나 유구 훼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적절한 간벌을 통하여 유적 보존 및 가시권(可視圈)을 확보한다.

나. 사업내용

- 현재 봉수대 주위는 수목이 들어차 있어 대응봉수의 조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목을 선별적으로 벌목하여 대응봉수인 감곡산·개목산·신석산봉수에 대한 조망을 개선한다.

다. 추진방법

- 벌목작업은 봉수유구의 보존, 주변경관 조망, 봉수의 제반요소 감상 등에 장애를 주는 수목부터 선별하여 실시한다.
- 봉수대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경관이 확보되도록 수목을 제거한다.
- 5번 국도 경북대로변에서 봉수지로 향하는 수목을 정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동선을 유도한다.

(3) 정비·활용계획

① 전망시설과 휴식공간 설치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의 정체성과 주요 기능은 대응봉수와의 시각적 연결에 있다. 현재, 봉수대는 내·외부의 수목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제한적이고, 전체 봉수유구를 살펴 볼 수 없다. 조선시대 봉수는 대응봉수와의 조망과 주변 관찰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였으므로 이러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 주변 적당한 곳에 봉수의 전체 구조와 대응봉수, 주변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조선시대 봉수의 입지선정 원리를 체감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과 절차

- 전망시설은 봉수대 주변 시야가 가장 좋은 지점에 설치하되,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봉수의 역사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안내판에 대응봉수를 촬영한 사진을 표시하여 눈앞에 펼쳐진 전경과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망시설에는 망원경 등을 설치한다.
- 전망시설 하부나 주위에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방문객에게 휴식과 사색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② 봉수군 탐방로 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5번 국도 경북대로변에서 봉수대로 이어지는 ‘봉수군 탐방로’를 조성하여 문화콘텐츠로 활용한다.

나. 사업내용

- 탐방로를 개설하고, 봉수 관련 이야기와 비품 등을 소개함으로써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과거 봉수의 기능과 운영 및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노변(路邊) 전시관 기능을 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

- 기존의 길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요 지점에는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고 벤치 등의 휴식시설을 도입한다.

- 안내판의 내용은 『영남진사례』(1894) 「안동진사례 순치십년계사설」(효종 4년, 1653) 중기 안동에 용례가 있는 안동진 소관 6산 봉대 집물 69종의 물목을 토대로 봉수운용에 필요한 비치물목상의 거화재료나 생활비품 등을 선별하여 사진자료와 함께 해설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六山烽臺什物

火箭 八十箇, 唐火箭 五十四箇內 三十箇年久廢傷 在二十四箇, 長箭 六部, 片箭 六部, 角弓 六張, 桶兒 六箇, 白大旗 一面, 紅色旗 三面, 環刀 六柄, 鎗 六柄, 三穴銃 六柄, 烏銃 六柄, 火繩 六沙里, 火藥 一斤十八兩, 綿 六十斤, 藥繩 六箇, 鼓 六坐, 錘 六坐, 角 六坐, 鉛丸 百八箇, 火鐵 六十箇, 火石 六十箇, 火筒 六十箇, 防牌 六十箇, 鎌子 百八十箇內 六十箇朽傷 在百二十箇, 稜杖 百二箇, 古月來 九十箇, 法水木 三十箇, 前梯 六, 無稜石 三十箇, 株木核子 無數院植, 斧子 六柄, 食鼎 六坐, 待變糧米 六石, 爐口 六坐, 沙鉢 三十立, 接是 六竹, 懸瓢 三十箇, 水瓮 六坐, 匙 三十指, 柳器 十二部, 草席 三十立, 木斧 百二十柄, 假家 二十間, 草家 二十間, 櫝子 六坐, 牛屎 三十石, 馬屎 三十石, 大 三同, 炭 三十石, 炬子 三十同, 糠桶 三十坐內 二十坐朽傷 在十坐, 皮糠 三十石, 細沙 三十石, 灰 三十石, 積柴 三十訥, 松炬 三十柄, 桐炬 三十柄, 吐木 三十訥, 生松 六訥, 滅火器 三十坐, 水槽 三十坐, 種火盆 三十坐, 同火注里 三十巨里, 排火木 三十箇, 戰笠 三十立, 空石 三十立, 戰衣 三十件, 盤 三十立.

(『嶺南鎮事例』(1894) 「安東鎮事例 順治十年癸巳設」 重記 安東)

(4) 봉수 거화(擧火) 실연(實演) 행사

① 추진배경과 목표

봉수는 연기[주간]와 불[야간]로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시설인 만큼 실제 거화(擧火)나 거연(擧煙) 같은 실연(實演)행사의 실시를 통해 선조들의 봉수운영 원리를 체득하게 한다.

② 사업내용

연기와 불이라는 시각신호로 변경의 안위여부를 전달하였던 봉수의 연조 형태와 구조, 거화재료의 종류와 배합 등을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이 실증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크기의 연조를 제작한 후 실연(實演)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③ 추진방법과 절차

가. 먼저 실연행사를 할 수 있는 연조(煙籠)를 제작하되 설치장소는 행사 시 화재 발생이나 유구 훼손에 대비하여 유적과 일정거리 떨어진 곳으로 한다.

나. 거화재료[화]는 안동진 6산봉대집물의 비치물목 목록을 참고하여 준비하고 전통방식에 따라 제작한 후 사용한다. 행사의 진행은 지역 문화단체가 담당하고 연 중 개최시기는 ‘신년, 정월대보름, 8·15광복절, 안동시민의 날’ 중 의미있는 날을 정하여 개최하도록 한다.

(5) 관리운영계획

① 관리운영 주체

안동시에서 관리

(안동문화관광재단 등 지역 유관기관에 위탁관리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② 관리운영 목표

가. 봉지산봉수대의 보존과 유지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

나. 탐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도모

다. 봉지산봉수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의 극대화

라. 유적의 학술적 가치 극대화와 신규 문헌 발굴 등

③ 관리운영사항

가. 봉수대 유적

- 봉지산봉수대 일원

- 봉지산봉수대 주변 탐방로 등

나. 자연환경

- 봉지산봉수대 주변 수목 및 지형

- 주변 생태환경, 녹지 등

다. 시설물

- 탐방로, 전망시설 등

- 안내판, 방향지시판, 휴게시설 등

-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라. 탐방객을 위한 서비스

- 홍보, 해설, 전시, 축제행사 등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④ 사업 추진절차

가. 문화재지정구역 및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는 먼저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발굴(시굴)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한 후 도출된 발굴결과에 따라 정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입 → 발굴 → 정비’의 순이다. 봉지산봉수대는 정식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비단계에 따르되 대상지가 안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복원·정비의 단계를 결정한다.

나. 매입 단계는 정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국·공유지화 하는 단계로서 대상지의 지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 파악과 매입에 예상되는 비용 및 매입의 원활성을 판단하여 정비의 선후를 결정한다.

⑤ 순차별 사업계획

가. 봉수대의 보존·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체 사업비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초기 2년의 정비를 단기정비로 설정하고 이후의 계획 중 우선시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기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단기사업은 정비사업의 기간 및 지자체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나. 보존·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추진 절차, 시급성, 사업비,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다. 봉수대 보존과 주변정비사업은 방호벽, 식생정비[간벌 등], 전망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

다. 우선, 정비사업의 원칙은 유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선정한다.

라.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편리하고 쾌적한 출입 및 동선체계 구축을 위한 주차장 마련 사업을 단기에 시행하고 관광 역량 제고를 위한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은 중기에 진행한다.

마. 이들 추진사업은 안동시청의 정책 순위 변경과 주민들의 요구도, 제반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2. 종합의견

- 1) 안동 봉지산봉수는 조선시대 전체 5거노선의 봉수 체계에서, 부산 응봉봉수에서 초기하는 제2거 직봉과, 부산 간비오봉수에서 초기하는 간봉1의 내지봉수가 합치는 결절점(結節點)에 위치한 내지봉수로서, 최근의 현장조사를 통해 원래의 위치가 확인되었으며, 방호벽이 잔존하고 있다.
- 2) 봉지산봉수는 조선 전기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1425)부터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각종 지지에 빠지지 않고 등재되어 있고 제2거 직봉과 간봉(1) 노선의 주요 봉수다.
- 3) 안동지역은 교통과 봉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충지였다. 안동부에서 봉화, 예천, 군위, 의성으로 이어지는 길의 분기점이기에 제2거 직봉과 간봉1 노선의 여러 봉수들이 차차거화(次次擧火)를 통해 안동지역에 모이는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다.
- 4) 봉수는 단일 유적보다는 통신체계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 노선별 주요봉수, 잔존상태, 역사성, 지정번호 부여방식 결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적지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문화재 종류

1) 사적

- 비지정문화재로서 부산 다대포 응봉봉수(鷹峰烽燧)에서 초기(初起)하는 제2거 직봉노선의 열세 번째 내지 봉수인 ‘영천 성산봉수유적(永川 城山烽燧遺跡)’을 같은 노선의 봉수와 연계하여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2. 문화재 명칭

1) 문화재명 : 제2로 직봉 - 영천 성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永川 城山烽燧遺跡)

- 봉수유적은 연속유산으로서 노선 단위 지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정명칭은 “본 명칭 - 부 명칭”의 형식으로 부여토록 한다. 여기서 본 명칭은 대표성이 높으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2로 직봉(第2路 直烽)”으로 한다.
- 부 명칭은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라 봉수명칭 앞에 현 행정구역 소재지인 ‘영천(永川)’을 표기한다.
- 봉수명칭은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이후 조선 최후기 봉수망을 알 수 있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의 명칭과 한자표기를 따라 ‘성산봉수유적(城山烽燧遺跡)’으로 표기한다.
- 따라서, 최종 봉수명칭은 ‘제2로 직봉 - 영천 성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永川 城山烽燧遺跡)’(이하 ‘성산봉수’라 한다)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명칭유래

성산봉수가 있는 봉화산 남쪽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와 죽정리에는 ‘봉오재·성골·성동·성곡제’ 등 산성과 관련된 지명이 여러 곳에 있다. 봉화산에 산성이 있어서 생겨난 지명이다. 이번 문화재청 「봉수유적 문화재(사적 등) 지정을 위한 조사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성산봉수 현장을 조사하던 중, 삼국시대 산성으로 판단되는 산성이 발견되었다.

『태종실록』 7년(1407) 1월, 영의정부사 성석린(成石麟: 1338~1423)이 국방대책 등의 시무 20조를 전달한 상소문에, “견고한 곳을 의지하고 험한 곳을 믿어 병법에 의지하지 않고 깊고 험한 곳을 택하여 산성을 쌓아, 늪은이와 어린이를 안치하고 콩과 조를 거두어들이고 봉화를 들어 서로 응하면서, 사잇길로 가만히 통하여 불의에 출격하여 승리를 취하는 것은 동방 사람의 장기입니다.”라고 하였다.

성을 쌓아 노약자를 숨기고, 봉수로 서로 연락해, 적의 취약한 곳을 공격해 승리를 취하는 전략은 전국에 축조된 수많은 산성과 읍성, 봉수 유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산봉수는 삼국시대 축조된 청통면 원촌리 산성과 연계한 축성 당시의 봉수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될 사항이다. 기록에 따라 조선시대에 들어 사용되면서, 조선 후기까지 운용된 봉수임에는 분명하다. 산성과 연계되었거나, 산성이 있는 성산에 있는 봉수이니 ‘성산봉수’로 명명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봉수는 조선 전기에는 남동쪽 성황당 봉수에서 보내는 신호를 북쪽 여음현(옛동산) 봉수로 보냈으나 조선 후기 새로 증설된 청통면 계지리 ‘구토현 봉수’로 신호를 보냈다. 서쪽에 청통천과 영천 신령간 국도가 남북으로 나란히 흐른다. 북쪽으로 청통면소재지와 계지리 구토현 봉수(4km), 신령의 여질동 봉수(10km)가 훤히 보인다. 『호고와 유희문(好古窩 柳徽文, 1773~1832)선생 문집』에 “태백의 동남에 용두(예안), 장갈(영양), 보현(영천) 등 여러 갈래길이 있는데, 모두 ‘영남좌로’에 연결된다.”고 한다. 영남좌로는 영천에서 청송, 진보, 길안을 거쳐 안동으로 이어지지만, 신령은 의흥과 의성을 거쳐 안동으로 이어지는 ‘영남소로’에 해당한다. 성산봉수는 안동 안기역에서 관할하는 안기도의 한 갈래 ‘영남소로’의 길목을 살피던 곳이다.

3. 영천지역의 봉수현황과 성격

- 영천 지역에는 최초 설봉(設烽)과 폐봉(廢烽)시기가 다른 총 7기의 봉수[방산·소산·(구·신)성황당·성산·구토현·여음동]가 소재하고 있다, 봉수의 성격에 의한 구분상 모두 육지내륙 소재의 내지봉수(內地烽燧)다.
- 이 중 ‘소산·(구)성황당’ 2기의 봉수는 조선 후기인 18세기 중엽 노선의 조정으로 인해 폐봉됨에 따라 『증보문헌비고』(1908)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가 최종 폐지될 때까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었던 봉수는 ‘방산·(신)성황당·성산·구토현·여음동’ 등 5기다.

4. 성산봉수의 입지와 연혁

1) 입지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의 배후 산인 해발 271m 봉화산(烽火山)에 위치한다. 산정에서는 남쪽을 제외한 세 방향으로의 조망이 용이하다. 익산포항고속도로의 영천 청통와촌IC 북쪽에 위치한 죽정마을 뒤편 등산로를 이용하면 접근이 가능하다.



사진 1. 성산봉수대 원경



사진 2. 성산봉수대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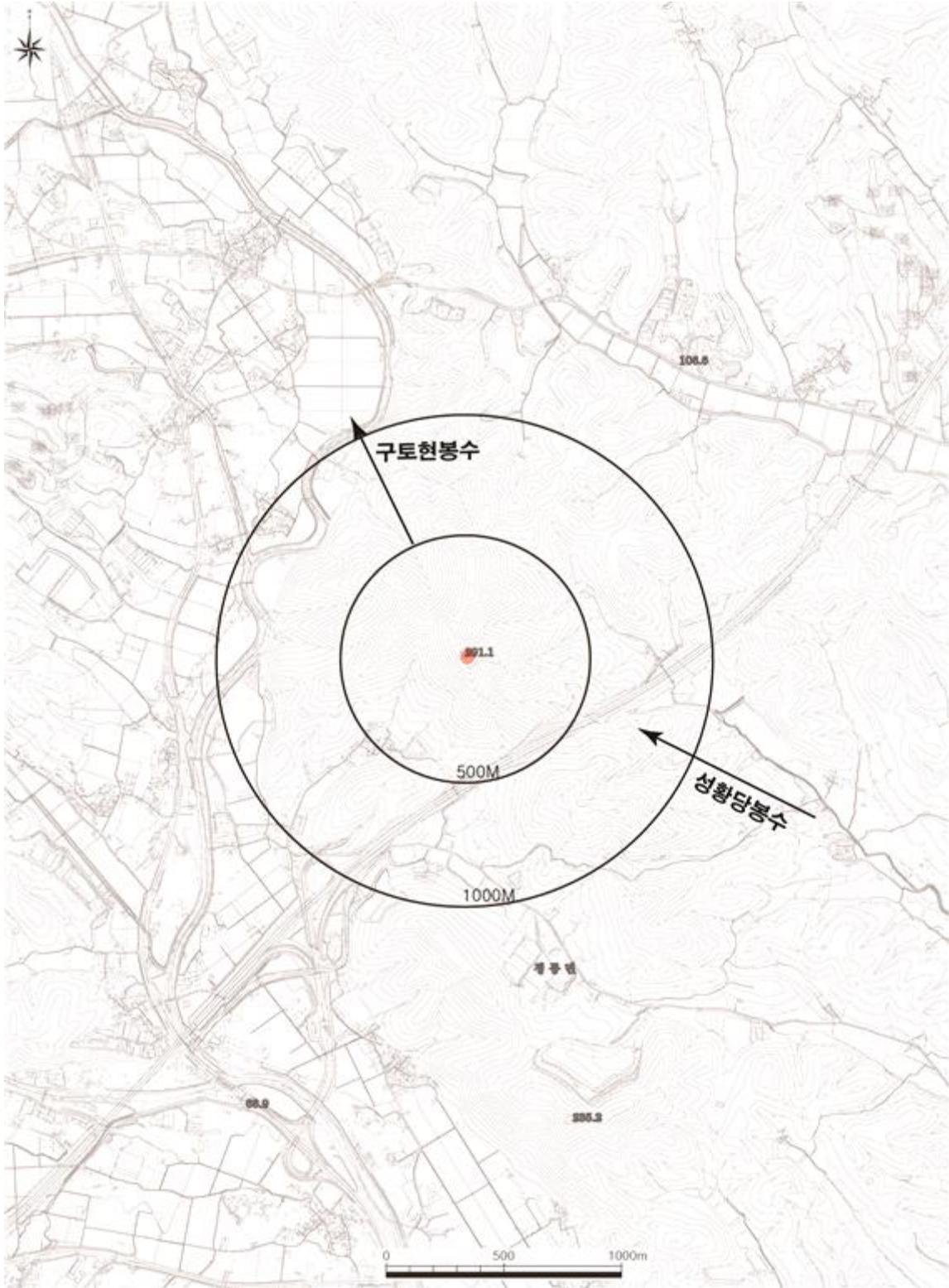
2) 연혁

성산봉수의 최초 지지기록은 『경상도지리지』부터다. 지지별 발간연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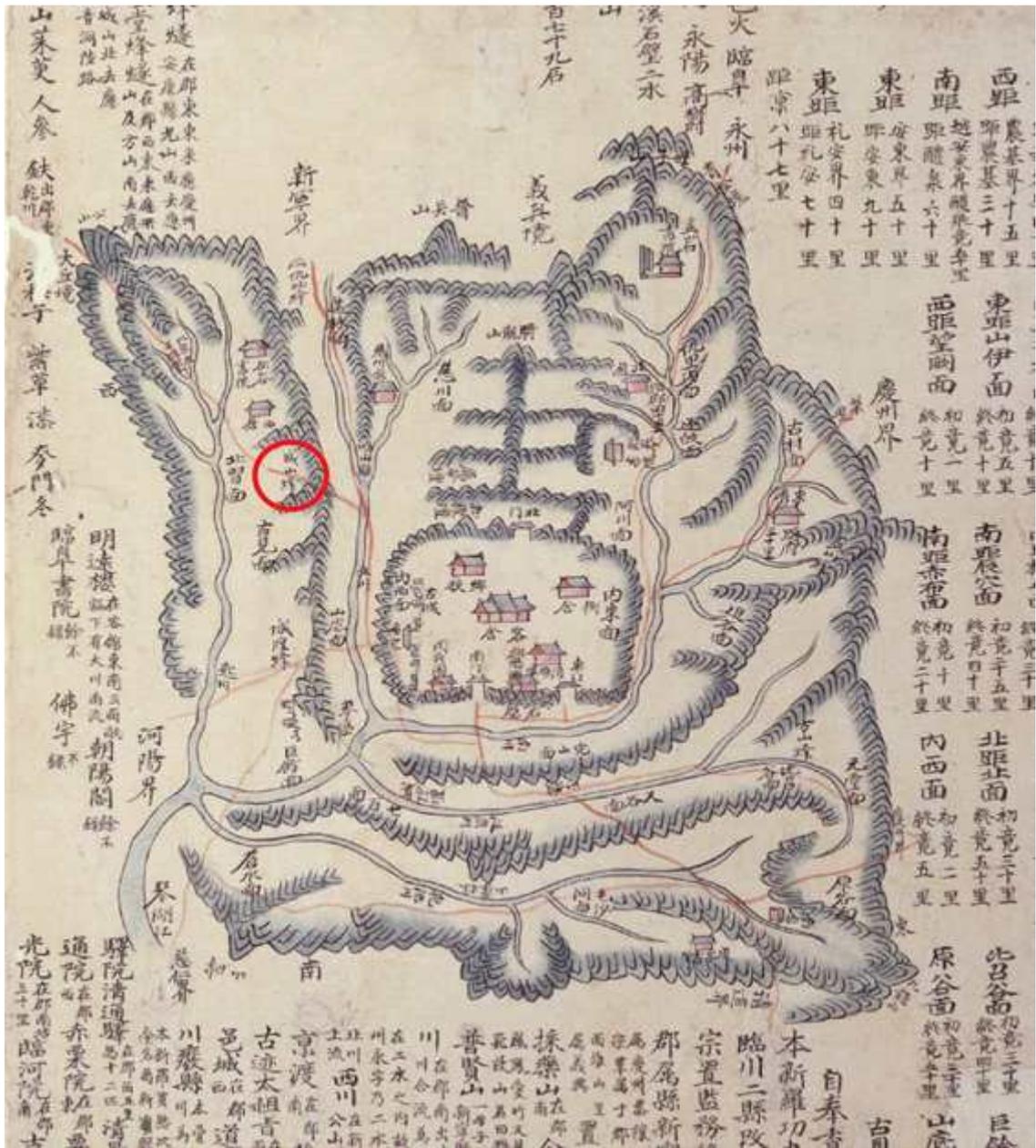
- 『慶尙道續撰地理誌』(1469) 安東道 永川郡
烟臺烽火 郡西城山煙臺烽火 東與城隍堂煙臺烽火相准 北與新寧餘吐同煙臺烽火相准
연대봉화는 군의 서쪽 성산연대봉화이다. 동쪽으로 성황당연대봉화와 서로 겨누고, 북으로 신녕 옛동연대봉화와 서로 겨누다.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卷22, 慶尙道 永川郡 烽燧
城山烽燧 在郡西二十三里 東應城隍堂 北應義興縣餘吐同山
성산봉수는 군의 서쪽 20리에 있다. 동으로 성황당에 응하고, 북으로 의흥현 옛동산에 응한다.
- 『輿地圖書』下(補遺) 慶尙道 「永川郡誌」(1760) 烽燧
城山烽燧 在郡西二十里 東應城隍烽 西北報仇吐峴烽 相準十五里
성산봉수는 군의 서쪽 20리에 있다. 동으로 성황봉에 응하고, 서로 구토헌봉에 알리는데 15리에서 서로 겨누다.
- 『慶尙道邑誌』 第7冊, 「永川郡邑誌」(1832) 烽燧
城山烽燧 在郡西二十三里 東應城隍烽 北報仇吐峴烽 相距十五里
성산봉수는 군의 서쪽 23리에 있다. 동으로 성황봉에 응하고, 북으로 구토헌봉에 알리는데 거리는 15리다.
- 『永川郡誌』(1861) 烽燧
城山烽燧 在郡西二十四里 東應城隍烽 北報仇吐峴烽 相距十五里
성산봉수는 군의 서쪽 24리에 있다. 동으로 성황봉에 응하고, 서로구토헌봉에 알리는데 거리는 15리다.
- 『大東地志』(1864) 卷7, 慶尙道 15邑 永川 烽燧
城山 西二十三里
성산은 서쪽 23리다.
- 『嶺南邑誌』 第16冊, 「永川郡誌」(1871) 烽燧
城山烽燧 在郡西二十里 東應城隍烽 西北報仇吐峴烽 相距十五里
성산봉수는 군의 서쪽 20리에 있다. 동으로 성황봉에 응하고, 서북으로 구토헌봉에 알리는데 거리는 15리다.
- 『嶺南邑誌』 第26冊, 「永川郡誌」(1895) 烽燧
城山烽燧 在郡西二十四里 東應城隍烽 北報仇吐峴烽 相距十五里
성산봉수는 군의 서쪽 24리에 있다. 동으로 성황봉에 응하고, 북으로 구토헌봉에 알리는데 거리는 15리다.
- 『永川郡誌』(1899) 烽燧
城山烽燧 在郡西二十四里 東應城隍烽 北報仇吐峴烽 相距十五里
성산봉수는 군의 서쪽 24리에 있다. 동으로 성황봉에 응하고, 북으로 구토헌봉에 알리는데 거리는 15리다.
- 『增補文獻備考』(1908) 卷124, 兵考16 烽燧2
初起 鷹峰(多大浦鎭) -- (中略) -- 城山(寧川) -- (中略) -- 第2炬準 天臨山
초기 응봉(다대포진) -- (중략) -- 성산(영천) -- (중략) -- 제2 거는 천림산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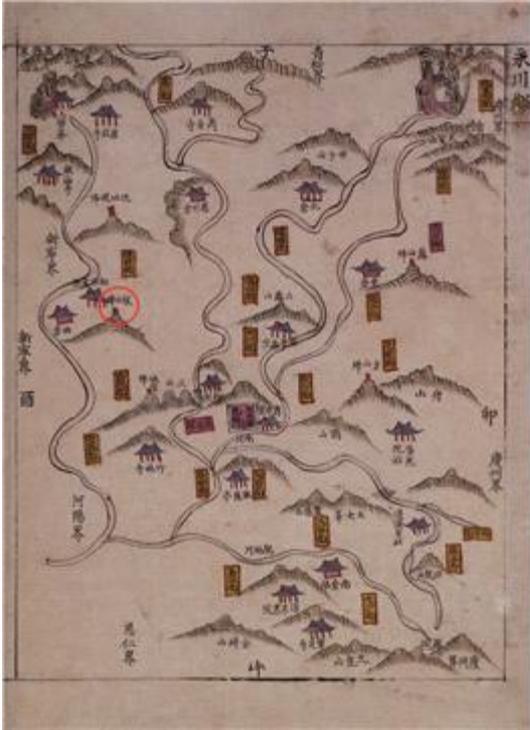
지도 1. 2거 직봉 노선 내 성산봉수 위치



지도 2. 성산봉수대 위치도(S=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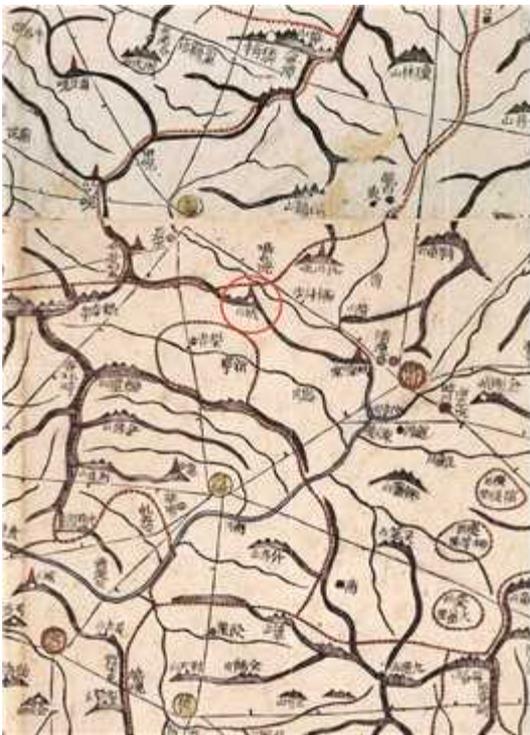
고지도 1. 『해동지도』 영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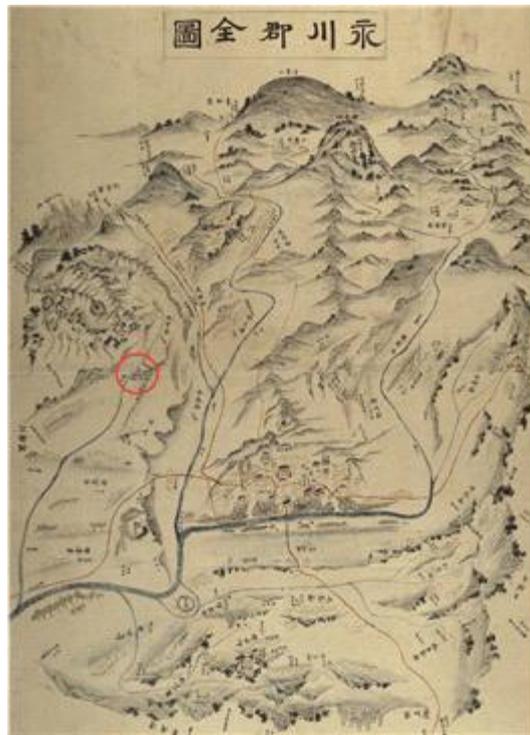
고지도 2. 『광여도』 영천군



고지도 3. 『지승』 영천군



고지도 4. 『대동여지도』(1861)



고지도 5.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3) 고지도

여러 고지도에서 성산봉수를 찾을 수 있다. 『해동지도』 영천군에는 성산봉(城山烽) 외에도 소산봉(蘇山烽), 방산봉(方山烽), 성황봉(城隍烽), 구토봉(仇吐烽) 5개소의 봉수가 표기되어 있다. 이 중 성산봉수는 영천읍성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영천읍성과 봉수 사이에는 북천(北川)이 있으며, 이 북천을 따라 신령현까지 도로가 이어진다. 성산봉수 주변에는 서창(西倉), 영천창(寧川倉) 등이 위치한다. 성산봉수의 기록은 ‘군의 서남쪽에 있다. 남쪽으로 성황당봉수에 응하고 북쪽으로 구토헌봉수에 응한다. 육로이다.’라고 되어 있다. 『광여도』, 『지승』, 1872년 『지방지도』 등은 『해동지도』와 비슷하게 성산봉수가 표기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영천과 신녕의 중간지점에 성산봉수가 표시되어 있다. 영천과 신녕을 연결하는 도로 옆 낮은 구릉에 성황당, 성산, 구토헌, 여음동봉수가 봉수 노선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5. 봉수노선과 운영

1) 봉수노선

조선 전기 『경상도속찬지리지』(1469)부터 최종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조선 전 시기 발간의 지지에 기록이 있다. 봉수노선과 성격은 제2거 직봉의 열세번째 내지봉수다.

전기 발간의 『경상도속찬지리지』에 안동도 영천군 소속의 성산연대봉화(城山煙臺烽火) 명칭으로 동쪽으로 성황당연대봉화(城隍堂煙臺烽火), 북쪽으로 신녕현 여질동연대봉화(餘叱同煙臺烽火)와 서로 응한다고 하였다.

후기 발간의 『여지도서』(1760)에는 성산봉수(城山烽燧) 명칭으로 군의 서쪽 20리에 소재하며 동쪽으로 성황봉(城隍烽)에 응하고 서쪽으로 구토헌봉(仇吐峴烽)과 서로 15리에서 알린다고 하였는데, 이때 설정된 노선은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최종 봉수제의 폐지 시 까지 시종 운영되었다.

2) 봉수운영

조선 후기 경상좌병사 소관이었다. 봉수군 인원은 『영남읍지』(1871)에 “봉군 500名이다.”¹⁾이라고 하였다. 이는 당시 영천군에 ‘방산·소산·성산·성황당·구토헌’ 등 5기의 봉수가 있었기에 각 봉수마다 봉군 100명씩 속해 있었다. 기록이 제한적이어서 봉군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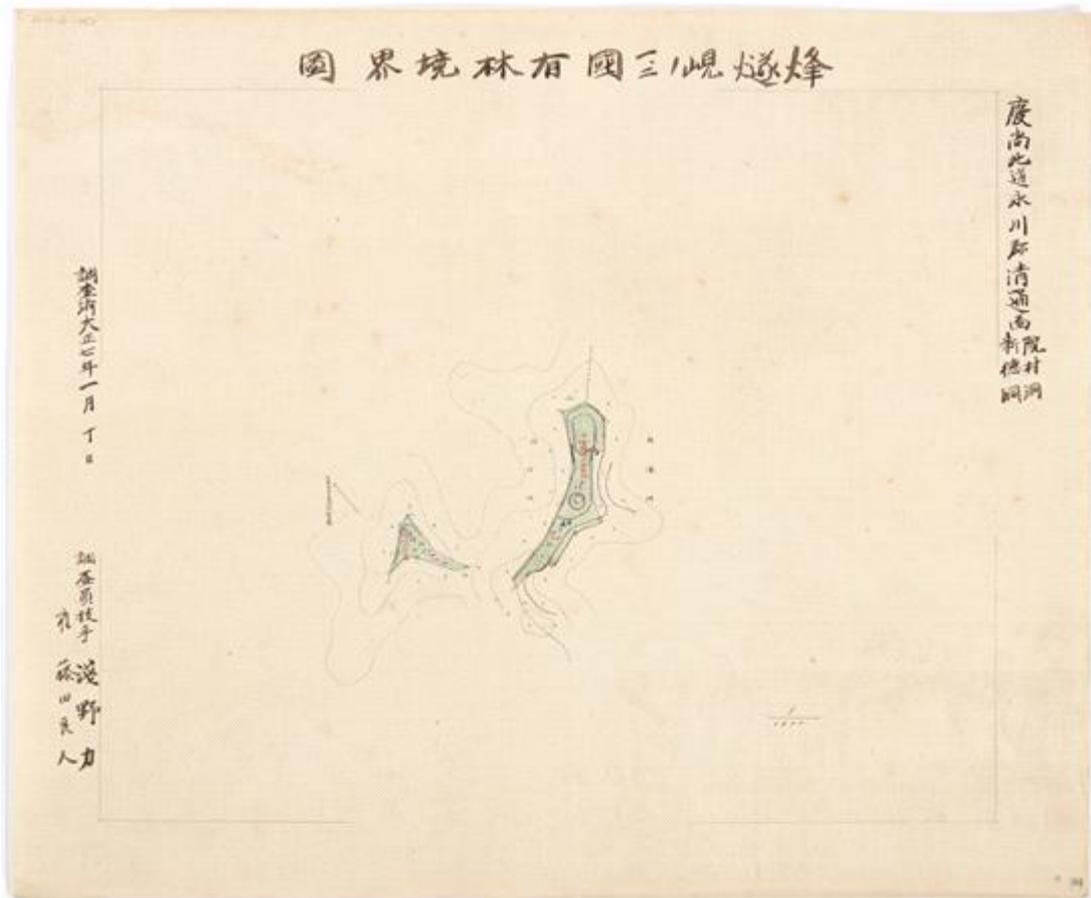
1) 『嶺南邑誌』 第16冊, 「永川郡誌」 軍額.

6. 일제강점기의 조사

봉수는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최종 폐봉 이후 일제 강점기에 간략한 조사¹⁾가 이루어졌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番號 : 20
번호 : 20
- 種別 : 城址 烽燧
종별 : 성지 봉수
- 場所 : 淸通面 新德洞 院村洞
장소 : 청통면 신덕동 원촌동
- 所有 : 烽火峴 國有林
소유 : 봉화현 국유림
- 摘要 : 高¹一間乃至二間周圍約百五十間二重或²三重/斷續³土壘⁴内部⁵周圍三十間高⁶九尺乃至一丈二尺/石築/壁及其/中央⁷直徑約四間高⁸凡二間/烽火臺⁹烽燧峴/二¹⁰本城北/一部¹¹高¹²三尺乃至九尺/土壘¹³
적요 : 높이 1칸 내지 2칸, 둘레 약 150칸으로, 이중 혹은 삼중으로 이어지는 토루 내부에 둘레 30칸, 높이 9척 내지 1장 2척의 석축이 있다. 석축벽의 중앙에 직경 약 4칸, 높이 2칸의 봉화대가 있다. 봉화현의 북쪽 일부에 높이 3척 내지 9척의 토루가 있다.
- 備考 : 乙種要存豫定林野
비고 : 을중요존예정임야

1)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慶尙北道 永川郡, 1942, p.226.



지도 3. 영천 성산봉수대 일체 강점기 국유림 경계도(국립중앙박물관)

7. 유구현황과 특징

현재 청통면 신덕리 서편의 해발 291.1m인 봉화산 정상부에 있는 성산봉수대는 영천지역의 봉수 중 유구의 보존상태가 원형에 가까울 정도로 가장 온전한 편이다. 봉수대는 내지봉수로서는 드물게 방호벽 내에 연대를 갖추고 있다. 지형상 남-북 장축을 이루는 봉화산 정상부에 축조되었으며 동-서는 급사면을 이루고 있다. 연대 동쪽은 급사면을 이루기 전 일부 평지가 있어 건물지의 유존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 산불감시초소와 체육시설이 있는 남쪽 하단부도 평지가 있다.

1) 항공사진

봉수대를 알아볼 수 있는 항공사진은 1969년 사진이다. 이를 관찰해 보면, 방호벽의 형태가 당시까지도 잘 남아 있었다. 방호벽 내부에는 연대가 있었고 거화시설과 생활시설이 구분하는 단시설이나 석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 인근에는 평면 삼각형의 형태로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환도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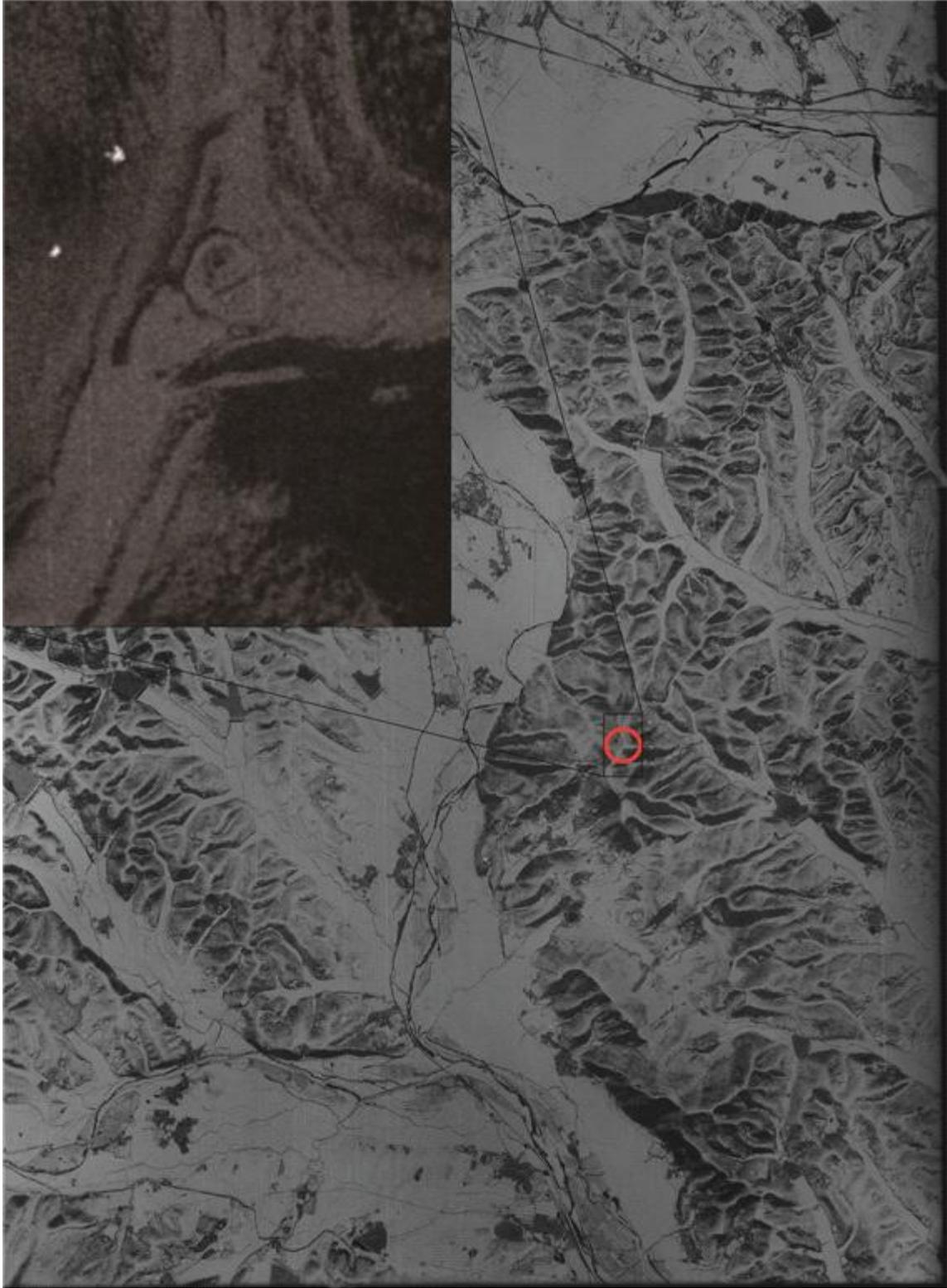


사진 3. 성산봉수대 일원 항공사진(1969년)

봉수대 외에도 동-서로 연결된 능선을 따라 좁고 긴형태의 산성이 있다. 면적이 좁아 장기 거주를 위한 성곽 보다는 수자리와 같은 특수 목적을 가진 산성으로 추정된다. 현재 산성의 둘레나 축조상태 등은 지표상으로 관찰이 어렵고 일부 절개된 단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유구현황

방호벽: 봉수대의 규모는 장축 26.2m, 단축 20.2m, 전체 둘레 87m, 면적 634㎡ 정도이다. 방호벽을 통해 본 봉수대의 평면 형태는 북서-남동을 장축으로 하는 타원형이다. 방호벽은 서쪽과 북쪽 부분이 가장 잘 남아있고 남동쪽은 대부분 망실되었으나 봉수대 운영 당시에는 4면이 모두 석축으로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방호벽의 잔존 높이는 약 1.2m~1.6m이며, 잔존 폭은 0.8~1.0m 정도이다. 방호벽의 구조는 자연 할석을 이용하여 외면을 돌로 쌓고 그 안쪽은 작은 할석과 흙으로 채워 넣어 축조하였다.

연대: 봉수대 내부는 남고북저형 경사지를 이용하여 상하 2개의 공간으로 분리하였는데, 연대(煙臺) 등의 거화시설은 상단에 배치하였다. 상단에 설치된 연대는 평면이 원형(圓形)으로 하부지름 12m, 높이 2~3m 정도이며, 상부에 설치되었던 연조는 붕괴되어 그 구조를 알 수 없다.

출입시설: 방호벽 남동쪽 모서리에 경사형으로 1개소 있는데 남쪽 정면 하단의 평지쪽으로 개방되어 있다. 현재 봉수대 남쪽에서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추정 건물지: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탄지가 있다. 상·하단의 높이 차는 1.9m 정도로 두 공간의 통행은 서측에 난 경사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3) 유물

유물은 거화지(연대 주변)에서 주로 채집되었다. 추정건물지에는 덩굴식물 등 잡풀이 많아 지표 관찰이 어려워 여기서 채집된 유물은 적은 편이다.

유물은 백자·옹기·기와편이 있다. 백자는 동체부와 저부편, 옹기는 구연부·동체부·저부편, 기와는 암키와와 솟키와가 있으며, 모두 편이다. 기와의 외면에는 어골문·사선문·호상문이 시문되어 있고, 색조는 회갈색과 황갈색을 띤다. 자기와 옹기는 조선시대 후기 유물이 많으나, 기와는 고려말~조선후기의 넓은 시간폭을 가진 다양한 시기의 유물이 있다. 봉수대가 오랜시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봉수대 외 산성관련 유물도 채집되었다. 토기와 기와이며, 토기는 뚜껑과 동체부편이 채집되었다. 토기는 문양이 시문된 토기가 있다. 뚜껑에는 연속된 원무늬를 한꺼번에 찍은 인화문이 시문되어 있고, 동체부에는 줄무늬·파상문·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다. 기와는 암키와편 1점이 채집되었는데, 외면에 태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4) 특징

봉수대 잔존상태가 다른 봉수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방호벽·출입구·연대·건물지 등 봉수관련 시설이 다수 잔존하고 있다. 봉수성격상 내지봉수임에도 연대를 축조하였다. 건물지 터 확인하였고, 봉수 내부에서 다량의 유물이 채집되었다. 봉수대 주변으로 석성(石城)을 발견하였고 석성 주변에서도 석성과 관련된 다량의 유물이 채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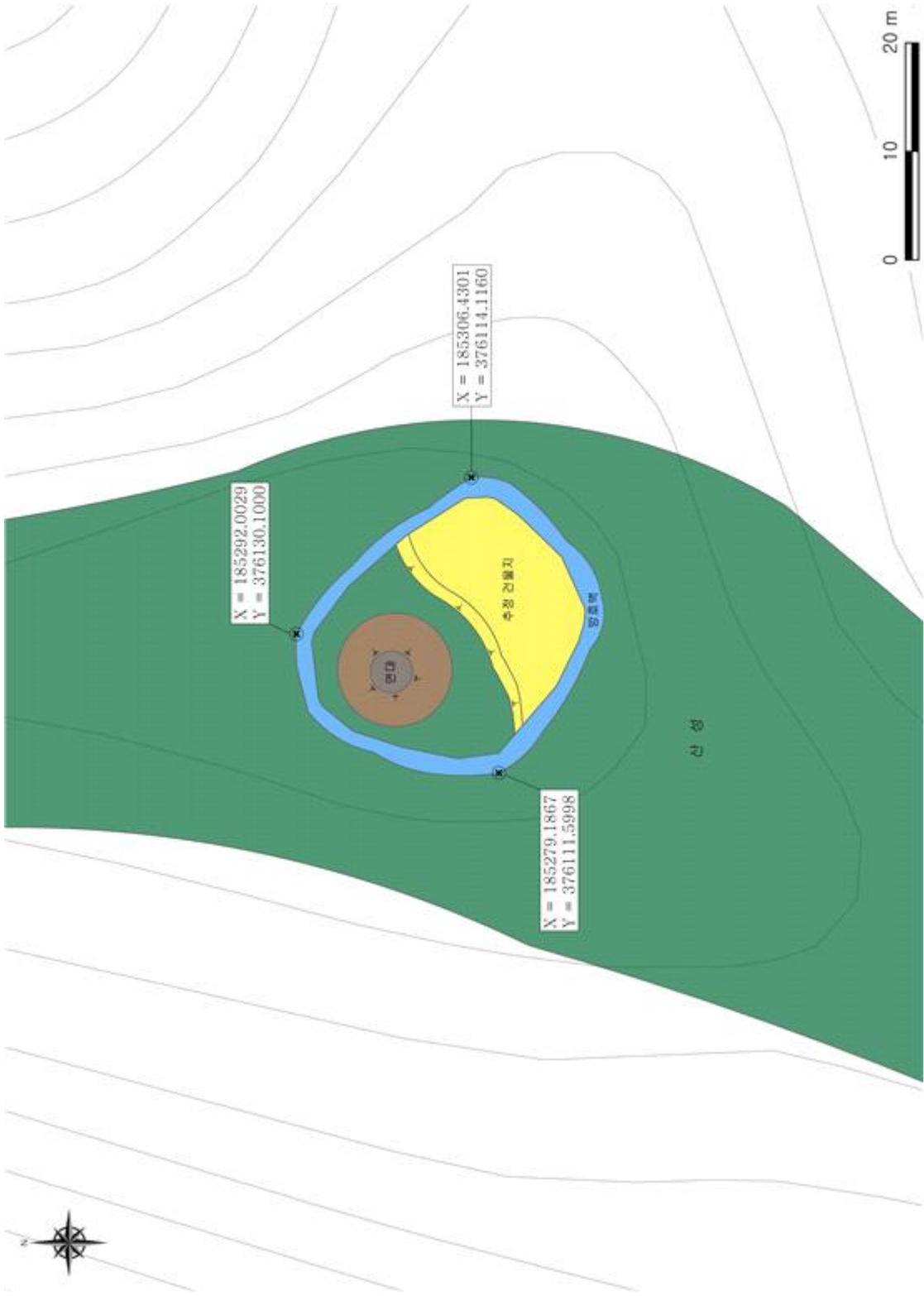




사진 4. 연대 전경



사진 5. 연대 석축1



사진 6. 연대 석축2



사진 7. 방호벽1



사진 8. 방호벽2



사진 9. 방호벽3



사진 10. 건물지 전경



사진 11. 성산봉수대 주변 수집유물



사진 12. 산성 외면 상태



사진 13. 산성 평면 상태



사진 14. 산성 외벽석 노출 상태



사진 15. 산성 관련 수집유물

8. 지정가치와 근거기준

1) 조선시대 내지봉수의 설봉과 최종 폐봉까지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는 통신시설이다.

- 조선 전(全) 시기 발간의 지지(地誌) 기록을 통해 봉수 한자표기의 차이를 통한 다양한 명칭 확인과 전·후 대 응봉수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다.
- 조선 후기 발간의 『해동지도』(1724)와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등의 고지도(古地圖)에 빠짐없이 표기되어 있다.

2) 봉수대의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많은 유물이 수집되었다.

- 봉수대는 방호벽과 연대, 그리고 추정 건물지 등이 남아 있고 많은 유물이 수집되었다. 사람들이 손길이 닿지 않아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봉수대의 구조와 당시 운영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봉수대이다.

3) 성산봉수대는 산성 내부에 위치하고, 영천지역 관방체계를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다.

- 성산봉수는 이름 그대로 성곽과 관련이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석축산성을 확인하였는데 「경상도지리지」에도 올라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고려시대에 이미 운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산성과 봉수를 서로 마주보이는 곳에 설치하였다고 하므로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성곽과 봉수의 설치시기, 운영체계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4) 내지봉수로서 주변 교통로의 조망에 탁월한 입지이다.

- 영천에서 군위 의성, 안동을 거쳐 문경 조령을 잇는 길과 군위 구미를 거쳐 추풍령으로 이어지는 길의 분기점에 해당한다.
- 영남좌로를 통해 영천과 군위, 의흥, 의성으로 넘나들던 이들을 후망하기에 좋은 곳이다.

5) 영천현 치소에서 봉수가 바로 후망되는 근거리에 입지한다.

- 치소(현 영천초등학교)에서 서북쪽의 봉수까지 8.8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 치소와 봉수 사이에는 중간에 영천천이 흐르고, 동-서 좌우에 영천평야의 형성으로 치소의 가시권 내 봉수가 위치한다.

6)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 일부 봉수유적의 경우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입지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반면, 성산봉수는 영천시 소재지에서 8.8km 떨어져 있고 죽정리마을에서 650m 떨어진 나지막한 봉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다.

7) 영천지역 봉수의 결절점에 위치하여 입지가 탁월하다.

- 영천지역 교통과 봉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충지였다. 다대길 응봉봉수에서 초기한 2거 직봉과 동래 간비오봉수에서 초기한 간봉, 천성보봉수에서 초기하는 간봉 노선 등이 서북상하면서 영천지역에 모이는 결절점이 성산봉수로 그 중요성이 탁월하다.



사진 16. 성산봉수와 대응봉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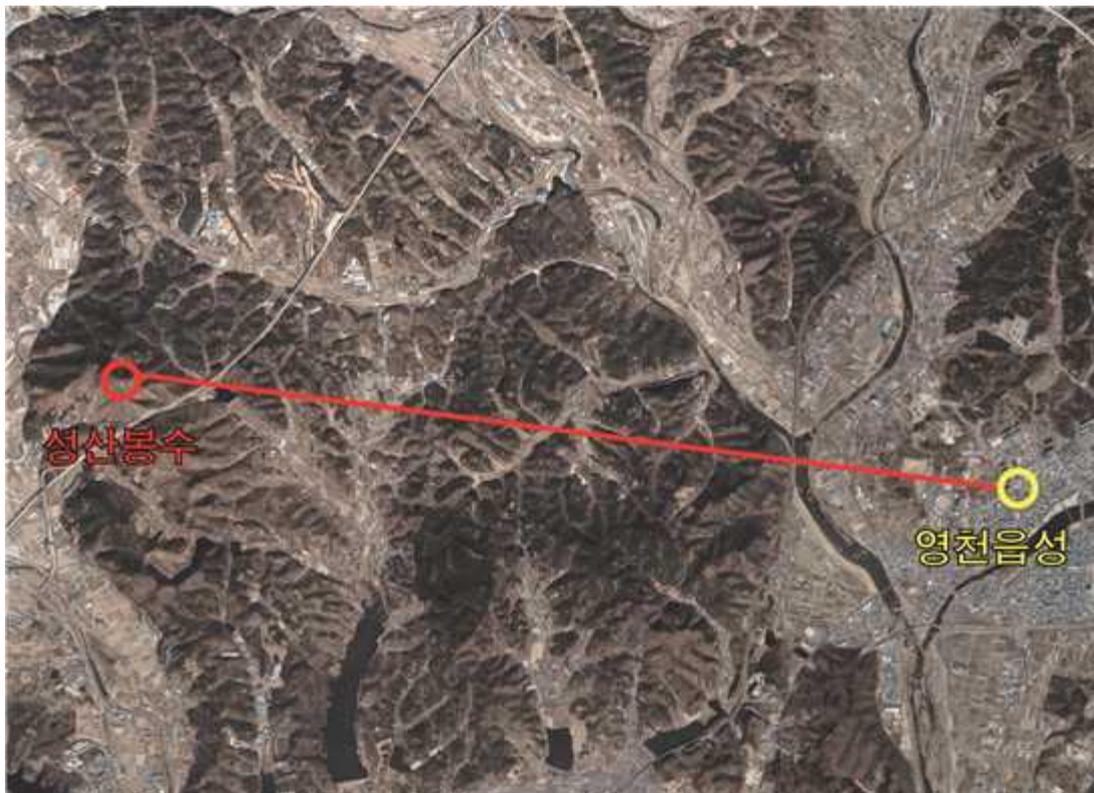


사진 17. 성산봉수대와 영천읍성 위치

9. 지정대상과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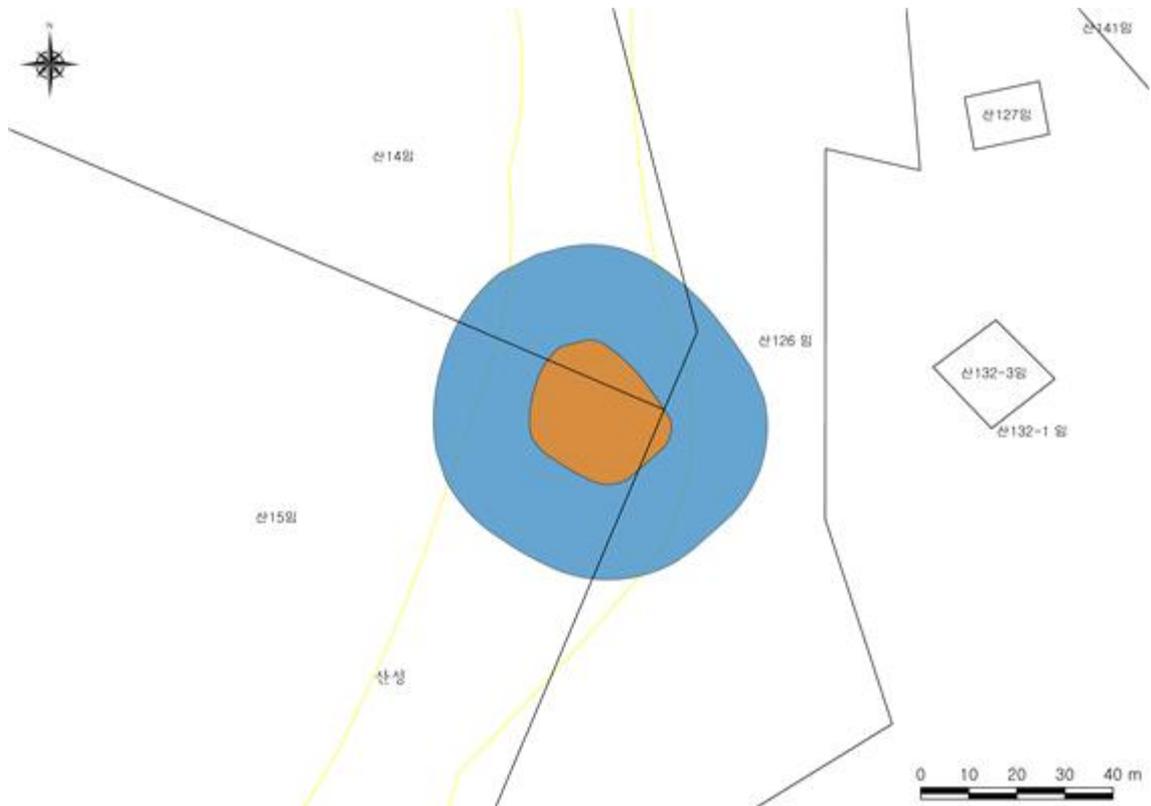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 지정구역)

• 지정면적: 3필지 / 3,711㎡(문화재 634㎡, 보호구역 3,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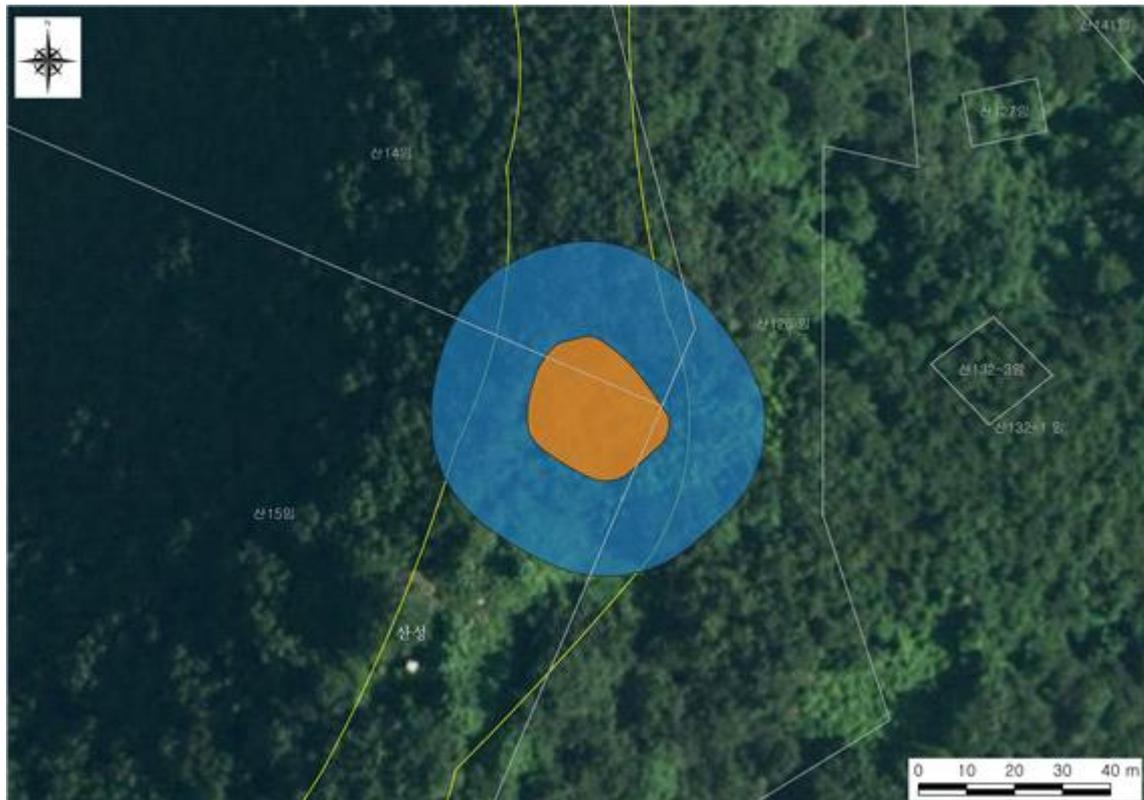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건조물인 경우											(면적: ㎡)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물면적(연면적,건축면적)수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63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원촌리	산14	임야	43,420	131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원촌리	산15	임야	32,926	474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	산126	임야	16,264	29							
계				92,430	634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3,07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원촌리	산14	임야	43,240	920							
2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원촌리	산15	임야	32,926	1,141							
3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	산126	임야	16,264	1,016							
계				92,430	3,077							



도면 3.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S=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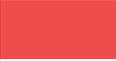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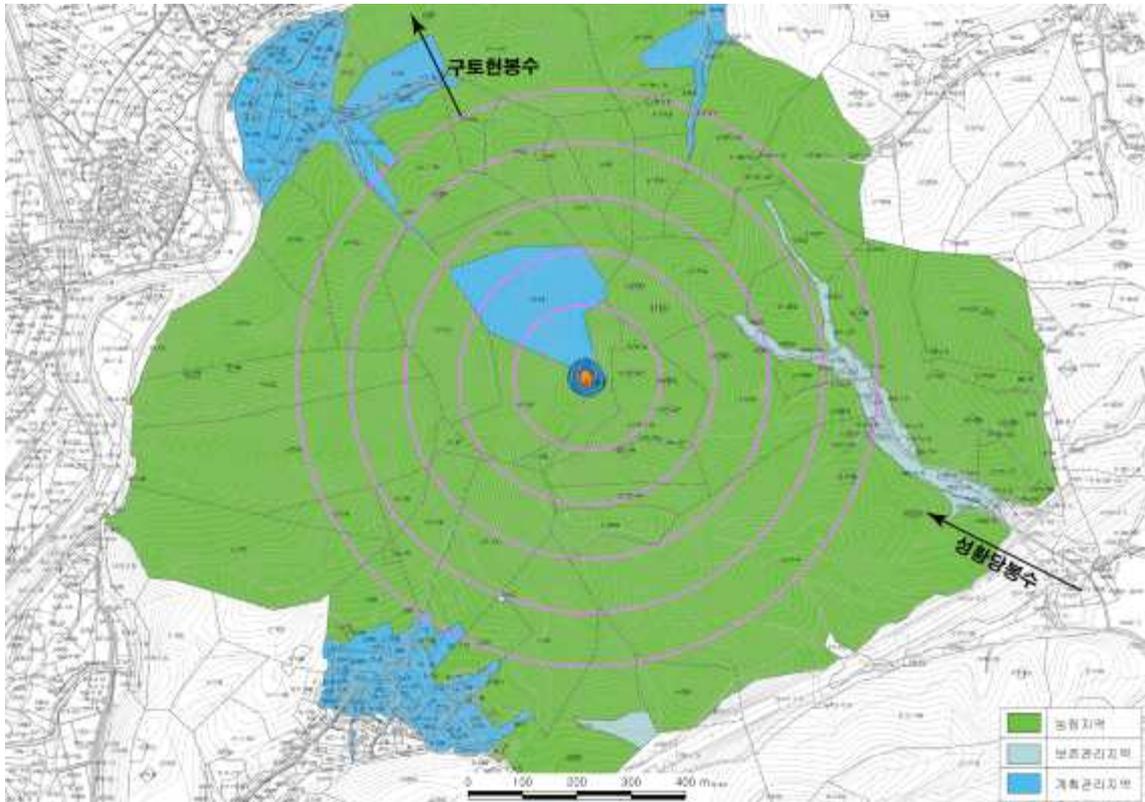
도면 4.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

10.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검토의견

- 성산봉수 전·후 대응노선 봉수의 방향을 고려한 경관 고려가 필요하다.

영천시	영천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p>▣ 대상문화재 제2로 직봉 - 영천 성산봉수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원촌리 산15번지 일원</p> <p>▣ 문화재 및 보호구역  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보호구역</p> <p>▣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간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p> <p>▣구역별 허용기준</p>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 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1. 보존·정비와 활용 착안사항

1) 기본구상

(1) 기본방향

① 기본원칙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1.6.10.] [법률 제17409호, 2020. 6. 9. 일부개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문화재청, 2002)

- 문화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문화재 활용은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사업의 소재로서 개발·활용하며,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육성한다.

『유적(遺蹟) 등 정비계획 수립·추진관련 고려사항』(문화재청, 2003)

- 가치(원형) 보존 최우선: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복원·정비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비를 지양하고, 유적의 가치와 역사적 숨결을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명확한 정비목표 수립: 유적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적 정비를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한다. 보존과 복원·정비되어야 할 것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 :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고, 유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방향 설정

영천시의 성산봉수에 대한 정식 학술조사는 실시된 바 없어 지금까지 별다른 보존·정비와 관리계획은 없었다. 이에 합리적인 보존·정비와 관리안을 상기 기술한 기본원칙에 따라 타 시·군 소재 봉수대의 보존·정비와 관리사례를 검토하고 주변 현황과 여건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 봉수대의 보존·정비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도모하고,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과 영천시의 역사문화관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동선체계 등 기반시설의 확충안을 수립한다.
- 봉수는 조선시대 500여년간 변경의 안위(安危) 여부를 전·후 대응봉수간 차차거화(次次擧火)를 통해 최종 중앙에 알리던 호국군사통신 유적으로서, 성격에 의한 구분상 내지봉수(內地烽燧)에 해당한다.
- 봉수는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평안을 상징하는 1거의 햇불[平安火·太平火]을 올림으로서 과거 영천군과 인근 고을 백성들이 이를 바라보고 일상을 마무리하는 순기능도 있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영천시 소재 전체 일급 개소 봉수의 보존·정비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봉수대의 잔존 방호벽과 연대 등의 역사적 실체를 보존·정비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시킨다.
-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활용되었던 봉수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정보통신 발달의 상징적 유적으로 보존·관리한다.
- 경상도와 충청도·경기도를 거쳐 최종 서울 목멱산봉수로 이어지는 내지봉수 체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원한다.

(2) 기본전제

① 잔존 봉수 유구의 보존과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

봉수대의 핵심요소인 거화시설(연대)과 방호시설(방호벽) 및 생활시설(주거지)을 대상으로 보존·정비하여 성산봉수의 문화재적 가치가 표출되도록 한다.

② 역사문화자산 가치 증진 및 화제성 창출

과거 봉수체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던 당시에 봉수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봉수군과 봉수운영 관련 된 기록과 내용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유적과 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화제성이 창출되도록 정비한다.

③ 대응봉수와의 조망을 위한 가시권 확보

입지조건상 동남쪽으로 영천군의 옛 치소가 잘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한 봉수는 인근 대응봉수와의 후망을 통해 영천지역과 고을 백성들에게 변경의 안위 여부를 알리던 군사통신유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적 강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계획한다.

조선 후기에 최종 설정된 대응봉수인 성황당봉수와 구토현봉수의 가시권 확보 외 봉수 주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식생이 양호한 기존의 자연경관 유지 방안을 제시한다.

④ 주연야화(晝煙夜火) 통신의 특징을 살린 ‘체험과 교육의 장’ 조성

햇불과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 소식을 전하였던 봉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적의 복원보다는 체험과 실연(實演)을 통한 거화의 과학적 원리를 교육한다.

기존의 진입로를 활용하여 최적의 보행환경과 교육적 기능을 갖춘 탐방로 조성을 통해 성산봉수의 500여년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⑤ 주변 문화자원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

봉수 주변 치소나 역과 같은 관련 문화재는 없는 편이다. 그러나 봉수대를 두르는 산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봉수대와 산성을 통합적으로 연계·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⑥ 실현가능한 세부추진사업 도출과 단계별 사업시행

영천시의 재정여건이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토지 매입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필요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3) 종합구상

① 추진사업 계획

역사적 실체 보존 사업을 실시한다.

- 식생정비(소목 간벌), 봉수 내부 잔디 식재, 봉수군 주거지 정비 등 문화자원 연계 개발사업을 실시한다.
- 탐방로(봉수군 길) 정비, 스토리텔링 개발, 체험 프로그램 및 축제 개발, 봉수 C.I개발, 동선표지판·전망시설 및 망원경 설치 등을 진행한다.
- 읍성과 봉수 등 관방체계 알림 사업을 병행한다.
- 봉수와 읍성 등 주변지역의 관방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 봉수 주변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 등이 필요하다.

② 토지이용계획

봉수대 일원은 산림청과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원촌리 산 15번지 일원에 소재하며 면적은 634㎡이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토지 대장, 2021.9.)

현재 성산봉수를 찾는 탐방객은 소수에 불과하며, 탐방객을 위한 주차장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죽정리 마을에 주차하는 실정이다.

향후 제2거 직봉 노선 봉수의 사적지정이 확정되고 보존·정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 시 탐방객에게 보다 쾌적한 역사경관과 편리한 탐방환경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

③ 동선계획

본 계획에서는 봉수구역과 진입광장 및 주차구역으로 나누고 각 공간별로 기능을 배분하였다. 특히, 진입광장 및 주차구역에는 방문객이나 차량의 접근 동선과 관련된 공간 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험교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봉수대의 탐방동선은 기존에 조성된 산책로를 그대로 이용하되, 전통적인 분위기 연출과 유지관리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야자매트나 경화흡포장으로 한다.

또한, 탐방객의 주동선이 되는 기존 산책로를 활용하여 봉수에 대한 관심유발과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2) 보존과 정비활용계획

(1)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확대지정

① 향후, 제2거 직봉 노선의 봉수를 사적(史蹟)으로 승격 시 문화재지정구역의 확대 및 대응봉수간의 조망과 가시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성산봉수를 중심으로 남동쪽의 구토현봉수, 서북쪽의 토을산봉수를 잇는 조망과 이를 잇는 가시권 확보가 필요하다.

- ② 봉수대 주위의 수목을 선별적으로 간벌하여 대응봉수간 조망이 가능하도록 정비 할 필요가 있다.
- ③ 봉수대 주변 식생이 양호한 임야는 가급적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④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확대는 기존 현상변경허용기준 적용구역의 확대를 수반한다. 인접 봉수간의 조망 확보를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아울러 보호구역 외곽 200m정도는 1구역 (개별 심의) 또는, 2구역 <최고높이 8m이하(평지붕), 최고높이 12m이하(경사지붕)>으로 설정하여 역사 문화 환경과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⑤ 진입로에서 봉수대의 원경을 볼 수 있도록 간벌 등을 통해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봉수군들이 이용했던 소로(진입로)는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이 길을 통한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2) 보존계획

① 봉수유적 보존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는 거화시설인 연대와 방호시설인 방호벽이 잔존하고 있으나,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후 13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봉수대 내외에 수풀잡목이 무성하여 그 형태를 뚜렷하게 확인하기 곤란하다.
- 따라서, 과거 봉수의 운영당시 원형구조를 밝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수대를 구성하였던 제반 요소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비와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에 대한 최근의 현황조사를 통해 전체 구조의 확인이 가능함으로 이를 바탕으로 운영당시의 모습대로 단계적으로 정비·복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조선시대 연변봉수의 형태와 기능을 학습·체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공간으로 조성한다.

다. 추진방법 및 절차

- 먼저 방호시설인 방호벽과 추정 봉수군 주거지에 대한 원형구조를 확인한다.
- 연대는 주위 수풀잡목을 간벌하고 방호벽 내부에는 잔디를 식재하여 보존한다.

② 수목 간벌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 내·외는 현재 무성한 수풀잡목으로 대응봉수와의 조망이 곤란하거나 유구 훼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적절한 간벌을 통하여 유적 보존 및 가시권(可視圈)을 확보한다.

나. 사업내용

- 현재 봉수대 주위와 내부에는 수목이 들어차 있어 대응봉수의 조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목을 선별적으로 벌목하여 대응봉수인 성황당봉수와 구토현봉수에 대한 조망을 개선한다.

다. 추진방법

- 벌목작업은 봉수유구의 보존, 주변경관 조망, 봉수의 제반요소 감상 등에 장애를 주는 수목부터 선별하여 실시한다.
- 봉수대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경관이 확보되도록 수목을 제거한다.
- 죽정리마을에서 봉수대로 향하는 수목을 정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동선을 유도한다.

(3) 정비·활용계획

① 전망시설과 휴식공간 설치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의 정체성과 주요 기능은 대응봉수와 시각적 연결에 있다. 현재, 봉수대는 내·외부의 수목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제한적이고, 전체 봉수유구 살펴볼 수 없다. 조선시대 봉수는 대응봉수와 조망과 주변 관찰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였으므로 이러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 주변 적당한 곳에 봉수의 전체 구조와 대응봉수, 주변 자연환경, 시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 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조선시대 봉수의 입지선정 원리를 체감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과 절차

- 전망시설은 봉수대 주변 시야가 가장 좋은 지점에 설치하되,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봉수의 역사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안내판에 대응봉수를 촬영한 사진을 표시하여 눈앞에 펼쳐진 전경과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망시설에는 망원경 등을 설치한다.
- 전망시설 하부나 주위에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방문객에게 휴식과 사색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② 봉수군 탐방로 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죽정리마을에서 봉수대로 이어지는 ‘봉수군 탐방로’를 조성하여 문화콘텐츠로 활용한다.

나. 사업내용

- 탐방로를 개설하고, 봉수 관련 이야기와 비품 등을 소개함으로써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과거 봉수의 기능과 운영 및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노변(路邊) 전시관 기능을 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

- 기존의 길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요 지점에는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고 답사 중 쉬어갈 수 있도록 벤치도 설치한다.
- 안내판의 내용은 경북권 내 경산(現 대구 수성구) 성산봉수(城山烽燧)의 비치 물목을 토대로 봉수운용에 필요한 비치물목상의 거화재료나 생활비품 등을 선별하여 사진자료와 함께 해설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烟臺一 烟窟一 望德一 火德一 積草五訥 烏外石五訥 無稜石五訥 吐木五訥 烟炬三柄 松炬五十柄 草炬五十柄 柎炬五十柄 艾五同 牛糞五同 馬糞五石 炭五石 細沙五石 糟糠五石 防牌五坐 排火木五介 法手木五介 水桶五箇 菱鐵二十箇 古乙羅木二十五箇 木斧子二十柄 滅火器五坐 麻注乙里二十沙里 前梯一 水樽五坐 縣瓢子五介 火箭九柄 唐火箭九柄 長箭一浮 片箭一浮 黑角弓一張 桶兒一介 大白旗一面 鉛丸三十箇 火藥五兩 烏銃一柄 環刀一柄 長槍一柄 火繩六沙里 細繩三沙里 條乙所三沙里 火鐵石二介 水瓮五坐 釜一坐 食鼎一坐 爐口一坐 匙五持 沙鉢五立 空石十立 接匙五竹 瓦家五間 種火盆一坐 草席二立 抹木十八箇 火桶五介 燒木五同 戰角一雙 待賓米一石 鎌子四柄 盤五立 三穴銃一坐 火綿一 掩頭一部 掩心一部 五色布旗五面 鼓一坐 錚一坐 火鐵十介 生松一訥 橫一坐

(『嶺南邑誌』第7冊, 『慶山縣邑誌』(1871) 烽臺)

(4) 봉수 거화(擧火) 실연(實演) 행사

① 추진배경과 목표

봉수는 연기[주간]와 불[야간]로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시설인 만큼 실제 거화(擧火)나 거연(擧煙) 같은 실연(實演)행사의 실시를 통해 선조들의 봉수운영 원리를 체득하게 한다.

② 사업내용

연기와 불이라는 시각신호로 변경의 안위여부를 전달하였던 봉수의 연조 형태와 구조, 거화재료의 종류와 배합 등을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이 실증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크기의 연조를 제작한 후 실연(實演)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③ 추진방법과 절차

가. 실연행사를 할 수 있는 연조(煙籠)를 제작하되 설치장소는 행사 시 화재발생이나 유구 훼손에 대비하여 유적과 일정거리 떨어진 곳으로 한다. 연조의 크기와 구조 등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다.

나. 거화재료[화]는 경산 성산봉수 비치물목을 참고하여 준비하고 전통방식에 따라 제작한 후 사용한다. 행사의 진행은 지역 문화단체가 담당하고 연중 개최 시기는 ‘신년, 정월대보름, 8·15광복절, 영천군민의 날’ 중 의미 있는 날을 정하여 개최하도록 한다. 그리고 영천에서는 보현산 별빛축제, 문화예술제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때 봉수 실연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봉수를 알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5) 관리운영계획

① 관리운영 주체

영천시에서 관리

(경북문화재단 등 문화재 관리 기관에 위탁관리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 목표

가. 성산봉수대의 보존과 유지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

나. 탐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도모

다. 성산봉수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의 극대화

라. 유적의 학술적 가치 극대화와 신규 문헌 발굴 등

③ 관리운영사항

가. 봉수대 유적

- 성산봉수대 일원

- 성산봉수대 주변 탐방로 등

나. 자연환경

- 성산봉수대 주변 수목 및 지형

- 주변 생태환경, 녹지 등

다. 시설물

- 탐방로, 전망시설 등

- 안내판, 방향지시판, 휴게시설 등

-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라. 탐방객을 위한 서비스

- 홍보, 해설, 전시, 축제행사 등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④ 사업 추진절차

가. 문화재지정구역 및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는 먼저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발굴(시굴)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한 후 도출된 발굴결과에 따라 정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입 → 발굴 → 정비의 순이다. 성산봉수는 정식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비단계에 따르되 대상지가 안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복원·정비의 단계를 결정한다.

나. 매입 단계는 정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국·공유지화 하는 단계로서 대상지의 지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 파악과 매입에 예상되는 비용 및 매입의 원활성을 판단하여 정비의 선후를 결정한다. 성산봉수의 정비사업은 우선적으로 유선 봉수대를 중심으로 매입하고 이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⑤ 순차별 사업계획

가. 봉수대의 보존·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체 사업비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초기 2년의 정비를 단기정비로 설정하고 이후의 계획 중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기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단기사업은 정비사업의 기간 및 지자체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나. 보존·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추진 절차, 시급성,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다. 봉수대 보존과 주변정비사업은 방호벽과 연대 정비, 식생정비[간벌 등], 전망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정비사업의 원칙은 유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선정한다.

라.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편리하고 쾌적한 출입 및 동선체계 구축을 위한 주차장마련 및 진입광장 조성 사업을 단기에 시행하고 관광 역량 제고를 위한 간이안내소 설치나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은 중기에 진행한다.

마. 이들 추진사업은 영천시청의 정책 순위 변경과 주민들의 요구도, 제반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2. 종합의견

- 1) 영천 성산봉수는 조선시대 전체 5거노선의 봉수 체계에서, 부산에서 초기하는 제2거 직봉의 열세번째 내지봉수이다. 문화재청의 2014년과 이번 조사를 통해, 방호벽과 연대, 추정 건물지를 확인하였다.
- 2) 봉수성격에 의한 구분상 내지봉수이지만, 연변봉수의 필수 시설로 연변봉수를 상징하는 연대를 방호벽 내에 마련한 특이한 구조이다. 연대는 석축이 일부 허물어져 있지만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이외 방호벽 내부공간을 상단(上段)과 하단(下段) 2등분하여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 3) 성산봉수대의 평면 형태는 말각방형이고 면적은 634㎡ 정도이다. 연대, 방호벽 외 추정 건물지, 그리고 봉수대를 두르는 산성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봉수대는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많은 유물이 산재하고 있어 정밀 문화재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봉수 운영 당시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 4) 영천지역은 교통과 봉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충지였다. 부산 다대포 응봉봉수에서 초기한 직봉과 동래

간비오봉수에서 초기하는 간봉(1), 부산 천성보봉수에서 초기하는 간봉(8)노선의 여러 봉수들이 차차거화(次次擧火)를 통해 서북상하면서, 영천지역에 모이는 결절점(結節點)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노선적 특수성으로 인해 내지봉수임에도 연변봉수를 상징하는 연대를 방호벽 내에 설치하였다.

- 5) 조선 전기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1425)에서부터 구한말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1908)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지에 빠지지 않고 등재되어 있고 제2거 직봉 노선의 주요 봉수다.
- 6) 봉수는 단일 유적보다는 통신체계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 노선별 주요봉수, 잔존상태, 역사성, 지정번호 부여방식 결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적지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문화재 종류

1) 사적

- 비지정문화재로서 부산 다대포 응봉봉수(鷹峰烽燧)에서 초기(初起)하는 제2거 직봉노선의 열두 번째 내지 봉수인 ‘영천 성황당봉수유적(永川 城隍堂烽燧遺跡)’을 같은 노선의 봉수와 연계하여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2. 문화재 명칭

1) 문화재명 : 제2로 직봉 - 영천 성황당봉수유적(第2路 直烽 - 永川 城隍堂烽燧遺跡)

- 봉수유적은 연속유산으로서 노선 단위 지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정명칭은 “본 명칭 - 부 명칭”의 형식으로 부여토록 한다. 여기서 본 명칭은 대표성이 높으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2로 직봉(第2路 直烽)”으로 한다.
- 부 명칭은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라 봉수명칭 앞에 현 행정구역 소재지인 ‘영천(永川)’을 표기한다.
- 봉수명칭은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이후 조선 최후기 봉수망을 알 수 있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의 명칭과 한자표기를 따라 ‘성황당봉수유적(城隍堂烽燧遺跡)’으로 표기한다.
- 따라서, 최종 봉수명칭은 ‘제2로 직봉 - 영천 성황당봉수유적(第2路 直烽 - 永川 城隍堂烽燧遺跡)’(이하 ‘성황당봉수’라 한다)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명칭유래

성황당은 마을 어귀나 고갯마루에 쌓아 놓은 돌무더기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번듯하게 당집을 짓고,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고, 매년 정월 보름에 정갈한 음식을 차려 당제를 올리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에도 성황당 자리에는 신목(神木)으로 신성시되는 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당제의 기능이 없어져도 예전의 터를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성황당 옆에는 장승이 세워져 마을에 부정한 기운이나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행인들에게는 이정표 구실을 하기도 했다. 먼 노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인들은 성황당 곁을 지날 때는 돌무더기 위에 돌 세 개를 엮고 세 번 절을 한 다음 침을 세 번 뱉으면 재수가 좋다고 믿었다.

성황은 ‘성(城)과 황(隍)’이 합쳐진 단어로 아군의 인마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조한 성과 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하여 성 주위를 따라 파 놓은 도랑(해자, 隍)을 말하는 것인데 이 구조물을 수호하는 신을 성황신이

라고 한다. 고려시대 가장 이른 시간의 성황사는 현종의 즉위 과정에서 등장하는 성황당이(성종 15년, 996 이전) 있고 인종 때 묘청의 난을 진압한 후 성황신묘에 제사를 지낸 기록도 있고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도 계변신(성황신)에 제사를 지낸 기록이 남아 있다.

봉수의 명칭에 ‘성황당(城隍堂)’은 전국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영천시 오수동에서 원제리로 넘어가는 땅고개(당고개)에 성황당이 있었다고 한다. 고려 혹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성황신앙이다. 늦어도 고려 말에는 운영되었던 봉수가 주변에 위치한 성황당의 이름을 따서 ‘성황당봉수’로 명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천의 성황당봉수는 제2거 직봉의 방산 봉수와, 동쪽 고경면 파계리에 있는 간봉(1) 노선의 지봉인 소산 봉수와, 하양읍에 있는 간봉(8) 노선의 시산 봉수의 신호를 합하여, 직봉인 청통면 신덕리 성산 봉수로 보냈다. 성황당봉수는 예전에 영천읍으로 하루의 평안을 알리는 봉수였다. 임란 직후 봉수 노선을 재정비할 때, 구성황당 봉수대는 서남으로 600m 거리에 있는 신성황당봉수대로 옮기면서 명칭은 그대로 가져갔다.

고갯마루, 마을 어귀에서 마을의 평안과 행인의 안녕을 기원하던 성황당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던 봉수대의 기능과 부합된다.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성황당 이미지는 봉수에 대한 신뢰로 옮겨져, 봉수제도가 폐지된 이후, 성황당이 봉수대 터로 옮겨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전국에서는 폐지된 봉수대 터에 새로이 축조된 성황당·당집을 많이 볼 수 있다.

3. 영천지역의 봉수현황과 성격

- 영천지역에는 최초 설봉(設烽)과 폐봉(廢烽)시기가 다른 총 7기의 봉수(방산·소산·(구·신)성황당·성산·구토현·여음동)가 소재하고 있다. 봉수의 성격에 의한 구분상 모두 육지내륙 소재의 내지봉수(內地烽燧)다.
- 이 중 ‘소산·(구)성황당’ 2기의 봉수는 조선 후기인 18세기 중엽 노선의 조정으로 인해 폐봉됨에 따라 『증보문헌비고』(1908)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가 최종 폐지될 때까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었던 봉수는 ‘방산·(신)성황당·성산·구토현·여음동’ 등 5기다.

4. 성황당봉수의 입지와 연혁

1) 입지

성황당봉수대는 현재 구봉(舊烽)과 신봉(新烽) 두 곳에 봉수대 터가 남아 있다. 구봉은 영천시 쌍계동 서편의 해발 270m인 봉화산[산32번지 일원] 정상에 있는데 영천 시내를 관망하기 좋은 곳이다. 신봉은 구봉에서 남쪽으로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680m가량 떨어진 원제리 산23번지 일원 정상에 있다. 임란 직후 봉수 노선을 재정비할 때, 이설(移設)이 이루어졌다. 또한, 성황당봉수대는 영천군의 읍치(邑治)에서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성황당봉수의 구봉은 봉수대의 동쪽에 위치한 쌍계마을에서 등산로를 따라 오를 수 있고, 신봉은 봉수대의 서쪽에 위치한 돌섬마을에서 임도와 등산로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사진 1. 성황당봉수대에서 본 영천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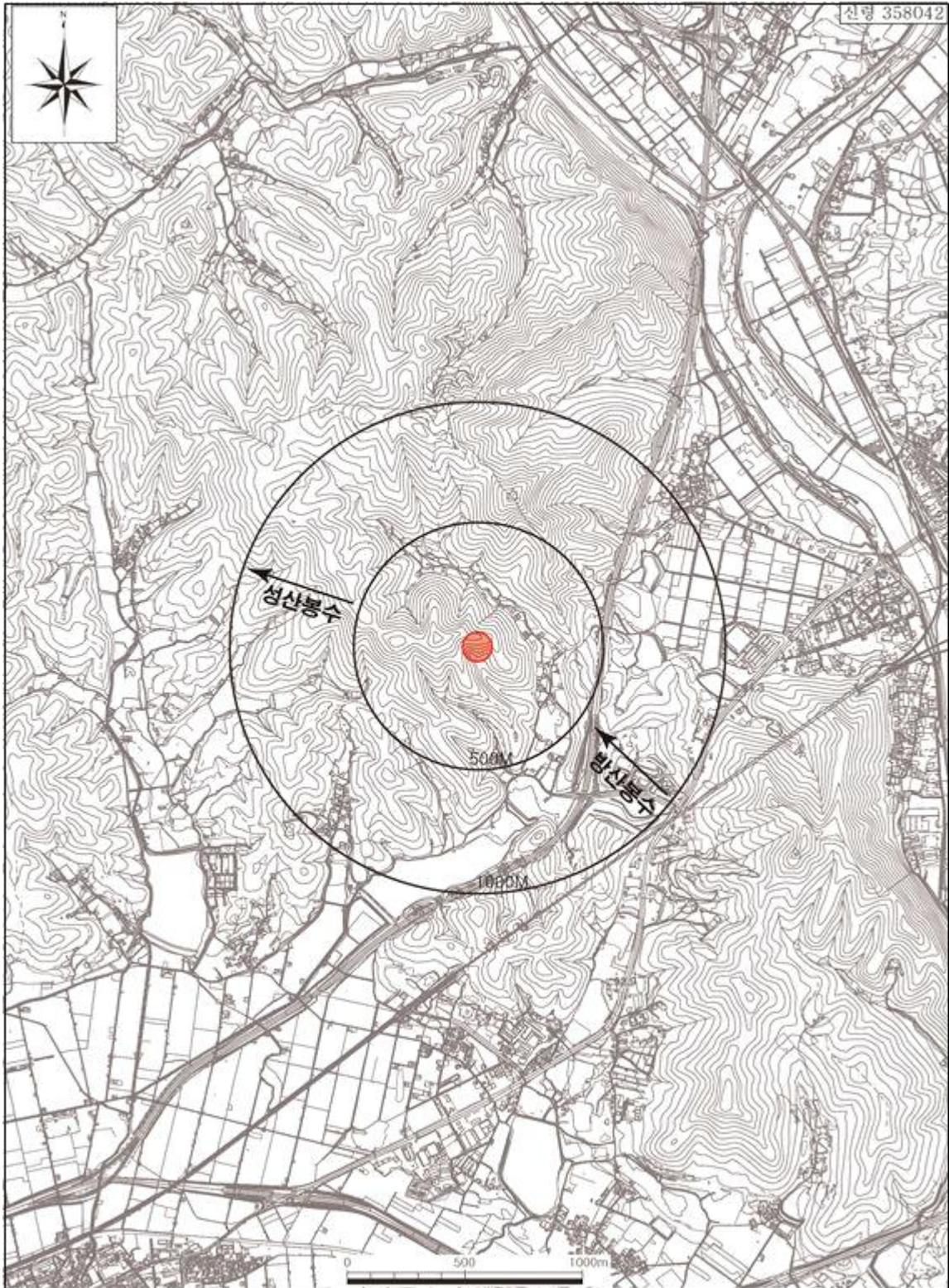


사진 2. 영천읍성에서 본 성황당봉수대

2) 연혁

성황당봉수의 최초 지지기록은 『경상도지리지』 부터다. 지지별 발간연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慶尙道地理志』(1432) 安東道 永川郡
城隍堂烽火 在郡西五里 許東望郡地 所山烽火與方山烽火 西望河陽縣地 匙山烽火 相去二十二里 北望新寧縣地 餘通烽火 相去三十一里
성황당봉화는 군의 서쪽 5리 정도에 있다. 동으로 군지 소산봉화, 방산봉화를 바라본다. 서쪽으로 하양현지 시산봉화를 바라보는데 거리는 22리다. 북으로 신녕현지 여통봉화를 바라보는데 거리는 31리다.
- 『世宗實錄』地理志(1454) 卷150, 慶尙道 永川郡
城隍堂 東准方山及所山 西准西河陽匙山 北准新寧餘音同
성황당은 동쪽으로 방산과 소산을 겨누고, 서쪽으로 하양 시산, 북쪽으로 신녕 여음등을 겨눈다.
- 『慶尙道續撰地理誌』(1469) 安東道 永川郡
烟臺烽火 城隍堂煙臺烽火 東與所山及方山煙臺烽火相准
연대봉화는 성황당연대봉화이다. 동쪽으로 소산과 방산연대봉화와 서로 겨눈다.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卷22, 慶尙道 永川郡 烽燧
城隍堂烽燧 在郡西十里 東應所山及方山 西應河陽縣匙山及郡城山
성황당봉수는 군의 서쪽 10리에 있다. 동쪽으로 소산과 방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하양현 시산과 본군의 성산에 응한다.
- 『輿地圖書』下(補遺) 慶尙道 「永川郡誌」(1760) 烽燧
城隍堂烽燧 在郡西十里 東應方山及蘇山烽 西報河陽匙山烽 相距三十里 西報城山烽 相距十五里
성황당봉수는 군의 서쪽 10리에 있는데, 동으로 방산과 소산봉에 응한다. 서쪽으로 하양 시산봉에 알리는데 거리는 30리다. 서쪽으로 성산봉에 알리는데 거리는 15리다.
- 『慶尙道邑誌』第7冊, 「永川郡邑誌」(1832) 烽燧
城隍堂烽燧 在郡西十里 東應方山及蘇山烽 西報河陽匙山烽 相距三十里 西報城山烽 相距十五里
성황당봉수 군의 서쪽 10리에 있는데, 동으로 방산과 소산봉에 응한다. 서쪽으로 하양 시산봉에 알리는데 거리는 30리다. 서쪽으로 성산봉에 알리는데 거리는 15리다.
- 『永川郡誌』(1861) 烽燧
城隍堂烽燧 在郡西十里 東應方山及蘇山烽 西報河陽匙山烽 相距三十里 西報城山烽 相距十五里
성황당봉수 군의 서쪽 10리에 있는데, 동으로 방산과 소산봉에 응한다. 서쪽으로 하양 시산봉에 알리는데 거리는 30리다. 서쪽으로 성산봉에 알리는데 거리는 15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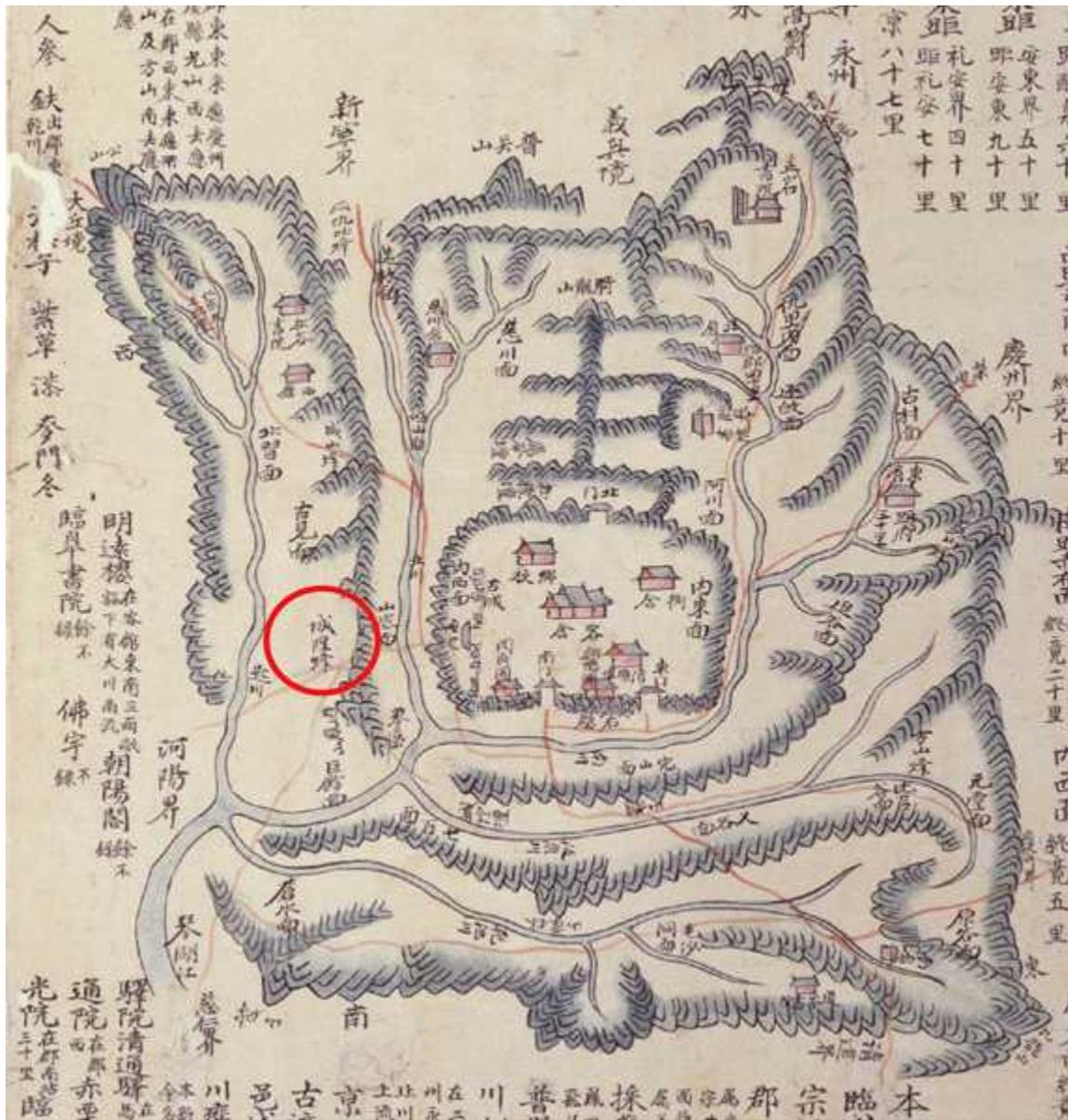
지도 2. 성황당봉수대 위치도(S=1/25,000)

- 『大東地志』(1864) 卷7, 慶尙道 15邑 永川 烽燧
城隍堂 西十里
성황당은 서쪽 10리다.
- 『嶺南邑誌』 第16冊, 「永川郡誌」(1871) 烽燧
城隍堂烽燧 在郡西十里 東應方山及蘇山烽 西報河陽匙山烽 相距三十里 西報城山烽 相距十五里
성황당봉수는 군의 서쪽 10리에 있는데, 동으로 방산과 소산봉에 응한다. 서쪽으로 하양 시산봉에 알리는데 거리는 30리다. 서쪽으로 성산봉에 알리는데 거리는 15리다.
- 『嶺南邑誌』 第26冊, 「永川郡誌」(1895) 烽燧
城隍堂烽燧 在郡西十里 東應方山及蘇山烽 西報河陽匙山烽 相距三十里 西報城山烽 相距十五里
성황당봉수는 군의 서쪽 10리에 있는데, 동으로 방산과 소산봉에 응한다. 서쪽으로 하양 시산봉에 알리는데 거리는 30리다. 서쪽으로 성산봉에 알리는데 거리는 30리다.
- 『永川郡邑誌』(1899) 烽燧
城隍堂烽燧 在郡西十里 東應方山及蘇山烽 西報河陽匙山烽 相距三十里 西報城山烽 相距十五里
성황당봉수는 군의 서쪽 10리에 있는데, 동으로 방산과 소산봉에 응한다. 서쪽으로 하양 시산봉에 알리는데 거리는 30리다. 서쪽으로 성산봉에 알리는데 거리는 30리다.
- 『增補文獻備考』(1908) 卷124, 兵考16 烽燧2
初起 鷹峰(多大浦鎭) -- (中略) -- 城隍堂(永川) -- (中略) -- 第2炬準 天臨山
초기 응봉(다대포진) -- (중략) -- 성황당(영천) -- (중략) -- 제2 거는 천림산에 준한다.

3) 고지도

여러 고지도에서 성황당봉수를 찾을 수 있다. 『해동지도』 영천군조에는 소산봉(蘇山烽), 방산봉(方山烽), 성황봉(城隍烽), 성산봉(城山烽), 구토봉(仇吐烽) 5개소가 표기되어 있다. 이 중 성황당봉수는 영천읍성의 서쪽에 위치한다. 영천읍성과 봉수 사이에는 북천이 있으며, 이 북천을 따라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이 도로는 신녕현까지 이어진다. 성황당봉수의 기록은 ‘군의 서쪽에 있다. 동쪽으로 소산 및 방산봉수에서 응하여 오고, 남쪽으로 하양 시산봉수, 서쪽으로 본군 성산봉수로 응하여 보낸다. 육로이다.’라고 하였다. 『광여도』, 『지승』에도 5개소의 봉수가 있는데, 『광여도』에는 영천읍성과 성황당봉수 사이에 청통역이 있고 청통역을 두드러지게 표시해 두었다. 1872년 『지방지도』 또한 『해동지도』와 표기방법이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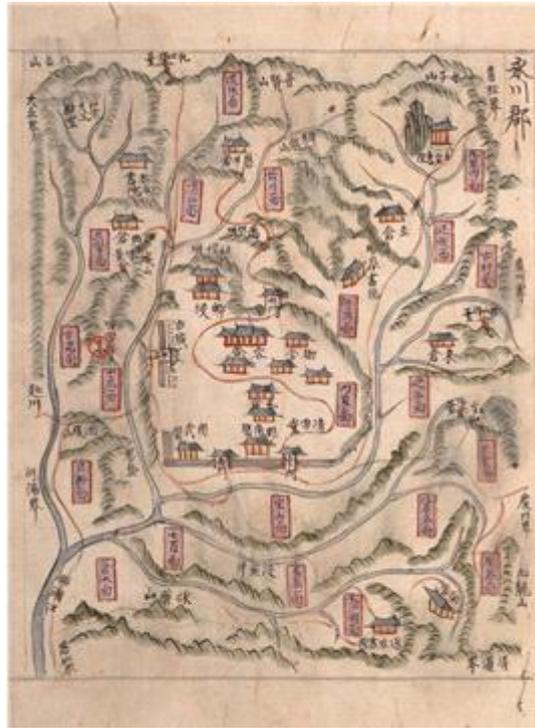
『대동여지도』에는 영천읍성 서쪽에 성황당봉수가 있으며, 성황당봉수의 북동쪽 인근에 청통역이 있다. 영천과 신녕을 연결하는 도로와 인접한 낮은 구릉에 성황당, 성산, 구토현, 여음동봉수가 노선을 따라 연결되어 있다.



고지도 1. 『해동지도』 영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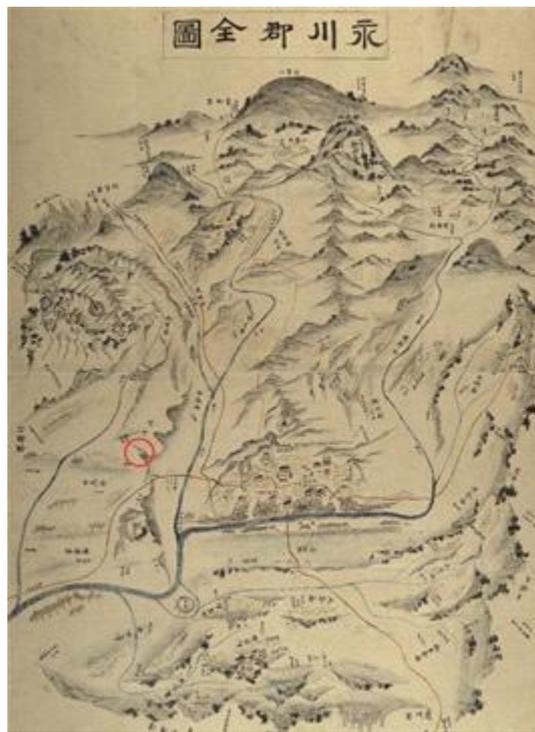
고지도 2. 『광여도』 영천군



고지도 3. 『지승』 영천군



고지도 4. 『대동여지도』(1861)



고지도 5.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5. 봉수노선과 운영

1) 봉수노선

조선 전기 『경상도지리지』(1425)부터 최종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조선 전 시기 발간의 지지에 기록이 있다. 봉수노선과 성격은 제2거 직봉의 열두번째 봉수이자 그에 딸린 간봉(8)의 열네번째 내지봉수이다. 간봉(8)의 봉수는 부산 천성보(天城堡)에서 매일 저녁시간에 초기하여 최종 성황당봉수에 모여 제2거 직봉의 영천 성산봉수(城山烽燧)에 연결되었다. 또한, 동쪽으로는 고경면 소재의 소산(所山烽燧)로부터 간봉(1) 노선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받았다.

봉수 노선상에 있어 성황당봉수는 동·남해안에서 북상하는 2개의 간봉(間烽)이 합류하던 결절점(結節點)에 위치하였다. 즉, 동래 간비오봉수(干飛鳥烽燧)에서 초기(初起)하는 제2거 간봉(1) 노선이 포항 뇌성산봉수(磊城山烽燧)를 경유하여 이곳에서 합해지며, 가덕도 천성보봉수(天城堡烽燧)에서 초기하는 제2거 간봉(8) 노선이 김해·밀양 청도·대구·경산지역을 거쳐 이곳 성황당봉수에서 합류하였다.

따라서, 성황당봉수는 남동쪽으로는 북안면 고지리 소재의 제2거 직봉의 방산봉수(方山烽燧)와, 동쪽으로는 고경면 파계리 소재 제2거 간봉(1) 노선의 소산봉수(所山烽燧)와, 남서쪽으로는 경산시 하양읍 소재 제2거 간봉(8) 노선의 사산봉수(匙山烽燧)와 대응하여 이들 봉수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북서쪽 청동면 원촌리 소재의 성산봉수(城山烽燧)로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영천지역의 봉수노선 변화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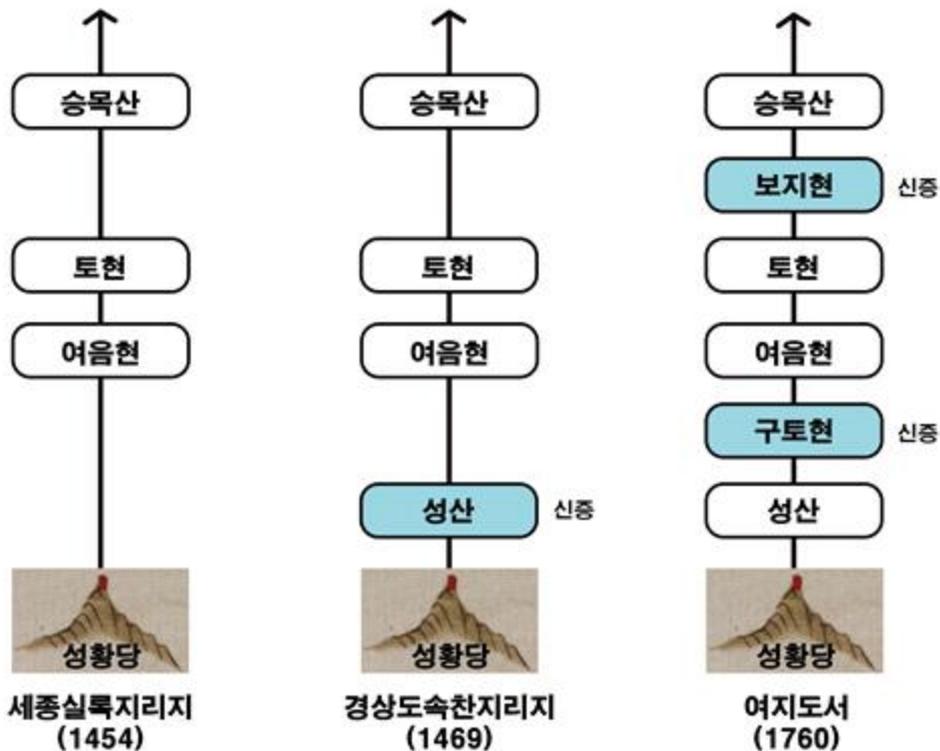


표 1. 영천지역 제2거 직봉(直烽) 노선변화

지지별로 살펴 보면 전기 발간의 『경상도지리지』에 안동도 영천군 소속의 성황당봉화(城隍堂烽火) 명칭으로 “군의 서쪽 5리에 소재한다. 동쪽으로 군의 소산(所山) 및 방산봉화(方山烽火)를 바라보며 서쪽으로 하양현 시산봉화(匙山烽火)와 22리, 북쪽으로 신녕현 여통봉화(餘通烽火)와 31리의 거리에서 바라본다.”라고 하였다. 『

『세종실록』 지리지(1454)에는 경상도 영천군 소속의 성황당봉화 명칭으로 동쪽으로 방산 및 소산봉화, 서쪽으로 하양 시산봉화, 북쪽으로 신녕 여음동봉화(餘音同烽火)와 응한다고 하였다. 『경상도속찬지리지』(1469)에는 안동도 영천군 소속의 성황당연대봉화(城隍堂煙臺烽火) 명칭으로 동쪽으로 소산과 방산연대봉화와 응한다고 하였다.

중기 발간의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는 경상도 영천군 소속의 성황당봉수 명칭으로 “군의 서쪽 10리에 소재한다. 동쪽으로 소산과 방산봉수, 북쪽으로 하양현 시산과 군의 성산봉수에 응한다.”라고 하였다.

후기 발간의 『여지도서』(1760)에는 성황당봉수 명칭으로 군의 서쪽 10리에 소재하며 동쪽으로 방산과 소산봉에 응하고, 서쪽으로 하양 시산봉과 30리, 북쪽으로 성산봉과 15리의 거리에서 알린다고 하였다. 끝으로 조선 최후기의 봉수망을 알 수 있는 『증보문헌비고』(1908)에는 제2거 간봉(8) 노선의 봉수가 최종 집결하는 곳이자 제2거 직봉의 대응봉수로 소개되어 있다.

2) 봉수운영

조선 후기 경상좌병사 소관이었다. 봉수군 인원은 『영남읍지』(1871)에 “봉군 500名이다.”¹⁾라고 하였다. 이는 당시 영천군에는 ‘방산·소산·성산·성황당·구도현’ 등 5기의 봉수가 있었기에 각 봉수마다 봉군 100명씩 속해 있었다. 기록이 제한적이어서 봉군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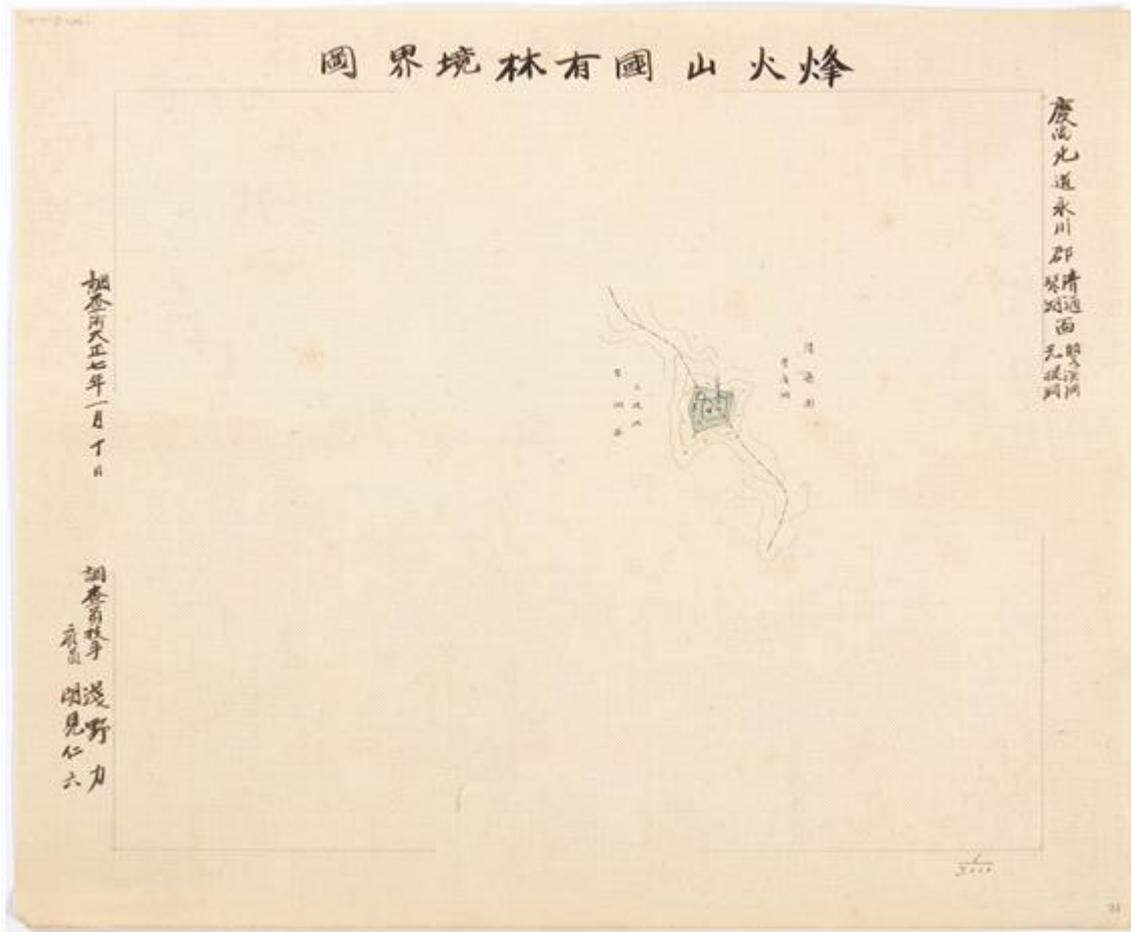
6. 일제강점기의 조사

봉수는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최종 폐봉 이후 일제 강점기에 간략한 조사²⁾가 이루어졌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番號 : 4
번호 : 4
- 種別 : 烽燧
종별 : 봉수
- 場所 : 琴湖面 元堤洞, 淸通面 雙溪洞
소재 : 금호면 원제동, 청통면 쌍계동
- 所有 : 烽火山 國有林
소유 : 봉화산 국유림
- 摘要 : 永川邑/西約二十町提內洞/北方烽火山頂=周圍六十間/土壘/痕迹⁷⁾
적요 : 영천읍에서 서쪽으로 약 20정, 제내동의 북쪽에 있는 봉화산 정상에 둘레 60간의 토루흔적이 있다.
- 備考 : 乙種要存豫定林野
비고 : 을중요존예정임야

1) 『嶺南邑誌』 第16冊, 「永川郡誌」 軍額.

2)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慶尙北道 永川郡, 1942, p.224.



지도 3. 영천 성황당봉수대 일제강점기 국유림 경계도(국립중앙박물관)

7. 유구현황과 특징

1) 항공사진

성황당봉수대가 확인 가능한 항공사진은 1954년 사진이다. 봉수대는 방호벽으로 구획되어 있고, 방호벽 주변으로 환도가 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방호벽 내에는 둔덕형태의 유구가 관찰된다. 영천지역에서 보이는 내륙형 연대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이 유구가 연대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현재 봉수대 내에 의자 등의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설을 만들면서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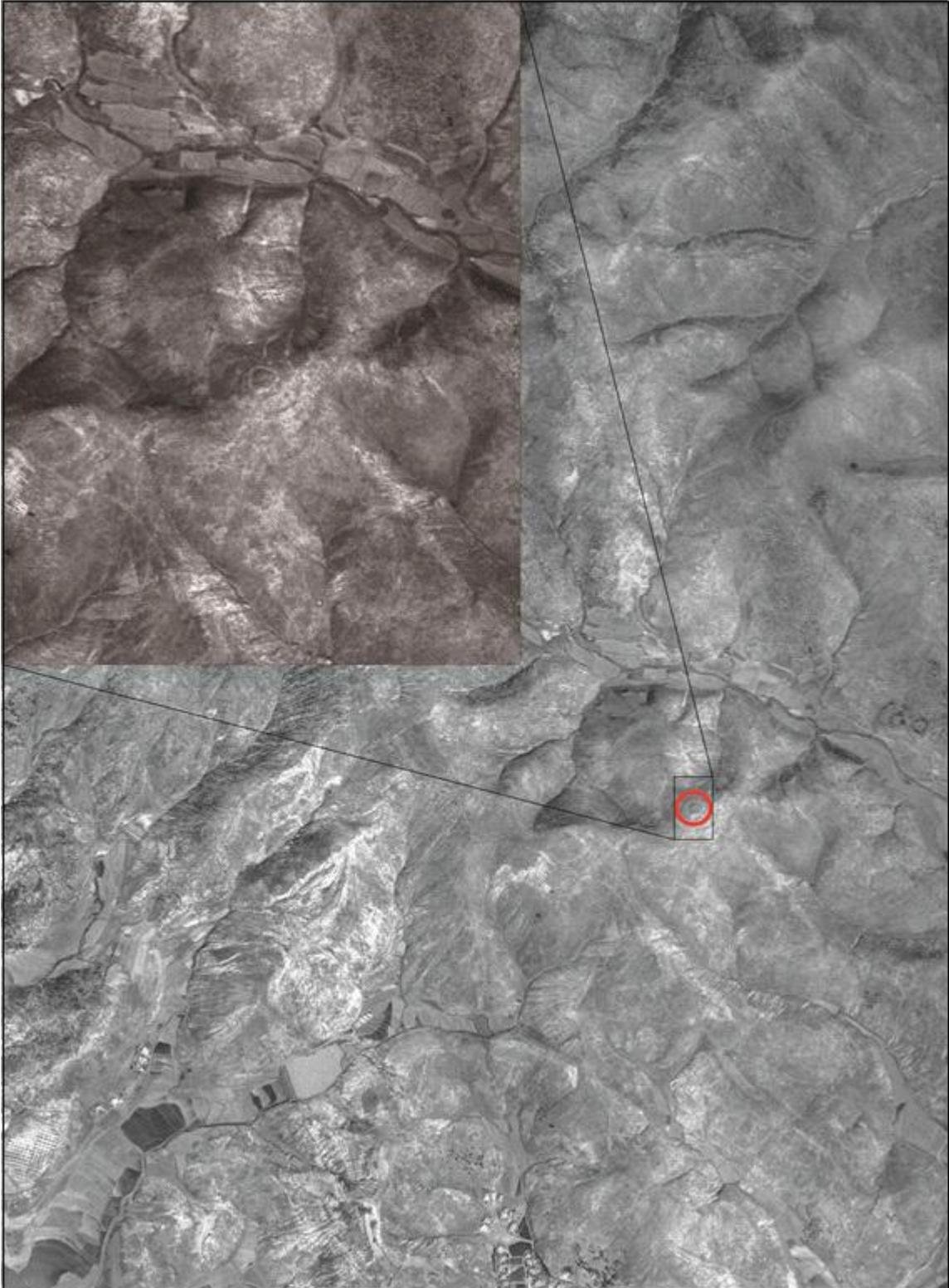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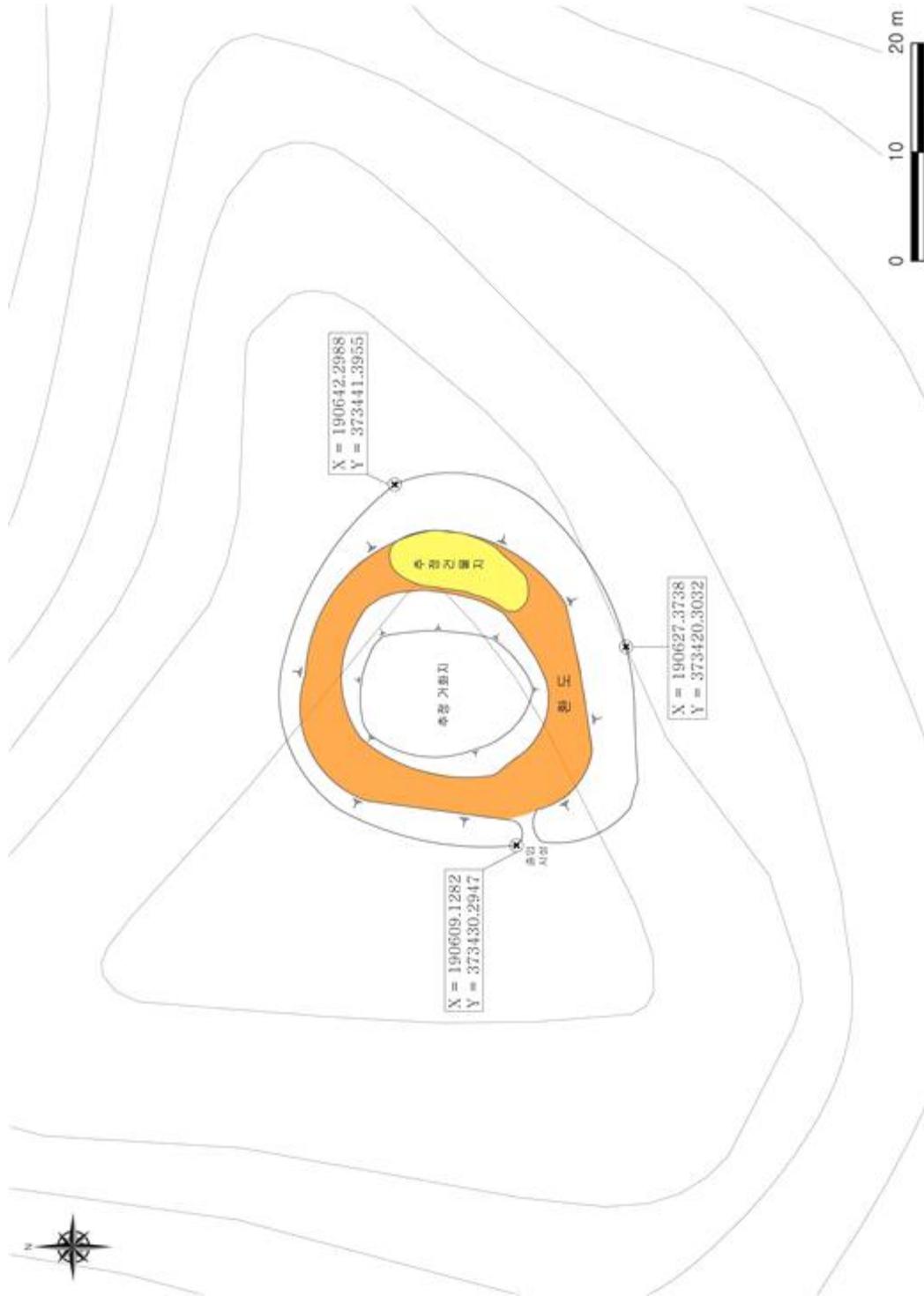


사진 3. 성황당봉수대 일원 항공사진(1954년)



도면 1. 성황당봉수대 현황도(S=1/400)

2) 추정건물지

2021년도의 지표조사를 통해 봉수는 구릉 정상의 가장자리를 따라 허물어진 석축이 관찰되었는데 석축은 방호벽보다는 연대의 석축으로 추정된다. 무너진 석축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연대 바깥으로 일부 평탄지가 남아 있는데,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3) 유구현황

(1) 잔존상태

신봉(新烽)은 산 정상부에 유구가 남아 있다. 산 정상부의 타원형 평지에는 봉수대로 추정되는 높이 1~1.5m 가량의 토석혼축(土石混築) 기단부가 조성되어 있다. 이 기단부의 평면 또한 지형과 동일한 타원형이며 단축은 12.7m이고 장축은 14.9m이다. 타원형 평지의 전체 둘레는 약 89m이며 기단부의 전체 둘레는 약 57m다.

현재 지표상에서는 연조나 방호벽, 건물지, 출입시설 등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999년 5월 20일 영천향토사연구회와 금호읍청년회가 함께 설치한 표지석 1기가 있다.

봉수대 답사에서 방호벽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거화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의 주변으로 지형이 경사를 이루는데, 이 경사면을 따라 다량의 석재가 흩어져 있었다. 이 석재들은 연대 석축이 훼손된 것으로 생각된다. 거화시설 내부에 편의시설을 만들면서 봉수대가 많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2) 유물

유물은 거화지와 추정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거화지에서 옹기와 기와편, 추정건물지에서 백자·옹기·기와편이 수집되었다. 백자와 옹기는 동체부편들이고,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편이 섞여 있으며, 암키와편이 많다. 무문(無文)과 유문(有文)이 있고 유문은 소편으로 문양의 형태를 알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유물의 출토량은 적은 편이다.

(3) 특징

성황당봉수대는 내륙에 위치함에도 연변봉수의 특징인 연대형으로 특이한 평면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봉수대 내·외에서 방호벽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대 주변으로 환도가 둘러져 있고 환도의 동쪽에서 건물터로 추정되는 평탄지가 신규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건물터에서 기와편 다수 수집되었다. 그리고 봉수와 인접한 골짜기에서 샘터가 새롭게 발견되었다.



사진 4. 성황당봉수대 원경



사진 5. 성황당봉수대 표지석



사진 6. 봉수대 내부 근경



사진 7. 봉수대 내부 세부1



사진 8. 봉수대 내부 세부2



사진 9. 연대 석축1



사진 10. 연대 석축2



사진 11. 추정 건물지



사진 12. 봉수대 주변 샘터



사진 13. 성황당봉수대 주변 채집유물

8. 지정가치와 근거기준

1) 조선시대 내지봉수의 설봉과 최종 폐봉까지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는 통신시설이다.

- 조선 전(全) 시기 발간의 지지(地誌) 기록을 통해 봉수 한자표기의 차이를 통한 다양한 명칭 확인과 전·후 대 응봉수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다
- 조선 후기 발간의 『해동지도』(1724)와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등의 고지도(古地圖)에 빠짐없이 표기되어 있다.

2) 내지봉수로서 주변 교통로의 조망에 탁월한 입지이다.

- 영천에서 군위 의성, 안동을 거쳐 문경 조령을 잇는 길과, 군위 구미를 거쳐 추풍령으로 이어지는 길의 분기점이다.
- 영남좌로를 통해 영천과 군위, 의흥, 의성으로 넘나들던 이들을 엿보기에 좋은 곳이다.

3) 영천현 치소에서 봉수가 바로 후망되는 근거리에 입지한다.

- 치소(현 영천초등학교)에서 서북쪽의 봉수까지 3.5km의 근거리이다.
- 치소와 봉수 사이에는 중간에 영천천이 흐르고, 동쪽에 쌍계들의 형성으로 치소의 가시권 내 봉수가 위치한다.

4)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 일부 봉수유적의 경우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입지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반면, 성황당봉수는 영천시 소재지에서 3.5km 내 거리에 위치하고 고수골길에서 270m 거리의 나지막한 봉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다.

5) 영남지역 봉수망 구성에 있어 핵심적 봉수의 하나로 지리적 위치가 탁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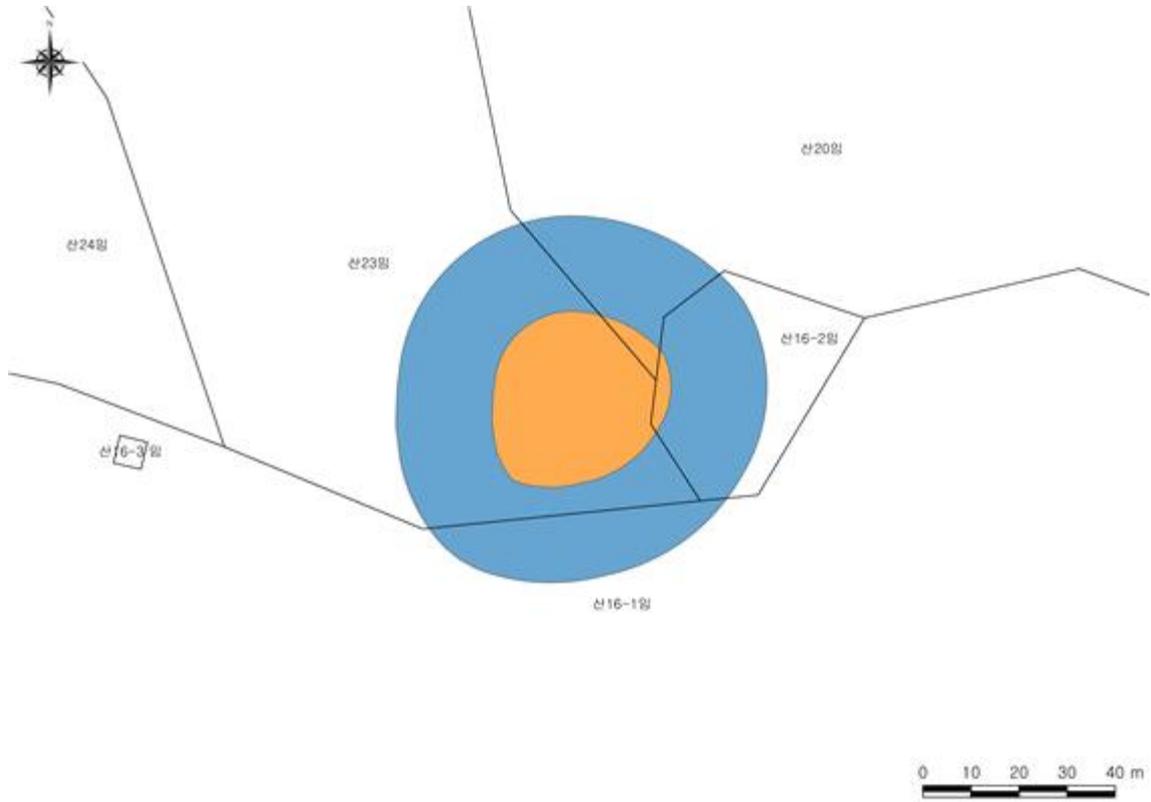
- 영천 성황봉수는 동·남해안에서 북상하는 2개의 간봉이 합류하는 봉수이며 부산 응봉봉수에서 초기하는 2
거 직봉의 열두 번째 봉수로 영남지역 봉수망 구성에 있어 핵심적 봉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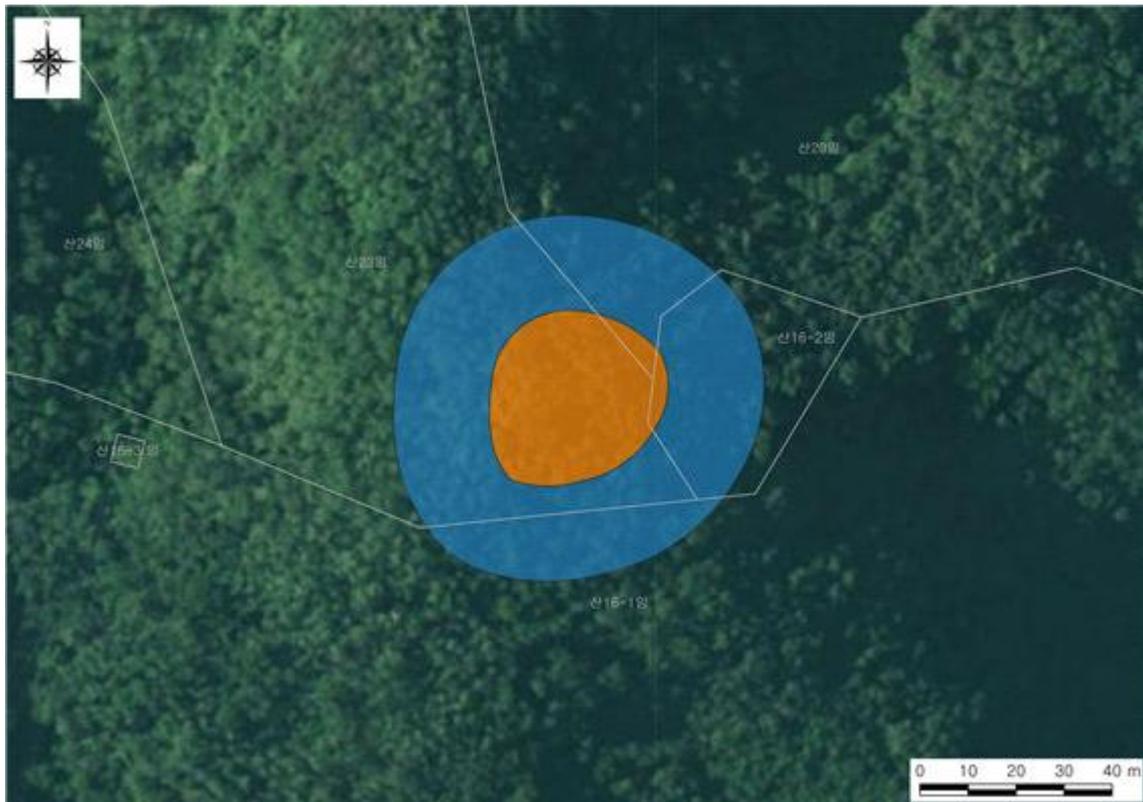
사진 14. 성황당봉수와 대응봉수



사진 15. 성황당봉수와 영천읍성 위치



도면 2.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S=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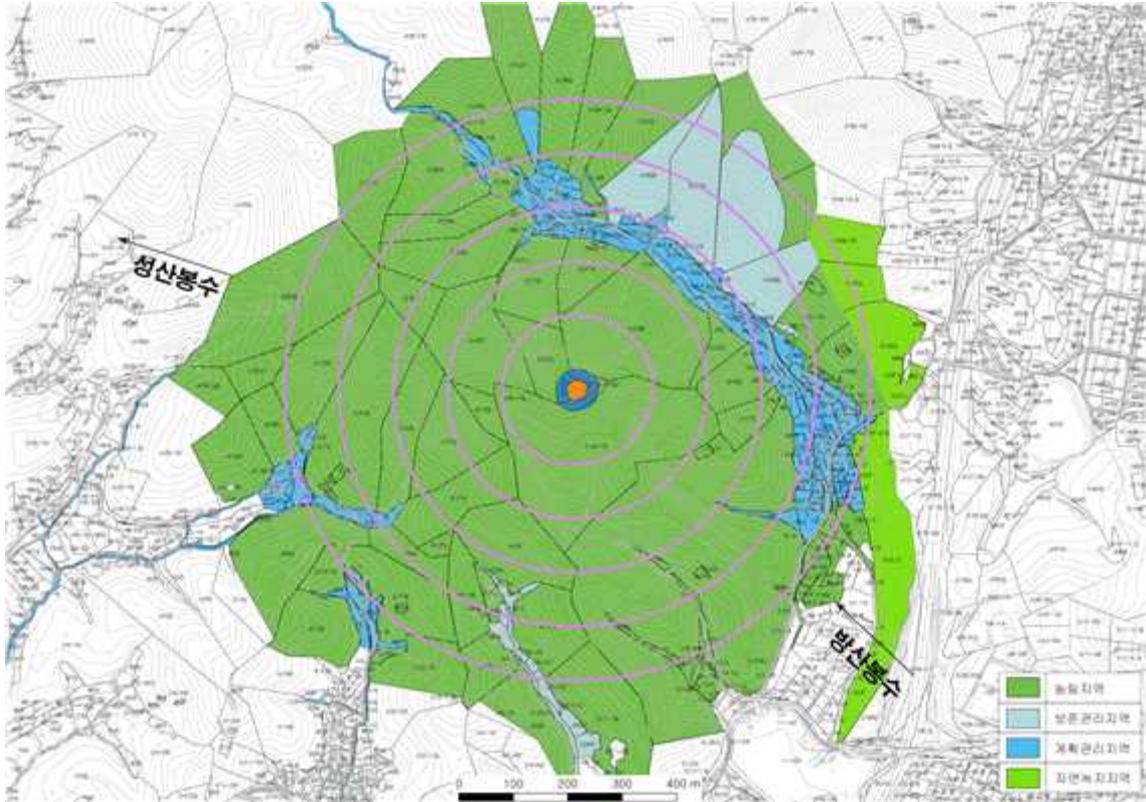
도면 3.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

10.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1) 검토의견

성황당봉수 전·후 대응노선 봉수의 방향을 고려한 경관 고려가 필요하다.

영천시	영천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p>■ 대상문화재 제2로 직봉 - 영천 성황당봉수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쌍계동 산32번지 일원</p> <p>■ 문화재 및 보호구역  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보호구역</p> <p>■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간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p> <p>■구역별 허용기준</p>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 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1. 보존·정비와 활용 착안사항

1) 기본구상

(1) 기본방향

① 기본원칙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1.6.10.] [법률 제17409호, 2020. 6. 9. 일부개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문화재청, 2002)

- 문화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문화재 활용은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사업의 소재로서 개발·활용하며,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육성한다.

『유적(遺蹟) 등 정비계획 수립·추진관련 고려사항』(문화재청, 2003)

- 가치(원형) 보존 최우선: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복원·정비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비를 지양하고, 유적의 가치와 역사적 숨결을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명확한 정비목표 수립: 유적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적 정비를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한다. 보존과 복원·정비되어야 할 것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 :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고, 유적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방향 설정

영천시의 성황당봉수대에 대한 정식 학술조사는 실시된 바 없어 지금까지 별다른 보존·정비와 관리계획은 없었다. 이에 합리적인 보존·정비와 관리안을 상기 기술한 기본원칙에 따라 타 시·군 소재 봉수대의 보존·정비와 관리사례를 검토하고 주변 현황과 여건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 봉수대의 보존·정비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도모하고,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과 부산시의 역사문화관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동선체계 등 기반시설의 확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봉수는 조선시대 500여년간 변경의 안위(安危) 여부를 전·후 대응봉수간 차차거화(次次擧火)를 통해 최종 중앙에 알리던 호국군사통신 유적으로서, 성격에 의한 구분상 내지봉수(內地烽燧)에 해당한다.
- 봉수는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평안을 상징하는 1거의 햇불[平安火·太平火]을 올림으로서 과거 영천현과 인근 고을 백성들이 이를 바라보고 일상을 마무리하는 순기능도 있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영천시 소재 전체 일급 개소 봉수의 보존·정비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봉수대의 잔존 방호벽과 연대 등의 역사적 실체를 보존·정비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시킨다.
-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활용되었던 봉수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정보통신 발달의 상징적 유적으로 보존·관리한다.
- 경상도와 충청도·경기도를 거쳐 최종 서울 목멱산봉수로 이어지는 내지봉수 체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원한다.

(2) 기본전제

① 잔존 봉수 유구의 보존과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

봉수대의 핵심요소인 거화시설(연대)과 방호시설(방호벽) 및 생활시설(주거지)을 대상으로 보존·정비하여 성황당봉수의 문화재적 가치가 표출되도록 한다.

② 역사문화자산 가치 증진 및 화제성 창출

과거 봉수체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던 당시에 봉수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봉수군과 봉수운영 관련 된 기록과 내용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유적과 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화제성이 창출되도록 정비한다.

③ 대응봉수와의 조망을 위한 가시권 확보

입지조건상 동남쪽으로 영천현의 옛 치소가 잘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한 봉수대는 인근 대응봉수와의 후망을 통해 영천지역과 고을 백성들에게 변경의 안위 여부를 알리던 군사통신유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적 강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계획한다.

조선 후기에 최종 설정된 대응봉수인 구토현봉수와 토을산봉수와의 가시권 확보의 봉수 주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식생이 양호한 기존의 자연경관 유지 방안을 제시한다.

④ 주연야화(晝煙夜火) 통신의 특징을 살린 ‘체험과 교육의 장’ 조성

햇불과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 소식을 전하였던 봉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적의 복원보다는 체험과 실연(實演)을 통한 거화의 과학적 원리를 교육한다.

기존의 진입로를 활용하여 최적의 보행환경과 교육적 기능을 갖춘 탐방로 조성을 통해 성황당봉수대의 500여년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⑤ 주변 문화자원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

봉수의 동남쪽에는 ‘영천읍성, 영천향교, 옥우당, 승렬당’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봉수와 인근 유적을 통합적으로 연계·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⑥ 실현가능한 세부추진사업 도출과 단계별 사업시행

영천시의 재정여건이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토지 매입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필요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3) 종합구상

① 추진사업 계획

역사적 실체 보존 사업을 실시한다.

- 식생정비(소목 간벌), 봉수 내부 잔디 식재, 봉수군 주거지 정비 등 문화자원 연계 개발사업을 실시한다.
- 탐방로(봉수군 길) 정비, 스토리텔링 개발, 체험 프로그램 및 축제 개발, 봉수 C.I개발, 동선표지판·전망시설 및 망원경 설치 등을 진행한다.
- 읍성과 봉수 등 관방체계 알림 사업을 병행한다.
- 주변봉수와 읍성 등 주변지역의 관방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 봉수대 주변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 등이 필요하다.

② 토지이용계획

봉수대 일원은 산림청 소유의 임야로서, 경상북도 영천시 쌍계동 산32번지 일원에 소재하며 면적은 1,095㎡이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토지대장, 2021.9.)

현재 성황당봉수대를 찾는 탐방객은 소수에 불과하여 고수골길 주변에 주차하는 실정이다.

향후 제2거 직봉 노선 봉수의 사적지정이 확정되고 보존·정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 시 탐방객에게 보다 쾌적한 역사경관과 편리한 탐방환경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

③ 동선계획

본 계획에서는 봉수구역과 진입광장 및 주차구역으로 나누고 각 공간별로 기능을 배분하였다. 특히, 진입광장 및 주차구역에는 방문객이나 차량의 접근 동선과 관련된 공간 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험교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봉수대의 탐방동선은 기존에 조성된 산책로를 그대로 이용하되, 전통적인 분위기 연출과 유지관리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아자매트나 경화흡포장으로 한다.

또한, 탐방객의 주동선이 되는 기존 산책로를 활용하여 봉수에 대한 관심유발과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2) 보존과 정비활용계획

(1)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확대지정

① 향후, 제2거 직봉 노선의 봉수를 사적(史蹟)으로 승격 시 문화재지정구역의 확대 및 대응봉수간의 조망과 가시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성황당봉수를 중심으로 남동쪽의 구도현봉수, 서북쪽의 토을산봉수를 잇는 조망과 이를 잇는 가시권 확보가 필요하다.

② 봉수대 주위의 수목을 선별적으로 간벌하여 대응봉수간 조망이 가능하도록 정비 할 필요가 있다.

③ 봉수대 주변 식생이 양호한 임야는 가급적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④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확대는 기존 현상변경허용기준 적용구역의 확대를 수반한다. 인접 봉수간의 조망 확보를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아울러 보호구역 외곽 200m 정도는 1구역 (개별 심의) 또는, 2구역 <최고높이 8m이하(평지붕), 최고높이 12m이하(경사지붕)>으로 설정하여 역사 문화 환경과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⑤ 진입로에서 봉수의 원경을 볼 수 있도록 간벌 등을 통해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봉수군들이 이용했던 소로(진입로)는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이 길을 통한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2) 보존계획

① 봉수유적 보존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의 거화시설인 연대와 추정 건물지가 현재 잔존하고 있으나, 이 봉수가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후 13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잔존 상태가 좋지 않고 최근 들어 거화시설 내부에 편의시설을 만들면서 훼손이 심한 편이다. 추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각 유구의 잔존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과거 봉수의 운영당시 원형구조를 밝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수대를 구성하였던 제반 요소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비와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에 대한 최근의 현황조사를 통해 전체 구조의 확인이 가능함으로 이를 바탕으로 운영당시의 모습대로 단계적으로 정비·복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조선시대 연변봉수의 형태와 기능을 학습·체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공간으로 조성한다.

다. 추진방법 및 절차

- 먼저 방호시설인 방호벽과 추정 봉수군 주거지에 대한 원형구조를 확인한다.
- 연대는 주위 수풀잡목을 간벌하고 방호벽 내부에는 잔디를 식재하여 보존한다.

② 수목 간벌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 내·외는 현재 무성한 수풀잡목으로 대응봉수와 조망이 곤란하거나 유구 훼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적절한 간벌을 통하여 유적 보존 및 가시권(可視圈)을 확보한다.

나. 사업내용

- 현재 봉수대 주위와 내부에는 수목이 들어차 있어 대응봉수의 조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목을 선별적으로 벌목하여 대응봉수인 구토현봉수와 토을산봉수에 대한 조망을 개선한다.

다. 추진방법

- 벌목작업은 봉수유구의 보존, 주변경관 조망, 봉수의 제반요소 관찰 등에 장애를 주는 수목부터 선별하여 실시한다.
- 봉수대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경관이 확보되도록 수목을 제거한다.
- 봉수대의 동쪽 고수골길에서 봉수대로 향하는 수목을 정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동선을 유도한다.

(3) 정비·활용계획

① 전망시설과 휴식공간 설치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의 정체성과 주요 기능은 대응봉수와와의 시각적 연결에 있다. 현재, 봉수대는 내·외부의 수목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제한적이고, 전체 봉수유구 살펴볼 수 없다. 조선시대 봉수는 대응봉수와와의 조망과 주변 관찰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였으므로 이러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 주변 적당한 곳에 봉수의 전체 구조와 대응봉수, 주변 자연환경, 시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조선시대 봉수대의 입지선정 원리를 체감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과 절차

- 전망시설은 봉수대 주변 시야가 가장 좋은 지점에 설치하되,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봉수대의 역사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안내판에 대응봉수를 촬영한 사진을 표시하여 눈앞에 펼쳐진 전경과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망시설에는 망원경 등을 설치한다.
- 전망시설 하부나 주위에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방문객에게 휴식과 사색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② 봉수군 탐방로 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의 동쪽 고수골길에서 봉수대로 이어지는 ‘봉수군 탐방로’를 조성하여 문화콘텐츠로 활용한다.

나. 사업내용

- 탐방로를 개설하고, 봉수 관련 이야기와 비품 등을 소개함으로써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과거 봉수의 기능과 운영 및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노변(路邊) 전시관 기능을 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

- 기존의 길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요 지점에는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고 벤치 등의 휴식시설을 도입한다.
- 안내판의 내용은 경북권 내 경산(現 대구 수성구) 성산봉수(城山烽燧)의 비치 물목을 토대로 봉수운용에 필요한 비치물목상의 거화재료나 생활비품 등을 선별하여 사진자료와 함께 해설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烟臺一 烟窟一 望德一 火德一 積草五訥 烏外石五訥 無稜石五訥 吐木五訥 烟炬三柄 松炬五十柄 草炬五十柄 柎炬五十柄 艾五同 牛糞五同 馬糞五石 炭五石 細沙五石 糟糠五石 防牌五坐 排火木五介 法手木五介 水桶五箇 菱鐵二十箇 古乙羅木二十五箇 木斧子二十柄 滅火器五坐 麻注乙里二十沙里 前梯一 水樽五坐 縣瓢子五介 火箭九柄 唐火箭九柄 長箭一浮 片箭一浮 黑角弓一張 桶兒一介 大白旗一面 鉛丸三十箇 火藥五兩 烏銃一柄 環刀一柄 長槍一柄 火繩六沙里 細繩三沙里 條乙所三沙里 火鐵石二介 水瓮五坐 釜一坐 食鼎一坐 爐口一坐 匙五持 沙鉢五立 空石十立 接匙五竹 瓦家五間 種火盆一坐 草席二立 抹木十八箇 火桶五介 燒木五同 戰角一雙 待賓米一石 鎌子四柄 盤五立 三穴銃一坐 火綿一 掩頭一部 掩心一部 五色布旗五面 鼓一坐 錚一坐 火鐵十介 生松一訥 橫一坐

(『嶺南邑誌』第7冊, 『慶山縣邑誌』(1871) 烽臺)

(4) 봉수 거화(擧火) 실연(實演) 행사

① 추진배경과 목표

봉수는 연기[주간]와 불[야간]로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시설인 만큼 실제 거화(擧火)나 거연(擧煙) 같은 실연(實演)행사의 실시를 통해 선조들의 봉수운영 원리를 체득하게 한다.

② 사업내용

연기와 불이라는 시각신호로 변경의 안위여부를 전달하였던 봉수의 연조 형태와 구조, 거화재료의 종류와 배합 등을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이 실증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크기의 연조를 제작한 후 실연(實演)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③ 추진방법과 절차

가. 실연행사를 할 수 있는 연조(煙籠)를 제작하되 설치장소는 행사 시 화재발생이나 유구 훼손에 대비하여 유적과 일정거리 떨어진 곳으로 한다. 연조의 크기와 구조 등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다.

나. 거화재료[화]는 경산 성산봉수 비치물목을 참고하여 준비하고 전통방식에 따라 제작한 후 사용한다. 행사의 진행은 지역 문화단체가 담당하고 연중 개최 시기는 ‘신년, 정월대보름, 8·15광복절, 영천군민의 날’ 중 의미 있는 날을 정하여 개최하도록 한다. 그리고 영천에서는 보현산 별빛축제, 문화예술제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때 봉수 실연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봉수를 알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5) 관리운영계획

① 관리운영 주체

영천시에서 관리

(경북문화재단 등 문화재 관리 기관에 위탁관리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② 관리운영 목표

가. 성황당봉수대의 보존과 유지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

나. 탐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도모

다. 성황당봉수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의 극대화

라. 유적의 학술적 가치 극대화와 신규 문헌 발굴 등

③ 관리운영사항

가. 봉수대 유적

- 성황당봉수대 일원

- 성황당봉수대 주변 탐방로 등

나. 자연환경

- 성황당봉수대 주변 수목 및 지형

다. 시설물

- 탐방로, 전망시설 등

- 안내판, 방향지시판, 휴게시설 등

-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라. 탐방객을 위한 서비스

- 홍보, 해설, 전시, 축제행사 등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④ 사업 추진절차

가. 문화재지정구역 및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는 먼저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정밀 문화재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한 후 도출된 조사결과에 따라 정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입 → 조사(발굴) → 정비의 순이다. 성황당봉수는 정식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비단계에 따르되 대상지가 안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복원·정비의 단계를 결정한다.

나. 매입 단계는 정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국·공유지화 하는 단계로서 대상지의 지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 파악과 매입에 예상되는 비용 및 매입의 원활성을 판단하여 정비의 선후를 결정한다. 성황당봉수의 정비사업은 대상지 내 유선 봉수대를 중심으로 매입하고 이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⑤ 순차별 사업계획

가. 봉수대의 보존·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체 사업비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초기 2년의 정비를 단기정비로 설정하고 이후의 계획 중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기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단기사업은 정비사업의 기간 및 지자체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나. 보존·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추진 절차, 시급성,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다. 봉수대 보존과 주변정비사업은 방호벽과 연대 정비, 식생정비[간벌 등], 전망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정비사업의 원칙은 유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선정한다.

라.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편리하고 쾌적한 출입 및 동선체계 구축을 위한 주차장마련 및 진입광장 조성 사업을 단기에 시행하고 관광 역량 제고를 위한 간이안내소 설치나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은 중기에 진행한다.

마. 이들 추진사업은 영천시청의 정책 순위 변경과 주민들의 요구도, 제반 상황변화에 따라 추진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2. 종합의견

- 1) 영천 성황당봉수는 조선시대 전체 5거노선의 봉수 체계에서, 부산에서 초기하는 제2거 직봉의 열두번째 내지봉수이다. 문화재청의 2014년과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연대와 출입시설, 추정 건물지를 확인하였다.
- 2) 봉수 성격에 의한 구분상 내지봉수이지만, 연대형으로 구조적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연대의 석축은 많이 허물어져 그 형태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봉수대 상부에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훼손된 것으로 보였다.
- 3) 성황당봉수대의 평면 형태는 타원형이고 면적은 1,095㎡ 정도이다. 연대, 출입시설 외 추정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으나, 편의시설이 임의로 설치되면서 변형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봉수의 특이성을 감안하여 정밀 문화재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봉수대의 구조와 시설 등 당시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많은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4) 영천지역은 교통과 봉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충지였다. 부산 다대포 응봉봉수에서 초기한 직봉과 동래 간비오봉수에서 초기하는 간봉(1), 부산 천성보봉수에서 초기하는 간봉(8)노선의 여러 봉수들이 차차거화(次次擧火)를 통해 서북상하면서, 영천지역에 모이는 결절점(結節點)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노선적 특수성으로 인해 내지봉수임에도 연변봉수를 상징하는 연대를 방호벽 내에 설치하였다.

- 5) 조선 전기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1425)에서부터 구한말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1908)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지에 빠지지 않고 등재되어 있고 제2거 직봉 노선의 주요 봉수다.
- 6) 봉수는 단일 유적보다는 통신체계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 노선별 주요봉수, 잔존상태, 역사성, 지정번호 부여방식 결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적지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문화재 종류

1) 사적

- 비지정문화재로서 부산 다대포 응봉봉수(鷹峰烽燧)에서 초기(初起)하는 제2거 직봉노선의 열다섯번째 내지봉수인 ‘영천 여음동봉수유적(永川 餘音洞烽燧遺跡)’을 같은 노선의 봉수와 연계하여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2. 문화재 명칭

1) 문화재명 : 제2로 직봉 - 영천 여음동봉수유적(第2路 直烽 - 永川 餘音洞烽燧遺跡)

- 봉수유적은 연속유산으로서 노선 단위 지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정명칭은 “본 명칭 - 부 명칭”의 형식으로 부여토록 한다. 여기서 본 명칭은 대표성이 높으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2로 직봉(第2路 直烽)”으로 한다.
- 부 명칭은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라 봉수명칭 앞에 현 행정구역 소재지인 ‘영천(永川)’을 표기한다.
- 봉수명칭은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이후 조선 최후기 봉수망을 알 수 있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의 명칭과 한자표기를 따라 ‘여음동봉수유적(餘音洞烽燧遺跡)’으로 표기한다.
- 따라서, 최종 봉수명칭은 ‘제2로 직봉 - 영천 여음동봉수유적(第2路 直烽 - 永川 餘音洞烽燧遺跡)’(이하 ‘여음동봉수’라 한다)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명칭유래

봉수는 시기별로 지지에 따라 ‘여음동봉화(餘音洞烽火: 『경상도지리지』·『세종실록』 지리지), 여질동연대봉화(余叱洞煙臺烽火: 『경상도속찬지리지』), 여질동산봉수(餘叱洞山烽燧: 『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의흥읍지』), 여음현봉수(餘音峴烽燧: 『여지도서』·『경상도읍지』·『영남읍지』·『신녕군읍지』), 영음동봉수(餘音洞烽燧: 『대동지지』·『증보문헌비고』) 등으로 한자표기가 다양하다.

봉수대는 신녕면사무소에서 군위 방향으로 2.5km 거리의 봉화재 북쪽 산정에 있다. 아래에 신녕천(新寧川)이 흐르고 예부터 교통의 요지였으며, 지금도 국도와 철도가 지나가는 곳에 새로이 ‘상주영천고속도로’가 시원하게 지나간다. 영천에서 군위 의성, 안동을 거쳐 문경 조령을 잇는 길과, 군위 구미를 거쳐 추풍령으로 이어지는 길이 여기서 나뉜다. 봉수 명칭 ‘옛동산(餘叱洞山: 옛보는 산)·옛동(余叱洞)’, ‘여음현(餘音峴: 엮고개, 옛보

는 고개)', 남동(覽東: 동쪽을 살피다)은 이 길을 넘나들던 이들의 정황을 '옛보고 살피던 곳'이라는 의미다.

봉수가 신호를 전하지만 넘나드는 고개에 설치하여 민심의 동향을 살피고 다급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도 있다. 봉수의 이름 중에 현(峴, 고개)이 많이 들어간 이유다. 봉군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전후의 조망이 뛰어나면서 높지 않은 고개를 택하지만, 주요 길목이나 사람들이 넘나드는 큰 고개에는 살피는 기능을 위해 봉수를 설치했다. 추풍령의 '눌의항산봉수', 죽령의 '죽령봉수', 청풍과 단양을 잇는 마즈막재의 '심항산봉수', 문경 하늘재의 '탄항봉수'가 고개를 지켰으며, 영산에서 창녕을 오가던 고개의 '여통산봉수'도 같은 기능으로 생긴 이름이다.

봉수대가 위치한 곳은 영남좌로를 통해 신녕과 군위, 의흥, 의성으로 넘나들던 이들을 옛보기에 좋은 곳이다. '옛보다'는 정보를 수집하는 의미기도 하지만, 전봉(前烽)에서 전해 오는 변방의 급보를 후봉(後烽) 뿐만 아니라 길손에게 전하여 빨리 전파되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3. 영천지역의 봉수현황과 성격

○ 영천 지역에는 최초 설봉(設烽)과 폐봉(廢烽)시기가 다른 총 7기의 봉수[(방산·소산·(구·신)성황당·성산·구토현·여음동)]가 소재하고 있다, 봉수의 성격에 의한 구분상 모두 육지내륙 소재의 내지봉수(內地烽燧)다.

○ 이 중 '소산·(구)성황당' 2기의 봉수는 조선 후기인 18세기 중엽 노선의 조정으로 인해 폐봉됨에 따라 『증보문헌비고』(1908)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가 최종 폐지될 때까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었던 봉수는 '방산·(신)성황당·성산·구토현·여음동' 등 5기다.

4. 여음동봉수의 입지와 연혁

1) 입지

봉수대는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 산16 일원의 해발 240m인 구릉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대응봉수가 위치하는 남동-서북 두 방향으로의 후망이 가능하다. 또한, 옛 신녕현의 치소였던 현 신녕초등학교가 동남쪽 약 2.8km의 근거리에 있다.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해발 1192m의 팔공산에서 북서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가 신녕천 앞에서 끊어지는데, 봉수는 신녕천 주변 낮은 구릉에 설치되어 있다. 이 신녕천은 여음동봉수대가 위치한 남서쪽의 치산계곡에서 발원하여 북류하다가 화산(828m), 용암산(559m)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따라 위치한 봉림리, 화서리, 화남리 일원과 사이에 형성된 계곡을 따라 동쪽으로 흘러 여음동봉수대 앞을 지난다. 이러한 지형조건은 서쪽으로 저평한 구릉지가 형성되면서 조망권의 확보가 용이하게 하여 서북쪽으로 전봉(前烽)인 구토현봉수와 대응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 된다.

이러한 지형조건은 영천지역 소재의 제2거 직봉인 성산봉수 방면에서도 확인된다. 신녕천은 여음동봉수대를 지나 계속 동쪽으로 흐르다가 화성리와 매양리 사이에 남쪽으로 형성된 계곡을 따라 남쪽으로 이어지다가 동쪽으로 용호리, 용평리를 지나 금호강에 합류한다. 물길 주변으로는 저평한 지형이 이어지며 송천리와 죽정리 사

이에 형성된 남북으로 이어진 좁은 계곡을 따라 물길이 이어져 남류하여 금호읍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금호강으로 들어간다. 결국 성산봉수는 송천리와 죽정리 사이에 형성된 남북으로 이어진 소형의 계곡을 따라 확보된 조망권에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봉수대는 신녕면보건지소에서 919번 지방도를 따라 부계 방면으로 가다 신녕중학교를 지나면 ‘봉화재’로 부르는 고개 우측의 봉우리에 위치한다.



사진 1. 여음동봉수대에서 본 신녕현 치소



사진 2. 신녕초등학교에서 본 여음동봉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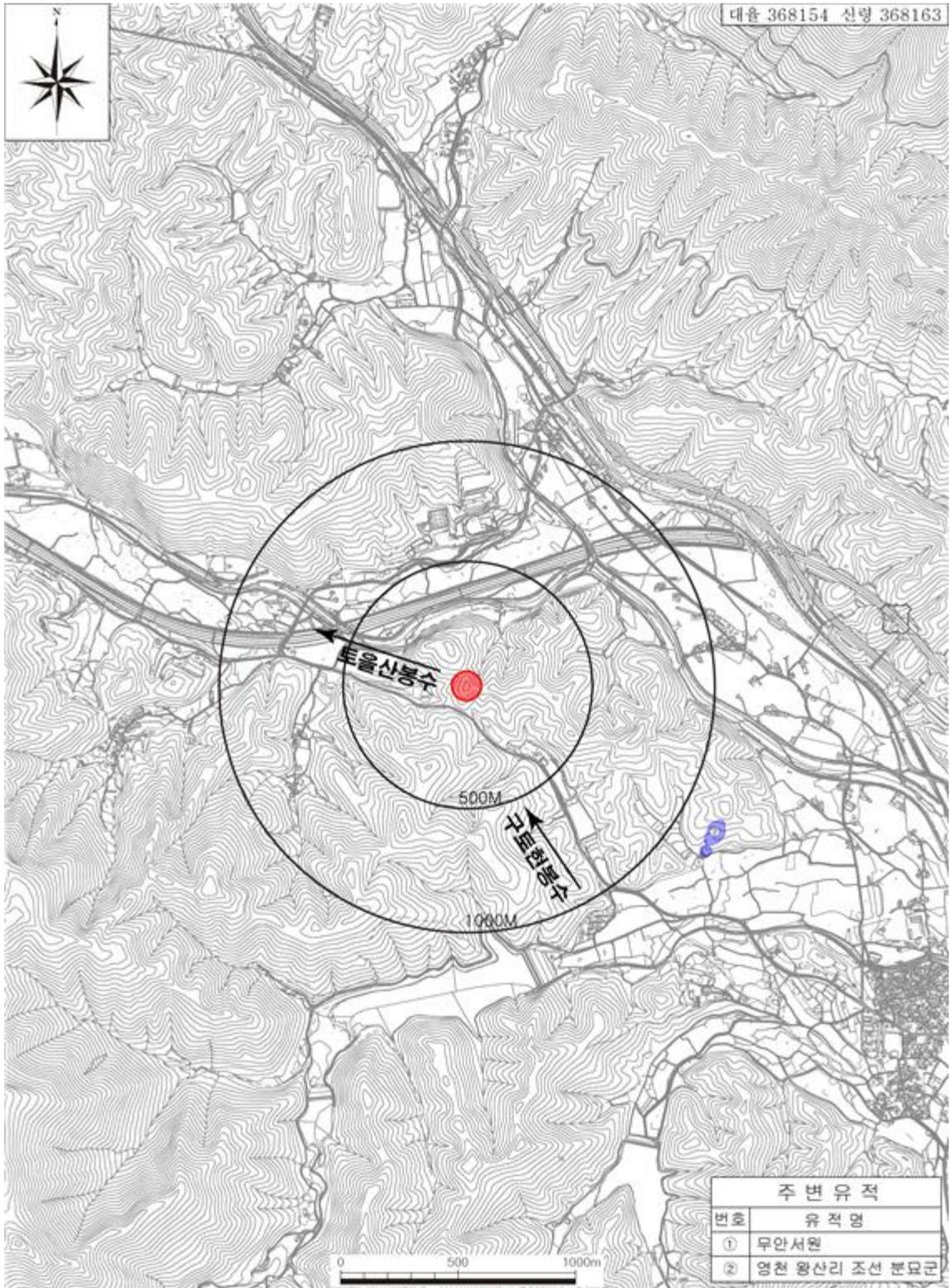
2) 연혁

봉수의 최초 지지기록은 『경상도지리지』(1425) 부터이며, 최종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조선 전(全) 시기 발간의 지지에 문헌기록이 있다. 각 지지별 발간연도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慶尙道地理志』(1425) 安東道 新寧縣
餘音同烽火 在縣西十五里 許東望永川城隍堂烽火 相去三十一里 北望義興兼岳溪峴烽火 相去二十里
여음동봉화는 현의 서쪽 15리 정도에 있다. 동으로 영천 성황당봉화를 바라보는데 거리는 31리다. 북으로 의흥 겸 부계현봉화를 바라보는데 거리는 20리다.
- 『世宗實錄』地理志(1454) 卷150, 慶尙道 新寧縣
烽火一處 餘音同 在本縣西 東准永川城隍堂 北准岳溪吐峴
봉화 한 곳은 여음동이다. 본현의 서쪽에 있는데 동으로 영천 성황당을 겨누고, 북으로 부계 토현을 겨눈다.
- 『慶尙道續撰地理誌』(1469) 安東道 新寧縣
烟臺烽火 縣西 余叱同煙臺烽火 東與永川城山煙臺烽火相准 西與義興任內 岳溪吐乙山煙臺 火相准
연대봉화는 현의 서쪽 옛동연대봉화이다. 동으로 영천 성황당연대봉화와 서로 겨눈다. 서쪽으로 의흥 임내 부계 토을산연대봉화와 서로 겨눈다.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卷27, 慶尙道 義興縣 烽燧
餘叱洞山烽燧 在縣南四十二里 東應永川郡城山 西應吐峴
옛동산봉수는 현의 남쪽 42리에 있다. 동으로 영천군 성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토현에 응한다.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卷27, 慶尙道 (新增)新寧縣 烽燧
餘叱洞山烽燧 在縣西十里 東應永川郡城山 北應岳溪吐峴
옛동산봉수는 현의 서쪽 10리에 있는데 동으로 영천군 성산에 응하고, 북으로 부계 토현에 응한다.



지도 1. 2거 직봉 노선 내 여음동봉수 위치



지도 2. 여음동봉수대 위치도(S=1/25,000)

- 『輿地圖書』下(1760) 慶尙道 大丘鎭管 新寧縣 烽燧
餘音峴烽燧 在縣西五里 南望永川九道峴烽燧 西報義興吐峴烽燧 相距二十里
여음현봉수는 현의 서쪽 5리에 있는데, 남으로 영천 구도현봉수에 응하고, 서쪽으로 의흥 토을현봉수에 알리는데 거리는 20리다.
- 『輿地圖書』下(1760) 慶尙道 大丘鎭管 義興縣 烽燧
餘吐洞山烽燧 在縣南四十二里 今屬 新寧縣
엇동산봉수는 현의 남쪽 42리에 있다. 지금은 신녕현 소속이다.
- 『義興邑誌』(1767) 烽燧
餘吐洞山烽燧 在縣南四十二里 今屬 新寧縣
엇동산봉수는 현의 남쪽 42리에 있다. 지금은 신녕현 소속이다.
- 『慶尙道邑誌』第18冊, 「新寧縣邑誌」(1832) 烽燧
餘音峴烽燧 在縣西五里 南望永川九道峴烽燧 西報義興吐乙峴烽燧 相距二十里
여음현봉수는 현의 서쪽 5리에 있다. 남으로 영천 구도현봉수를 바라보고, 서쪽으로 의흥 토을현봉수에 알리는데 거리는 20리다.
- 『大東地志』(1864) 卷8, 慶尙道 25邑 新寧 烽燧
餘音洞 西十里
여음동은 서쪽 10리다.
- 『嶺南邑誌』第12冊, 「新寧縣邑誌」(1871) 烽燧
餘音峴烽燧 在縣西五里 南望永川九道峴烽燧五里 報義興吐乙峴烽燧 相距二十里
여음현봉수는 현의 서쪽 5리에 있다. 남으로 영천 구도현봉수를 5리에서 바라보고, 의흥 토을현봉수에 알리는데 거리는 20리다.
- 『嶺南邑誌』第15冊, 「新寧縣邑誌」(1895) 烽燧
餘音峴烽燧 在縣西五里 南望永川九道峴烽燧 西應義興吐乙峴烽燧
여음현봉수는 현의 서쪽 5리에 있다. 남으로 영천 구도현봉수를 바라보고, 서쪽으로 의흥 토을현봉수에 응한다.
- 『新寧郡邑誌』(1899) 烽燧
餘音峴烽燧 在縣西五里 南望永川九道峴烽燧 西報義興吐乙峴烽燧 相距二十里 今廢止
여음현봉수는 현의 서쪽 5리에 있다. 남으로 영천 구도현봉수를 바라보고, 서쪽으로 의흥 토을현봉수에 알리는데 거리는 20리다. 지금은 폐지되었다.
- 『增補文獻備考』(1908) 卷124, 兵考16 烽燧2
初起 鷹峰(多大浦鎭) -- (中略) -- 餘音洞(輿覽作 吐峴) -- (中略) -- 第 2 炬準 天臨山
초기 응봉(다대포진) -- (중략) -- 여음동(동국여지승람에는 토현이라고 하였다.) -- (중략) -- 제 2 기준 천림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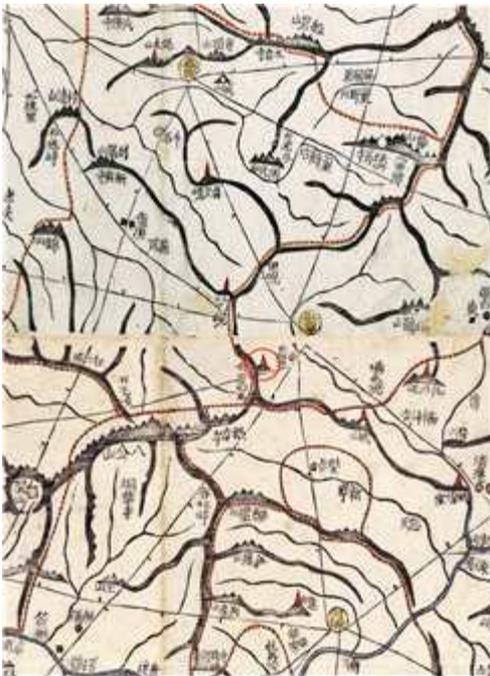
고지도 1. 『해동지도』 신령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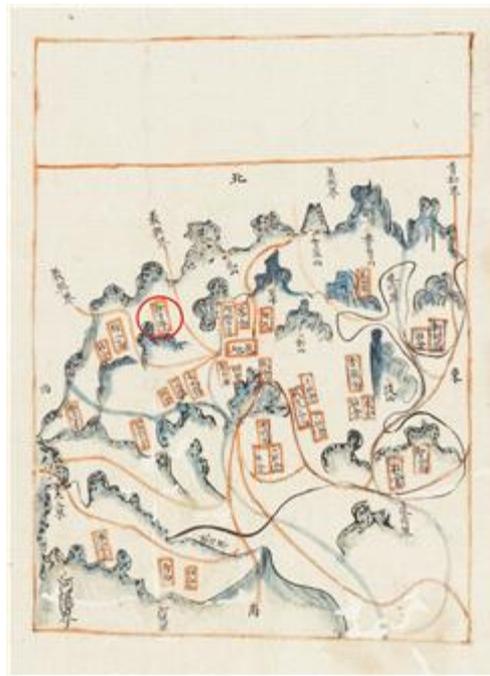
고지도 2. 『광여도』 신녕현



고지도 3. 『지승』 신녕현



고지도 4. 『대동여지도』(1861)



고지도 5.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위 지지의 내용을 시기별로 검토하면 전기 발간의 『경상도지리지』(1425)에 안동도 신녕현 소속의 여음동봉화(餘音同烽火) 명칭으로 “현의 서쪽 15리에 소재하며 동쪽으로 영천 성황당봉화(城隍堂烽火)와 31리, 북쪽으로 의흥 토현봉화(吐峴烽火)와 20리의 거리에서 바라본다.”라고 하였다.

중기 발간의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는 경상도 (신증)신녕현 소속의 여질동산 봉수(餘叱洞山烽燧) 명칭으로 “현의 서쪽 10리에 있는데 동으로 영천군 성산(城山)에 응하고, 북으로 부계 토현(吐峴)에 응한다.”라고 하여 이전 시기와 달리 동쪽에서 오는 전봉(前烽)의 노선변화(영천 성황당→영천 성산)가 있었다.

후기 발간의 『여지도서』(1760)에는 경상도 대구진관 신녕현 소속의 여음현봉수(餘音峴烽燧) 명칭으로 “현의 서쪽 5리에 있는데 남으로 영천 구도현봉(九道峴烽)에 응하고, 서쪽으로 의흥 토현봉(吐峴烽)에 알리는데 거리는 20리다.”라고 하여 이전 시기의 동쪽 영천 성산봉수 대신 남쪽 영천 구도현에서 오는 전봉의 노선변화가 있었다.

이상을 통해 여음동봉수는 조선 전·후기에 전봉이 세 차례의 노선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18세기 중엽 구도현→여음동→토을산으로 정해진 노선은 이후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시 까지 운영되었다.

3) 고지도

조선시대 여음동봉수를 관리하였던 치소는 신녕현이었다. 『해동지도』 신녕현조에 여음동봉수가 관아의 서쪽에 표기되어 있으며, 신녕현에 있는 봉수는 여음동봉수 1기 뿐이다. 봉수 기록은 ‘현의 서쪽에 있다. 남쪽으로 영천 구도현봉수에서 응하여 오고, 서쪽으로 의흥 토을현봉수로 응하여 간다. 육로이다.’라고 하였다. 여음동봉수 주변에 장수역(長水驛)이 위치한다. 『광여도』, 『지승』, 『대동여지도』, 『조선후기 지방지도』 등에도 『해동지도』와 비슷하게 표기되어 있다.

5. 봉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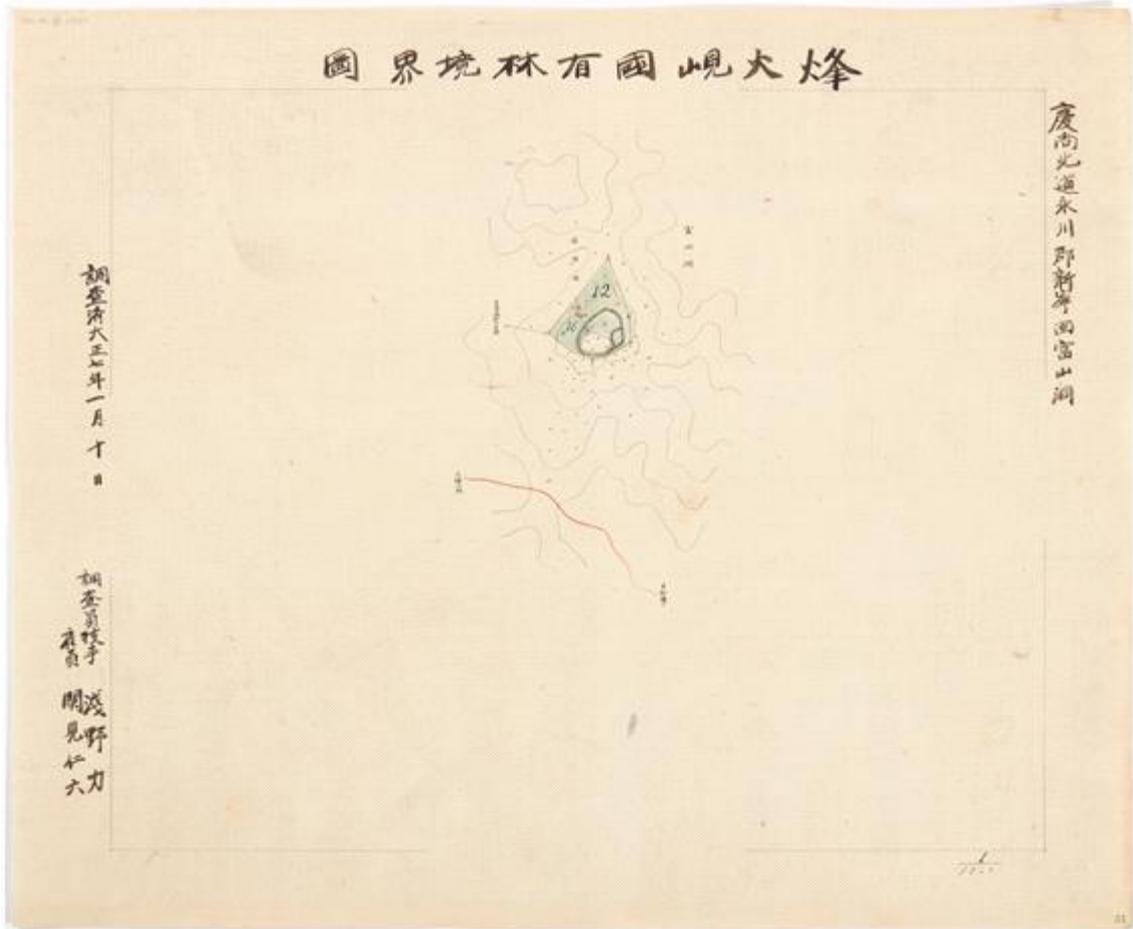
조선 후기 경상좌병사 소관이었다. 봉수군 인원은 『경상도읍지』(1832)와 『영남읍지』(1871)에 “봉군 100명이다.”¹⁾라고 하였는데 봉군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자세하지 않다. 다만, 경상도 타 지역의 사례를 통해 별장 1인의 책임하에 ‘봉군 25명, 봉군보 7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 『慶尙道邑誌』 第18冊, 「新寧縣邑誌」 軍額.
『嶺南邑誌』 第12冊, 「新寧縣邑誌」 軍額.

6. 일제강점기의 조사

1) 봉화현국유림경계도

일제 강점기인 1918년 1월 10일, 일인(日人) 조사원 기수(調査員技手) 천야력(淺野力)과 고원(雇員) 관견인육(關見仁六)에 의해 ‘봉화현국유림경계도’가 작성되었다. 조사대장에는 타원형의 석축 방호벽 내 우측에 연대(煙臺) 시설이 있는데, 이는 현재의 모습과 같다. 그리고, 방호벽 내부를 2등분한 공간구성임을 알 수 있다.



지도 3. 여음동봉수대 일제 강점기 국유림 경계도(국립중앙박물관)

2)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조선총독부에서 1942년 발간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간략한 조사내용¹⁾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番號 : 16
번호 : 16
- 種別 : 烽燧
종별 : 봉수

1)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慶尙北道 永川郡, 1942, p.225.

- 場所：新寧面 富山洞
장소：신녕면 부산동
- 所有：烽火峴 國有林
소유：봉화현 국유림
- 摘要：新寧/北西十數町新寧富山洞(梨洞)至烽火峴北側/高地上=周圍百三十間幅二間 高一間半/石壘中=直徑三間餘/土石築/圓塚
적요：신녕의 서북 십수정 신녕에서 부산동(이동)에 이르는 봉화현 북쪽의 고지 상에 둘레 130간 폭 2간 높이 1간반의 석루 중에 직경 3간여의 토석축의 원층이 있다.
- 備考：乙種要存豫定林野
비고：을중요존 예정임야

7. 유구현황과 특징

2021년도의 지표조사를 통해 봉수대는 구릉 정상 of 가장자리를 따라 석축 평면 타원형의 방호벽이 설치되어 봉수대 내부는 분지 형태를 띤다. 특히, 봉수대의 북쪽은 신녕천에 면하여 절벽으로 형성된 지형이다. 방호벽 내에는 연대와 추정건물지가 확인된다.

1) 항공사진

여음동봉수대가 확인되는 항공사진은 1953년에 촬영된 것이다. 여기에는 타원형의 방호벽과 원형의 연조, 그리고 동남쪽으로 삼각형의 평탄지가 관찰된다.

2) 유구현황

(1) 잔존상태

방호벽: 평면 형태는 북쪽이 좁고 남쪽이 넓은 타원형에 가깝다. 내부는 북고남저형 경사지를 이용하여 상하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다. 거화시설은 상단(上段), 주거시설은 하단(下段)에 배치되어 있고 방호벽이 두 공간을 두르고 있다. 현재, 방호벽은 남쪽을 제외한 3면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 과거 봉수 운영 당시에는 4면을 모두 토·석 혼축으로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잔존 높이는 약 1.5~2.0m이며 잔존 폭은 1.5m 정도다. 축조는 먼저 자연 능선을 깎아낸 후 자연 할석을 이용하여 외면을 돌로 쌓고 그 안쪽은 작은 할석과 흙으로 채워 넣었다. 축조 시 20×20cm, 23×13cm, 40×10cm 크기의 할석을 사용하였으며 축조에 정형성은 없다. 방호벽은 동·서에 걸쳐 길이 20m 가량 남아 있지만 훼손된 상태이다. 방호벽이 들어선 곳의 동·북·서 삼면은 급사면이다. 봉수의 규모는 직경이 남북 31m, 동서 20m, 둘레 96m, 면적 663㎡(약 200평)가량이다.

연대: 방호벽 내에 연대 1기가 확인되었다. 1953년 항공사진에 보면, 당시에 연대의 형태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 연대는 서쪽 방호벽에 맞닿아 있는데, 이 위치는 봉화재가 있는 방향이다. 봉수 신호의 가시권과 봉화재를 넘나들던 이들을 엿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곳에 연대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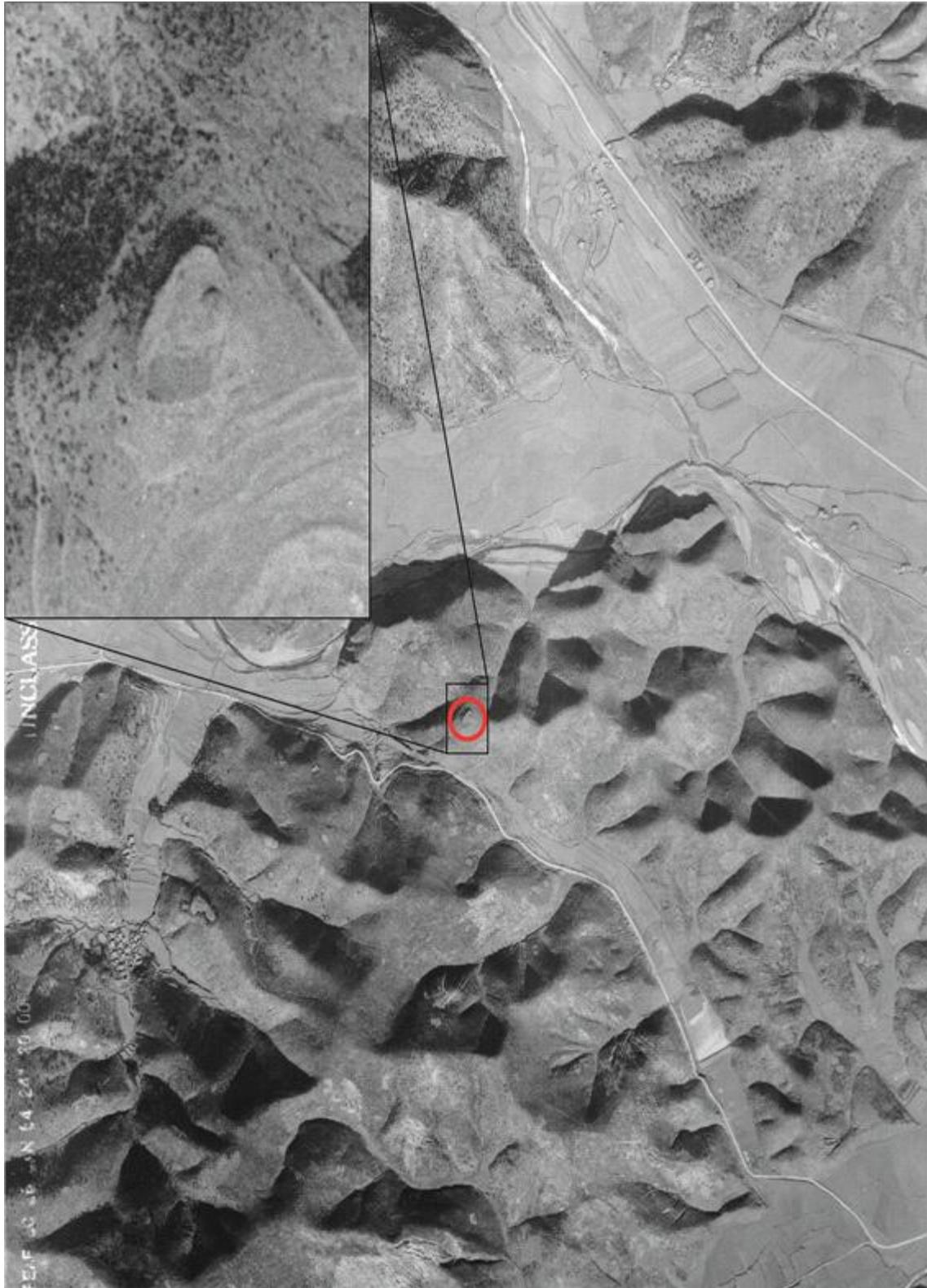


사진 3. 여음동봉수대 일원 항공사진(1953년)

연대의 평면 형태는 원형을 띤다. 규모는 직경이 남북 10.5m, 동서 9.5m 가량으로 둘레 약 31m, 면적 72㎡(약 21평)이다. 연대의 규모가 다른 봉수에 비해 큰 편에 해당한다. 연대의 높이는 서쪽과 동쪽이 차이를 보이는데, 외부에 노출된 서쪽 석축의 높이는 1.6m, 동쪽은 1m 정도 된다. 연대 상부에는 영천향토사연구회에서 1994년 1

월 9일 세운 표석이 있다.

추정 건물지: 방호벽 내 상단에는 연대(煙臺)·연조(煙竈) 같은 거화시설, 하단에는 가옥(家屋)·고사(庫舍) 등 봉수군의 생활이나 부속시설을 두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상·하단의 높이차는 1.7m 정도로 상단 단부는 지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석축을 쌓았고 두 공간의 통행은 서측에 난 경사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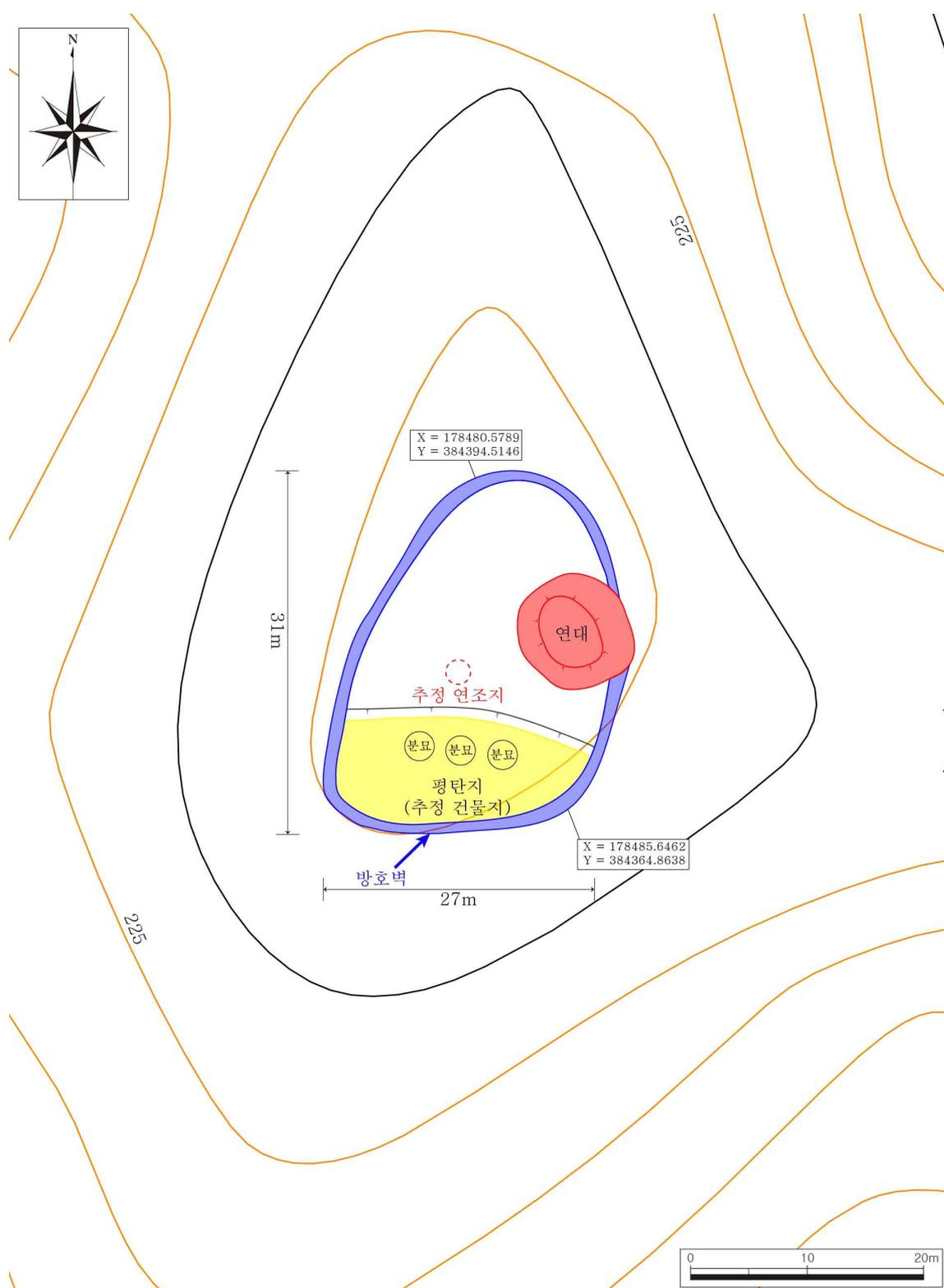
봉수대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남쪽에 비해 북쪽이 더 넓다. 보다 넓은 공간이 확보되는 북쪽에 평탄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면적은 167㎡(약 50평)이다. 평탄지 안에는 분묘 3기가 안장되어 있다. 1953년 항공사진에는 분묘가 없으나, 1977년 항공사진에는 분묘 2기가 안장되어 있다. 1970년대에 분묘가 안장되기 시작하면서 이 때 봉수대 내부가 훼손된 것으로 생각된다.

(2) 유물

봉수대 내 출토유물은 기와편이 대부분이다. 유물이 채집된 곳은 주로 평탄지였으며, 일부 방호벽에서도 채집되었다.

(3) 특징

방호벽 내부는 남쪽의 공간이 넓고 북쪽이 좁은 형태이다. 봉수대 내부는 북고남저의 지형을 이용하여 상·하 두 구역으로 분리하였다. 내부공간을 상하 2단으로 구획하여 상단은 거화시설, 하단은 생활시설의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내지봉수임에도 방호벽 내 연대를 시설하였다. 방호벽의 외벽은 막돌 허튼층쌓기되어 있다.



도면 1. 여음동봉수대 현황도(S=1/400)



사진 4. 여음동봉수대 드론촬영1



사진 5. 여음동봉수대 드론촬영2



사진 6. 봉수대 표석



사진 7. 연대 평면



사진 8. 연대 입면



사진 9. 방호벽 잔존상태1



사진 10. 방호벽 잔존상태2



사진 11. 방호벽 잔존상태3



사진 12. 평탄지 평면



사진 13. 여음동봉수대 주변 채집유물

8. 지정가치와 근거기준

1) 조선시대 내지붕수의 설봉과 최종 폐봉까지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는 통신시설이다.

- 조선 전(全) 시기 발간의 지지(地誌) 기록을 통해 봉수 한자표기의 차이를 통한 다양한 명칭 확인과 전·후 대 응봉수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다.
- 조선 후기 발간의 『해동지도』(1724)와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등의 고지도(古地圖)에 빠짐없이 표기 되어 있다.

2) 봉수대의 구조와 봉수군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다.

- 내지붕수임에도 연대가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잔존상태도 양호하여 봉수대를 연구하기 좋은 자료이다. 그리고 봉수대 내에서 많은 유물이 수습되어 봉수군의 생활상도 유추해 볼 수 있다.

3) 내지붕수로서 주변 교통로의 조망에 탁월한 입지이다.

- 영천에서 군위 의성, 안동을 거쳐 문경 조령을 잇는 길과, 군위 구미를 거쳐 추풍령으로 이어지는 길의 분기점에 해당한다.
- 영남좌로를 통해 신녕과 군위, 의흥, 의성으로 넘나들던 이들을 엿보기에 좋은 곳이다.

4) 신녕현 치소에서 봉수가 바로 후망되는 근거리에 입지한다.

- 치소(현 신녕초등학교)에서 서북쪽의 봉수까지 2.8km의 근거리에 있다.
- 치소와 봉수 사이에는 중간에 신녕천이 흐르고, 동-서 좌우에 신녕평야의 형성으로 치소의 가시권 내 봉수 위치한다.

5)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 일부 봉수유적의 경우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입지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반면, 여음동봉수는 신녕면 소재지에서 3km 내 거리의 919번 지방도 ‘봉화재’ 우측(북쪽) 약 90m 거리의 나지막한 봉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다.

6) 내지붕수에 연변봉수의 상징인 연대가 설치됨.

- 여음동봉수는 내지붕수임에도 연변봉수를 상징하는 연대를 방호벽 내에 설치하여 차후 내지붕수의 구조 연구에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를 제공한다.



사진 15. 여음동봉수대와 신녕현 치소(現 신녕중학교)

9. 지정대상과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 지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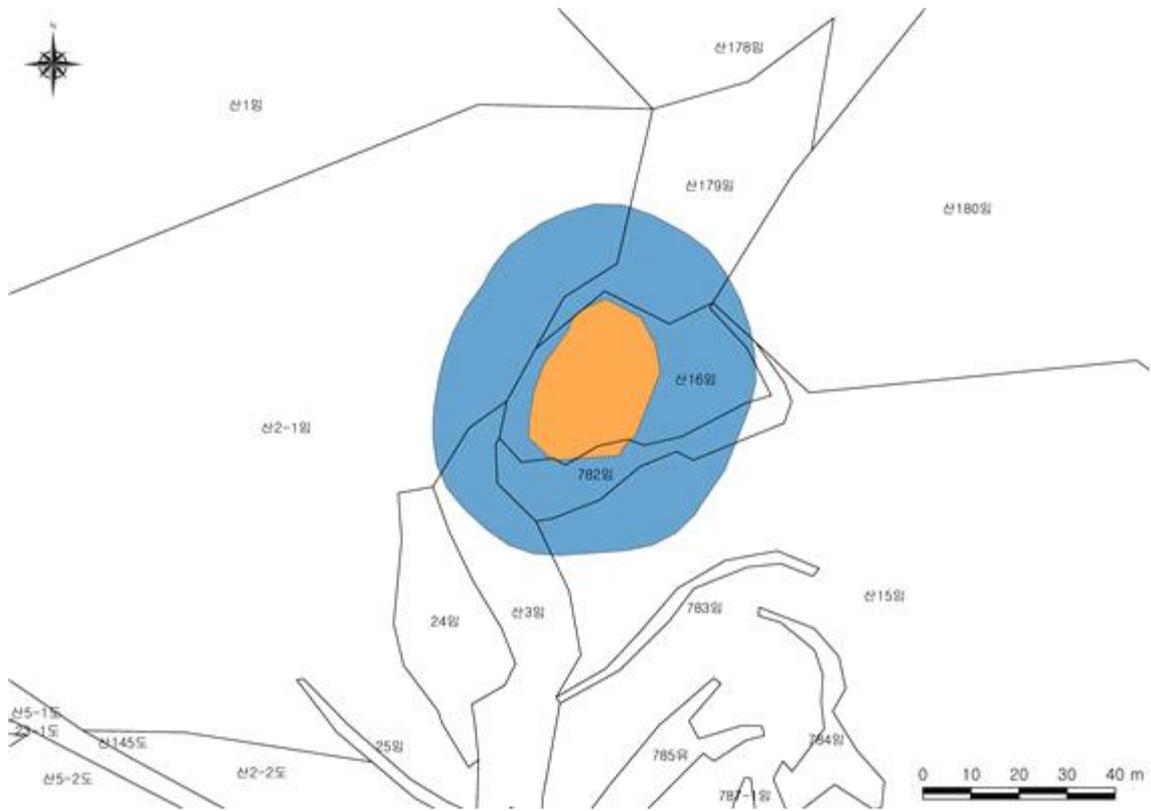
• 지정면적 : 7필지 / 3,830㎡(문화재 663㎡, 보호구역 3,167㎡)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건조물인 경우 (면적: m ²)													
연번	명칭	시대/ 연대	구조/형 식 /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물면적 (연면적, 건 축면적) 수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663 m 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	산16	임야	1,587	642								
2	경북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	782임	임야	542	21								
계				2,129	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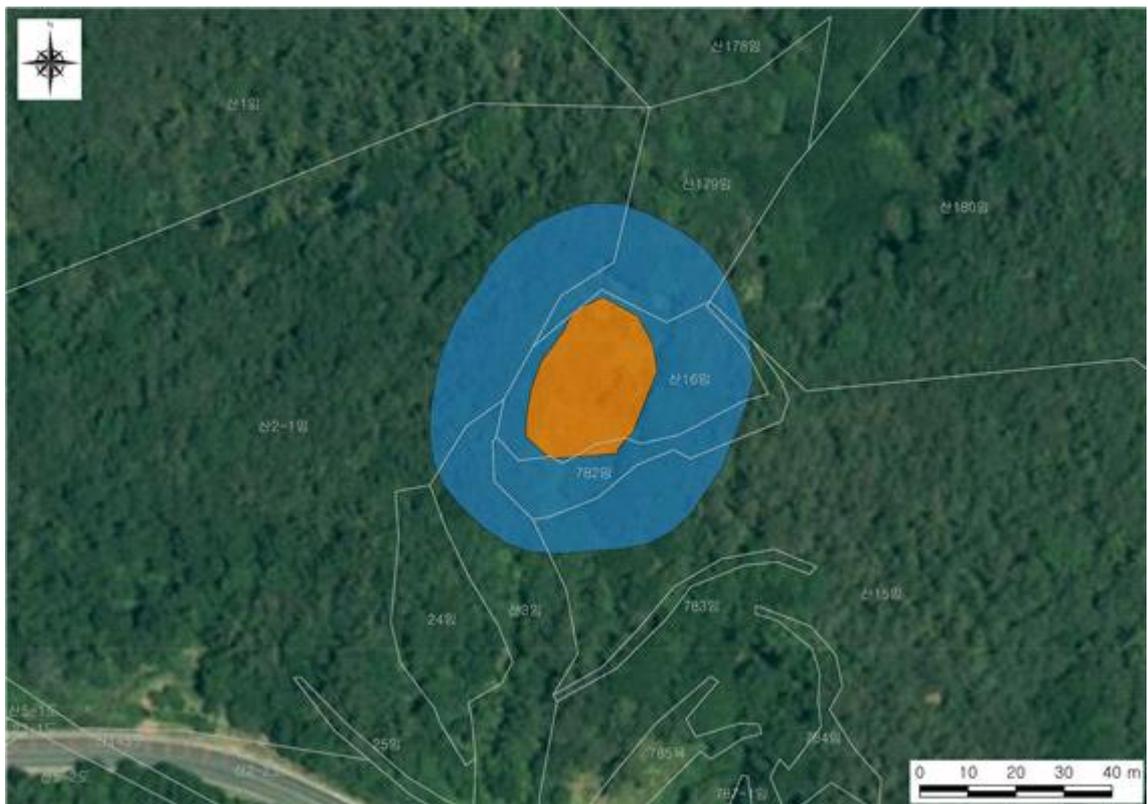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3,16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 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	산15	임	26,579	467							
2	경북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	산16	임	1,587	623							
3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산179	임	1,190	440							
4	경북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	782	임	542	424							
5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산180	임	57,521	39							
6	경북 영천시 신녕면 부산리	산2-1	임	13,789	890							
7	경북 영천시 신녕면 부산리	산3	임	1,587	284							
계				102,795	3,167							



도면 2.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S=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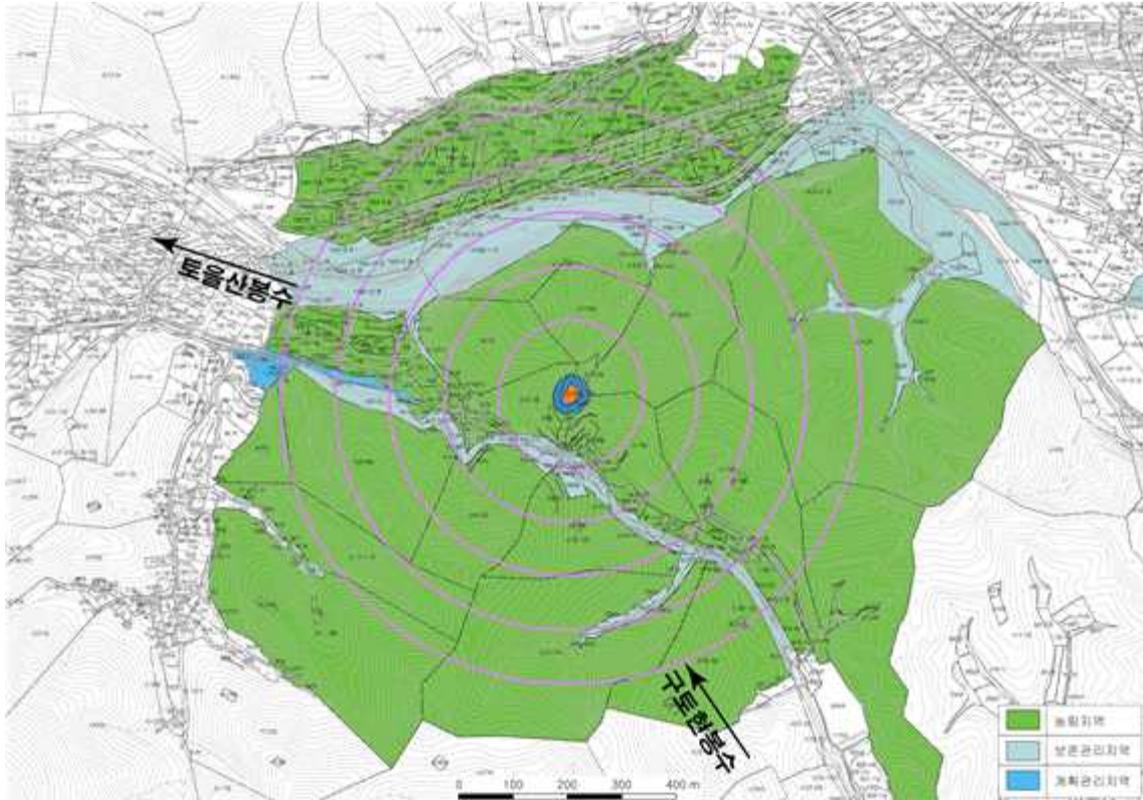
도면 3.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

10.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1) 검토의견

여음동봉수 전·후 대응노선 봉수의 방향을 고려한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

영천시	영천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p>▣ 대상문화재 제2로 직봉 - 영천 여음동봉수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 산16번지</p> <p>▣ 문화재 및 보호구역</p> <p> 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보호구역</p> <p>▣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간격)</p> <p>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p> <p>▣구역별 허용기준</p>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 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1. 보존·정비와 활용 착안사항

1) 기본구상

(1) 기본방향

① 기본원칙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1.6.10.] [법률 제17409호, 2020. 6. 9. 일부개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문화재청, 2002)

- 문화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문화재 활용은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사업의 소재로서 개발·활용하며,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육성한다.

『유적(遺蹟) 등 정비계획 수립·추진관련 고려사항』(문화재청, 2003)

- 가치(원형) 보존 최우선: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복원·정비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비를 지양하고, 유적의 가치와 역사적 숨결을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명확한 정비목표 수립: 유적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적 정비를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한다. 보존과 복원·정비되어야 할 것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 :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고, 유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방향 설정

영천시의 여음동봉수에 대한 정식 학술조사는 실시된 바 없어 지금까지 별다른 보존·정비와 관리계획은 없었다. 이에 합리적인 보존·정비와 관리안을 상기 기술한 기본원칙에 따라 타 시·군 소재 봉수의 보존·정비와 관리사례를 검토하고 주변 현황과 여건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 봉수대의 보존·정비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도모하고,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과 부산시의 역사문화관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동선체계 등 기반시설의 확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봉수는 조선시대 500여년간 변경의 안위(安危) 여부를 전·후 대응봉수간 차차거화(次次擧火)를 통해 최종 중앙에 알리던 호국군사통신 유적으로서, 성격에 의한 구분상 내지봉수(內地烽燧)에 해당한다.
- 봉수는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평안을 상징하는 1거의 햇불[平安火·太平火]을 올림으로서 과거 신령현과 인근 고을 백성들이 이를 바라보고 일상을 마무리하는 순기능도 있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영천시 소재 전체 일급 개소 봉수의 보존·정비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봉수대의 잔존 방호벽과 연대 등의 역사적 실체를 보존·정비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시킨다.
-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활용되었던 봉수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정보통신 발달의 상징적 유적으로 보존·관리한다.
- 경상도와 충청도·경기도를 거쳐 최종 서울 목멱산봉수로 이어지는 내지봉수 체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원한다.

(2) 기본전제

① 잔존 봉수 유구의 보존과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

봉수대의 핵심요소인 거화시설(연대)과 방호시설(방호벽) 및 생활시설(주거지)을 대상으로 보존·정비하여 여음동봉수의 문화재적 가치가 표출되도록 한다.

② 역사문화자산 가치 증진 및 화제성 창출

과거 봉수체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던 당시에 봉수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봉수군과 봉수운영 관련 된 기록과 내용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유적과 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화제성이 창출되도록 정비한다.

③ 대응봉수와의 조망을 위한 가시권 확보

입지조건상 동남쪽으로 신령현의 옛 치소가 잘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한 봉수는 인근 대응봉수와의 후망을 통해 영천지역과 고을 백성들에게 변경의 안위 여부를 알리던 국사통신유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적 강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계획한다.

조선 후기에 최종 설정된 대응봉수인 구토현봉수와 토을산봉수와의 가시권 확보의 봉수 주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식생이 양호한 기존의 자연경관 유지 방안을 제시한다.

④ 주연야화(晝煙夜火) 통신의 특징을 살린 ‘체험과 교육의 장’ 조성

햇불과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 소식을 전하였던 봉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적의 복원보다는 체험과 실연(實演)을 통한 거화의 과학적 원리를 교육한다.

기존의 진입로를 활용하여 최적의 보행환경과 교육적 기능을 갖춘 탐방로 조성을 통해 여음동봉수의 500여년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⑤ 주변 문화자원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

봉수의 주변에는 ‘신녕관아지, 신녕향교, 화산산성’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봉수와 인근 유적을 통합적으로 연계·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⑥ 실현가능한 세부추진사업 도출과 단계별 사업시행

영천시의 재정여건이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토지 매입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필요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3) 종합구상

① 추진사업 계획

역사적 실체 보존 사업을 실시한다.

- 식생정비(소목 간벌), 봉수 내부 잔디 식재, 봉수군 주거지 정비 등 문화자원 연계 개발사업을 실시한다.
- 탐방로(봉수군 길) 정비, 스토리텔링 개발, 체험 프로그램 및 축제 개발, 봉수 C.I개발, 동선표지판·전망시설 및 망원경 설치 등을 진행한다.
- 읍성과 봉수 등 관방체계 알림 사업을 병행한다.
- 주변 봉수와 읍성 등 주변 지역의 관방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 봉수대 주변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 등이 필요하다.

② 토지이용계획

봉수대 일원은 산림청과 민간 소유의 임야로서,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 산16에 소재하며 면적은 663㎡이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토지대장, 2021.9.)

현재 여음동봉수를 찾는 탐방객은 소수에 불과하여 919번 지방도 주변 봉화재에 주차하는 실정이다.

향후 제2거 직봉 노선 봉수의 사적지정이 확정되고 보존·정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 시 탐방객에게 보다 쾌적한 역사경관과 편리한 탐방 환경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

③ 동선계획

본 계획에서는 봉수구역과 진입광장 및 주차구역으로 나누고 각 공간별로 기능을 배분하였다. 특히, 진입광장 및 주차구역에는 방문객이나 차량의 접근동선과 관련된 공간 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험교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봉수대의 탐방동선은 기존에 조성된 산책로를 그대로 이용하되, 전통적인 분위기 또한, 탐방객의 주동선이 되는 기존 산책로를 활용하여 봉수에 대한 관심유발과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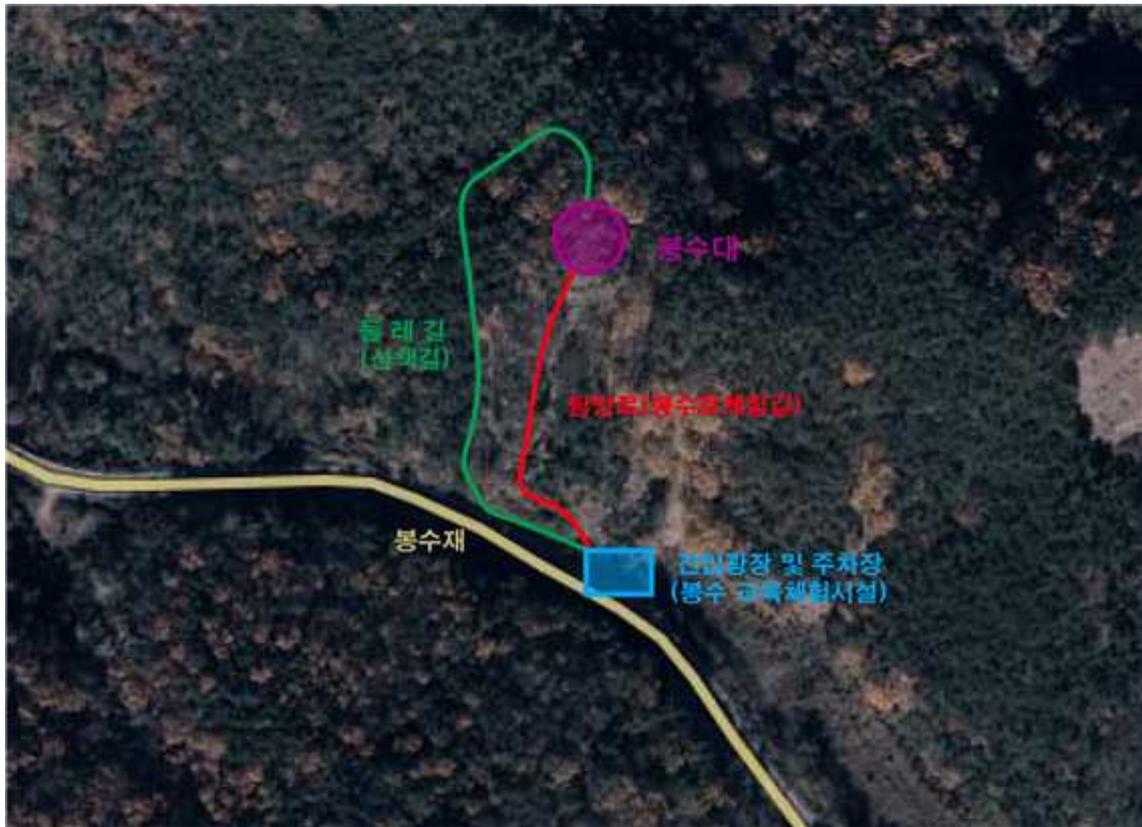


사진 16 . 토지이용 및 동선계획도

2) 보존과 정비활용계획

(1)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확대지정

① 향후, 제2거 직봉 노선의 봉수를 사적(史蹟)으로 승격 시 문화재지정구역의 확대 및 대응봉수간의 조망과 가시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여음동봉수를 중심으로 남동쪽의 구토현봉수, 서북쪽의 토을산봉수를 잇는 조망과 이를 잇는 가시권 확보가 필요하다.

② 봉수대 주위의 수목을 선별적으로 간벌하여 대응봉수간 조망이 가능하도록 정비 할 필요가 있다.

③ 봉수대 주변 식생이 양호한 임야는 가급적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④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확대는 기존 현상변경허용기준 적용구역의 확대를 수반한다. 인접 봉수간의 조망 확보를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아울러 보호구역 외곽 200m정도는 1구역 (개별 심의) 또는, 2구역<최고높이 8m이하(평지붕), 최고높이 12m이하(경사지붕)>으로 설정하여 역사 문화 환경과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⑤ 진입로에서 봉수대의 원경을 볼 수 있도록 간벌 등을 통해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봉수군들이 이용했던 소로(진입로)는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이 길을 통한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2) 보존계획

① 봉수유적 보존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는 거화시설인 연대와 방호시설인 방호벽이 잔존하고 있으나,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후 13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봉수 내외 무성한 수풀잡목으로 그 형태를 뚜렷하게 확인하

기 곤란하다.

- 따라서, 과거 봉수의 운영당시 원형구조를 밝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수를 구성하였던 제반 요소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비와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에 대한 최근의 현황조사를 통해 전체 구조의 확인이 가능함으로 이를 바탕으로 운영당시의 모습대로 단계적으로 정비·복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조선시대 내지봉수의 형태와 기능을 학습·체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공간으로 조성한다.

다. 추진방법 및 절차

- 먼저 방호시설인 방호벽과 추정 봉수군 주거지에 대한 원형구조를 확인한다.
- 연대는 주위 수풀잡목을 간벌하고 방호벽 내부에는 잔디를 식재하여 보존한다.

② 수목 간벌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 내·외는 현재 무성한 수풀잡목으로 대응봉수와의 조망이 곤란하거나 유구 훼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적절한 간벌을 통하여 유적 보존 및 가시권(可視圈) 확보한다.

나. 사업내용

- 현재 봉수대 주위와 내부에는 수목이 들어차 있어 대응봉수의 조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목을 선별적으로 벌목하여 대응봉수인 구토현봉수와 토을산봉수에 대한 조망을 개선한다.

다. 추진방법

- 벌목작업은 봉수유구의 보존, 주변경관 조망, 봉수의 제반요소 관찰 등에 장애를 주는 수목부터 선별하여 실시한다.
- 봉수대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경관이 확보되도록 수목을 제거한다.
- 봉수대로 오르는 동선상에 있는 수목을 간벌하고, 보기 좋은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동선을 유도한다.

(3) 정비·활용계획

① 전망시설과 휴식공간 설치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의 정체성과 주요 기능은 대응봉수와의 시각적 연결에 있다. 현재, 봉수대는 내·외부의 수목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제한적이고, 봉수유구 전반을 살펴볼 수 없다. 조선시대 봉수는 대응봉수와의 조망과 주변 관찰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였으므로 이러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 주변 적당한 곳에 봉수의 전체 구조와 대응봉수, 주변 자연환경, 시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조선시대 봉수의 입지선정 원리를 체감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과 절차

- 전망시설은 봉수대 주변 시야가 가장 좋은 지점에 설치하되,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봉수의 역사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안내판에 대응봉수를 촬영한 사진을 표시하여 눈앞에 펼쳐진 전경과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망시설에는 망원경 등을 설치한다.
- 전망시설 하부나 주위에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방문객에게 휴식과 사색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② 봉수군 탐방로 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919번 지방도변 봉화재에서 봉수대로 이어지는 ‘봉수군 탐방로’를 조성하여 문화콘텐츠로 활용한다.

나. 사업내용

- 탐방로를 개설하고, 봉수 관련 이야기와 비품 등을 소개함으로써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과거 봉수의 기능과 운영 및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노변(路邊) 전시관 기능을 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

- 기존의 길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요 지점에는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고 벤치 등의 휴식시설을 도입한다.

- 안내판의 내용은 경북권 내 경산(現 대구 수성구) 성산봉수(城山烽燧)의 비치물목을 토대로 봉수운영에 필요한 비치물목상의 거화재료나 생활비품 등을 선별하여 사진자료와 함께 해설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烟臺一 烟窟一 望德一 火德一 積草五訥 烏外石五訥 無稜石五訥 吐木五訥 烟炬三柄 松炬五十柄 草炬五十柄 柶炬五十柄 艾五同 牛糞五同 馬糞五石 炭五石 細沙五石 糟糠五石 防牌五坐 排火木五介 法手木五介 水桶五箇 菱鐵二十箇 古乙羅木二十五箇 木斧子二十柄 滅火器五坐 麻注乙里二十沙里 前梯一 水樽五坐 縣瓢子五介 火箭九柄 唐火箭九柄 長箭一浮 片箭一浮 黑角弓一張 桶兒一介 大白旗一面 鉛丸三十箇 火藥五兩 烏銃一柄 環刀一柄 長槍一柄 火繩六沙里 細繩三沙里 條乙所三沙里 火鐵石二介 水瓮五坐 釜一坐 食鼎一坐 爐口一坐 匙五持 沙鉢五立 空石十立 接匙五竹 瓦家五間 種火盆一坐 草席二立 抹木十八箇 火桶五介 燒木五同 戰角一雙 待賓米一石 鎌子四柄 盤五立 三穴銃一坐 火綿一 掩頭一部 掩心一部 五色布旗五面 鼓一坐 錚一坐 火鐵十介 生松一訥 櫛一坐 (『嶺南邑誌』第7冊, 『慶山縣邑誌』(1871) 烽臺)

(4) 봉수 거화(擧火) 실연(實演) 행사

① 추진배경과 목표

봉수는 연기[주간]와 불[야간]로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시설인 만큼 실제 거화(擧火)나 거연(擧煙) 같은 실연(實演)행사의 실시를 통해 선조들의 봉수운영 원리를 체득하게 한다.

② 사업내용

연기와 불이라는 시각신호로 변경의 안위여부를 전달하였던 봉수의 연조 형태와 구조, 거화재료의 종류와 배합 등을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이 실증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크기의 연조를 제작한 후 실연(實演)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③ 추진방법과 절차

가. 실연행사를 할 수 있는 연조(煙籠)를 제작하되 설치장소는 행사 시 화재발생이나 유구 훼손에 대비하여 유적과 일정거리 떨어진 곳으로 한다. 연조의 크기와 구조 등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다.

나. 거화재료[화]는 경산 성산봉수 비치물목을 참고하여 준비하고 전통방식에 따라 제작한 후 사용한다. 행사의 진행은 지역 문화단체가 담당하고 연중 개최 시기는 ‘신년, 정월대보름, 8·15광복절, 영천군민의 날’ 중 의미 있는 날을 정하여 개최하도록 한다. 그리고 영천에서는 보현산 별빛축제, 문화예술제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때 봉수 실연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봉수를 알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5) 관리운영계획

① 관리운영 주체

영천시에서 관리

(경북문화재단 등 문화재 관리 기관에 위탁관리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② 관리운영 목표

- 가. 여음동봉수대의 보존과 유지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
- 나. 탐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도모
- 다. 여음동봉수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의 극대화
- 라. 유적의 학술적 가치 극대화와 신규 문헌 발굴 등

③ 관리운영사항

- 가. 봉수대 유적
 - 여음동봉수대 일원
 - 여음동봉수대 주변 탐방로 등
- 나. 자연환경
 - 여음동봉수대 주변 수목 및 지형
 - 주변 생태환경, 녹지 등
- 다. 시설물
 - 탐방로, 전망시설 등
 - 안내판, 방향지시판, 휴게시설 등
 -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 라. 탐방객을 위한 서비스
 - 홍보, 해설, 전시, 축제행사 등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④ 사업 추진절차

가. 문화재지정구역 및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는 먼저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발굴(시굴)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한 후 도출된 발굴결과에 따라 정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입 → 발굴 → 정비의 순이다. 여음동봉수는 정식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비단계에 따르되 대상지가 안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복원·정비의 단계를 결정한다.

나. 매입 단계는 정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국·공유지화 하는 단계로서 대상지의 지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 파악과 매입에 예상되는 비용 및 매입의 원활성을 판단하여 정비의 선후를 결정한다. 여음동봉수의 정비사업은 대상지 내 유선 봉수대를 중심으로 매입하고 이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⑤ 순차별 사업계획

가. 봉수대의 보존·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체 사업비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초기 2년의 정비를 단기정비로 설정하고 이후의 계획 중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기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단기사업은 정비사업의 기간 및 지자체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나. 보존·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추진 절차, 시급성,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다. 봉수대 보존과 주변정비사업은 방호벽과 연대 정비, 식생정비[간벌 등], 전망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정비사업의 원칙은 유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선정한다.

라.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편리하고 쾌적한 출입 및 동선체계 구축을 위한 주차장마련 및 진입광장 조성 사업을 단기에 시행하고 관광 역량 제고를 위한 간이안내소 설치나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은 중기에 진행한다.

마. 이들 추진사업은 영천시청의 정책 순위 변경과 주민들의 요구도, 제반 상황변화에 따라 추진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2. 종합의견

- 1) 영천 여음동봉수는 조선시대 전체 5거노선의 봉수 체계에서, 부산에서 초기하는 제2거 직봉의 열 다섯번째 내지봉수이다. 문화재청의 2014년과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방호벽과 연대, 추정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 2) 봉수성격에 의한 구분상 내지봉수이지만, 연변봉수의 필수 시설로 연변봉수를 상징하는 연대를 방호벽 내에 마련한 특이한 구조이다. 연대는 석축이 일부 허물어져 있지만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이외 방호벽 내부공간을 상·하단 2등분하여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 3) 여음동봉수대의 평면 형태는 타원형이고 면적은 663㎡ 정도이다. 연대, 방호벽 외 추정 건물지가 이번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봉수의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많은 유물이 수집되어 앞으로 정밀 문화재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봉수대의 구조와 봉수군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4) 영천지역은 교통과 봉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충지였다. 부산 다대포 응봉봉수에서 초기한 직봉과 동래 간비오봉수에서 초기하는 간봉(1), 부산 천성보봉수에서 초기하는 간봉(8)노선의 여러 봉수들이 차차거화(次次擧火)를 통해 서북상하면서, 영천지역에 모이는 결절점(結節點)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노선적 특수성으로 인해 내지봉수임에도 연변봉수를 상징하는 연대를 방호벽 내에 설치하였다.
- 5) 조선 전기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1425)에서부터 구한말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1908)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지에 빠지지 않고 등재되어 있고 제2거 직봉 노선의 주요 봉수다.
- 6) 봉수는 단일 유적보다는 통신체계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 노선별 주요봉수, 잔존상태, 역사성, 지정번호 부여방식 결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적지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문화재 종류

1) 사적

- 계란현봉수(鷄卵峴烽燧)는 비지정문화재로서 부산 다대포 응봉봉수(鷹峰烽燧)에서 초기(初起)하는 제2거 직봉노선의 스물두번째 내지봉수이다. ‘의성 계란현봉수유적(義城 鷄卵峴烽燧遺跡)’을 같은 노선의 봉수와 연계하여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2. 문화재 명칭

1) 문화재명 : 제2로 직봉 - 의성 계란현봉수유적(第2路 直烽 - 義城 鷄卵峴烽燧遺跡)

- 봉수유적은 연속유산으로서 노선 단위 지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정명칭은 “본 명칭 - 부 명칭”의 형식으로 부여토록 한다. 여기서 본 명칭은 대표성이 높으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2로 직봉(第2路 直烽)”으로 한다.
- 부 명칭은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라 봉수명칭 앞에 현 행정구역 소재지인 ‘의성(義城)’을 표기한다.
- 봉수명칭은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이후 조선 최후기 봉수망을 알 수 있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의 명칭과 한자표기를 따라 ‘계란현봉수유적(鷄卵峴烽燧遺跡)’으로 표기한다.
- 따라서, 최종 봉수명칭은 ‘제2로 직봉 - 의성 계란현봉수유적(第2路 直烽 - 義城 鷄卵峴烽燧遺跡)’(이하 ‘계란현봉수’라 한다)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명칭유래

봉수는 조선 후기 발간된 지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자표기 및 어두(語頭)의 명칭이 ‘계란산(鷄卵山) → 계란현산(鷄卵峴山) → 계란현(鷄卵峴)’ 등으로 세 차례의 변화가 확인된다.

어미(語尾)의 명칭은 봉수(烽燧)로서 같다.

- 계란산봉수(鷄卵山烽燧) : 『여지도서』, 『경상도읍지』, 『영남읍지』, 『의성현지』(1871·1895), 『의성군지』, 『의성지』
- 계란현봉수(鷄卵峴烽燧) : 『의성현지』, 『여도비지』, 『증보문헌비고』
- 계란현산봉수(鷄卵峴山烽燧) : 『대동지지』

봉수대는 의성군 상화2리 신적마을에서 단촌면 병방리, 관덕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위치하고, 둥그렇고 밧

밋한 고갯길 서쪽 3km 정도에 의성에서 안동으로 통하던 옛길이 있다. 지금은 고갯길이 막혔지만, ‘인터넷 지도’에서는 옛길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계란현은 계란처럼 둥그런 고개라는 의미다. 안동과 의성을 오가는 큰길 가까이에 있으며, 상화리와 관덕리를 오갈 때 발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고갯길이다. 주변은 좀 더 높은 봉우리로 둘러싸였고 봉수는 고갯길 바로 옆에 있다. 그리 높지 않으나 신비한 기운이 감돈다.

신적마을 당산나무 옆에서 봉수로 오르다가 북쪽을 바라보면 마치 계란처럼 둥그런 봉우리와 밋밋한 고갯길 흔적이 있다. 계란현은 이 자그마한 봉우리 모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성문화원의 『의성의 봉수대』(1999),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의 『의성군 문화유적 분포지도』(2004) 작성을 위한 지표조사에서는 봉수를 둘러싼 능선이 상화산성이었다고 한다. 남쪽 능선을 따라 계단을 이룬 개간 흔적이 지금도 완전히 남았다. 개간으로 인해 산성 유적은 훼손되었는지 지표상에서 성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내륙의 깊숙한 곳을 경유하는 곳이어서 북리봉수(내지봉수)의 특징을 갖춘 봉수다. 방호벽은 남쪽 부분이 많이 허물어졌으나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백두대간의 갈래가 흘러와 평지를 이루는 경계 지점이다. 둥그런 산의 형상과 신비스러운 기운으로 인해 봉수 남동쪽 1.7km 산봉우리를 ‘천제봉’으로 부른다. 천제봉은 전국에서 기우제 풍속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금성산, 여름에도 얼음이 맺히는 빙계계곡·풍혈과 더불어 신비함을 더하는 곳이다. 봉수에서 멀지 않은 곳에 태일전이 있었다고 한다. 매년 상원(정월 보름)에 나라에서 향을 내려 제향을 올린 도교사원 태일전(성종 9년 태안으로 옮김) 이 조문국 옛터·수촌 마을 만년송과 함께 신비한 옛 얘기를 전해 주는 곳이다.

3. 의성지역의 봉수현황과 성격

- 의성 지역에는 최초 설봉(設烽)과 폐봉(廢烽)시기가 다른 총 9기의 봉수(간점산·대암산·소이산·영니산·승원·대야곡·성산·계란현·마산)가 소재하고 있다. 봉수의 성격에 의한 구분상 모두 육지내륙 소재의 내지봉수(內地烽燧)다.
- 이 중 ‘간점산·대암산·소이산·영니산’ 등 4기의 봉수는 조선 전기부터 운영되다가 후기인 18세기 중엽 이전 노선의 조정으로 인해 폐봉됨에 따라 『증보문헌비고』(1908)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가 최종 폐지될 때까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었던 봉수는 ‘승원·대야곡·성산·계란현·마산’ 등 5기다.

4. 계란현봉수의 입지와 연혁

1) 입지

봉수대는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상화리 산28 일원의 해발 280.3m인 봉우산에 위치한다. 멀리서 본 산의 모습은 이름 그대로 ‘계란’ 모양이다. 산 정상부에서는 주위 울창한 수목으로 인해 조망이 용이하지 않다.

의성군 단촌면 상화2리 마을 입구의 상화리 체육공원에서 좌측으로 난 포장임도를 따라 가면 작은 저수지가 나온다. 이 저수지에서 보면 왼쪽으로 연이어져 있는 봉우리의 정상이 봉수대가 있는 곳이다. 경사가 가팔라 접

근성이 좋지 않다.



사진 1. 의성 계란현봉수대 원경1



사진 2. 의성 계란현봉수대 원경2

2) 연혁

봉수의 최초 지지기록은 『여지도서』부터이며, 조선 최후기 봉수망을 알 수 있는 『증보문헌비고』(1908)와 일제 강점기 발간된 『의성지』(1932)까지 문헌기록이 풍부하다. 각 지지별 발간연도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輿地圖書』下(1760), 慶尙道 安東鎭管 義城縣 烽燧
 新增 鷄卵山烽燧 在縣北十里 南應古城山 北報馬山 相距十五里
 신증 계란산봉수는 현의 북쪽 10리에 있다. 남으로 고성산에 응하고, 북으로 마산에 알리는데 거리는 15리다.
- 『義城縣誌』(1787) 烽燧
 鷄卵峴烽燧 在縣北十五里 北應馬山 南應古城山
 계란현봉수는 현의 북쪽 15리에 있다. 북으로 마산에 응하고, 남으로 고성산에 응한다.
- 『慶尙道邑誌』第8冊, 「義城縣誌」(1832) 烽燧
 鷄卵山烽燧 在縣北十五里 北應馬山 南應古城山
 계란산봉수는 현의 북쪽 15리에 있다. 북으로 마산에 응하고, 남으로 고성산에 응한다.
- 『輿圖備志』(1856) 卷8, 慶尙道 左道 義城縣 武備 烽燧
 鷄卵峴 治北十里
 계란현은 현치의 북쪽 10리다.
- 『大東地志』(1864) 卷8, 慶尙道 25邑 義城 烽燧
 鷄卵峴山 北十里
 계란현산은 북쪽 10리이다.
- 『嶺南邑誌』第7冊, 「義城縣誌」(1871) 烽燧
 鷄卵山烽燧 在縣北十五里 北應馬山 南應古城山
 계란산봉수는 현의 북쪽 15리에 있다. 북으로 마산에 응하고, 남으로 고성산에 응한다.
- 『嶺南邑誌』第27冊, 「義城縣誌」(1895) 烽燧
 鷄卵山烽燧 在縣北十五里 北應馬山 南應古城山
 계란산봉수는 현의 북쪽 15리에 있다. 북으로 마산에 응하고, 남으로 고성산에 응한다.
- 『義城郡誌』(1899) 烽燧
 鷄卵山烽燧 在郡北十五里 北應馬山 南應古城山 今廢
 계란산봉수는 군의 북쪽 15리에 있다. 북으로 마산에 응하고, 남으로 고성산에 응한다. 지금은 폐지되었다.
- 『增補文獻備考』(1908) 卷124, 兵考16 烽燧2
 初起 鷹峰(多大浦鎭) -- (中略) -- 城山 鷄卵峴 馬山 -- (中略) -- 第2炬準 天臨山

초기 응봉(다대포진) -- (중략) -- 성산 계란현 마산 -- (중략) -- 제2거준 천림산

• 『義城誌』(1932) 卷1, 15. 交通

鷄卵山烽燧 北應馬山 南應古城山

계란산봉수 북으로 마산에 응하고, 남으로 고성산에 응한다.

위 지지의 내용을 시기별로 검토하면 『여지도서』에 계란산봉수(鷄卵山烽燧) 명칭으로 “현의 북쪽 10리에 있다. 남쪽으로 고성산봉수(古城山烽燧)에 응하고 북쪽으로 마산봉수(馬山烽燧)에 알린다. 거리는 15리다.”라고 하였다. 이때 남쪽과 북쪽으로 응하도록 설정된 대응봉수 노선은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폐지 시 까지 노선의 변동없이 시종 유지되었다.

조선 전·후기 의성지역 제2거 직봉의 노선 변화과정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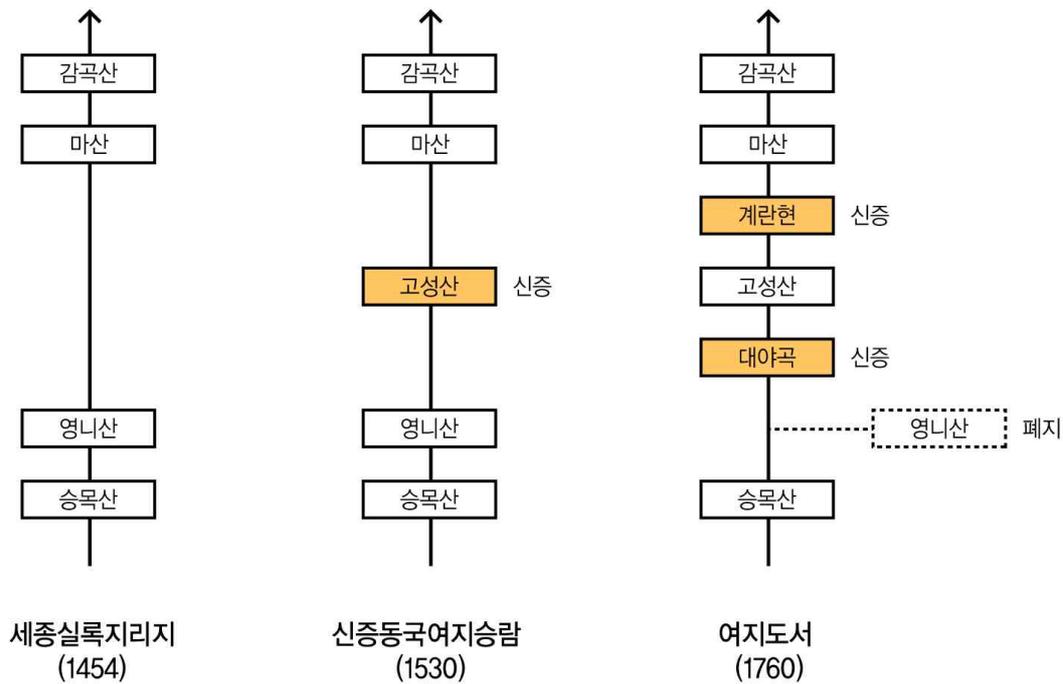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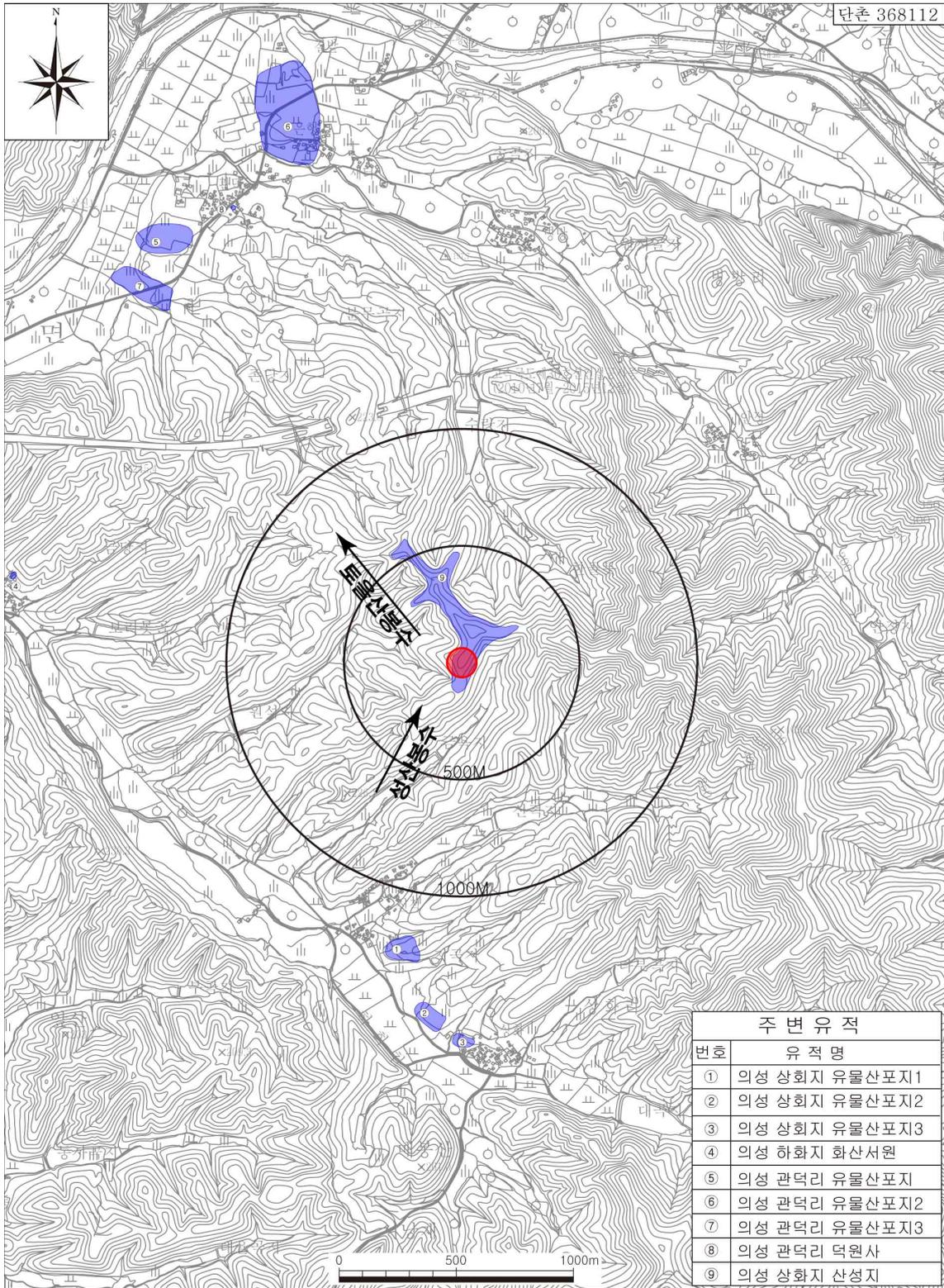


표 1. 의성지역의 제2거 직봉(直烽) 노선변화



지도 1. 2거 직봉 노선 내 계란현봉수 위치



지도 2. 계란현봉수대 위치도(S=1/25,000)

3) 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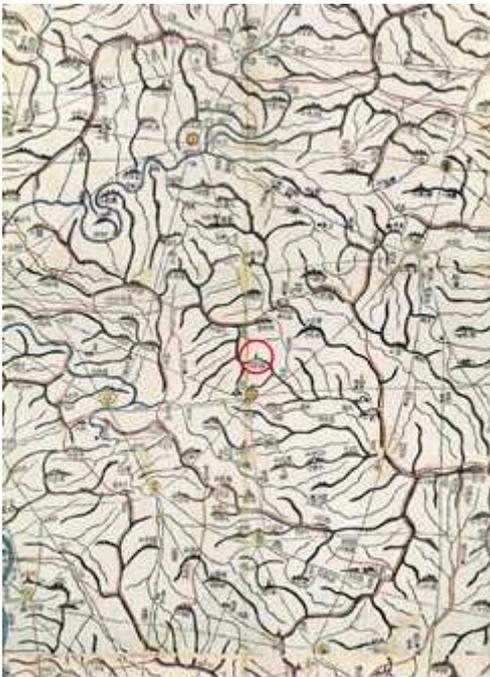
고지도 1. 『해동지도』 의성현



고지도 2. 『광여도』 의성현



고지도 3. 『지승』 의성현



고지도 4. 『대동여지도』(1861)



고지도 5.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5. 봉수운영

조선 후기 경상좌병사 소관이였다. 봉수군 인원은 『의성현지』(1787) 군병에 “봉군 500명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당시 의성현에 ‘마산(馬山)·고성산(古城山)·계란현(鷄卵峴)·대야곡(大也谷)·승원(蠅院)’ 등 5기의 봉수가 있었기에 각 봉수에 봉군 100명씩 속해 있었다. 그러나, 봉수군의 구성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봉수 운영 관련하여서는 『영남읍지』(1895)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 봉군 중에서 읍(邑)에 사는 사람 한 명을 도오장(都伍長, 오장의 우두머리)으로 정하여 병영 소관의 여러 가지 요구에 따라 부린다.
- 봉군(烽軍), 성정군(城丁軍)으로 새로 들어온 8인의 부표채(付標債, 문서에 신표를 부쳐 주면서 받는 돈)를 봉납한다. 각 영의 주인은 거두어 모아 보태서 사용한다.”¹⁾

6. 유구현황과 특징

1) 항공사진

계란현봉수대의 흔적이 관찰되는 항공사진은 1954년의 자료이다. 이 자료를 검토하면 타원형의 방호벽과 둥근형태의 연조가 관찰된다.

1) 『嶺南邑誌』第27冊, 「義城縣誌」義城縣事例 兵房色.



사진 3. 계란현봉수대 일원 항공사진(1954년)

2) 유구현황

(1) 방호벽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토·석의 방호벽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 지형상 동-서는 사면을 이루며 북쪽이 남쪽보다 약간 높다. 그리고 북쪽 방호벽 외부는 평탄지이다.

방호벽은 석축으로 허물어져 있는 남쪽을 제외하면 삼면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 축조 시 크고 작은 석재를 섞어 허튼층 상부들여쌓기 하였다. 방호벽 동쪽과 북쪽 일부는 일직선이며, 동북쪽은 호형이다. 내벽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데 높이는 동쪽 0.7m, 서쪽 1.1~1.4m, 북쪽 1.1~1.3m이다. 외벽의 석축 단수는 동쪽 5~8단, 서쪽과 북쪽 6~7단이다. 높이는 동쪽 0.7m, 서쪽 0.9~1.1m, 남쪽 1.1m, 북쪽 1.2~1.3m이다. 방호벽 외부의 각도는 동쪽 55°·68°, 서쪽 52°·58°·78°, 북쪽 54°~68°·76° 가량이다. 상부 원장지의 폭은 동쪽 1.4m, 서쪽 1.6~2m, 북쪽 1.3~1.6m로 서쪽이 넓은 편이다. 방호벽 내에는 북쪽에 치우쳐 토축 원형의 무연고 묘 1기가 남향한 채 안장되어 있다.

봉수대의 규모는 직경이 외부 동-서 19.5m, 남-북 26.5m로 장축과 단축 1.36:1의 비율이며, 둘레 92m 가량의 평균 규모 이상이다.

(2) 출입시설

출입시설은 방호벽이 허물어져 있는 남쪽으로 여겨지는데 형태가 뚜렷하지 않다.

(3) 연조

연조는 봉수대 내·외에서 이번 현장조사에서 3기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차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조1은 방호벽 내 동쪽에 치우쳐 석축 원형의 형태로 1단만 잔존한다. 직경은 1.3~1.6m이다.

연조2는 방호벽 내 동북쪽에 석축 원형의 형태이며, 직경은 1~1.5m이다. 남쪽 외부 석축의 높이는 0.5m이다. 연조1과는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있으며, 연조 기저부간 5m, 중심간 6.8m의 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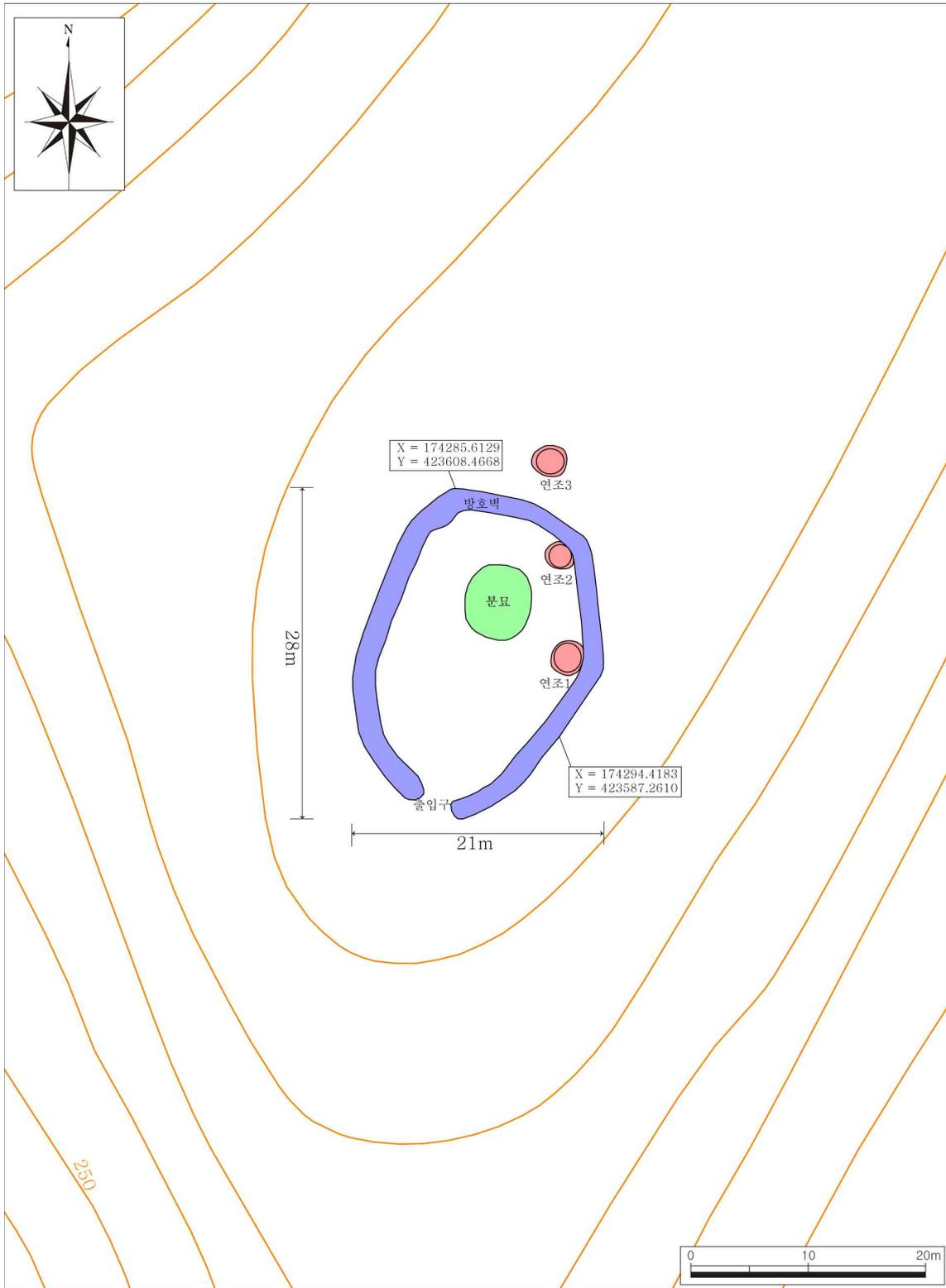
연조3은 방호벽 북쪽 외부와 1.9m의 거리에 석축 원형의 형태로 2단만 잔존한다. 내부는 석재가 깔려 있다. 직경은 1.5~1.6m로 3기의 연조 중 가장 온전하다. 연조2와는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있으며, 연조 기저부간 5m, 중심간 6.8m의 거리이다.

(4) 출토유물

방호벽 내에서 창해파문 평기와편과 수키와편, 자기편 등이 채집되었다.

(5) 특징

- 봉수대 내·외 3기의 연조가 확인된다.
- 내지봉수에서 연조를 갖춘 봉수는 드문 편인데, 이는 금번 조사대상인 울산 부로산봉수, 군위 승목산봉수, 영주 녹전산봉수, 용인 석성산봉수, 성남 천림산봉수에서도 확인된다.



도면 1. 계란현봉수대 현황도(S=1/400)

7. 지정가치와 근거기준

1) 역사적 가치가 높은 봉수이다.

- 조선시대 제2거 직봉 중 스물두번째 내지봉수이다.
- 조선 후기와 일제 강점기 발간 지지(地誌) 기록을 통해 봉수 한자표기의 차이를 통한 다양한 명칭 확인과 전·후 대응봉수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다.
- 조선 후기 발간의 『해동지도』와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등의 고지도(古地圖)에 빠짐없이 표기되어 있다.

2) 내지봉수로서 주변 교통로의 조망에 탁월한 입지이다.

- 과거 의성에서 안동으로 통하던 옛길을 관망하기 용이한 고개에 위치한다.
- 의성군 상화2리 신적마을에서 단촌면 병방리, 관덕리를 오갈 때 최단거리의 고갯길이다.

3) 조선후기에 새롭게 설치된 봉수

- 임진왜란 이후 봉수로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설치된 봉수로 조선전기부터 설치 운영된 봉수와 비교연구할 수 있고 새로운 봉수의 설치 배경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4) 계란현은 조선시대 지리사상 연구의 자료가 된다.

- 봉수이름 중에 계란산, 접포산(경주), 마산(충주) 등은 산 이름을 딴 것인데 이것은 조선시대 또는 그 이전의 풍수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어 당시 지리사상 연구에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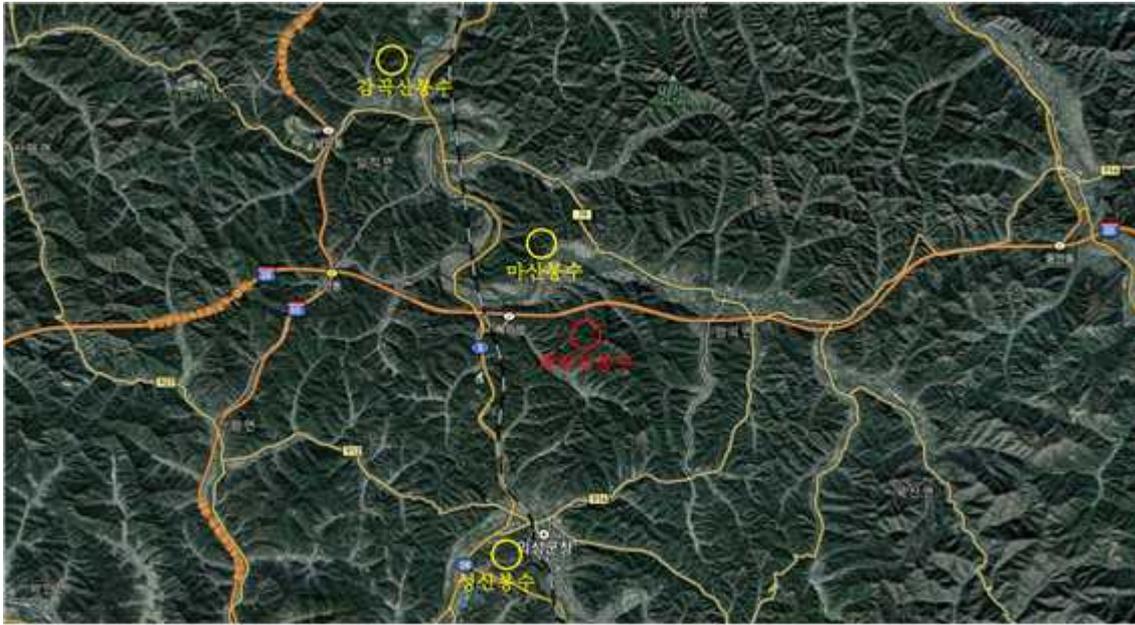


사진 10. 계란현봉수와 대응봉수



사진 11. 계란현봉수대와 의성현치소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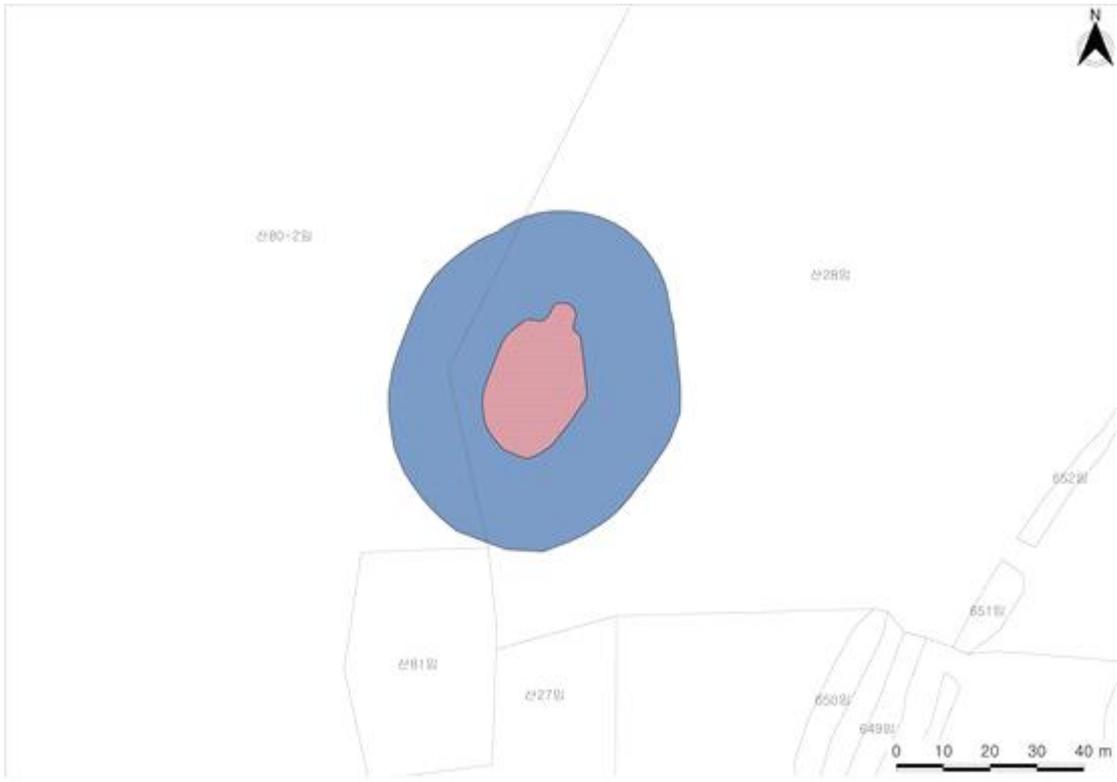
8. 지정대상과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 지정구역)

• 지정면적 : 2필지 / 3,552㎡(문화재 525㎡, 보호구역 3,027㎡)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건조물인 경우 (면적: m ²)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물면적(연면적,건축면적)수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525m 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의성군 단촌면 상화리	산28	임야	59,504	525							
계				59,504	525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3,027m 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의성군 단촌면 상화리	산28	임	59,504	2,197							
2	경북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산80-2	임	104,529	830							
계				164,033	3,027							



도면 2.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S=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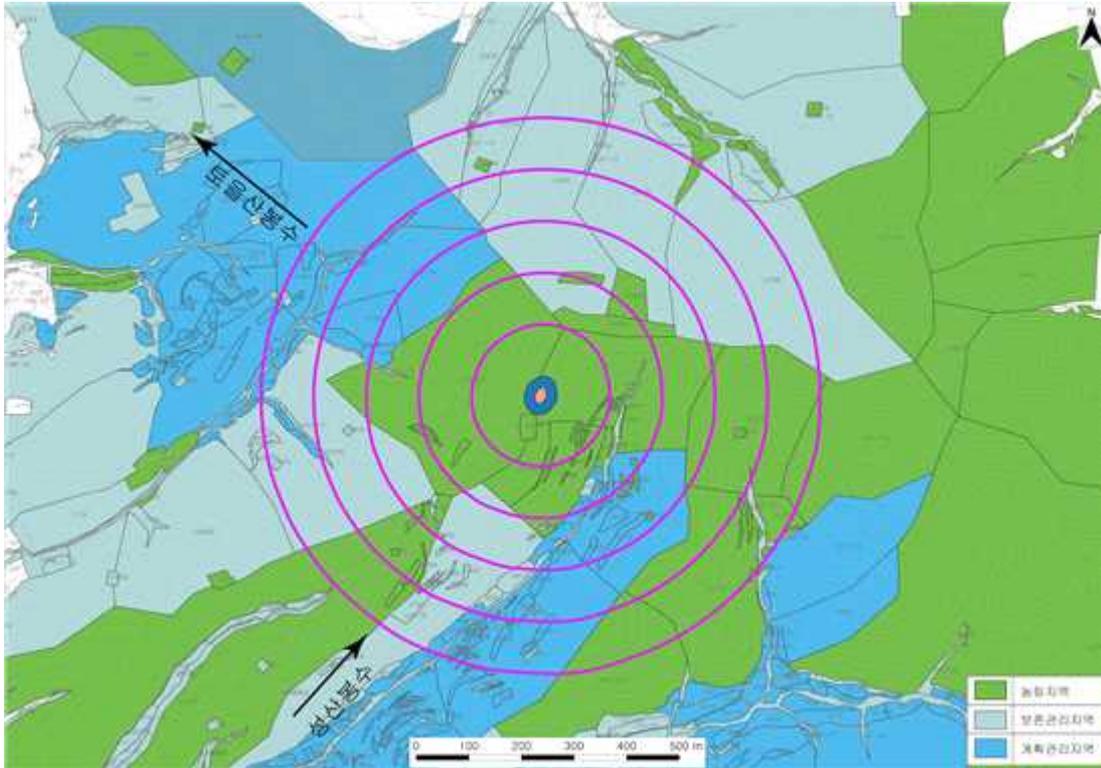
도면 3.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

9.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1) 검토의견

계란현봉수 전·후 대응노선 봉수의 방향을 고려한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

의성군	의성군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p>▣ 대상문화재 제2로 직봉 - 의성 계란현봉수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상화리 산28번지</p> <p>▣ 문화재 및 보호구역  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보호구역</p> <p>▣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간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p> <p>▣구역별 허용기준</p>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 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0. 보존·정비와 활용 착안사항

1) 기본구상

(1) 기본방향

① 기본원칙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1.6.10.] [법률 제17409호, 2020.6.9. 일부개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문화재청, 2002)

- 문화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문화재 활용은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사업의 소재로서 개발·활용하며,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육성한다.

『유적(遺蹟) 등 정비계획 수립·추진관련 고려사항』(문화재청, 2003)

- 가치(원형) 보존 최우선: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복원·정비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비를 지양하고, 유적의 가치와 역사적 숨결을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명확한 정비목표 수립: 유적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적 정비를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한다. 보존과 복원·정비되어야 할 것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 :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고, 유적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방향 설정

봉수대의 보존·정비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도모하고, 의성군의 역사문화관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동선체계 등 기반시설의 확충안을 수립한다.

- 봉수는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평안을 상징하는 1거의 햇불[平安火·太平火]을 올림으로서 과거 의성현과 인근 고을 백성들이 이를 바라보고 일상을 마무리하는 순기능도 있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의성군 소재 전체 아홉 개소 봉수의 보존·정비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봉수대의 잔존 방호벽과 연조 등의 역사적 실체를 보존·정비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시킨다.
-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활용되었던 봉수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정보통신 발달의 상징적 유적으로 보존·관리한다.
- 경상도와 충청도·경기도를 거쳐 최종 서울 목멱산봉수로 이어지는 내지봉수 체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원한다.

(2) 기본전제

① 잔존 봉수 유구의 보존과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

봉수대의 핵심요소인 거화시설(연조)와 방호시설(방호벽)을 대상으로 보존·정비하여 계란현봉수의 문화재적 가치가 표출되도록 한다.

② 역사문화자산 가치 증진 및 화제성 창출

과거 봉수제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던 당시에 봉수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봉수군과 봉수운영 관련된 기록과 내용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유적과 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화제성이 창출되도록 정비한다.

③ 대응봉수와의 조망을 위한 가시권 확보

계란현봉수는 인근 대응봉수와의 후망을 통해 의성현 지역과 고을 백성들에게 변경의 안위여부를 알리던 군사통신유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적 강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계획한다.

조선 후기에 최종 설정된 대응봉수인 성산봉수와 마산봉수와의 가시권 확보 외 봉수 주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식생이 양호한 기존의 자연경관 유지 방안을 제시한다.

④ 주연야화(晝煙夜火) 통신의 특징을 살린 ‘체험과 교육의 장’ 조성

햇불과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 소식을 전하였던 봉수의 특징을 감안하여 유적의 복원보다는 체험과 실연(實演)을 통한 거화의 과학적 원리를 교육한다.

기존의 진입로를 활용하여 최적의 보행환경과 교육적 기능을 갖춘 탐방로 조성을 통해 계란현봉수의 500여년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⑤ 실현가능한 세부추진사업 도출과 단계별 사업시행

의성군의 재정여건이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토지 매입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필요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3) 종합구상

① 추진사업 계획

역사적 실체 보존 사업을 실시한다.

- 식생정비(소목 간벌), 봉수 내부 잔디 식재 등 문화자원 연계 개발사업을 실시한다.
- 탐방로(봉수군 길) 정비, 스토리텔링 개발, 체험 프로그램 및 축제 개발, 봉수 C.I개발, 동선표지판·전망시설 및 망원경 설치 등을 진행한다.

다. 기반시설 구축사업

- 주변봉수와 읍성 등 주변지역의 관방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② 토지이용계획

봉수대 일원은 민간 소유의 임야로서,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상화리 산28에 소재하며 면적은 525㎡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토지대장, 2021.9.)

현재 계란현봉수대를 찾는 탐방객은 소수에 불과하고 상화2리 마을회관에서 봉수가 있는 곳까지 폭이 좁은 농로를 따라 진입하고 있다.

향후 제2거 직봉 노선 봉수의 사적지정이 확정되고 보존·정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 시 탐방객에게 보다 쾌적한 역사경관과 편리한 탐방환경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

③ 동선계획

본 계획에서는 봉수구역과 진입구역으로 나누고 각 공간별로 기능을 배분하였다. 특히, 진입구역에는 방문객이나 차량의 접근 동선과 관련된 공간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봉수대의 탐방동선은 기존에 조성된 농로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한다.

2) 보존과 정비활용계획

(1)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확대지정

① 향후, 제2거 직봉 노선의 봉수를 사적(史蹟)으로 승격 시 문화재지정구역의 확대 및 대응봉수간의 조망과 가시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계란현봉수를 중심으로 남동쪽의 성산봉수, 북쪽의 마산봉수를 잇는 조망과 이를 잇는 가시권 확보가 필요하다.

② 봉수대 주위의 수목을 선별적으로 간벌하여 대응봉수간 조망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③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확대는 기존 현상변경허용기준 적용구역의 확대를 수반한다. 인접 봉수간의 조망 확보를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아울러 보호구역 외곽 200m 정도는 1구역(개별 심의) 또는, 2구역<최고높이 8m이하(평지봉), 최고높이 12m이하(경사지봉)>으로 설정하여 역사문화 환경과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④ 진입로에서 봉수대의 원경을 볼 수 있도록 간벌 등을 통해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봉수군들이 이용했던 소로(진입로)는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이 길을 통한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2) 보존계획

① 봉수유적 보존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는 거화시설인 연조와 방호시설인 방호벽이 잔존하고 있으나,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후 13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봉수 내외 무성한 잡목으로 그 형태를 뚜렷하게 확인하기 곤란하다.
- 따라서, 과거 봉수대를 구성하였던 제반 요소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

비와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내용

- 과거 봉수대 운영당시의 모습대로 단계적으로 정비·복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조선시대 내지봉수의 형태와 기능을 학습·체험할 수 있는 역사교육 공간으로 조성한다.

다. 추진방법 및 절차

- 방호시설인 방호벽 주위 잡목을 간벌하고 방호벽 내부에는 잔디를 식재하여 보존한다.

② 수목 간벌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 내·외는 현재 무성한 수풀잡목으로 대응봉수와의 조망이 곤란하거나 유구 훼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적절한 간벌을 통하여 유적 보존 및 가시권(可視圈)을 확보한다.

나. 사업내용

- 현재 봉수대 주위와 내에는 수목이 들어차 있어 대응봉수의 조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목을 선별적으로 벌목하여 대응봉수인 성산봉수와 마산봉수에 대한 조망을 개선한다.

다. 추진방법

- 벌목작업은 봉수유구의 보존, 주변경관 조망, 봉수의 제반요소 관찰 등에 장애를 주는 수목부터 선별하여 실시한다.
- 봉수대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경관이 확보되도록 수목을 제거한다.
- 농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봉수대로 향하는 수목을 정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동선을 유도한다.

(3) 정비·활용계획

① 전망시설과 휴식공간 설치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의 정체성과 주요 기능은 대응봉수와의 시각적 연결에 있다. 현재, 봉수는 내·외부의 수목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제한적이고, 전체 봉수유구를 살펴 볼 수 없다. 조선시대 봉수는 대응봉수와의 조망과 주변 관찰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였으므로 이러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 주변 적당한 곳에 봉수의 전체 구조와 대응봉수, 주변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조선시대 봉수의 입지선정 원리를 체감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과 절차

- 전망시설은 봉수대 주변 시야가 가장 좋은 지점에 설치하되,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봉수의 역사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안내판에 대응봉수를 촬영한 사진을 표시하여 눈앞에 펼쳐진 전경과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망시설에는 망원경 등을 설치한다.
- 전망시설 하부나 주위에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방문객에게 휴식과 사색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② 봉수군 탐방로 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상화2리 농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봉수대로 이어지는 ‘봉수군 탐방로’를 조성하여 문화콘텐츠로 활용한다.

나. 사업내용

- 탐방로를 개설하고, 봉수 관련 이야기와 비품 등을 소개함으로써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과거 봉수의 기능과 운영 및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노변(路邊) 전시관 기능을 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

- 기존의 길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요 지점에는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고 벤치 등의 휴식시설을 도입한다.
- 안내판의 내용은 『영남진사례』(1894) 「안동진사례 순치십년계사설」(효종 4년, 1653) 중기 의성에 용례가 있는 안동진 소관 의성 5봉대 집물 85종의 물목을 토대로 봉수운영에 필요한 비치물목상의 거화재료나 생활비품 등을 선별하여 사진자료와 함께 해설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義城五烽臺什物

烟臺 五, 烟窟 二十五, 火望德 五, 火箭 四十五箇, 長箭 五部, 片箭 五部, 弓子 五部, 桶兒 五部, 環刀 五部, 大白旗 五面, 火藥 一百斤二兩, 鳥銃 五柄, 火繩 五沙里, 木斧子 一百柄, 戰角 五, 火鐵 十箇, 方牌 三十坐, 鉛丸 一百五十箇, 木角 二十五箇, 鎌子 五十箇, 水瓮 十坐, 條所 十五沙里, 梭杖 一百箇, 古月來 七十五箇, 前梯 五, 無梭石 二十五, 同火注里 五十訥, 種火盆 五, 滅火器 二十五坐, 水槽 五坐, 松炬 二百二十五柄, 桐炬 十五柄, 積柴 七十五訥, 炬草 二十五訥, 轎注里 十巨里, 炭 四十石, 紬絲 二十五石, 糟糠 二十五石, 吐木 二十五訥 又 二十五訥, 馬屎 二十五石, 草炬 二十五訥, 假家 十間, 几 十坐, 待變糧 十五石, 食鼎 五坐, 接是 五竹, 盤 二十五立, 匙 二十五立, 水瓮 二十五坐, 瓢子 二十五坐, 柳器 五部, 草席 十五立, 空石 十五立, 斧 五箇, 懸瓢子 二十五箇, 鳥卵 二十五石, 水盆 五坐, 牛屎 二十五石, 爐口 二坐, 南飛蓋 五箇, 耳藥桶 五箇, 藥桶 五百五十箇, 藥繩 五箇, 梭鉛 一百箇, 挾刀 五柄, 鑽穴 五箇, 錐 五箇, 火箭正藥鐵 十片, 細繩 五十沙里, 升旗箭 九十箇, 錘 五面, 鼓 五坐, 三穴銃 五柄, 掩心掩頭 各五件, 火綿 五, 橫 五坐, 火石 五十箇, 紅旗 五面, 青旗 五面, 黃旗 五面, 生松 五訥, 株木核子 無數完植, 槽通 二十五坐, 黑旗 五面.

(『嶺南鎮事例』(1894) 「安東鎮事例 順治十年癸巳設」 重記)

(4) 봉수 거화(擧火) 실연(實演) 행사

① 추진배경과 목표

봉수는 연기[주간]와 불[야간]로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시설인 만큼 실제 거화(擧火)나 거연(擧煙) 같은 실연(實演)행사의 실시를 통해 선조들의 봉수운영 원리를 체득하게 한다.

② 사업내용

연기와 불이라는 시각신호로 변경의 안위여부를 전달하였던 봉수의 연조 형태와 구조, 거화재료의 종류와 배합 등을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이 실증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크기의 연조를 제작한 후 실연(實演)행사를 연 중 개최한다.

③ 추진방법과 절차

가. 먼저 실연행사를 할 수 있는 연조(煙竈)를 제작하되 설치장소는 행사 시 화재 발생이나 유구 훼손에 대비하여 유적과 일정거리 떨어진 곳으로 한다.

나. 거화재료[燬]는 의성 5봉대 집물의 비치물목 목록을 참고하여 준비하고 전통 방식에 따라 제작한 후 사용한다. 행사의 진행은 지역 문화단체가 담당하고 연중 개최시기는 ‘신년, 정월대보름, 8·15광복절, 의성군민의 날’ 중 의미있는 날을 정하여 개최하도록 한다.

(5) 관리운영계획

① 관리운영 주체

의성군에서 관리

(경북문화재단 등 문화재 관리 기관에 위탁관리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 목표

- 가. 계란현봉수대의 보존과 유지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
- 나. 탐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도모
- 다. 계란현봉수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의 극대화
- 라. 유적의 학술적 가치 극대화와 신규 문헌 발굴 등

③ 관리운영사항

- 가. 봉수대 유적
 - 계란현봉수대 일원
 - 계란현봉수대 주변 탐방로 등
- 나. 자연환경
 - 계란현봉수대 주변 수목 및 지형
 - 주변 생태환경, 녹지 등
- 다. 시설물
 - 탐방로, 전망시설 등
 - 안내판, 방향지시판, 휴게시설 등
 -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 라. 탐방객을 위한 서비스
 - 홍보, 해설, 전시, 축제행사 등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④ 사업 추진절차

가. 문화재지정구역 및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는 먼저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발굴(시굴)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한 후 도출된 발굴결과에 따라 정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입 → 발굴 → 정비’의 순이다. 계란현봉수는 정식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비단계에 따르면 대상지가 안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복원·정비의 단계를 결정한다.

나. 매입 단계는 정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국·공유지화 하는 단계로서 대상지의 지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 파악과 매입에 예상되는 비용 및 매입의 원활성을 판단하여 정비의 선후를 결정한다.

⑤ 순차별 사업계획

가. 봉수대의 보존·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체 사업비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초기 2년의 정비를 단기정비로 설정하고 이후의 계획 중 우선시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기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단기사업은 정비사업의 기간 및 지자체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나. 보존·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추진 절차, 시급성, 사업비,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다. 봉수대 보존과 주변정비사업은 방호벽과 연조 정비, 식생정비[간벌 등], 전망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정비사업의 원칙은 유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선정한다.

라.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편리하고 쾌적한 출입 및 동선체계 구축을 위한 진입로 정비사업을 단기에 시행하

고 관광 역량 제고를 위한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은 중기에 진행한다.

마. 이들 추진사업은 의성군의 정책 순위 변경과 주민들의 요구도, 제반 상황변화에 따라 추진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1. 종합의견

- 1) 의성 계란현봉수는 조선시대 전체 5거노선의 봉수 체계에서, 부산 응봉봉수에서 초기하는 제2거 직봉의 스물두번째 내지봉수로서, 방호벽은 석축이 일부 허물어져 있지만 잔존상태가 양호하며, 연조 3기가 신규로 확인되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 2) 계란현봉수는 조선 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1760)부터 『증보문헌비고』(1908)까지 각종 지지에 등재되어 있고 제2거 직봉 노선의 주요 봉수다. 즉 조선시대 후기에 새롭게 설치된 봉수로 그 의의가 크고 당시 관방체계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봉수로 평가된다.
- 3) 의성지역은 교통과 봉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충지였다. 부산 응봉봉수에서 초기한 직봉의 여러 봉수들이 차차거화(次次擧火)를 통해 서북상하는 고개변에 위치하고 있다.
- 4) 봉수는 단일 유적보다는 통신체계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 노선별 주요봉수, 잔존상태, 역사성, 지정번호 부여방식 결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적지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문화재 종류

1) 사적

- 부산 다대포 응봉봉수(鷹峰烽燧)에서 초기(初起)하는 제2거 직봉노선의 다섯 번째 내지봉수인 ‘양산 위천봉수유적(梁山 渭川烽燧遺跡)’을 같은 노선의 봉수와 연계하여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 위천봉수는 ‘양산 원적산봉수대(梁山 圓寂山烽燧臺)’라는 이름으로 현재 경상남도 기념물 제118호로 지정되어 있다.

2. 문화재 명칭

1) 문화재명 : 제2로 직봉 - 양산 위천봉수유적(第2路 直烽 - 梁山 渭川烽燧遺跡)

- 봉수유적은 연속유산으로서 노선 단위 지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정명칭은 “본 명칭 - 부 명칭”의 형식으로 부여토록 한다. 여기서 본 명칭은 대표성이 높으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2로 직봉(第2路 直烽)”으로 한다.
- 부 명칭은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라 봉수명칭 앞에 현 행정구역 소재지인 ‘양산(梁山)’을 표기한다.
- 봉수명칭은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이후 조선 최후기 봉수망을 알 수 있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의 명칭과 한자표기를 따라 ‘위천봉수유적(渭川烽燧遺跡)’으로 표기한다.
- 따라서, 현재 ‘양산 원적산봉수대(梁山 圓寂山烽燧臺)’의 명칭으로 시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최종 봉수명칭은 ‘제2로 직봉 - 양산 위천봉수유적(第2路 直烽 - 梁山 渭川烽燧遺跡)’(이하 ‘위천봉수’라 한다)이 사적 지정 명칭으로 적절한 것이라 판단된다.

2) 명칭유래

- “부로이봉화(夫老伊烽火)는 남으로 양산 원적산봉화와 서로 겨룬다. 양산군의 북산봉화는 남으로 동래 계명산과 서로 겨룬다.” 『경상도속찬지리지(1469)』
- “원적산봉수는 남으로 동래현 계명산에 응하고 북으로 연양현 부로산에 응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 “원적산 봉수는 양산군 북쪽 20리에 있다.” 『양산군읍지(1786)』
- “위천봉대 창고가 하나이다.” 『양산군읍지(1899)』
- “위천(渭川)은 양산에 있다.” 『증보문헌비고(1908)』

위 사료의 내용처럼 ‘원적산봉수·북산봉화·위천봉대’ 등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던 봉수다. 『신증동국여지승

람』 양산군 산천조에서는 ‘원적산은 군의 북쪽 20리에 있는데, 천성산 또는 소금강산으로 부른다.’라고 하였다. 아름다운 경치로 인해, 소금강산이라고 불렀다. 원적산 소금강 계곡에 내원사를 세운 원효대사가 원적산 정상 부근의 넓은 평전에 법단을 마련하고 설법을 통해 천 명의 대중을 성불시켰다고 하여 천성산으로도 불렀다고 한다. 원적(圓寂), 내원사(內院寺), 천성산(千聖山) 등의 명칭을 고려할 때, 원적산은 원효대사 포교와 관련된 산명이다.

역원과 봉수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우천, 연무 등으로 봉수 신호가 단절될 때는 봉수군이 대응봉수로 직접 달려가 알리는[馳準] 계 봉수 제도다. 봉수군이 다음 봉수로 치준해야 할 때는 봉수대 아래에 있는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위천역(渭川驛)’ 역마를 이용할 수 있고, 변경에서 경보가 전해올 때는 역을 통해 대중에게 알리고 소속된 군읍과 영진에 보고한다. 원적산봉수대를 위천역 부근에 있는 봉대, 즉 ‘위천봉대’로 부르게 된 것이다.

원적산봉수는 양산군 읍치의 북쪽 10km 거리에 있다. 이곳에서 매일 저녁에 평안화 1개를 양산군 읍치에 전한다. 이러한 지리적 이유로 ‘양산군 읍치의 북쪽 산에 있는 봉수’, ‘북산봉수’로 불리게 된 것이다.

3. 양산지역의 봉수현황과 성격

- 양산 지역에는 위천봉수 1기만 소재하고 있다. 봉수의 성격에 의한 구분상 육지 내륙 소재의 내지봉수(內地烽燧)로 『경상도속찬지리지』에 처음으로 올라 있다. 조선초기 양산지역에는 봉수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세조연간에 봉수노선의 조정을 거쳐 새롭게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4. 위천봉수의 입지와 연혁

1) 입지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산20-5번지 일원의 해발 315m인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양산시 상북면사무소 뒷편으로 난 임도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봉수대에 다다른다.



사진 1. 위천봉수대에서 본 양산읍성



사진 2. 양산읍성에서 본 위천봉수대

2) 연혁

위천봉수의 최초 지지기록은 『경상도속찬지리지』부터다. 다른 봉수와 달리 『여지도서』(1760) 이후 『영남읍지』(1895)에 봉수운영과 관련된 총 80여종의 각종 비품이 표기되어 있다. 이는 봉수운영에서 별도로 다루고자 생략하였다. 문헌별 지지의 기록을 발간연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慶尙道續撰地理誌』(1469) 慶州道 梁山郡
烟臺烽火 郡北山烽火 南與東萊鷄鳴山烽火相准 北與彥陽南山烽火相准
연대봉화는 군의 북산봉화다. 남으로 동래 계명산봉화와 서로 겨누고, 북으로 언양 남산봉화와 서로 겨눈다.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卷22, 慶尙道 梁山郡 烽燧
圓寂山烽燧 南應東萊縣鷄鳴山 北應彥陽縣夫老山
원적산봉수는 남으로 동래현 계명산에 응하고, 북으로 언양 부로산에 응한다.
- 『輿地圖書』下(補遺) 慶尙道 「梁山郡邑誌」(1760) 烽燧
渭川烽臺 一庫 自官門外子方位北距二十里 卯坐西向 南自東來鷄鳴山烽燧四十里來準 北至彥陽夫老山烽燧四十里去
應 別將一人 監考一人 軍百名 煙臺一 (이하 생략)
위천봉대 1고는 관문 밖으로부터 정북 방향인데 거리는 20리다. 묘좌유향(정동 방향을 등지고, 정서 방향을 바라본다)이다. 남쪽으로 동래 계명산봉수로부터 40리를 와서 겨눈다. 북으로 언양 부로산봉수에 40리를 가서 응한다. 별장 1인, 감고 1인, 군 100명, 연대 1(이하 생략).
- 『梁山郡邑誌』(1786) 烽燧
圓寂山烽燧 在郡北二十里 南應東萊鷄鳴山 北應彥陽夫老山
원적산봉수는 군의 북쪽 20리에 있다. 남으로 동래현 계명산에 응하고, 북으로 언양 부로산에 응한다.
- 『慶尙道邑誌』 第15冊, 「梁山郡邑誌」(1832) 烽燧
渭川烽臺 一庫 自官門外子方位北距二十里 卯坐西向 南自東來鷄鳴山烽燧四十里來準 北至彥陽夫老山烽燧四十里去
應 別將一人 監考一人 軍百名 煙臺一 (이하 생략)
위천봉대 1고는 관문 밖으로부터 정북 방향인데 거리는 20리다. 묘좌유향이다. 남으로 동래 계명산봉수로부터 40리를 와서 겨눈다. 북으로 언양 부로산봉수에 40리를 가서 응한다. 별장 1인, 감고 1인, 군 100명, 연대 1(이하 생략).
- 『大東地志』(1864) 卷7, 慶尙道 15邑 梁山 烽燧
渭川山 北二十一里
위천산은 북쪽 21리이다.
- 『嶺南邑誌』 第15冊, 「梁山郡邑誌」(1871) 烽燧
渭川烽臺 一庫 自官門外子方位北距二十里 卯坐西向 南自東來鷄鳴山烽燧四十里來準 北至彥陽夫老山烽燧四十里去
應 別將一人 監考一人 軍百名 煙臺一 (이하 생략)
위천봉대 1고는 관문 밖으로부터 정북 방향인데 거리는 20리다. 묘좌유향이다. 남으로 동래 계명산봉수로부터 40리를 와서 겨눈다. 북으로 언양 부로산봉수에 40리를 가서 응한다. 별장 1인, 감고 1인, 군 100명, 연대 1(이하 생략).
- 『嶺南邑誌』 第7冊, 「梁山郡邑誌」(1895) 烽燧
渭川烽臺 一庫 自官門外子方位北距二十里 卯坐西向 南自東來鷄鳴山烽燧四十里來準 北至彥陽夫老山烽燧四十里去
應 別將一人 監考一人 軍百名 煙臺一 (이하 생략)
위천봉대 1고는 관문 밖으로부터 정북 방향인데 거리는 20리다. 묘좌유향이다. 남으로 동래 계명산봉수로부터 40리를 와서 겨눈다. 북으로 언양 부로산봉수에 40리를 가서 응한다. 별장 1인, 감고 1인, 군 100명, 연대 1(이하 생략).
- 『嶺南邑誌』 第7冊, 「梁山郡邑誌」(1895) 烽燧
渭川烽臺 一庫 在郡北距二十里 許子方位 別將一人 監官一人 軍一百名 排番等節 別將舉行事
위천봉대 1고는 군의 북쪽 20리 정북 방향에 있다. 감관 1인, 군 100명이다. 번을 배치하는 등의 절차는 별장이 행할 일이다.
- 『梁山郡邑誌』(1899) 烽燧
渭川烽臺 一庫 自官門外子方位北距二十里 卯坐西向 南自東來鷄鳴山烽燧四十里來準 北至彥陽夫老山烽燧四十里去

應 別將一人 監考一人 軍百名

위천봉대 1고는 관문 밖으로부터 정북 방향인데 거리는 20리다. 묘좌유향이다. 남으로 동래 계명산봉수로부터 40리를 와서 거른다. 북으로 언양 부로산봉수에 40리를 가서 응한다. 별장 1인, 감고 1인, 군 100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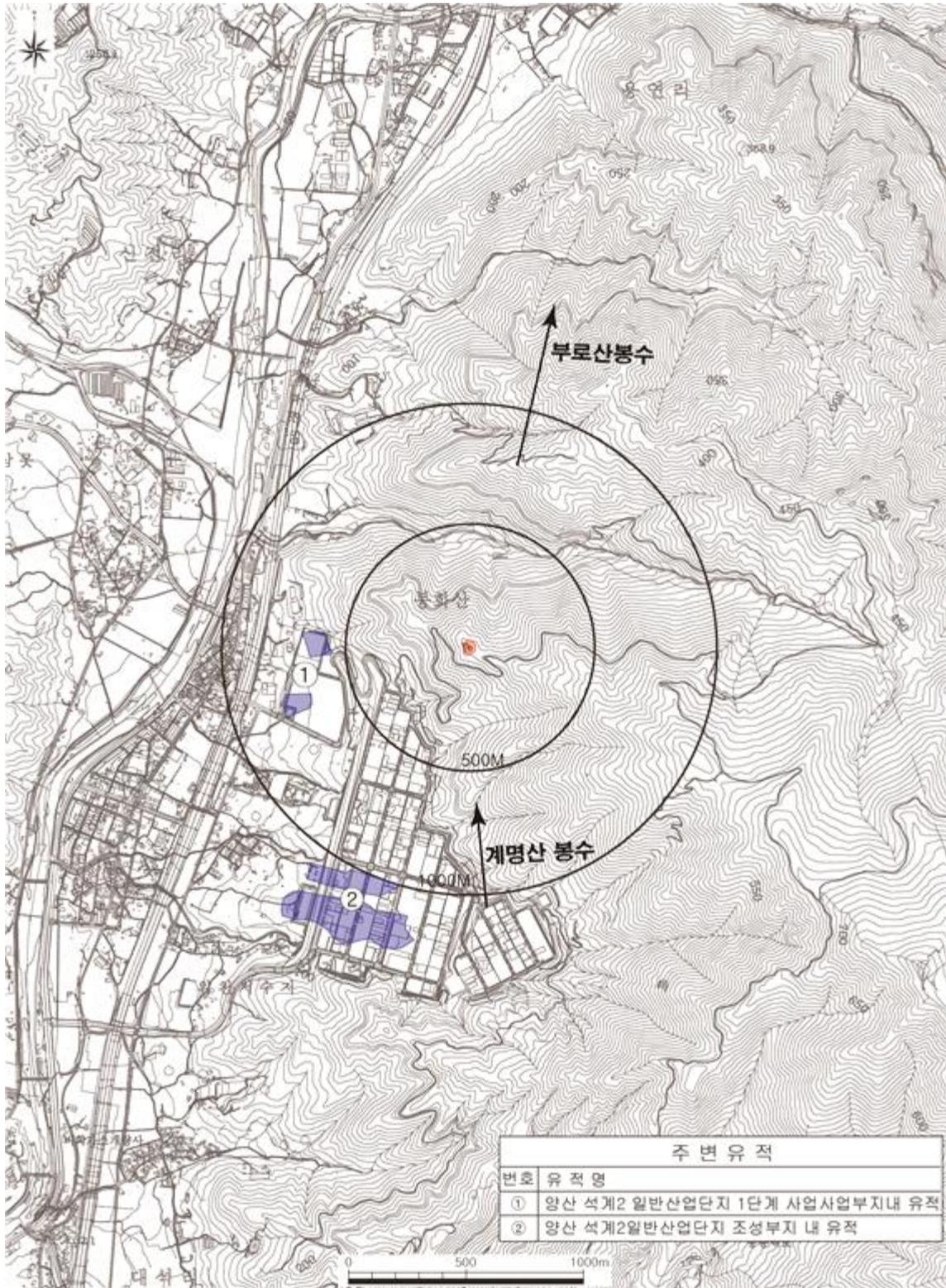
- 『增補文獻備考』(1908) 卷124, 兵考16 烽燧2

初起 鷹峰(多大浦鎮) -- (中略) -- 渭川(興覽作 圓寂山) -- (中略) -- 第 2炬準 天臨山

초기 응봉(다대포진) -- (중략) -- 위천(여지승람에는 원적산이라 하였다.) -- (중략) -- 제2 거는 천림산에 준한다.



지도 1. 2거 직봉 노선 내 위천봉수 위치



지도 2. 위천봉수대 위치도(S=1/25,000)

3) 고지도

다양한 고지도에서 위천봉수를 확인할 수 있다. 『해동지도』 양산군조에 위천봉수가 있는데, 양산군 봉수는 위천봉수 1곳뿐이다. 양산읍성의 북쪽 상북면에서 언양으로 이어지는 도로변 구릉에 위천봉대(渭川烽臺)라고 표기되어 있다. 봉대기록에는 ‘동쪽으로 동래 계명산봉수에 응하고 북쪽으로 언양 부로산봉수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다. 위천봉대의 북쪽에는 원적산(圓寂山), 대둔봉산(大苳封山), 대둔사(大苳寺)가 위치한다.

1872년 『지방지도』에는 위천봉대(渭川烽臺) 주변이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원적산의 중턱에 가옥이 그려져 있고, 이 가옥 옆에 봉대(烽臺)라고 표기되어 있다. 봉대(烽臺) 아래쪽에 위천, 소석, 두창, 중방, 구창 등의 마을이 위치한다. 위천마을에 두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천역 근처가 아닌가 한다.

『대동여지도』의 위천봉수는 양산읍성의 북쪽에 위치한다. 양산읍성의 서쪽에 황산역(黃山驛), 북쪽에 위천역(渭川驛)이 있다. 위천봉수는 위천역 도로변의 서쪽의 낮은 구릉에 있고 동쪽 맞은 편에 원적산(圓寂山)이 있다. 『대동여지도』는 위천봉수와 위천역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고지도라 할 수 있다.

5. 봉수 운영

○ 조선 후기 경상좌병사 소관이였다. 봉수군 인원은 ‘별장 1인, 감고 1인, 군 100명’으로 구성되어 교대로 번(番)번 서면서 봉수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운영 관련하여 드물게 『여지도서』(1760)부터 『경상도읍지』(1832), 『영남읍지』(1872·1895)까지의 대부분 지지에 80여종의 비치물품이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다. 이 중 『여지도서』의 봉수운영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輿地圖書』下(補遺) 慶尙道「梁山郡邑誌」(1760) 烽燧

渭川烽臺 一庫 自官門外子方位北距二十里 卯坐西向 南自東萊鷄鳴山烽燧四十里來準 北至彥陽夫老山烽燧四十里去 應 別將一人 監考一人 軍百名 煙臺一 煙窟五 火德一 望德一 火箭九箇 唐火箭九箇 長箭五部 片箭一部 弓子一張 桶兒一 還刀二柄 槍一柄 烏銃二柄 藥升一 大白旗一面 火藥五兩 火繩一沙里 戰角一 木斧子二十柄 防牌六 鉛丸三十箇 火鐵二箇 火石二箇 火桶五 鎌子五柄 條所三件 里 棧杖二十箇 古月羅十五箇 法首木五箇 前梯一 食鼎一 坐 待邊糧一 石 草席五立 柳器二部 瓢子五 水瓮五坐 盤五立 匙五指 接匙一竹 沙鉢五立 爐口一坐 無稜石五訥 同花注乙五件 里 種火盆五坐 滅火器五 水槽六 柎炬五十柄 松炬五十柄 同炬三柄 積柴五訥 土木五訥 煙草五訥 橋注乙一件 里 炭五石 灰五石 細沙五石 槽糠五石 草炬五十柄 槽桶五 艾五同 馬糞五石 牛糞五石 瓦家二間 庫舍二間 空石十立 斧子一柄 縣瓢五 釜子一坐 抹木無定數 三穴銃一柄 校子弓一張 掩心一坐 俺頭一坐 紙甲冑一 鐵甲冑一 五色表旗五面 鑰錘一小鼓一 橫子一坐

(위천봉대 창고는 하나이다. 관문 밖으로부터 정북 방향인데 거리는 20리다. 묘좌유향(정동 방향을 등지고, 정서 방향을 바라본다)이다. 남쪽으로 동래 계명산봉수로부터 40리를 와서 겨눈다. 북으로 언양 부로산봉수에 40리를 가서 응한다. 별장 1인, 감고 1인, 군 100명, 연대 1, 연굴 5, 망덕 1, 화전 9개, 당화전 9개, 장전 5부, 편전 1부, 활 1장, 통아 1, 환도 2자루, 창 1자루, 조총 2자루, 약승 1, 대백기 1면, 화약 5량, 화승 1사리, 전각 1, 목부자 25자루, 방패 6, 연환 30개, 화철 2개, 화석 2개, 화통 5, 낫 5자루, 밧줄 3거리, 능장 20개, 고월라 15개, 범수목 5개, 사다리 1, 술 1좌, 비상식량 1석, 돛자리 5립, 버들고리 2부, 물통 5좌, 반 5립, 손가락 5지, 접시 1죽, 사발 5립, 노구 1좌, 무릎석 5늘, 동앗줄 5거리, 종화분 5좌, 멸화기 5, 물통 6, 싸리나무 화 50자루, 솔화 50자루, 큰 화 3자루, 멜나무 5늘, 나무토막 5늘, 연초 5늘, 교줄 1거리, 숯 5석, 재 5석, 가는 모래 6석, 왕겨 5석, 초겨 50자루, 물통 5, 쭉 5동, 말뚝 5석, 쇠펝 5석. 가옥 2칸, 고사 2칸, 빈 가마니 10립, 도끼 1자루, 표주박 5, 술 1좌, 말목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삼혈총 1자루, 교자궁 1장, 엄심 1좌, 엄두 1좌, 지갑주 1, 철갑주 1, 오색표기 5면, 징 1, 작은 북 1, 횡자 1좌)

6. 위천봉수 적간

조선시대 봉수의 적간은 수령의 고과에 반영되었다. 이는 정약용(丁若鏞: 62~1836)이 『여유당전서』에서 옥당(홍문관)에 있을 때 관리들의 승진점수를 매기는 항목을 나열한 고과조례 과목의 여섯 번째 ‘기왓무비(己曰武備)’를 통해 알 수 있다.¹⁾

이를 반영하듯 이만도(李晩燾: 1842~1910)의 『향산일기』에는 고종 14년(1877) 9월 7일, 공이 양산군수로 재직할 때 ‘위천봉대를 적간하였다.’라고 한 내용이 있다.²⁾

7. 유구현황과 특징

1) 항공사진

- 봉수대가 폐지되고 난 이후 촬영된 항공사진은 1954년 사진이 있다. 이 사진을 보면, 방호벽이 남아 있다. 그러나 주변 일대는 관리되지 않아 잡목이 많으며, 훼손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후의 항공사진들은 수목이 우거져 봉수대를 찾을 수 없다.

1) 己曰武備 軍器 教鍊 簽丁 徵布 戢盜 捉虎 烽火 藏鹽 蓄銅 鐵奇木 (『與猶堂全書』文集 卷9, 疎, 玉堂進考課條例劄子, 考課條例, 科目, 「옥당진고과조례차자」는 정약용 선생이 지방관의 실적을 고과하는 조례에 대해 올린 글로서 율기를 기본으로 자목·시적·호적·전정·문교·무비·형옥·공선을 과목으로 하였다.)

2) 『響山日記』 丁丑 九月 小癸 丑朔, 七日 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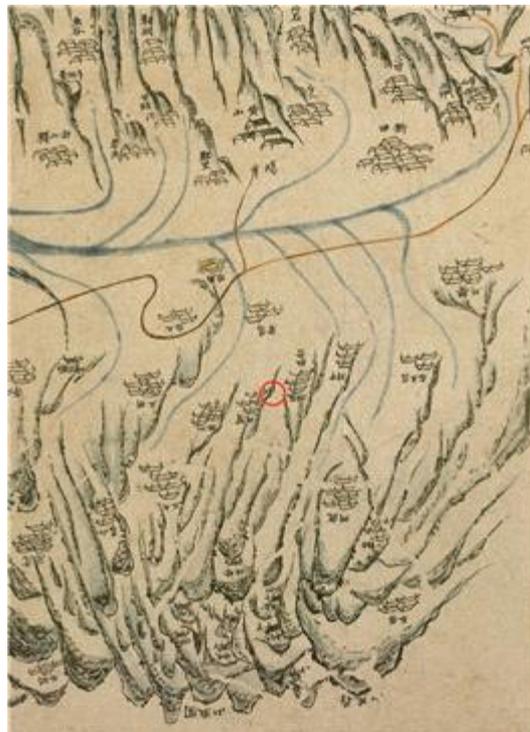
고지도 2. 『광여도』 양산군



고지도 3. 『지승』 양산군



고지도 4. 『대동여지도』(1861)



고지도 5.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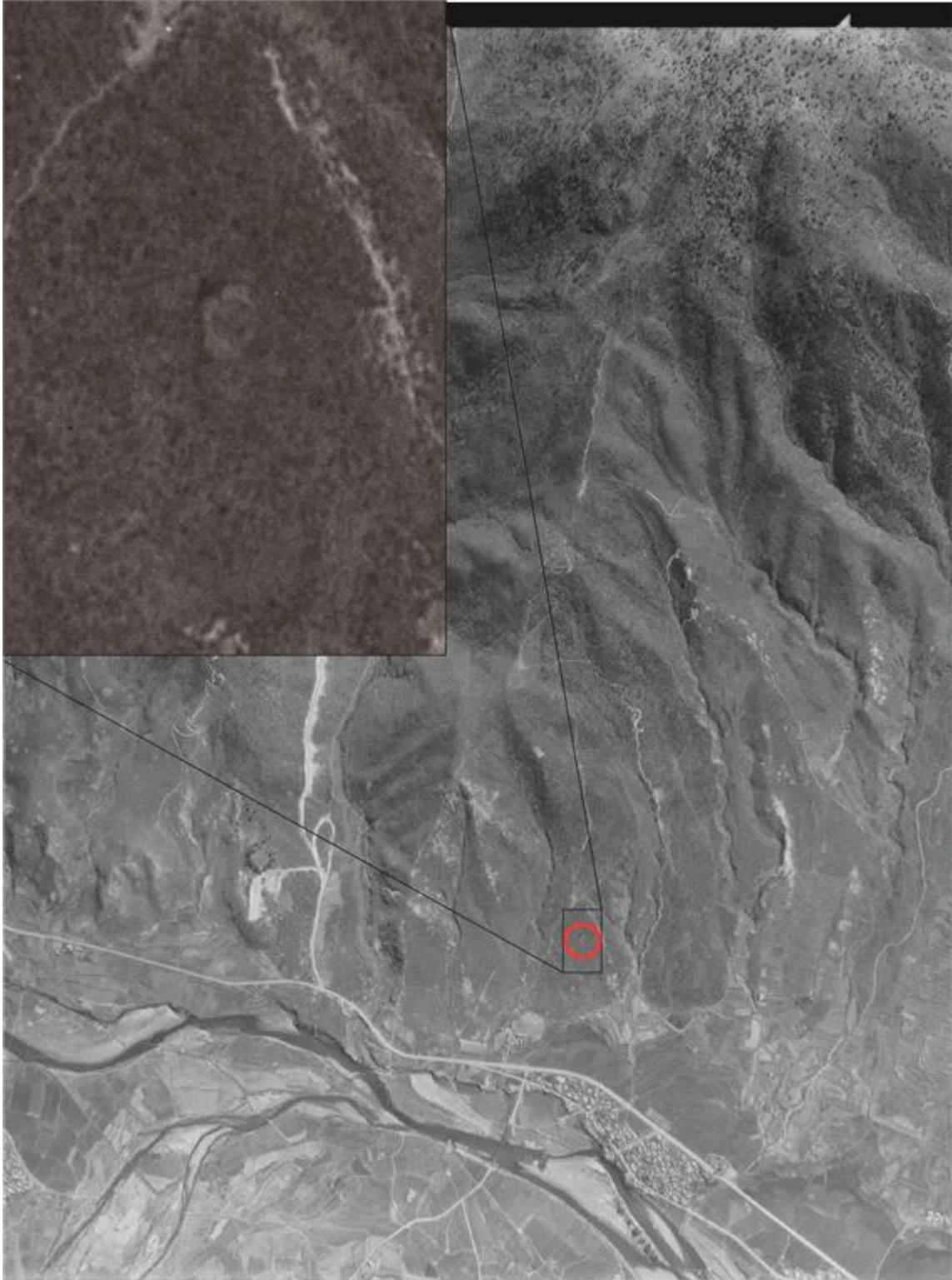


사진 3. 위천봉수대 일원 항공사진(1954년)

2) 유구현황

(1) 정비·복원상태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의 동쪽에 위치한 천성산 정상에서 북서 방향을 뺀 내린 능선이 잠시 멈춰선 해발 315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이 봉수대는 1991년 「원적산봉수대보존회(圓寂山烽燧臺保存會)」에 의해 복원을 위한 자료 수집차원에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복원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연조는 5기가 복원되어 있고 방호벽과 방화장, 출입시설, 고사 등이 정비되어 있다. 이 중 연조 5기는 화성봉 돈을 모델로 하여 복원되었으며, 연조 간 간격이 너무 좁아 거연(擧煙)시 대응봉수에서의 식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조사내용

봉수대 전체 면적은 603㎡이다. 봉수대는 거화시설과 생활시설이 방호벽과 방화벽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체 면적 중 거화시설 면적은 263.1㎡, 생활시설의 면적은 206.8㎡이고 나머지 면적은 봉수대 잔여부분이다.

복원 전 기초조사를 통해 밝혀진 봉수대의 구조와 축조수법은 동-서 장축의 할석으로 쌓은 주변 석축이 있고 정상부인 동쪽은 둥글게 쌓아 그 속에 와가(瓦家)와 고사(庫舍)를, 그리고 서쪽은 능선 정상부를 따라 경사지게 장방형으로 쌓고 그 속에 화덕을 배치하였다. 건물지가 자리하고 있는 정상부는 주변에 타원형 석축이 둘러져 있는데, 남쪽부분의 경우 바깥쪽 227cm, 안쪽 90cm 높이이고, 그 폭은 170cm이다. 입구는 서남쪽에 있으며, 높이 100cm, 폭 105cm 정도 크기이고 문이 있던 흔적은 없다.

와가(瓦家)는 서향이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 건물지인데 조사 당시 축대와 초석이 남아 있었다. 방은 온돌을 사용하였고 지붕은 기와를 덮었으며 맞배지붕일 가능성이 높다. 화덕지는 대지의 서쪽 끝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 길이 300cm, 폭 200cm, 깊이 55cm 크기의 장방형 수혈이다. 그밖에 봉수대 주변 석축에서 10m 둘레의 낮은 곳에 토석 흔적이 보이는데, 당시 그 위에는 목책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진 4. 건물지(원적산봉수대보존회,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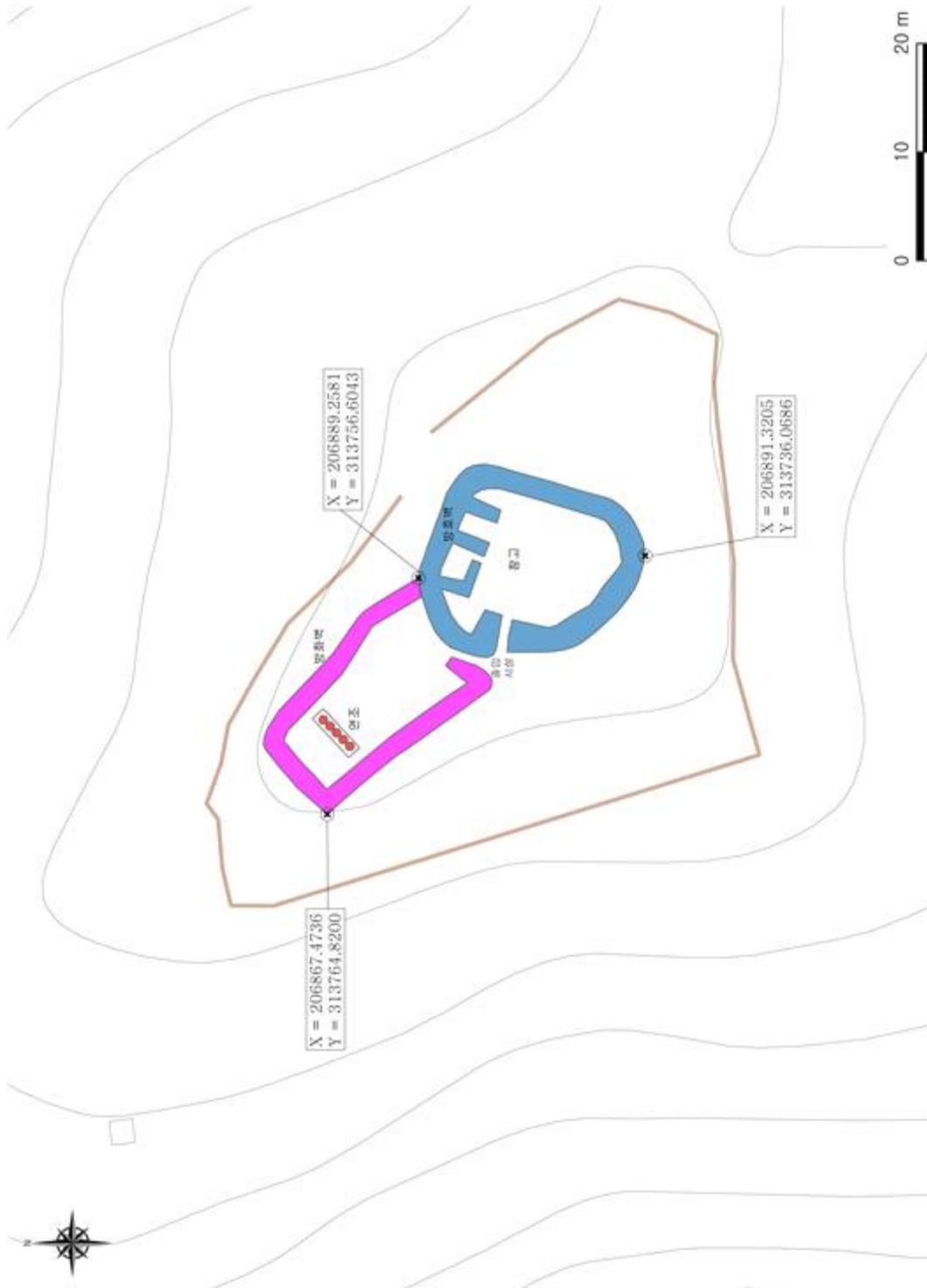
사진 5. 화덕지(원적산봉수대보존회, 1991)

(3) 출토유물

과거 지표조사를 통해 암수키와편과 백자편, 옹기편, 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이번 현황조사에서도 백자, 옹기, 기와가 수습되었다. 백자는 동체부 소편들로 기형은 알 수 없다. 옹기는 저부와 동체부 소편들로 기형을 알 수 없다. 기와는 암기와 편만 수습되었다. 외면에는 유문(有文)과 무문(無文)이 있는데, 유물의 세부 문양은 기와가 작아 알 수 없다.

(4) 기타

봉수대에서 남동쪽으로 200m 떨어진 지점에서 각자석이 발견되었다. 각자석은 큰 바위의 편평한 앞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글자는 해서 정자체로 쓰여져 있었는데, 제1각자석의 내용은 ‘舊所下北面三帥里 現所上北面石溪里 金海金東鎬 檀紀四二七一年二月十三年生’이고 제2각자석의 내용은 ‘農大會’이다. 檀紀四二七一年은 서기 1938년으로 일제강점기에 해당한다. 이 때 바위에 글자를 새긴 것으로 봉수대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으나, 김동호(金東鎬)라는 인물이 봉수군과 관련된 인물일 수 있으므로 차후 연구가 필요하다.



도면 1. 위천봉수대 현황도(S=1/400)



사진 6. 위천봉수대 드론촬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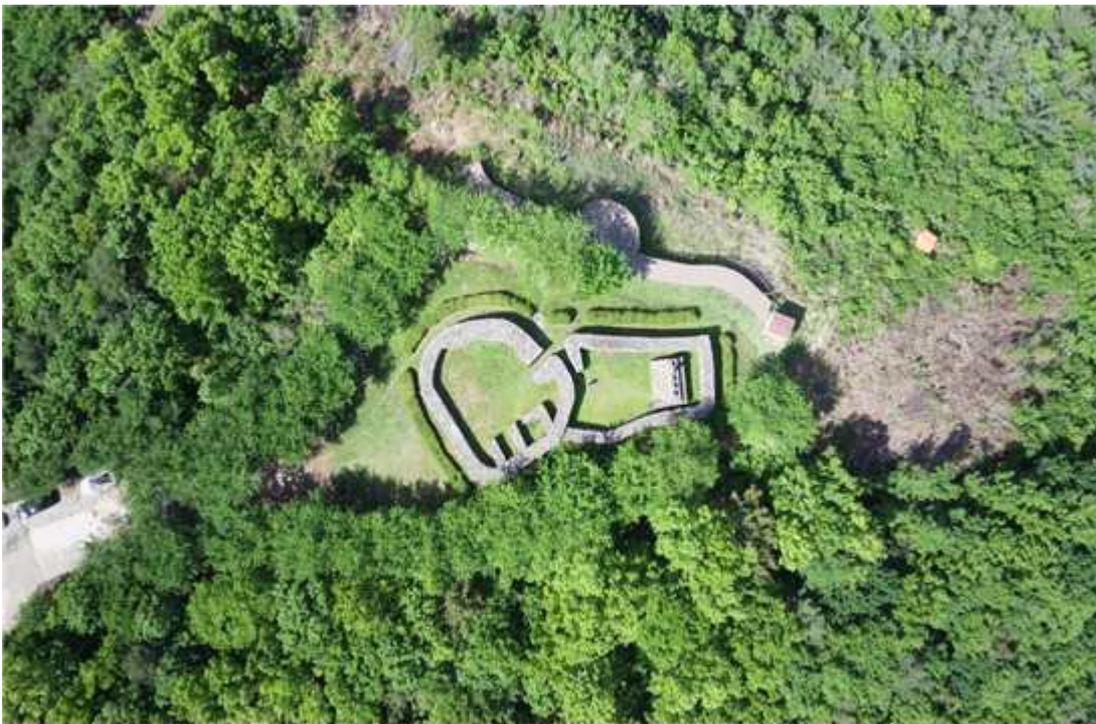


사진 7. 위천봉수대 드론촬영2



사진 8. 표지석



사진 9. 안내문



사진 10. 연조 평면



사진 11. 연조 입면



사진 12. 고사지 평면



사진 13. 고사지 세부



사진 14. 방호벽 평면



사진 15. 방호벽 입면



사진 16. 출입시설



사진 17. 수집유물



사진 18. 봉수대 주변 각자석



사진 19. 봉수대 동남쪽 각자석 탁본

(5) 특징

위천봉수는 입지상 ‘위천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봉수대는 방호벽과 방화벽에 의해 거화시설과 생활시설이 분리된 특이한 평면모습을 갖추고 있다. 방호벽은 장방형, 방화벽은 원형을 띤다.

봉수대는 화성봉돈형으로 복원되어 있는데, 이는 내지봉수의 연조와는 다른 형태로 잘못 복원된 것이므로 봉수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적지 않아 추후 발굴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봉수대를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입시설은 거화지와 생활지 각 1곳씩 2곳이 존재한다.

봉수대 주변에서 많은 유물이 채집되었다. 채집 유물 중 조선후기 유물이 많은데, 조선후기 기록 중 이만도(李晩燾: 1842~1910)가 고종 14년(1877) 9월 7일, 양산군수로 재직할 때 위천봉수 적간(摘奸) 기록을 『響山日記』에서 확인할 수 있어 조선후기 봉수 운영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8. 지정가치와 근거기준

1) 조선시대 내지봉수의 설봉 시기와 최종 폐봉까지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는 통신시설이다.

- 조선 전기 1454년에 발간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기록이 없고, 1469년에 발간된 『경상도속찬지리지』에는 기록이 있으므로, 위천봉수는 1454년부터 1469년 사이에 설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조선 전기 『경상도속찬지리지』부터 『증보문헌비고』까지의 기록을 통해 봉수 한자 표기의 차이를 통한 다양한 명칭 확인과 전·후 대응봉수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다.

- 조선 후기 발간의 『해동지도』(1724)와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등의 고지도(古地圖)에 빠짐없이 표기되어 있다.

2) 봉수대의 구조가 특이한 형태로 다른 봉수대와 비교 검토할 수 있다.

- 위천봉수대는 방호벽과 방화벽에 의해 생활시설과 거화시설이 구별되어 있는 특이한 평면모습을 갖추고 있다. 일부 정비복원이 이루어졌으나, 고증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면 조선시대 봉수대의 다양한 구조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봉수대가 될 것이다.

3) 내지봉수로서 ‘위천역’과 관련한 교통로 조망에 탁월한 입지이다.

- 위천역은 조선시대 경상남도 양산 지역에 설치된 교통 통신 기관이다. 위천역은 찰방역인 황산역에 소속된 속역으로 동래지역과 언양지역을 잇는 중간지역에 있던 역이다. 위천역 역사(驛舍)의 위치는 현재의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관앞 근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은 위천봉수와 1.3km 정도 떨어진 위천봉수의 근접지역이다.

- 위천역은 고종 32년(1895) 역원제가 폐지될 때까지 존속하였는데, 위천봉수는 위천역의 교통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봉되었다.

4) 양산현 치소에서 봉수가 바로 후방되는 근거리에 위치한다.

- 치소(현 양산중학교)에서 서북쪽의 봉수까지 8.4km의 근거리로 치소에서 봉수대를 관리하기에 유리한 위치이다.

- 치소와 봉수 사이에는 중간에 양산천이 흐르고, 동-서 좌우에 양산평야의 형성으로 치소의 가시권 내 봉수 위치한다.

5)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 일부 봉수유적의 경우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입지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반면, 위천봉수는 해발고도가 낮고 등산로가 잘 갖추어져 있어 봉수대로의 접근이 용이한 편이다. 차로 이용하면 봉수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다.

6) 위천봉수는 양산지역 유일의 봉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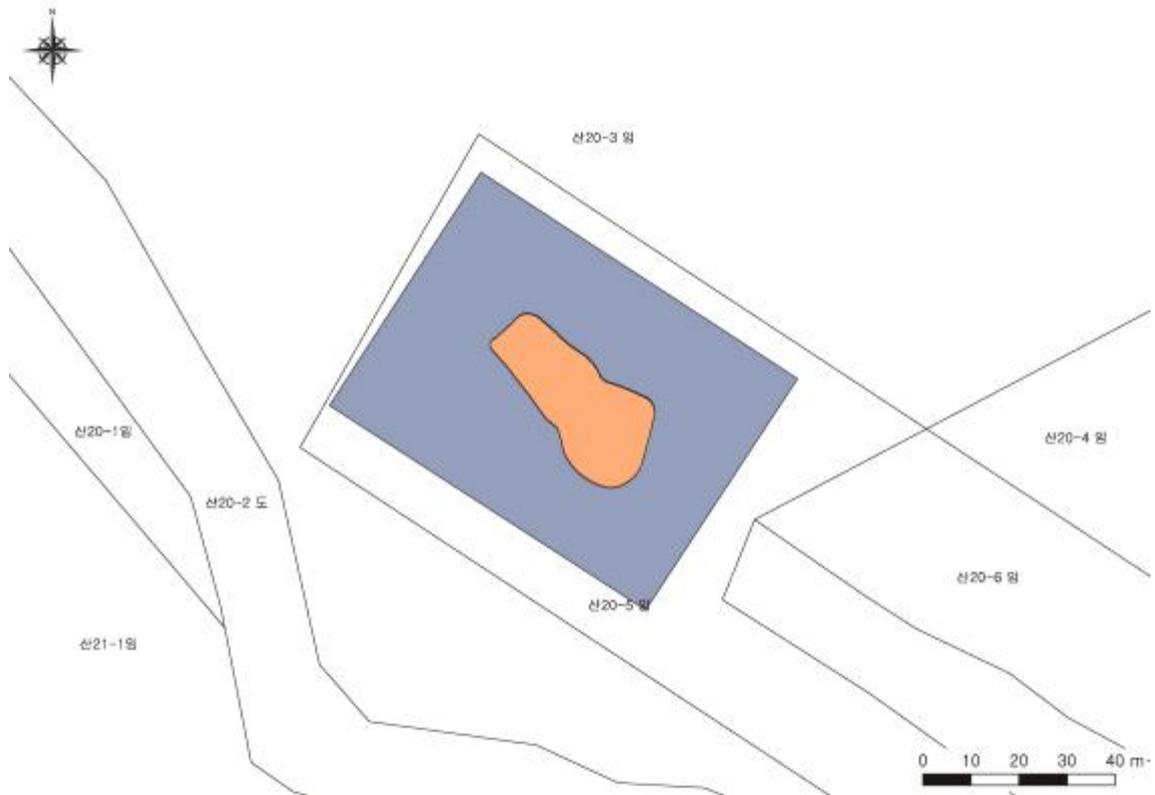
- 위천봉수는 『경상도속찬지리지』에서부터 올라 있어 조선 예종 이전에 당시의 정세를 반영한 봉수노선의 변화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사진 20. 위천봉수와 대응봉수



사진 21. 위천봉수대와 위천역 위치



도면 2.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S=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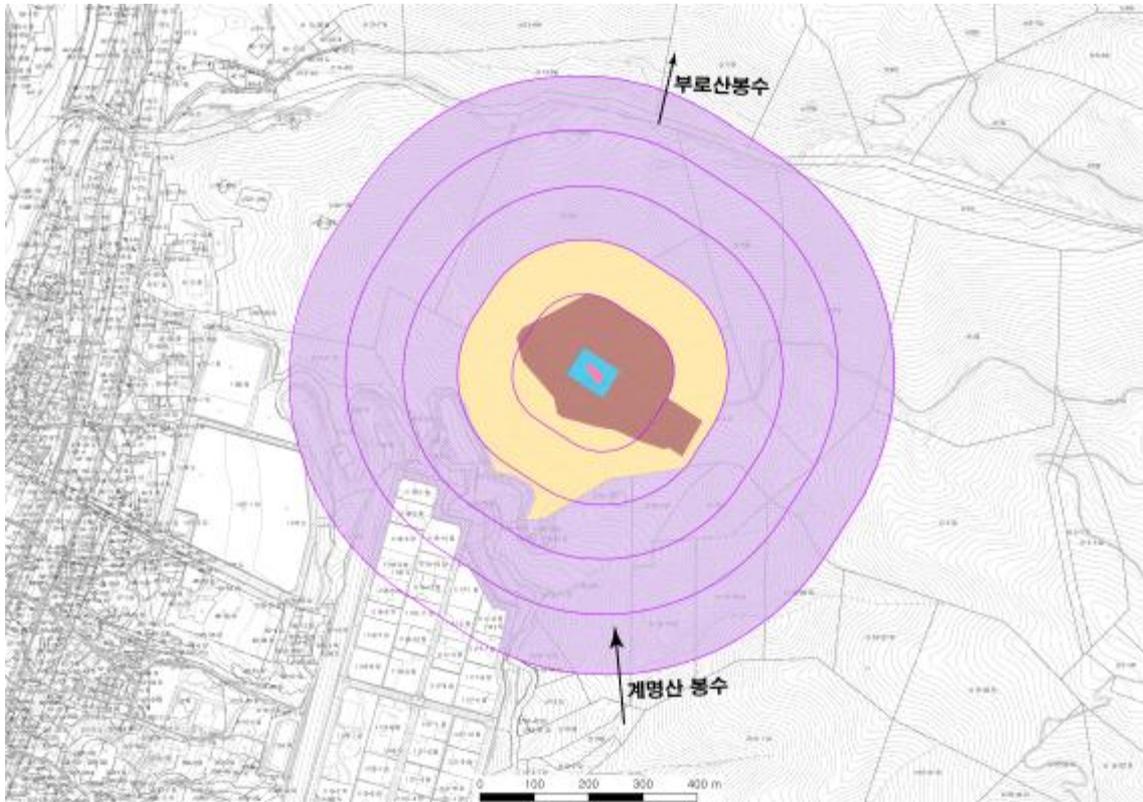
도면 3.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

10.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1) 검토의견

위천봉수 전·후 대응노선 봉수의 방향을 고려한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

양산시	양산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p>▣ 대상문화재 제2로 직봉 - 양산 위천봉수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산20-5번지 일원</p> <p>▣ 문화재 및 보호구역  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보호구역</p> <p>▣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간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p> <p>▣구역별 허용기준</p>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1. 보존·정비와 활용 착안사항

1) 기본구상

(1) 기본방향

① 기본원칙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1.6.10.] [법률 제17409호, 2020.6.9. 일부개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문화재청, 2002)

- 문화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문화재 활용은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사업의 소재로서 개발·활용하며,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육성한다.

『유적(遺蹟) 등 정비계획 수립·추진관련 고려사항』(문화재청, 2003)

- 가치(원형) 보존 최우선: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복원·정비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비를 지양하고, 유적의 가치와 역사적 숨결을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명확한 정비목표 수립: 유적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적

정비를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한다. 보존과 복원·정비되어야 할 것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 :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고, 유적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방향 설정

양산시 위천봉수대는 간략한 현황조사 후 정비복원이 이루어졌으나, 고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복원에 대한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봉수대의 잔존 방호벽과 연조 등 역사적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차례의 정밀 문화재조사도 필요하다.

- 봉수대의 보존·정비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도모하고,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과 양산시의 역사문화관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위천봉수는 시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동선체계 등 기반시설의 확충안을 수립한다.
- 봉수는 조선시대 500여년간 변경의 안위(安危) 여부를 전·후 대응봉수간 차차거화(次次擧火)를 통해 최종 중앙에 알리던 호국군사통신 유적으로서, 성격에 의한 구분상 내지봉수(內地烽燧)에 해당한다.
- 봉수는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평안을 상징하는 1거의 햇불[平安火·太平火]을 올림으로서 과거 양산현과 인근 고을 백성들이 이를 바라보고 일상을 마무리하는 순기능도 있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양산시에서 유일하게 소재하는 위천봉수를 보존·정비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봉수대의 잔존 방호벽과 연조 등의 역사적 실체를 보존·정비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시킨다.
-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활용되었던 봉수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정보통신 발달의 상징적 유적으로 보존·관리한다.
- 경상도와 충청도·경기도를 거쳐 최종 서울 목멱산봉수로 이어지는 내지봉수 체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원한다.

(2) 기본전제

① 잔존 봉수 유구의 보존과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

봉수대의 핵심요소인 거화시설(연조)과 방호시설(방호벽) 및 생활시설(주거지)이 보존·정비되어 있으므로 그 주변도 확인하여 봉수대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위천봉수의 문화재적 가치가 표출되도록 한다.

② 역사문화자산 가치 증진 및 화제성 창출

과거 봉수체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던 당시에 봉수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봉수군과 봉수운영 관련 된 기록과 내용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유적과 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화제성이 창출되도록 정비한다.

③ 대응봉수와의 조망을 위한 가시권 확보

입지조건상 서쪽으로 양산현의 옛 치소가 잘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한 봉수는 인근 대응봉수와의 후망을 통해 양산지역과 고을 백성들에게 변경의 안위 여부를 알리던 군사통신유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적 강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계획한다.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설정된 대응봉수인 계명산봉수와 부로산봉수와의 가시권 확보의 봉수 주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식생이 양호한 기존의 자연경관 유지 방안을 제시한다.

④ 주연야화(晝煙夜火) 통신의 특징을 살린 ‘체험과 교육의 장’ 조성

햇불과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 소식을 전하였던 봉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적의 복원보다는 체험과 실연(實演)을 통한 거화의 과학적 원리를 교육한다.

기존의 진입로를 활용하여 최적의 보행환경과 교육적 기능을 갖춘 탐방로 조성을 통해 위천봉수의 500여년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⑤ 주변 문화자원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

양산군의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위천역, 양산읍성, 양산향교, 석교’ 등이 있다. 모두 봉수의 서쪽과 남쪽에는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살려 봉수와 인근 유적을 통합적으로 연계·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⑥ 실현가능한 세부추진사업 도출과 단계별 사업시행

양산시의 재정여건이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봉수대 답사를 위한 편의시설 또는 주차장 부지 매입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3) 종합구상

① 추진사업 계획

역사적 실체 보존 사업

- 식생정비(소목 간벌), 봉수 내부 잔디 식재, 봉수군 주거지 정비 등 문화자원 연계 개발사업을 실시한다.
- 탐방로(봉수군 길) 정비, 스토리텔링 개발, 체험 프로그램 및 축제 개발, 봉수 C.I개발, 동선표지판·전망시설 및 망원경 설치 등을 진행한다.
- 기존 기반시설을 재정비하여 봉수 주변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 등.

② 토지이용계획

봉수대는 양산시 소유의 임야로서,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산20-5번지 일원에 소재하며 면적은 603㎡이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토지대장, 2021.9.)

현재 위천봉수를 찾는 탐방객은 소수에 불과하다. 보다 많은 탐방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2거 직봉 노선 봉수의 사적지정이 확정되고 보존·정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 시 탐방객에게 보다 쾌적한 역사경관과 편리한 탐방 환경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

③ 동선계획

본 계획에서는 봉수구역과 진입광장 및 주차구역으로 나누고 각 공간별로 기능을 배분하였다. 특히, 진입광장 및 주차구역에는 방문객이나 차량의 접근동선과 관련된 공간 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험교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봉수대의 탐방동선은 기존의 임도 외에 등산객이 산 아래에서 오를 수 있는 산책로를 그대로 이용하되, 전통적인 분위기 연출과 유지관리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야자매트나 경화흙포장으로 한다.

또한, 탐방객의 주동선이 되는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봉수에 대한 관심유발과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2) 보존과 정비활용계획

(1)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확대지정

① 향후, 제2거 직봉 노선의 봉수를 사적(史蹟)으로 승격 시 문화재지정구역의 확대 및 대응봉수간의 조망과

가시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위천봉수를 중심으로 남동쪽의 계명산봉수, 서북쪽의 부로산봉수를 잇는 조망과 지역 주민을 위한 가시권 확보가 필요하다.

② 봉수대 주위의 수목을 선별적으로 간벌하여 대응봉수간 조망이 가능하도록 정비 할 필요가 있다.

③ 봉수대 주변 식생이 양호한 임야는 가급적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④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확대는 기존 현상변경허용기준 적용구역의 확대를 수반한다. 인접 봉수간의 조망 확보를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아울러 보호구역 외곽 200m 정도는 1구역 (개별 심의) 또는, 2구역 <최고높이 8m이하(평지붕), 최고높이 12m이하(경사지붕)>으로 설정하여 역사 문화 환경과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⑤ 진입로에서 봉수대의 원경을 볼 수 있도록 간벌 등을 통해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봉수군들이 이용했던 소로(진입로)는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이 길을 통한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2) 보존계획

① 봉수유적 보존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는 거화시설인 연조와 방호시설인 방화벽, 고사 등이 복원되어 있다. 지금도 잘 관리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그리고 봉수대 주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과거 봉수의 운영 당시 원형구조를 밝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수대를 구성하였던 제반 요소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밀 매장문화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현 복원된 곳 이외의 정비와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에 대한 최근의 현황조사를 통해 전체 구조의 확인이 가능함으로 이를 바탕으로 운영당시의 모습대로 단계적으로 정비·복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조선시대 내지봉수대의 형태와 기능을 학습·체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공간으로 조성한다.

다. 추진방법 및 절차

- 먼저 방호시설 주변의 평탄지나 주변일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한다.
- 방화벽 북쪽 일대는 아직 잡목이 많으므로 간벌하고 북쪽에서 올라갈 길을 정비 한다.
- 방화벽 내부에는 잔디를 식재하여 보존한다.

② 수목 간벌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 주변은 현재 무성한 수풀잡목으로 대응봉수와의 조망이 곤란하거나 유구 훼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적절한 간벌을 통하여 유적 보존 및 가시권(可視圈)을 확보한다.

나. 사업내용

- 현재 봉수대 주위는 간벌작업이 일부 이루어진 상태다. 그러나 계속적인 간벌작업이 필요하다. 조망을 해치는 수목을 선별적으로 벌목하여 대응봉수인 계명산봉수와 부로산봉수에 대한 조망을 개선한다.

다. 추진방법

- 벌목작업은 봉수유구의 보존, 주변경관 조망, 봉수의 제반요소 감상 등에 장애를 주는 수목부터 선별하여 실시한다.
- 봉수대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경관이 확보되도록 수목을 제거한다.

(3) 정비·활용계획

① 전망시설과 휴식공간 설치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의 정체성과 주요 기능은 대응봉수와의 시각적 연결에 있다. 현재 봉수대는 내·외부의 수목을 일부 간벌해둔 상태로 시야확보가 가능하다. 봉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간벌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봉수는 대응봉수와의 조망과 주변 관찰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였으므로 이러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나. 사업내용

- 현재 전망시설은 봉수대를 관찰할 수 없는 곳에 시설되었다. 봉수대 주변 적당한 곳에 봉수대의 전체 구조와 대응봉수, 주변 자연환경, 시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조선시대 봉수의 입지선정 원리를 체감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과 절차

- 전망시설은 봉수대 주변 시야가 가장 좋은 지점에 설치하되,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봉수의 역사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안내판에 대응봉수를 촬영한 사진을 표시하여 눈앞에 펼쳐진 전경과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망시설에는 망원경 등을 설치한다.
- 전망시설 하부나 주위에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방문객에게 휴식과 사색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② 봉수군 탐방로 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위천역에서 위천봉수대로 이어지는 ‘봉수군 탐방로’를 조성하여 문화콘텐츠로 활용한다.

나. 사업내용

- 탐방로를 개설하고, 봉수 관련 이야기와 비품 등을 소개함으로써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과거 봉수의 기능과 운영 및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노변(路邊) 전시관 기능을 하게 한다.
- 아직 위천역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천역을 찾는 노력도 계속 필요하다.

다. 추진방법

- 기존의 길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요 지점에는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고 벤치 등의 휴식시설을 도입한다.
- 안내판의 내용은 위천봉수 비치물목을 토대로 봉수운용에 필요한 비치물목상의 거화재료나 생활비품 등을 선별하여 사진자료와 함께 해설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輿地圖書』下(補遺) 慶尙道 『梁山郡邑誌』 (1760) 烽燧

渭川烽臺 一庫 自官門外子方位北距二十里 卯坐西向 南自東來鷄鳴山烽燧四十里來準 北至彥陽夫老山烽燧四十里去應 別將一人 監考一人 軍百名 煙臺一 煙窟五 火德一 望德一 火箭九箇 唐火箭九箇 長箭五部 片箭一部 弓子一張 桶兒一 還刀二柄 槍一柄 鳥銃二柄 藥升一 大白旗一面 火藥五兩 火繩一沙里 戰角一 木斧子二十柄 防牌六 鉛丸三十箇 火鐵二箇 火石二箇 火桶五 鎌子五柄 條所三件里 棱杖二十箇 古月羅十五箇 法首木五箇 前梯一 食鼎一坐 待邊糧一石 草席五立 柳器二部 瓢子五 水瓮五坐 盤五立 匙五指 接匙一竹 沙鉢五立 爐口一坐 無稜石五訥 同花注乙五件里 種火盆五坐 滅火器五 水槽六 炬炬五十柄 松炬五十柄 同炬三柄 積柴五訥 土木五訥 煙草五訥 橋注乙一件里 炭五石 灰五石 細沙五石 槽糠五石 草炬五十柄 槽桶五 艾五同 馬糞五石 牛糞五石 瓦家二間 庫舍二間 空石十立 斧子一柄 縣瓢五 釜子一坐 抹木無定數 三穴銃一柄 校子弓一張 掩心一坐 俺頭一坐 紙甲胄一 鐵甲胄一 五色表旗五面 鑰錚一 小鼓一 橫子一坐

③ 양산박물관과 연계한 봉수 교육활동

가. 추진배경과 목표

- 일반인들에게 봉수를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 봉수의 기능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적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봉수라는 특성상 다른 문화유산 보다는 교장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적으므로 지역 박물관을 활용하여 봉수 교육을 실시한다.

나. 사업내용

-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월례 또는 분기 강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지역 봉수를 알리고 교육한다.

다. 추진방법

-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봉수교육을 계획한다.
- 학교 등과 연계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4) 봉수 거화(擧火) 실연(實演) 행사

① 추진배경과 목표

봉수는 연기[주간]와 불[야간]로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시설인 만큼 실제 거화(擧火)나 거연(擧煙) 같은 실연(實演)행사의 실시를 통해 선조들의 봉수운영 원리를 체득하게 한다.

② 사업내용

연기와 불이라는 시각신호로 변경의 안위여부를 전달하였던 봉수의 연조 형태와 구조, 거화재료의 종류와 배합 등을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이 실증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크기의 연조를 제작한 후 실연(實演)행사를 연 중 개최한다.

③ 추진방법과 절차

먼저 실연행사를 할 수 있는 연조(煙籠)를 제작하되 설치장소는 행사 시 화재 발생이나 유구 훼손에 대비하여 유적과 일정거리 떨어진 곳으로 한다. 연조의 크기와 구조 등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다.

거화재료[燄]는 양산군읍지 위천봉수 비치물목을 참고하여 준비하고 전통방식에 따라 제작한 후 사용한다. 행사의 진행은 지역 문화단체가 담당하고 연 중 개최 시기는 ‘신년, 정월대보름, 8·15광복절, 양산시민의 날, 황산공원 불빛축제’ 중 의미있는 날을 정하여 개최하도록 한다.

(5) 관리운영계획

① 관리운영 주체

양산시에서 관리

(경남문화재단 등 문화재 관리 기관에 위탁관리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② 관리운영 목표

- 가. 위천봉수대의 보존과 유지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
- 나. 탐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도모
- 다. 위천봉수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의 극대화
- 라. 유적의 학술적 가치 극대화와 신규 문헌 발굴 등

③ 관리운영사항

- 가. 봉수대 유적
 - 위천봉수대 일원
 - 위천봉수대 주변 탐방로 등
- 나. 자연환경
 - 위천봉수대 주변 수목 및 지형
 - 주변 생태환경, 녹지 등
- 다. 시설물
 - 탐방로, 전망시설 등
 - 안내판, 방향지시판, 휴게시설 등
 -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 라. 탐방객을 위한 서비스
 - 홍보, 해설, 전시, 축제행사 등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④ 사업 추진절차

가. 문화재지정구역 및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는 먼저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정밀 문화재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한 후 도출된 조사결과에 따라 정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입 → 조사(발굴) → 정비의 순이다. 위천봉수는 잔존 방호벽과 연조 등 역사적 실체와 맞지 않게 복원되어 이에 대한 전문가의 지문이 필요하다. 지문에 의거하여 지정구역내 조사 및 복원을 실시하고 주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폭넓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매입 단계는 정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국·공유지화하는 단계로서 대상지의 지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 파악과 매입에 예상되는 비용 및 매입의 원활성을 판단하여 정비의 선후를 결정한다. 위천봉수의 정비사업은 봉수대 탐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⑤ 순차별 사업계획

가. 봉수대의 보존·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체 사업비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초기 2년의 정비를 단기정비로 설정하고 이후의 계획 중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기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단기사업은 정비사업의 기간 및 지자체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나. 보존·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추진 절차, 시급성, 사업비,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다. 봉수대 보존과 주변정비사업은 방호벽과 연대 정비, 식생정비[간벌 등], 전망 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정비사업의 원칙은 유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선정한다.

라.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편리하고 쾌적한 출입 및 동선체계 구축을 위한 주차장 마련 및 진입광장 조성 사업을 단기에 시행하고 관광 역량 제고를 위한 간이 안내소 설치나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은 중기에 진행한다.

마. 이들 추진사업은 양산시청의 정책 순위 변경과 주민들의 요구도, 제반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2. 종합의견

- 1) 양산 위천봉수는 조선시대 전체 5거노선의 봉수 체계에서, 부산에서 초기하는 제2거 직봉의 다섯번째 내지봉수이다. 봉수 복원 시 지표조사, 2014년 문화재청의 현황조사와 이번 조사를 통해, 연조와 방화벽·방호벽, 건물지와 고사지 등이 확인하였고 봉수 운영 당시와 관련된 많은 유물을 수집하였다.
- 2) 위천봉수대의 평면 형태는 방화벽이 이중구조인 연곽형이고 봉수대의 보호 면적은 603㎡ 정도이다. 2거 직봉노선 중 연곽형 봉수는 위천봉수 1곳 뿐이다. 그리고 고사와 건물지 등이 잘 남아 있고 많은 유물이 수집되었으므로 당시 봉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좋은 봉수대이다.
- 3) 봉수성격에 의한 구분상 내지봉수이고 간략한 조사를 통해 방화벽, 출입시설, 연조, 고사가 정비·복원되어 있다. 거화시설과 주거시설은 방화벽에 의해 이중으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
- 4) 양산지역은 교통과 봉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충지였다. 동래에서 초기한 봉수가 이 노선을 따라 한양 목덕산으로 전달되고, 교통로도 동래에서 가장 빠른 길이 이 양산지역을 지나간다. 따라서 교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므로 이 곳에 봉수대를 설치하였다.
- 5) 조선 전기에 편찬된 『경상속찬지리지』(1469)에서부터 구한말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1908)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지에 빠지지 않고 등재되어 있고 제2거 직봉 노선의 주요 봉수다. 조선 예종 1년(1469)년에는 처음으로 양산의 위천봉수가 설치된 것은 앞선 세종대까지 보수정비된 봉수노선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노선은 조선시대 앞 까지 계속하여 유지된다.
- 6) 봉수는 단일 유적보다는 통신체계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 노선별 주요봉수, 잔존상태, 역사성, 지정번호 부여방식 결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적지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문화재 종류

1) 사적

- 부산 다대포 응봉봉수(鷹峰烽燧)에서 초기(初起)하는 제2거 직봉노선의 여섯번째 내지봉수인 ‘울산 부로산봉수유적(蔚山 夫老山烽燧遺跡)’을 같은 노선의 봉수와 연계하여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 부로산봉수대는 현재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6호로 지정되어 있다.

2. 문화재 명칭

1) 문화재명 : 제2로 직봉 - 울산 부로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蔚山 夫老山烽燧遺跡)

- 봉수유적은 연속유산으로서 노선 단위 지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정명칭은 “본 명칭 - 부 명칭”의 형식으로 부여토록 한다. 여기서 본 명칭은 대표성이 높으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2로 직봉(第2路 直烽)”으로 한다.
- 부 명칭은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라 봉수명칭 앞에 현 행정구역 소재지인 ‘울산(蔚山)’을 표기한다.
- 봉수명칭은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이후 조선 최후기 봉수망을 알 수 있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의 명칭과 한자표기를 따라 ‘부로산봉수유적(夫老山烽燧遺跡)’으로 표기한다.
- 따라서, 현재 ‘언양 부로산봉수대(彦陽 夫老山烽燧臺)’의 명칭으로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최종 사적 봉수명칭은 ‘제2로 직봉 - 울산 부로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蔚山 夫老山烽燧遺跡)’(이하 ‘부로산봉수’라 한다)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명칭유래

- “부로이산봉화(夫老伊山烽火)는 남으로 양산 원적산봉화와 서로 겨눈다. 북으로 경주 잉읍보(仍邑浦) 소산봉화와 서로 겨눈다.” 『경상도속찬지리지(1469)』
- “부로산봉수(夫老山烽燧)는 남쪽으론 양산군 원적산에 응하고, 북쪽으론 경주 소산에 응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 “부로산(夫老山)은 현의 남쪽 5리에 있다. 취서산에서 맥이 내려왔고, 그 위에 봉수를 설치했다.” 『언양군읍지(1899)』

‘부로이산봉화·부로산봉수’로 불린 봉수다. 봉수대명으로서 ‘부로이·부로·이부로’는 봉수 신호인 거화 혹은

거연의 형태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여겨진다. 국어에서 ‘일부러’는 ‘특별히 마음을 먹고 일삼아서’라는 의미다. 유의어로 ‘부러’는 ‘실없이 거짓으로’의 뜻이며, 경상도 방언에서는 ‘부로’로 발음된다. 봉수 신호가 산봉우리에서 ‘일부러 불이나 연기를 올리는 행위’이니 부로산은 ‘특별히 마음을 먹고 일삼아서’ 불이나 연기를 올리는 산이다. 현대 국어와 일본어는 어휘의 유사성이 드물지만, 국어와 일본어는 공통의 조상언어에서 분화한 계통이 같은 언어라고 한다. 시간을 거슬러 오를수록 현대의 ‘한국어와 일본어’ 차이보다는 훨씬 유사성이 많았을 것이다. 『다음-일본어사전』에 ‘이부로 - いぶる - 燻る’는 ‘충분히 타지 않고 연기가 나다.’, ‘연기가 차다.’라는 의미다. ‘夫老伊夫老’는 ‘특별히 마음을 먹고 일삼아서’라는 의미의 ‘일부러(부러)’를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다. ‘부로이봉화·부로산봉수’는 ‘특별히 마음을 먹고 일삼아서 봉수 신호를 올리는 산’이다. 제2거 간봉(2) 노선에 도 부로산봉수가 있다.

3. 울산지역의 봉수현황과 성격

- 울산지역에는 최초 설봉(設烽)과 폐봉(廢烽)시기가 다른 총 8곳의 봉수(부로산·소산·이길곶·하산·가리·천내·주전·유포)가 소재하고 있다, 봉수의 성격에 의한 구분상 부로산·소산봉수는 육지내륙 소재의 내지봉수(內地烽燧)이고 이길곶·하산·가리·천내·주전·유포봉수는 해안 소재의 연변봉수(沿邊烽燧)이다.

4. 부로산봉수의 입지와 연혁

1) 입지

부로산봉수대가 위치한 삼남면은 울주군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삼동면, 북쪽으로 상북면·언양읍, 남쪽으로 양산시 하북면과 접한다. 삼남면의 전체적인 지형을 살펴보면 동쪽에 문수산, 남쪽에 정족산, 서쪽에 신불산 등의 산지가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태화강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고 남쪽으로는 작천천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다. 이 일대는 대부분 나지막한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부로산봉수대는 삼남면 교동리 마을 뒤 봉화산(해발 350m)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이 일대는 주변 경관이 딱힘이 없고, 봉수대 운영당시 행정관청인 언양읍성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봉수대 입지조건으로는 최적의 장소로 볼 수 있다.



사진 1. 부로산봉수대에서 본 언양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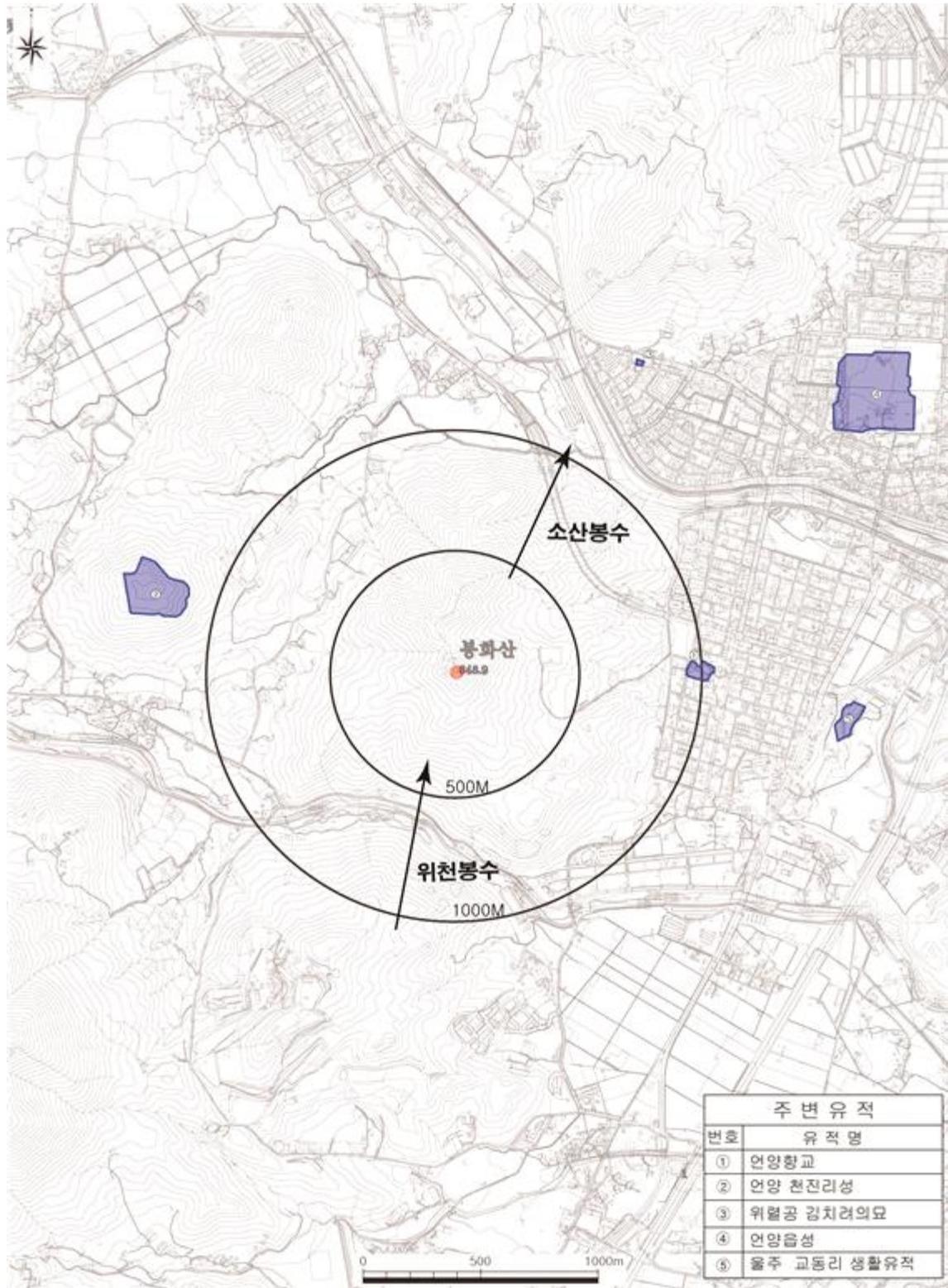
사진 2. 언양읍성에서 본 부로산봉수대

현재 봉수대가 위치하는 산 정상에는 송신탑이 세워져 있어 멀리서도 위치가 쉽게 확인된다. 언양향교에서 오르는 옛 길이 있으나, 봉화산 서쪽에 위치한 상북면 등억마을에서 임도를 타고 오르는 길이 접근에 용이하다.

2) 연혁

부로산봉수의 최초 지지기록은 『경상도속찬지리지』 부터다. 지지별 발간연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慶尙道續撰地理誌』(1469) 慶州道 彦陽縣
烟臺烽火 夫老伊山烽火 南與梁山圓寂山烽火相准 北與慶州仍邑甫所山烽火相准
연대봉화는 부로이산봉화이다. 남쪽으로 양산 원적산봉화와 서로 겨누고, 북으로 경주 잉읍보 소산 봉화와 서로 겨눈다.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卷23, 慶尙道 彦陽縣 烽燧
夫老山烽燧 南應梁山郡圓寂山 北應慶州所山
부로산봉수는 남으로 양산군 원적산, 북으로 경주 소산에 응한다.
- 『輿地圖書』下(1760) 慶尙道 慶州鎮管 彦陽縣 烽燧
夫老山烽燧 在縣南五里 南應梁山渭川烽燧 北報慶州蘇山烽燧 相距二十五里
부로산봉수는 현의 남쪽 5리에 있다. 남으로 양산 위천봉에 응하고, 북으로 경주 소산봉에 알리는데, 거리는 25리다.
- 『慶尙道邑誌』 第20冊, 「彦陽縣邑誌」(1832) 烽燧
夫老山烽燧 在縣南五里 南應梁山渭川烽燧四十里 北報慶州蘇山烽燧二十五里
부로산봉수는 현의 남쪽 5리에 있다. 남으로 40리의 양산 위천봉수에 응하고, 북으로 25리 경주 소산봉수에 알린다.
- 『大東地志』(1864) 卷7, 慶尙道 15邑 彦陽 烽燧
夫老山 南五里
부로산은 남쪽 5리다.
- 『嶺南邑誌』 第14冊, 「彦陽縣邑誌」(1871) 烽燧
夫老山烽燧 在縣南五里 南應梁山渭川烽燧相距四十里 北報慶州蘇山烽燧相距二十五里
부로산봉수는 현의 남쪽 5리에 있다. 남으로 40리의 양산 위천봉에 응하고, 북으로 25리의 경주 소산봉에 알린다.
- 『嶺南邑誌』 第16冊, 「彦陽縣邑誌」(1895) 烽燧
夫老山烽燧 在縣南五里 南應梁山渭川烽燧臺四十里 北距慶州蘇山烽燧臺二十五里
부로산봉수는 현의 남쪽 5리에 있다. 남으로 40리의 양산 위천봉대에 응하고, 북으로 25리의 경주 소산봉대에 알린다.
- 『彦陽郡邑誌』(1899) 烽燧
夫老山烽燧 在縣南五里 南應梁山渭川烽燧相距四十里 北距慶州蘇山烽燧相距二十五里
부로산봉수는 현의 남쪽 5리에 있다. 남으로 40리의 양산 위천봉수에 응하고, 북으로 25리의 경주 소산봉수에 알린다.
- 『增補文獻備考』(1908) 卷124, 兵考16 烽燧2
初起 鷹峰(多大浦鎮) -- (中略) -- 夫老山(彦陽) -- (中略) -- 第2炬準 天臨山
초기 응봉(다대포진) -- (중략) -- 부로산(언양) -- (중략) -- 제2 거는 천림산에 준한다.



지도 2. 부로산봉수대 위치도(S=1/25,000)

3) 고지도

조선후기 고지도에 봉수를 표기해 두었다. 『해동지도』 언양현조에 부로산봉수가 있는데, 언양현의 봉수는 부로산봉수 1곳 뿐이다. 언양읍성의 남서쪽에 봉대(烽臺)가 있고, 봉수 주변으로는 향교와 덕천역(德泉驛)이 있다. 봉수기록은 ‘남쪽 위천봉수에서 신호를 받고 북쪽 경주 소산봉수로 보내며, 육로이다’라고 되어 있다. 언양에서 청도와 밀양으로 가는 도로변 구릉에 봉수가 위치한다. 봉수에서 읍성의 조망이 가능한 곳에 자리하여 읍성을 고려한 봉수 입지임을 알 수 있다. 『광여도』, 『지승』 등은 『해동지도』의 봉수 표기 방식과 비슷하다.

1872년 『지방지도』 언양현조에 부로산봉수가 있다. 언양읍성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남쪽에는 향교, 동쪽에는 남천, 북쪽으로는 거리동이 표기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언양읍성의 남쪽에 봉수가 있고 부로산봉수의 서북쪽에 덕천역이 있다. 언양읍성, 덕천역, 봉수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설치 운영되었다.

여러 고지도에서 봉수를 확인할 수 있으나 언양읍성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곳에 표기되어 있다. 현 위치가 언양읍성의 남서쪽이므로, 『해동지도』, 『광여도』, 『지승』 등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5. 봉수운영

조선 후기 경상좌병사 소관이었다. 『여지도서』에 “봉수군 100명이다.”¹⁾라고 하여 봉수군의 구성이 어떠한지 모호하다. 실재는 후면 [표2] 『헌산지(獻山誌)』의 봉수시설 및 비치물품 중 생활시설 및 비품에서 표주박[瓢子], 물독[水瓮], 대야[盤], 숟가락[匙], 사발[沙鉢] 등의 봉수군 개인 비품이 5개씩인 것을 통해 조선 후기 18세기 말을 전후하여 봉수에서 실제 번을 섰던 인원은 5명이었다. 즉, 5명의 봉수군이 한 번을 이루어 5교대 하는 경우 나머지 75명의 보인(保人)은 실제 번을 서지 않고 봉수군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다.

이외에 언양현감李 아무개가 고종 15년(1878) 11월 초1일 삼군부(三軍府)에 보고한 「彦陽縣夫老山烽臺瞭望日記」²⁾를 통해 조선후기 부로산봉수에서 번(番)을 섰던 봉수군의 상세한 인원과 운영상황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언양현의 지난달(10월) 29일간의 기상상태와 도별장(都別將)을 비롯한 각 번의 근무일과 오장(伍長) 및 봉수군 4인의 성명이 각 번마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 달을 6번으로 나누어 실제 근무를 서지 않는 도별장의 책임하에 각 번마다 5일씩 오장 1인과 봉수군 4인 등 총 5인이 한 개의 번을 이루고 있었다.

彦陽縣監爲牒報事去月朔本縣夫老山烽臺瞭望日記粘移次兩報爲臥乎事是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三軍府

光緒四年十一月初一日行縣監李牒報

後縣南距五里許夫老山烽臺子坐午向來應南距梁山渭川烽臺四十里去應北距慶州蘇山烽臺二十里

十月小

1) 『輿地圖書』下, 慶尙道 慶州鎭管 彦陽縣 軍兵.

2) 韓國學中央研究院, 『古文書集成』82-寧海 務安朴氏篇(I)武毅公(朴毅長)宗宅-』2005, pp.167~168.

初一日
初二日
初三日
初四日
初五日 晴
初六日
初七日
初八日
初九日
初十日
十一日
十二日
十三日
十四日
十五日
十六日
十七日
十八日
十九日
二十日
二十一日 晴
二十二日
二十三日
二十四日
二十五日
二十六日
二十七日
二十八日
二十九日

都別將閑良方士郁

五番初一日以初五日至伍長朴其玉軍李應孫成得天金○孫張岩外
六番初六日以初十日至伍長金三連軍李達坤李大吉金世千崔○孫

七番十一日以十五日至伍長金三孫軍鄭卜守朴在烈李守甲金支平
 八番十六日以二十日至伍長尹末石軍徐興大朴時三金玆金李甲孫
 九番二十一日以二十五日至伍長曹莫乃軍李大根李先男朴岳男具用伊
 十番二十六日以二十九日至伍長崔化守軍李卜玆金吾作朴○卜李命哲

이상 고종 15년(1878) 11월 초1일, 언양현감이 삼군부에 보고한 「언양현부로산봉대요망일기(彦陽縣夫老山烽臺瞭望日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언양현부로산봉대요망일기

봉수명	노선	성격	수신	발신	연월	도별장 (都別將)	번 (番)	근무일	오장 (伍長)	봉수군(烽燧軍)
부로산	제2로 직봉	내지	삼군부	언양현감	광서 (光緒) 4년 11월	방사옥 (方士郁)	5	초1~초5	朴其玉	李應孫, 成得天 金○孫, 張岩外
							6	초6~초10	金三連	李達坤, 李大吉 金世千, 崔○孫
							7	11~15	金三孫	鄭卜守, 朴在烈 李守甲, 金支平
							8	16~20	尹末石	徐興大, 朴時三 金玆金, 李甲孫
							9	21~25	曹莫乃	李大根, 李先男 朴岳男, 具用伊
							10	26~29	崔化守	李卜玆, 金吾作 朴○卜, 李命哲

이상 설명한 것 외에도 『헌산지』 「언양본현지」의 부로산봉수 집물(什物)에 대한 기록이 있다. 현재 경상지역의 봉수로서 주연야화(晝烟夜火)를 하기 위한 거화시설 및 재료, 방호(火)시설 및 무기의 봉수군의 생활시설 및 비품과 관련한 물품이 밝혀진 봉수는 부로산봉수의 양산 위천봉수, 삼가 금성봉수, 금산 고성산·소산봉수, 함안 파산봉수, 울산 남목봉수별장서목(1889) 등이다.

아래의 [표 2]는 『헌산지』의 봉수 집물을 근거로 부로산봉수의 비치물품을 작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봉수제가 운영되던 당시 울주지역 봉수의 시설현황과 운영체계를 구체적으로 짐작 할 수 있다. [표 2]에서 특이한 점은 봉수군의 생활에 필요한 기와집[瓦家] 4칸의 존재이다. 이를 통해 각종 물자를 보관하고 봉수군이 주거하였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지도 1. 『해동지도』 인양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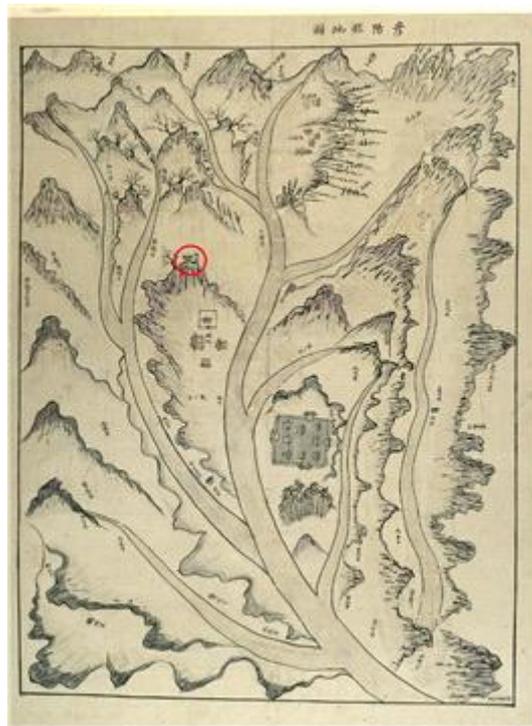
고지도 2. 『광여도』 언양현



고지도 3. 『지승』 언양현



고지도 4. 『대동여지도』(1861)



고지도 5.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표 2. 『獻山誌』의 부로산봉수 시설 및 備置物目

구분	내용	단위	수량	구분	내용	단위	수량	
舉 火 施 設 및 材 料	연대(烟垓)		1	裝 備 및 武 器	창(鎗)	병(柄)	2	
	연굴(烟窟)		5		연환(鉛丸)	개(箇)	30	
	화덕(火德)		1		활(弓)	장(張)	2	
	망덕(望德)		1		환도(還刀)	병(柄)	2	
	불화살(火箭)	병(柄)	9		나무도끼(木斧子)	병(柄)	20	
	당화전(唐火箭)	병(柄)	9		방패(防牌)	좌(坐)	6	
	통아(桶兒)	개(箇)	1		낫(鎌子)	병(柄)	4	
	화약(火藥)	양(兩)	5냥9전		밧줄(條所)	거리(巨里)	3	
	대백기(大白旗)	면(面)	1		범수목(法首木)		5	
	화승(火繩)	사리(沙里)	2		사다리(前梯)	목(目)	1	
	빨나팔(戰角)		1		능장(稜杖)	개(箇)	20	
	징(鉦)	면(面)	1		고도라(古道羅)	개(箇)	15	
	부쇠(火鐵)	개(箇)	2		멸화기(滅火器)		5	
	화통(火桶)		5		도끼(斧)	병(柄)	1	
	화분(火盆)		1		말목(核子抹木)		無數完置	
	싸리나무왜(柎炬)	병(柄)	50		삼혈총(三穴銃)	병(柄)	1	
	배대목(排大木)		6		머리가리개(俺頭)	부(部)	1	
	화면(火綿)	개(箇)	1		몸가리개(俺身)	부(部)	1	
	궤짝(櫃)	좌(坐)	1		물소빨활(黑角弓)	장(張)	2	
	산솔갱이(生松)	눌(訥)	1		生 活 施 設 및 備 品	쌀(米)	석(石)	1
	소나무왜(松炬)	병(柄)	50			약승(藥升)	개(箇)	1
	화철석(火鐵石)	개(箇)	10			유기(柳器)	부(部)	1
	빨나무(積柴)	눌(訥)	5			우물(井)	좌(坐)	1
	화인초(火因草)	눌(訥)	5			가마(釜)	좌(坐)	1
	토목(土木)	눌(訥)	5			초석(草席)	립(立)	2
	교주을(橋注乙)	巨里(거리)	1			표주박(瓢子)	개(介)	5
	초거(草炬)	병(柄)	50			물독(水瓮)	좌(坐)	5
	동거(同炬)	병(柄)	3			대야(盤)	립(立)	5
	탄(炭)	석(石)	5			숟가락(匙)	개(箇)	5
	회(灰)	석(石)	5			접시(接匙)	죽(竹)	1
	가는 모래(細沙)	석(石)	5			사발(沙鉢)	립(立)	5
	쑥(艾)	동(同)	5			노구(爐口)	좌(坐)	1
말똥(馬糞)	석(石)	5	무릉석(無稜石)	눌(訥)		5		
소똥(牛糞)	석(石)	5	동화주을(同化注乙)	거리(巨里)		3		
5색표기(五色表旗)	면(面)	5	수조(水槽)	종(種)		6		
북(鼓)	좌(坐)	1	와가(瓦家)	간(間)		4		
防 護 (火)	장전(長箭)	부(部)	3	구유통(槽桶)		좌(坐)	5	
	편전(片箭)	부(部)	1	공석(空石)		립(立)	5	
	조총(鳥銃)	병(柄)	2	거는 표주박(懸瓢子)		개(箇)	5	
	긴창(長槍)	병(柄)	2					

• 『獻山誌』(1786)의 夫老山烽燧 備置物目

『獻山誌』, 『彥陽本縣誌』烽燧什物

煙台一 煙窟五 火德一 望德二 火箭九柄 唐火箭九柄 長箭三部 片箭一部 桶兒一箇 鎗二柄 火藥五兩九錢 鉛丸三十箇 弓二張 環刀二柄 大白旗一面 火繩一沙里 鳥銃二柄 木斧子二十柄 戰角一 火鐵二箇 防牌六坐 火桶五 米一石 柳器一部 鎌子四柄 條所三巨里 法首木五 前梯一目 井一坐 釜一坐 棧杖二十箇 古道羅十五箇 草席二立 瓢子五介 水瓮五坐 盤五立 匙五箇 接匙一竹 沙鉢五立 爐口一坐 無稜石五訥 同化注乙三巨里 滅火器五 水槽六種 火盆一 柎炬五十柄 排大木六 松炬五十柄 積柴五訥 火因草五訥 土木五訥 橋注乙一巨里 草炬五十柄 同炬二柄 炭五石 灰五石 細沙五石 槽糠五石 艾五同 馬糞五石 牛糞五石 瓦家四間 斧一柄 槽桶五坐 核子抹木無數完置 三穴銃一柄 空石五立 縣瓢子五箇 俺頭俺身各一部 火綿一 藥升一箇 鉦一面 長槍二柄 五色表旗五面 火鐵石十箇 鼓一坐 櫃一坐 生松一訥 黑角弓二張

조선 후기 봉수군 인원은 『영남읍지』(1895)에 “봉군(烽軍) 100명이다.”¹⁾라고 하여 앞과 동일하다. 그리고, 봉군 인원과 근무 및 운영관련 병방색(兵房色)에 “봉군(烽軍) 100명 매 5일 5명씩 교체해 요망한다. 봉수대 위의 짐물은 조사하여 점검하고 낡은 것은 교체한다. 여러 가지 잡탈로 인해 생긴 결원을 대신 채우고 보고할 때 사목(事目: 사일일마다 정해 놓은 기준)에 의거해 할 일이다. 10월 내에 병영에 마감한다. 잡탈로 인한 군인의 정채(情債)는 매 명당 2냥씩 침채(簽債)한다. 이름이 없는 자는 3전씩 호렴(戶斂)에 의거해 거둔다.”라고 하였다.

6. 유구현황과 특징

1) 항공사진

부로산봉수대의 형태를 찾을 수 있는 항공사진은 1954년 사진이다. 이 사진을 보면, 방호벽이 남아 있고 방호벽이 원형임을 알 수 있다. 방호벽 내에는 흐릿하게 연조1의 잔존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봉수 주변으로는 평탄하게 조성된 환도(環道)도 관찰된다.

2) 유구현황

2018년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²⁾ 조사는 총 4개소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유구와 유물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로산봉수대를 구성하고 있는 연조가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방호시설인 방호벽 등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유구	비고
1트렌치	추정연조, 방호벽, 호	
2트렌치	추정연조, 기단시설, 방호벽, 호	
3트렌치	방호벽, 호	
4트렌치	보조연조, 방호벽	

1) 『嶺南邑誌』 第17冊, 『彥陽縣邑誌』 府事例 軍總 兵營.

2) 울산문화재연구원, 2018, 『언양 부로산 봉수대 성격규명을 위한 학술 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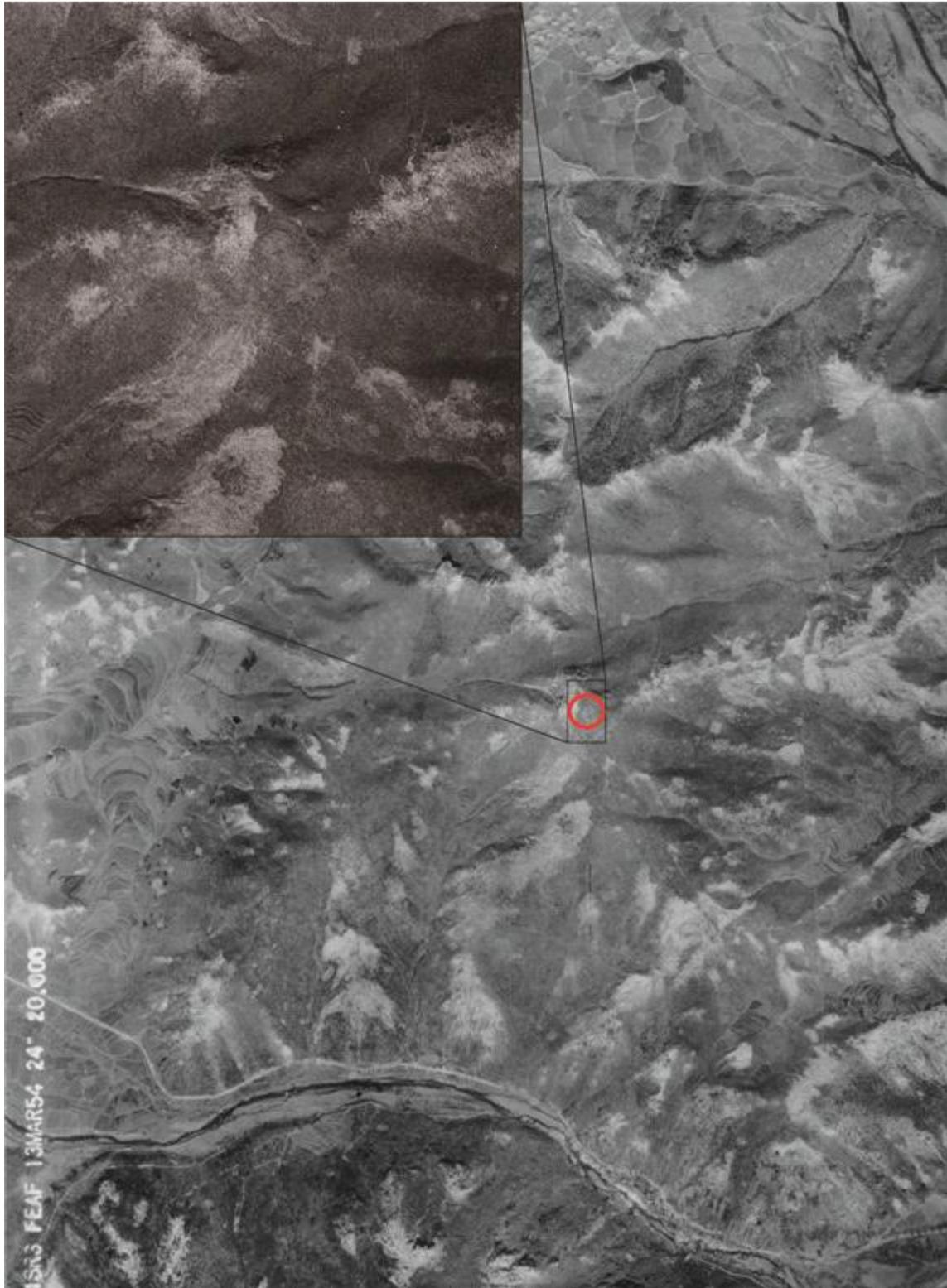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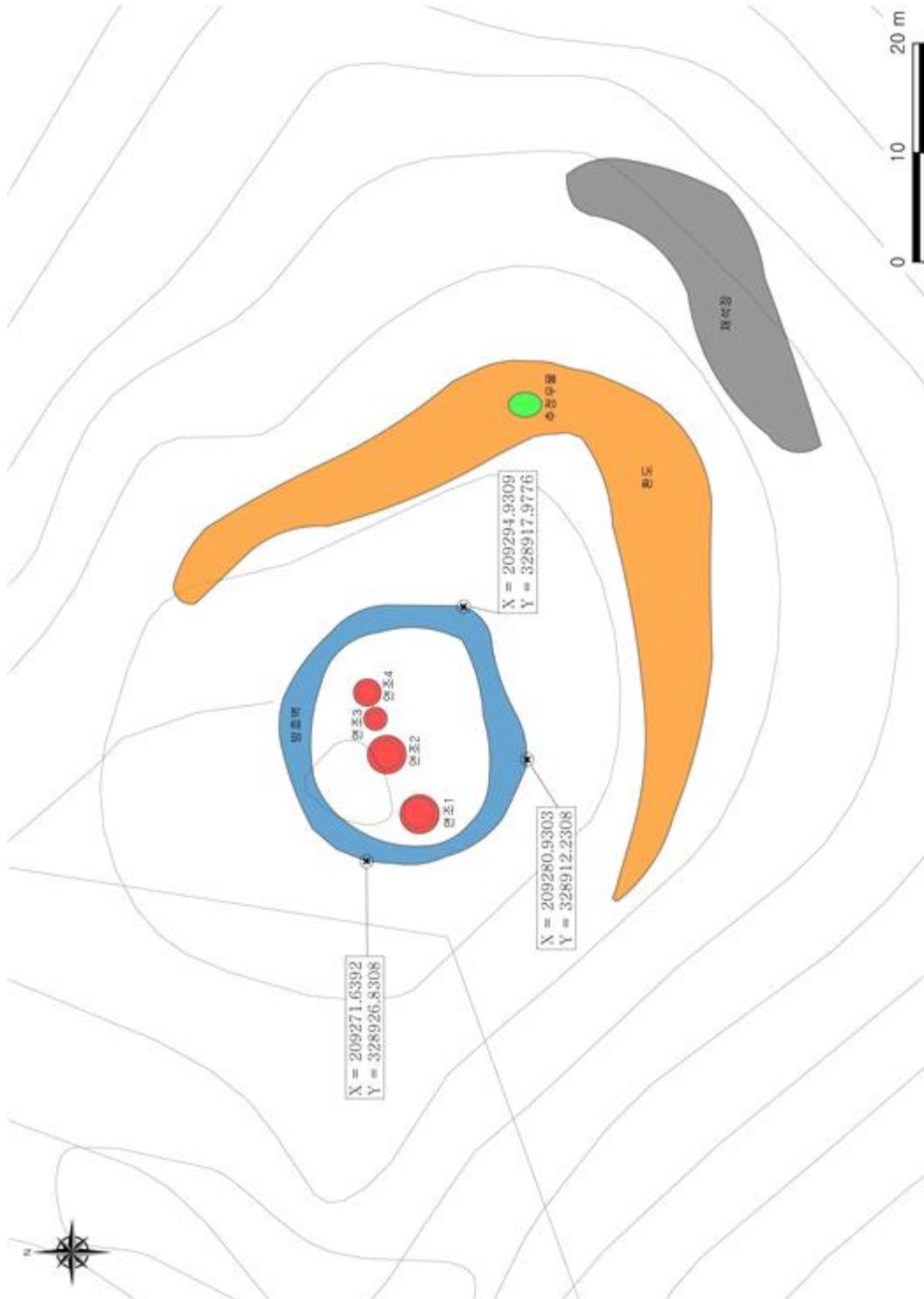


사진 3. 울산 부로산봉수대 일원 항공사진(1954년)



도면 1. 부로산봉수대 현황도(S=1/400)

3) 유구현황

(1) 방호벽

봉수대는 석축으로 원형 방호벽과 내부에 연조 및 상부 담장지가 잘 남아 있다. 봉수대의 규모는 직경이 동서 23.3m, 남북 20.3m 가량이다. 담장의 외벽으로 본 봉수대의 면적은 500㎡이다. 방호벽의 상부에는 담장지가 너비 2.2~2.3cm 가량으로 잘 남아 있다. 방호벽은 높이 0.8~1.4m 가량으로 30×16, 44×10, 50×22, 76×24cm 가량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화강석으로 축조하였다. 축조에 정형성은 없으나 부분별로 축조수법의 차이를 통해 수차 보수를 거친 듯하다. 틈에는 작은 돌을 채워 넣기도 하였다. 내벽은 최대 7~8단 정도 잔존하고, 크기(가로 길이)가 20~45cm 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여 쌓았다.

(2) 연조

연조(煙竈)는 봉수대 내부에 4~5기가 확인되는데, 평면 원형이며 연조 중심 간 거리가 좁은 편이다. 과거 잡초와 토사로 심하게 덮여 있어 연조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최근 봉수대 내부의 잡초를 제거하여 개략적인 형태가 파악되었다. 연조는 넓고 편평한 할석이 비교적 정연하게 노출되었으며, 내부에서는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연조 중에는 연조의 기반시설도 확인되었다.

(3) 기타

현재 방호벽의 남쪽에는 운영 당시의 건물터로 추정되는 평탄지가 있으며 동쪽에는 우물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된다.

(4) 유물

봉수대 내 및 주변에서 백자와 옹기가 많이 채집되었다. 백자는 구연부와 동체부 편으로 기종을 알 수 없으며, 옹기도 대부분 동체부편으로 기종을 알 수 없다. 2018년 시굴조사에서 소수 수량에 불과하지만 기와가 출토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호벽 내부에서 수집된 기와가 많은 편이다. 방호벽 내부에 생활시설의 건물지나 고사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5) 특징

언양읍성(彦陽邑城)과 봉수대 간 가시권이 확보되는 인접한 곳에 위치한다. 2018년 시굴조사 실시 후 현재 보존·보호조치 중이다. 봉수대는 방호벽 내부에서 동-서 일렬로 연결된 연조 4기 확인되었다. 연조의 평면형태는 원형을 띤다. 방호벽 주변으로 환도가 둘러져 있고 우물 또는 고사 1기가 환도 내에 위치한다. 또한 봉수대 석재를 채취한 채석장이 남동쪽 인근지역에 있어 채석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사진 4. 부로산봉수대 드론촬영1



사진 5. 부로산봉수대 드론촬영2



사진 6. 안내판



사진 7. 방호벽 평면



사진 8. 방호벽 외벽1



사진 9. 방호벽 외벽2



사진 10. 연조1



사진 11. 연조2



사진 12. 연조3



사진 13. 연조4



사진 14. 환도



사진 15. 채석장



사진 16. 우물



사진 17. 부로산붕수대 주변 채집유물

7. 지정가치와 근거기준

1) 조선시대 내지붕수의 설봉 시기와 최종 폐봉까지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는 통신시설이다.

- 조선 전기 1454년에 발간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기록이 없고, 1469년에 발간된 『경상도속찬지리지』에는 기록이 있으므로, 위천붕수는 1454년부터 1469년 사이에 설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조선 전기 『경상도속찬지리지』부터 구한말 『증보문헌비고』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 조선 후기 발간의 『해동지도』(1724)와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 등의 고지도(古地圖)에 빠짐없이 표기되어 있다.

2)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다양한 유물 수집은 붕수 운영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붕수대는 방호벽과 연조, 환도와 추정 우물 등이 남아 있다. 그리고 유물도 많이 수집되었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붕수가 운영되었을 당시를 유추할 수 있으며, 붕수군이 붕수대에 주둔하면서 생활하였던 생활상도 파악할 수 있다.

3) 언양현 치소에서 붕수가 바로 후망되는 근거리에 입지한다.

- 언양읍성에서 서북쪽의 붕수까지 2.1km의 근거리로 붕수를 관리하기 좋은 위치에 자리한다.
- 치소와 붕수 사이에는 중간에 언양천이 흐르고, 동-서 좌우에 언양평야의 형성으로 치소의 가시권이 확보된

다.

4) 접근성이 뛰어나다.

- 일부 봉수유적의 경우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입지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반면, 부로산봉수는 언양읍 소재지에서 2.1km 내의 거리에 위치한다. 그리고 현 시가지가 있는 읍치와 가깝고 봉수의 높이도 높지 않아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다.
- 등산객이 많이 찾아오는 산행길이기도 하여 봉수를 정비·복원할 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5)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다.

- 전봉(前烽)은 조선 전(全) 기간 동일하게 위천봉수와 15.36km의 거리로 대응하고 후봉(後烽)은 소산봉수와 9.31km의 거리로 대응한다.
- 언양은 조선시대 경주, 밀양, 울산, 부산, 양산 등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지나는 곳으로 교통의 요지를 점하는 지역이 바라보이는 곳에 설치된 것이 부로산봉수대라고 할 수 있다.



사진 18. 부로산봉수와 대응봉수



사진 19. 언양읍성과 부로산봉수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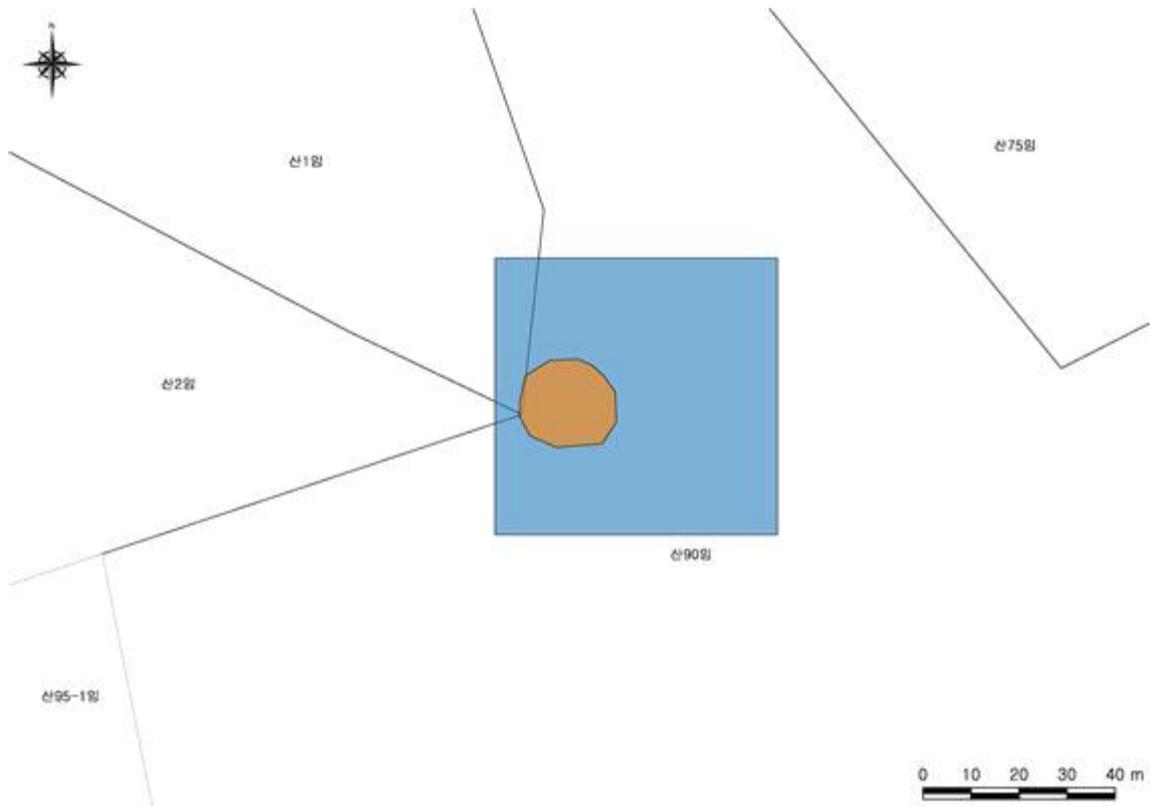
8. 지정대상과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 지정구역)

• 지정면적 : 2필지 / 5,364㎡(문화재 461㎡, 보호구역 4,903㎡)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건조물인 경우 (면적: ㎡)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물면적(연면적,건축면적)수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46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산90	임	77,818	461								
계				77,818	461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4,90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산90	임야	77,818	4,761.7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산1	임야	56,529	141.3								
				134,347	4,903								



도면 2.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S=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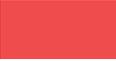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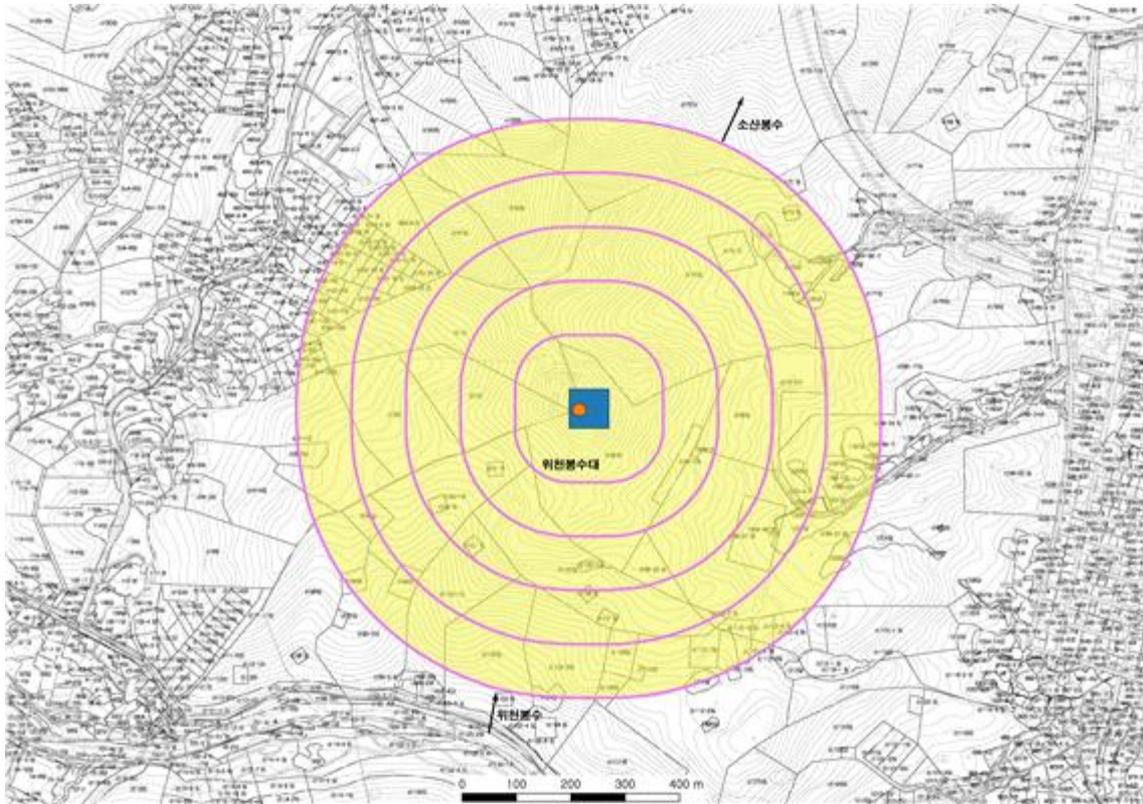
도면 3.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

9.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검토의견

- 부로산봉수 전·후 대응노선 봉수의 방향을 고려한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

울산시	울산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p>■ 대상문화재 제2로 직봉 - 울산 부로산봉수유적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산90번지 일원</p> <p>■ 문화재 및 보호구역  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보호구역</p> <p>■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간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p> <p>■구역별 허용기준</p>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 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0. 보존·정비와 활용 착안사항

1) 기본구상

(1) 기본방향

① 기본원칙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1.6.10.] [법률 제17409호, 2020.6.9. 일부개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문화재청, 2002)

- 문화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문화재 활용은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사업의 소재로서 개발·활용하며,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육성한다.

『유적(遺蹟) 정비계획 수립·추진관련 고려사항』(문화재청, 2003)

- 가치(원형) 보존 최우선: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복원·정비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비를 지양하고, 유적의 가치와 역사적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명확한 정비목표 수립: 유적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적 정비를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한다. 보존과 복원·정비되어야 할 것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 :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고, 유적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방향 설정

부로산봉수대에 대한 간략한 시굴조사는 실시된 바 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보존·정비와 관리계획은 없었다. 이에 합리적인 보존·정비와 관리안을 상기 기술한 기본원칙에 따라 타 시·군 소재 봉수의 보존·정비와 관리사례를 검토하고 주변 현황과 여건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 봉수대의 보존·정비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도모하고,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과 울산시의 역사문화관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동선체계 등 기반시설의 확충안을 수립한다.
- 봉수는 조선시대 500여년간 변경의 안위 여부를 전·후 대응봉수간 차차거화(次次擧火)를 통해 최종 중앙에 알리던 호국군사통신 유적으로서, 부로산봉수는 봉수 성격에 의한 구분상 내지봉수(內地烽燧)에 해당한다.
- 봉수는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평안을 상징하는 1거의 햇불[平安火·太平火]을 올림으로서 과거 언양현과 인근 고을 백성들이 이를 바라보고 일상을 마무리하는 순기능도 있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울산시 소재 전체 여덟 개소 봉수의 보존·정비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봉수대의 잔존 방호벽과 연대 등의 역사적 실체를 보존·정비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시킨다.
-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활용되었던 봉수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정보통신 발달의 상징적 유적으로 보존·관리한다.
- 경상도와 충청도·경기도를 거쳐 최종 서울 목멱산봉수로 이어지는 내지봉수 체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원한다.

(2) 기본전제

① 잔존 봉수 유구의 보존과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

봉수대의 핵심요소인 거화시설(연조)과 방호시설(방호벽) 및 생활시설(주거지)을 대상으로 보존·정비하여 부로산봉수의 문화재적 가치가 표출되도록 한다.

② 역사문화자산 가치 증진 및 화제성 창출

과거 봉수체가 국가의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던 당시에 봉수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봉수군과 봉수운영 관련된 기록과 내용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유적과 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화제성이 창출되도록 정비한다.

③ 대응봉수와의 조망을 위한 가시권 확보

입지조건상 봉수대의 북동쪽에 있는 언양현의 옛 치소가 잘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한 봉수는 인근 대응봉수와의 후망을 통해 언양지역과 고을 백성들에게 변경의 안위여부를 알리던 군사통신유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적 강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계획한다.

조선 후기에 최종 설정된 대응봉수인 위천봉수와 소산봉수와의 가시권 확보 외 봉수 주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식생이 양호한 기존의 자연경관 유지 방안을 제시한다.

④ 주연야화(晝煙夜火) 통신의 특징을 살린 ‘체험과 교육의 장’ 조성

햇불과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 소식을 전하였던 봉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적의 복원보다는 체험과 실연(實演)을 통한 거화의 과학적 원리를 교육한다.

기존의 진입로를 활용하여 최적의 보행환경과 교육적 기능을 갖춘 탐방로 조성을 통해 부로산봉수의 500여

년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⑤ 주변 문화자원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

봉수대의 동남쪽에는 ‘언양읍성, 언양향교, 천전리성, 위열공 김취려의 묘’ 등이 위치 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봉수와 인근 유적을 통합적으로 연계·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⑥ 실현가능한 세부추진사업 도출과 단계별 사업시행

울산시의 재정여건이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토지 매입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필요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3) 종합구상

① 추진사업 계획

역사적 실체 보존 사업을 실시한다.

- 식생정비(소목 간벌), 봉수 내부 잔디 식재, 봉수군 주거지 정비 등 문화자원 연계 개발사업을 실시한다.
- 탐방로(봉수군 길) 정비, 스토리텔링 개발, 체험 프로그램 및 축제 개발, 봉수 C.I개발, 동선 표지판·전망시설 및 망원경 설치 등.
- 기반시설 구축사업
- 봉수대 주변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 등.

② 토지이용계획

봉수대 일원은 개인 소유의 임야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산90번지 일원에 소재하며 면적은 461㎡이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토지대장 2021.9.)

현재 부로산봉수는 산행로에 위치하여 찾아오는 산행객이 많은 편이며, 이 탐방객들은 봉화산 아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온다. 향후 제2거 직봉 노선 봉수의 사적지정이 확정되고 보존·정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 시 탐방객에게 보다 쾌적한 역사경관과 편리한 탐방 환경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

③ 동선계획

봉수대 주위의 수목을 선별적으로 간벌하여 대응봉수간 조망이 가능하도록 정비 할 필요가 있다. 봉수 주변 식생이 양호한 임야는 가급적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확대는 기존 현상변경허용기준 적용구역의 확대를 수반한다. 인접 봉수간의 조망 확보를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아울러 보호구역 외곽 200m정도는 1구역 (개별 심의) 또는, 2구역 <최고높이 8m이하(평지붕), 최고높이 12m이하(경사지붕)>으로 설정하여 역사 문화 환경과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진입로에서 봉수대의 원경을 볼 수 있도록 간벌 등을 통해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봉수군들이 이용했던 소로(진입로)는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이 길을 통한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2) 보존과 정비활용계획

(1) 보존계획

① 봉수유적 보존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는 거화시설인 연조와 방호시설인 방호벽이 잔존하고 있으나, 고종 32년(1895) 윤5월 6일, 봉수제의 최종 폐지 후 13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봉수 내외 무성한 수풀잡목으로 그 형태를 뚜렷하게 확인하기 곤란하다.
- 따라서, 과거 봉수의 운영당시 원형구조를 밝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수를 구성하였던 제반 요소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비와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에 대한 최근의 시굴조사를 통해 전체 구조의 확인이 가능함으로 이를 바탕으로 운영당시의 모습대로 단계적으로 정비·복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조선시대 내지봉수의 형태와 기능을 학습·체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공간으로 조성한다.

다. 추진방법 및 절차

- 시굴조사만으로 봉수대의 기초자료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차후 예산을 확보하여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봉수유적 전반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여 복원의 기초자료로 삼아야 한다.
- 먼저 방호시설인 방호벽과 추정 봉수군 주거지에 대한 원형구조를 확인한다.
- 연대는 주위 수풀잡목을 간벌하고 방호벽 내부에는 잔디를 식재하여 보존한다.

② 수목 간벌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대 내·외는 현재 무성한 수풀잡목으로 대응봉수와의 조망이 곤란하거나 유구 훼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적절한 간벌을 통하여 유적 보존 및 가시권(可視圈)을 확보한다.

나. 사업내용

- 현재 봉수대 주위와 내에는 수목이 들어차 있어 대응봉수의 조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목을 선별적으로 벌목하여 대응봉수인 위천봉수와 소산봉수에 대한 조망을 개선한다.

다. 추진방법

- 벌목작업은 봉수유구의 보존, 주변경관 조망, 봉수의 제반요소 감상 등에 장애를 주는 수목부터 선별하여 실시한다.
- 봉수대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경관이 확보되도록 수목을 제거한다.
- 등억천전로변에 있는 등억마을 임도를 따라 봉수대로 향하는 수목을 정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동선을 유도한다.

(2) 정비·활용계획

① 전망시설과 휴식공간 설치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의 정체성과 주요 기능은 대응봉수와의 시각적 연결에 있다. 현재, 봉수는 내·외부의 수목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제한적이고, 전체 봉수유구를 살펴 볼 수 없다. 조선시대 봉수는 대응봉수와의 조망과 주변 관찰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였으므로 이러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나. 사업내용

- 봉수대 주변 적당한 곳에 봉수의 전체 구조와 대응봉수, 주변 자연환경, 시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 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조선시대 봉수의 입지선정 원리를 체감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과 절차

- 전망시설은 봉수대 주변 시야가 가장 좋은 지점에 설치하되,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봉수의 역

사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안내판에 대응봉수를 촬영한 사진을 표시하여 눈앞에 펼쳐진 전경과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망시설에는 망원경 등을 설치한다.
- 전망시설 하부나 주위에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방문객에게 휴식과 사색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② 봉수군 탐방로 정비

가. 추진배경과 목표

- 봉수의 서쪽에 위치하는 등업마을에서 봉수대로 이어지는 ‘봉수군 탐방로’를 조성하여 문화콘텐츠로 활용한다.

나. 사업내용

- 탐방로를 개설하고, 봉수 관련 이야기와 비품 등을 소개함으로써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과거 봉수의 기능과 운영 및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노변(路邊) 전시관 기능을 하게 한다.

다. 추진방법

- 기존의 길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요 지점에는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고 벤치 등의 휴식시설을 도입한다.
- 안내판의 내용은 울산 부로산봉수(夫老山烽燧)의 비치물목을 토대로 봉수운용에 필요한 비치물목상의 거화재료나 생활비품 등을 선별하여 사진자료와 함께 해설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獻山誌』(1786)의 夫老山烽燧 備置物目
 『獻山誌』彦陽本縣誌 烽燧什物
 煙坵一 煙窟五 火德一 望德二 火箭九柄 唐火箭九柄 長箭三部 片箭一部 桶兒一箇 鎗二柄 火藥五兩九錢 鉛九十箇 弓二張 環刀二柄 大白旗一面 火繩一沙里 鳥銃二柄 木斧子二十柄 戰角一 火鐵二箇 防牌六坐 火桶五 米一石 柳器一部 鎌子四柄 條所三巨里 法首木五 前梯一目 井一坐 釜一坐 棧杖二十箇 古道羅十五箇 草席二立 瓢子五介 水瓮五坐 盤五立 匙五箇 接匙一竹 沙鉢五立 爐口一坐 無稜石五訥 同化注乙三巨里 滅火器五 水槽六種 火盆一 炬五十柄 排大木六 松炬五十柄 積柴五訥 火因草五訥 土木五訥 橋注乙一巨里 草炬五十柄 同炬三柄 炭五石 灰五石 細沙五石 槽糠五石 艾五同 馬糞五石 牛糞五石 瓦家四間 斧一柄 槽桶五坐 核子抹木無數完置 三穴銃一柄 空石五立 縣瓢子五箇 俺頭俺身各一部 火綿一 藥升一箇 鉦一面 長槍二柄 五色表旗五面 火鐵石十箇 鼓一坐 櫃一坐 生松一訥 黑角弓二張

(3) 봉수 거화(擧火) 실연(實演) 행사

① 추진배경과 목표

봉수는 연기[주간]와 불[야간]로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시설인 만큼 실제 거화(擧火)나 거연(擧煙) 같은 실연(實演)행사의 실시를 통해 선조들의 봉수운영 원리를 체득하게 한다.

② 사업내용

연기와 불이라는 시각신호로 변경의 안위여부를 전달하였던 봉수의 연조 형태와 구조, 거화재료의 종류와 배합 등을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이 실증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크기의 연조를 제작한 후 실연(實演)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③ 추진방법과 절차

먼저 실연행사를 할 수 있는 연조(煙竈)를 제작하되 설치장소는 행사 시 화재 발생이나 유구 훼손에 대비하여 유적과 일정거리 떨어진 곳으로 한다. 연조의 크기와 구조 등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다.

거화재료[흙]는 울산 부로산봉수 비치물목을 참고하여 준비하고 전통방식에 따라 제작한 후 사용한다. 행사의 진행은 지역 문화단체가 담당하고 연중 개최시기는 ‘신년, 정월대보름, 8·15광복절, 울산시민의 날, 쇄부리 축제’ 중 의미있는 날을 정하여 개최하도록 한다. 봉수 실연행사를 쇄부리 축제 등과 연계하는 방법도 봉수를 알리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4) 관리운영계획

① 관리운영 주체

울산시 울주군에서 관리

(울산연구원 등 학술연구조사 기관에 위탁관리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② 관리운영 목표

가. 부로산봉수대의 보존과 유지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

나. 탐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도모

다. 부로산봉수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의 극대화

라. 유적의 학술적 가치 극대화와 신규 문헌 발굴 등

③ 관리운영사항

가. 봉수대 유적

- 부로산봉수대 일원

- 부로산봉수대 주변 탐방로 등

나. 자연환경

- 부로산봉수대 주변 수목 및 지형

- 주변 생태환경, 녹지 등

다. 시설물

- 탐방로, 전망시설 등

- 안내판, 방향지시판, 휴게시설 등

-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라. 탐방객을 위한 서비스

- 홍보, 해설, 전시, 축제행사 등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④ 사업 추진절차

가. 문화재지정구역 및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는 먼저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정밀 문화재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한 후 도출된 조사결과에 따라 정비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입 → 조사(발굴) → 정비의 순이다. 부로산봉수는 기(既) 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더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정비단계에 따르되 대상지가 안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정밀 문화재조사 후 복원·정비의 단계를 결정한다.

나. 매입 단계는 정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국·공유지화 하는 단계로서 대상지의 지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 파악과 매입에 예상되는 비용 및 매입의 원활성을 판단하여 정비의 선후를 결정한다. 부로산봉수의 정비사업은 대상지 내 유선 봉수대를 중심으로 매입하고 이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⑤ 순차별 사업계획

가. 봉수대의 보존·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체 사업비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초기 2년의 정비를 단기정비로 설정하고 이후의 계획 중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기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단기사업은 정비사업의 기간 및 지자체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나. 보존·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추진 절차, 시급성, 사업비,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다. 봉수대 보존과 주변정비사업은 방호벽과 연조 정비, 식생정비[간벌 등], 전망 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정비사업의 원칙은 유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선정한다.

라.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편리하고 쾌적한 출입 및 동선체계 구축을 위한 주차장 마련 및 진입광장 조성 사업을 단기에 시행하고 관광 역량 제고를 위한 간이 안내소 설치나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은 중기에 진행한다.

마. 이들 추진사업은 울산시청의 정책 순위 변경과 주민들의 요구도, 제반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1. 종합의견

- 1) 울산 부로산봉수는 조선시대 전체 5거노선의 봉수 체계에서, 부산에서 초기하는 제2거 직봉의 여섯번째 내지봉수이다. 2014년 현황조사, 2018년 시굴조사 그리고 이번 지표조사를 통해 방호벽과 연조, 환도, 추정우물, 채석장 등을 확인하였다.
- 2) 조선 전기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1425)에서부터 구한말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1908)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지에 빠지지 않고 등재되어 있는 제2거 직봉 노선의 주요 봉수다.
- 3) 봉수성격에 의한 구분상 내지봉수이다. 언양읍성이 잘 조망되는 곳으로 읍치와 봉수와의 근접성이 이 봉수의 중요한 입지적 특징이다. 언양군의 현 치소가 바로 읍성이고 읍성이 현재 정비 중에 있으므로 봉수대도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
- 4) 부로산봉수대의 평면 형태는 원형이고 면적은 500㎡ 정도이다. 유구의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봉수대 내부에서 다량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봉수대의 구조와 시설, 봉수군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치소와 인접하여 봉수를 관리하기에도 유리하다.
- 5) 언양은 조선시대 경주·밀양·울산·자인·양산 등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발달하였다. 교통의 요지로 주위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봉수대를 설치하였다.
- 6) 봉수는 단일 유적보다는 통신체계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 노선별 주요봉수, 잔존상태, 역사성, 지정번호 부여방식 결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적지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